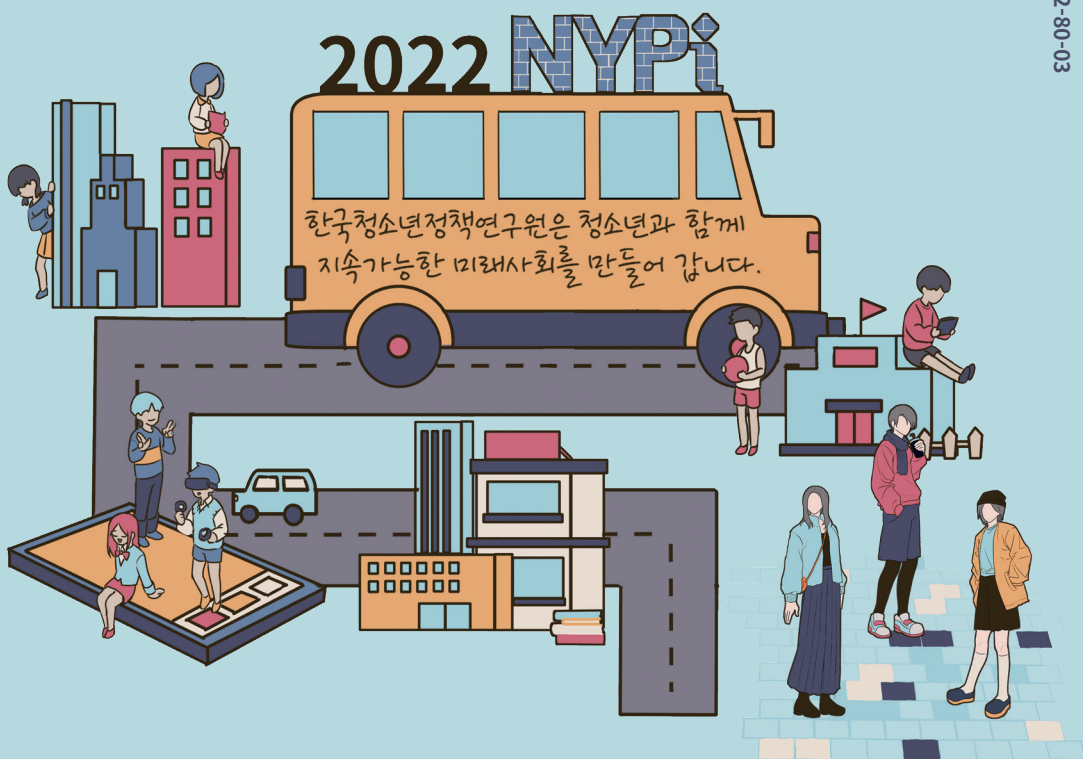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이우태 · 조정아 · 이규창 · 이지순 · 최규빈 · 김정원 · 장인숙 · 박환보 · 최종학



협동연구총서 22-80-03

연구보고22-일반08-0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저 자 이우태, 조정아, 이규창, 이지순, 최규빈,
김정원, 장인숙, 박환보, 최종학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이우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조정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이규창(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_최규빈(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_김정원(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_장인숙(남북하나재단 선임연구위원)
_박환보(충남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_최종학(통일연구원 연구원)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청년종합연구 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2-80-01	청년종합연구 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80-0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2-80-0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통일연구원
22-80-04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2-80-05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미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소연(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이우태 연구위원	조정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창(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규빈(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원(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장인숙(남북하나재단 선임연구위원) 박환보(충남대학교 교수) 최종학(통일연구원 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이상정 부연구위원	류정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하태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박광욱 교수	이기연(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 이복실(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안예지(경일대학교 교수) 양해만(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임) 김상희(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 송기호(성공회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생)

보고서를 펴내며

한국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정착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및 탈북청소년 실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 계층의 정착과 적응 실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탈북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와 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정부의 북한이탈주민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배경청년의 실태 파악에 주목하였다. 2021년 기준 한국에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청년 계층의 비중이 높다. 청년 시기는 고등교육을 거쳐 구직, 취·창업, 결혼,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생애 전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제3국출생청년 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현실을 반영해 연구 대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법적 지위를 가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북한출생청년과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중국 등 제3국출생청년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와 가족, 교육 및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가치관, 관계 및 참여라는 조사항목을 통해 북한배경청년의 정착 실태를 한국사회 일반 청년과 비교하고, 제3국출생청년을 포함한 북한배경청년들을 위한 정착자립 및 역량 강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지원체계에서 제3국출생청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지원제도 ‘확대’에 초점을 두기보다 기존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파악하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한국사회 내 북한배경청년이 갖고 있는 특성과 필요를 확인하고 한국의 청년 정책과 사회복지체계 차원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탈북 현상 장기화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와 유형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북한이탈주민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배경청년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규명함.
- 북한배경청년의 주요 범주별 차이를 규명하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취약한 북한배경청년 집단의 주거, 생활, 취업, 심리·정서 실태를 파악함.
- 북한배경청년의 정착자립과 정책소외 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 연구방법

- 북한배경청년 관련 문헌연구 및 2차 자료를 분석함.
- 북한배경청년 자립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 북한배경청년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함.
- 북한배경청년 자립생활 실태 및 정책방안 제안을 위해 북한배경청년 및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대면조사를 실시함.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북한배경청년 대상 법제 비교 결과 제3국출생청년의 경우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북한배경청년 지원체계 운영에 있어 각 부처, 기관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와 사업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2년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결과’와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 북한배경청년과 일반청년과의 영역별 정책 수요 차이를 확인함.
 - 〈인구와 가족〉 북한배경청년은 결혼에 더 미온적이었으며,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의 해외 이주 고려 비율이 높음.
 - 〈교육 및 훈련〉 제3국출생청년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학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학문제로 인한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있음.
 - 〈경제와 고용〉 북한배경청년들은 일반청년보다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있었으며, 노동시장 진입에 상대적으로 난관이 있음.
 - 〈주거〉 북한배경청년들은 일자리, 학교 등의 이유로 임대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건강〉 북한배경청년은 정서적·심리적 관찰이 필요했으며, 제3국출생청년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낌.
 - 〈가치관〉 북한배경청년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로 ‘존중’으로 응답했으며, 사회로부터 포용과 존중에 대한 욕구가 컸음.
 - 〈관계 및 참여〉 북한배경청년들은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교류나 소통의 빈도가 낮았음을 확인함.
- 북한배경청년의 정착자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은 제3국출생청년 정책 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서비스 지원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의 거버넌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함. 마지막으로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함.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협동연구총서 22-80-03
연구보고22-일반08-02

I.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추진체계	9
3. 연구 내용	10
4. 연구 방법	12
5. 연구 기대 효과	14

II. 북한배경청년의 이주 요인 및 일반 특징

1. 북한배경청년 범주 논의	17
2. 북한배경청년 이주 요인	25

III. 북한배경청년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법제 현황

1. 북한출생청년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	44
2. 제3국출생청년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	52
3. 정책소외계층청년·외국인 법제와 북한배경청년법제 비교	60

Ⅳ.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체계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73
2.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주요 서비스	87
3.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전달체계 검토	98

Ⅴ.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조사개요	103
2. 인구와 가족	106
3. 교육 및 훈련	135
4. 경제와 고용	208
5. 주거	321
6. 건강	354
7. 가치관	393
8. 관계 및 참여	416

Ⅵ. 북한배경청년 정착자립 및 역량강화 방향

1.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방향	519
2.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법제 개선 방안	522
3. 북한배경청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527
4. 북한배경청년 실태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530

Ⅶ. 결 론

551

참고문헌

559

부 록

571

표 목차

표 I -1. 출생지 지원체계 및 북한이탈주민법상 지원 내용 비교	6
표 II -1. 20대, 30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19
표 II -2. 2021년 5월 통일부 등록자료 기준 북한이탈주민 현황	20
표 II -3. 출생지별 탈북학생 수 변화	22
표 II -4. 북한배경청년의 분류 및 법적 지위	23
표 II -5. 북한이탈주민 배출-흡인 모형	27
표 II -6.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탈북동기 응답 비율	29
표 II -7.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일람표	36
표 II -8. 북한의 대중 수출입 현황	38
표 II -9.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	38
표 III -1.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 변천	44
표 III -2.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 대상	47
표 III -3. 일반청년정책과 북한출생청년정책 비교	51
표 III -4. 일반청년정책과 제3국출생청년정책 비교	55
표 III -5. 19대 국회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의 제3국출생청년 관련 조문	57
표 III -6. 20대·21대 국회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의 제3국출생청년 관련 조문	60
표 III -7. 정책소외계층청년 및 외국인 보호·지원 정책	64
표 IV -1. 정착지원협의회 유관부처 및 기관별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74
표 IV -2.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78
표 IV -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80
표 IV -4.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80
표 IV -5. 남북하나재단 주요 사업 개요	82
표 IV -6. 하나센터 주요 지원 서비스	85
표 IV -7. 하나센터 현황 (2022년 5월)	86
표 IV -8.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심화직업교육훈련	90
표 IV -9. 취업지원 사업 주요 내용	92

표 IV-10. 2021년 5월 통일부 등록자료 기준 북한이탈주민 현황	94
표 IV-11. 근로소득 성별·연령대별 총급여	94
표 IV-12. 여성취업 장애 요인(상위 5순위, 복수응답)	95
표 IV-13.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96
표 IV-14. 결혼 및 양육 등 북한이탈주민 여성 대상 지원 사업 주요 내용	97
표 V-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04
표 V-2. FGI 및 심층면접 대상자 정보	105
표 V-3.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06
표 V-4.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07
표 V-5.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10
표 V-6.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10
표 V-7.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 상징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12
표 V-8. 가장 적절한 가족의 개념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13
표 V-9. 결혼 경험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14
표 V-10. 배우자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15
표 V-11. 결혼 준비 경험 여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16
표 V-12. 결혼 준비 경험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17
표 V-13.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18
표 V-14. 결혼을 망설임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19
표 V-15. 맞벌이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20
표 V-16. 현재 자녀 존재 유무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21
표 V-17. 현재 자녀 존재 유무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21
표 V-18.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24

표 V-19.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24
표 V-20.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26
표 V-21.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26
표 V-22.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 1순위(상위 5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29
표 V-23.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 1+2+3순위(상위 5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30
표 V-24.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31
표 V-25. 해외 이주 고려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 131
표 V-26. 해외 이주 고려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 133
표 V-27. 한국에서의 최종학력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35
표 V-28.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 진로, 직업 취업 상담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39
표 V-29.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 진로, 직업, 취업 상담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39
표 V-30.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진로와 직업 수업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43
표 V-3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진로와 직업 수업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43
표 V-32.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45
표 V-33.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45
표 V-34. 휴학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47
표 V-35. 휴학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48
표 V-36.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50

표 V-37.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50
표 V-38.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52
표 V-39.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53
표 V-40.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54
표 V-41.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55
표 V-42.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56
표 V-43.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57
표 V-44.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58
표 V-45.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58
표 V-46.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60
표 V-47.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61
표 V-48.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62
표 V-49.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62
표 V-50.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63

표 V-51.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64
표 V-52. 취업준비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67
표 V-53. 취업준비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67
표 V-54. 취업 준비 경험_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69
표 V-55. 취업 준비 경험_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받는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70
표 V-56. 취업 준비 경험_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71
표 V-57. 취업 준비 경험_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71
표 V-58. 취업 준비 경험_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73
표 V-59. 취업 준비 경험_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73
표 V-60. 취업 준비 경험_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75
표 V-61. 취업 준비 경험_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75
표 V-62. 취업 준비 경험_5) 면접 훈련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77
표 V-63. 취업 준비 경험_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78
표 V-64. 취업 준비 경험_6) 자소서 작성 훈련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78
표 V-65. 취업 준비 경험_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79
표 V-66. 취업 준비 경험_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80
표 V-67. 취업 준비 경험_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80

표 V-68. 취업 준비 경험_8) 현장실습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81
표 V-69. 취업 준비 경험_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82
표 V-70. 취업 준비 경험_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82
표 V-71. 취업 준비 경험_10)인턴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83
표 V-72. 취업 준비 경험_10) 인턴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84
표 V-73. 취업 준비 경험_11) 봉사활동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85
표 V-74. 취업 준비 경험_11) 봉사활동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86
표 V-75. 취업 준비 경험_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87
표 V-76. 취업 준비 경험_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87
표 V-77. 취업 준비 경험_13) 희망하는 일자리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88
표 V-78. 취업 준비 경험_13) 희망하는 일자리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88
표 V-79.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학교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89
표 V-80.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 _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89
표 V-8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	
_2) 공공기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90
표 V-82.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	
_2) 공공기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91
표 V-83.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사설기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93
표 V-84.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	
_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93

표 V-85.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 _4)부모님이나 친인척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95
표 V-86.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 _4) 부모님이나 친인척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95
표 V-87.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친구, 선후배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196
표 V-88.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 친구, 선후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97
표 V-89. 주체별 도움 내용_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98
표 V-90. 주체별 도움 내용_2) 공공기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99
표 V-91. 주체별 도움 내용_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00
표 V-92. 주체별 도움 내용_4) 부모님이나 친인척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01
표 V-93. 주체별 도움 내용_5) 친구, 선후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02
표 V-94.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03
표 V-95.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03
표 V-96.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04
표 V-97.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04
표 V-98.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05
표 V-99.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06
표 V-100.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08
표 V-101.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09

표 V-102.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11
표 V-103.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11
표 V-104.	갚아야 할 채무 여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13
표 V-105.	갚아야 할 채무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13
표 V-106.	채무 발생 이유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15
표 V-107.	채무 발생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15
표 V-108.	채무 발생 기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17
표 V-109.	채무 발생 기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17
표 V-11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18
표 V-11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19
표 V-11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20
표 V-113.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21
표 V-11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22
표 V-11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22
표 V-116.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23
표 V-11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24
표 V-118.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25

표 V-11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25
표 V-12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27
표 V-12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가 없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27
표 V-12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28
표 V-123.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가 없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28
표 V-12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29
표 V-12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가 없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29
표 V-126.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30
표 V-12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이 없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30
표 V-128.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_1) 학교 졸업 여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31
표 V-129.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_1) 학교 졸업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31
표 V-130.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_2) 근로 기간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32
표 V-131.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_2) 근로 기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33
표 V-132.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_3) 주당 근로 시간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34
표 V-133.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_3) 주당 근로 시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34
표 V-134.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35

표 V-135.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35
표 V-136.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37
표 V-137.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38
표 V-138.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에 대한 도움 정도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39
표 V-139.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에 대한 도움 정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39
표 V-140.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41
표 V-141.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41
표 V-142.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지 여부 및 참여 의향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42
표 V-143.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지 여부 및 참여 의향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43
표 V-144.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1) 하나원 직업훈련교육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44
표 V-145.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2)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하나원 수료 이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45
표 V-146.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3) 하나센터 취업전문상담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46
표 V-147.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4) 산업단지 온라인 구인·구직 포털(KICOXJOB)을 통한 구인·구직 매칭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47
표 V-148.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5) 각종 채용박람회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49
표 V-149.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6) 지자체 제공 취업교육 및 지원(취업교육 및 언어·직응력교육 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50
표 V-150. 플랫폼 노동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51
표 V-151. 플랫폼 노동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52
표 V-152. 지난 4주간 플랫폼 노동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53

표 V-153. 지난 4주간 플랫폼 노동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53
표 V-154.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54
표 V-155.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55
표 V-156.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56
표 V-157.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56
표 V-158.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1) 일을 시작한 시기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	257
표 V-159.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1) 일을 시작한 시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58
표 V-160.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2) 근속년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59
표 V-161.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2) 근속년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60
표 V-162.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3) 종사상 지위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	262
표 V-163.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3) 종사상 지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62
표 V-164.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4) 고용형태-임금근로자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64
표 V-165.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4) 고용형태-임금근로자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64
표 V-166.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4) 고용형태-비임금근로자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65
표 V-167.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4) 고용형태-비임금근로자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66
표 V-168.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5) 근로시간 유형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67

표 V-169.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 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6) 직업_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69
표 V-170.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6) 직업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69
표 V-171.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8) 종사자 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71
표 V-172.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7) 종사자 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71
표 V-173.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9-1) 교육수준 대비 업무 직무 수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73
표 V-174.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8-1) 교육수준 대비 업무 직무 수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73
표 V-175.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9-2) 기술수준 대비 업무 직무 수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74
표 V-176.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8-2) 기술수준 대비 업무 직무 수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75
표 V-177.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9-3)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76
표 V-178.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8-3)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76
표 V-179.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10) 현재 일자리에 대한 생각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78
표 V-180.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9) 현재 일자리에 대한 생각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78
표 V-181.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및 희망 월 평균 소득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80
표 V-182.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및 희망 월 평균 소득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80

표 V-183.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81
표 V-184.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82
표 V-185. 추가 노동 가능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	283
표 V-186. 추가 노동 가능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	283
표 V-187. 추가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84
표 V-188. 추가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85
표 V-189.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86
표 V-190.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86
표 V-191. 이직 의향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88
표 V-192. 이직 의향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88
표 V-193. 이직 희망 사유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89
표 V-194. 이직 희망 사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90
표 V-195. 직장 내 괴롭힘_1)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91
표 V-196. 직장 내 괴롭힘_1)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91
표 V-197. 직장 내 괴롭힘_2)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	292
표 V-198. 직장 내 괴롭힘_2)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93
표 V-199. 직장 내 괴롭힘_3)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암묵적, 직접적으로 강요하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94
표 V-200. 직장 내 괴롭힘_3)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간접적·직접적으로 강요하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94

표 V-201. 직장 내 괴롭힘_4)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95
표 V-202. 직장 내 괴롭힘_4)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96
표 V-203. 직장 내 괴롭힘_5)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97
표 V-204. 직장 내 괴롭힘_5)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97
표 V-205. 직장 내 괴롭힘_6)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암묵적,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내 요구를 무시하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298
표 V-206. 직장 내 괴롭힘_6)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암묵적·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내 요구를 무시하였다 (병가, 휴가, 휴직, 교육훈련 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99
표 V-207. 직장 내 괴롭힘_7)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	300
표 V-208. 직장 내 괴롭힘_7)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 (이메일, 메시지, 전화 포함/성적 농담, 성추행 등 포함)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00
표 V-209. 직장 내 괴롭힘_8)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01
표 V-210. 직장 내 괴롭힘_8)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01
표 V-211. 산업 안전_9)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02
표 V-212. 산업 안전_9)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02

표 V-213. 산업 안전_10)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03
표 V-214. 산업 안전_10)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04
표 V-215. 산업 안전_11)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05
표 V-216. 산업 안전_11)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05
표 V-217. 산업 안전_12)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06
표 V-218. 산업 안전_12)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원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를 받은 적이 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06
표 V-219. 교육,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지속 기간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07
표 V-220. 교육,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연도별 추이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08
표 V-221. 구직활동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09
표 V-222. 지난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상위5위)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10
표 V-223. 지난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상위5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11
표 V-224.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12
표 V-225.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13
표 V-226. 실업급여 인지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	315
표 V-227. 실업급여 인지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	315
표 V-228. 실업급여 수급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	317
표 V-229. 실업급여 수급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	317
표 V-230.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	318
표 V-231.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	319

표 V-232.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21
표 V-233.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22
표 V-234.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24
표 V-235.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25
표 V-236.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27
표 V-237.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27
표 V-238.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30
표 V-239. 집의 의미-1순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31
표 V-240. 집의 의미-1+2+3순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32
표 V-241. 향후 주거 마련 시 중요사항-1순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35
표 V-242. 향후 주거 마련 시 중요사항-1+2+3순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36
표 V-243. 부모 동거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38
표 V-244. 부모 동거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38
표 V-245. 미혼 독립 거주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41
표 V-246. 주거 형태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42
표 V-247. 주거 형태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42
표 V-248. 현재 거주지 주택의 점유형태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45
표 V-249. 현재 거주지 주택의 점유형태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46
표 V-250. 주거 비용 마련 방법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48
표 V-251. 주거 비용 마련 방법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49
표 V-252. 주거비용 마련을 위한 금융대출 여부 및 비율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52
표 V-253.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54

표 V-254. 건강검진 수검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55
표 V-255.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56
표 V-256.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56
표 V-257.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58
표 V-258.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58
표 V-259.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60
표 V-26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60
표 V-26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61
표 V-262.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62
표 V-263.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63
표 V-264.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64
표 V-265.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64
표 V-266.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66
표 V-267.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66
표 V-268.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68
표 V-269.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2) 비교적 잘 지냈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69
표 V-270.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3) 상당히 우울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70
표 V-27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71

표 V-272.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71
표 V-273.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73
표 V-274.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74
표 V-275.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75
표 V-276.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76
표 V-277.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9) 마음이 슬펐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77
표 V-278.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78
표 V-279.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79
표 V-280. 삶의 만족도 - (1) 생활수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80
표 V-281. 삶의 만족도 - (2) 건강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80
표 V-282. 삶의 만족도 - (3) 삶에서 성취한 것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81
표 V-283. 삶의 만족도 - (4) 가족 관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82
표 V-284. 삶의 만족도 - (5) 친구 관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83
표 V-285. 삶의 만족도 - (6) 일반적 대인 관계(학교, 직장, 동네에서의 인간 관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84
표 V-286. 삶의 만족도 - (7) 안전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85
표 V-287. 삶의 만족도 - (7) 삶 전반에서의 안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85
표 V-288. 삶의 만족도 - (8) 미래 안정성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86

표 V-289. 삶의 만족도 - (8) 미래 안정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87
표 V-290. 삶의 만족도 - (9) 시간적 여유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88
표 V-291. 삶의 만족도 - (10)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환경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89
표 V-292. 삶의 만족도 - (11) 전반적인 나의 인생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90
표 V-293. 삶의 만족도 - (11) 전반적인 나의 인생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91
표 V-294.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93
표 V-295.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94
표 V-296.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96
표 V-297.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96
표 V-298.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98
표 V-299.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99
표 V-300.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399
표 V-301.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00
표 V-302. 선호하는 가치_5) 타인의 이목 중시 VS 자신의 주관 중시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00
표 V-303. 선호하는 가치_5) 타인의 이목 중시 VS 자신의 주관 중시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01
표 V-30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02
표 V-30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03
표 V-306.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05

표 V-307.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05
표 V-308.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06
표 V-30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07
표 V-310. 일에 대한 생각 - (1) 소득이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08
표 V-311. 일에 대한 생각 - (1) 소득이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09
표 V-312. 일에 대한 생각 - (2)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비정규직 일도 선택할 수 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10
표 V-313. 일에 대한 생각 - (2)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비정규직 일도 선택할 수 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10
표 V-314. 일에 대한 생각 - (3) 일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내야 한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11
표 V-315. 일에 대한 생각 - (3) 일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11
표 V-316. 일에 대한 생각 - (4) 직장의 업무 내용이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12
표 V-317. 일에 대한 생각 - (4) 직장의 업무 내용이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13
표 V-318. 일에 대한 생각 - (5) 나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 또는 출산도 포기할 수 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14
표 V-319. 일에 대한 생각 - (5) 나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 또는 출산도 포기할 수 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14
표 V-320.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16

표 V-32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17
표 V-32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17
표 V-32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18
표 V-32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19
표 V-32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19
표 V-32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21
표 V-327.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21
표 V-328.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22
표 V-329.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22
표 V-330.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23
표 V-33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23
표 V-33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24

표 V-33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24
표 V-334.	대면교류 - (1) 가족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27
표 V-335.	대면교류 - (1) 가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28
표 V-336.	대면교류 - (2) 친인척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29
표 V-337.	대면교류 - (2) 친인척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30
표 V-338.	대면교류 -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31
표 V-339.	대면교류 -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32
표 V-340.	대면교류 -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34
표 V-341.	대면교류 -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35
표 V-342.	대면교류 -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36
표 V-343.	대면교류 -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37
표 V-344.	비대면교류 - (1) 가족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	438
표 V-345.	비대면교류 - (1) 가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39
표 V-346.	비대면교류 - (2) 친인척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40
표 V-347.	비대면교류 - (2) 친인척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40
표 V-348.	비대면교류 -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42
표 V-349.	비대면교류 -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42
표 V-350.	비대면교류 -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43

표 V-351. 비대면교류 -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44
표 V-352. 비대면교류 -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45
표 V-353. 비대면교류 -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45
표 V-354. 평소 감정 - (1)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46
표 V-355. 평소 감정 - (1)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47
표 V-356. 평소 감정 - (2)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48
표 V-357. 평소 감정 - (2)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49
표 V-358. 평소 감정 - (3)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50
표 V-359. 평소 감정 - (3)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50
표 V-360. 평소 감정 - (4)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52
표 V-361. 평소 감정 - (4)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52
표 V-362. 평소 감정 - (5) 나는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54
표 V-363. 평소 감정 - (5) 나는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54
표 V-364. 평소 감정 - (6) 나는 주위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55
표 V-365. 평소 감정 - (6) 나는 주위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55
표 V-366. 평소 감정 - (7) 나는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56
표 V-367. 평소 감정 - (7) 나는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56
표 V-368. 평소 감정 - (8) 나는 스스로 적극적이고 호의적이라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58

표 V-369. 평소 감정 - (8) 나는 스스로 적극적이고 호의적이라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58
표 V-370. 평소 감정 - (9) 나는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59
표 V-371. 평소 감정 - (9) 나는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59
표 V-372. 평소 감정 - (10)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60
표 V-373. 평소 감정 - (10)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60
표 V-374. 평소 감정 -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61
표 V-375. 평소 감정 -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61
표 V-376. 평소 감정 - (12) 나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62
표 V-377. 평소 감정 - (12) 나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63
표 V-378. 평소 감정 - (13) 나는 내가 원할 때에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64
표 V-379. 평소 감정 - (13) 나는 내가 원할 때에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64
표 V-380. 평소 감정 - (14) 나는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65
표 V-381. 평소 감정 - (14) 나는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66
표 V-382. 평소 감정 - (15) 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67
표 V-383. 평소 감정 - (15) 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67

표 V-384. 평소 감정 - (16)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68
표 V-385. 평소 감정 - (16)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68
표 V-386. 평소 감정 - (17)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69
표 V-387. 평소 감정 - (17)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69
표 V-388. 평소 감정 - (18)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70
표 V-389. 평소 감정 - (18)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70
표 V-390.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기간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72
표 V-391.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기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72
표 V-392.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73
표 V-393.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74
표 V-394.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의 소속감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78
표 V-395.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의 소속감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78
표 V-396.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79
표 V-397.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79
표 V-398. 아동청소년기 경험 - (1)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80
표 V-399. 아동청소년기 경험 - (1)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81
표 V-400. 아동청소년기 경험 - (2)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82

표 V-401. 아동청소년기 경험 - (2)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83
표 V-402. 아동청소년기 경험 - (3)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85
표 V-403. 아동청소년기 경험 - (3)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86
표 V-404. 아동청소년기 경험 -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87
표 V-405. 아동청소년기 경험 -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87
표 V-406. 아동청소년기 경험 -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88
표 V-407. 아동청소년기 경험 -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89
표 V-408. 아동청소년기 경험 -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90
표 V-409. 아동청소년기 경험 -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91
표 V-410. 성인기 경험 -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92
표 V-411. 성인기 경험 -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92
표 V-412. 성인기 경험 - (2)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94
표 V-413. 성인기 경험 - (2)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94

표 V-414. 성인기 경험 - (3)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95
표 V-415. 성인기 경험 - (3)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95
표 V-416. 성인기 경험 - (4) 내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96
표 V-417. 성인기 경험 - (4) 내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96
표 V-418. 성인기 경험 - (5)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97
표 V-419. 성인기 경험 - (5)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97
표 V-420.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499
표 V-421.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99
표 V-422.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벗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501
표 V-423.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벗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501
표 V-424.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3)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503
표 V-425.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503
표 V-426.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504
표 V-427.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504
표 V-428.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5) 향의 전화하기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505

표 V-429.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5) 항의 전화하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505
표 V-430.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510
표 V-431.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510
표 V-432.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511
표 V-433.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512
표 V-434.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513
표 V-435.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513
표 VI-1. 북한이탈주민 연령	522
표 VI-2. 북한이탈주민 성별고용률 (2021년)	523
표 VI-3. 출생지별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내역 비교	525

그림 목차

그림 Ⅰ-1. 출생지별 탈북학생 수 변화	5
그림 Ⅰ-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7
그림 Ⅰ-3. 연구 주관 및 협동 연구기관 체계	9
그림 Ⅱ-1. 북한이탈주민 증가 추이	18
그림 Ⅱ-2.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성별 비교	18
그림 Ⅱ-3. 연령대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1
그림 Ⅱ-4. 출생지별 탈북학생 수 변화	22
그림 Ⅱ-5. 요인별 북한이탈주민 탈북동기	30
그림 Ⅱ-6. 연령별 탈북동기 응답률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 (자유를 찾아서))	31
그림 Ⅱ-7. 연령별 탈북동기 응답률 (식량이 부족해서)	32
그림 Ⅱ-8. 연령별 탈북동기 응답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32
그림 Ⅱ-9. 연령별 탈북동기 응답률 (북한에 함께 있던 가족을 따라서)	33
그림 Ⅱ-10. 연령별 탈북동기 응답률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거나 함께 살기 위해)	33
그림 Ⅱ-11. 연령별 탈북동기 응답률 (가족(자녀 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	34
그림 Ⅲ-1. 연도별 북한배경청년 입학 추이	54
그림 Ⅳ-1.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이후 정착지원 체계 구축 과정	72
그림 Ⅳ-2. 제2차 및 제3차 기본계획	76
그림 Ⅳ-3. 하나원-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87
그림 Ⅳ-4.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1)	88
그림 Ⅳ-5.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2)	98
그림 V-1.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07
그림 V-2.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11
그림 V-3. 배우자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15

그림 V-4. 결혼 준비 경험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17
그림 V-5. 현재 자녀 존재 유무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22
그림 V-6.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25
그림 V-7.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27
그림 V-8. 해외 이주 고려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32
그림 V-9. 한국에서의 최종학력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36
그림 V-10.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 진로, 직업, 취업 상담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40
그림 V-1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진로와 직업 수업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44
그림 V-12.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46
그림 V-13.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64
그림 V-14. 취업준비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68
그림 V-15. 취업 준비 경험_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72
그림 V-16. 취업 준비 경험_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74
그림 V-17. 취업 준비 경험_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76
그림 V-18. 취업 준비 경험_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79
그림 V-19. 취업 준비 경험_10) 인턴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84

그림 V-20. 취업 준비 경험_11) 봉사활동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86
그림 V-2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	
_2) 공공기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91
그림 V-22.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	
_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194
그림 V-23. 갇아야 할 채무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14
그림 V-2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19
그림 V-25.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36
그림 V-26.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에 대한 도움 정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40
그림 V-27.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지 여부 및 참여 의향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43
그림 V-28.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4) 산업단지 온라인 구인·구직 포털(KICOXJOB)을 통한 구인·구직 매칭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48
그림 V-29.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6) 지자체 제공 취업교육 및 지원(취업교육 및 언어·직응력교육 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50
그림 V-30. 플랫폼 노동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	252
그림 V-31.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1) 일을 시작한 시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58
그림 V-32.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2) 근속년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60
그림 V-33.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3) 종사상 지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	263
그림 V-34.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4) 고용형태-비임금근로자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66

그림 V-35.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5) 근로시간 유형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68
그림 V-36.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6) 직업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70
그림 V-37.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7) 종사자 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72
그림 V-38.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_9) 현재 일자리에 대한 생각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79
그림 V-39. 추가 노동 가능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84
그림 V-40. 직장 내 괴롭힘_2)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	293
그림 V-41. 직장 내 괴롭힘_5)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98
그림 V-42. 교육,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연도별 추이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08
그림 V-43. 지난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상위5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11
그림 V-44.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13
그림 V-45. 실업급여 인지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16
그림 V-46.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19
그림 V-47.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22
그림 V-48.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25
그림 V-49.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28
그림 V-50. 부모 동거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39
그림 V-51. 주거 형태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43

그림 V-52. 현재 거주지 주택의 점유형태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46
그림 V-53. 주거 비용 마련 방법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49
그림 V-54.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57
그림 V-55.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59
그림 V-56.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61
그림 V-57.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62
그림 V-58.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65
그림 V-59.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67
그림 V-60.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72
그림 V-61. 삶의 만족도 - (7) 삶 전반에서의 안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86
그림 V-62. 삶의 만족도 - (8) 미래 안정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87
그림 V-63. 삶의 만족도 - (11) 전반적인 나의 인생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91
그림 V-64.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397
그림 V-65. 일에 대한 생각 - (3) 일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12
그림 V-6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20
그림 V-67. 비대면교류 - (2) 친인척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41
그림 V-68. 평소 감정 -(1)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47

그림 V-69. 평소 감정 - (3)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51
그림 V-70. 평소 감정 - (4)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53
그림 V-71. 평소 감정 - (7) 나는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57
그림 V-72. 평소 감정 - (18)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71
그림 V-73.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74
그림 V-74. 아동청소년기 경험 - (2)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83
그림 V-75. 아동청소년기 경험 -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88
그림 V-76. 아동청소년기 경험 -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89
그림 V-77. 성인기 경험 -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93
그림 V-78. 성인기 경험 - (5)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498
그림 V-79.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500
그림 V-80.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밴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502
그림 V-81.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5) 항의 전화하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506

○———— 제1장 서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 내용
- 4. 연구 방법
- 5. 연구 기대 효과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와 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배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2) 연구 필요성

이 연구의 필요성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에서 20대 및 30대 청년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청년계층의 한국 입국 및 거주 현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22년 3월 말 기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33,826명으로 이 중 20~30대는 57.1%(19,294명)에 이를 정도로 청년층 비중이 높다(남북하나재단, 2022).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연령대별 누적 북한이탈주민 인원 비중도 20대는 2017년 28.5%, 2018년 28.6%, 2019년 28.5%, 2020년 28.0%, 2021년 28.4%를 기록했다. 30대는 2017년 29.0%, 2018년 28.9%, 2019년 28.8%, 2020년 28.8%, 2021년 28.7%로 나타났다(통일부, 2022). 즉 최근 5년간 20대와 30대를 합한 비율이 56~57%대를 유지하는 등 전체 입국자에서 청년층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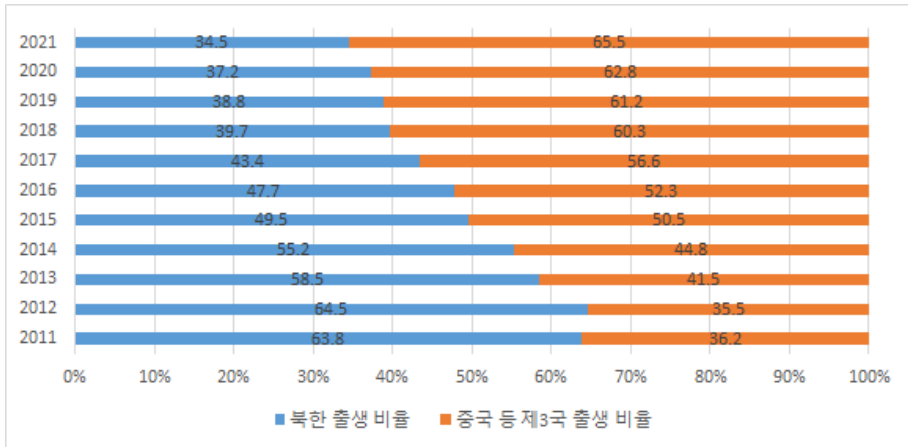
1) 1장은 통일연구원 이우태 인도협력연구실장이 집필하였다.

입국 총인원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서도 20대, 30대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남북하나재단 자료에 의하면 2021년 5월 기준, 통일부에 등록되어있는 만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29,88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7,157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었고 여성은 22,723명으로 76%를 차지해 여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음이 확인된다. 연령대로 보면 10대는 2.4%, 20대는 12.3%, 30대는 24.5%, 40대는 28.5%, 50대 이상은 32.4%로, 20대와 30대를 합한 비율은 36.8%에 이른다(남북하나재단, 2022). 즉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젊은층이 많다는 점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의 제도적·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둘째, 탈북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와 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청년 등을 포함한 북한배경청년들이 기존의 정부 북한이탈주민법에 편입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탈북 동기는 개인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이거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북한에서 극심한 식량난에 대한 자구적 노력 차원의 소위 '생계형 탈북'이 주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 비경제적 동기, 즉 '자유에 대한 동경'이나 '보다 나은 삶의 추구' 등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탈북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김정원, 김지수, 강구섭, 김성식, 2014; 손명아, 2021).

입국 유형에 있어서도 단독으로 입국한 무연고 북한출생청년 및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급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1조 2에 따르면, 무연고청소년은 24세 이하 보호대상자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만 18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인 북한출생청소년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무연고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북한출생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도 부모와의 교류가 없어 그룹홈이나 기숙형 대안학교에 생활하는 '사실상 무연고' 북한출신 청소년(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으로 보호자 없이 부모에 대한 상처나 그리움을 가지고 한국사회에 생존해야 하는 청년들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더욱 주목되는 현상은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북한출생 자녀수를 초월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들 내 집단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점이다. 2021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정규학교 재학 중인 제3국 출생 학생 비율은 2015년 50.5% → 2016년 52.3% → 2017년 56.6% → 2018년 60.3% → 2019년 61.2% → 2020년 62.8% → 2021년 65.5%로 제3국출생 인원이 2015년부터 북한출생 인원수를 넘어섰다(교육부, 2021).

(단위: %)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2). 탈북학생 현황: 출생지별 탈북학생 수 변화, <https://www.hub4u.or.kr/webmdl/sub4uStudentStatus/menuHtmlDetail.do?cmkey=11147>에서 2022년 4월 29일 인출.

주: 중국 등 제3국출생 탈북학생은 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임.

그림 1-1. 출생지별 탈북학생 수 변화

북한배경청년 중에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법상 수혜 자격 대상이 되는 청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청년 집단이 있다.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중국 등 제3국이나 남한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는 원칙적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 지위 획득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별 지원 서비스 유무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기 조건은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법 지원 내용에 포함되는 정착, 주거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보호 등이 북한출생청년들에게는 해당되나 중국 등 제3국출생청년들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제3국출생 청소년 및 청년 집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착지원에서는 정착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배경청년 집단이 사회적응과 자립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제3국출생 자녀라 할지라도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경우 북한이탈청소년의 범주로 인정되고 있으나 출생국가, 이주동기, 사용언어 등에서 일반 이주민 가정의 자녀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이은혜, 2019).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교육 과정 및 정착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법에서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대상

에 해당되지 않고, 동법 24조2에 따라 ‘탈북청소년’에 포함되어 기초 교육지원을 받지만, 정착금 및 19세 이후 청년 시기에 필요한 대학 입학 및 등록금, 직업교육 및 취업장려금 등 각종 지원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이에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법에서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출생청년과 더불어, 성공적인 정착·통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지만 현재도권 하에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는 제3국출생청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1 -1. 출생지 지원체계 및 북한이탈주민법상 지원 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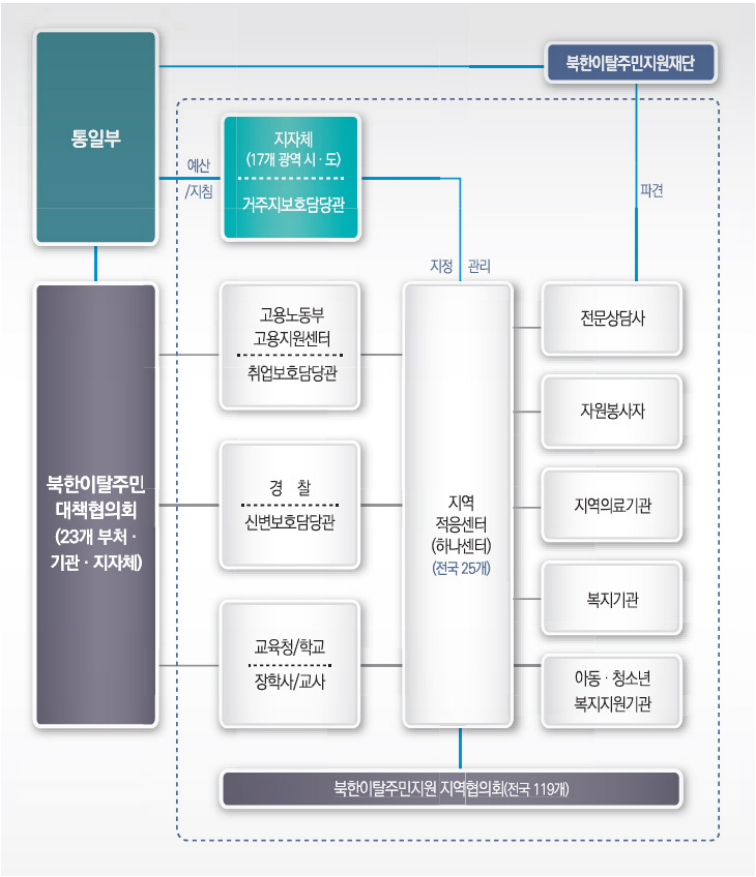
구분		북한출생 북한이탈청년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출생국		북한	중국 등 제3국 (대부분 중국)
부모 출신국		북한	부모 중 1명 이상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법 상 지원 내용	정착금	• 기본금: 1인세대 기준 800만 원 지급 • 가산금: 노령, 장애,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장기치료 등 최대 1,540만 원	• 없음
	주거 지원	• 임대주택 알선 • 1인 세대 기준 1,300만 원	• 없음
	사회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해당 시 관련 복지 급여지원 (세대지원)
	교육	•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편·입학 • 학비지원(중·고교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 예비학교 설립, 운영 • 교육부 인정 특성화 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	• 정원 내 특례입학 적용(모든 대학) • 학비지원 일부 가능'

* 출처: 이기영, 김민경 (2015), 김지수 외 (2021)를 바탕으로 본 연구 대상인 북한이탈청년에 맞게 재정리

주: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민간기부금을 활용하여 2021년 38명에게 7,600만 원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함 (관계부처 합동, 2022).

셋째, 북한배경청년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는 크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범정부차원(23개 정부부처·기관)의 정착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다음으로, 지방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여 하나센터를 지정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심리, 취업 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거주지, 신변,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지역협의회 119곳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지역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이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다(통일부, 2021).



* 출처: 통일부 (2021). 2021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p. 177.

그림 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북한배경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에 대해서는 정부 및 민간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되나, 북한배경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는 생애주기별, 출생별, 거주기간별 서비스 전달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 각 부처별로 대상 기준과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나 배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북한배경청년 중 일부는 정체성 갈등, 교육공백, 사회 적응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거주지 보호기간(5년) 경과 이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통일부는 2019년 7월 탈북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총 5회 실시하여 총 1,849명의 취약·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한 바 있다(이승열, 2021). 북한출생 북한이탈주민도 한국 사회 적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제3국출생 자녀들이 사회 정착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학교 밖 중국출생 북한이탈청년의 경우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상이 될 수 없고, 이들이 24세 이상라면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밖’ 청년과 구직 과정 혹은 취업 실패 상황에 있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취약·위기 가구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연구 주관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동연구로 진행되며, 본원(통일연구원)은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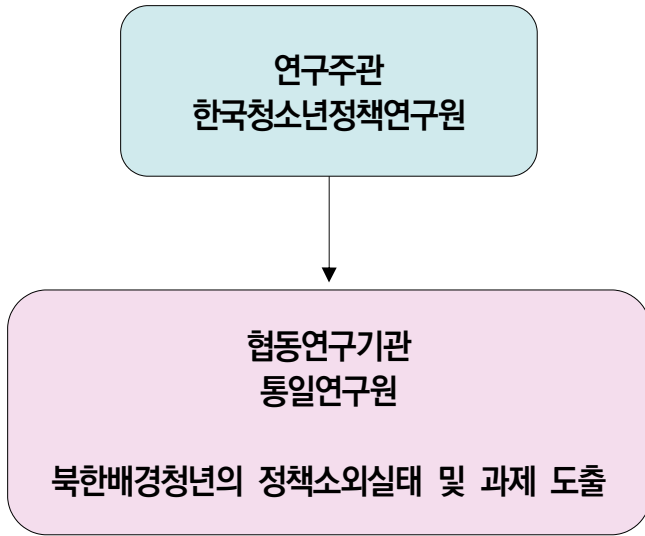


그림 1-3. 연구 주관 및 협동 연구기관 체계

본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북한배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배경청년의 정착 자립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1) 북한배경청년의 하위 범주별 차이를 규명하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취약한 청년 집단의 실태를 파악 (2) 북한배경청년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지원정책 거버넌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규명 (3) 북한배경청년의 정착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제안할 계획이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북한배경청년에 대한 실태를 규명하고, 기존의 정착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 계층을 발굴하여 이들의 정착 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제안한다.

1)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규명함

북한배경청년의 유형 및 상황에 따른 법률적 자격기준 여부를 검토하고, 주거, 교육, 생계 관련 지원 소관 부처 현황 및 제반 법체계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정부 부처별(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산하기관별(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 청소년센터)) 지원 정책 및 서비스의 중복 여부 및 효율성 여부를 파악한다.

이 연구는 북한배경청년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는 것뿐 아니라 지원정책과 관련 서비스들이 북한배경청년에게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북한배경청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원 수료 이후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과 관련된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경찰서, 고용센터(고용노동부))와 민간부분(하나센터, 민간단체 및 복지관 등)의 역할 분담을 파악하고, 기존 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배경청년을 발굴하고자 한다.

2) 북한배경청년의 주요 범주별 차이를 규명하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취약한 북한배경청년 집단의 주거, 생활, 취업, 심리·정서 실태 파악함

우선 본 연구에서 ‘북한배경청년’은 한국 정부의 「청년기본법」(이하 청년기본법)상의 기준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점을 고려,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출생 청년 및 비(非)북한출생 청년을 이른다. 여기서 비북한출생 청년은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출생으로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남한에 입국한 청년과 남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청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처럼 북한출생, 제3국출생, 남한출생 등 세 부류가 큰 틀에서 북한배경을 가진 청년이라

고 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북한배경청년의 분류를 간소화하여 북한출생 청년(이하 북한출생청년)과 중국 등 제3국출생 청년(이하 제3국출생청년) 두 하위 집단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출생으로 남한에서 태어난 북한배경청년은 분석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즉 이 연구에서 북한배경청년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법적 지위를 가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북한출생청년과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중국 등 제3국출생 청년을 의미한다.

출생지 기준 이외에도 성별로 북한배경청년을 나눌 수 있으며, 북한배경청년은 하나원 정착 준비기간(12주) 종료 이후 정착자금 및 거주지 보호지원 제도가 제공되는 5년 기간 이내에 있는 집단과 5년 이상 기간에 있는 집단으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연구의 목적은 출생지, 거주기간, 성별로 구별 짓고 비교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배경청년 내 다양성에 주목하며 현재의 정착지원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상의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북한배경청년 130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차로 북한배경청년(30명) 및 정착지원 전달체계에 관여하는 실무자(10명) 등 총 40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1차 설문조사에서 포착되는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설문 및 면담 조사 시, 일반청년층 대상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결과와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 등을 살펴볼 것이다. 현재의 법·제도 체계하에서 소외되고 생계적으로 취약한 북한배경청년 집단을 발굴하여 이들의 실태를 확인한다.

3) 북한배경청년의 정착자립과 정책소외 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반에는 북한배경청소년 및 청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배경청년의 자립지원에 포커스를 맞춘 제도 설계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법적지위를 갖고 있는 북한출생 집단과 그렇지 못한 비북한출생 집단에 따라 수혜 범위와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5년 기한이 만료된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존의 제도적 지원망이 아닌 일반사회복지 시스템에 포함된다. 북한출생청년의 경우도 개인의 학업 및 경제적 능력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고 내부의 분화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3국출생청년의 경우 기존 정착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상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기에 속한 북한배경청년의 경우도 부적응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취업이나 창업 기회를

언지 못해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몰리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청년세대는 교육, 취업 및 창업, 주거 등의 문제에 직접 해당하는 시기인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점은 북한배경청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 조치’ 마련 시 한국 사회의 보편적 청년특성, 환경변화, 다른 이주배경청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전제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배경청년의 하위 유형, 성별, 지원종료 여부 등 처해진 상황이 다양한 만큼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및 자립지원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서비스 내용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당위성, 현장에서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자립지원 패키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4. 연구 방법

1) 북한배경청년 관련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북한배경청년 관련 법제도, 정착지원 정책 변화 선행연구를 고찰할 것이다. 북한배경청소년 중단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의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정책소외 계층(무연고 북한청년, 제3국출생 청년 등) 실태에 대한 2차 자료를 검토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정부 정책 방향 및 세부 내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북한배경청년 자립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및 FGI 실시

북한배경청년 유형별, 상황별, 거주기간별에 따른 주거, 생활, 취업, 심리·정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실시한다.

우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김기현, 배정희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2021)의 청년 핵심지표와 조사항목을 검토하여 북한배경청년에게 적합한 설문조사 문항 비교 검토하여 핵심문항을 선정하고 북한배경청년에게 적합한 질문을 추가하여 설계한다.

다음으로 북한배경청년 자립생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북한배경청년 중 학령기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접촉 한계, 신변 노출 가능성, 탈북 전 과정, 입국 후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수의 모집단 확보가 쉽지 않다. 이에 130명 표본을 목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설문 문항이 완성되는 과정에서는 남북하나재단 관계자 및 재단 소속 지역별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여 북한배경청년 지원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설문 문항을 검토한다. 이후 최종 완성된 설문 문항은 북한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난이도 및 적합도 등을 최종 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3) 북한배경청년 자립생활 실태 및 정책방안 제안을 위한 심층 대면조사 실시

끝으로 북한배경청년 및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에서 포착되는 핵심 쟁점과 정책소외 집단에 대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맞춤형 정책 개발 방향성 파악을 목적으로 4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심층면담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북한배경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는 현장 실무자 및 정책 전문가 10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별도로 진행한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수행하며, 모든 면담은 참여자들의 사전 허가를 통해 녹음되며 사후 전사된 녹음자료는 면담대상자들의 유형별, 상황별로 구분하여 연구자들이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4) 생명윤리심의 진행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내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며, 연구 목적상 무연고 탈북청년 및 비보호 탈북청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료수집, 내용, 방법에 있어 생명윤리심의를 준수해야 한다. 연구계획이 확정되고 연구참여자 및 설문조사 항목 및 심층면담 질문지 내용이 결정되면 생명윤리심의를 진행한다.

5) 정책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좌담회

본 연구가 북한배경청년의 정착자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유관 부처, 전담기관, 민간지원단체와 자문회의 및 좌담회를 상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배경청년의 정착자립과 정책소외 계층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좌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등을 반영하고자 한다.

5. 연구 기대 효과

본 연구의 기대 효과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배경청년의 기초실태 및 자립현황 분석을 통해 소외계층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를 파악하고 기존 전달체계의 사각지대 집단을 발굴하는 것은 이 연구의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배경청년의 자립생활실태 및 정책소외집단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경제, 사회문화적 요인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자립지원 제도 개선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지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이 연구는 북한배경청년의 정착자립과 정책소외 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북한배경청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배경청년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포커스를 맞춘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관련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북한배경청년 중 향후 취약·위기계층이 될 수 있는 잠재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기존 정책과의 연계점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배경청년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및 자립지원 기준(안)을 제안함으로써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북한배경청년의 이주 요인 및 일반 특징

- 1. 북한배경청년 범주 논의
- 2. 북한배경청년 이주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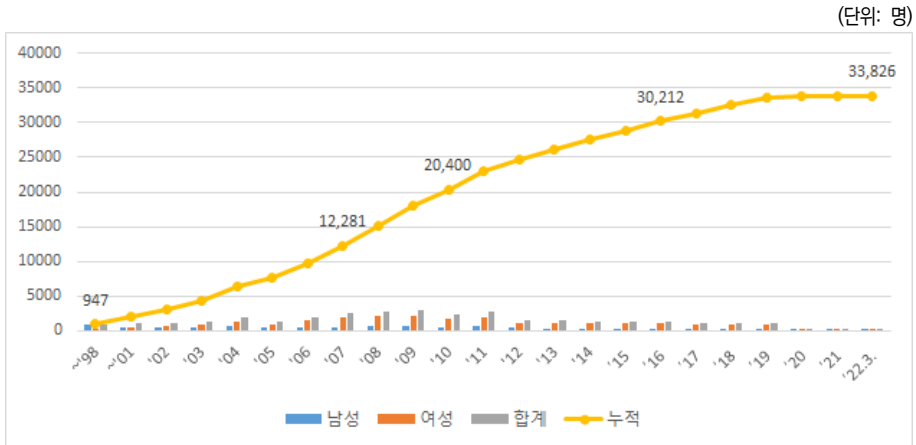
1. 북한배경청년 범주 논의

1) 입국 현황

2022년 3월 말 기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33,826명으로 집계된다. 비록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가 2020년에는 229명, 2021년에는 63명으로 급감하였지만 2000년대 후반에는 연간 3천여 명 가까이 한국에 입국하였다. 1948년 최초 귀순자 이래 1998년까지 누적 입국자 수가 947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1년 한해에만 1,043명이 한국에 입국할 정도로 그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 누적 입국자 수는 2007년 2월 1만 명을 넘어섰고 불과 3년만인 2010년 11월에는 2만 명을, 2016년 11월에는 3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통일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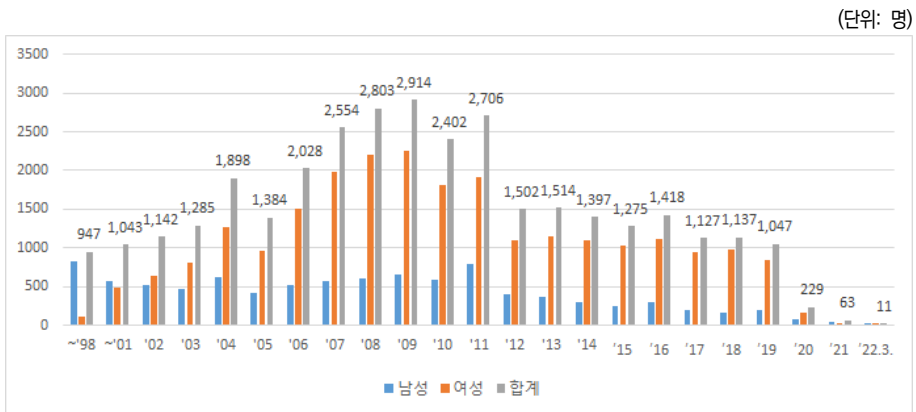
역대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중 여성의 수는 72%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2022년 3월 기준 전체 입국자 중 여성의 수는 24,349명, 남성의 수는 9,477명으로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2.6배 많은 것이다. 2001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은 경향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통일부, 2022).

2) 2장은 통일연구원 최규빈 부연구위원과 최종학 연구원이 집필하였다.



*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주요사업 통계 (2022).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에서 2022년 5월 1일 인출.

그림 II-1. 북한이탈주민 증가 추이



* 출처: 통일부 (2022). 홈페이지 주요사업 통계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에서 2022년 5월 1일 인출.

그림 II-2.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성별 비교

주목되는 것은 전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기본법상의 기준이 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대가 포함되는 20대와 30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통일부가 제공하는 2022년 3월 말 기준 연령대별 입국 현황을 보면, 20대(20~29세)가 9,590명, 30대(30~39세)가 9,704명으로 전체에서 57.1%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연령

대별 누적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볼 때도 20대는 2017년 28.5%, 2018년 28.6%, 2019년 28.5%, 2020년 28.0%, 2021년 28.4%를 기록했다. 30대는 2017년 29.0%, 2018년 28.9%, 2019년 28.8%, 2020년 28.8%, 2021년 28.7%로 나타났다. 즉 최근 5년간 20대와 30대를 합한 비율이 56~57%대를 유지하는 등 전체 입국자에서 청년 계층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1. 20대, 30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단위: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대	남	2,432	2,488	2,581	2,649	2,623
	여	6,187	6,463	6,893	6,771	6,967
	소계	8,619	8,951	9,474	9,420	9,590
	비율(①)	28.5%	28.6%	28.5%	28.0%	28.4%
30대	남	2,045	2,074	2,127	2,124	2,156
	여	6,747	6,995	7,458	7,591	7,548
	소계	8,792	9,069	9,585	9,715	9,704
	비율(②)	29.0%	28.9%	28.8%	28.8%	28.7%
합계(①+②)		57.5%	57.5%	57.3%	56.8%	57.1%

* 출처: 각 연도별 통일부 북한백서 및 북한이탈주민 통계표를 참조하여 재정리

* 주: 해당연도 입국일자 기준의 누적 인원으로 입국 후 보호시설에 있는 일부 인원이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날 수 있음.

다만 통일부 집계는 누적 입국 총인원으로 한국 거주 이후 사망, 거주불명, 이민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남북하나재단은 매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제공한다. 남북하나재단 자료에 의하면 2021년 5월 기준, 통일부에 등록되어있는 만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29,88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7,157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었고 여성은 22,723명으로 76%를 차지해 여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음이 확인된다. 연령대로 보면 10대는 2.4%, 20대는 12.3%, 30대는 24.5%, 40대는 28.5%, 50대 이상은 32.4%로 20대와 30대를 합한 비율은 36.8%에 이른다(남북하나재단, 2022).

표 II-2. 2021년 5월 통일부 등록자료 기준 북한이탈주민 현황

(단위: 명)

	1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합계
남성	345	1,319	1,799	1,479	2,215	7,157
여성	361	2,353	5,515	7,036	7,458	22,723
소계	706	3,672	7,314	8,515	9,673	29,880
비율(%)	2.4	12.3	24.5	28.5	32.4	100.0

* 출처: 남북하나재단 (2022).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주: 사망자, 거주불명자, 이민자, 특별보호대상자, 보호취소, 보호종료, 비호자 등은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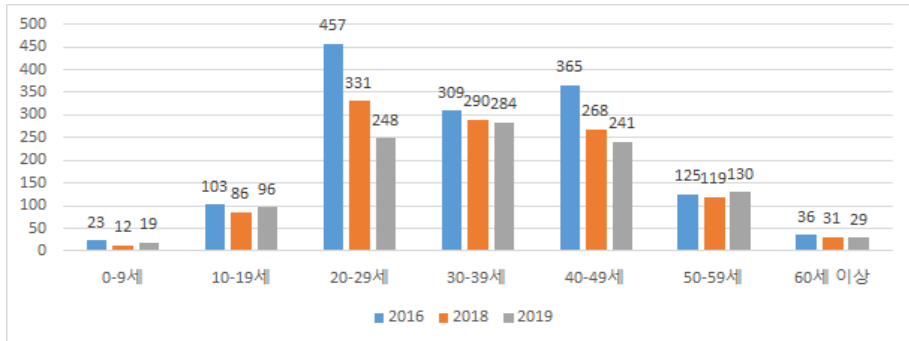
누적 입국자나 현재 거주자 현황뿐 아니라 매년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을 볼 때도 20대와 30대 유입 비중이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2018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20대는 331명으로 29.1%, 30대는 290명으로 25.5%를 차지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2019년의 경우 20대는 248명으로 23.7%, 30대는 284명으로 27.1%를 차지할 정도로 20, 30대 연령은 당해연도 입국자 중 50%를 상회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 30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입국하는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집단 탈북이 쉽지 않고 탈북의 장거리 이동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고려 때, 젊은 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한국행을 감행할 수 있는 모빌리티 역량이 크다(정진화, 손상희, 2015). 개개인의 탈북 동인은 다양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으로 이주과정을 모빌리티 역량으로 간주해 본다면 20, 30대가 탈북, 중국의 이주 및 체류, 제3국 탈북 루트 등을 통한 한국으로의 이주 및 정착에 적극적이고 모빌리티 역량 발현과 실천에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정수열, 정연형, 2021).

둘째, 탈북에 필요한 이주 정보 습득과 정보 취득을 위한 기기 이용 등에 있어서도 젊은 계층의 정보 접근성이 타 연령대보다 유리하다. 또한 북한 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진출이 용이한 상황이며, 장마당에서의 상행위를 통해서나 중국 접경 지역에서의 물자 반입 과정에서 외부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공유하는 데 익숙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성기영, 정일영, 최규빈, 최순미, 윤보영, 2018). 남녀 불문 북한주민들이 외부인과 접촉 혹은 노출되거나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은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이주 선택지로 한국을 고려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성기영 외, 2018).

셋째, 20, 30대 젊은 청년들은 소위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태어나 경제난 이전의 계획경제나 배급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이다. 이에 기성세대에 비해 체제에 대한 자부심이나 소속감이 강하지 못하며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과 이주를 적극 모색할 수 있다.

(단위: 명)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2019, 2020을 참조해 저자 작성.

그림 II-3. 연령대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탈북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배경 및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김정원 외, 2014; 손명아, 2021). 최근까지 탈북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출생’이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으로 북한지역을 이탈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주민을 뜻한다. 이에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제3국에서 체류하는 북한주민도 북한이탈주민 범주에 속하지만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출생으로 탈북하여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비북한출생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많아졌다. 여기에는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도 포함하게 된다. 특히 제3국출생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기에 탈북의 경험 자체가 부재하지만,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탈북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고 탈북과정 중에 태어나게 되므로 ‘북한 배경’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제3국출생 자녀는 한국 입국 이후 연령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하게 된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정규학교 재학 중인 제3국출생 인원이 2015년부터 북한출생 인원수를 넘어서게 되었다. 2021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정규학교 재학 중인 북한출생 학생 수는 1,073명, 제3국출생 학생 수는 608명으로 북한출생이 많았으나 2015년에는 북한출생 학생 수는 1,226명, 제3국출생 학생 수는 1,249명으로 제3국출생 인원 수가 북한출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그 이후로 그러한 경향성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 2021년 4월 기준, 전체 학생 수 2,287명에서 북한출생 인원수는 789명으로 34.5%를, 제3국출생 인원수는 1,498명으로 65.5%를 차지하고 있다. 즉 약 2/3 학생이 중국 등 제3국출생 자녀들임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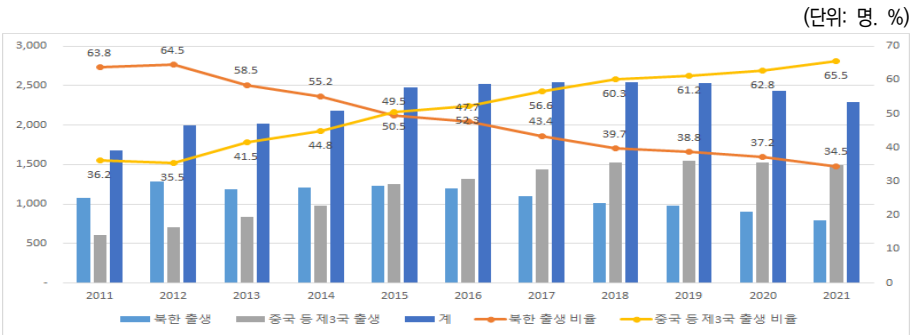
표 II-3. 출생지별 탈북학생 수 변화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북한 출생	127	(19.4)	238	(32.2)	355	(48)	69	(44.8)	789	(34.5)
중국 등 제3국 출생	527	(80.6)	502	(67.8)	384	(52)	85	(55.2)	1,498	(65.5)
계	654	(100)	740	(100)	739	(100)	154	(100)	2,287	(100)

* 출처: 교육부 (2021). 2021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서울: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주: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부모 중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북한이나 남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임.



* 출처: 교육부 (2021). 2021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서울: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그림 II-4. 출생지별 탈북학생 수 변화

2) 북한배경청년 정의 및 주요 범주

이 연구에서 ‘북한배경청년’은 한국 정부의 청년기본법상의 기준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점을 고려,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출생 청년 및 비북한출생 청년을 이른다. 여기서 비북한출생 청년은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출생으로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남한에 입국한 청년과 남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청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처럼 북한출생, 제3국출생, 남한출생 등 세 부류가 북한배경을 가진 청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북한배경청년의 분류를 간소화하여 북한출생청년과 중국 등 제3국출생청년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출생으로 남한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배경청년 범주에는 포함되나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는 제외한다. 즉 이 연구에서 북한배경청년은 북한이탈주민 법적 지위를 가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북한출생청년과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중국 등 제3국출생청년을 의미한다.

북한 출신이 아니라 북한 배경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주로 학생 및 청소년 연구 등에서 논의가 되어 왔다(이기영, 김민경, 2015; 윤석주, 2019; 이은혜, 2019; 주승현, 2020). 그렇지만 북한배경을 가진 청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배경청년을 분류하게 되면 아래와 같다.

표 II-4. 북한배경청년의 분류 및 법적 지위

구분			분류기준	출생국	법적지위
북한 배경 청년	19세~ 34세	북한 출생 청년	북한출생 북한이탈청년(가족동반)	북한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생 무연고 북한이탈청년		
		非북한 출생 청년	중국 등 제3국출생 북한이탈청년	중국 등 제3국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남한출생 북한이탈청년	한국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 출처: 저자 작성

현재 19~34세의 북한배경청년에는 「청소년기본법」(이하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연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대학교 등) 과정 중인 청년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제45조에 의하면 교육지원 대상은 대학의 경우만 35세 미만의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즉 19~34세 북한배경청년 중 일부 북한출생청년은 대학교육 지원 대상이 된다. 이점에 비추어 볼 때 하나원을 퇴소한 북한배경청년은 한국 사회에서 1)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3) 이미 취업이나 창업을 한 청년 등 다양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북한이탈주민법하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 사회진출을 시도하는 19세 이상 북한출생청년의 경우도 개인의 학업 및 경제적 능력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고 내부의 분화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황규성(2016)에 따르면 북한 청년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생존투쟁’을 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새로운 연대나 기획을 꿈꾸기에는 이들이 처한 사회적 공간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비록 학령기 북한이탈청년(북한출생청년)들이 교육 사업의 대상자로 대학 특례입학 및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 사회의 공통적인 경쟁 심화, 고학력 추구, 일자리 부족 등이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북한청년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점은 북한배경청년 중에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법상 수혜 자격 대상이 되는 청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청년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원 대상별 지원 서비스 유무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초기 조건이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특히, 제3국출생청년들은 북한이탈주민법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현재의 북한이탈주민법 지원 내용에 포함되는 정착, 주거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보호 등이 북한출생청년들에게는 해당되나 중국 등 제3국출생청년들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제3국출생 청소년 및 청년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정착지원에서는 정착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일부 북한배경청년의 사회적응과 자립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19~34세 북한출생청년들 가운데 무연고 혹은 사실상 무연고 북한이탈청년 그리고 제3국출생청년에 대한 기초 실태나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착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북한배경청년 집단의 주거, 생활, 취업, 심리·정서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배경청년의 정착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북한배경청년 이주 요인

북한배경청년 이주 요인을 알아보는데 앞서, 북한배경청년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전반, 북한이탈청소년, 북한이탈여성 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온 반면 북한이탈청년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배제되어 있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키워드 검색 결과에 따른 논문수는 ‘북한이탈청소년’ 261건, ‘탈북청소년’ 229건인 반면 ‘북한이탈청년’ 12건, ‘탈북청년’ 7건으로 청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제3국출생을 포함하는 키워드인 ‘북한배경청소년’은 3건의 연구 결과가 있지만, ‘북한배경청년’은 0건으로 북한배경청년을 주제로 하는 기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연구 주제도 청소년의 경우 교육, 보건, 의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청년의 경우 교육 및 사회 적응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북한배경청년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종 지원정책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배경청년을 중심으로 다룬 기존연구가 거의 없는 만큼 북한배경청년의 이주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 이주 요인을 다룬 기존 연구를 점검했다. 북한이탈주민 이주 요인을 다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배경청년의 이주 요인을 도출했고 나아가 그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기존 북한이탈주민 이주와 정착을 설명하는 연구들 중에서 북한배경청년 이주 요인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델은 ‘배출-흡인 모형’이었다. 따라서 먼저 배출-흡인 모형에 기반한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주 요인을 분석했고, 이어서 북한배경청년들의 이주 특징을 배출요인, 흡인요인으로 나눠 알아보았다.

1) 북한이탈주민 이주 요인 기존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요인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많이 이뤄져 왔다. 우선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오랜 교류 역사를 이주 요인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 김성경(2012)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중국 이주가 단순히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오랜 기간 북한과 중국이 접경을 마주하며 문화적, 언어적 유사성을 기반한 상호작용이 이주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접경지역에 집중 분포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국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이주 경로가 중국의 대도시로 확장되고 이어 한국까지 이어진 것으로 봤다. 이어 김성경(2013)은 북한이탈여성들이 동북 3성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데 있어서 중국 사회의 가부장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많은 북한이탈여성들이 돌봄 노동이나 성노동 산업에 종사하거나 인신매매를 통해 농촌지역에 결혼이주자로 팔려가는 현상에 주목했다. 즉 북한이탈여성이 중국 내 조선족 여성의 빈자리를 채우고 농촌지역에서의 성비 불균형과 인력난을 완화하며 남성 중심의 유흥 문화가 유지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와 정착을 국제이주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도 이주노동자와 같은 국제이주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인구이동의 일반모델인 배출-흡인(push-pull) 모형에 맞추어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이금순(2005)은 북한주민의 탈북행위를 배출요인과 흡인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분석했다. 배출요인(push factor)으로는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 위협 외에 다양한 경로로 이뤄진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흡인요인(pull factor)으로는 민간단체의 구호활동, 취업, 가족결합,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뽑았다. 이런 배출-흡인 모형은 과거 식량난 시기의 난민들을 설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흡인 유입국과 배출 유출국으로 분리하지 않은 초국가적인 관점의 연구들도 있다. 박배균(2009)은 이주자의 공간이 국경을 넘어 확대됐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진미정·김상하(2018)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보유한 무역상과 조선족의 네트워크에 주목했다. 이 네트워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이주 과정에 경유지와 일자리, 브로커 등을 제공했다. 한국에 입국해서도 이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내부 정보를 수집하거나, 북한내 가족에게 송금의 경로로 활용했다. 손명아·김석호(2017)는 나아가 초국적으로 구축된 가족 간의 관계망을 연쇄이주의 시작점으로 분석했다. 정착 이후 북한의 가족 구성원에게 그들을 따라서 북한이탈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중국 등에 있는 가족에게 입국을 권유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화순(2017)은 직행파 탈북이주자의 등장에 초점을 맞춰 북한에서 노동 이동 경험은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나 자신감을 형성함으로써 탈북을 촉진한다고 분석했다.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 북한배경청년 이주 요인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모형은 배출-흡인 모형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동기가 복잡해지면서 배출-흡인 모형의 한계가 노출되고 새로운 분석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경향은 이주를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하는 관점이며(설동훈, 2000) 그 중 배출-흡인 모형이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다(김화순, 2017). 또한 북한출신과 비북한출신으로 분류해 북한배경청년의 이주 요인을 분석하는 데는 국가단위 분석 모형인 배출-흡인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연구가 이뤄진 배출-흡인 모형을 바탕으로 북한배경청년의 이주 요인을 분석했다.

2) 배출-흡인 모형에 기반한 이주 요인 분석

배출-흡인 모형은 이주 원인을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하는 이론 중 하나로 이주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배출요인은 인구증가, 낮은 생활 수준, 경제적 기회의 부족, 정치적 억압 등이 있으며, 흡인요인은 노동수요, 토지 이용 가능성, 경제적 기회 및 정치적 자유 등이 있다. 즉 현재 사는 곳보다 이주 수용국가에서 더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이주를 결정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이주도 위 모형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결정하는 데는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을 밀어내는 배출요인과 북한 외부에서 그들을 끌어당기는 흡인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 주민 개인의 일탈이나 사적인 이유로 탈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배출요인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흡인요인이 원인이 된다. 배출요인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가족의 해체, 잘못에 대한 과도한 처벌 등 북한 내부로부터 탈북이주를 촉진하는 요인이며, 흡인요인은 중국과 남한 등 북한 밖으로부터 탈북이주를 자극하는 요소들을 뜻한다. 이외에도 흡인요인에는 외부 정보접촉으로 인한 비교의식, 탈북자 지원단체의 도움, 중국에서의 돈벌이,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 탈북 가족의 기획탈북 등이 포함된다(박명규, 김병로, 김수암, 송영훈, 양운철 외, 2011).

표 II-5. 북한이탈주민 배출-흡인 모형

	요인	세부 요인
배출요인	정치적 요인	-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 자유에 대한 갈망 - 신변의 위협
	경제적 요인	- 식량 부족 - 돈을 벌기 위해

	요인	세부 요인
흡인요인	사회적 요인	• 가족 및 주변사람의 권유 • 가족 및 주변사람을 찾기 위해 • 가족에 더 나은 환경 제공
	정치적 요인	•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경제적 요인	• 북중 간의 경제 교류
	사회적 요인	•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제공

* 출처: 저자 작성

(1) 배출요인

배출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탈북 동기 분석틀을 적용했다. 허지연(2003), 박준희(2017) 등은 탈북 동기를 정치형, 경제형, 사회형, 미래형으로 분류해 탈북 동기를 연구했다. 분류 층위에 있어서 미래형은 앞선 세 가지 요인과 분류 층위가 같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형에 포함했다. 따라서 배출요인은 구체적으로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했다.

우선 북한 정치체제는 세습, 1당, 유일 지배 체제로 정치적 배출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독재정치에 대한 불만과 개인에 대한 통제, 신변 위협과 같은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요인이 배출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북한의 독점적 정치체제가 싫거나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와 정치적인 문제로 개인이나 가족에게 신변의 변화가 생겨 탈북을 선택하게 된 경우다(박준희, 2017). 다음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 악화는 경제적 배출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등지에 머무르면서 본격적인 탈북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전의 북한이탈주민 탈북이 주로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2000년 이후로는 식량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박준희, 2017). 마지막으로 가족·친척·주변인과 관련된 사회적 배출요인이 있다. 가족·친척·주변인들이 중국, 한국 등에 거주하고 이들의 권유로 탈북이 이뤄진 경우나 가족 등에게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제공하고 싶어서 탈북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각 배출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의 일부 문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탈북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그 응답 결과를 활용한다면 배출요인의 영역별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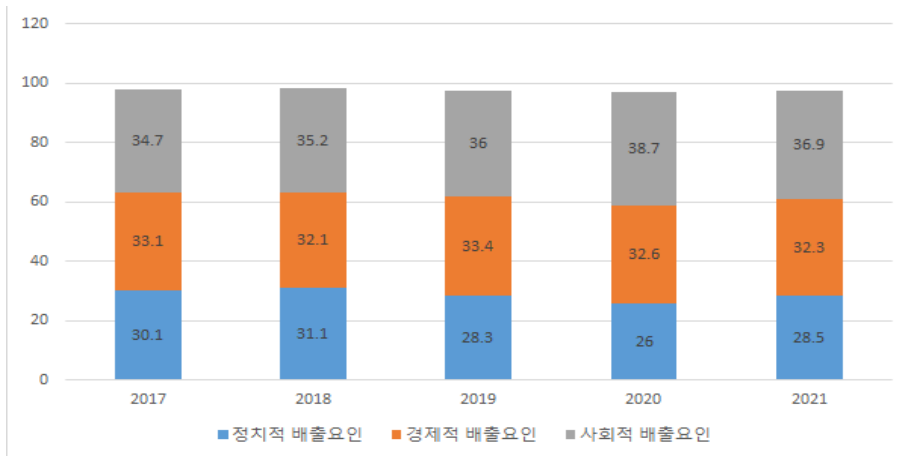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중 탈북 동기 문항의 선택지는 ‘식량이 부족해서’,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 ‘가족(자녀 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거나 함께 살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북한에 함께 있던 가족을 따라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먼저 탈북한 사람(가족 제외)이 권유해서’, ‘주변 사람(가족제외)의 권유로’ 등으로 구성된다(남북하나재단, 2022). 이 선택지를 위의 분석틀에 적용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출요인으로 재분류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자유에 대한 갈망, 신변의 위협은 정치적 배출요인, 식량 부족,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제적 배출요인, 가족 및 주변 사람의 권유, 가족에 대한 더 나은 환경제공 등은 사회적 배출요인으로 구분했다.

표 II-6.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탈북동기 응답 비율

		2017		2018		2019		2020		2021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정치적 배출요인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	23.6	42.1	25.3	43	21.5	38.4	20.5	36.2	22.8	41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6.5	18.9	5.8	15.8	6.8	16.4	5.5	14.9	5.7	14.7
	소계	30.1		31.1		28.3		26		28.5	
경제적 배출요인	식량이 부족해서	22.9	27.8	22.5	29.5	23.5	31	22.8	31.3	21.6	28.5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10.2	32.4	9.6	30.9	9.9	30.3	9.8	30.2	10.7	31
	소계	33.1		32.1		33.4		32.6		32.3	
사회적 배출요인	북한에 함께 있던 가족을 따라서	7.3	10.9	7.3	11	7.8	10.5	7.8	11.2	7.8	11.7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거나 함께 살기 위해	9.7	13.1	9.4	13	10.1	13.6	10	13.6	10.4	14.1
	먼저 탈북한 사람(가족 제외)이 권유해서	3.2	11.3	4.1	11.7	4.2	11	4.9	13	4.8	11.4
	주변 사람(가족 제외)의 권유로	2.1	7.3	1.9	7.3	2.8	8.4	2.9	8.6	3.2	8.7
	가족(자녀 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	12.4	20.1	12.5	20.1	11.1	17.2	13.1	19.4	10.7	17.4
	소계	34.7		35.2		36		38.7		36.9	
	기타	2.1	3.9	1.4	2.8	2.3	4.1	2.6	3.8	2.3	4.8

* 출처: 통계청 (2022).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 (탈북 동기). KOSIS 웹 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43701N_011&conn_path=f2022년 4월 30일 인출.

최근 5년간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배출요인을 분석하면 사회적 배출요인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 배출요인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순위 선택지를 분석했을 경우 사회적 배출요인이 근소한 차이로 가장 앞서고 있으나, 정치적, 경제적 배출요인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나아가 정치적 배출요인은 2017년 30.1%에서 2021년 28.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반면, 사회적 배출요인은 2017년 34.7%에서 2020년 38.7%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강조했던 정치적, 경제적 배출요인에 비해 가족, 지인 등의 권유 등 사회적 배출요인의 영향력이 근소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1순위와 2순위 선택지를 합한 비율을 분석했을 경우 정치적, 경제적 배출요인이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7년 42.1%로 2021년은 41%까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식량이 부족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모든 해 30% 내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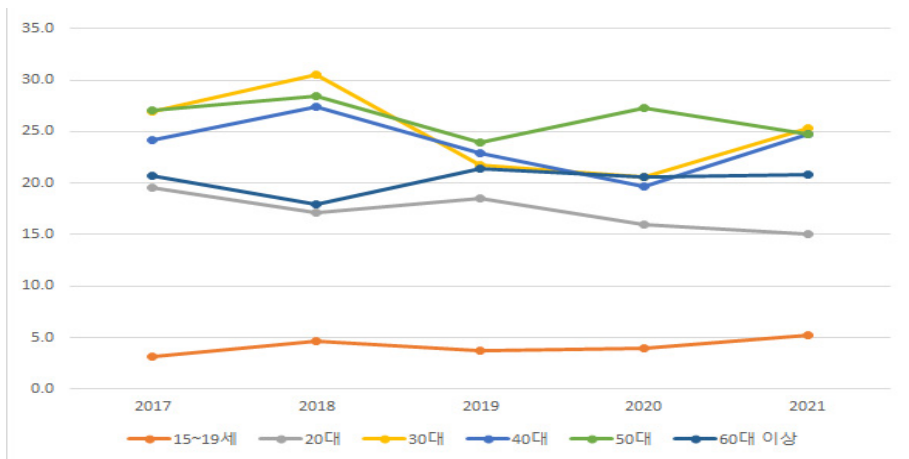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탈북동기 2017~2021를 활용해 저자 작성

그림 II-5. 요인별 북한이탈주민 탈북동기

그러나 북한배경청년의 배출요인은 위의 양상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의 북한이탈주민 배출요인을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하면 북한배경청년들의 배출요인을 유추할 수 있다. 북한배경청년은 19~34세까지로 연령별 분류상 30대에는 35세 이상이

포함되기에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20대만 북한배경청년으로 가정하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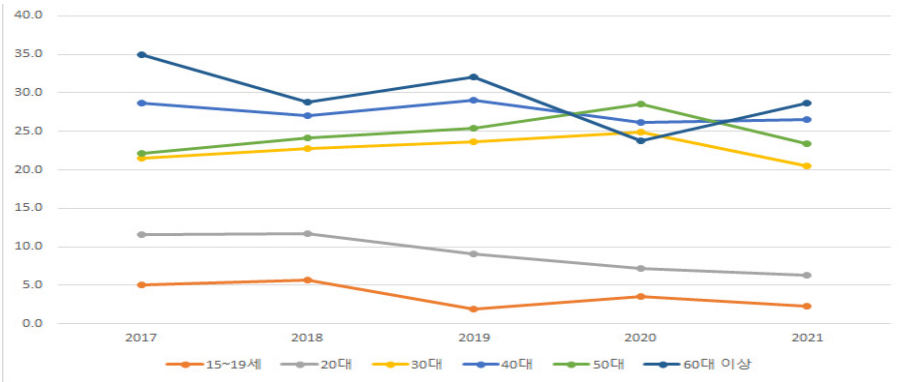
이를 통해 북한배경청년에게는 정치적, 경제적 배출요인보다 사회적 배출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선 정치적 배출요인에서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라고 응답 비율을 연령별로 분석하면 15~19세와 20대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30대 이상부터의 응답 비율은 평균 또는 그보다 높은 정도로 정치적 배출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통계청,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탈북동기 2017~2021를 활용해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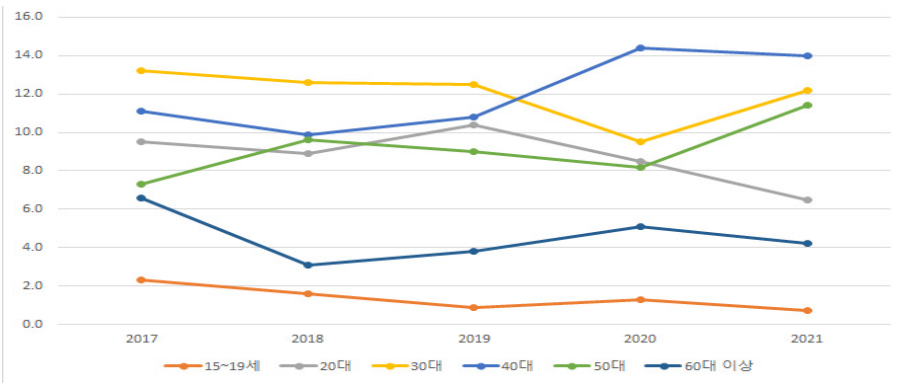
그림 II-6. 연령별 탈북동기 응답률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

다음으로 경제적 배출요인의 경우에는 15~19세와 20대가 근소하게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식량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을 연령대로 분석하면 15~19세, 20대가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15~19세의 경우 평균보다 낮지만, 20대의 경우 평균과 유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최근 입국하고 있는 북한배경청년 및 청소년들에게 식량의 문제는 기성세대들에 비해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북한배경청년들에게는 경제적 배출요인이 북한배경청소년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 출처: 통계청,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탈북동기 2017~2021를 활용해 저자 작성

그림 II-7. 연령별 탈북동기 응답률 (식량이 부족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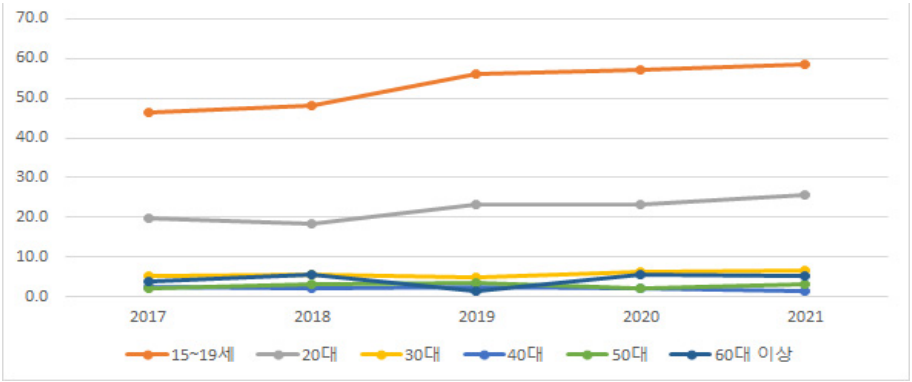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탈북동기 2017~2021를 활용해 저자 작성

그림 II-8. 연령별 탈북동기 응답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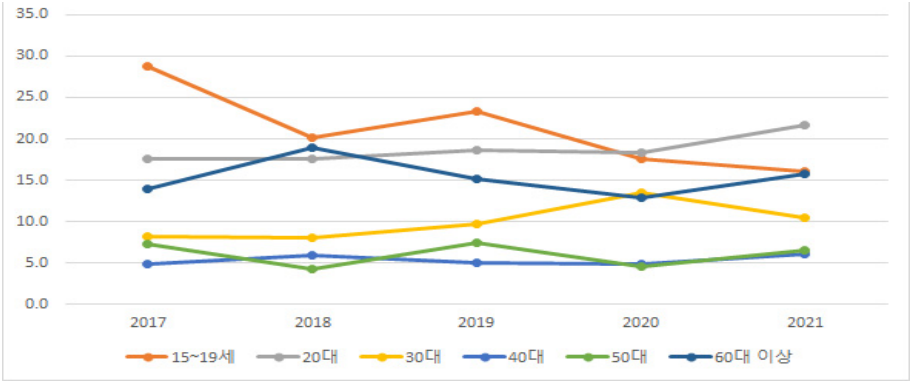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출요인 중 가족과 관련된 선택지로 ‘북한에 함께 있던 가족을 따라서’,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거나 함께 살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을 연령별로 분석하면 15~19세와 20대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가족(자녀 등)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주려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이상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5~19세와 20대는 어린 나이에 가족, 친척 등을 따라 탈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적 배출요인이 높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40대

이상의 경우는 청소년, 청년 등을 고려한 사회적 배출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 청년층의 북한이탈을 촉진하도록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성세대의 배출요인이 청소년, 청년층의 배출요인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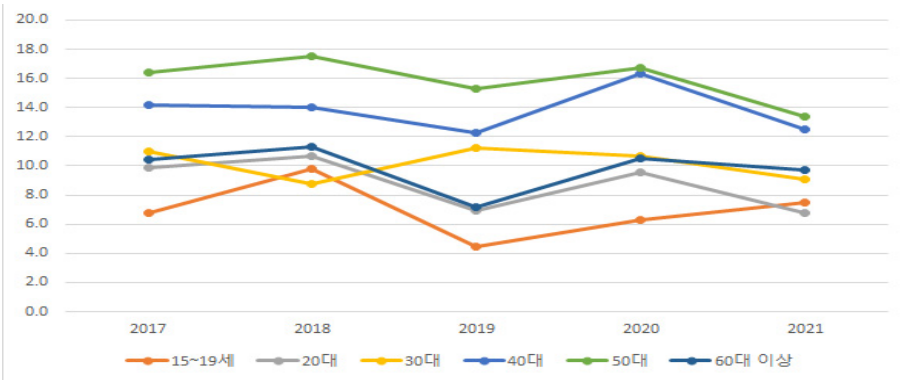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탈북동기 2017~2021를 활용해 저자 작성

그림 II-9. 연령별 탈북동기 응답률 (북한에 함께 있던 가족을 따라서)



* 출처: 통계청,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탈북동기 2017~2021를 활용해 저자 작성

그림 II-10. 연령별 탈북동기 응답률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거나 함께 살기 위해)



* 출처: 통계청,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탈북동기 2017~2021를 활용해 저자 작성

그림 II-11. 연령별 탈북동기 응답률 (가족(자녀 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

연령별 탈북 동기 분석을 살펴본 결과 북한배경청년의 배출요인 중 정치적, 경제적 요인은 감소하고 사회적 요인은 증가하는 특징이 발견된다. 여전히 북한배경청년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배출요인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가족을 따라서 어린 나이에 탈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배출요인의 영향력은 점점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배출요인의 경우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식량 문제는 북한배경청년에게 큰 배출요인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경제 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에 대한 목표가 더 큰 배출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배경청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제3국 등 비북한 출신 청년도 포함된다.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른 탈북 동기 문항에서 정치적 요인의 측정 항목을 제외하면 제3국출신 청년의 응답도 포함되며 배출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배출국을 북한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제3국출신 북한이탈청년의 배출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존 연구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을 수 없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비북한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2) 흡인요인

흡인요인의 경우 탈북을 촉진하는 외부의 변화로, 주변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의미한다. 주변국의 정치적 자유,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은 북한 주민들을

한국 또는 제3국으로 흡인하는 역할을 한다. 흡인요인 역시 배출요인과 동일하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치적 흡인요인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있으며, 경제적 흡인요인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흡인요인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유입, 제공 등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확실한 흡인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등의 보호, 복지체계에 포함되어 운영됐다. 1997년 7월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체계적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됐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의 기반이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법은 17차례의 개정을 거쳐 정비됐으며, 지역적응센터, 남북하나재단 설립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개선되며 발전되어 왔다(통일부, 2021).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이후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 인프라 확충 등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1999년 하나원이 처음 설립됐고, 201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20년 남북통합문화센터 등이 개설했다. 정착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와 사회통합조사 등도 매년 시행하며 체계를 확립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과 정착에 필요한 주택을 알선하고, 교육, 의료, 취업 등을 지원하고 정착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입국과정상의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과 정신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전문분야를 집중지원하고 있다. 보건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83.6%, 사회보장제도 만족도는 78.8%로 증가추세에 있다(남북하나재단, 2021).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결과 위기 대상자를 발굴해 신속하게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증 만성질환자를 위한 공공의료 연계를 확대하고 고령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통일부, 2021).

이런 지원정책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생활 여건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월평균 소득은 2019년 최초로 200만원대를 돌파했으며, 일반 국민들과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계급여수급률도 2017년 24.4%에서 2019년 23.8%로 감소추세에 있다(통일부, 2021). 이처럼 높은 만족도와 제도적 성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의

지원정책이 강력한 흡인요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표 II-7.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일람표

	항목	내용
사회 적응 교육	기본교육(하나원)	하나원 12주, 400시간 교육
	지역적응교육 (지역적응센터)	전국 지역적응센터 8일, 50시간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
정착금	기본금	1인세대 800만 원, 2인세대 1,400만 원, 3인세대 1,900만 원, 4인세대 2,400만 원, 5인세대 2,900만 원, 7인세대 이상 3,900만 원
	지방거주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인 자): 800만 원 장�가산금: 1,540만 원(중증), 360만 원(경증)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이상 연속 입원시): 1개월에 80만 원 (최대 9개월까지)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 세대당 400만 원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50만 원
주거	주택알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1,600만 원, 2인-4인 세대 2,000만 원, 5인 이상 세대 2,300만 원 (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 시 120만 원 120시간 당 20만 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 시 160만 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시 200만 원 추가) 자격취득 시 200만 원 자격취득장려금 및 직업훈련장려금은 '14.11.29. 이후 폐지. 다만, '14.11.28. 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는 적용
	취업장려금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 원, 지방 2,100만 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급여의 1/2을 50만 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 ※ 고용지원금은 '14.11.28.이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 적용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립 목적: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 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적용 대상: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된 자 - 약정 금액: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 원
	기타	취업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지원 바꾸처

	항목	내용
사회 보장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
	학비지원	중 고교 및 국 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 출처: 통일부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특히 북한배경청년에게는 취업과 교육 관련 정책이 강력한 흡인요인이 될 수 있다. 20~30대 청년들은 경제적 자립을 시작하는 연령대로서 취업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따르면 취업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훈련 기간 중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 후 3년간 근속 시 최대 수도권 거주자에게 1,800만 원, 지방 거주자에게 2,100만 원을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통일부, 2021). 이외에도 2014년 11월 29일 입국한 자에 대해 자산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근로소득 3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통일부, 2021). 2014년 11월 28일 이전에 입국한 자에 대해서는 직업취업장려금과 자격취득장려금을 지급해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 시 120만 원, 자격 취득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특례입학 제도와 학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통일부, 2021). 대학진학을 희망시 정원 외 특례입학 제도를 통해 대학을 입학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국·공립대 진학 시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사립대 진학 시 50%까지 등록금을 보조해주고 있다(통일부, 2021).

비북한출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흡인요인으로는 제3국출생 자녀 양육가산금이 있으며 만 16세 아동에 한해 1인당 4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통일부, 2021).

경제적 흡인요인으로는 중국과의 교류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규모의 무역 상대국으로 전체 무역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중무역은 2001년 7.4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10.2억 달러, 2009년에는 26.8억 달러로 급증했고, 2014년에는 68.6억 달러로 달한 이후 2018년 24.3억 달러로 대폭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2000년 24.4%에서 2005년 52.7%, 2015년에는 91.0%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95.4%에 이르렀다(김수정, 이석기, 2021). 이외에도 공식적인 교역 이외에 북중 접경지역

에서 성행하는 밀무역까지 포함한다면 북중 간의 교류는 더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 내 장마당(종합시장)은 450여 개가 넘고, 일반 주민들의 장마당에서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구를 기준으로 약 70~8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임강택, 박영자, 홍순직, 최철호, 2017).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국산 제품을 사용 및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외부세계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북한 사회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사회에서의 삶에 대해 동경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청년층이 교류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을 접하는 것은 그들이 탈북을 선택하는데 큰 흡인요인이 될 것이다. 경제적 흡인요인에 의한 탈북은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II-8. 북한의 대중 수출입 현황

	2001	2003	2005	2007	2009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대중 수입	5.7	6.3	10.8	13.9	18.9	22.8	35.3	35.2	29.3	33.3	22.2	25.9
대중 수출	1.7	4.0	5.0	5.8	7.9	11.9	25.0	28.7	25.8	16.7	2.1	2.2
무역 총액	7.4	10.2	15.8	19.8	26.8	34.7	60.3	63.9	55.1	50.1	24.3	28.0
무역 수지	-4.1	-2.3	-5.8	-8.1	-10.9	-10.8	-10.3	-6.5	-3.5	16.6	-20.0	-23.7

* 출처: 김수정, 이석기 (2021). 북중 무역을 통해 본 북한 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세종: 산업연구원

표 II-9.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

순위	2000		2005		2010		2015		2019	
1	중국	24.4	중국	52.7	중국	83.0	중국	91.3	중국	95.4
2	일본	23.5	태국	11.0	러시아	2.7	러시아	1.4	러시아	1.48
3	태국	10.5	러시아	7.7	독일	1.4	인도	1.2	베트남	0.86
4	인도	8.5	일본	6.5	인도	1.4	태국	0.8	인도	0.36
5	홍콩	5.8	싱가포르	2.7	태국	1.2	우크라이나	0.6	브라질	0.33

* 출처: 김수정, 이석기 (2021). 북중 무역을 통해 본 북한 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세종: 산업연구원

“중국이나 가보자, 그래 가지고 중국에 들어온 거예요. 중국 들어와 있으면서 한국 TV도 보고, 한국에 왔다가 동포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중국 당국에서 북한 사람들 확 잡아내가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북한)사람들 받아준다 이런 말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떠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진미정, 김상하, 2018)

“누가 돈벌러 중국에 가자 해가지고, 돈 벌라고 들어갔었거든요. 한달 정도 돈 벌고, 선거 참여 하려고 들었다가, 그 때는 북한을 떠난다는 게 좋았죠, 다시 돈 벌러 중국으로 건너자했는데...” (진미정, 김상하, 2018)

마지막으로 가족 및 주변인 등 네트워크 및 외부 정보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흡인요인이 있다. 중국으로 간 북한이탈주민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진로와 직업 선택의 한계나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가족 단위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손명아, 2021). 특히 여성의 탈북 비율이 증가하면서 모계적 이주 관계망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연쇄 이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진미정, 김상하, 2018). 나아가 ‘자녀 요인’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자녀의 진학 및 진로 전망을 고려하여 이주를 결정하는 것이다. 낮은 비율이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가족 이주의 동기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명아, 2021). 즉 가족 등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흡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적응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학업 등의 이유로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들어온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학생인 A는 10살 때 한국에 왔다. 북한에서 소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한국에 온 A는 북한에서의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이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기억이 전혀 없다. 학교생활이 매우 즐겁고 행복했다고 하는 A는 북한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잘해 “반에서 1등정도”였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탈북하기 전에 부모님을 통해 한국이 “잘 사는 곳”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고 했다.

A의 부모는 모두 북한에서 보기 드문 대학 졸업자다. 또한 이들은 외아들이인 A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A어머니는 자녀의 특성을 설명할 때, 북한에서와

한국 입국 후 A가 보여 준 영재성과 관련된 사례를 드는데 면담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했다. (김정원, 2017)

이와 동시에 휴대폰 이용자 증가로 북한주민들은 외부의 정보를 쉽게 접촉하고 있으며 그 횟수도 많아지고 있다(손명아, 2021). 중국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남한에 있는 가족,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북한주민의 탈북에 대한 욕구와 이주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와 접근 능력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장인숙, 최대석, 2014). 특히 북중 접경지역은 중국과 연락을 취하며 내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탈북을 알선하는 등의 사업도 성행한다. 사업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했고, 접경지대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북한의 경찰과 정보기관, 국경경비대 인원들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국경지대 주민들은 외부세계에 대한 소식을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박명규 외, 2011).

북한배경청년들은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 흡인요인이 어느 요인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휴대폰 및 IT기기 접근성이 다른 세대들보다 높고, 외부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이 습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흡인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제3장 북한배경청년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법제 현황

- 1. 북한출생청년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
- 2. 제3국출생청년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
- 3. 정책소외계층청년·외국인 법제와 북한배경청년법제 비교

본 장에서는 북한출생청년과 제3국출생청년으로 구분하여 북한배경청년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본다. 한편 2020년 2월 4일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제2조 제1항). 이 같은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추진할 경우 ①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②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③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④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이 고려되어야 한다(제2조 제2항). 이를 위해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에게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⁴⁾ 이를 근거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1~2025)」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2월 수립되었다. 북한배경청년은 청년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적용을 받는다. 본 연구보고서의 주제가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실태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배경청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법제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부모, 경제선지능청년 등 일반 소외계층청년 정책과도 비교해본다.⁵⁾

3) 3장은 통일연구원 이규창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다.

4) 기본계획에는 ①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②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③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④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⑤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⑥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⑦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청년기본법 제8조 제2항).

5)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1호).

1. 북한출생청년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

북한출생청년은 그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면서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자녀이기도 한 두 가지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두 가지 성격의 법적 지위는 북한이탈주민법과 기타 법령에 반영되어 있다.

1) 북한이탈주민법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59호로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은 이후 24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련의 개정을 거치면서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 및 정착지원은 표 III-1과 같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었다.

표 III-1.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 변천

제·개정	일시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
제정	1997.1.13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학력인정, 자격인정, 사회적응교육,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알선, 특별임용, 취직의 특례, 주거지원, 정착금지원, 거주지보호, 교육지원, 의료보호, 생활보호	제5259호
2차 개정	1999.12.28	영농정착지원, 국민연금특례, 생업지원 신설 취업알선을 취업보호로 개정	제6056호
4차 개정	2007.1.26	이혼의 특례 신설	제8269호
5차 개정	2007.5.17	취직의 특례를 가족관계등록창설 특례로 개정	제8435호
8차 개정	2009.1.30	주민등록번호 정정 특례 신설	제9358호
9차 개정	2010.3.26	지역적응센터 지정, 세제혜택, 자금 대여 신설	제10188호
10차 개정	2013.3.23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신설	제11690호
11차 개정	2013.8.13	공공기관 평가 반영 신설	제12039호
13차 개정	2014.5.28	정착자산 형성 지원 신설	제12683호

제·개정	일시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
16차 개정	2017.3.21	정착지원시설 예비학교 입소 대상에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제14608호
18차 개정	2018.3.13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신설	제15432호
19차 개정	2019.1.15	우선 구매, 거주지 신변보호 신설	제16223호
21차 개정	2021.1.5	창업 지원 신설	제17821호
24차 개정	2021.12.21	무연고청소년 보호 신설	제18596호

* 출처: 북한이탈주민법 조문을 토대로 저자 정리

2021년 12월 21일 개정되어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북한이탈주민법[법률 제18596회]상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는 적용 대상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과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 무연고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는 성별과 관련하여 남녀평등 및 모성 보호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영농(營農) 정착지원은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다(제17조의3). 세제혜택은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을(제17의4),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제17조의5)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각각 대상으로 한다. 창업지원(제17의6), 특별임용(제18조), 주민등록번호 정정 특례(제19조의3), 전문상담사제도 운영(제22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제24의3)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출생청년들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나이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돕기 위해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내에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4조의2) 그 대상

은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7조의2 제2항). 따라서 만 25~34세의 북한출생청년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 및 정착지원은 같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대상자에게만 적용되고 비보호대상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들이 있다. 보호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 신청(제7조), 보호 결정(제8조) 등 북한이탈주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2조 제2호).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비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다(제9조 제1항).⁶⁾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제11조), 학력인정(제13조), 자격인정(제14조), 사회적응교육(제15조), 거주지 적응교육 및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의 종합 실시를 위한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운영(제15조의2), 취업보호(제17조),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제19조), 이혼 특례(제19조의2), 주거지원(제20조), 정착금 등의 지급(제21조), 정착자산 형성(미래행복통장) 지원(제21조의2), 거주지보호(제22조), 거주지 신변보호(제22조의2),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제25조), 생업 지원(제26조의3), 자금 대여(제26조의4)는 보호대상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비보호대상자가 아닌 북한출생청년들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북한출생청년으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등의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다(제26조). 국민연금 특례는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제26조의2) 북한출생청년은 해당되지 않는다.

6)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삭제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을 받는다(제24조).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입학 또는 편입학시 지원은 만 2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시행령 제45조 제1호) 만 25세 이상 만 34세의 북한출생청년은 제외된다. 다만 북한출생청년이 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과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에 대한 교육지원은 만 35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시행령 제45조 제2호).

(3) 무연고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북한이탈주민법은 2021년 12월 21일 개정을 통해 무연고탈북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해당 조문은 무연고탈북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11조의2). 무연고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대상자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청소년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무연고라고 하더라도 만 25~34세의 북한출생청년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표 III-2.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 대상

보호·정착지원 내용	적용 대상	비 고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보호대상자	
무연고청소년 보호	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청소년	만 25세~만 34세 북한출생청년 미 해당
학력 인정	보호대상자	
자격 인정	보호대상자	
사회적응교육	보호대상자	
지역적응센터 지정·운영	보호대상자	
직업훈련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	
취업보호	보호대상자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간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영농 정착지원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세제혜택	북한이탈주민 채용 기업	
우선구매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주	
창업지원	북한이탈주민	
특별임용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책지원 내용	적용 대상	비 고
가족관계등록창설 특례	보호대상자	
이혼 특례	보호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정정 특례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	보호대상자	
정착금 등의 지급	보호대상자	
정착자산 형성 지원	보호대상자	
거주지 보호	보호대상자	
거주지 신변보호	보호대상자	기간: 5년, 연장 가능
전문상담사제도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만 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	만 25~만 34세 북한출생청년 미 해당
	대학, 교육대학: 만 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	
정책지원시설 내의 예비학교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 탈북 청소년	만 25~34세 북한출생청년 미 해당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책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	만 25~34세 제3국출생청년 미 해당
공유재산 대부·사용 특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 급여·교육급여·해산급 여·장제급여·자활급여	정책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	
국민연금 특례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보호대상자	북한출생청년 미 해당
생업 지원	보호대상자	
자금 대여	보호대상자	

* 출처: 북한이탈주민법 및 시행령 규정 저자 정리

(4) 탈북남성과 탈북여성 평등 및 탈북여성 모성 보호 규정

첫째,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남성과 탈북여성의 평등과 관련하여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본교육의 내용에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다(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또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남성청년과 여성청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5조 제3항).

둘째,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여성 모성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가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 제5호).

탈북여성이 북한이탈주민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그림 II-2 참조) 탈북 남성과 탈북여성의 평등, 북한배경남성청년과 북한배경여성청년의 평등 문제는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성인지적 관점 내지 젠더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⁷⁾ 그러나 본 보고서의 목적이 북한배경청년과 일반청년, 북한배경청년과 정족소외계층청년의 비교에 있다는 점에서 북한배경남성청년과 북한배경여성청년의 비교 문제는 깊이 다루지는 않는다.

2) 기타 법령

첫째, 「고등교육법」(이하 고등교육법)은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의 장은 모집 인원 100분의 10의 비율 내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1항 제5호 및 제2항).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는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연령의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둘째,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제18조). 이 법은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7)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해숙 (201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영주, 김석향, 김경희, 이슬기, 박민주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특성성별영향 분석평가. 서울: 여성가족부; 장명선, 김선옥 (2017).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 젠더적 관점. 법학논총, 29(3), 379-422; 강민주 (2020). 사회보장의 ‘젠더주류화’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법·정책 소고. 사회보장법연구, 9(2), 1-43.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탈북청소년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그런데 청소년복지법상 청소년의 나이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⁸⁾ 25~34세의 북한출생청년에게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병역 문제에 있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북한출생청년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3) 일반청년정책과의 비교·평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정책 추진에 있어 연령에 따른 청년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19~24세는 교육(학자금), 25~29세는 취업(양질의 일자리), 30~34세는 결혼·독립(주거·자산) 등을 청년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

첫째, 교육 분야의 경우 만 25세 미만 북한출생청년이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상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45조 제1호). 또한 만 6세 이상 만 24세 미만 탈북청소년은 정착지원시설 내의 예비학교에 입소할 수 있다(시행령 제47조의2 제2항).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특례입학도 가능하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청소년복지법에 의해 9세 이상 24세 이하 북한출생청년은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다(제18조).

둘째, 취업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은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취업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제17조).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게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제16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제17조의6). 북한이탈주민의 정의규정(제2조 제1호)과 보호대상자의 정의규정(제2조 제2호)에는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모든 연령대의 북한출생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주거 및 자산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법은 주거지원(제20조), 정착금 등의 지급(제21조), 정착자산 형성 지원(제21조의2), 거주지보호(제22조), 거주지 신변보호(제22조의2), 생업 지원(제26조의3), 자금 대여(제26조의4)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8) 청소년복지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본문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호대상자를 하고 있다. 공유재산 대부·사용 특례 규정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제24조의 3). 결혼과 관련하여서는 가족관계등록창설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보호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다(제19조).

이상에서 북한출생청년의 보호 및 정착지원과 관련한 법제를 살펴봤다. 북한이탈주민 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무연고청소년 보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입학 또는 편입학, 정착지원시설 내의 예비학교 입소와 청소년복지법상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은 만 25세~만 34세의 북한배경청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내의 일반청년들을 대상으로 수립·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과 비교하면 북한 출생청년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가 못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또는 보호대상자들에게는 연령에 관계 없이 취업, 주거·자산과 관련한 여러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표 Ⅲ -3. 일반청년정책과 북한출생청년정책 비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북한출생청년	
		보호 및 정착지원	연령 및 대상
19~24세	교육 (학자금)	- 교육지원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만 2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
		정착지원시설 예비학교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 탈북청소년
		- 대학특례입학 - 모집 인원 100분의 10 비율 이내에서 특례입학 가능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9세 이상 24세 이하
25~29세	취업 (양질의 일자리)	직업훈련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 이었던 사람(연령 제한 없음)
		취업훈련	보호대상자(연령 제한 없음)
		창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연령 제한 없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북한출생청년	
		보호 및 정착지원	연령 및 대상
30~34세	결혼·독립 (주거·자산) 등	• 가족관계등록창설 특례	보호대상자 (연령 제한 없음)
		• 주거지원	
		• 정착금 등의 지급	
		• 정착자산 형성 지원	
		• 거주지 보호	
		• 거주지 신변보호	
		• 생업 지원	
		• 자금 대여	
		• 공유재산 대부·사용 특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연령 제한 없음)

* 출처: 저자 작성

2. 제3국출생청년 보호 및 정착지원 법제

1) 법제 현황

제3국출생청년 관련 법제는 북한이탈주민법, 고등교육법, 청소년복지법, 국적법 등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다(제25조 제1항; 통일부, 2021).⁹⁾ 따라서 제3국출생청년이 보호대상자의 가족인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법상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도 그 적용 대상을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의3).

셋째, 북한이탈주민법은 정착지원시설 내에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부 또는 모가 함께 정착지원 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다(제24조의2 제1항).¹⁰⁾ 다만 그 대상은 만 6세

9)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잔여 가구원 중 보호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계속해서 실시하며 잔여 가구원 중 보호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구주 사망 다음 날로 의료급여가 상실 처리된다고 한다.

이상 만 2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시행령 제47조의2 제2항) 만 25세~만 34세의 제3국 출생청년은 예비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넷째, 고등교육법상의 특례입학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1항 제5호 및 제2항).

다섯째, 청소년복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는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해당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제3국출생(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및 특화교육, 사회문화체험, 진로교육 등의 레인보우스쿨을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그런데 청소년복지법상 청소년의 나이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¹¹⁾ 25~34세의 제3국출생청년에게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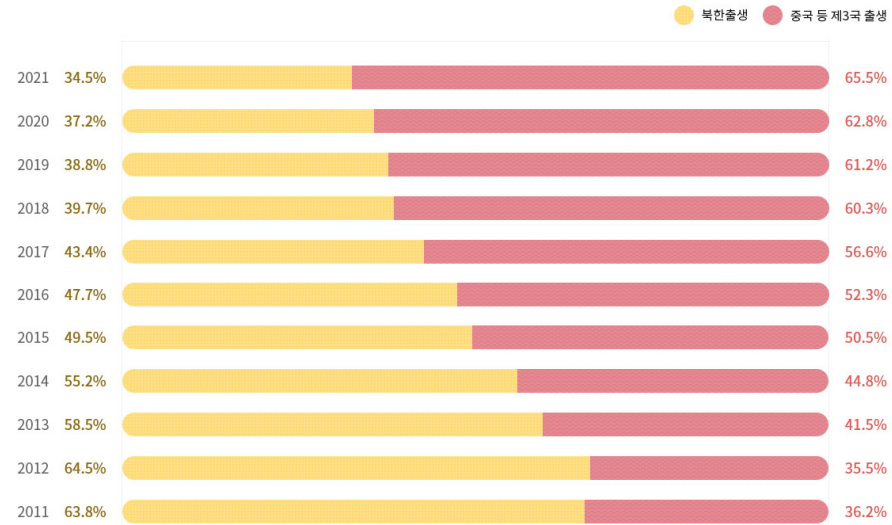
여섯째, 병역 문제에 있어 복수국적자인 제3국출생청년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¹²⁾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제3국출생남성청년은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여성청년은 현역 및 예비역 복무를 지원할 수 있다(병역법 제3조 제1항).

한편, 제3국출생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부터는 북한출생 학생 수를 초월하였다. 2021년 4월 현재 북한배경청년 중 북한출생 학생 789명(34.5%), 중국 등 제3국출생 학생 1,498명(65.5%)로 나타나고 있다(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2).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하면 만 25세 미만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교육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10) 제24조의2 조문 제목이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으로 되어 있는데 탈북청소년 뿐만 아니라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문 제목을 ‘정착지원시설 내의 예비학교 설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11) 청소년복지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본문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12) 국적법 제12조 제2항. 동 조항은 헌법재판소 2020.9.24. 2016헌마889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22년 9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2). 탈북학생 현황: 출생지별 탈북학생 수 변화, <https://www.hub4u.or.kr/webmdl/sub4uStudentStatus/menuHtmlDetail.do?cmkey=11147>에서 2022년 4월 29일 인출.

그림 III-1. 연도별 북한배경청년 입학 추이

2) 일반청년정책과의 비교

청년기본법상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제3국출생청년정책을 비교하면 첫째, 19~24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분야의 경우 해당 연령 제3국출생청년은 정착지원시설 내의 예비학교 입소, 대학특례입학,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법상의 교육지원은 제3국출생청년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둘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25~2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취업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직업훈련, 취업훈련, 창업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3국출생청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30~34세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자산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법상 가족관계등록창설 특례, 주거지원, 정착금 지원, 정착자산 형성 지원, 거주지보호, 거주지 신변보호, 생업 지원, 자금 대여 등의 정책은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3국출생청년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재산 대부·사용 특례 제도가 북한이탈주민 자녀인 제3국출생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표 Ⅲ-4. 일반청년정책과 제3국출생청년정책 비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제3국출생청년	
		보호 및 정착지원	연령 및 대상
19~24세	교육 (학자금)	- 교육지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제3국출생 미 해당
		정착지원시설 예비학교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 제3국출생 가능
		- 대학특례입학 - 모집 인원 100분의 10 비율 이내에서 특례입학 가능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제3국 출생 가능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9세 이상 24세 이하 제3국출생 가능
25~29세	취업 (양질의 일자리)	직업훈련	제3국출생 미 해당
		취업훈련	
		창업지원	
30~34세	결혼·독립 (주거·자산) 등	가족관계등록창설 특례	
		주거지원	
		정착금 등의 지급	
		정착자산 형성 지원	
		거주지 보호	
		거주지 신변보호	
		생업 지원	
		자금 대여	
		공유재산 대부·사용 특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해당

* 출처: 저자 작성

3) 북한출생청년과의 비교 및 법제 개선 입장

이상에서 청년기본법상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제3국출생청년정책을 비교해봤는데 19~24세의 제3국출생청년은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해 북한출생청년이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25~29세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취업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30~34세의 제3국출생청년 대상으로는 공유재산 대부·사용 특례를 제외하면 별도의 주거·자산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종합하면 24세 이하 제3국출생청년이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 예비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특례입학, 청소년복지법상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제3국출생청년은 북한이탈주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 주거·자산 관련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표 III-5, III-6 참조).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의 규정을 개정하자는 입장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정의 자체를 수정하여 북한이탈주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를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도 수혜받도록 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19대 국회 당시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의안번호: 1901907)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여 직계비속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보호자나 후견인이 없는 만 19세 미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안 제1조). 조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의안번호: 1902727)도 외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안 제1조). 심윤조 의원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보호대상자로 정의하자는 개정안 개정안(의안번호: 1907719)을 대표발의하였는데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안 제2조 제2호). 이에 비해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003614)은 연령 제한 없이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에 포함시키고 있다(안 제2조 제1호). 이 같은 입법논의는 20대 국회로 이어졌다.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020174)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를 북한이탈주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안 제2조). 현 21대 국회 들어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102378호)은 20대 국회 임재훈의원안과 내용이 동일하다(안 제2조).

이상과 같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의 취지와 비슷하게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김정림과 차현지(2013)는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보호 및 지위개선을 위한 법적방안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를 개정하여 그 범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류지성(2016)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에 단서조항을 두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상민 의원도 2021년 국정감사 당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충청신문, 2021).

(2) 개별 조문을 개정하자는 입장

북한이탈주민 정의 규정은 그대로 둔 채 몇 가지 개별조문을 개정하여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정의화 의원은 ‘보호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는 학력 인정의 적용 대상을 ‘보호대상자 및 그 미성년 동반자녀’로 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안 제13조) 개정안(의안번호: 190764)을 발의하였다. 동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미성년 동반자녀의 사회적응 및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체제전환기교육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안 제24조의3).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1916214)은 제3국출생 자녀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출생신고의 특례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안 제19조의2).

표 Ⅲ-5. 19대 국회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의 제3국출생청년 관련 조문

발의일	대표발의	법안 내용	
		현 행 ¹³⁾	개정안
2012.9.21. (의안번호: 1901907)	심재권 의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제2조(정의) ----- ----- -----

발의일	대표발의	법안 내용	
		현 행13)	개정안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 사람 또는 직계비속(보호자나 후견인이 없는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2012.11.22. (의안번호: 1902727)	조명철 의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사람과 그 자녀(외국에서 출생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 및 그 미성년 동반자녀 ----- ----- -----.
2013.11.7. (의안번호: 1907640)	정의화 의원	〈신 설〉	제24조의3(체제전환기교육학교의 설립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그 미성년 동반자녀의 사회 적응 및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체제전환기교육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체제전환기교육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체제전환기교육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체제전환기교육학교의 지정,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11.13. (의안번호: 1907719)	심윤조 의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2. ----- ----- 북한이탈주민과 이들의 자녀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직계비속으로서 만 19세

발의일	대표발의	법안 내용	
		현 행(13)	개정안
			미만인 자를 -----.
2015.7.24. (의안번호: 1916214)	원혜영 의원	〈신 설〉	제19조의2(출생신고의 특례) ① 통일 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 록을 창설한 사람 중 정착지원시설에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와 함께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에 대하여는 정착지 원시설에서의 보호하는 기간 내에 보호 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 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 면·동의 장(이하 “시·구·읍·면·동의 장”이라 한다)에게 출생한 자녀의 출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생신고서에는 제12조제 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 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 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 및 출생증명 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첨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생증명서를 제 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결 과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동의 장은 제1항에 따 라 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출생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출생에 대한 가족관계등록허 가를 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2016.11.16. (의안번호: 2003614)	강창일 의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 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 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 ----- -----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 -----.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2).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검색을 통해 2022년 4월 25일 인출 및 정리

13) 개정안 당시 규정으로 현행 규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III-6. 20대·21대 국회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의 제3국출생청년 관련 조문

발의일	대표발의	법안 내용	
		현 행	개정안
2019.5.3. (의안번호: 2020174)	임재훈 의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정의) -----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2020.7.24. (의안번호: 2102378)	태영호 의원	<신 설>	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2).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검색을 통해 2022년 4월 25일 인출 및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입법활동과 학술적 차원에서의 논의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는 입장도 있다. 그 이유로는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제3국과의 외교 문제, 국내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6장 북한배경청년 정착자립 및 역량강화 방향’의 ‘2.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법제도 개선 방안’에서 살펴본다.

3. 정책소외계층청년·외국인 법제와 북한배경청년법제 비교

1)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이하 아동복지법)(법률 제17784호, 2020.12.29. 일부개정, 2022. 7.1. 시행.)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

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 제4호). 보호대상아동에게는 친족의 보호·양육,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양육,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등의 보호조치가 취해진다(제15조 제1항).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은 ①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②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③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자산형성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제38조 제1항). 그 대상 연령은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제16조 제1항).¹⁴⁾ 다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제16조의3).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지원 대상자는 종래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렸으나 2021년 7월 이후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리고 있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1).

2)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는 그 자신이 청소년이면서 동시에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복지법(법률 제18101호, 2021.4.20. 일부개정, 2022.4.21. 시행)에 따라 청소년부모는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부모는 ① 아동양육 및 교육 서비스, ②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③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등의 가족지원서비스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제18조의2), 둘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는 ① 생활지원, ② 의료지원, ③ 주거지원, ④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18조의3). 셋째, 청소년부모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②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③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지원, ④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제18조의4). 넷째, 청소년부모는 자녀

14)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①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②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③ 직업소개 및 관리, ④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제18조의5). 이상과 같은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제2조 제6호 및 제1호).

3) 경계선지능청년

「장애인복지법」(이하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8417호, 2021.8.17. 일부개정, 2022. 2.18. 시행)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정신적 장애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항). 구체적인 장애정도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¹⁵⁾ 보건복지부 고시(제2022-16호)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발달장애의 한 유형인 지적장애로 정하고 있다. 지능지수가 70을 초과하여 장애인(지적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비장애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다시 말해 지적장애와 비장애인의 중간 정도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한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등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청년 단계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오마이뉴스, 2019). 한국의 경우 2016년 2월 3일 이른바 ‘느린 학습자 지원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 제13943호)이 있었다. 이를 통해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은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의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제28조 제1항). 그러나 경계선지능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 자원의 법제는 아직까지 없다.¹⁶⁾ 당연히 경계선지능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존재하지 않고 지원정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2년 4월 방영된 한 TV 시사프로그램은 한국 사회가 경계선지능인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이들이 마치 투명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한국방송공사, 2022). 전 세계적으로 경계선지능을 지닌 사람들은 인구의 12~14%이며 우리나라도 8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한국일보, 2021).

15)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대통령령(시행령)은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2항),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은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16)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제정되어 있다.

4) 다문화가족청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7281호, 2020.5.19. 일부개정, 2020.5.19. 시행)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제10조 제2항). 또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등학교장 등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0조 제4항). 이 같은 규정은 24세 이하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제2조 제3호).

북한배경청년은 북한과 제3국에서 남한으로 이주해왔다는 점에서 다문화적인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 청소년복지법은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탈북청소년·제3국출생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같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제18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전면개정하여 결혼이민자 가족, 귀화자 가족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가족, 난민인정자 가족도 이주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94)이 2020년 9월 24일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동 법안에는 제3국출생(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업지원 내용도 들어 있다(안 제15조).¹⁷⁾ 물론 북한배경청년이 이주의 관점에서는 다문화적인 요소를 일부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다문화개념의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통일부, 2021).

5)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법률 제18793호, 2022.1.25. 일부개정, 2022.1.25. 시행)은 재한외국인들의 법적인 지위에 따른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11조).

둘째, 결혼이민자는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제12조 제1항). 이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17) 이에 앞서 인재근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2019년 12월 20일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4245)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제12조 제2항).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제12조 제3항).

셋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받고(제13조 제1항),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제13조 제2항).

넷째,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제14조 제1항).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14조 제2항).

다섯째,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특별기여자와 그 동반가족은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제14조의2 제1항). 또한 특별기여자와 동반가족은 ①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 ②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14조의2 제2항).

표 III-7. 정책소외계층청년 및 외국인 보호·지원 정책

구분	보호 및 지원	대상 연령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자산형성지원	•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 25세까지 연장 가능
청소년부모 (청소년복지지원법)	• 가족지원서비스: 아동양육 및 교육 서비스,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복지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 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지원,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어느 하나 선택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 부모가 모두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분	보호 및 지원	대상 연령
경계선지능청년	• 경계선지능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부재	• 해당 사항 없음
다문화가족청년 (다문화가족 지원법)	•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과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초·중등학교장 등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24세 이하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 • 결혼이민자(사실혼관계 포함):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 • 결혼이민자와 자녀: 건강검진 • 영주권자 -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 -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 • 난민 -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 -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 • 특별기여와 동반가족 - 난민에 준하는 처우 - 초기생활장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필요한 지원	• 연령 제한 없음

* 출처: 법령 규정을 필자가 정리

6) 북한배경청년과의 비교

첫째,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관련 법제를 통해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이는 북한배경청년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이 북한이탈주민법과 기타 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둘째, 정책 대상 연령에 있어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청년 모두 비슷하다. 청소년부모와 다문화가족청년 정책은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립준비청년

정책은 2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비교하면 북한배경청년 가운데 북한출생청년은 여타 정책소외계층청년보다 보호 및 지원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24세 대상의 지원정책 외에 25~29세 대상의 정책, 30~34세 대상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표 III-3). 제3국출생청년의 경우에도 여타 정책소외계층청년과 정책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19~24세 대상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다(표 III-4).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5~34세에 해당하는 제3국출생청년의 경우에는 공유자산 대부·사용 특례를 제외하면 별다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경계선지능청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연령 제3국출생청년은 외국인과 북한출생청년의 중간 어디 쯤에 있는 경계에 놓여 있다.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도 받지 못하고 북한출생청년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받고 있는 정착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출생청년과 제3국출생청년은 북한배경청년이란 명칭으로 범주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호 및 정착지원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실태를 일률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

먼저 북한출생청년에 대해 보면, 한국 내의 일반청년들을 대상으로 수립·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과 비교하여 북한출생청년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가 적어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못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일반청년들에게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취업, 주거·자산과 관련한 여러 지원제도가 북한출생청년들에게는 시행되고 있다(표 III-3). 정책소외계층법제와 비교할 때도 북한배경청년 보호 및 지원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점에서 북한출생청년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사회통합 차원에서 북한출생청년과 일반청년들, 북한출생청년과 정책소외계층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헌법상의 차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둘째, 북한출생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는 북한출생청년의 사회 적응에도 반할 수 있다. 물질적·재정적 지원 위주로 되어 있는 정책에서 연령을 비롯한 북한출생청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제3국출생청년의 경우 일반청년에 비해 지원제도가 훨씬 못 미치고 있다. 19~24세의 일반청년에게 시행되고 있는 교육지원은 제3국출생청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25~29

세의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취업 지원 제도, 30~34세의 일반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자산 지원을 제3국출생청년은 받지 못하고 있다. 공유재산 대부·사용 특례 제도가 북한이탈주민 자녀인 제3국출생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표 III-4). 제3국출생청년과 정책소외계층청년을 비교하면, 19~24세의 제3국출생청년은 정착지원시설 예비학교, 대학특례입학 등의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같은 연령대의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청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표 III-7). 이에 비해 25~34세에 해당하는 제3국출생청년의 경우에는 공유자산 대부·사용 특례를 제외하면 별다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도 받지 못하고 북한출생청년이 받고 있는 보호 및 정착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선지능청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북한배경청년의 보호 및 지원정책 개선의 요체는 결국 제3국출생청년 정책 개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제6장 북한배경청년 정착자립 및 역량강화 방향'에서 살펴본다.



제4장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체계 현황

-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 2.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주요 서비스
- 3.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전달체계 검토

1990년대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군인과 같은 소수의 특수 계층 사람들이었으며, 이념과 정치적 이유로 탈북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으로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았거나,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통해 지원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고난의 행군시기를 기점으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생존을 위한 탈북이 급증하고, 2000년대 초반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연 2천명 이상을 상회하면서 대규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와 기반 시설 확충이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이후 정착지원 시설과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정착금 지급 기준을 정립하고, 교육지원, 취업보호제도, 노령연금 특례인정 등 생활안정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였다. 1999년에는 하나원을 설립하여 국내 입국 초기 3개월간의 사회적응교육 후 거주지에 정착시킴으로써 초기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였고, 2009년에는 거주지 중심으로 지역적응센터(이하 하나센터)를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교육 및 실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¹⁹⁾

이어 201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취업, 교육 및 장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자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면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착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체계를 구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본격화된 이래 20여년간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효율성 및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강화시키며 발전해 왔다. 정착

18) 4장은 남북하나재단 장인숙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다.

19) 하나원에서의 초기 적응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탈북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사들로부터 들을 수 있다. 제3국 출생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에는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부모와 함께 받고 거주지로 가거나 먼저 입국한 부모가 거주지 정착 후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한다고 말한다.

지원체계 구축 과정은 아래 그림 IV-1과 같이 지원체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지원 기관 및 시설 설치 등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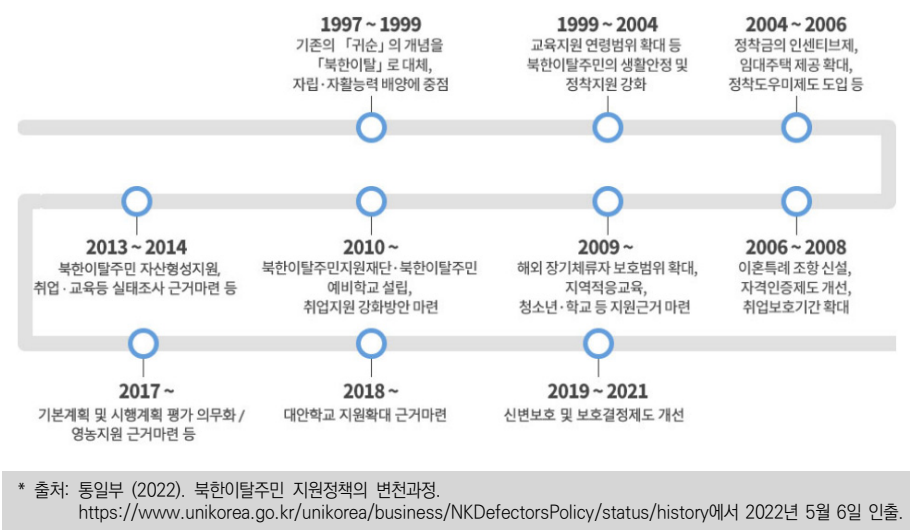


그림 IV-1.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이후 정착지원 체계 구축 과정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를 살펴보고, 거주지 전입 후 본격화 되는 정착지원 서비스 관련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영역 지원 서비스를 검토한 후, 북한배경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고찰하고자 한다. 정착지원 서비스 수집 및 정리의 범위는 거주지 정착 이후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며, 전달체계에 대한 검토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관련한 문제가 복합적이고 폭넓은 사안이기 때문에 정착지원과 관련한 전체 내용을 다루다보면 북한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의의 초점을 흐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북한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북한배경청년층이 지원 욕구가 가장 높은 취업지원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같이 두 지원분야를 선정한 것은 남북하나재단의 정착실태조사와 사회통합 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취·창업지원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로 20대는 47.4%, 30대는 40.0%로 다른 연령대보다 10%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을 근거로 하였다(남북하나재단,

2022). 또한 여성의 취업장애요인에 대한 문항에 대해 ‘육아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 중 30대 77.9%, 20대 61.6%로 상위 2순위를 차지한 것을 근거로 하였다(남북하나재단, 2022).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1) 북한이탈주민 정책관련 협의체 - ‘정착지원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은 복지, 고용, 교육, 의료 및 보건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어 있어 다양한 관할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 누적 입국자 수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에 필요성이 제기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는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어 ‘중앙-지방자치단체-민간’의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정착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한다.²⁰⁾ 또한 거주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하나센터가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다수의 중앙 부처와 기관이 관여하고 부처와 부처, 중앙과 지방,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상호작용을 하며 지원 정책과 관련한 의결과 조정이 이루어진다.

정착지원협의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호 결정 및 중지·종료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정착지원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총괄,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 각 부처에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업무 및 북한이탈청소년

20)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1년 북한이탈주민법 개정(2021.10.21. 시행)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년 교육, 대안학교 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북한이탈주민의 생계, 의료급여 지급 특례 적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다(표 IV-1 참조).

표 IV-1. 정착지원협의회 유관부처 및 기관별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부처명	내용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관련 총괄, 조정,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운영, 보호결정 하나원, 하나센터, 정착지원서비스망 운영 지원,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의 복합문화공간), 정착지원금 제도 운영, 취업관련 정착장려금
기획재정부	각 부처 예산 배정
교육부	학력인정, 한겨레중고등학교 시설, 인건비 지원, 탈북청소년 교육, 대안학교 설립 인가
외교부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관련 총괄
법무부	해외체류 자녀입국 시 출입국
국방부	재북시 군인에 대한 특별임용
안정행정부	이북5도위원회(이북도민과 가족연결, 통일학교 지원)관리, 지자체(전국 245개소 거주지보호담당관 활동) 관리, 주민등록번호 정정 특례 적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 취업 알선
농림부	영농정착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관련 자격인정
보건복지부	생계, 의료급여 지급 특례 적용, 연금특례 적용 보건복지분야 자격인정,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및 훈련 수당 지급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 지정 운영(전국 70개소 고용센터)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여성 양성평등 인권보호 교육, 가정폭력·성폭력 동료상담원 양성교육, 북한이탈주민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국토부	임대아파트 알선
국가정보원	해외공관 시 초기심문 수행, 자유누리센터 운영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업무협조
경찰청	신변보호담당관 지정 및 운영
국군기무사령부	자유누리센터 참여
중소기업청	취업박람회 실시
법원	가족관계등록 창설, 이혼의 특례 적용
국공립대학	학비 면제

부처명	내용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 및 운영, 지역협의회 운영, 거주지 보호대장 작성, 관리,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 지역사회 편입지원,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

* 출처: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및 남북하나재단 사업 참조 저자 재구성

정착지원협의회는 2014년 12월 19개 정부 부처·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종합하여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3년마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²¹⁾ 또한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정착지원 추진 체계에서 참여 주체와 지원 사업 범위와 협업 기반을 확대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시기(2015~2017)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들이 협업이 가능하도록 연결망을 구축하였다. 이 시기에는 지역협의회를 전국적으로 확대(88개 → 116개)하였다. 또한 지역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기관 간 중복지원 문제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지원에 필요한 유관 기관의 협업 기반을 구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5).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시기(2018~2020)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통일부 간 인사교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와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중앙-지방자치단체-민간의 유기적 협업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정착지원협의회를 확대 개편을 추진했고, 2018년 기존 19개 중앙부처·기관에 중소기업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추가하여 참여기관이 24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중심의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역할 증대 필요성을 반영하여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3분의 2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3곳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에 가장 핵심적인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를 정착지원협의회에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연계 기반을 조성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21) 통일부는 2013년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하고 2015년 제1차(2015~2017)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8년 2차(2018~2020), 2021년 3차(2021~2023) 계획 등 총 3차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내실화를 목표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 부처와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 구체화를 도모한다. 2021년 1월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역할 확대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중앙-지방 간 보다 유기적 협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림 IV-2에 제2차와 제3차 기본계획을 정리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2021).

구분	제2차 기본계획(2018~2020)	제3차 기본계획(2021~2023)
개요	〈7대 분야 22개 정책과제〉 -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보호 강화 (취업·교육·생활서비스 등 확대)	〈6대 분야 24개 정책과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의 내실화 -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정부부처 협업 및 지자체 참여 확대
성격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회 통합지향형 정착지원
정책 과제 (과제수)	-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5) -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4) -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3) - 북한이탈주민 정책 협업체계 정비(2) - 하나센터 기반 강화 및 자원인력 역량 강화(2) - 취약 북한이탈주민 보호체계 확충 및 생활안정 지원(4) -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는 우리 사회 환경 조성(2)	-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3) -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5) -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3) -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4) -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7) -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2)

* 출처: 제2, 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2. 제2차 및 제3차 기본계획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부처 간의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 및 지원의 시의성을 제고한다. 과거에는 북한이탈주민 위기대상자 또는 취약 계층 발굴을 위해 지역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단체나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센터나 주민 간의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착과정에서 고립된 상태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대상자나 취약계층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보장시스템에서 공과금 체납 및 단전·단수 등 정보를 기반으로 발견한 위기대상자에 대해 하나센터의 전문상담사와 사회복지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에 연계하면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이탈주민 축소가 가능해졌다.

2019년 조사대상은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1차 대상으로 3,052명을 선정하여 2개월(2019년 9월 말~11월 25일)간 조사하였고, 2차 대상은 보건복지부 시스템 파악 관심대상 783명에 대해 1개월(2019년 12월 2일~12월 23일)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 중 위기 의심자 553명을 발굴하였고, 긴급생계비 등 직접 지원이 필요한 209건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재단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166건에 대해서는 하나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센터의 직접 지원서비스 제공 외에 지방자치단체(440건) 및 민간단체(225건)와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였다(통일부, 2021). 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한 협업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부처 간 협업은 정착지원의 시의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지역협의체인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이 70인 이상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되며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137개가 운영 중이다. ‘지역협의회’는 지역의 신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하나센터, 교육청, LH공사 관계자, 종교·민간단체, 주요 기업체,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지역의료기관, 복지기관, 아동·청소년 복지지원기관,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기능을 하며 정착지원기관, 민간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협의·조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 내 중복 지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²²⁾

지역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되는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아래 표 IV-2, 표 IV-3, 표 IV-4와 같다. 대부분 초기전입자 기초생활물품지원과 의료비, 심리·생활 상담, 직업교육훈련, 진로 및 취업지원, 청소년 학습지원, 북한이탈

22) 기존 통일부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2021년 2월 2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되었으며 협의체 설치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거주인원수를 기준 100명 이상에서 70명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2021년 12월 기준 전국 137개 지역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주민 인식개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 구성의 다양화에 따른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가족화합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광역자치단체에 실행 조직이 없기 때문에 지역하나센터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거나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한다.

2021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전국 25개 하나센터 실무자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든 센터가 거주지보호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협의체가 지역적응센터에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91.7%가 지역사회 협의체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진미정, 2022). 정착지원 현장의 실무자들은 지역협의회는 정기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협의와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정착지원 정보의 공유 및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나센터 실무자들은 지역별 지역협의회 담당자 특성,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기관의 관심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크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표 IV-2.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구분	지원 서비스 내용
생활 안정	◦ 초기전입자 기초생활물품 지원(100만 원 상당)
	◦ 서울시민되기 길라잡이 행사 · 대상: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전입자 · 내용: 서울생활 안내, 사회복지관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문화체험
	◦ 무료 치과 진료 · 대상: 서울거주 12세 이상 · 내용: 틀니(400만 원), 보철 및 임플란트(250만 원) 등 치료
	◦ 종합건강검진패키지(심리검사 포함) · 대상: 서울거주 14세 이상 · 내용: ① (건강검진)근골격계 CT, 내시경, 유방촬영, 간염, 결핵 등 성·연령별 맞춤 검진(1인 평균 35만 원), ② (심리검사)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자살), 알코올 부문 검사, ③ 치료비 및 간병비 등 사후관리 지원
	◦ 비급여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 대상: 건강검진 결과 추가검사 및 치료 필요한 자, 하나센터 의뢰 고위험군 대상자 · 내용: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연간 비급여치료비 350만 원, 간병비 100만 원씩 최대 3년)

구분	지원 서비스 내용
취업	◦ 기술교육원 연계 취업교육 지원 · 대상: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내용: 전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동차정비, 요양보호사 등 ◦ 공공일자리사업 · 대상: 18~39세 · 내용: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사업기관에 파견, 상담 등 서비스 보조 근무 등 직무능력 배양 후 취업지원 ◦ 진로 및 취업지원 · 대상: 미취업자 및 전직 희망자 · 내용: 서류·면접 코칭 등 ◦ 북한이탈주민 코칭 양성 · 대상: 코칭에 관심 있는 북한이탈주민 · 내용: 코칭 기초 및 심화교육(각 1개월), 상담실습 등
교육	◦ 청소년 학습지원(멘토링) · 대상: 초·중·고등학생 · 내용: 교육 플랫폼 연계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및 학습관리 및 상담 ◦ 자녀 교육 및 진학 지원 · 대상: 초·중·고등학생(제3국, 남한출생 포함) · 내용: 한글기초교육, 독서지도, 대학생 연계 진로 및 학습지도
가족	◦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 대상: (마음돌봄)취약·위기가구, (양육돌봄)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내용: 상담전문가 방문 돌봄서비스, 마음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 가족화합프로그램 운영 · 대상: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 가족 · 내용: 체육경기 문화공연 등 가족화합 행사
사회 통합	◦ 북한이탈주민 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 및 북한이탈주민 예술인 단체 지원 · 대상: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21개, 통일부 등록법인 32개 · 내용: 사업계획 작성·관리, 보조금 집행 등 회계관리 등에 대한 상시 컨설팅(행정사 협회 활용) ◦ 북한이탈주민 지역주민 교류협력 (공모)사업 · 대상: 북한이탈주민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 복지관 등 · 내용: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대산 맞춤형 봉사활동, 동네 생활·환경 봉사활동/문화·체육 행사 등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개선 (공모)사업 · 대상: 북한이탈주민(지원) 단체·법인 등 모범정착사례(성공모델) 발굴 확산(수기공모, SNS 등 홍보매체 연계)

출처 : 서울특별시 (2022).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서울: 서울특별시청.

표 IV-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구분	지원 서비스 내용
생활 안정	◦ 초기전입자 가전구매 상품권 지원(80만 원 상당) ◦ 북한이탈주민 돌봄 상담센터 운영(경기도 남/북부 2개소)
취업	◦ 취업교육 · 대상: 구직자(95명) · 내용: 노인돌봄서비스, 경리사무실무 ◦ 인터십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50명 · 내용: 기업 인터십 참여 시 개인과 기업에 총 360만 원 지원
가족	◦ 부모의 자녀양육 코칭 프로그램 · 대상: 영유아기 자녀양육자 북한이탈주민 30명 · 내용: 다양한 놀이기법을 통한 양육코칭(연3회) ◦ 장기근속자 가족 힐링 캠프 · 대상: 장기근속자 20가족 · 내용: 취업성공담, 특강, 직장문화 공유, 국내 관광명소 탐방 등
사회 통합	◦ 문화격차해소사업 · 대상: 150명 · 내용: 인기가수 초청공연, 노래자랑, 연극뮤지컬 관람 ◦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 대상: 40가족(20쌍) 결연식 ◦ 남북청소년 우리 역사문화 알아가기 한마당 · 대상: 도내 중고등학생 500명 · 내용: 우리말겨루기, '통일' 토크, 시상식 등

* 출처: 경기도 (2022). 2022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계획. 경기: 경기도청.

표 IV-4.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구분	지원 서비스 내용
생활	◦ 지자체-하나센터 간 복지지원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사례관리 회의 개최 · 대상: 거주지 신변보호담당관, 군구복지부서 및 동 주민센터 등 · 내용: 사례관리자 정보 공유 및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서비스 연계 지원 방안 논의 ◦ 건강지원 · 대상: 짝수년도 출생 북한이탈주민 200명 · 내용: 종합검진(최대 30만 원 내)
취업	◦ '슬기로운 구직생활' · 대상: 사회복지자격증 취득자 · 내용: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구분	지원 서비스 내용
교육	◦ 자녀 장학금 지원 · 대상: 중·고등·대학생
사회 통합	◦ 우수정착자 문화체험 지원 · 국내 문화축제·명소 탐방 등 문화체험, 소통 간담회 ◦ 통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 체육대회, 축하공연, 문화체험부스 운영

* 출처: 저자 작성

2) 북한이탈주민의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허브 - 남북하나재단

남북하나재단은 하나원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정착지원을 위해 2010년 설립된 정부 출연 공공기관이다. 재단은 2010년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재단-민간 정착지원 협력 체계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재단의 주요 역할은 첫째, 원스톱 정착지원 서비스 기관으로서 생활안정 및 취업지원 등 정착지원 그물망 구축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통해 정착여건을 개선, 둘째, 정착지원 네트워크의 거점 및 민-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 셋째, 통일 미래를 대비하는 정착지원의 싱크탱크 역할의 수행 등이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하나재단의 분야별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직업역량 강화 교육·훈련, 취·창업지원 등을 통한 자립·자활지원, 청소년 교육 및 장학지원, 거주지 전입 이후 정착금 지급, 남북한주민 상호이해 증진 및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연구 등을 수행한다. 2018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전입 이후 가산금인 미래행복통장, 제3국 출생 양육 가산금, 교육지원금 업무가 통일부로 부터 이관되었고, 2020년 거주지 전입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대상으로 제2하나원에서 수행하던 직업심화교육훈련 기능이 이관되어 재단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취업 지원 후 재직자 근속관리와 연계, 제3국출생 양육가산금은 생활안정지원과, 교육지원금은 청소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래 표 IV-5의 주요 사업 중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사업 중 초기정착지원사업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과 자립·자활지원 사업 중 취업지원 사업은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배치된 80여명의 전문상담사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지역 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 사업은 하나센터에 배치된 남북하나재단의 전문상담사들이 수행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하나센터와 긴밀하게 협업한다.

표 IV-5. 남북하나재단 주요 사업 개요

구분	주요 사업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 초기정착에 필요한 생필품 및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 • 취약계층 위기가구 생계안정 지원 및 의료비지원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심리치료비 지원 • 주택 미배정자 등 취약계층 공공생활시설 거주 지원 • (정착금)가산금 지급 및 관리 • 정착지원 현장(인력) 지원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외부 연계 자원 체계 구축(의료지원, 지원번호인제도 등)
자립·자활 지원	• 지속·성장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지자체, 공공기관, 중견기업, 강소기업 등 일자리 확대) •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실시(기초·심화 직업교육훈련, 전문직 양성과정 등) • 근로의욕 증진 및 근속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 맞춤형 창업·영농 지원 및 취업지원
교육개발 및 지원	• 기초 학습 능력 향상지원 및 제3국 출생 자녀 한국어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업증진을 위한 디딤돌대학 운영 • 글로벌 인재 육성(한미 취업연수, 풀브라이트 장학, 호주·영국 연수 지원 등) • 탈북학생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 (정착금) 교육지원금 지급 및 관리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 남북주민 상호 인식 제고(소통 콘텐츠 발굴 및 확산,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북한이탈주민 봉사단 운영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 지원 거버넌스 강화(민간단체 공모 사업 등)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사회통합조사,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 북한이탈주민 국가승인통계 생산 및 관리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정책연구 • 하나센터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설 평가

* 출처: 저자 작성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지원, 장학금 지원 등 직접지원 외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과

대의 인식개선, 전국의 정착지원 서비스 표준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조사연구 사업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이다. 남북하나재단은 2011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국가통계이다. 남북하나재단은 2016년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7년부터 국가통계를 생산해왔다. 실태조사는 만 15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직업교육훈련, 경제활동상태 등 정착실태 분야와 노동, 사회활동, 보건 및 건강, 교육, 가족, 사회적 관계망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통합분야 조사를 실시하며,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교육, 문화, 건강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개발에 필요한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존 데이터의 심층 분석을 제공하여 증거기반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분석결과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조사의 특성상 모집단을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통계적 기법으로 모수를 추정하며 통계청의 품질진단 관리 하에 실시되는 조사로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결과는 통일부, 하나원, 하나센터, 재단 및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지원 사업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정착지원 현황과 변화, 지원 욕구 등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지역보고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은 개인의 역량강화와 자립자활 노력에서 출발하지만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과 수용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2016년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정책에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과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또한 신문 및 방송 프로그램 취재 협조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와 균형 있는 보도를 지원한다.

최근 콘텐츠 다변화 시대에 맞춰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의 어려움, 성공적인 정착 이야기, 생활의 고민, 문화의 차이 등 다양한 영역의 이야기들을 주기적으로 다양한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우리 사회의 방송에서 볼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은 주로 취약계층, 범죄, 사건 사고로 연루된 모습이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제작하는 영상들을 통해 낮은 문화에 부딪히면서 적응하며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이야기, 때로는 실패했지만 그 속에서 얻은 교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이해의 폭과 수용성을 넓히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정착지원 실무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하나재단은 전국 하나센터 업무 표준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 25개 하나센터는 공모에 의해 선정된 기관이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모범인이 사회복지,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유형이 다양하다. 그 결과 전국의 하나센터는 조직 구성과 인력 역량, 사업추진 방식 또한 다양하여 서비스 품질 차이가 발생한다. 남북하나재단은 이러한 서비스 품질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필요한 각종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하나센터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하나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사와 사회복지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조직과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3) 지역 북한이탈주민 전달체계의 허브 - 하나센터

2000년대 중반 연간 3,000여 명에 이르는 대량입국 추세가 지속되면서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후 거주지에서 체계적인 지역적응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09년 하나센터가 설립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과 사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하나센터’로 지정하면서 민간 영역의 정착지원 역량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2009년 6개 하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 12월 전국 30개 지역에 하나센터가 설치되었고, 현재는 전국 2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11개소, 강원지역 2개소, 중부지역 3개소, 영남지역 5개소, 호남지역 3개소, 제주도 1개소가 설치·운영 되고 있다. 2022년 5월 기준 전국 하나센터에는 79명의 전문상담사와 117명의 사회복지사가 초기정착지원, 지역 적응지원, 사례관리,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는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남북하나재단 및 하나센터와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협업한다

(김경식, 2021).

하나센터는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서비스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 및 연계하고, 신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과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지역사회자원과 지역복지영역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전달체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표 IV-6. 하나센터 주요 지원 서비스

구분	주요 사업
초기 정착지원	• 초기정착 지원: 전입신고·기초생활보장 신청 등(정착도우미 연계) • 기초생활물품지원 연계(서울시, 소형가전 구입 100만 원 상품권) • 초기정착교육(60시간) - 내용: 지역특성화교육(지역안내), 사회적응교육(의사소통·법률·경제·교통·예절), 진로탐색 및 직업준비, 정서안정교육(정신건강) 등
지역적응지원	• 교육 및 진학 지원 - 진학상담 및 서비스 연계 - 학습멘토·멘티프로그램 - 장학금 연계 • 진로 및 취업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구직활동·취업지원·사후관리 - 취업자 자조모임 • 생계 및 의료지원 - 생활정보·생필품 지원 - 병원무료진료·건강검진 연계 • 심리·안정지원 • 법률상담 연계 및 지원
사례관리	• 개별상담을 통해 특성에 따른 체계적 관리·연계서비스 제공
사회통합	• 나눔행사, 봉사활동,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행사 등

* 출처: 저자 작성

표 IV-7. 하나센터 현황 (2022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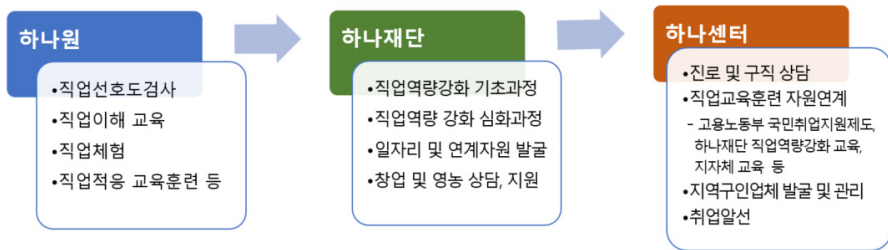
시도(25곳)	하나센터	운영단체	관할지역 북한이탈주민
서울(4곳)	서울동부하나센터	한적서울지사	1,589
	서울서부하나센터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1,573
	서울남부하나센터	한빛종합사회복지관	1,731
	서울북부하나센터	공릉종합사회복지관	1,871
부산(1곳)	부산하나센터	(사)부산YWCA	944
대구(1곳)	대구하나센터	더나은세상을위한공감	750
인천(1곳)	인천하나센터	하이사회복지센터	2,937
광주(1곳)	광주하나센터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560
대전(1곳)	대전하나센터	생명종합사회복지관	582
울산(1곳)	울산하나센터	KVO국제봉사기구	485
경기(6곳)	경기동부하나센터	청솔종합사회복지관	1,754
	경기서부하나센터	북한인권정보센터	1,639
	경기남부하나센터	평택YMCA	2,941
	경기북부하나센터	(사)평화와함께	1,091
	경기서북부하나센터	(사)더불어함께새희망	1,766
	경기중부하나센터	선부종합사회복지관	1,647
강원도(2곳)	강원북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358
	강원남부하나센터	명륜종합사회복지관	536
충청도(2곳)	충북하나센터	충북사회복지협의회	1,391
	충남하나센터	천안쌍용종합사회복지관	1,750
전라도(2곳)	전북하나센터	전주YWCA	541
	전남하나센터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647
경상도(2곳)	경북하나센터	경북이주민센터	1,019
	경남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1,084
제주도(1곳)	제주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336
		25개	31,522

* 출처: 저자 작성

2.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주요 서비스

1) 취업지원 주요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며, 우리 사회 적응 과정에서 삶의 질과 만족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은 하나원-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를 추진체계로 운영된다. 통일부의 총괄하에 추진되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은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에서 분절적으로 실시되던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체계를 정비하면서 하나원에서의 직업적응 교육훈련이 거주지 전입 이후에도 심화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단-하나원-하나센터 취업지원 연계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실시되는 진로탐색 교육 과정에 지역 하나센터에 배치된 하나재단의 취업전문상담사가 참여하면서 하나원에서의 교육에서부터 거주지 전입까지 일관성 있게 진로상담-직업교육훈련-취업알선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 출처: 남북하나재단 (2022). 지역취업지원사업 업무매뉴얼. 서울: 남북하나재단.

그림 IV-3. 하나원-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하나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업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직업적응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해 적성과 역량을 파악하고 우리 사회의 직업에 대한 이해 교육 및 직업체험을 통해 직업 기초 적응훈련을 받는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진학하는 경우, 연로한 경우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주지에 전입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취업하기를 선호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금수준이다(남북하나재단, 2021).²³⁾

이렇듯 남한에서 경력도 없고 학력도 미흡한 상황에서 급여 수준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자리를 찾다보니 하나원에서 받은 직업교육 훈련 분야로 취업하기 보다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한다(남북하나재단, 2021).²⁴⁾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 6월 국가기술시험장과 실습실, 강의실 등이 구비된 직업교육관을 개관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는 한식조리사, 제과·제빵사, 피부미용사, 요양보호사, 정보화 등 국가기술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퇴소 후 거주지에 정착하면 하나센터의 취업전문상담사를 통해 진로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받은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 등을 기반으로 하여 추가 교육을 받고자 하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과 연계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²⁵⁾와 연계하고, 곧바로 취업이 필요한 경우 이력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준비를 도와 본격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그림 IV-4 참조).



그림 IV-4.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1)

23) 북한이탈주민 직업선택 요인은 수입(39.8%), 안정성(23.7%), 적성·흥미(14.3%) 순이다.
24) 북한이탈주민 직업유형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26.8%)와 서비스종사자(17.8%)가 약 4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거주지 전입 3년 이내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34.1%)와 서비스종사자(20.8%)로 54.9%를 차지한다.

하나센터의 취업상담사는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역의 가용한 자원을 발굴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한다. 또한 업체 인사담당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의 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및 실무자 협의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필요한 협업 체계를 작동시킨다.

하나센터에서 취업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적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남북하나재단은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며 북한이탈주민 채용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한다.

또한 통일부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북한이탈주민 참여가 저조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추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북한이탈주민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부처 간 협의하고 개선하는 협업을 추진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이 타 부처의 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한편 지역 단위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실무자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67명)과 하나센터의 취업전문상담사(33명)들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실무자들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위 협의체 등을 통해 형성된 연계망을 활용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진입 및 유지가 가능한 대상자는 해당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고, 고용노동부의 지원 시스템 적응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특화된 남북하나재단의 기초직업교육훈련 및 심화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하여 직업역량 강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남북하나재단의 심화직업교육훈련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적합한 업종을 발굴하고 북한이탈주민만으로 구성된 단독반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과 강사진이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가 높다.

표 IV-8.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심화직업교육훈련

연도	분야	운영기관	교육인원
2020년	회계실무자양성과정	희망누리평생교육원	10명
	1종대형운전면허	성문자동차운전전문학원 외 6곳	127명
	CS배송전문가양성과정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산학협력단	13명
	소형건설기계면허과정	원주제일자동차중장비정비학원	21명
	합계		171명
2021년	회계실무자양성과정	희망누리평생교육원	29명
	피부미용사과정	나레스트청량리미용학원	22명
	애견미용사과정	김스애견미용학원	4명
	요양보호사과정	(재)서울현대교육재단	16명
	버스운전기사양성과정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10명
	소형건설기계면허과정	김포중장비자동차정비학원 원주제일중장비자동차정비학원	35명
	중장비운전기능사과정	김포중장비자동차정비학원	8명
	용접기능사과정	경인플랜트용접학원	2명
	합계		126명
2022년	회계실무자양성과정	희망누리평생교육원	15명
	피부미용사양성과정	나레스트청량리미용학원	11명
	애견미용사양성과정	3급과정	4명
		2급과정('21년 3급 수료자)	2명
	전기기능사양성과정	서울공과전기학원	6명
	SWE테스터양성과정	(주)위클러버	8명
	무역실무자양성과정	한국무역협회	16명
	합계		39명

* 출처: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자료 참조해 저자 작성.

또한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재북(在北)경력을 활용하여 의사, 간호사, 변호사, 기술(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직양성과정 중 하나로 ‘북한이탈주민 의료인 육성프로그램’의 운영하며 남과 북의 의료체계·기술·용어 등의 차이로 국가시험에 통과하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원광대학교,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등과 연계하여 자격인정 시험 준비 단계부터 시험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북한이탈주민 단독으로 이론교육과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비, 교재비, 실습비 등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6명의 의사와 한약사 1명 등 총 7명의 의사를 배출하였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형태이며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다(표 IV-9 참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특화되어 있는 지원은 청년취업아카데미가 있는데, 청년취업아카데미는 NCS 직무교육, 공기업 취업전략 특강, 현직실무자의 코칭을 통한 직무체험교육 등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해당 교육을 이수한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교육 참가자 모집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이는 북한배경청년층의 인구학적 특성과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인구학적 특성 측면을 살펴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 인구 3만여명에 불과하다보니 북한이탈주민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연령대 수가 많지 않다. 20~30대가 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재학 중이거나 출산 및 양육 등으로 비경제활동 상태다. 비경제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의 45%를 차지하는데, 이 수치는 전체 국민 20대 비경제활동 수치보다 약 10% 높은 수치다. 이는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20대 청년층 여성들 중에는 결혼, 출산, 양육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청년층이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전국 하나센터에 연계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직무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 및 기술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 인턴실습 기회까지 연계하며 정규 채용에 필요한 경력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전 KDN,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이 추진된 지 3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 해당 지원을 연계했던 하나센터의 취업전문상담사들은 지역의 청년층이 장기 교육과 자격증 취득까지 장시간 투자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고 빠르게 취업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로는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 적성보다는 임금수준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일자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하

다고 지적한다. 북한배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과 같이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취업상담사들은 말한다.

표 IV-9. 취업지원 사업 주요 내용

제도(시행기관)	내용
고용노동부	•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 지원 • (Ⅰ 유형)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결합하여 지원 • (Ⅱ 유형)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지급
통일부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취업장려금 지급(수도권 최대 1,800만 원, 지방 최대 2,100만 원)
남북하나재단	•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지급 및 관리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지원요건)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있고,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것 등 - (적립목적) 주택구입비(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등 - (지원기간)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최대 1.5천만 원) ◦ 영농지원(교육, 운영비 지원 최대 1.8천만 원 지원, 컨설팅) ◦ 창업지원(신규창업자 최대 1.5천만 원, 기창업자 최대 6백만 원 지원, 창업교육 및 컨설팅)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물 우선구매 제도 운영(재정지원 최대 2천만 원) ◦ 채용형 단기연수 지원(연수비 120만 원 3개월간 지원) ◦ 직업교육훈련 취업바우처 최대 3백만 원 ◦ 심화교육훈련 과정 운영 - 회계실문자양성과정, 애견미용사과정, 피부미용사과정, 버스운전기사양성과정 외 ◦ 전문직양성과정: 의사, 간호사, 변호사, 기술(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지원 ◦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NCS 직무교육, 공공기관 취업지원반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 기술교육원 연계 취업교육 지원 • 대상: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 내용: 전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동차정비, 요양보호사 등 • 추진체계: 하나센터 신청접수 → 기술교육원 선발 및 기술교육, 취업연계 ◦ 공공일자리사업 • 대상: 18~39세 • 내용: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사업기관에 파견, 상담 등 서비스 보조 근무 등 직무능력

제도(시행기관)	내용
	◦ 배양 후 취업지원 · 추진체계: 서울시 모집 → 직무능력 배양 및 취업지원(하나센터 연계) ◦ 진로 및 취업지원 · 대상: 미취업자 및 전직 희망자 · 내용: 서류·면접 코칭 등 · 추진체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연계 ◦ 북한이탈주민 코칭 양성 · 대상: 코칭에 관심 있는 북한이탈주민 · 내용: 코칭 기초 및 심화교육(각 1개월), 상담실습 등 · 추진체계: 민간단체 공모사업
	• 경기도 ◦ 취업교육 · 대상: 구직자(95명) · 내용: 노인돌봄서비스, 경리사무실무 ◦ 인턴십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50명 · 내용: 기업 인턴십 참여 시 개인과 기업에 총 360만 원 지원
	• 인천광역시 ◦ '슬기로운 구직생활' · 대상: 사회복지자격증 취득자 · 내용: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 · 추진체계: 인천 하나센터 신청접수 → 여성새일센터 강사 섭외 프로그램 운영 → 인천시 예산지원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추진체계: 고용센터 및 인천 하나센터 신청접수 →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 → 인천시 예산지원

* 출처: 저자 작성

2) 출산 및 양육 지원 주요 내용

30~40대 연령대는 결혼과 출산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대체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일을 해하는 시기다. 남북하나재단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 IV-10에서와 같이 35.8%(10,986명)를 차지하는 규모다.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1/3 이상에 해당한다. 이 연령대에 속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개인 단위로 입국하여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거나 또는 중국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와 재결합하여 정착하면서 스스로 자립 역량을 키워야하고 자녀 양육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표 IV-10. 2021년 5월 통일부 등록자료 기준 북한이탈주민 현황

(단위: 명)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29,880	706	3,672	7,314	8,515	9,673
남성	7,157	345	1,319	1,799	1,479	2,215
여성	22,723	361	2,352	5,515	7,036	7,458

* 출처: 남북하나재단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모집단 정보. 서울: 남북하나재단을 참조해 저자 재구성.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만 25세에서 54세 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시작된 나이는 평균 28.4세이고, 경력단절 후 다시 일자리를 찾기까지 7.8년이 걸린다고 나타났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일자리는 정규직 등 상용근로자가 55.0%에 불과 하는 등 일자리의 수준이 경력단절 이전보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9).

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인한 영향은 남녀의 성별 임금격차로 이어진다. 2021년 용혜인의원이 밝힌 국세청 ‘근로소득 성별·연령대별 총급여’, ‘근로소득 성별·연령대별 100분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임금 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표 IV-11 연령대별 남녀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20대 남성의 연간 평균임금은 2,340만 원, 20대 여성은 2,160만 원으로 180만 원의 차이가 나며, 30대의 경우 남성 4,260만 원-여성 3,110만 원(격차 1,150만 원)으로 연간 평균임금에서 1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40대에선 남성 5,640만 원-여성 3,300만 원(격차 2,340만 원), 50대의 남성 6,010만 원-여성 2,860만 원(격차 3,150만 원)으로 상승하며 격차가 3,000만 원 이상 증가하였다(한겨레, 2021). 20대 소득격차와 비교하면 무려 17.5배나 된다.

표 IV-11. 근로소득 성별·연령대별 총급여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	2,340	4,260	5,640	6,010
여성	2,160	3,110	3,300	2,860
임금차이	180	1,150	2,340	3,150

* 출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해 저자 작성

성별 총 급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약 8년이 나 단절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출산과 양육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와 친인척들의 지지 기반이 약한 북한이탈여성들이 겪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여성취업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이 61.1%이 1위를 차지하였고 가사부담과 육아를 제외한 가족돌봄 순으로 나타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육아부담’ 응답자의 연령대별 통계를 살펴보면 30대의 77.9%, 20대의 63.5%, 40대의 42.4% 순으로 나타났다(표 IV-12 참조).

표 IV-12. 여성취업 장애 요인(상위 5순위, 복수응답)

	육아부담	가사 부담	가족돌봄 (육아제외)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사회적 관행	불평등한 근로조건 (채용, 임금 등)
북한이탈주민	61.1	24.7	22.6	19.7	18.8
20대	63.5	23.0	19.4	19.8	13.9
30대	77.9	24.5	26.9	15.5	14.7
40대	61.6	24.7	23.2	21.2	21.7
50대	42.4	23.5	19.1	21.8	25.0
60대	56.5	31.6	21.6	18.4	14.4

* 출처: 남북하나재단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취업 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은 20대 초중반의 이른 결혼과 출산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조차 힘든 실정이다. 부모의 보살핌과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받으며 취업준비에만 집중해도 자신이 선호하는 곳에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홀로 남한에 입국하여 20대 초중반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은 안정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훈련을 받기 어렵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 한 후에 취업하려 해도 경력과 직업역량이 미흡한 상황에서 택하게 되는 일자리가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 등이다.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의 재직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26.8%로 가장 많고, 서비스종사자가 17.8%로 2위를 차지한다(남북하나재단, 2021).

남북하나재단의 2021년 사회통합조사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취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89.8%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잘 모르겠다’ 5.3%, ‘취업보다는 가정 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가 4.8%로 나타나 일하고자 하는 높은 욕구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여성취업 장애 요인으로 육아부담 61.1%, 가사부담 24.7%, 가족돌봄이 22.6% 순으로 응답했다. 북한이탈주민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안정적인 자립과 자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아 지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표 IV-13.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	가사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모르겠다
북한이탈주민	89.8%	4.8%	5.2%

* 출처: 남북하나재단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출산과 관련하여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비(30만 원) 지원, 산후도우미 파견 및 산후조리(최대 30일) 지원 등에 대한 통일부의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었으나 2015년 정부의 유사한 사회복지사업을 통폐합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일반지원체제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관 후 탈북민들로부터 업무 담당자의 탈북산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다거나 산모지원 사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나센터에서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들은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과거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산후 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고 한다. 친정 부모나 형제자매의 보살핌과는 거리가 있는 탈북여성의 경우 출산 직후 몸도 마음도 쇠약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과 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하는 출산, 양육 및 일자리 관련 지원은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400만 원, 한부모 가정 아동보호 가산금 360만 원에 불과하며 두 가산금은 두 가지 지원 모두에 해당될 경우 하나만 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중복지원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여성 산모들에게 필요할 경우 일반복지체계 내에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게 되는데 하나센터의 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사들은 해당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지원을 안내해주고 연계한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위해 내부 자원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경력관리를 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일반 복지체계를 이용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하는 자녀돌봄 서비스로는 남북 하나재단에서 민간기관(단체)과 연계하여 방과 후 공부방(8개소)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 초중등 학생들이 방과 후 학습 및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가정 돌봄 서비스’가 민간기관(단체)을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놀이기법을 통한 양육방법 ‘부모의 자녀양육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중심으로는 돌봄서비스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일정 부분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분산적으로 거주하는 지방에서는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및 양육지원 서비스는 전무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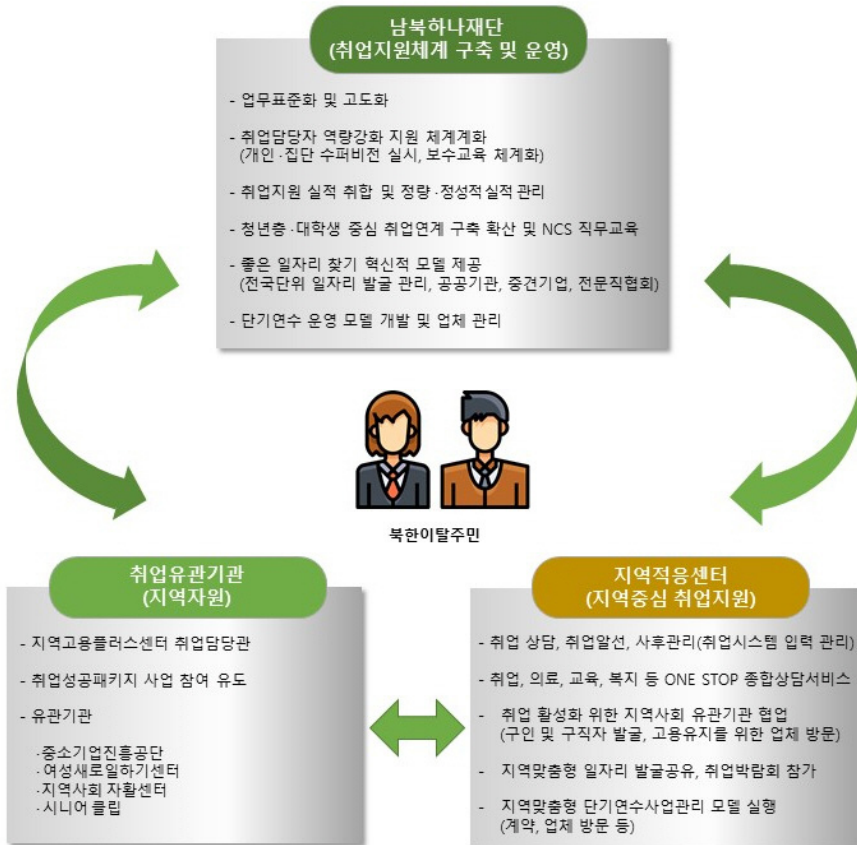
표 IV-14. 결혼 및 양육 등 북한이탈주민 여성 대상 지원 사업 주요 내용

제도(시행기관)	내용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부모 가족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등(전체 국민 대상)
남북하나재단	• 방과후공부방 운영(8개소)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및 부모에 전문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심리치료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서비스 제공 • 경기도 ‘부모의 자녀양육 코칭 프로그램’ - 대상: 영유아기 자녀양육자 북한이탈주민 30명 - 내용: 다양한 놀이기법을 통한 양육코칭(연3회)

* 출처: 저자 작성

3.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전달체계 검토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의 운영에 있어서 각 부처와 기관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협력이 유기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유사한 업무와 지원 사업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그림 IV-5와 같이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



* 출처: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취업현황분석을 통한 취업교육 과정 개발. 서울: 남북하나재단.

그림 IV-5.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2)

부처 간 유기적 협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내실화 성과를 거둔 사례로 남북하나재단의 직업교육훈련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대상을 차별화한 경우가 있다. 컴퓨터 활용 능력과 외래어 이해가 가능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일반 국민과 같은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도록 고용센터에 연계지원 한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일반 취업지원서비스나 복지서비스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다. 컴퓨터 활용이 어렵고 외국어 이해가 낮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무자를 만나 신청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경험한 후 신청을 포기하거나, 지원 신청한 후 교육훈련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이렇게 일반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 참여가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단독반을 구성하여 맞춤형 직업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설계하고, 북한이탈주민 교육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며, 취업컨설팅 및 동행면접 등을 통해 이들의 구직 역량을 강화시키고, 북한이탈주민 취업 업체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사후 관리 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취업과 정착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원 서비스 수준을 차별화를 통해 유사·중복지원을 방지한 경우도 있다. 2019년 통일부 제2하나원의 교육훈련 예산을 남북하나재단으로 이관하여 제2하나원 심화직업교육과 남북하나재단의 심화직업교육 훈련을 통합하면서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가 유사한 직업훈련과정을 체계를 정비하였다. 하나원 입소기간 동안 받았던 직업교육훈련을 거주지 전입 후에 이어서 다음 단계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의 직업교육훈련과 연계하고, 교육 이후에는 하나센터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교육 받은 관련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나원-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남북하나재단의 의료비 직접 지원의 경우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자 실비보험으로 의료비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한 번의 진료로 중복하여 진료비를 돌려받는 것을 제외하여 실비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지원 체계 정비의 성과는 각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원에 대한 협업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중복성 방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도 중복성 방지 노력과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밀집 거주 지역이 아닌 경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단독 운영하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낮은 효율성, 중복 방지 차원 등으로 일반 지원체계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정비되어 왔다. 최근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복지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나센터에서도 초기정착업무가 하나센터의 주요 업무이며 취업지원은 하나센터의 과업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만의 직업교육훈련이나 취업지원 등과 같은 독립된 지원서비스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일반국민과 구분 짓고, 그 결과 우리사회에 통합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기존의 잘 갖춰진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5장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 1. 조사개요
- 2. 인구와 가족
- 3. 교육 및 훈련
- 4. 경제와 고용
- 5. 주거
- 6. 건강
- 7. 가치관
- 8. 관계 및 참여

1. 조사개요

1)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북한출생 또는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전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일반 설문조사와 다르게 북한배경청년이라는 표본의 특수성 때문에 표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북한배경청년 연락처를 연구자가 직접 구해 설문참여를 독려했고, 설문 참여자 소개 등을 통해 표본을 확보했다. 표본 확보의 난관이 있었던 관계로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출신지역별 고른 표본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특히, 북한출생이 아닌 제3국출생의 경우 정확한 집계 및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표본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25) 5장은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 석좌연구위원, 충남대학교 박환보 교수, 통일연구원 이지순 연구위원, 최종학 연구원이 집필하였다.

26) 이 글에서는 2021년 청년실태조사에서 응답한 전체 응답자를 의미하는 용어로 '일반청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2022년 북한배경청년 정책소의 실태조사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를 '북한배경청년'이라는 용어로 표시하려 한다.

표 V-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
전	체		108	100
성 별	남	자	35	32.4
	여	자	73	67.6
연 령	만 1 9 ~ 2 4 세		58	54.2
	만 2 5 ~ 2 9 세		26	24.3
	만 3 0 ~ 3 4 세		23	21.5
지 역	수 도 권		98	91.6
	비 수 도 권		9	8.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65.9
	대 졸 이 상		31	34.1
출 신	북	한	90	84.1
지 역	중	국	17	16.9

이 조사에서 목표 표본규모는 130명으로 조사 완료가 된 최종 표본은 총 108명이었다. 조사 결과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32.4%(35명)으로 67.6%인 여성(73명)보다 적었다. 연령집단별로는 19세에서 24세가 54.2%(58명)로 가장 많았고 25세에서 29세가 24.3%(26명), 30세에서 34세가 21.5%(23명) 순이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청년이 91.6%(98명)로 8.4%(9명)인 비수도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졸 이상이 34.1%(31명)으로 고졸 이하나 대학 재학 65.9%(60명)보다 적었다. 마지막으로 출신지역별로는 북한출생이 84.1%(90명)로 중국출생 16.9%(17명)보다 많았다.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는 설문지 작성, 예비조사, 본 조사로 이뤄졌다. 설문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항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총 111개 문항 중 50개 문항을 삭제했으며, 수차례의 공동연구진 코워킹회의를 통해 북한배경청년에 초점을 맞춘 문항 17개를 신규로 추가해 ‘2022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문항은 총 78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본 조사에 앞서서 문항의 이해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2회의 북한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와 2회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적합성 자문이 진행됐다. 일부 문항의 단어가 북한배경청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최대한 쉬운 단어로 변경해 설문지를 수정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 결과 중국출생의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은

언어적 한계로 유의미한 설문 응답이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해 중국어로 설문지를 번역해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의 적극적인 설문지 응답을 유도했다. 본 조사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공동연구진이 북한배경청년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직접 유선을 통해 섭의를 진행했고, 이메일을 통한 설문지 수발신이 이뤄졌다.

2) 북한배경청년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및 심층면접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북한배경청년 대상 FGI와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FGI는 2회 진행됐으며 1회당 3인의 북한배경청년과 3인의 공동연구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수의 피면접자와 연구진의 참여로 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에서 담아내지 못한 정책수요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면접은 16회 진행됐으며 피면접자, 연구진의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층면접은 건강, 가치관, 관계 및 참여 등의 FGI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개인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보다 개별적으로 다양한 정책소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FGI와 심층면접 전체 과정은 피면접자 동의를 거친 후 녹음되었으며, 이를 녹취록으로 제작해 연구보고서에 활용했다. 피면접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녹취록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연령, 거주지, 탈북·입국연도 등의 정보는 모두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했다.

표 V-2. FGI 및 심층면접 대상자 정보

사례번호	성별	출생지	면담일자	비고
사례1	여성	북한	2022.6.22.	FGI
사례2	남성	북한	2022.6.22.	FGI
사례3	여성	중국	2022.6.22.	FGI
사례4	남성	북한	2022.6.25.	FGI
사례5	남성	북한	2022.6.25.	FGI
사례6	여성	북한	2022.6.25.	FGI
사례7	남성	중국	2022.6.23.	
사례8	여성	중국	2022.6.23.	
사례9	남성	북한	2022.6.25.	
사례10	여성	북한	2022.6.25.	
사례11	여성	북한	2022.7.1.	
사례12	남성	북한	2022.7.1.	

사례번호	성별	출생지	면담일자	비고
사례13	남성	북한	2022.7.1.	
사례14	남성	중국	2022.7.2.	
사례15	여성	북한	2022.7.2.	
사례16	여성	북한	2022.7.4.	
사례17	여성	북한	2022.7.7.	
사례18	남성	북한	2022.7.11.	
사례19	남성	중국	2022.7.11.	
사례20	여성	북한	2022.7.21.	
사례21	여성	북한	2022.7.21.	
사례22	여성	북한	2022.7.29.	

2. 인구와 가족

북한배경청년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결혼과 출산 및 가족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결혼 여부, 출산 여부, 맞벌이 여부, 필요한 출산·양육 대책, 해외 이주 의향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됐으며, 설문 조사 결과와 면담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3.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혼해야 함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결혼할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2,041	39.1	30.9	54.3	6.6
성 별	남 자	1,074	42.1	31.3	53.0	4.9
	여 자	967	35.7	30.4	55.8	8.5
연 령	만 18 ~ 24 세	773	38.2	30.5	54.7	7.1
	만 25 ~ 29 세	668	38.7	31.1	54.1	7.2
	만 30 ~ 34 세	600	40.7	31.2	54.1	5.2
지 역	수 도 권	1,032	36.0	30.9	57.0	7.0
	비 수 도 권	1,009	42.6	30.9	51.2	6.1
학 령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41.9	30.6	52.3	5.8
	대 졸 이 상	1,044	36.4	31.2	56.2	7.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혼해야 함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결혼할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106	37.7	30.42	57.5	4.7
성 별	남 자	35	54.3	30.4	5.7
	여 자	71	29.6	30.4	4.2
연 령	만 19 ~ 24 세	57	38.6	29.58	54.4
	만 25 ~ 29 세	25	32.0	32.89	64.0
	만 30 ~ 34 세	23	43.5	30.23	56.5
지 역	수 도 권	96	36.5	30.51	58.3
	비 수 도 권	9	55.6	29.83	44.4
학 령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9	39.0	30.6	57.6
	대 졸 이 상	30	23.3	32.63	73.3
출 신 지 역	북 한	88	39.8	30.91	58.0
	중 국	17	29.4	26.6	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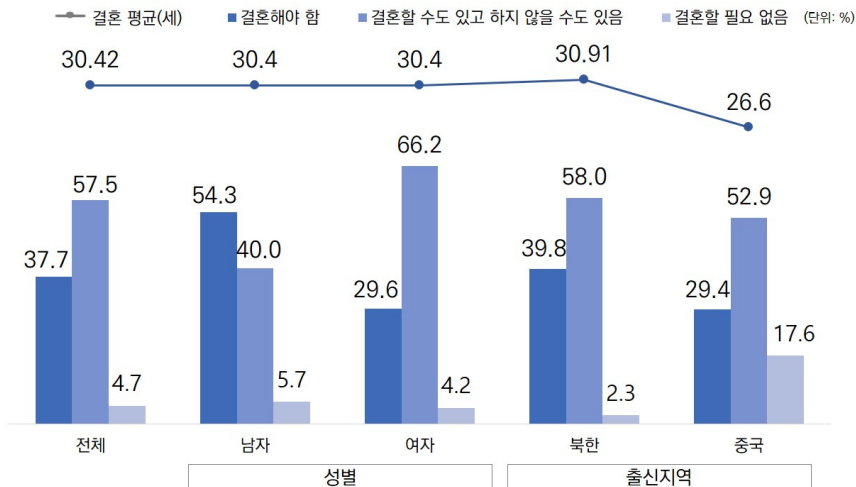


그림 V-1. 결혼 필요성 및 적정 결혼 시기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 39.1%,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54.3%로 나타났다.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6.6%였다.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결혼 의향은 연령대별 전체 응답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42.1%)의 결혼 의향이 여자(35.7%)보다 6.5%p 높았으며, 비수도권(42.6%)이 수도권(36.0%)보다 6.6%p 높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의 결혼 의향(41.9%)이 대졸 이상(36.4%)보다 5.5%p 높았다. 결혼 시기는 성별로 볼 때 남자 31.4세, 여자 30.4세로 남자가 여자보다 늦지만,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만 18~24세 30.5세, 만 25~29세 31.1세, 만 30~34세 31.2세) 결혼 적령기가 늦어졌다.

2022년 북한배경청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 37.7%,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57.5%로 나타났다.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7%였다. 결혼 의향은 남자(54.3%)가 여자(29.6%)보다 24.7%p 높았다.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응답은 여자(66.2%)가 남자(40.0%)보다 26.2%p 높아서 여자가 결혼에 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결혼 적정 시기는 남녀 모두 30.42세로 같았다. 출신 지역에 따른 결혼 의향은 북한 출신(39.8%)이 중국 출신(29.4%)보다 10.4%p 높았다.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북한 출신(2.3%)보다 중국 출신(17.6%)이 15.3%p 높게 나타났다. 중국 출신은 결혼 의향이 북한 출신보다 훨씬 적었지만 적정 결혼 시기는 북한의 30.91세보다 낮은 26.6세로 나타났다.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을 비교해 볼 때 결혼의 필요성과 적정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집계되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결혼 의향은 일반청년보다 북한배경청년의 차이가 더 컸다. 일반청년은 여자가 남자보다 근소하게 결혼 의향이 적었으나, 북한배경청년은 여자가 남자의 절반 수준으로 결혼 의향이 없거나 유보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혼에 부정적이었다.

북한배경청년 심층면담에 의하면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별개로 20대의 경우 결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고 그러고도 결혼할 생각 있으면” 하겠다는 의견처럼 결혼을 필수로 인식하지 않았다. 반면에 “30살 그때 만약에 돈이 생기면” 결혼하겠다는 의견처럼, 30대에 접어든 사례 17은 “결혼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 한 살이라도 좀 젊을 때 하자”는 의향을 밝혔다. 결혼 적정 시기가 북한 출신(30.91세)보다 중국 출신(26.6세)이 낮은 것처럼 중국에서는 24~25세에 결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배경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더 큰 이유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송금해야 한다는 의무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학군 및 임대아파트 거주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 경제적 불안, 주거지 문제 등이 결혼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이혼한 주변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 결혼에 부정적이었다. 한편, 가정폭력의 경험이 결혼을 거부하도록 하는 동인이 되기도 했다. 주변사람들이 일찍 결혼하고 결혼을 권유받고 있지만, 주변에서 보고 들었던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실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중국인과 결혼한 어머니가 아버지와 “진짜 피나게 싸우고” 했던 경험이 결혼에 부정적이게 했다.

중국에서는 결혼 빨리빨리 해요. 한 24살 5살 그때 막 결혼하고 제가 아는 친구도 이미 좀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런 친구 있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아마 그런 걸 다 의식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중국에서 친척 분들도 아, 너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대학교 있나 아니면 군대까지 갔다가 나오면 스물 거의 일곱 살 여덟 살 돼요. 그것까지 다 마치고 또 나와서 대학교 2학년도 해야 되고 그럼 서른이 됐는데 직장 언제 다니고 돈 언제 모으고 언제 장가하고 막 그런 거 따지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사례 8)

저는 결혼을 하고 싶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게 저 혼자 살 때는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서 살아도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뭐 딱히 좁다고 해서... 그냥 살면 되지. 결혼하면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 자체는 크기도 크기지만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거 용도보다는 브랜드나 이런 것도 보고. 만약에 자식이 생겼을 경우 학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아이들끼리도... (사례 12)

돈이 좀 많아야 결혼하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게 살기 싫어요. 나중에도 계속 이려고 다니면 월세도 아니고 이려고 살 거면 저는 결혼 절대 안 합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 14)

주변에 이혼한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결혼 안 한 분들도 있었고 주변 영향도 있고 주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정폭력 관련해서도 많이 듣고 보고 그랬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무섭고 이래저래. (사례 15)

주변 보면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다 지금 청약을 넣니. 결혼을 하니. 이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따금 또 겁이 나긴 하죠. 나도... 제가 그래서 청약통장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사람 마음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은 진짜 열심히. 예를 들어서 결혼 약속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청약 넣고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아마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딱 서고 그러면 그쪽에 눈이 빨개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예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결혼을 한다?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결혼이 내 다음 인생의 어떤 과제 내지는 다음 스텝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주거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거 같아요. 현재까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니까, 지금은 이런 마인드인 거 같은데. 만약 이 사람하고 진짜 꼭 결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선차적인 과제가 될 거 같아요. (사례 18)

표 V-5.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녀를 가져야 함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음	자녀를 가질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2,041	37.2	32.1	55.5	7.3
성 별	남 자	1,074	39.0	32.6	55.2	5.8
	여 자	967	35.2	31.5	55.8	8.9
연 령	만 18 ~ 24 세	773	36.2	31.9	55.6	8.2
	만 25 ~ 29 세	668	38.1	32.0	53.0	8.9
	만 30 ~ 34 세	600	37.5	32.3	58.2	4.3
지 역	수 도 권	1,032	34.6	32.2	57.1	8.2
	비 수 도 권	1,009	40.2	32.0	53.6	6.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38.6	31.8	54.4	7.0
	대 졸 이 상	1,044	35.9	32.3	56.6	7.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6.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녀를 가져야 함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음	자녀를 가질 필요 없음
			%	평균(세)		
전	체	105	32.4	31.7	58.1	9.5
성 별	남 자	35	48.6	32.0	37.1	14.3
	여 자	70	24.3	31.5	68.6	7.1
연 령	만 19 ~ 24 세	57	33.3	31.2	54.4	12.3
	만 25 ~ 29 세	25	32.0	32.9	60.0	8.0
	만 30 ~ 34 세	22	31.8	32.1	63.6	4.5
지 역	수 도 권	95	32.6	31.8	58.8	10.5
	비 수 도 권	9	33.3	32.8	66.7	0.0
학 력	고 졸 이 하 또는 대학 재학	59	32.2	32.2	62.7	5.1
	대 졸 이 상	30	20.0	32.9	66.7	7.9
출 신 지 역	북 한	87	33.3	32.0	60.9	5.7
	중 국	17	29.4	30.0	41.2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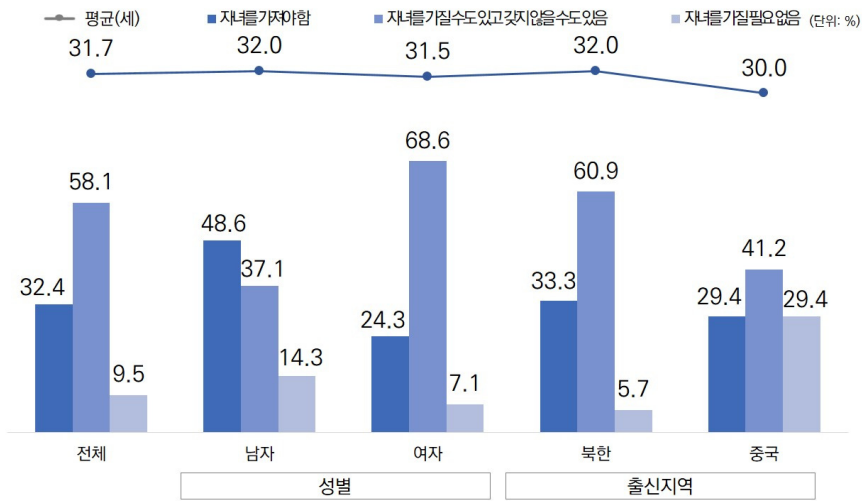


그림 V-2. 자녀를 가질 필요성 및 적정 자녀 계획 시기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37.2%,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 55.5%, ‘자녀를 가질 필요 없다’ 7.3%로 나타났다.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62.8%에 달했다. 비수도권(40.2%)이 수도권(34.6%)보다 약간 정도 높은 것을 제외한다면, 성별, 연령, 학력 차이에 따른 응답율은 전체 비율과 거의 대동소이했다.

2022년 북한배경청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32.4%,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 58.1%, ‘자녀를 가질 필요 없다’ 9.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녀를 필수로 여기지 않는 의견이 67.6%로 컸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이, 대졸 이상보다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았다. 특히 성별에 따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비율 차이가 컸다. 남자(48.6%)가 여자(24.3%)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이 두 배로 높았다.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결정 의사 표시는 여자(68.6%)가 남자(37.1%)보다 두 배정도 높았다. 반면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남자(14.3%)가 여자(7.1%)보다 배로 높았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북한 출신과 중국 출신은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는 북한 출신(5.7%), 중국 출신(29.4%)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을 비교해 볼 때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청년(37.2%), 북한배경청년(32.4%)로 일반청년이 약간 높았다. 자녀를 가지는 평균 나이는 일반청년(32.1세), 북한배경청년(31.7세)로 일반청년이 약간 많았다. 일반청년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식은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면, 북한배경청년은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남자가 여자보다 배로 높았다. 반면에 여자는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결정 의견이 남자보다 배로 높았다. 일반청년은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과 부담감이 남녀에게 비슷하게 작용한다면, 북한배경청년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V-7.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 상징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를 졸업하는 것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	부모와 타인으로 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것	결혼하는 것	자녀를 출산하는 것	주택을 구입하는 것	성인으로 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	기타
전	체	108	12.0	20.4	40.7	1.9	5.6	0.0	0.9	16.7	1.9
성별	남	자	35	20.0	25.7	31.4	0.0	8.6	0.0	14.3	0.0
	여	자	73	8.2	17.8	45.2	2.7	4.1	0.0	17.8	2.7
연령	만 19 ~ 24 세	58	15.5	15.5	44.8	3.4	3.4	0.0	0.0	15.5	1.7
	만 25 ~ 29 세	26	11.5	23.1	38.5	0.0	11.5	0.0	0.0	15.4	0.0
	만 30 ~ 34 세	23	4.3	26.1	34.8	0.0	4.3	0.0	4.3	21.7	4.3
지역	수 도 권	98	11.2	19.4	40.8	2.0	6.1	0.0	1.0	17.3	2.0
	비 수 도 권	9	22.2	22.2	44.4	0.0	0.0	0.0	0.0	11.1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15.0	20.0	36.7	3.3	3.3	0.0	1.7	16.7	3.3
	대 졸 이 상	31	3.2	12.9	48.4	0.0	12.9	0.0	0.0	22.6	0.0
출신 지역	북 한	90	12.2	17.8	41.1	1.1	6.7	0.0	1.1	17.8	2.2
	중 국	17	11.8	29.4	42.2	5.9	0.0	0.0	0.0	11.8	0.0

북한배경청년은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에 대한 질문에 ‘경제적 독립’ 40.7%, ‘첫 일자리’ 20.4%, ‘성인의 권리 획득’ 16.7%, ‘학교 졸업’ 12.0%, ‘결혼’ 5.6%, ‘부모와의 거주 독립’ 1.9%, ‘주택 구입’ 0.9% 순으로 응답했다. 자녀 출산에 대한 응답은 모든 항목에서

0.0%를 보였다. 경제적 독립과 일자리를 성인으로서는 첫 출발로 본다는 조사 결과는 경제적 자립이 삶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안정과 일자리가 향후 거주 독립과 결혼과 자녀 출산 등 가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V-8. 가장 적절한 가족의 개념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공동체	정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반려동물을 포함 하여 함께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	기타
전 체			106	49.1	34.0	14.2	2.8
성 별	남 자		35	48.6	34.3	17.1	0.0
	여 자		71	49.3	33.8	12.7	4.2
연 령	만 19 ~ 24 세		57	42.1	35.1	19.3	3.5
	만 25 ~ 29 세		25	60.0	24.0	16.0	0.0
	만 30 ~ 34 세		23	56.5	39.1	0.0	4.3
지 역	수 도 권		96	49.0	35.4	12.5	3.1
	비 수 도 권		9	55.6	11.1	33.3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45.0	38.3	11.7	5.0
	대 졸 이 상		31	58.1	19.4	22.6	0.0
출 신 지 역	북 한		89	51.7	31.5	13.5	4.3
	중 국		16	37.5	43.8	18.8	0.0

북한배경청년은 가족의 개념에 대해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공동체’ 49.1%, ‘정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34.0%,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 14.2%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적절한 가족 개념에 대한 질문에 성별 응답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만 25~29세는 정서적 연대(24.0%)와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응답(16.0%)보다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60.0%)를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 간 차이도 두드러지는데, 비수도권은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을 가족으로 본다는 응답이 정서적 연대보다 높았다. 또한, 중국 출신 청년은 정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본다는 응답(43.8%)이 혈연과 혼인, 입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37.5%)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은 가족과 함께 입국하거나(사례 8; 사례 17), 먼저 입국한 친인척과 합류하여(사례 1; 사례 14) 혈연 중심의 가족을 유지했다. 단독으로 입국했지만, 남한에서 결혼과 출산을 통해 혈연 중심의 가족을 형성한 경우도 있다(사례 11). 반면에 남한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미성년자는 대안학교에서 학업과 숙식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사례 20), 미성년에서 벗어났지만 가족이 없는 외로움에 그룹홈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공동체 구성원을 가족처럼 여기기도 한다(사례 16).

좀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 이게 헤어져 있던 시간이 11년이니까 서로... 아무리 딸과 자식이지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우리들만의 소통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되게 편하게 서로를 존중하니까 지금은 좋아요. (사례 1)

그래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럴 때는 엄마의 손길이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엄마 음식 엄청 생각나잖아요. 출산하고 나니까 더 엄마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엄마가 해주던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우리 막 그 시어머니가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였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막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엄마가 필요하다. (사례 11)

부모님이랑 떨어져 산 지 이제 8년이 넘는 거 같아서. 옛날에는 되게 뭐 전화만 들어도 막 엄청 울었는데 이제는 무덤덤해진 거 같아요. (사례 16)

처음에 힘들었던 거는 부모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게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장 이게 혼자 살면 외로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불 꺼진 집에 들어가야 되고 누구한테 어떤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막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어려움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사례 20)

표 V-9. 결혼 경험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결혼하지 않음
성 별	전	체	2,041	18.9	0.2	80.8
		자	1,074	14.0	0.1	86.0
		여	967	24.5	0.4	75.1
연 령	만 1 8 ~ 2 4 세	체	773	1.0	0.0	99.0
		자	668	13.7	0.6	85.8
		여	600	47.5	0.1	52.4
지 역	수 도 권	체	1,032	18.8	0.3	80.9
		자	1,009	19.1	0.1	80.8
		여	997	11.4	0.3	88.3
학 력	고 졸 이 하 또는 대 학 재 학	체	1,044	26.2	0.1	73.7
		자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0. 배우자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동거 포함)	없음
전		체	107	17.8	82.2
성 별	남	자	34	20.6	79.4
	여	자	73	16.4	83.6
연 령	만 19 ~ 24 세		58	3.4	96.6
	만 25 ~ 29 세		26	23.1	76.9
	만 30 ~ 34 세		23	47.8	52.2
지 역	수 도 권		98	18.4	81.6
	비 수 도 권		9	11.1	88.9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10.2	89.8
	대 졸 이 상		31	32.3	67.7
출 신 지역	북	한	90	20.0	80.0
	중	국	17	5.9	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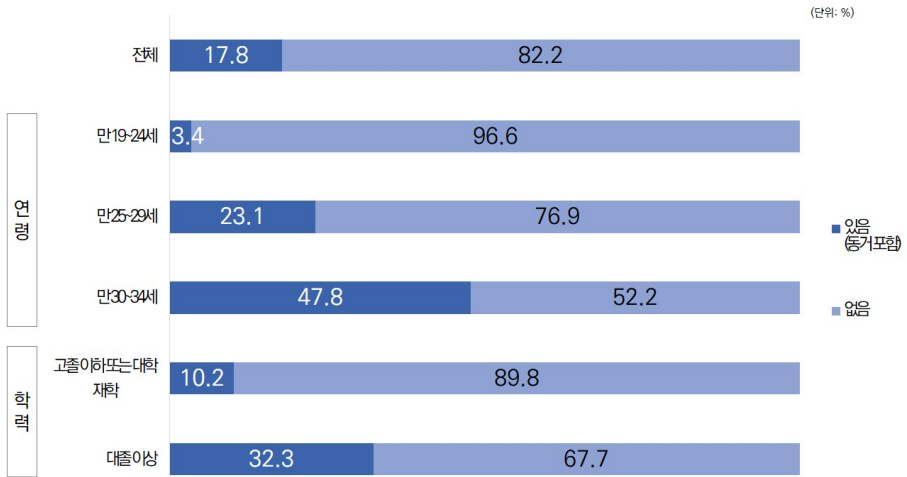


그림 V-3. 배우자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배우자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일반청년의 경우 ‘배우자 있음’ 18.9%, ‘결혼하지 않음’ 80.8%, ‘사별 또는 이혼’ 0.2%로 집계되었다. ‘배우자 있음’의 경우 남자(14.0%)보다 여자(24.5%)가 10.5%p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만 18~24세 1.0%, 만 25~29세 13.7%,

만 30~34세 47.5%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 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미혼 상태는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88.3%)이 대졸 이상(73.7%)보다 높게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동거를 포함하여 ‘배우자 있음’ 17.8%, ‘배우자 없음’ 82.2%로 집계되었다. 성별과 지역 차이는 크게 없으나 연령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배우자 있음’은 만 19~24세 3.4%, 만 25~29세 23.1%, 만 30~34세 47.8%로 나타났다. 미혼 상태는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89.8%)이 대졸 이상(67.7%)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국 출신(5.9%)보다 북한 출신(20.0%)의 배우자 있음이 14.1%p 높게 나타났다. 중국 출신 청년은 배우자가 없다는 비율이 94.1%로 집계되어 대다수가 미혼인 상태였다.

배우자 여부에 대한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볼 때 근소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청년은 결혼에 따른 배우자 유무라면, 북한배경청년은 동거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에서 일반청년(18.9%)이 북한배경청년(17.8%)보다 약간 더 높았다. 일반청년 30.9세, 북한배경청년 30.42세로 나타난 결혼 적령기와 비교해 볼 때 30~34세의 청년(일반청년 47.5%, 북한배경청년 47.8%)에게서 배우자가 있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 모두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보다 대졸 이상에게서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졸업 후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자립을 한 후에 가족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V-11. 결혼 준비 경험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041	19.1	80.9
	자				
성 별	남	자	1,074	14.5	85.5
	여	자	967	24.4	75.6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1.2	98.8
	만 2 5 ~ 2 9 세		668	14.2	85.8
	만 3 0 ~ 3 4 세		600	47.4	52.6
지 역	수 도 권		1,032	19.3	80.7
	비 수 도 권		1,009	19.0	81.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11.7	88.3
	대 졸 이 상		1,044	26.3	73.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2. 결혼 준비 경험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00	15.0	85.0
성 별	남	자	31	9.7	90.3
	여	자	69	17.4	82.6
연 령	만 19 ~ 24 세		53	0.0	100
	만 25 ~ 29 세		25	20.0	80.0
	만 30 ~ 34 세		22	45.5	54.5
지 역	수 도 권		91	14.3	85.7
	비 수 도 권		9	22.2	77.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5	9.1	90.9
	대 졸 이 상		29	20.7	79.3
출 신 지역	북	한	84	17.9	82.1
	중	국	16	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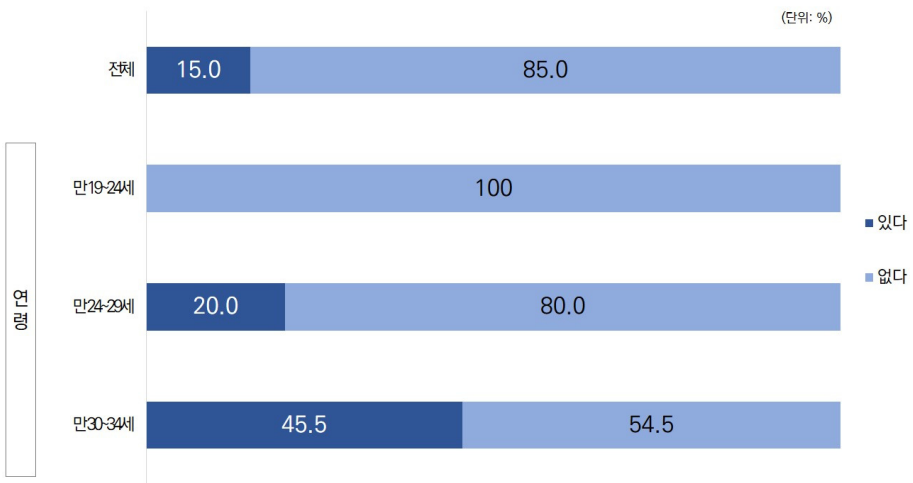


그림 V-4. 결혼 준비 경험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결혼 준비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일반청년은 ‘결혼 준비 경험이 있다’ 19.1%, ‘결혼 준비 경험이 없다’ 80.9%였다. 결혼 준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자 14.5%, 여자 24.4%

로 나타나고 있어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다. 지역 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연령대별로는 만 18~24세 1.2%, 만 25~29세 14.2%, 만 30~34세 47.4%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은 11.7%, 대졸 이상은 26.3%가 결혼 준비 경험이 있었다.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결혼 준비 경험이 있다’ 15.0%, ‘결혼 준비 경험이 없다’ 85.0%였다. 결혼 준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만 18~24세 0.0%, 만 25~29세 20.0%, 만 30~34세 45.5%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결혼 준비 경험도 많아졌다.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보다 대졸 이상에게서 결혼 준비 경험이 많았다.

결혼 준비 경험에 대한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을 비교해 보면, 일반청년의 결혼 준비 경험의 비율은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과 거의 같았다. 반면에 북한배경청년은 동거 경험을 배우자 유무에 포함함에 따라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과 비교해 결혼 준비 경험이 적게 나타났다. 또한 만 18~24세 북한배경청년에게 배우자 있음이 3.4%이지만, 결혼 준비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100%였다. 대졸 이상의 경우 배우자 있음은 32.3%였지만, 결혼 준비 경험은 20.7%만 있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배경청년이 일반청년보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동거를 한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V-13.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5	46.7	53.3
성 별	남	자	4	0.0	100
	여	자	11	63.6	36.4
연 령	만 19 ~ 24 세		1	0.0	100
	만 25 ~ 29 세		6	50.0	50.0
	만 30 ~ 34 세		8	50.0	50.0
지 역	수 도 권		13	38.5	61.5
	비 수 도 권		2	1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	66.7	33.3
	대 졸 이 상		7	42.9	57.1
출 신 지 역	북	한	15	46.7	53.3
	중	국	0.0	0.0	0.0

* 주: 1) 입국 후 결혼을 준비해 봤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북한배경청년은 남한 입국 이후 결혼 준비를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사례가 15건에 불과하다. 남한에서 결혼 준비 시 ‘망설임 경험이 있다’ 46.7%, ‘망설이지 않았다’ 53.3%였다. 망설였다는 응답이 망설이지 않았다는 응답에 비해 6.6%p 높은데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

표 V-14. 결혼을 망설임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결혼비용 때문에 (주택마련, 혼수비용)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포기 할 수 없어서	결혼생활 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기타
전	체	10	40.0	10.0	10.0	10.0	30.0	0.0
성 별	남 자	1	100	0.0	0.0	0.0	0.0	0.0
	여 자	9	33.3	11.1	11.1	11.1	33.3	0.0
연 령	만 19 ~ 24 세	0	0.0	0.0	0.0	0.0	0.0	0.0
	만 25 ~ 29 세	5	40.0	20.0	0	20.0	20.0	0.0
	만 30 ~ 34 세	5	40.0	0.0	20.0	0	40.0	0.0
지 역	수 도 권	8	37.5	12.5	0.0	12.5	37.5	0.0
	비 수 도 권	2	50.0	0.0	50.0	0.0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	40.0	0.0	20.0	20.0	20.0	0.0
	대 졸 이 상	4	50.0	25.0	0.0	0.0	25.0	0.0
출 신 지 역	북 한	10	40.0	10.0	10.0	10.0	30.0	0.0
	중 국	0	0.0	0.0	0.0	0.0	0.0	0.0

* 주: 1) 결혼을 망설임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결혼을 망설임 이유로 북한배경청년은 ‘주택과 혼수를 마련해야 하는 결혼비용 때문에’ 40%,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30%,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불안정한 직장’, ‘자유로운 삶 추구’가 각각 10% 비율로 나타났다. 여자는 전체 응답 순위와 비율이 거의 비슷했으나, 남자는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다는 응답이 100%였다. 여성의 경우 결혼비용도 원인이지만, 출산 혹은 양육 걱정,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결혼생활에 자신감이 없어서 등이 결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 맞벌이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맞벌이)	아니오(외벌이)
전		체	52	25.0	75.0
성 별	남	자	19	21.1	78.9
	여	자	33	27.3	72.7
연 령	만 1 9 ~ 2 4 세		23	17.4	82.6
	만 2 5 ~ 2 9 세		13	38.5	61.5
	만 3 0 ~ 3 4 세		16	25.0	75.0
지 역	수 도 권		47	27.7	72.3
	비 수 도 권		5	0.0	1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29	20.7	79.3
	대 졸 이 상		16	43.8	56.3
출 신 지 역	북	한	46	26.1	73.9
	중	국	6	16.7	83.3

북한배경청년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맞벌이’ 25%, ‘외벌이’ 75%로 집계되었다. 남자의 맞벌이 응답은 여자보다 약간 낮았다. 지역에 따른 맞벌이 비율은 수도권이 27.7%라면, 비수도권은 외벌이 100%로 집계되었다. 학력에 따른 비율을 보면 대졸 이상에서는 맞벌이와 외벌이가 거의 비슷했지만,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은 외벌이(79.3%)가 맞벌이(20.7%)보다 58.6%p 높게 나타났다. 출신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북한 출신의 맞벌이(26.1%)가 중국 출신(16.7%)보다 높았다.

표 V-16. 현재 자녀 존재 유무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	평균(명)	
전		체	2,041	11.7	1.4	88.3
성 별	남	자	1,074	7.3	1.4	92.7
	여	자	967	16.6	1.5	83.4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0.6	1.0	99.4
	만 2 5 ~ 2 9 세		668	7.7	1.3	92.3
	만 3 0 ~ 3 4 세		600	30.0	1.5	70.0
지 역	수 도 권		1,032	11.3	1.4	88.7
	비 수 도 권		1,009	12.1	1.5	87.9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7.7	1.5	92.3
	대 졸 이 상		1,044	15.5	1.4	84.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7. 현재 자녀 존재 유무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	평균(명)	
전		체	98	19.4	1.2	80.6
성 별	남	자	33	9.1	1.3	90.9
	여	자	65	24.6	1.2	75.4
연 령	만 1 9 ~ 2 4 세		52	1.9	0.0	98.1
	만 2 5 ~ 2 9 세		24	25.0	1.0	75.0
	만 3 0 ~ 3 4 세		21	57.1	1.3	42.9
지 역	수 도 권		88	18.2	1.2	81.8
	비 수 도 권		9	33.3	1.5	6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5	12.7	1.3	87.3
	대 졸 이 상		27	29.6	1.2	70.4
출 신 지역	북 한		81	23.5	1.2	76.5
	중 국		16	0.0	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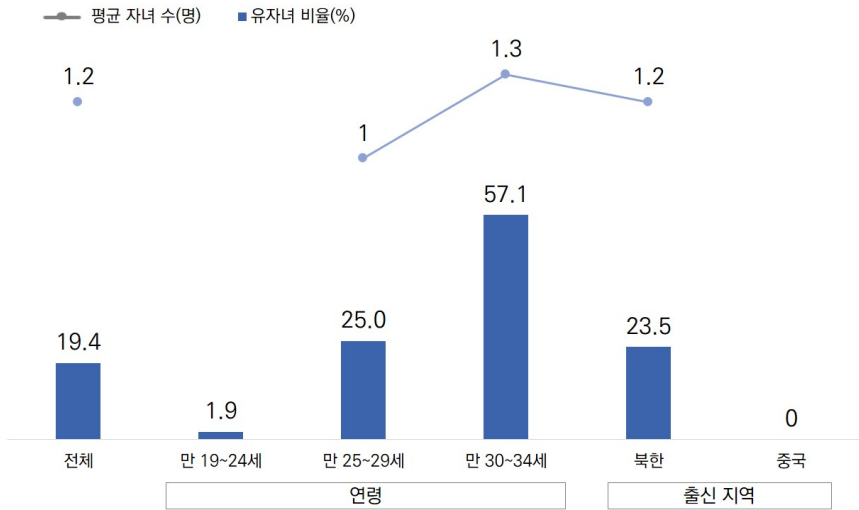


그림 V-5. 현재 자녀 존재 유무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있다’ 11.7%, ‘없다’ 88.3%였다. 평균 자녀수는 1.4명이었다. 자녀 유무에 대해 남자는 7.3%, 여자는 16.6% 있다고 답했다. 평균 자녀수도 남자는 1.4명, 여자는 1.5명이었다. 연령대별 자녀 유무와 평균 자녀수를 보면, 만 18~24세는 0.6%(1.0명), 만 25~29세는 7.7%(1.3명), 만 30~34세는 30.0%(1.5명)가 자녀가 있다고 답했다. 평균 자녀수도 나이가 많을수록 근소하게 많았다. 지역별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 11.3%(1.4명), 비수도권 12.1%(1.5명)이었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7.7%(1.5명), 대졸 이상 15.5%(1.4명)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대졸 이상에서 자녀가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다만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응답자의 평균 자녀수가 대졸 이상보다 0.1명 많았다.

2022년 북한배경청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있다’ 19.4%, ‘없다’ 80.6%였다. 평균 자녀수는 1.2명이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자녀가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 자녀 유무와 평균 자녀수를 보면, 만 18~24세는 자녀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1.9%였으나 자녀수를 기입하지 않아 0.0명으로 나타났다. 만 25~29세는 25.0%(1.0명), 만 30~34세는 57.1%(1.3명)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의 수도 증가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자녀가 있는 북한 출신은 23.5%

(1.2명)였으나 중국 출신은 100% 자녀가 없다고 응답했다.

현재 자녀 존재 유무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볼 때 자녀가 있다는 응답은 북한배경(19.4%)이 남한(11.7%)보다 7.7%p 많았으나, 평균 자녀수는 북한배경(1.2명)이 남한(1.4명)보다 0.2명 적었다.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 모두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녀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지만, 평균 자녀수는 1.5명이 채 되지 않아 낮은 출산율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배경청년의 심층면담에 의하면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여 자녀를 일찍 출산한 경우도 있지만(사례 9; 사례 10), 단독 입국한 여성의 경우 출산 이후 심리적 우울을 겪는(사례 11)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례 12에 의하면 임대아파트 거주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 결혼식 할 때 저희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네. 애가 엄청 순하고 이런 데 처음 와서도 자요. 울지도 않고 순해요. (사례 9)

하나센터에서 눈이 맞았지. (...) 나와서 두 달 만에 뭐 두 달 만에 그냥 사귀기로 하고 그때부터 쪽 사건 게 지금까지 그냥. (...) 혼인 신고는 했는데 식을 못 올린 거죠. 식은 그냥 임신되어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한 거죠. (사례 10)

시댁은 어머니랑 아가씨들이랑 있긴 한데 제가 별로 안 다녀봤어요. (...) 저는 제일 출산하고 그날 저녁부터 엄마가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출산하고 막 울면 되게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출산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매일 저녁 울었어요. 너무 엄마한테 보고 싶고 미안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신랑이라도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차단하고 막 그러니까. (사례 11)

저는 결혼을 하고 싶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게 저 혼자 살 때는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서 살아도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뭐 딱히 좁다고 해서... 그냥 살면 되지. 결혼하면 이게 결혼을 한다는 거 자체는 크기도 크이지만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거 용도보다는 브랜드냐 이런 것도 보고. 만약에 자식이 생겼을 경우 학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아이들끼리도... (사례 12)

표 V-18.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41	63.0	37.0
성 별	남	자	1,074	69.8	30.2
	여	자	967	55.2	44.8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62.5	37.5
	만 2 5 ~ 2 9 세		668	67.3	32.7
	만 3 0 ~ 3 4 세		600	58.7	41.3
지 역	수 도 권		1,032	61.0	39.0
	비 수 도 권		1,009	65.2	34.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63.0	37.0
	대 졸 이 상		1,044	62.9	37.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9.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95	62.1	37.9
성 별	남	자	27	77.8	22.2
	여	자	68	55.9	44.1
연 령	만 1 9 ~ 2 4 세		50	58.0	42.0
	만 2 5 ~ 2 9 세		24	83.3	16.7
	만 3 0 ~ 3 4 세		21	47.6	52.4
지 역	수 도 권		86	64.0	36.0
	비 수 도 권		9	44.4	55.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4	55.6	44.4
	대 졸 이 상		27	77.8	22.2
출 신 지 역	북	한	83	65.1	34.9
	중	국	12	41.7	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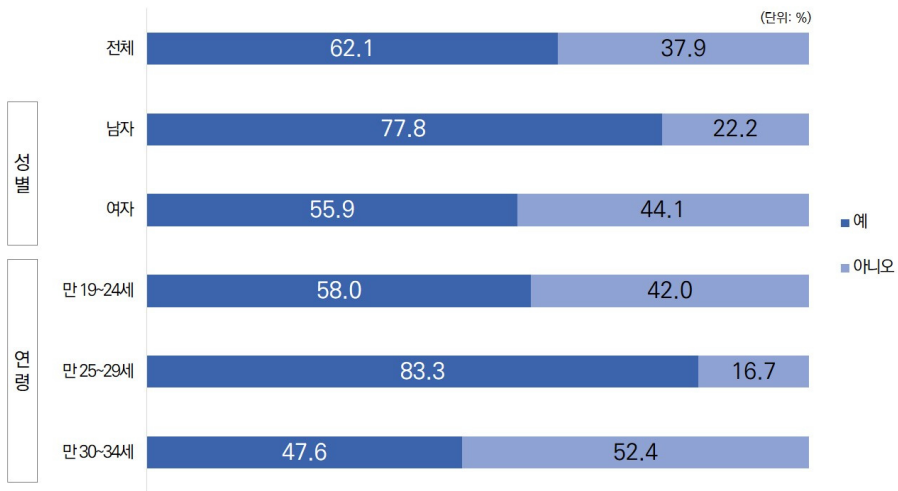


그림 V-6.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일반청년은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 63.0%, '없다' 37.0%였다.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차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8%, 여자는 55.2%가 있다고 답하여 여자보다 남자가 14.6%p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만 18~24세는 62.5%, 만 25~29세는 67.3%, 만 30~34세는 58.7%가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자녀를 가질 의향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과 대졸 이상 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다' 62.1%, '없다' 37.9%였다.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 차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77.8%, 여자는 55.9%가 있다고 답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21.9%p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만 18~24세는 58.0%, 만 25~29세는 83.3%, 만 30~34세는 47.6%가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보다, 북한 출신이 중국 출신보다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높았다.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자녀를 가질 의향은 일반청년(63.0%)과 북한배경청년(62.1%)의 차이가 아주 근소했다.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은 남자가 여자보다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더 많았으며, 연령대별로 결혼 적령기에 가까운 만 25~29세에서 향후 자녀를 가질 의향이 가장 높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 V-20.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미 계획한 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불임, 난임 등 임신의 어려움 때문에	맞벌이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자녀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기타
전	체	757	9.7	0.3	7.2	31.2	6.9	18.5	24.1	2.1
성 별	남 자	321	5.8	0.4	5.2	43.7	2.0	15.4	24.9	2.5
	여 자	436	12.6	0.2	8.8	21.7	10.6	20.9	23.5	1.8
연 령	만 18 ~ 24 세	282	0.0	0.0	5.7	30.4	6.0	19.4	35.1	3.4
	만 25 ~ 29 세	225	4.9	0.4	6.4	32.2	8.0	20.4	25.0	2.7
	만 30 ~ 34 세	250	24.9	0.6	9.8	31.1	6.9	15.8	10.8	0.1
지 역	수 도 권	406	9.1	0.2	6.8	34.5	6.5	18.7	22.4	1.7
	비 수 도 권	351	10.4	0.4	7.8	26.8	7.3	18.3	26.3	2.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367	5.5	0.4	6.5	33.2	4.5	18.9	29.0	2.0
	대 출 이 상	390	13.7	0.2	8.0	29.2	9.1	18.2	19.4	2.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추가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는 응답자

표 V-21.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미 계획한 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불임, 난임 등 임신의 어려움 때문에	맞벌이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자녀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기타
전	체	37	18.9	0.0	0.0	16.2	8.1	18.9	24.3	13.5
성 별	남 자	9	22.2	0.0	0.0	22.2	0.0	11.1	33.3	11.1
	여 자	28	17.9	0.0	0.0	14.3	10.7	21.4	21.4	14.3
연 령	만 19 ~ 24 세	20	0	0.0	0.0	15.0	5.0	25.0	30.0	25.0
	만 25 ~ 29 세	5	40.0	0.0	0.0	0.0	40.0	0.0	20.0	0.0
	만 30 ~ 34 세	12	41.7	0.0	0.0	25.0	0.0	16.7	16.7	0.0
지 역	수 도 권	31	16.1	0.0	0.0	16.1	9.7	19.4	25.8	12.9
	비 수 도 권	6	16.7	0.0	0.0	16.7	0.0	16.7	16.7	1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23	17.4	0.0	0.0	17.4	4.3	21.7	21.7	17.4
	대 출 이 상	7	28.6	0.0	0.0	0.0	14.3	14.3	42.9	0.0
출 신 지 역	북 한	31	22.6	0.0	0.0	16.1	9.7	22.6	22.6	6.5
	중 국	6	0.0	0.0	0.0	16.7	0.0	0.0	33.3	50.0

* 주: 자녀를 가질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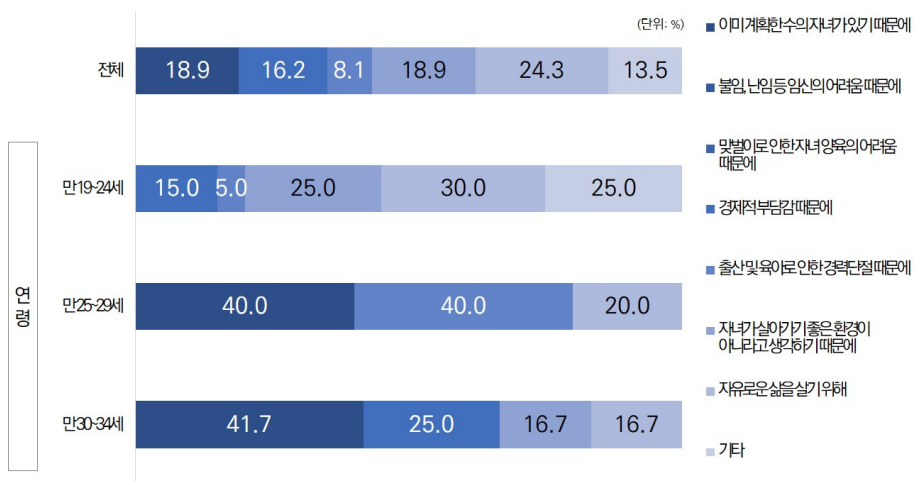


그림 V-7.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일반청년의 경우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31.2%,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24.1%, ‘자녀가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18.5%, ‘이미 계획한 수의 자녀가 있어서’ 9.7%, ‘맞벌이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7.2%,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6.9%, ‘임신의 어려움 때문에’ 0.3%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사유는 2.1%였다. 경제적 부담감은 남자(43.7%)가 여자(21.7%)보다 22.0%p 더 높았으며, 수도권(34.5%)이 비수도권(26.8%)보다 7.7%p 높았다.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경우 여자(10.6%)가 남자(2.0%)보다 8.6%p 높게 나타났다. 이미 계획한 자녀 수가 충족된 경우 만 18~24세 0.0%, 만 25~29세 4.9%, 만 30~34세 24.9%로 나이가 많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았다.

북한배경청년은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24.3%, ‘이미 계획한 수의 자녀가 있어서’ 18.9%, ‘자녀가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18.9%,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16.2%,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8.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는 13.5%나 되었지만, ‘맞벌이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과 ‘임신의 어려움’은 각각 0.0%로 양육과 임신이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만 18~24세의 30.0%가 자유로운 삶을 이유로 들었으나, 만 25~29세와 만 30~34세는 이미 계획한 자녀의 수가 있어서가 각각 40.0%와

41.7%로 높았다. 또한 만 25~29세의 40.0%는 경력단절로 인해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일반청년이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컸지만, 북한배경청년은 자유로운 삶의 추구 비율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기타 사유가 일반청년은 2% 내외이지만, 북한배경청년은 13.5%나 되고 있어 자녀를 추가로 가질 수 없는 다양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 모두 만 18~24세는 자유로운 삶 추구를 이유로 자녀를 추가로 가질 의향이 없다고 답한 공통점이 있었다. 반면에 만 25~29세와 만 30~34세의 일반청년은 경제적 부담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면, 북한배경청년 중 만 25~29세는 계획한 자녀의 수 충족과 경력단절을, 만 30~34세는 이미 계획한 자녀의 수가 충족되었다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북한배경청년 심층면담에 의하면, 사례 11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출산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자녀를 둘 이상 낳는 문제는 현실적 고충이 있게 된다. 사례 9는 낳고 싶은 마음과 별개로 자녀가 한 명일 때는 맞벌이가 가능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추가로 자녀를 낳는다면 외벌이를 하게 되어 부담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다자녀 지원도 2명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망설인다는 것이다.

아직 계획은, 낳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좀 뭐랄까 애 하나 낳고 보니까 그래도 애 낳고 얼마 못 벌어도, 와이프도 조금 벌이하고 하던 게 제가 지금 애도 봐야 하고 두루두루 하다 나니까 와이프가 일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순수 벌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버겁긴 하죠. 그런데 애가 한 명 더 생기고 하면 국가에서 물론 다자녀 2명부터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사례 9)

제가 북한이탈주민 그걸 떠나서 제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결혼식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다 보니까 병원에서 출산비도 그냥 다 무료로 해줬거든요. (사례 11)

표 V-22.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 1순위(상위 5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출산 휴가 장려 및 출산 휴가 급여 보장	육아 휴직 장려 및 육아 휴직 급여 확대	출산 장려금 확대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전	체	98	26.5	17.3	10.2	9.2	9.2
성 별	남 자	30	36.7	16.7	6.7	6.7	6.7
	여 자	68	22.1	17.6	11.8	10.3	10.3
연 령	만 19 ~ 24 세	55	32.7	16.4	9.1	12.7	10.9
	만 25 ~ 29 세	24	25.0	25.0	8.3	4.2	0.0
	만 30 ~ 34 세	19	10.5	10.5	15.8	5.3	15.8
지 역	수 도 권	89	25.8	19.1	10.1	9.0	9.0
	비 수 도 권	9	33.3	0.0	11.1	11.1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5	29.1	14.5	9.1	14.5	12.7
	대 졸 이 상	31	22.6	19.4	12.9	0.0	3.2
출 신 지 역	북 한	83	22.9	18.1	8.4	9.6	10.8
	중 국	15	46.7	13.3	20.0	6.7	0.0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의 상위 5순위에서 북한배경청년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26.5%, ‘출산 휴가 장려 및 출산 휴가 급여 보장’ 17.3%, ‘육아 휴직 장려 및 육아 휴직 급여 확대’ 10.2%, ‘출산 장려금 확대’ 9.2%,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9.2%로 순으로 응답하였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는 남자(36.7%)가 여자(22.1%)보다 높았다면, 육아 휴직 관련 확대는 여자(11.8%)가 남자(6.7%)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여자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출산 이후의 정책에 관심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V-23.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 - 1+2+3순위(상위 5위)

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출산 장려금 확대	출산 휴가 장려 및 출산 휴가 급여 보장	육아 휴직 장려 및 육아 휴직 급여 확대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전	체	108	38.8	31.6	32.7	36.7	17.3
성 별	남 자	30	36.7	36.7	36.7	33.3	16.7
	여 자	68	39.7	29.4	30.9	38.2	17.6
연 령	만 19 ~ 24 세	55	49.1	34.5	32.7	30.9	20.0
	만 25 ~ 29 세	24	29.2	20.8	33.3	41.7	20.8
	만 30 ~ 34 세	19	21.1	36.8	31.6	47.4	5.3
지 역	수 도 권	89	37.1	32.6	33.7	38.2	16.9
	비 수 도 권	9	55.6	22.2	22.2	22.2	22.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5	45.5	34.5	29.1	29.1	18.2
	대 졸 이 상	31	25.8	22.6	38.7	51.6	16.1
출 신 지 역	북 한	83	36.1	30.1	31.3	37.3	19.3
	중 국	15	53.3	40.0	40.0	33.3	6.7

2022년 북한배경청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출산 정책을 1, 2, 3순위를 꼽았을 때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38.8%, ‘육아 휴직 장려 및 육아 휴직 급여 확대’ 36.7%, ‘출산 휴가 장려 및 출산 휴가 급여 보장’ 32.7%, ‘출산 장려금 확대’ 31.6%,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17.3%가 나왔다.

성별에 따라 우선순위에 차이는 있지만, 남자와 여자 모두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을 우선으로 선택했다. 남자가 출산 당시의 직접적인 지원을 선택했다면, 남자보다 여자에게, 만 2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보다 대졸 이상에서 육아 휴직과 관련된 항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졸업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연령대에서, 출산 경험이 있는 여자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의료비 지원이 매우 큰 비율로 나온 것은 산부인과 감소와 관련되어 있다(메디칼 옵저버, 2019).

표 V-24.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041	13.2	86.8
성 별	남 자	1,074	11.3	88.7
	여 자	967	15.3	84.7
연 령	만 18 ~ 24 세	773	13.6	86.4
	만 25 ~ 29 세	668	14.2	85.8
	만 30 ~ 34 세	600	11.7	88.3
지 역	수 도 권	1,032	14.4	85.6
	비 수 도 권	1,009	11.9	88.1
학 력	고 졸 이 하 또는 대학 재학	997	10.8	89.2
	대 졸 이 상	1,044	15.5	84.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5. 해외 이주 고려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01	34.7	65.3
성 별	남 자	32	40.6	59.4
	여 자	69	28.0	72.0
연 령	만 19 ~ 24 세	55	36.4	63.6
	만 25 ~ 29 세	25	28.0	72.0
	만 30 ~ 34 세	20	35.0	65.0
지 역	수 도 권	92	35.9	64.1
	비 수 도 권	8	12.5	87.5
학 력	고 졸 이 하 또는 대학 재학	56	30.4	69.6
	대 졸 이 상	29	34.5	65.5
출 신 지 역	북 한	84	27.4	72.6
	중 국	16	68.8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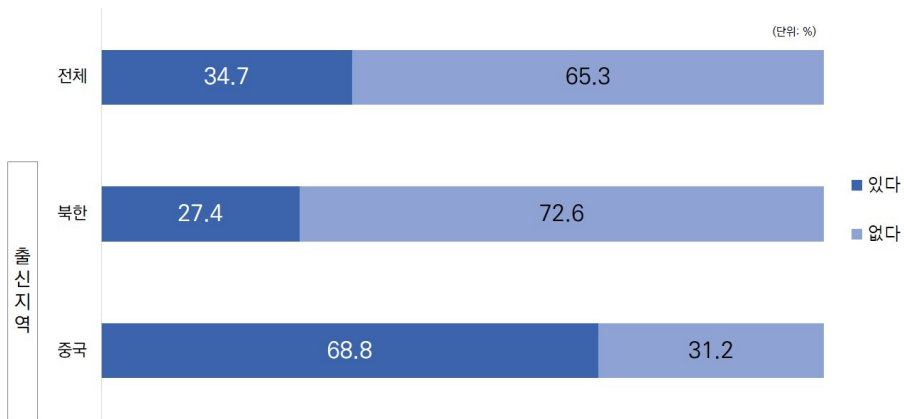


그림 V-8. 해외 이주 고려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일반청년의 경우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이주 고려 경험이 ‘있다’ 13.2%, ‘없다’ 86.8%로 나왔다. 성별로 보면 여자(15.3%)가 남자(11.3%)보다 4%p 높았다. 연령대를 보면 만 25~29세(14.2%)가 만 18~24세(13.6%)보다 0.6%p, 만 30~34세(11.7%)보다 2.5%p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4.4%)이 비수도권(11.9%)보다 2.5%p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15.5%)이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10.8%)보다 4.7%p 높았다. 전체적으로 여자, 만 25~29세, 수도권 거주, 대졸 이상에게서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많았다.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해외 이주를 고려해 본 경험이 ‘있다’ 34.7%, ‘없다’ 65.3% 나왔다. 성별로 보면 남자(40.6%)가 여자(28.0%)보다 높았고, 출신 지역별로는 중국 출신(68.8%) 북한 출신(27.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해외 이주 경험을 고려한 비율은 북한배경청년이 일반청년보다 높게 나왔다. 일반청년은 항목 구간별 차이가 크지 않다면, 북한배경청년은 남자, 만 19~24세, 수도권, 중국 출신이 큰 차이로 높게 나왔다.

표 V-26. 해외 이주 고려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기 계발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 보고 싶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취업이 어려워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빈부격차가 커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안보가 불안해서	기타
전	체	36	33.3	44.4	8.3	0.0	0.0	2.8	5.6	5.6	0.0	0.0
성별	남 자	13	46.2	30.8	7.7	0.0	0.0	7.7	7.7	0	0.0	0.0
	여 자	23	26.1	52.2	8.7	0.0	0.0	0.0	4.3	8.7	0.0	0.0
연령	만19~24세	21	33.3	52.4	9.5	0.0	0.0	0.0	4.8	0	0.0	0.0
	만25~29세	7	42.9	14.3	0.0	0.0	0.0	14.3	0	28.6	0.0	0.0
	만30~34세	7	28.6	57.1	0.0	0.0	0.0	0.0	14.3	0.0	0.0	0.0
지역	수 도 권	34	35.3	44.1	5.9	0.0	0.0	2.9	5.9	5.9	0.0	0.0
	비 수 도 권	1	0	100	0.0	0.0	0.0	0.0	0.0	0.0	0.0	0.0
학력	고 졸 이 하 또는 대학 재학	18	22.2	61.1	16.7	0.0	0.0	0.0	0.0	0.0	0.0	0.0
	대 졸 이 상	10	40.0	30.0	0.0	0.0	0.0	10.0	10.0	10.0	0.0	0.0
출신 지역	북 한	24	37.5	41.7	4.2	0.0	0.0	4.2	4.2	8.3	0.0	0.0
	중 국	11	27.3	54.5	9.1	0.0	0.0	0.0	9.0	0.0	0.0	0.0

* 주: 해외이주를 고려했다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

북한배경청년은 해외 이주를 고려한 이유로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44.4%, ‘자기계발을 위해서’ 33.3%, ‘행복한 삶을 위해서’ 8.3%, ‘빈부격차가 커서’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각 5.6%,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2.8% 나왔다.

북한배경청년의 심층면담에 의하면 해외여행 또는 유학의 경험이 해외 이주를 고려한 계기가 되었다. 어학연수 경험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으며(사례 3), 실제로 미국에서 몇 학기 유학하다 중단했던 면담자는 다른 학교에 편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사례 17). 해외 교환학생 경험이 곧 해외 이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었다(사례 21). 음식이나 문화, 날씨 등에서 해외 이주의 장단점을 염두에 두기도 했지만(사례 12), 완전한 이주보다는 단기 거주로 해외 문물을 체험하는 것을 선호했다(사례 11). 외국에 나간다는 것이 북한에 있었을 때는 불가능했기에 ‘해외’에 대한 전망이 있는(사례 2) 한편, 세계여행을 해도 정착해 사는 곳은 한국이라는(사례 1) 의견도 있었다.

반면에 중국으로 이주할 수도 있다는 사례 14처럼 중국 출신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이주에 긍정적이었다.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동남아랑 중국이랑 그다음에 대만 쪽을 가 봤었는데 여행은 많이 다녀보고 싶긴 해요. 저도 고등학교 바로 들어가서 여행을 많이 못 해서 여행을 많이 하고 싶고 배낭여행 같은 것도 되게 즐기고 싶은데, 한국이 워낙 치안이 좋으니까 딱 데 나가고 싶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북한에서는 세대를 거슬러서 약간 하나의 꿈 같은 게 있는데, 세계 일주가 꿈이거든요. (...)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꿈이 어릴 적 한번씩은 다 껴보는. 삼촌도 역시 세계 일주를 꿈꿨었고. 어릴 때 꿈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는 세계여행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서. 호기심 있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세계 일주를 항상 꿈꾸긴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은 좋은데 나가서 사는 거는 이게 조금 정서 쪽으로도 안 맞으면 스트레스받을 거 같으니까, 저는 여기에 안착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사례 1)

그런 기준보다는 제가 어릴 때 북한에서도 그 뉴스 시간에 가끔 무슨 세계뉴스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 글로벌 시간 이런 것처럼. 그때 예를 들어 아마존에 뭐 이런 폭우가 와서 홍수가 났다. 이런 거 영상자료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가끔씩.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런 데에 진짜 가보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언뜻언뜻 지나가는 그런 장면에. 그런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그 외국. 발전한 나라 이런 것보다 그냥 그 북한에서는 평생 외교관이 아니면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그런 욕구가 생겼던 거 같아요. “외국에 가고 싶다” 이런. (사례 2)

가고 싶다.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바로 대학교 들어가서 크게 나갈 기회가 없었던 거 같아요.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언어... 어학연수 했던 적이 있긴 한데. 살고 싶다는 것보다 저는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 (이주해 산다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사례 3)

네.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한 몇 달쯤 가서 몇 달쯤 살아보고 싶다. 그냥 그 생각은 있지 남한을 떠나서 이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사례 11)

네. 아직 구체적으로 타진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이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음식이나 문화나 이런 게 안 맞고, 날씨도 그쪽은 너무 여름 같은데. 너무 요즘 40도씩 올라가고 너무 뜨겁고 사막 같고. 집도 좀 잘 안 맞고 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장단점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례 12)

지금 보면 제 친척들 다 중국에 있거든요. 한국은 그냥 부모님하고 저만 있어요. 진짜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하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한국은 부자들한테 살기 좋은 도시예요. 이제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여기 초대해서 만약 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와서 같이 살고 안 되면 그냥 제가 한국에 나올 수도 있고 중국에 다시 갈 수 있어요. 중국에 가면 또 제 어머니가 여기 혼자거든요. 중국에 친척들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는 저밖에 없어요. 제가 중국에 가도 어머니는 가족을 다 이렇게 뒀길 거예요. (사례 14)

3. 교육 및 훈련

북한배경청년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규·비정규교육을 받았으며 취업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받았는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와 관련 면담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육

북한배경청년들의 정규·비정규교육 현황은 한국사회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최종학력 현황,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대학교육 경험, 한국에서의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등으로 나뉘어 조사되었다.

(1) 학력 현황

표 V-27. 한국에서의 최종학력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전	체		94	1.1	2.1	5.3	55.3	5.3	25.5	2.1	3.2
성별	남	자	25	0.0	0.0	6.9	41.4	3.4	37.9	3.4	6.9
	여	자	65	1.5	3.1	4.6	61.5	6.2	30.0	1.5	1.5
연령	만 19~24세		51	2.0	0.0	9.8	70.6	3.9	7.8	0.0	5.9
	만 25~29세		24	0.0	4.2	0.0	25.0	12.5	58.3	0.0	0.0
	만 30~34세		18	0.0	5.6	0.0	50.0	0.0	33.3	11.1	0.0
지역	수 도 권		84	1.2	1.2	4.8	53.6	6.0	27.4	2.4	3.6
	비 수 도 권		9	0.0	11.1	11.1	66.7	0.0	11.1	0.0	0.0
학력	고 졸 이 하 또는 대학 재학		60	1.7	3.3	8.3	86.7	0.0	0.0	0.0	0.0
	대 졸 이 상		31	0.0	0.0	0.0	0.0	16.1	77.4	6.5	0
출신 지역	북 한		79	1.3	2.5	3.8	54.4	3.8	30.4	2.5	1.3
	중 국		14	0.0	0.0	14.3	57.1	14.3	0.0	0.0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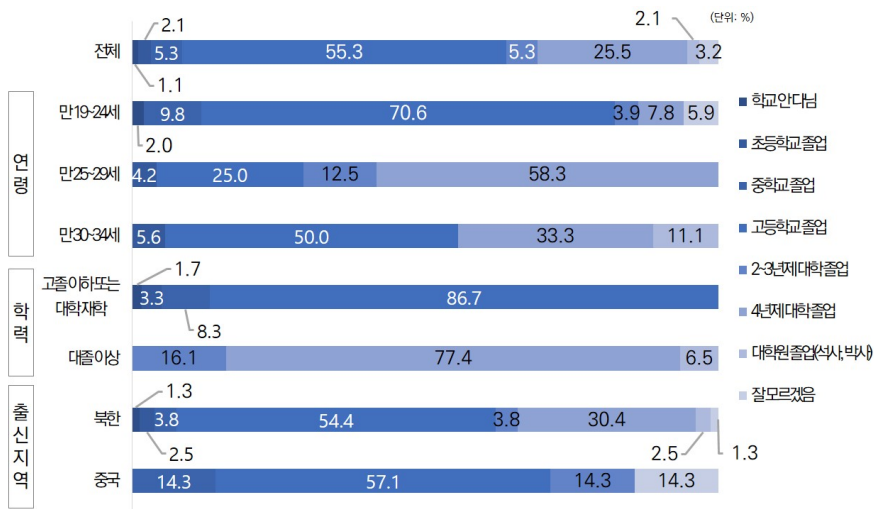


그림 V-9. 한국에서의 최종학력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2022년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에 응답한 북한배경청년의 과반수(55.3%)가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4년제 대학졸업자도 25.5%이며 대학원 졸업자도 2.1%이다. 소수는 학교를 안 다닌 경우(1.1%)도 있으며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지닌 이들도 2.1%이고 중학교 졸업 학력을 지닌 이들도 5.3% 정도이다. 이는 일반청년의 77.4%가 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북한배경청년들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게 한다.

북한배경청년들 중 연령별로 최종학력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만 19~24세의 북한배경청년들 중 고등학교 졸업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연령대의 청년들이 대학 졸업을 아직 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 25~29세 사이의 북한배경청년들의 4년제 대학졸업자 비율이(58.8%) 만 30~34세의 그것 보다(33.3%) 훨씬 높다. 만 30~34세에서 대학 석·박사 졸업자 비율이 11.1%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그렇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배경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연령이 어릴수록 고졸 이하가 많고 고연령 청년들 중에 대졸, 대학원 석·박사 졸업이 많은 것은 고학력이 필요로 하는 연령을 반영하는 경향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배경청년일수록 다양한 이유로 일반적인 학령기를 지나 많은 나이에 학교를 다니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이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면접자: 네, 저는 20살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나이는 좀 고등학교 다닐 시기는 아니지만 좀 배우고 싶어 가지고.

연구자: 대안학교 나오셨겠네.

피면접자: 아뇨. 일반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연구자: 일반고등학교에 20살에 들어가셨어요?

피면접자: 네. (사례 6)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딱 왔을 때 일단 졸업장을 따야 되겠다는 생각이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땀는데 8월 돼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그게 합격 딱 되고 고등학교 졸업증을 목표했던 걸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엔 “대학을 가야지” 했는데 뭔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서. 그런데 너무 꿈만 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법도 공부해보고 싶고 경찰 공부도 해보고 싶고 이랬는데 제가 가기에는 너무 턱이 높은 거예요. 그쪽으로 알아봐도 여기는 도저히 아니겠다.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뭘 해야 될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황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일단 알바를 시작했어요. 고깃집 알바도 해보고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도 팔아보고 막로동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다가 저랑 같이 왔던 형 중에 대학을... 그 형이 그때 대학을 다녔었는데 전기공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전기 쪽은 그래도 좀 아니까, 이쪽으로 해보지 않겠냐? 너 이쪽으로 가는 거 추천한다”고 해보라고 그래서 그러면 전기... 저 형이 할 수 있는 거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형이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전기 그때 OO대학교 전기과로 원서를 넣어서. (사례 4)

출생지역이 북한이나 중국이나에 따라서도 한국에서의 학력에 차이가 나타난다. 북한 출생일수록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많으며 이 설문에 응답한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 중 4년제 대학졸업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중국출생 청년이 설문에 응답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제적으로 중국출생 청년들에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해 주는 자료로 보인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출생 청년들의 언어적 한계로 인해 한국 학교의 학업 수준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북한출생 청년들에게는 대학 학비 지원과 대학입학특례 지원이 있는 반면,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이러한 경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면접자: 또 저는 이제 한국에 올 때부터 하고 싶은 게 공부를 무조건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 때문에 그걸 또 하겠다고 생각하고 수급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애를 넣고 애 넣고 우리 둘째가 한 7개월 났을 때 이제 또 학교를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또 다시 시작 했지요 공부를 그래서 하고 싶은 게 근데 공부를 또 제가 워낙 잘해요. 아이들처럼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어제 제가 기말고사를

봤는데 워낙 점수도 잘 나오고 또 공부 머리는 있나 봐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공부하는 소망이 많지요.

연구자: 그럼 이제 그 대안학교는 최종적으로 이제 검정고시를 보는 거죠.

피면접자: 네 검정고시 봐요. 일반 학교는 제가 나이가 지금 많아요. 스물 몇 살 됐어요. 많아서 일반 학교는 못 가고 검정고시 그래도 저는 항상 감사한 게 그래도 검정고시라도 보게 해서 학교를 졸업시켜 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한국에 이런 복지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이가 먹어도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이런 대안학교도 마련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계속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짬짬이 아이들이 자고 나면 내가 신경 썼다가 또 숙제도 풀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죠. (사례 22)

저는 처음 왔을 때 한국어 아예 전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지금도 되게 많이 제3국 친구들이 오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예 처음부터 한국에서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언어가 안 되면은 다 안 되니까. (사례 3)

피면접자: 네. 특별 전형도 없고 그때 엄청 내가 뭐 해야 되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거 한국어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서 진짜 그때는 뭔가 또 다른 옆에 또 북한 친구들 원서 접수하면 그냥 연락 오잖아요. 그때는 아 이런 학교 붙었다. 이런 학교 붙었다. 저희가 완전 상상할 수 없는 대학 이화여대, 한국외대, 동국대, 세종대 이런 거 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희는 그냥 뭔가 잘 알리지 못하는 대학 접수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적도 다른 사람보다 엄청 잘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런 생각 들어요. 특히 사실 그런 친구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 친구는 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공부 엄청 못해요. 심지어 검정고시도 네 번 치고 겨우 360점 딱 맞춰서 들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올라온 친구 있거든요. 그 평소에는 공부도 잘 안 하고 대놓고 그냥 자고 그렇게 열심히도 안 하는 친구인데 동국대 붙은 거예요. 아 너무 그때는 저보다 못하는 친구인데 와 이렇게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우리가 왜 이런 것도 없고 아 그때 사실 조금 뭔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우 우리가 뭐지 아 학교에서 장학금이 있으면 그 친구들 장학금도 많이 받고 조금 뭔가 억울하다 억울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조금 그런 공간에서 조금 억울한 거죠.

연구자: 비교가 되니까.

피면접자: 네.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왜냐면 그런 공간에 없으면 아 그 친구 그냥 그러나 보다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분명히 같은 반에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훨씬 잘하는데 훨씬 잘하고 그 친구보다도 훨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대학 붙었고 나는 겨우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말까 그런 대학원서 접수해야 되고. 아우 그때는 너무 뭔가 충격이라고 해야 하네요. (사례 8)

표 V-28.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 진로, 직업 취업 상담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29	71.1	1.0	7.1	41.3	49.2	1.5	28.9
성 별	남 자	1,066	70.1	1.2	7.1	40.4	49.5	1.8	29.9	
	여 자	963	72.1	0.7	7.0	42.2	49.0	1.1	27.9	
연 령	만 18 ~ 24 세	769	70.8	0.7	6.2	39.4	51.3	2.4	29.2	
	만 25 ~ 29 세	662	73.8	1.5	6.2	39.8	50.8	1.7	26.2	
	만 30 ~ 34 세	598	68.5	0.7	9.2	45.4	44.7	0.0	31.5	
지 역	수 도 권	1,026	67.5	0.6	6.7	37.3	53.7	1.7	32.5	
	비 수 도 권	1,003	75.1	1.4	7.4	45.4	44.6	1.2	24.9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87	71.8	1.2	6.0	42.2	49.0	1.7	28.2	
	대 졸 이 상	1,042	70.4	0.8	8.1	40.4	49.5	1.3	29.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V-29.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 진로, 직업, 취업 상담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4	91.7	7.1	10.7	32.1	32.1	17.9	8.3
성 별	남 자	11	100	0	21.4	35.7	21.4	21.4	0	
	여 자	13	84.6	14.3	0	28.6	42.9	14.3	15.4	
연 령	만 19 ~ 24 세	16	93.8	5.9	11.8	41.2	23.5	17.6	6.33	
	만 25 ~ 29 세	4	100	0	12.5	12.5	50.0	25.0	0	
	만 30 ~ 34 세	3	66.7	50.0	0	0	50.0	0	33.3	
지 역	수 도 권	21	88.9	0	13.0	30.4	39.1	17.4	11.1	
	비 수 도 권	2	100	50.0	0	25.0	0	25.0	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18	88.9	9.5	9.5	33.3	23.8	23.8	11.1	
	대 졸 이 상	2	100	0	33.3	33.3	33.3	0	0	
출 신 지 역	북 한	19	89.5	8.7	13.0	21.7	34.8	21.7	10.5	
	중 국	4	100	0	0	75.0	25.0	0	0	

* 주: 1)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재학했다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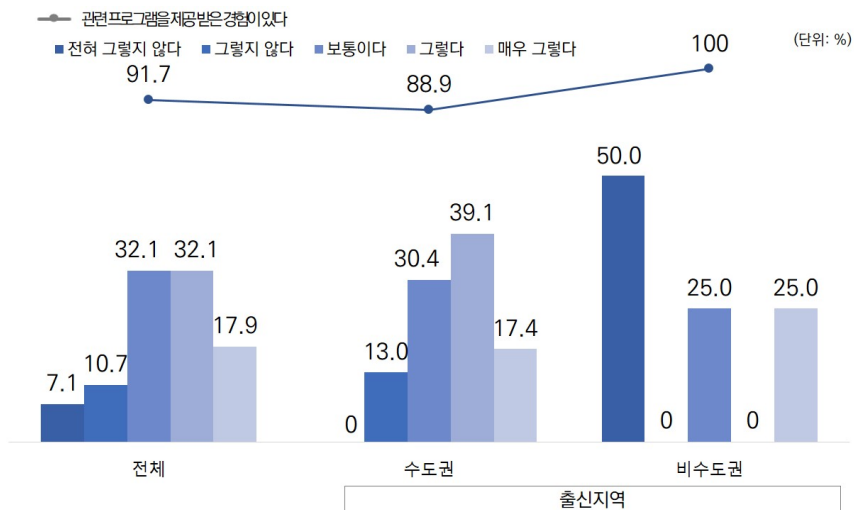


그림 V-10.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 진로, 직업, 취업 상담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응답 사례수가 적어 적극적인 해석은 어렵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일반청년들에 비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취업 관련 상담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도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청년들이 관련 상담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북한배경청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였다.

진로 및 취업 상담 경험을 가진 경우에 그것이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경향도 일반청년들과 차이가 있었다. 일반청년들은 대체로 ‘보통이다’(41.3%), ‘그렇다’(49.2%)에 응답이 몰려 있었으나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7.1%), ‘매우 그렇다’(17.9%) 등 양 극단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진로 및 취업 상담 경험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데에 일반청년들은 단 1.5%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면담에 참여한 이들은 학교에서의 진로상담이 매우 임의적이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받은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제가 와서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진로를 고민을 하다가 교사를 해야겠다. 내 적성에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학업에 대해서도... 수시면접을 봐야 되니까. 거기에 조금 매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공부를 했다고 해도 여기 레벨에 맞추면 제가 좀 낮으니까 항상 그게 스트레스여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또 대학교 오니까 대학에서는... 약간 교사라고 하면 제 상상 속의 교사는 되게 뭔가 커리어가 뽐뽐하고 되게 멋있는 교사를 생각했는데, 앉구르기를 하라지 뒹구르기를 하라지 갑자기 초등학생들 배워주는 걸 가르쳐... 아가지기한 걸 해야지 하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교사가 아닌데라고 하니까,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례 1)

연구자: 내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까.

피면접자1: 담임샘이 그래도 네, 그 과정에서 제일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연구자: 적절한 정보가 없어서 힘들었거나 그런 경험은 없어요?

피면접자1: 저는 교대를 가겠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올인을 했으니까, 다른 거는 굳이 어려운 게 없었어요.

연구자: 선생님은 어땠어요?

피면접자3: 저도 그 과정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도움 많이 주셨고 결정하는 데는 제가 혼자 경험하면서. 이게 관심 있다. 그럼 이거를 지원해야겠다. 네, 그 정도.

연구자: 큰 어려움이 없으셨구나.

피면접자3: 네.

피면접자2: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례 1; 사례 2; 사례 3)

연구자: 대학 가기 전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여러 가지 고민할 때. 검정고시 보고 나서 고민할 때, 대안학교나 이런 데서 너는 전문학교에 갔으면 좋겠다. 대학을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혹시. 피면접자: 그런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그래 해봐” 이런 식으로 거의 나오시고 “이런 것보다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런 게 어려워”라는 소리를 잘 안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봐” 이거여 가지고 학교에서는 현실적인 감각을 키우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 같아요.

연구자: 학교에서는 검정고시 보는 것만 주로 코칭을 해주고 진학, 진로까지는 지도받기가 조금 어려웠군요.

피면접자: 진학이나 진로를 해주긴 하시는데,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하시는 거 같아요. 학교에서는.

연구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내 상황하고 다른 거?

피면접자: 네, 내 상황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보다는 할 수 있는 거면 대학 갈 수 있는 데면 그냥 가봐. 나중의 일은 잘 모르겠어. 이런 거 같아요.

연구자: 그럼 어떤 거를 주로 추천해 주셨어요?

피면접자: 일단 무조건 4년제를 추천해요. 제일 높은 대학으로 추천을 해주고 거기 붙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마는 거고 이런 식이라서 그런 게 좀...

연구자: 본인이 그게 좀 안 맞는다고 느꼈구나.

피면접자1: 네, 그런 게 좀 많이 답답했던 거 같아요. (사례 4)

쉽게 말하면 딱히 왜 (호텔경영학과 전공을) 선택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 제 담임선생님이 저보고 이 학과 저한테 맞겠다고 추천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딱히 해보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그 시절에, 그래서 일단 저랑 같은 친한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저랑 같은 반이고 같은 학과라서 그냥 솔직히 학과는 저랑 딱히 그렇게 맞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1년 다니면서 놀면서 다녔어요. 솔직히 제 학과는 카페, 커피 만드는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커피 좋아하지도 않고 그치 나중에 또 미래를 생각하면 배우는 게 좋더라고요. (사례 14)

그건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처음에 왔는데 아무 연구도 없고 그런데 교회 쪽에서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 그런… “너가 뭐하고 싶냐?” “나 공부하고 싶다” 하니까 “대학교 갈려면 그걸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그걸 해주는 대안학교가 있다. 한번 가보겠냐?” 그래서 연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거기 갔었고. 그리고 거기서 입시 준비 해가지고 자소서 이런 거 다 쓰고 해가지고 처음에 교대를 갔어요. (사례 18)

연구자: 철학과는 어떻게 진로를 정했어요?

피면접자: 저희 담임샘이 윤리샘이었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그 진로상담을 보통 하잖아요. “OO이는 철학과를 가보는 게 어때니” 이러시는 거예요. 문과를 가진 가야되는데. 인문계였으니까. “철학과가 뭐예요?” 내가 지금 전공하는 게… &&대 철학과를 나오셨던 분인데, 저를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철학과가 잘 어울린대요. 한 번 가보래요. “가서 마음에 안 들면 1~2년 안에 전공을 바꿀 수 있다. 일단은 들어가 보라”라고 해서 동국대학교 철학과를 선생님의 권유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연구자: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피면접자: 그전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책을 조금 읽긴 했었는데 중국에서 읽었던 게 다였고. 그렇게 썩 관심 있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들어가게 된.

연구자: 진로와 관련해서 담임 선생님 말고는 따로 누가 상담해주거나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피면접자: 그런 건 없었어요. 조금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도 일하셔서 바쁘셨고. 두 분 다. 그리고 두 분은 저보다 남한사회 이런 걸 더 모르시고. 적응하시기 저보다 몇 배는 힘들으셨을 거 같아요. 회사도 두 분 다 다니셔야 되고 이러니까. 두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두 분이 모르시고 우당탕탕 계시고. 그래서 멘토라는 게 조금… 학교 담임 선생님 한 분이신데 선생님도 제 눈치를 좀 보셔야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를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고.

.....

피면접자: 네, 그때(중국에 있을 때) (중국어가) 됐던 거 같아요. 넘어와서 HSK를 봤는데 그때 5급이 나왔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갈 때. 그래서 들어가면서 바로 복수전공을 하고 그걸로 학점을 평균을 채워가고. 철학은 못하겠더라고요. 저랑 안 맞는… 머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돼서. 이거는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독특한 친구들이 A를 가져가고 죽어라 해도 B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래서 중어중문을 복수전공을 했죠. 그때는. (사례 21)

표 V-30.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진로와 직업 수업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29	51.6	1.4	8.9	46.6	35.2	7.9	48.4
성 별	남 자	1,066	51.2	1.7	9.3	46.5	35.2	7.3	48.8	
	여 자	963	52.1	1.1	8.6	46.7	35.2	8.5	47.9	
연 령	만 18 ~ 24 세	769	54.6	1.7	8.2	45.7	36.5	7.9	45.4	
	만 25 ~ 29 세	662	50.0	1.6	8.6	44.6	36.5	8.8	50.0	
	만 30 ~ 34 세	598	49.6	0.8	10.2	50.0	32.1	6.8	50.4	
지 역	수 도 권	1,026	45.1	0.8	9.7	46.6	32.4	10.5	54.9	
	비 수 도 권	1,003	59.1	1.9	8.2	46.6	37.7	5.6	40.9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87	54.1	1.9	7.8	50.2	32.6	7.5	45.9	
	대 졸 이 상	1,042	49.2	0.9	10.1	42.8	37.9	8.3	50.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고등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V-3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진로와 직업 수업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5	84.0	0.0	7.4	48.1	25.9	18.5	16.0
성 별	남 자	11	90.9	0.0	7.7	53.8	23.1	15.4	9.1
	여 자	14	78.6	0.0	7.1	42.9	28.6	21.4	21.4
연 령	만 19 ~ 24 세	16	81.3	0.0	13.3	53.3	20.0	13.3	18.8
	만 25 ~ 29 세	4	100	0.0	0.0	37.5	37.5	25.0	0.0
	만 30 ~ 34 세	4	75.0	0.0	0.0	33.3	33.3	33.3	25.0
지 역	수 도 권	22	81.8	0.0	4.5	50.0	31.8	13.6	18.2
	비 수 도 권	2	100	0.0	25.0	25.0	0.0	5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19	78.9	0.0	10.0	45.0	20.0	25.0	21.1
	대 졸 이 상	2	100	0.0	0.0	66.7	33.3	0.0	0.0
출 신 지 역	북 한	20	80.0	0.0	9.1	36.4	31.8	22.7	20.0
	중 국	4	100	0.0	0.0	100	0.0	0.0	0.0

* 주: 1)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재학했다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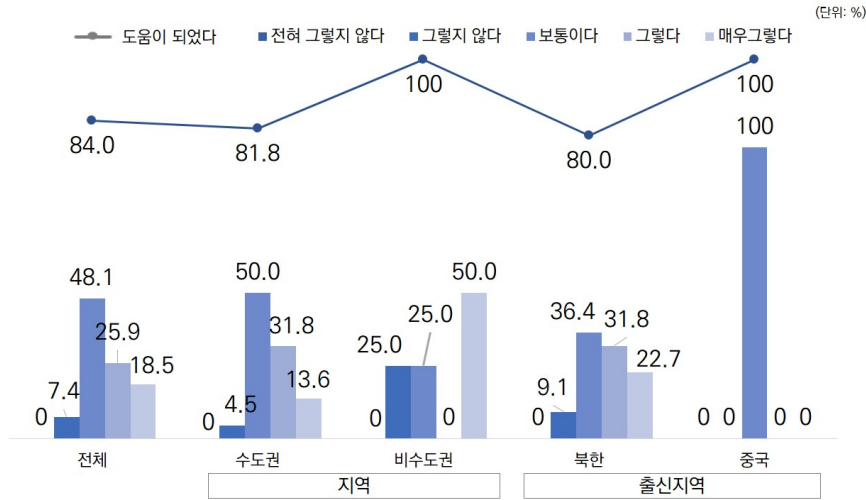


그림 V-11.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진로와 직업 수업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북한배경청년들에게 고등학교 재학 시 진로 및 직업 관련 수업을 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 대해서도 응답 사례수가 적어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다만, 일반청년이나 북한배경청년들 모두에게서 진로나 직업 관련 수업을 받은 경험은 관련 상담 경험에 비해 다소 적게 나타난다는 점, 일반청년들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이 진로 및 직업 관련 수업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은 특기할 만하다. 응답 사례수가 적어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상담 경험과 마찬가지로 수업 경험의 경우에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북한배경청년들에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이 관련 경험 여부에서나 도움 정도에 더욱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 진로와 직업 관련 수업을 경험은 하였으나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이 북한출생 청년들의 반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된다.

(2) 대학교육 경험

표 V-32.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국가 장학금	민간 장학금	학자금 대출	부모 등 가족으로 부탁의 지원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마련
전	체	1,573	25.3	1.5	11.7	56.1	5.4
성 별	남 자	815	27.2	1.8	11.8	54.1	5.2
	여 자	758	23.2	1.2	11.6	58.4	5.7
연 령	만 1 8 ~ 2 4 세	550	30.9	1.2	7.6	57.0	3.3
	만 2 5 ~ 2 9 세	539	26.7	1.6	11.9	54.4	5.3
	만 3 0 ~ 3 4 세	484	17.1	1.7	16.1	57.1	7.9
지 역	수 도 권	803	21.2	1.7	15.0	54.8	7.4
	비 수 도 권	770	30.1	1.3	7.8	57.8	3.1
학 력	고 졸 이 하 또는 대 학 재 학	529	29.2	1.4	7.6	56.2	5.6
	대 졸 이 상	1,044	23.2	1.6	13.8	56.1	5.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V-33.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국가 장학금	민간 장학금	학자 금대출	부모 등 가족으로 부탁의 지원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마련	기타
전	체	73	87.7	1.4	2.7	5.5	1.4	1.4
성 별	남 자	26	80.8	0.0	7.7	7.7	3.8	0.0
	여 자	47	91.5	2.1	0.0	4.3	0.0	2.1
연 령	만 1 9 ~ 2 4 세	35	82.9	2.9	2.9	8.6	2.9	0.0
	만 2 5 ~ 2 9 세	22	95.5	0.0	4.5	0.0	0.0	0.0
	만 3 0 ~ 3 4 세	15	93.3	0.0	0.0	0.0	0.0	6.7
지 역	수 도 권	69	88.2	1.5	2.9	4.4	1.5	1.5
	비 수 도 권	4	100.0	0.0	0.0	0.0	0.0	0.0
학 력	고 졸 이 하 또는 대학 재학	37	83.8	2.7	0.0	10.8	0.0	2.7
	대 졸 이 상	29	93.1	0.0	3.4	0.0	3.4	0.0
출 신 지역	북 한	62	96.8	0.0	1.6	0.0	0.0	1.6
	중 국	10	40.0	10.0	10.0	30.0	10.0	0.0

* 주: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닌 사람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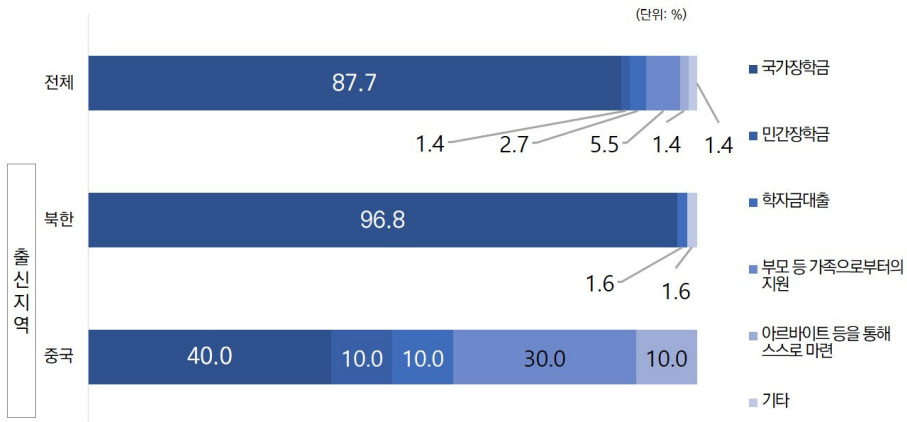


그림 V-12. 등록금 마련 주된 방법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일반청년들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은 대부분 대학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마련한다(일반청년 25.3%, 북한배경청년 87.7%). 특히 대학등록금이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북한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96.8%).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도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하는데(40.0%) 이는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56.1%) 대학등록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북한배경청년들이 대학등록금을 부모에게 지원받는 경우는 드물다(5.5%). 대학등록금을 부모 등 가족에게 지원받는 경우는 모두 중국출생들이다.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은 많은 경우(30%) 부모 등 가족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으며 민간장학금, 학자금대출,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스로 마련하기도 한다.

피면접자: 대학교에서는 뭐 다 그냥 한국 친구도 그렇고, 3국 출생도 그렇고 다 그냥 약간 경제적으로 그게 가장 필요하죠.

연구자: 경제적 지원이

피면접자: 경제적 지원이 생활비도 그렇고, 등록금도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하죠. (사례 7)

표 V-34. 휴학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	평균(년)	
전		체	74	32.4	1.79	67.6
성 별	남	자	24	45.8	1.83	54.2
	여	자	50	26.0	1.75	74.0
연 령	만 1 9 ~ 2 4 세		36	25.0	1.5	75.0
	만 2 5 ~ 2 9 세		23	30.4	1.83	69.6
	만 3 0 ~ 3 4 세		14	57.1	2.07	42.9
지 역	수 도 권		69	31.9	1.95	68.1
	비 수 도 권		4	50.0	1.00	5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38	28.9	1.60	71.1
	대 졸 이 상		28	39.3	1.95	60.7
출 신 지 역	북	한	62	30.6	1.86	69.4
	중	국	11	45.5	1.33	54.5

* 주: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닌 사람만 응답

설문에 응답한 북한배경청년 중 1/3 정도가 대학을 다니면서 휴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평균 휴학 기간은 2년 미만(1.79년)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지만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휴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30대 북한배경청년에게서 대학 휴학 경험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이들의 휴학 연수도 상대적으로 길며 북한출생보다 중국출생 청년들의 휴학 비율이 높지만 평균 휴학기간은 북한출생보다 짧다.

표 V-35. 휴학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워서	학비 마련이 어려워서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기타
전	체	24	4.2	4.2	16.7	41.7	33.3
성 별	남 자	10	0.0	10.0	10.0	60.0	20.0
	여 자	14	7.1	0.0	21.4	28.6	42.9
연 령	만 19 ~ 24 세	11	0.0	9.1	36.4	27.3	27.3
	만 25 ~ 29 세	8	12.5	0.0	0.0	37.5	50.0
	만 30 ~ 34 세	5	0.0	0.0	0.0	80.0	20.0
지 역	수 도 권	22	4.5	4.5	13.6	40.9	36.4
	비 수 도 권	2	0.0	0.0	50.0	5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12	0.0	0.0	33.3	33.3	33.3
	대 졸 이 상	10	10.0	0.0	0.0	50.0	40.0
출 신 지 역	북 한	18	5.6	0.0	16.7	44.4	33.3
	중 국	6	0.0	16.7	16.7	33.3	33.3

* 주: 1) 휴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북한배경청년들의 대학 휴학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휴학 이유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41.7%)이다. 또한 휴학 경험이 있는 남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휴학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다. 30대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80%) 다양한 경험을 위해 휴학을 했다고 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대학생생활에서 경험의 폭을 매우 제한하였고 이는 보다 다양한 경험을 위해 대학을 휴학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학한 대학의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휴학하는 경우도(16.7%) 상당히 존재한다. 그 밖에 ‘학비 마련이 어려워서’(4.2%),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워서’(4.2%) 휴학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어가 대학에서의 학교 공부에 주요 장애가 되곤 한다.

피면접자: 대학교 와서 3년 동안 휴학했다가 올해 다시 복학해서 이제 또다시 공부해야죠.

연구자: 휴학하면서 뭐 하셨는데?

피면접자: 그동안 여행도 좀 하고. 이것저것 뭐 일도 해보고 좀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연구자: 본인이 돈 벌어서.

피면접자: 네.

연구자: 무슨 일해서 벌었어요?

피면접자: 1학년 때는 제가 과외 했었거든요. 고등학생 과외. 과외랑 그리고 여행할 때는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여행하고 일하고 그랬는데. (사례 2)

피면접자: 제가 올해 3월부터 휴학했어요.

연구자: 왜 휴학하셨어요?

피면접자: 온라인수업만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저 너무 힘들었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휴학을 하게 되었고. 원래는 조금 다른 공부나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원래 다녔던 대안학교에서 “인턴교사를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셔서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사례 3)

제가 휴학한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친구는 못 사귀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대학교 갔는데 그래도 대학교 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진짜 제가 뭐 온라인 강의 신청하듯이 그렇게 교수님이라 소통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동영상만 보고 나서는 과제만 그 올려주세요. 그냥 이런 과제 있구나. 그럼 하요 하고는 제출해요. 끝이에요. 그리고 시험 칠 때도 그냥 카메라 켜라 피고 그리고 시험 치고 끝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 또 뭔가 대학교로 들어갔으니까 알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알바라도 하면서 공부했는데 진짜 집 알바 집 알바 집 알바 이렇게만 거의 2년 이렇게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사례 8)

피면접자: 대학교는 1학기 휴학을 했었어요.

연구자: 왜 휴학을 하셨어요?

피면접자: 졸업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할 때 그게 무조건 영어 원어민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수업이 있거든요. 제가 들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야겠다. 이걸 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예 그 과목들은 4학년으로 미루고 원래 초반에 2학년 때 다 들었어야 하는 과목인데 못 들겠어가지고 4학년으로 밀고 4학년 올라가기 전에 한 학기 휴학하고 다시 그래서 그 수업을 들었죠.

연구자: 그 휴학하는 동안은 영어공부만 하신 거예요?

피면접자: 네. 영어 공부했었어요.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사례 15)

일단 대학교 들어가서 어려웠던 게 영어가 좀... 북한보다 여기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했던 걸 느꼈던 거 같아요. 수학이나 이런 기본적인 컴퓨터공학기술 이거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으니까 큰 문제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원어 수업을 또 필수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례 12)

표 V-36.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573	10.5	89.5
성 별	남	자	815	10.7	89.3
	여	자	758	10.4	89.6
연 령	만 1 8 ~ 2 4 세		550	5.8	94.2
	만 2 5 ~ 2 9 세		539	11.9	88.1
	만 3 0 ~ 3 4 세		484	14.4	85.6
지 역	수 도 권		803	10.5	89.5
	비 수 도 권		770	10.5	89.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29	7.2	92.8
	대 졸 이 상		1,044	12.2	87.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V-37. 졸업 유예 경험 및 졸업 필요 요건 미이수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76	7.9	92.1
성 별	남	자	24	4.2	95.8
	여	자	52	9.6	90.4
연 령	만 1 9 ~ 2 4 세		39	5.1	94.9
	만 2 5 ~ 2 9 세		22	9.1	90.9
	만 3 0 ~ 3 4 세		14	14.3	85.7
지 역	수 도 권		71	8.5	91.5
	비 수 도 권		4	0.0	10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1	4.9	95.1
	대 졸 이 상		28	14.3	85.7
출 신 지 역	북 한		63	7.9	92.1
	중 국		12	8.3	91.7

* 주: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닌 사람만 응답

졸업을 일부러 유예하거나 졸업 필요 요건을 이수하지 못한 경험과 관련해서는 북한배경청년이 갖고 있는 일반청년과 구분되는 특별한 특징은 드러나지 않는다.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92.1%)의 북한배경청년들은 졸업 필요 요건을 갖추어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전공 학점 이수를 소홀히 하다가 고충을 겪기도 하고, 영어실력 부족으로 졸업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원어민 강의를 들을 수 없어 휴학을 통해 영어공부를 보충해야 하는 등의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양한 상황에서도 여러 전략적 행동을 통해 졸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곤 한다. 중국출생 청년들이 대학에서 언어적 문제로 학점이 기대보다 좋지 않을 경우, 잘할 수 있는 중국어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해서 전체 평균 학점을 올리는 등 북한배경청년들은 나름의 전략으로 대학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면접자1: 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그 교대 특성상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심화로 넘어가는 거니까 딱히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저는 그 대학교 강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그게 고전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너무 도태된 걸 많이 배운다고 해야 되나. (사례 1)

연구자: 학점 따는 데는 세 분 다 문제없으세요?

피면접자2: 저는 문제가 많아요.

연구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어느 수준이에요? 장학금 타기 어려울 정도?

.....

연구자: 성적 때문에 안된 적은.

피면접자2: 그건 없었어요. 아직은.

연구자: 그런데 그 학점을 쌓는 건 항상 어렵다.

피면접자2: 네, 제가 하도 그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해서.

연구자: 가능하면 전공 바꾸고 싶어요?

피면접자2: 아니 그런데 제가 바꾸고 싶었는데, 요즘은 바꿨어요. 그냥 대충해서 졸업하자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연구자: 일단 목표는 사진작가예요?

피면접자2: 지금은 바꿨어요. 많이. 요즘은 인류학 쪽에 대학원 갈까 고민 중이에요.

연구자: 지금 다른 학과에 청강하고 계세요? 아니면 다른 학점 이수하고 계세요?

피면접자2: 이번 학기에는 인류학 수업은 아니고 그냥 미학과수업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원래 인류학 하신 분이었던데요. 그리고 원래 그쪽에 또 관심이 좀 있었어요. 사진... 관심 갖게 된 계기도 인류학책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 (사례 2)

연구자: 두 분은 학점 문제는 없으시고?

피면접자3: 힘들긴 한데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따기가 힘들어요. 제가 여대거든요. 여자애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전공이 이인데 제가 조금 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중어중문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해서 조금 점수가 괜찮아요. (사례 3)

졸업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할 때 그게 무조건 영어 원어민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수업이 있거든요. 제가 들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야겠다. 이걸 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예 그 과목들은 4학년으로 미루고 원래 초반에 2학년 때 다 들었어야 하는 과목인데 못 듣겠어가지고 4학년으로 밀고 4학년 올라가기 전에 한 학기 휴학하고 다시 그래서 그 수업을 들었죠. (사례 15)

피면접자: 그죠. 거의... 제가 중국에 3년 있으면서 중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중국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다행히 어릴 때여서 발음이 좀 잘 자리가 잡혔어 가지고 면세점이나 그 다음에 여행사나 이런 아르바이트 조금 했어서. 중국어 관련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네, 조금 아르바이트도 편하게. 연구자: (중국에서) 3년 동안 아르바이트 할 만큼 언어가 된 거예요?

피면접자: 네, 그때 됐던 거 같아요. 넘어와서 HSK를 봤는데 그때 5급이 나왔었어요. 대학교에 들어갈 때. 그래서 들어가면서 바로 복수전공을 하고 그걸로 학점을 평균을 채워가고. 철학은 못하겠더라고요. 저랑 안 맞는... 머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돼서. 이거는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독특한 친구들이 A를 가져가고 죽어라 해도 B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중어중문을 복수전공을 했죠. 그때는. (사례 21)

표 V-38.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73	2.4	11.8	36.2	45.1	4.6
성 별	남 자	815	2.3	12.3	35.1	45.8	4.4
	여 자	758	2.4	11.2	37.4	44.3	4.8
연 령	만 18 ~ 24 세	550	1.7	8.4	37.3	47.3	5.3
	만 25 ~ 29 세	539	3.2	13.4	36.0	42.9	4.5
	만 30 ~ 34 세	484	2.1	13.9	35.1	45.0	3.9
지 역	수 도 권	803	2.2	11.2	33.9	48.1	4.7
	비 수 도 권	770	2.6	12.5	38.8	41.6	4.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29	1.4	13.8	37.6	42.7	4.6
	대 졸 이 상	1,044	2.9	10.8	35.5	46.3	4.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V-39. 대학교육 만족도_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79	0.0	11.4	31.6	48.1	8.9
성 별	남 자	24	0.0	12.5	41.7	41.7	4.2
	여 자	55	0.0	10.9	27.3	50.9	10.9
연 령	만 19 ~ 24 세	40	0.0	17.5	30.0	45.0	7.5
	만 25 ~ 29 세	23	0.0	4.3	34.8	47.8	13.0
	만 30 ~ 34 세	16	0.0	6.3	31.3	56.3	6.3
지 역	수 도 권	74	0.0	10.8	31.1	50.0	8.1
	비 수 도 권	5	0.0	20.0	40.0	20.0	2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42	0.0	16.7	31.0	45.2	7.1
	대 졸 이 상	29	0.0	3.4	34.5	51.7	10.3
출 신 지 역	북 한	66	0.0	12.1	31.8	45.5	10.6
	중 국	13	0.0	7.7	30.8	61.5	0.0

* 주: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닌 사람만 응답

일반청년들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은 한국에서의 대학교육에 보다 만족한다(일반청년 49.7%, 북한배경청년 57.0%). 적어도 일반청년보다 만족도가 덜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학에 진학했으나 자신의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전공 변경을 꾀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학교육에 만족하는 편이다.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에는 대학생활에서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주로 호소하며 출생지가 어디든 영어 실력 문제, 토론 참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대학 학과수업 이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수업은 다 괜찮은데 가끔 한국어. 언어가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외래어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좀 했던 거 같아요. 힘들긴 한데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따기가 힘들어요. 제가 여대거든요. 여자애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

대학 생활이 사실 잘... 저는 2020년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질 때여서 가지고 그냥 온라인수업만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수업은 다 괜찮은데 가끔 한국어. 언어가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외래어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좀 했던 거 같아요. (사례 3)

일단 대학교 들어가서 어려웠던 게 영어가 좀... 북한보다 여기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했던 걸 느꼈던 거 같아요. 수학이나 이런 기본적인 컴퓨터공학기술 이거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으니까 큰 문제 없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원어 수업을 또 필수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

그래도 컴퓨터공학 쪽이라 이게 인문 쪽이면 영어를 워낙 잘해야 되긴 하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일반 수업은 못 들었을 거 같은데, 같은 컴퓨터공학 쪽이라서 웬만한 것만 알아들으면 용어는 한국에서도 쓰던 거라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간단한 단어들만 쓰면 돼서. (사례 12)

어려웠던 거는 일단 영어는 제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대학교 오니까 그게 더 심해졌고 그 대학교 올라오니까 토론도 많고 발표도 많고 그런데 그 팀별 과제 할 때도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토론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거 전혀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여기서는 글쓰기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과정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기 와서 그런 것 자체를 따라가기가 어려웠어가지고 그런 거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논리적인 거나 토론하는 거, 영어도 힘들고. (사례 15)

표 V-40.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73	2.0	12.5	28.3	46.4	10.8
성 별	남 자	815	2.1	12.0	29.0	46.4	10.5
	여 자	758	1.9	13.1	27.5	46.4	11.1
연 령	만 18 ~ 24 세	550	0.9	10.0	23.7	54.3	11.1
	만 25 ~ 29 세	539	3.3	13.2	31.7	41.1	10.6
	만 30 ~ 34 세	484	1.7	14.6	29.8	43.3	10.6
지 역	수 도 권	803	2.0	12.0	25.7	47.4	12.9
	비 수 도 권	770	2.0	13.1	31.4	45.2	8.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29	1.7	14.5	25.4	48.2	10.2
	대 졸 이 상	1,044	2.1	11.5	29.8	45.5	11.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V-41. 대학교육 만족도_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79	0.0	7.6	22.8	53.2	16.5
성 별	남 자	24	0.0	0.0	37.5	54.2	8.3
	여 자	55	0.0	10.9	16.4	52.7	20.0
연 령	만 19 ~ 24 세	39	0.0	10.3	28.2	48.7	12.8
	만 25 ~ 29 세	23	0.0	0.0	13.0	60.9	26.1
	만 30 ~ 34 세	17	0.0	11.8	23.5	52.9	11.8
지 역	수 도 권	74	0.0	8.1	23.0	52.7	16.2
	비 수 도 권	5	0.0	0.0	20.0	60.0	2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42	0.0	9.5	23.8	50.0	16.7
	대 졸 이 상	28	0.0	7.1	21.4	57.1	14.3
출 신 지 역	북 한	66	0.0	6.1	21.2	54.5	18.2
	중 국	13	0.0	15.4	30.8	46.2	7.7

* 주: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닌 사람만 응답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북한배경청년들이 대학교육이 자신의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청년은 57.2%,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 69.7%가 대학교육이 앞으로의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학 졸업 자체가 인생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게 하는 곳으로 이해되는 등 대학 진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북한배경청년들도 있고, 대학 졸업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아 굳이 대학을 가야 하는지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연구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대학을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피면접자: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연구자: 선택의 폭이.
 피면접자: 네.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대학교를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대학교를 나오면 좀 더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주변에 이제 같이 하나원에서 나왔던 친구도 그 친구는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안 가고 있어서 그때 제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자 대학교 가자 가자 지금도 안 늦었어. 가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대학교를 나오면 그래도 그 어쩔 수 없이는 좀 벗어나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 힘들어도 해보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사례 20)

(대학) 다녀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점수에만 매달리고 공부에만 하니까 뭐 성적 좋아서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걸 취직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냥 직장에서도 계속 일만 해야 하니까. 그럼 개인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돈만 버는 거지 그런 건 행복하지 않잖아요. 전 행복하면서 돈도 벌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

대학, 뭐 나오면 나오고 그지 필수는 아니다... 유튜브로 요즘 보니까 시대가 많이 변해서 유튜브, 연예인들만 티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일반인들 중에서 눈에 띄면 또 티비에 나올 수 있고, 유튜브들도 정말 끼가 많으면 티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프로그램도 많고,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도 분명히 일반인들이었고, 좋아하는걸 유튜브로 하면서 했는데 인기도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또 방송에도 나오고 또 방송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자기가 더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유튜브해서 인지도가 있으면 방송에도 해 가지고 또 그걸 통해서 더 높은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사례 7)

표 V-42.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73	2.1	9.8	26.9	50.6	10.7
성 별	남 자	815	2.1	10.0	28.9	47.1	11.8
	여 자	758	2.0	9.5	24.7	54.3	9.5
연 령	만 18 ~ 24 세	550	1.2	7.8	21.3	57.5	12.2
	만 25 ~ 29 세	539	2.6	12.1	29.3	46.1	9.9
	만 30 ~ 34 세	484	2.5	9.4	30.6	47.5	10.0
지 역	수 도 권	803	1.9	8.3	25.7	51.5	12.5
	비 수 도 권	770	2.2	11.4	28.3	49.5	8.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29	1.0	11.7	26.6	49.6	11.2
	대 졸 이 상	1,044	2.6	8.8	27.1	51.1	10.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V-43. 대학교육 만족도_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77	1.3	3.9	27.3	53.2	14.3
성별	남	자	24	0.0	0.0	37.5	50.0	12.5
	여	자	53	1.9	5.7	22.6	54.7	15.1
연령	만 1 9 ~ 2 4 세		39	0.0	5.1	33.3	48.7	12.8
	만 2 5 ~ 2 9 세		22	0.0	4.5	18.2	54.5	22.7
	만 3 0 ~ 3 4 세		16	6.3	0.0	25.0	62.5	6.3
지역	수 도 권		72	1.4	4.2	29.2	51.4	13.9
	비 수 도 권		5	0.0	0.0	0.0	80.0	2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1	0.0	4.9	26.8	51.2	17.1
	대 졸 이 상		28	3.6	3.6	25.0	57.1	10.7
출신 지역	북	한	64	1.6	3.1	23.4	56.3	15.6
	중	국	13	0.0	7.7	46.2	38.5	7.7

* 주: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닌 사람만 응답

대학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은 일반청년들의 응답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배경청년에게서 긍정적인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일반청년의 61.3%, 북한배경청년 67.5%가 대학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일반청년 11.9%, 북한배경청년 5.2%다.

피면접자: 그래도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졸업장에서 전공 두 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더 포인트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연구자: 누구에게는 졸업장이 대학 졸업장이 하나의 프리미엄.

피면접자: 그러게요. 그냥 그래도 뭔가 저는 힘 쓰는 일도 못하고 또 그렇게 완전 한국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대학교 뭐 졸업장 하나 있으면 그래도 나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딱 보면 컴퓨터도 배웠고 중국어도 하네 증명 같은. (사례 8)

네,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뭐 대학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인생 낭비라. 저는 지금 군대도 갈 수 있잖아요.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군대도 시간 낭비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운전면허랑 어선 면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거의 상위권으로 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대학을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진짜 열심히 하면 돼요. (사례 13)

표 V-44.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573	2.2	12.3	32.8	43.8	8.8
성별	남	자	815	2.0	13.0	32.7	44.2	8.2
	여	자	758	2.5	11.5	33.0	43.5	9.6
연령	만 18 ~ 24 세		550	1.0	10.9	27.5	49.6	11.0
	만 25 ~ 29 세		539	3.1	12.6	35.8	41.0	7.5
	만 30 ~ 34 세		484	2.6	13.4	35.7	40.4	7.9
지역	수도권		803	1.6	11.3	30.8	47.2	9.0
	비수도권		770	2.9	13.4	35.2	39.9	8.6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29	1.8	14.7	29.9	44.3	9.4
	대졸 이상		1,044	2.5	11.0	34.3	43.6	8.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대학(교) 진학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V-45. 대학교육 만족도_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78	3.8	7.7	33.3	34.6	20.5
성별	남	자	24	4.2	12.5	41.7	25.0	16.7
	여	자	54	3.7	5.6	29.6	38.9	22.2
연령	만 19 ~ 24 세		39	2.6	5.1	41.0	35.9	15.4
	만 25 ~ 29 세		23	4.3	17.4	13.0	34.8	30.4
	만 30 ~ 34 세		16	6.3	0.0	43.8	31.3	18.8
지역	수도권		73	4.1	8.2	32.9	34.2	20.5
	비수도권		5	0.0	0.0	40.0	40.0	2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2	2.4	4.8	40.5	28.6	23.8
	대졸 이상		28	7.1	14.3	17.9	46.4	14.3
출신 지역	북한		65	4.6	6.2	30.8	35.4	23.1
	중국		13	0.0	15.4	46.2	30.8	7.7

* 주: 대학을 다닌 경험이 있거나 다닌 사람만 응답

대학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인식에서 북한배경청년의 응답은 일반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이다’에 응답한 이들이 1/3이라는 점, 과반수 정도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북한배경청년들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20.5%) 일반청년(8.8%)에 비해 많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면담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우연히 선택한 대학 전공이 자신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 때 대학 전공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피면접자: 원래는 회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 공부하러 그냥 온 것 같아요.

연구자: 회계 공부하러.

피면접자: 네 그거를 해야겠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연구자: 그러면 대학 회계과 가셨어요?

피면접자: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연구자: 어디 가셨어요?

피면접자: 그것만 알고 제가 아는 게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 와서 이제 알바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대학교를 이제 가야겠다. 그 검정고시 시험 보고 할 때 그 언론 매체 같은 데서 보면 막 독거노인 고독사이라는 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연구자: 그럴 수 있나.

피면접자: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근데 거기 퍼센테이지 보면 독거노인이 정말 독거여서 독거노인이 아니라 자녀가 있음에도 방치돼서 그 독거노인 하는 고독사를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충격이고 어떡하자는 생각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그때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한테 뭘 해드리려고 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은 또 자녀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알바 할 때 사장님한테 근데 사장님 내가 고독사 이런 거 봤는데 그분들 도울 수 있는 게는 뭐가 있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런 건 아마 사회복지사가 하지 않을까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뭐예요. 이랬더니 그런 분들 돕는 그런 직업이야 해서 그거 대학교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과가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가야겠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를 갔던 거 같아요.

연구자: 그럼 주변 어른 분들이 그냥 그런 설명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진로가 정해진 거네요?

피면접자: 그렇죠. 그때는 저한테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지인도 없었고 어른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나원에서 같이 나온 언니도 몇 살 안 됐고 그 언니는 그냥 바빴고 뭐 그 언니한테 그리고 그분은 뭐 대학교랑 이런 거랑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

연구자: 어때요 가보니까?

피면접자: 가서 저는 되게 재밌었던 거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공부를 하면서 물론 너무 어려웠죠. 저는 그냥 단순히 그분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해야겠다라고 간 건데 어쨌든 그분들을 도와주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건 되게 솔직히 너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뭐 내담자 뭐 이런 이게 막 처음에 너무 힘들기도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

실습도 나가고 직접 대상자들 만나고 하면서 되게 정말 내가 잘 선택했구나. 약간 재밌게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저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사례 20)

연구자: 학교 들어가서 어려운 거는 없어요?

피면접자: 저는 공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공부가 저한테 안 맞아서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가 안 맞아서요.

연구자: 과 바꾸셨어요? 체교과?

피면접자: 과 못 바뀌요. 사범대라서. 바뀌도 사범대 내에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구자: 체육이 안 맞아.

피면접자: 체육은 좋아하는데 그걸 학문으로 배우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육과잖아요. 교사 되는 거니까 교육론 이런 거 듣는데 저장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타과 수업에 계속 가서 알짱거리고 있는데...

연구자: 왜 체교과를 지망하게 됐어요?

피면접자: 제가 운동을 원래 꽤 했었거든요. 북한에서. 축구 했었고. 그래서 그, 저 고등학교를 00에서 나왔거든요. 00에 있을 때 고등학교 대표로 도민체전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입상성적이 있고 그래서 그냥... (사례 2)

(3)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

표 V-46.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41	8.3	30.3	22.7	32.6	6.1
성별	남	1,074	9.2	30.5	23.5	30.7	6.1
	여	967	7.3	30.0	21.8	34.8	6.1
연령	만 18 ~ 24 세	773	8.3	30.0	21.6	34.9	5.2
	만 25 ~ 29 세	668	9.3	31.0	21.9	31.6	6.1
	만 30 ~ 34 세	600	7.2	29.8	24.9	30.9	7.2
지역	수도권	1,032	5.4	27.8	24.1	35.4	7.3
	비수도권	1,009	11.7	33.1	21.0	29.4	4.8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9.8	34.6	21.6	29.2	4.8
	대졸 이상	1,044	6.9	26.2	23.7	35.9	7.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7.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97	5.2	15.5	34.0	33.0	12.4
성별	남	자 30	3.3	13.3	33.3	40.0	10.0
	여	자 67	6.0	16.4	34.3	29.9	13.4
연령	만 19 ~ 24 세	52	5.8	15.4	25.0	38.5	15.4
	만 25 ~ 29 세	25	4.0	16.0	48.0	20.0	12.0
	만 30 ~ 34 세	19	5.3	15.8	36.8	36.8	5.3
지역	수도권	87	3.4	17.2	33.3	32.2	13.8
	비수도권	9	22.2	0.0	33.3	44.4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4	5.6	16.7	33.3	33.3	11.1
	대졸 이상	31	3.2	16.1	35.5	29.0	16.1
출신 지역	북한	81	6.2	16.0	34.6	30.9	12.3
	중국	15	0.0	13.3	26.7	46.7	13.3

북한배경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대학이라는 학력의 중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을 반드시 나와야 하느냐는 질문에 45.4%의 북한배경청년들이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여 일반청년 38.7%보다 대학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관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배경청년 20.7%는 대학을 반드시 나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일반청년들의 38.6%와 비교된다.

네.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대학교를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대학교를 나오면 좀 더 이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례 20)

네.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뭐 대학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인생 낭비라. 저는 지금 군대도 갈 수 있잖아요.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군대도 시간 낭비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운전면허랑 어선 면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거의 상위권으로 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대학을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진짜 열심히 하면 돼요. (사례 13)

표 V-48.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41	2.5	9.2	24.3	46.9	17.1
성별	남 자	1,074	2.8	9.5	24.8	47.1	15.8
	여 자	967	2.1	8.9	23.7	46.6	18.7
연령	만 18 ~ 24 세	773	2.6	8.4	25.4	45.9	17.7
	만 25 ~ 29 세	668	2.0	10.0	23.2	48.5	16.2
	만 30 ~ 34 세	600	2.9	9.2	24.2	46.3	17.5
지역	수도권	1,032	1.4	7.2	24.4	47.3	19.8
	비수도권	1,009	3.8	11.5	24.3	46.4	14.1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3.2	10.5	28.5	42.9	14.8
	대졸 이상	1,044	1.7	7.9	20.3	50.7	19.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9.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99	2.0	4.0	16.2	53.5	24.2
성별	남 자	30	3.3	3.3	30.0	40.0	23.3
	여 자	69	1.4	4.3	10.1	59.4	24.6
연령	만 19 ~ 24 세	52	1.9	1.9	13.5	53.8	28.8
	만 25 ~ 29 세	25	4.0	8.0	12.0	56.0	20.0
	만 30 ~ 34 세	21	0.0	4.8	23.8	52.4	19.0
지역	수도권	89	1.1	4.5	14.6	52.8	27.0
	비수도권	9	11.1	0.0	22.2	66.7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5	1.8	3.6	18.2	52.7	23.6
	대졸 이상	31	3.2	6.5	12.9	51.6	25.8
출신 지역	북한	83	2.4	4.8	16.9	51.8	24.1
	중국	15	0.0	0.0	6.7	66.7	26.7

북한배경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학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북한배경청년이 77.7%인 반면 일반청년은 64%였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도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출생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면담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사회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학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도 있고, 학문에 뜻이 크게 있지 않는 한 모두가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는 경향을 비판하는 이도 있다.

피면접자: 그래도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졸업장에서 전공 두 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더 포인트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연구자: 누구에게는 졸업장이 대학 졸업장이 하나의 프리미엄.
 피면접자: 그러게요. 그냥 그래도 뭔가 저는 힘 쓰는 일도 못하고 또 그렇게 완전 한국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대학교 뭐 졸업장 하나 있으면 그래도 나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딱 보면 컴퓨터도 배웠고 중국어도 하네 증명 같은. (사례 8)

만약에 정말 학문에 뜻이 그렇게 엄청나게 투철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굳이 모두가 일률적으로 4년제에 갈 이유는 없겠다. (사례 5)

표 V-50.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별)는 중요하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41	2.8	9.6	22.9	48.0	16.7
성별	남	자 1,074	3.1	9.8	23.0	48.7	15.4
	여	자 967	2.4	9.3	22.7	47.3	18.2
연령	만 18 ~ 24 세	773	3.0	7.6	24.0	48.2	17.2
	만 25 ~ 29 세	668	2.3	11.2	22.2	47.8	16.5
	만 30 ~ 34 세	600	3.1	10.3	22.2	48.1	16.3
지역	수도권	1,032	1.7	8.3	21.5	49.9	18.6
	비수도권	1,009	4.0	11.1	24.5	45.9	14.6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3.6	10.9	24.8	45.7	15.0
	대졸 이상	1,044	2.0	8.3	21.1	50.3	18.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51.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97	1.0	4.1	19.6	46.4	28.9	
성별	남	자	30	3.3	6.7	30.0	33.3	26.7
	여	자	67	0.0	3.0	14.9	52.2	29.9
연령	만 19 ~ 24 세	52	1.9	3.8	17.3	50.0	26.9	
	만 25 ~ 29 세	25	0.0	4.0	12.0	48.0	36.0	
	만 30 ~ 34 세	19	0.0	5.3	31.6	36.8	26.3	
지역	수 도 권	87	0.0	4.6	17.2	46.0	32.2	
	비 수 도 권	9	11.1	0.0	33.3	55.6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4	1.9	5.6	24.1	46.3	22.2	
	대 졸 이 상	31	0.0	3.2	12.9	41.9	41.9	
출신 지역	북 한	81	1.2	3.7	19.8	45.7	29.6	
	중 국	15	0.0	6.7	13.3	53.3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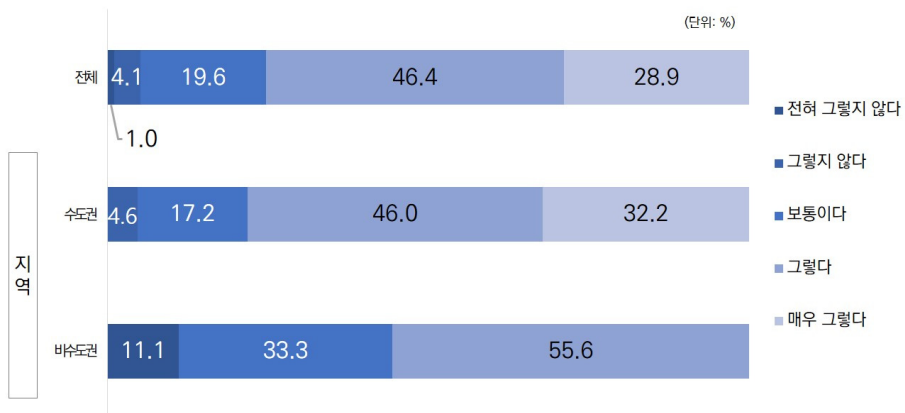


그림 V-13. 교육관행에 대한 의견_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학력과 마찬가지로 북한배경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하는 학벌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북한배경청년이 75.3%인 반면 일반청년은 64.7%였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는 거주지역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에 따라 응답 경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에서는 78.2%의 북한배경청년들이 학벌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55.6%였으며,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면담에서는 대부분의 면담참여자가 학벌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 점은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들보다 한국사회를 학벌 중시 사회로 인식하는 배경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북한배경청년들이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들은 한국사회의 학벌 중시 경향을 더욱 강하게 의식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대를 다니다가 연대로 편입했던 사례 18의 경험이 이 점을 시사해 준다.

저는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기 있을 때는...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라서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대학교를 가도 승승장구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그래도 한 강좌라도 더 들은 사람이 지식 있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고, 시집을 가도 잘 갈 수 있다라는 그 마인드가 항상 저기는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학벌을 그냥 나의 플러스,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학벌을 많이 취득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긴하겠지만, 더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하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잡는다고 잘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례 1)

저도 학벌이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고, 자기가 뭐 기준 같은 것도 높게 잡지 않는다면 편의점 알바 하면서도 살 수 있고 그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사례 3)

일단 저도 물론 교육을 여기서 받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학교 들어가고, 지금까지 대학 과정까지 다 이렇게 마쳤지만 지나고 보니까 굳이 이렇게 대학을 안 가고... 물론 대학에 가는 것도 범위가 넓어지니까 사람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좋은데, 만약에 정말 학문에 뜻이 그렇게 엄청나게 투철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굳이 모두가 일률적으로 4년제에 갈 이유는 없겠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2년제 대학을 가서 전문대학에서 기술 배워서 자기가 평생 밥벌이를 할 수 있는. 누구의 도움 없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한국의 교육열이 너무 높으니까 북한이탈주민인 저도... 물론 공부하고 싶은 저의 의지도 있었지만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 같아요. 나도 안 하면 왠지 뭔가 안될 거 같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사례 6)

학벌은 뭐 회사, 좋은 직장, 삼성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긴 한데... 네. 저는 딱히. (사례 7)

딱히 의미가 없어요. 네, 학교가 의미가... 취업할 때 있었을까요? 제가 그걸 (취업면접자에게) 여쭙보진 않았어서. 사는데 의미가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사례 21)

피면접자: 네, 저는 사실 일단 불편하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저는 또 불편했나면 제가 교대에서 연대로 편입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학교를 옮긴 건데, 그 전과 이후의 어떤 사람들의 반응.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연구자: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피면접자: 그러니까 교대를 다닌다 그러면 “아, 교대 다니세요?” 그런데 연대 다닌다면 그러면 “오, 연대” 막 그러고. 약간 사람의 가치를 다니는 학교로 쳐주는 게 굉장히 저는 불편했어요. 같은 사람인데 이전에 만났을 때랑 지금 만났을 때 반응하는 그 차이도.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지만 너무 속물적이라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연구자: 그런 반응을 보인 거는 남한 분인 거죠?

피면접자: 그죠. 네, 남한 분들이었던 거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 그걸 즐긴 측면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은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데 그 이후부터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서 넘긴다든가.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학벌에 대한 관념이 저한테 속 들어오는 거 같아요. 저도 약간 거기에 져는 느낌. 그런 것도 좀 싫었고. 그래서 좀 지금도 저는 학벌은 좀... 저 스스로도 깨보고 싶다는.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도.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

연구자: 의식적으로 그렇게.

피면접자: 네, 그리고 웬만하면 좀... 학교라는 걸 밝히거나 그런 자리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거 좀 가능하면 감추고. 어떤 기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움츠려든다고 할까요. 네, 그런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좀 복합적인 거 같아요. 어떤 순간에는 또 즐기는 나를 보면 “뭐지”하는 생각도 들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의식하고 있는 거는 불편하다. 이거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 같더라는 생각이 들고. (사례 18)

2) 훈련

북한배경청년들의 취업 훈련과 관련해서는 취업 준비 경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도움 받은 경험과 내용, 국가자격시험 준비 경험, 향후 직업훈련 계획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준비 경험

표 V-52. 취업준비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평균(개월)			
전		체	2,041	9.4	10.2	90.6
성 별	남	자	1,074	10.0	10.6	90.0
	여	자	967	8.8	9.7	91.2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10.5	8.5	89.5	
	만 2 5 ~ 2 9 세	668	13.7	12.0	86.3	
	만 3 0 ~ 3 4 세	600	3.4	9.1	96.6	
지 역	수 도 권	1,032	9.1	9.9	90.9	
	비 수 도 권	1,009	9.8	10.5	90.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7.5	6.9	92.5	
	대 졸 이 상	1,044	11.3	12.3	88.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53. 취업준비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평균(개월)		
전	체	102	32.4	16.0	67.6
성 별	남 자	33	39.4	24.0	58.6
	여 자	69	29.0	10.6	71.0
연 령	만 1 9 ~ 2 4 세	55	14.5	11.3	85.5
	만 2 5 ~ 2 9 세	24	54.2	11.6	45.8
	만 3 0 ~ 3 4 세	22	54.5	25.1	45.5
지 역	수 도 권	93	32.3	13.6	67.7
	비 수 도 권	8	37.5	35.3	62.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7	19.3	17.0	80.7
	대 졸 이 상	30	56.7	14.5	43.3
출 신	북 한	85	36.5	16.4	63.5
지 역	중 국	16	12.5	11.0	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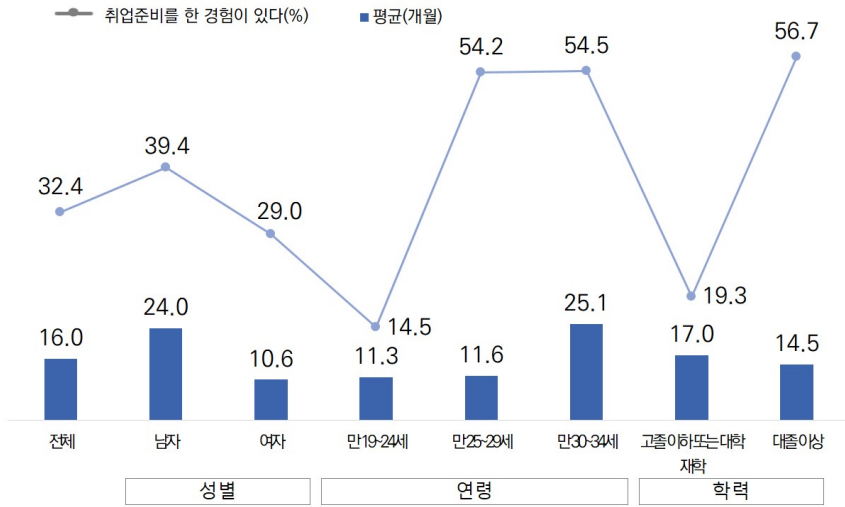


그림 V-14. 취업준비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북한배경청년들은 일반청년들에 비해 취업준비 경험을 지닌 이들이 더 많다. 일반청년의 9.4%에 비해 북한배경청년의 32.4%가 취업준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만 25~29세는 54.2%, 만 30~34세는 54.5%가 취업준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취업준비를 위한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일반청년은 10.2개월인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는 16개월이다. 만 30~34세 북한배경청년의 평균 25.1개월 취업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배경청년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난다. 여자(29.0%)에 비해 남자(39.4%)가 취업준비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아 남자가 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높을수록 대졸자가 취업준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 고졸이하 또는 대학재학생(19.3%)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의 대졸 이상(56.7%) 북한배경청년들이 취업준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면담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대학을 다닐 때부터 창업을 준비하여 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창업지원금을 받기도 했던 사례들이 등장한다.

일단 제가 19년 8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게 한 4월에 끝났었고, 그러다 2012년 12월부터 1년 동안 재가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한 거의 1년은 그냥 쉬었네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걸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면접은 보고 있었죠. 이력서도 넣고 그러다가 거기서 부르길래 재가센터에서 한 번 면접 와보라 해서 그렇게 면접을 보고 일해야겠다.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례 15)

피면접자: 사업자 같은 거는 제가 대표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관할 사무소에다 냈고. 아직 법인이 아니라서 복잡하진 않아요. 일반 간이사업자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서 사업자는 냈고. 아이템 시장조 사하고 이런 거는 같이 했고. 그다음에 아까 자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IT업체다 보니까 개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개발은 저희가 다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해서 기본 실비 정도만 있으면 그건 할 수는 있고요. 또 그런 예산도 정부 지원이나 학교 경진대회나 이런 거 나가서 좀 우승해서 그런 것도 상도 좀 받고, 창업지원금도 좀 받고. 그다음에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그때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아가지고.

연구자: 어떤 경진대회인가요?

피면접자: 학교 창업경진대회.

연구자: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

피면접자: 네, 그래서 여기서 우승을 하면 학교 입주 공간도 주고 해서. (사례 12)

표 V-54. 취업 준비 경험_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통학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5	29.1	70.9
성 별	남 자	116	21.8	78.2
	여 자	89	38.6	61.4
연 령	만 1 8 ~ 2 4 세	88	25.3	74.7
	만 2 5 ~ 2 9 세	96	31.1	68.9
	만 3 0 ~ 3 4 세	21	35.8	64.2
지 역	수 도 권	95	26.3	73.7
	비 수 도 권	110	32.2	67.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84	20.2	79.8
	대 졸 이 상	121	34.9	65.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55. 취업 준비 경험_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받는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3	60.6	39.4
성 별	남 자	10	80.0	20.0
	여 자	23	52.2	47.8
연 령	만 1 9 ~ 2 4 세	11	54.5	45.5
	만 2 5 ~ 2 9 세	13	53.8	46.2
	만 3 0 ~ 3 4 세	9	77.8	22.2
지 역	수 도 권	29	58.6	41.4
	비 수 도 권	4	75.0	25.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4	50.0	50.0
	대 졸 이 상	15	60.0	40.0
출 신 지 역	북 한	30	60.0	40.0
	중 국	3	66.7	33.3

북한배경청년들은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을 가진 이들의 비율이 일반청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일반청년들의 29.1%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은 60.6%가 취업준비를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면담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대학을 휴학한 가운데에도 취업 준비 차원에서 영어학원을 다니려 한다든지 한 사람이 취업을 위해 여러 종류의 학원을 다녀 보기도 하는 사례들이 등장한다.

피면접자: 어떤 면이면 제가 거기서 생각할 때는 와서 돈 벌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내가 하다못해 식당 일이라도 해서 서빙이라도 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게 제일 최하층 직업이고 그런 걸 떠나서 돈 버는 데는 귀천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알바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아 이게 아니다. 내가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학원도 또 다니고 그 학원에 다녀서 또 알바를 해보니까 그 직업이 또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연구자: 어떤 학원을 다니셨는데.

피면접자: 저 피부 미용사 자격증 취득하고 했는데 그게 사람 만지는 일이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두 사람만 전신으로 다 마사지하고 나면 내가 힘들어서 밤에는 막 쓰러져 있어요. 밥 먹을 기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이 나한테 안 맞나 보다 싶어갖고 또 네일아트 학원 다녀서 자격증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사례 11)

표 V-56. 취업 준비 경험_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5	49.3	50.7
성 별	남	자	116	47.4	52.6
	여	자	89	51.8	48.2
연 령	만 1 8 ~ 2 4 세		88	48.0	52.0
	만 2 5 ~ 2 9 세		96	54.5	45.5
	만 3 0 ~ 3 4 세		21	31.1	68.9
지 역	수 도 권		95	44.3	55.7
	비 수 도 권		110	54.7	45.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84	37.1	62.9
	대 졸 이 상		121	57.1	42.9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57. 취업 준비 경험_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0	40.0	60.0
성 별	남	자	9	77.8	22.2
	여	자	21	23.8	76.2
연 령	만 1 9 ~ 2 4 세		9	22.2	77.8
	만 2 5 ~ 2 9 세		13	38.5	61.5
	만 3 0 ~ 3 4 세		8	62.5	37.5
지 역	수 도 권		26	38.5	61.5
	비 수 도 권		4	50.0	5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2	25.0	75.0
	대 졸 이 상		16	56.3	43.8
출 신 지 역	북	한	27	40.7	59.3
	중	국	3	33.3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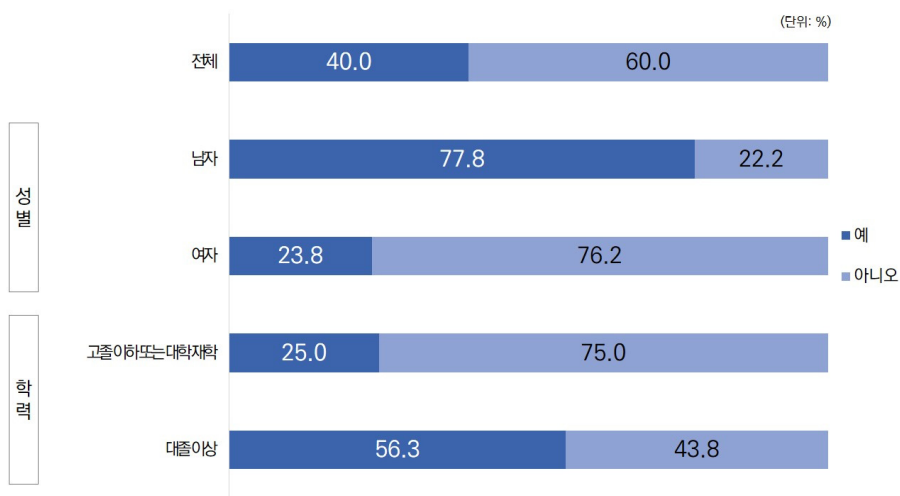


그림 V-15. 취업 준비 경험_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여학, 면접 제외)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을 가진 북한배경청년들의 비율이 일반청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던 것에 비해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에는 일반청년(49.3%)들이 북한배경청년(40.0%)들보다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일반청년들에서는 두드러지게 발견되지 않는 성별 차이가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는 뚜렷이 나타난다. 남자(77.8%)가 여자(23.8%)에 비해 인터넷 강의 등에 참여한 비율이 훨씬 높다. 학력별 차이도 의미 있게 나타나 대졸이상(56.3%)이 고졸이하 또는 대학재학생(25.0%)보다 취업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 등에 참여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어려웠어요. 그 시험은 또 수업 듣는 거랑 달라서 법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에 관련해서는 너무 잘 모르겠고 말도 너무 어렵고. 진짜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해서 그것을 끊었어요. 온라인 강의를 끊어서 그것을 함께 보면서 문제를 같이 풀고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시험은 통과한 것 같아요. (사례 15)

표 V-58. 취업 준비 경험_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5	31.9	68.1
성 별	남	자	116	29.1	70.9
	여	자	89	35.4	64.6
연 령	만 1 8 ~ 2 4 세		88	28.9	71.1
	만 2 5 ~ 2 9 세		96	35.5	64.5
	만 3 0 ~ 3 4 세		21	27.2	72.8
지 역	수 도 권		95	27.3	72.7
	비 수 도 권		110	36.8	63.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84	22.2	77.8
	대 졸 이 상		121	38.1	61.9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59. 취업 준비 경험_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5	56.0	44.0
성 별	남	자	7	71.4	28.6
	여	자	18	50.0	50.0
연 령	만 1 9 ~ 2 4 세		9	55.6	44.4
	만 2 5 ~ 2 9 세		11	54.5	45.5
	만 3 0 ~ 3 4 세		5	60.0	40.0
지 역	수 도 권		22	59.1	40.9
	비 수 도 권		3	33.3	6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1	45.5	54.5
	대 졸 이 상		12	66.7	33.3
출 신 지역	북 한		22	50.0	50.0
	중 국		3	100.0	0.0

* 주: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그림 V-16. 취업 준비 경험_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취업준비를 위해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등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들보다 훨씬 많았다. 북한배경청년 응답자의 56.0%가 그러한 경험 이 있다고 한 데 비해 일반청년의 경우는 31.9%가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북한배경 청년 남성들이 여자에 비해 취업 준비를 위해 영어 등 어학 공부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영어요. 저는 영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게 안 돼요. 지금 두 알바 같이 하니까 사실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술통역 월수금에 있거든요. 월수금 있는 날에는 저는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때는 8시 반까지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그런 사실 열 시간도 있긴 한데 그 시간에 공부까지 하면 진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공부 사실 잘 안 돼요. 원래 사실 알바 하다가 하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끝나고 학원 다니려고 토익학원 같은 데 다녀서 그거는 엄마한테 말했거든요. 영어 공부해야 된다. 학원비 혹시 대 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그렇게 대주시려고요. 그래서 영어 학원 다니고 영어 그래도 배워야 나중에 요즘 다 영어해야 되잖아요. 거의 다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사례 8)

표 V-60. 취업 준비 경험_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5	5.3	94.7
성 별	남	자	116	6.8	93.2
	여	자	89	3.4	96.6
연 령	만 1 8 ~ 2 4 세		88	0.9	99.1
	만 2 5 ~ 2 9 세		96	9.3	90.7
	만 3 0 ~ 3 4 세		21	4.3	95.7
지 역	수 도 권		95	6.1	93.9
	비 수 도 권		110	4.4	95.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84	4.0	96.0
	대 졸 이 상		121	6.1	93.9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61. 취업 준비 경험_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5	28.0	72.0
성 별	남	자	6	33.3	66.7
	여	자	19	26.3	73.7
연 령	만 1 9 ~ 2 4 세		9	22.2	77.8
	만 2 5 ~ 2 9 세		12	41.7	58.3
	만 3 0 ~ 3 4 세		4	0.0	100.0
지 역	수 도 권		22	27.3	72.7
	비 수 도 권		3	33.3	6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1	9.1	90.9
	대 졸 이 상		12	50.0	50.0
출 신 지 역	북	한	22	27.3	72.7
	중	국	3	33.3	66.7

* 주: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그림 V-17. 취업 준비 경험_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응답 사례 수가 적어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취업 준비를 위해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도 일반청년들에(5.3%)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에게(28.0%) 긍정적인 응답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배경청년들에게 이와 관련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북한배경청년들은 필요하다면 그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졸 이상자들(50.0%) 중에서 고졸 이하나 대학 재학자들에(9.1%) 비해 취업 준비를 위해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을 한 이들이 훨씬 많다.

피면접자: 네, 교환학생도 가고 싶어 가지고. 교환학생을 가야 되는데, 모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크게 있어야 가지고... 제가 2학년 때 갔다 왔거든요. 1년 동안 베이징 다녀오면서 그 1학년 때 같이 학점을 관리하면서 용돈도 벌고 뭔가 저축을 해서 교환학생도 가야 되고. 그래서 더... 다 안 보고 돈만 버는. 주말에 잘 못 놀았던 거 같아요. 누군가 도와주셨으면 놀았을 텐데. 누군가 100만 원만 "비행기 값해라" 이랬으면 조금은 여유롭지 않았을까.

연구자: 교환학생도 다녀오셨구나.

피면접자: 네, 갔다 왔어요.

.....

피면접자: ...원래 해외취업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긴 한데, 그때 제 나이도 그렇고 돌아왔을 때. 거기 나갔을 때 잘될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나갔을 때, 돌아왔을 때 아무 것도 안 남을 거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안정적인 걸 그냥 안주를 했던 거 같거든요. 원래는 해외에 나가서 취업을 해서 거기서 살고 싶었어요.

연구자: 언제쯤에?

피면접자: 대학교 졸업하고 그랬어요. 네, 아시아나를 준비를 하면서 해외항공사로 아예 나가서 중국, 홍콩이나 익스프레스나 싱가포르에 이런 데로 가려고 준비도 조금 했었고. 영어 토익도 하고 그랬다가. 나갔다가 몇 년을 하고 돌아왔는데 돈은 돈대로 그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았고. 친구들은 이미 결혼해서 애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모험을 못하겠더라고요. (사례 21)

피면접자: 가고 싶다.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바로 대학교 들어가서 크게 나날 기회가 없었던 거 같아요.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언어... 어학연수 했던 적이 있기 한데. (사례 3)

피면접자: 1학년 때 근데 이제 그래서 영어가 힘들어가지고 아 미국을 가야 되겠다. 미국 갔어요. 그래서 1년 유학으로.

.....
연구자: 언제 어떻게 미국을 가시게 된 거예요?

피면접자: 아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제가 이제 링크 아세요. 혹시 NGO단체.... 이제 그(한) 친구가 뭐 반년 샌프란시스코 그쪽 가서 공부를 하고 온 거를 되게 잘 얘기해서 아 듣는데 아 저긴 내가 갈 곳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긴 내가 가야 된다. 왜냐하면 공부하는데 너무 영어는 원서도 해야 되고 저기 원서로 읽는 과목이 있어요. 그것도 필수예요. 그리고 필수 영어 과목이 있었어요. 영어 그 교양 과목 그러가지고 아 그 어쨌든 내가 여기 살아남으려면 아니 제가 그때 좌절했던 게 뭐였냐면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깐 갑자기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중국어를 독학을 했었니까 아 이거를 언어를 나는 딱 1년만 가 있으면 그래도 귀가 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든 길을 찾자 이려고 있는데 진짜 거기서 열린 거예요. 링크 거기서 이제 한 두 명 세 명 뽑는 건데 그때 지원을 이제 면접까지 보고 그 대표한테 메일을 썼어요. 내가 그 친구 갔다 온 친구 그 설명회 듣고 내가 왜 나를 왜 뽑아야 되고 여기 날 뽑으면 어떤 게 이득이고 이쪽에서 테이크 할 게 뭐고 나는 어떤 거를 해줄 수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쓰고 그랬더니 그렇게 쓴 친구가 없었대요. 그래서 좋게 봤나 봐요 그러가지고 면접까지 다 보고 이제 의류 쪽을 했었으니까 그럼 뉴욕으로 가야하겠네요. 그러가지고 뉴욕에 가서 뉴욕에서 한 10개월 있었어요. (사례 17)

표 V-62. 취업 준비 경험_5) 면접 훈련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5	35.0	65.0
	자		116	28.4	71.6
성 별	자		89	43.6	56.4
	여		88	28.8	71.2
연 령	만 1 8 ~ 2 4 세		96	38.8	61.2
	만 2 5 ~ 2 9 세		21	42.4	57.6
	만 3 0 ~ 3 4 세		95	34.1	65.9
지 역	수 도 권		110	36.0	64.0
	비 수 도 권		84	24.7	75.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21	41.6	58.4
	대 졸 이 상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63. 취업 준비 경험_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0	30.0	70.0
성 별	남	자	7	42.9	57.1
	여	자	23	26.1	73.9
연 령	만 1 9 ~ 2 4 세		9	22.2	77.8
	만 2 5 ~ 2 9 세		13	23.1	76.9
	만 3 0 ~ 3 4 세		8	50.0	50.0
지 역	수 도 권		27	29.6	70.4
	비 수 도 권		3	33.3	6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1	18.2	81.8
	대 졸 이 상		15	33.3	66.7
출 신	북	한	27	29.6	70.4
지 역	중	국	3	33.3	66.7

취업 준비를 위해 면접 훈련을 해본 경험과 관련해서는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북한배경청년 집단 내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설문에 응답한 북한배경청년들 중 1/3 정도가 취업 준비 차원에서 면접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V-64. 취업 준비 경험_6) 자소서 작성 훈련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5	46.0	54.0
성 별	남	자	116	41.5	58.5
	여	자	89	51.7	48.3
연 령	만 1 8 ~ 2 4 세		88	45.6	54.4
	만 2 5 ~ 2 9 세		96	48.5	51.5
	만 3 0 ~ 3 4 세		21	36.5	63.5
지 역	수 도 권		95	49.8	50.2
	비 수 도 권		110	41.9	58.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84	37.0	63.0
	대 졸 이 상		121	51.7	48.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65. 취업 준비 경험_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30	43.3	56.7
성 별	남	자	8	87.5	12.5
	여	자	22	27.3	72.7
연 령	만 1 9 ~ 2 4 세		10	30.0	70.0
	만 2 5 ~ 2 9 세		14	42.9	57.1
	만 3 0 ~ 3 4 세		6	66.7	33.3
지 역	수 도 권		27	44.4	55.6
	비 수 도 권		3	33.3	6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2	25.0	75.0
	대 졸 이 상		16	50.0	50.0
출 신 지역	북 한		27	44.4	55.6
	중 국		3	33.3	66.7



그림 V-18. 취업 준비 경험_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취업 준비 차원에서 자소서 작성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반응에서도 일반청년(46.0%)과 북한배경청년(43.3%)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항목에서는 남녀 간 성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자소서 작성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배경청년 남자(87.5%)가 여자(27.3%)보다 많았다.

표 V-66. 취업 준비 경험_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5	6.4	93.6
성 별	남	자	116	7.1	92.9
	여	자	89	5.5	94.5
연 령	만 1 8 ~ 2 4 세		88	9.0	91.0
	만 2 5 ~ 2 9 세		96	4.0	96.0
	만 3 0 ~ 3 4 세		21	7.5	92.5
지 역	수 도 권		95	3.8	96.2
	비 수 도 권		110	9.2	90.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84	5.2	94.8
	대 졸 이 상		121	7.2	92.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67. 취업 준비 경험_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5	16.0	84.0
성 별	남	자	6	16.7	83.3
	여	자	19	15.8	84.2
연 령	만 1 9 ~ 2 4 세		9	0.0	100.0
	만 2 5 ~ 2 9 세		12	25.0	75.0
	만 3 0 ~ 3 4 세		4	25.0	75.0
지 역	수 도 권		22	13.6	86.4
	비 수 도 권		3	33.3	6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1	9.1	90.9
	대 졸 이 상		12	25.0	75.0
출 신 지 역	북 한		22	18.2	81.8
	중 국		3	0.0	100.0

* 주: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전문회사의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사례수는 너무 적어 이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청년 집단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 중에서 취업전문회사의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V-68. 취업 준비 경험_8) 현장실습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29	41.4	58.6
성 별	남	자	7	57.1	42.9
	여	자	22	36.4	63.6
연 령	만 19 ~ 24 세		11	54.5	45.5
	만 25 ~ 29 세		13	38.5	61.5
	만 30 ~ 34 세		5	20.0	80.0
지 역	수도권		25	40.0	60.0
	비 수도권		4	50.0	5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3	46.2	53.8
	대졸 이상		13	38.5	61.5
출 신 지역	북	한	26	38.5	61.5
	중	국	3	66.7	33.3

* 주: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취업 준비를 위해 현장실습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사례수가 적어 이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 중에서 취업 준비 차원에서 현장실습을 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41.4%) 일반청년집단(15.2%)에서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V-69. 취업 준비 경험_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5	51.6	48.4
성 별	남 자	116	49.4	50.6
	여 자	89	54.4	45.6
연 령	만 1 8 ~ 2 4 세	88	53.2	46.8
	만 2 5 ~ 2 9 세	96	54.0	46.0
	만 3 0 ~ 3 4 세	21	34.7	65.3
지 역	수 도 권	95	47.2	52.8
	비 수 도 권	110	56.3	43.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84	43.5	56.5
	대 졸 이 상	121	56.7	43.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70. 취업 준비 경험_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1	61.3	38.7
성 별	남 자	7	71.4	28.6
	여 자	24	58.3	41.7
연 령	만 1 9 ~ 2 4 세	10	60.0	40.0
	만 2 5 ~ 2 9 세	13	61.5	38.5
	만 3 0 ~ 3 4 세	8	62.5	37.5
지 역	수 도 권	28	64.3	35.7
	비 수 도 권	3	33.3	6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3	53.8	46.2
	대 졸 이 상	15	60.0	40.0
출 신 지 역	북 한	28	60.7	39.3
	중 국	3	66.7	33.3

취업 준비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일반청년(51.6%)에 비해 북한배경청년(61.3%)의 관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북한배경청년들은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고 자격증을 얻으려 애써 보아도 실제 공부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자격증 취득에 실패하기도 한다.

피면접자: 네, 저도 남북하나재단에서 한 번 상담을 받았었는데 제가 전기과를 나와서 그 산업기사 자격증만 획득하면은 한전에서 취업을 해준다고... 자격증을 따면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업기사를 떨려고 했었는데 그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할 여건이 거의 좀 안 돼서.
 연구자: 돈을 벌어야 돼서?
 피면접자: 네, 벌어야 되는데 돈 벌고 공부까지 같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몇 번 시험을 봤는데 지금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자격증 없으면 취업이 안 된다고. 자격증 있는 사람만 많이 요구하는 거 같더라고요. (사례 4)

표 V-71. 취업 준비 경험_10)인턴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5	15.5	84.5
	자			
성 별	남	116	12.8	87.2
	여	89	19.0	81.0
연 령	만 1 8 ~ 2 4 세	88	12.1	87.9
	만 2 5 ~ 2 9 세	96	19.4	80.6
	만 3 0 ~ 3 4 세	21	11.1	88.9
지 역	수 도 권	95	11.6	88.4
	비 수 도 권	110	19.6	80.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84	9.0	91.0
	대 졸 이 상	121	19.7	80.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72. 취업 준비 경험_10) 인턴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9	44.8	55.2
	자		7	57.1	42.9
성 별	여		22	40.9	59.1
	자		22	40.9	59.1
연 령	만 1 9 ~ 2 4 세		9	22.2	77.8
	만 2 5 ~ 2 9 세		15	66.7	33.3
	만 3 0 ~ 3 4 세		5	20.0	80.0
지 역	수 도 권		26	46.2	53.8
	비 수 도 권		3	33.3	6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1	18.2	81.8
	대 졸 이 상		16	68.8	31.3
출 신 지 역	북 한		26	46.2	53.8
	중 국		3	33.3	66.7

* 주: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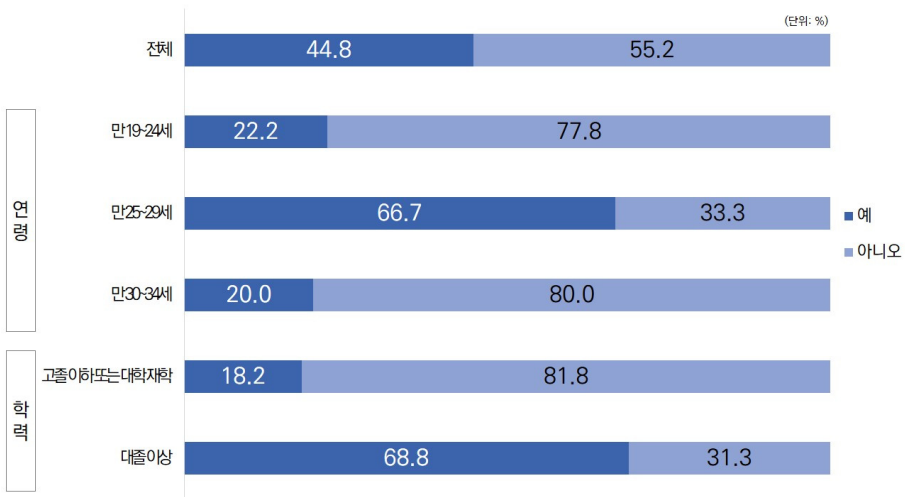


그림 V-19. 취업 준비 경험_10) 인턴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취업 준비 차원에서 인턴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도 일반청년(15.5%)에 비해 북한배경청년(44.8%)들의 긍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 사례 수가

적어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는 없으나 응답자 중 만 25~29세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인턴 경험이 많이 나타난다(66.7%). 학력별 차이도 나타나 대졸 이상인 북한배경청년들의 (68.8%) 인턴 경험이 고졸 이하 또는 대학재학생(18.2%)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면담에 참여한 이들 중 대안학교를 나온 북한배경청년들은 자신이 졸업한 대안학교에서 인턴교사로 활동할 기회나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기도 한다. 중국어 실력으로 중국출생 학생들을 위한 통역을 맡기도 하고 학교 방역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피면접자: 온라인수업만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저 너무 힘들었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휴학을 하게 되었고. 원래는 조금 다른 공부나 그런 걸 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원래 다녔던 대안학교에서 “인턴교사를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셔서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연구자: 지금 **학교에서 인턴?

피면접자: 네.

연구자: 그래서 어때요? 해보니까.

피면접자: 너무 좋아요. 제가 들어간 이유도 그 학교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탈북이 어려워져서 제3국 친구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 친구들이 아이부터 한국어를 거의 다 못해요. 그런 경우에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들어갔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고. 학교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사례 3)

피면접자: 그냥 저 **학교에서 방역 알바 있거든요. 졸업생한테 소독하면서 이렇게 거기 앉아 있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냥 가가지고 잠시 일하고 있어요. (사례 8)

표 V-73. 취업 준비 경험_11) 봉사활동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5	17.4	82.6
성 별	남	자	116	15.0	85.0	
	여	자	89	20.6	79.4	
연 령	만 1 8 ~ 2 4 세		88	17.4	82.6	
	만 2 5 ~ 2 9 세		96	16.8	83.2	
	만 3 0 ~ 3 4 세		21	20.6	79.4	
지 역	수 도 권		95	14.3	85.7	
	비 수 도 권		110	20.8	79.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84	16.0	84.0	
	대 졸 이 상		121	18.3	81.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74. 취업 준비 경험_11) 봉사활동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8	57.1	42.9
성 별	남	자	7	71.4	28.6
	여	자	21	52.4	47.6
연 령	만 1 9 ~ 2 4 세		10	30.0	70.0
	만 2 5 ~ 2 9 세		13	84.6	15.4
	만 3 0 ~ 3 4 세		5	40.0	60.0
지 역	수 도 권		25	56.0	44.0
	비 수 도 권		3	66.7	33.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2	41.7	58.3
	대 졸 이 상		14	71.4	28.6
출 신	북	한	25	60.0	40.0
지 역	중	국	3	33.3	66.7

* 주: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그림 V-20. 취업 준비 경험_11) 봉사활동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북한배경청년들 중에서 취업 준비 차원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이들이(57.1%) 일반 청년에(17.4%) 비해 현저히 많다. 연령대는 만 25~29세 북한배경청년들 대부분이 (84.6%) 취업 준비 차원 봉사활동 경험을 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V-75. 취업 준비 경험_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5	25.5	74.5
성 별	남 자	116	25.4	74.6
	여 자	89	25.7	74.3
연 령	만 1 8 ~ 2 4 세	88	22.9	77.1
	만 2 5 ~ 2 9 세	96	30.4	69.6
	만 3 0 ~ 3 4 세	21	14.4	85.6
지 역	수 도 권	95	24.8	75.2
	비 수 도 권	110	26.3	73.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84	19.2	80.8
	대 졸 이 상	121	29.6	70.4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76. 취업 준비 경험_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7	33.3	66.7
성 별	남 자	6	33.3	66.7
	여 자	21	33.3	66.7
연 령	만 1 9 ~ 2 4 세	9	11.1	88.9
	만 2 5 ~ 2 9 세	13	25.0	75.0
	만 3 0 ~ 3 4 세	5	62.5	37.5
지 역	수 도 권	24	37.5	62.5
	비 수 도 권	3	0.0	10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1	27.3	72.7
	대 졸 이 상	14	35.7	64.3
출 신	북 한	24	33.3	66.7
지 역	중 국	3	33.3	66.7

* 주: 1)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취업 준비 차원에서 동아리나 스터디 활동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북한배경청년(33.3%)이 일반청년(25.5%)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표 V-77. 취업 준비 경험_13) 희망하는 일자리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5	23.7	76.3
성 별	남	자	116	22.8	77.2
	여	자	89	24.9	75.1
연 령	만 1 8 ~ 2 4 세		88	26.3	73.7
	만 2 5 ~ 2 9 세		96	23.7	76.3
	만 3 0 ~ 3 4 세		21	13.7	86.3
지 역	수 도 권		95	25.1	74.9
	비 수 도 권		110	22.2	77.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84	24.0	76.0
	대 졸 이 상		121	23.5	76.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78. 취업 준비 경험_13) 희망하는 일자리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9	31.0	69.0
성 별	남	자	8	37.5	62.5
	여	자	21	28.6	71.4
연 령	만 1 9 ~ 2 4 세		9	0.0	100.0
	만 2 5 ~ 2 9 세		12	0.0	100.0
	만 3 0 ~ 3 4 세		8	0.0	100.0
지 역	수 도 권		25	28.0	72.0
	비 수 도 권		4	50.0	5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2	25.0	75.0
	대 졸 이 상		14	35.7	64.3
출 신	북	한	26	34.6	65.4
지 역	중	국	3	0.0	100.0

* 주: 1)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취업 준비 차원에서 희망하는 일자리 관련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 역시 긍정적으로 응답한 북한배경청년(31.0%)이 일반청년(23.7%)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표 V-79.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1)학교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5	40.1	0.9	5.7	27.6	54.1	11.7	59.9
성별	남	자	116	41.9	0.0	9.7	27.5	50.4	12.4	58.1
	여	자	89	37.9	2.1	0.0	27.8	59.3	10.8	62.1
연령	만 18 ~ 24 세		88	46.6	0.0	3.2	21.1	60.5	15.2	53.4
	만 25 ~ 29 세		96	36.5	2.0	6.3	31.3	50.3	10.1	63.5
	만 30 ~ 34 세		21	31.0	0.0	17.2	46.3	36.5	0.0	69.0
지역	수 도 권		95	37.1	0.0	10.1	26.6	54.7	8.6	62.9
	비 수 도 권		110	43.4	1.7	1.7	28.5	53.5	14.6	56.6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84	32.9	0.0	0.0	30.4	46.5	23.1	67.1
	대 졸 이 상		121	44.7	1.3	8.4	26.3	57.7	6.4	55.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80.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
_1) 학교(상당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7	55.6	11.8	11.8	47.1	23.5	5.9	44.4
성별	남	자	6	50.0	20.0	0.0	60.0	20.0	0.0	50.0
	여	자	21	57.1	8.3	16.7	41.7	25.0	8.3	42.9
연령	만 19 ~ 24 세		9	66.7	0.0	16.7	66.7	0.0	16.7	33.3
	만 25 ~ 29 세		13	53.8	25.0	12.5	25.0	37.5	0.0	46.2
	만 30 ~ 34 세		5	40.0	0.0	0.0	66.7	33.3	0.0	60.0
지역	수 도 권		24	50.0	13.3	13.3	46.7	20.0	6.7	50.0
	비 수 도 권		3	100.0	0.0	0.0	50.0	5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11	54.5	0.0	33.3	33.3	16.7	16.7	45.5
	대 졸 이 상		15	53.3	22.2	0.0	44.4	33.3	0.0	46.7
출신	북	한	24	54.2	13.3	13.3	46.7	26.7	0.0	45.8
지역	중	국	3	66.7	0.0	0.0	50.0	0.0	50.0	33.3

* 주: 1)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학교를 통해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은 경험과 도움 되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일반청년에(40.1%) 비해 높은 비율의 북한배경청년들이(55.6%) 학교를 통해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도움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응답한 북한배경청년들의 29.4%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답한 반면,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65.8%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답하고 있다. 이는 학교로부터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을 가진 북한배경청년들은 많으나 그 도움이 실제 도움이 된 경우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은 경험을 가진 이는 적으나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이 실제 도움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배경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학교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는 했으나 실제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음을 의미한다.

잡월드인가 거기를 중학교 때도 한 번 가본 적도 있어요. 그런 데를 가서 하는 것보다 그냥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해가지고 일하는 현장을 보고 그거를 해서 그다음에 실습장 가서 체험을 해 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하는 게, 저는 일하는 장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실제 일하는 장소를 가서 그거를 보는 게 더 와 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례 19)

표 V-8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공공기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5	16.0	4.3	4.8	28.9	46.4	15.7	84.0
성 별	남 자	116	9.4	0.0	10.8	19.4	48.7	21.1	90.6
	여 자	89	24.5	6.4	1.8	33.6	45.2	13.0	75.5
연 령	만 1 8 ~ 2 4 세	88	9.4	8.6	4.9	17.2	41.0	28.3	90.6
	만 2 5 ~ 2 9 세	96	20.7	3.6	0.0	40.3	46.9	9.2	79.3
	만 3 0 ~ 3 4 세	21	21.3	0.0	25.0	0.0	53.4	21.6	78.7
지 역	수 도 권	95	13.9	0.0	8.0	32.8	59.3	0.0	86.1
	비 수 도 권	110	18.3	7.8	2.2	25.8	35.9	28.4	81.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84	8.1	10.6	0.0	6.2	72.7	10.4	91.9
	대 졸 이 상	121	21.1	2.8	5.9	34.5	39.9	17.0	78.9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82.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공공기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0	56.7	13.0	13.0	26.1	17.4	30.4	43.3
성 별	남 자	8	100.0	0.0	10.0	40.0	30.0	20.0	0.0
	여 자	22	40.9	23.1	15.4	15.4	7.7	38.5	59.1
연 령	만 1 9 ~ 2 4 세	9	33.3	20.0	40.0	20.0	20.0	0.0	66.7
	만 2 5 ~ 2 9 세	13	53.8	12.5	12.5	25.0	0.0	50.0	46.2
	만 3 0 ~ 3 4 세	8	87.5	10.0	0.0	30.0	30.0	30.0	12.5
지 역	수 도 권	27	55.6	14.3	9.5	28.6	19.0	28.6	44.4
	비 수 도 권	3	66.7	0.0	50.0	0.0	0.0	50.0	33.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12	41.7	14.3	42.9	0.0	14.3	28.6	58.3
	대 졸 이 상	15	60.0	18.2	0.0	27.3	18.2	36.4	40.0
출 신 지 역	북 한	28	60.7	13.0	13.0	26.1	17.4	30.4	39.3
	중 국	2	0.0	13.0	13.0	26.1	17.4	30.4	100.0

* 주: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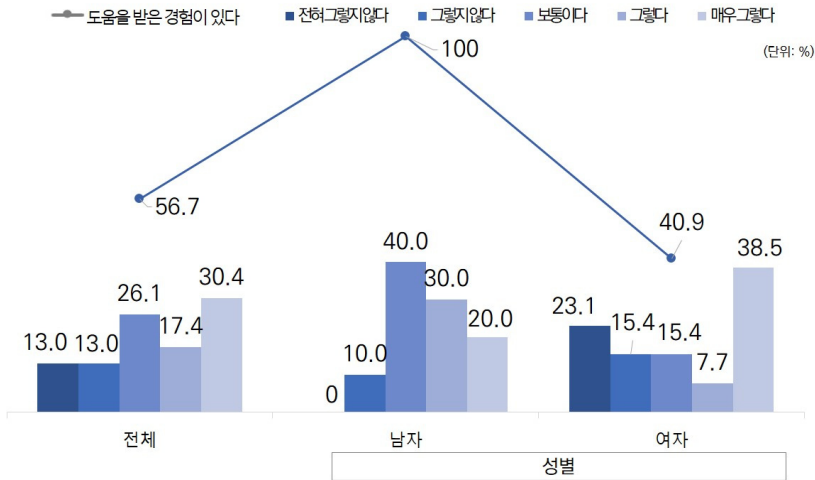


그림 V-21.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2) 공공기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공기관을 통해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은 경험과 도움 되는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도 학교에 대한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청년에(16.0%)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의 북한배경청년들이(56.7%) 하나센터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경우보다 긍정적이지만 공공기관의 도움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응답한 북한배경청년들의 47.8%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답한 반면,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은 이들 중 62.1%가 그것이 실제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 비해 공공기관의 취업 지원 활동이 북한배경청년들을 위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애쓰는 만큼 실제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 질문에 응답한 북한배경청년 남자는 모두 공공기관에서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여자의 40.9%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 저도 남북하나재단에서 한 번 상담을 받았었는데 제가 전기과를 나와서 그 산업기사 자격증만 획득하면은 한전에서 취업을 해준다고... 자격증을 따면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업기사를 딸려고 했었는데 그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할 여건이 거의 좀 안 돼서. (사례 4)

피면접자: 남북하나재단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구자: 그걸 받으셨구나.

피면접자: 네, 원래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도 청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니어도 네, 청년 농업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교육이나 이런 그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남북하나재단에서 하니까 좀 더 이렇게 현장을 좀 잘 아니까, 그러면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도받고 이렇게 연계하고 일단은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한 6개월 교육과정 마치고, 실습 반년하고. 제가 그 실습은 혼자 하는 거고.

연구자: 교육과정은 괜찮으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피면접자: 도움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현실에 조금 뒤떨어진 부분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한데, 그거는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거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해줄 수는 없는 거고. 한계가 분명 있으니까. (사례 6)

표 V-83.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사설기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5	35.1	-	3.7	18.7	68.9	8.8	64.9
성별	남 자	116	33.0	-	2.4	20.1	75.2	2.4	67.0
	여 자	89	37.8	-	5.1	17.1	61.8	16.0	62.2
연령	만 1 8 ~ 2 4 세	88	37.3	-	0.0	12.3	73.1	14.7	62.7
	만 2 5 ~ 2 9 세	96	34.4	-	7.9	21.8	65.4	4.9	65.6
	만 3 0 ~ 3 4 세	21	29.9	-	0.0	33.6	66.4	0.0	70.1
지역	수 도 권	95	34.4	-	2.5	21.7	67.7	8.1	65.6
	비 수 도 권	110	35.9	-	4.9	15.5	70.1	9.5	64.1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84	26.2	-	8.3	18.8	54.8	18.2	73.8
	대 졸 이 상	121	40.8	-	1.8	18.6	74.7	4.9	59.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84.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1	51.6	10.5	15.8	21.1	42.1	10.5	48.4
성별	남	자	7	85.7	0.0	12.5	37.5	50.0	0.0	14.3
	여	자	24	41.7	18.2	18.2	9.1	36.4	18.2	58.3
연령	만 1 9 ~ 2 4 세		11	54.5	0.0	28.6	14.3	42.9	14.3	45.5
	만 2 5 ~ 2 9 세		13	46.2	28.6	0.0	28.6	42.9	0.0	53.8
	만 3 0 ~ 3 4 세		7	57.1	0.0	20.0	20.0	40.0	20.0	42.9
지역	수 도 권		27	48.1	12.5	6.3	25.0	50.0	6.3	51.9
	비 수 도 권		4	75.0	0.0	66.7	0.0	0.0	33.3	25.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14	50.0	12.5	37.5	0.0	25.0	25.0	50.0
	대 졸 이 상		16	50.0	11.1	0.0	22.2	66.7	0.0	50.0
출신 지역	북 한		28	50.0	11.8	17.6	23.5	35.3	11.8	50.0
	중 국		3	66.7	0.0	0.0	0.0	100.0	0.0	33.3

* 주: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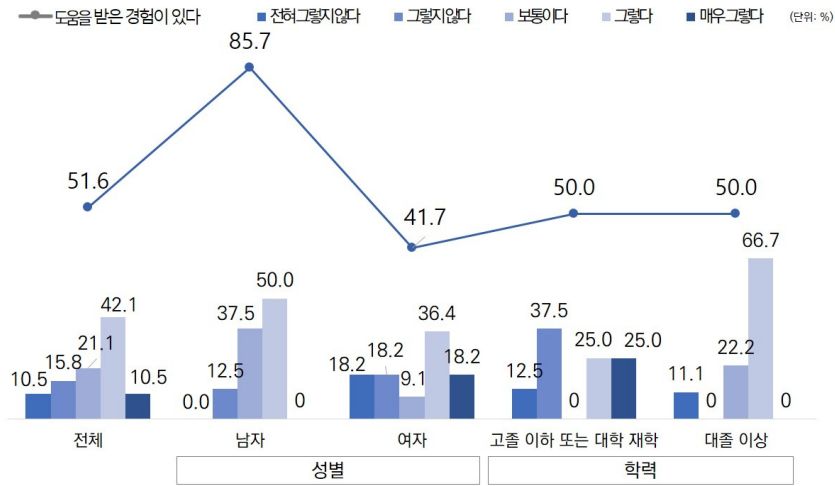


그림 V-22.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취업 준비 도움 경험과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반응 경향은 사설학원과 같은 사설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일반청년의 경우 사설기관에서 도움 받은 경우는 응답자의 35.1%인 반면,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반이 넘는 51.6%가 사설기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반청년의 경우 사설기관의 도움을 받은 이들 중 77.7%가 그 도움이 취업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에는 52.6%만이 그렇게 응답하였다. 사설기관의 취업 준비 도움과 관련해서는 사례수가 적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응답한 남자의 85.7%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41.7%만이 사설기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 사설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 그것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응답이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자들(50%)에게서 대졸 이상자(11.1%)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졸자들보다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사설기관의 도움을 받아도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85.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부모님이나 친인척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도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5	26.4	-	4.5	31.8	53.1	10.5	73.6
성별	남	자	116	20.6	-	4.9	23.4	59.4	12.3	79.4
	여	자	89	33.9	-	4.2	38.4	48.3	9.1	66.1
연령	만 18 ~ 24 세		88	28.7	-	5.3	19.5	58.1	17.1	71.3
	만 25 ~ 29 세		96	22.9	-	0.0	45.2	48.1	6.7	77.1
	만 30 ~ 34 세		21	33.4	-	16.0	32.4	51.6	0.0	66.6
지역	수 도 권		95	24.9	-	4.4	34.7	57.5	3.4	75.1
	비 수 도 권		110	28.1	-	4.7	29.1	49.0	17.3	71.9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84	26.0	-	3.3	19.9	62.8	14.0	74.0
	대 졸 이 상		121	26.7	-	5.3	39.3	47.1	8.3	73.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86.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4) 부모님이나 친인척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4	50.0	20.0	0.0	40.0	33.3	6.7	50.0
성별	남 자	6	66.7	16.7	0.0	50.0	16.7	16.7	33.3
	여 자	18	44.4	22.2	0.0	33.3	44.4	0.0	55.6
연령	만 1 9 ~ 2 4 세	7	57.1	0.0	0.0	40.0	40.0	20.0	42.9
	만 2 5 ~ 2 9 세	12	50.0	42.9	0.0	28.6	28.6	0.0	50.0
	만 3 0 ~ 3 4 세	5	40.0	0.0	0.0	66.7	33.3	0.0	60.0
지역	수 도 권	21	47.6	23.1	0.0	30.8	38.5	7.7	52.4
	비 수 도 권	3	66.7	0.0	0.0	100.0	0.0	0.0	33.3
학력	고 졸 이 하 또는 대학 재학	10	50.0	16.7	0.0	50.0	33.3	0.0	50.0
	대 졸 이 상	13	46.2	28.6	0.0	28.6	42.9	0.0	53.8
출신 지역	북 한	23	52.2	20.0	0.0	40.0	33.3	6.7	47.8
	중 국	1	0.0	0.0	0.0	0.0	0.0	0.0	100.0

* 주: 1)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부모님이나 친인척을 통해 취업 준비를 위한 도움을 받은 경험과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의 경우에는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북한배경청년들이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았다는 경우가 일반청년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정도에서는 일반청년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적게 나타난다.

표 V-87.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친구, 선후배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5	55.0	-	3.6	31.2	54.1	11.2	45.0
성 별	남	자	116	59.3	-	4.8	29.7	55.3	10.2	40.7
	여	자	89	49.5	-	1.6	33.6	52.1	12.7	50.5
연 령	만 18 ~ 24 세		88	52.3	-	0.0	21.8	58.4	19.8	47.7
	만 25 ~ 29 세		96	57.6	-	5.1	38.4	53.4	3.1	42.4
	만 30 ~ 34 세		21	54.2	-	9.8	32.6	40.8	16.8	45.8
지 역	수 도 권		95	57.2	-	5.5	23.9	61.2	9.5	42.8
	비 수 도 권		110	52.6	-	1.4	39.8	45.8	13.1	47.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84	49.6	-	0.0	22.5	60.1	17.5	50.4
	대 졸 이 상		121	58.5	-	5.5	35.9	50.8	7.7	41.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 주 취업준비를 한 경우만 응답

표 V-88. 취업 준비 도움을 받은 경험 및 도움이 되는 정도_5) 친구, 선후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9	55.2	5.0	20.0	30.0	25.0	20.0	44.8
성 별	남 자	8	75.0	12.5	25.0	37.5	25.0	0.0	25.0
	여 자	21	47.6	0.0	16.7	25.0	25.0	33.3	52.4
연 령	만 19 ~ 24 세	9	44.4	0.0	33.3	33.3	33.3	0.0	55.6
	만 25 ~ 29 세	12	50.0	14.3	14.3	42.9	0.0	28.6	50.0
	만 30 ~ 34 세	8	75.0	0.0	14.3	14.3	42.9	28.6	25.0
지 역	수 도 권	24	50.0	6.3	18.8	37.5	25.0	12.5	50.0
	비 수 도 권	5	80.0	0.0	25.0	0.0	25.0	50.0	2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14	50.0	0.0	25.0	12.5	37.5	25.0	50.0
	대 졸 이 상	14	57.1	10.0	20.0	30.0	20.0	20.0	42.9
출 신 지 역	북 한	27	55.6	5.6	16.7	27.8	27.8	22.2	44.4
	중 국	2	50.0	0.0	50.0	50.0	0.0	0.0	50.0

* 주: 1)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취업 준비에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과 그것이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다른 항목과 달리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도움받은 경험 유무에서는 일반청년집단의 응답과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에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서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일반청년들이 북한배경청년들에 비해 더욱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표 V-89. 주체별 도움 내용_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전	체	14	28.6	14.3	50.0	0.0	0.0	7.1
성 별	남 자	2	50.0	0.0	50.0	0.0	0.0	0.0
	여 자	12	25.0	16.7	50.0	0.0	0.0	8.3
연 령	만 19 ~ 24 세	6	33.3	33.3	33.3	0.0	0.0	0.0
	만 25 ~ 29 세	6	16.7	0.0	66.7	0.0	0.0	16.7
	만 30 ~ 34 세	2	50.0	0.0	50.0	0.0	0.0	0.0
지 역	수 도 권	12	33.3	8.3	50.0	0.0	0.0	8.3
	비 수 도 권	2	0.0	50.0	50.0	0.0	0.0	0.0
학 력	고 졸 이 하 또는 대학 재학	6	0.0	33.3	50.0	0.0	0.0	16.7
	대 졸 이 상	7	42.9	0.0	57.1	0.0	0.0	0.0
출 신 지 역	북 한	12	25.0	16.7	50.0	0.0	0.0	8.3
	중 국	2	50.0	0.0	50.0	0.0	0.0	0.0

* 주: 1)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북한배경청년들은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0.0%가 상담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취업 관련 상담이 학교의 주요 지원 활동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배경청년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취업 관련 지원은 취업 관련 정보 제공, 교육/훈련 순이다. 일자리 알선이나 금전적 지원은 학교의 역할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

표 V-90. 주체별 도움 내용_2) 공공기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등)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전		체	17	29.4	11.8	5.9	29.4	17.6	5.9
성 별	남	자	8	37.5	12.5	12.5	25.0	12.5	0.0
	여	자	9	22.2	11.1	0.0	33.3	22.2	11.1
연 령	만 19 ~ 24 세		3	33.3	0.0	33.3	0.0	0.0	33.3
	만 25 ~ 29 세		5	40.0	20.0	0.0	20.0	20.0	0.0
	만 30 ~ 34 세		9	22.2	11.1	0.0	44.4	22.2	0.0
지 역	수 도 권		16	31.3	12.5	6.3	25.0	18.8	6.3
	비 수 도 권		1	0.0	0.0	0.0	100.0	0.0	0.0
학 력	고 졸 이 하 또는 대학 재학		5	20.0	0.0	20.0	20.0	20.0	20.0
	대 졸 이 상		8	37.5	12.5	0.0	25.0	25.0	0.0
출 신 지 역	북	한	17	29.4	11.8	5.9	29.4	17.6	5.9
	중	국	0.0	0.0	0.0	0.0	0.0	0.0	0.0

* 주: 1)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공공기관을 통해 북한배경청년이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한 응답을 학교를 통한 도움 내용과 비교해 보면 학교의 지원활동은 주로 상담인 반면, 공공기관의 지원 내용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공공기관을 통해 북한배경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위한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뿐만 아니라 금전적 지원, 교육/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91. 주체별 도움 내용_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전		체	12	25.0	50.0	8.3	16.7	0.0	0.0
성 별	남	자	5	40.0	40.0	20.0	0.0	0.0	0.0
	여	자	7	14.3	57.1	0.0	28.6	0.0	0.0
연 령	만 19 ~ 24 세		6	33.3	33.3	16.7	16.7	0.0	0.0
	만 25 ~ 29 세		3	33.3	33.3	0.0	33.3	0.0	0.0
	만 30 ~ 34 세		3	0.0	100.0	0.0	0.0	0.0	0.0
지 역	수 도 권		11	27.3	45.5	9.1	18.2	0.0	0.0
	비 수 도 권		1	0.0	100.0	0.0	0.0	0.0	0.0
학 력	고 졸 이 하 또는 대학 재학		5	20.0	40.0	20.0	20.0	0.0	0.0
	대 졸 이 상		6	16.7	66.7	0.0	16.7	0.0	0.0
출 신 지 역	북 한		9	22.2	55.6	11.1	11.1	0.0	0.0
	중 국		3	33.3	33.3	0.0	33.3	0.0	0.0

* 주: 1)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취업 준비를 위해 북한배경청년들이 사설기관을 통해 얻는 도움의 내용을 묻는 질문을 학교, 공공기관과 비교해 보면 사설기관의 역할은 주로 교육/훈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훈련 외에도 사설기관을 통해 북한배경청년들은 취업 준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기도 하고 일자리를 알선받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92. 주체별 도움 내용_4) 부모님이나 친인척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전		체	12	0.0	8.3	50.0	16.7	25.0	0.0
성 별	남	자	4	0.0	0.0	25.0	50.0	25.0	0.0
	여	자	8	0.0	12.5	62.5	0.0	25.0	0.0
연 령	만 19 ~ 24 세		6	0.0	0.0	50.0	16.7	33.3	0.0
	만 25 ~ 29 세		4	0.0	0.0	50.0	25.0	25.0	0.0
	만 30 ~ 34 세		2	0.0	50.0	50.0	0.0	0.0	0.0
지 역	수 도 권		11	0.0	0.0	54.5	18.2	27.3	0.0
	비 수 도 권		1	0.0	100.0	0.0	0.0	0.0	0.0
학 력	고 졸 이 하 또는 대학 재학		5	0.0	20.0	60.0	0.0	20.0	0.0
	대 졸 이 상		6	0.0	0.0	50.0	16.7	33.3	0.0
출 신 지 역	북 한		11	0.0	9.1	54.5	18.2	18.2	0.0
	중 국		1	0.0	0.0	0.0	0.0	100.0	0.0

* 주: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받은 도움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적은 사례 수가 보여주는 결과를 통해 북한배경청년들이 부모님이나 친인척을 통해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는 내용은 주로 관련 상담이며, 금전적 지원이나 일자리 알선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93. 주체별 도움 내용_5) 친구, 선후배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보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전	체	11	36.4	0.0	27.3	27.3	0.0	9.1
성 별	남 자	3	33.3	0.0	0.0	66.7	0.0	0.0
	여 자	8	37.5	0.0	37.5	12.5	0.0	12.5
연 령	만 19 ~ 24 세	1	0.0	0.0	0.0	100.0	0.0	0.0
	만 25 ~ 29 세	6	50.0	0.0	33.3	16.7	0.0	0.0
	만 30 ~ 34 세	4	25.0	0.0	25.0	25.0	0.0	25.0
지 역	수 도 권	10	40.0	0.0	30.0	20.0	0.0	10.0
	비 수 도 권	1	0.0	0.0	0.0	100.0	0.0	0.0
학 력	고 졸 이 하 또는 대학 재학	1	0.0	0.0	0.0	100.0	0.0	0.0
	대 졸 이 상	9	44.4	0.0	33.3	11.1	0.0	11.1
출 신 지 역	북 한	11	36.4	0.0	27.3	27.3	0.0	9.1
	중 국	0	0.0	0.0	0.0	0.0	0.0	0.0

* 주: 1)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취업 준비를 위해 북한배경청년들이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얻는 도움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 관련 도움을 얻는 경험에 있는 경우, 그 내용은 정보제공이 가장 흔하고, 상담, 일자리 알선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 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표 V-94.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2,041	14.9	85.1
성 별	남	자	1,074	12.9	87.1
	여	자	967	17.1	82.9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11.0	89.0
	만 2 5 ~ 2 9 세		668	19.5	80.5
	만 3 0 ~ 3 4 세		600	14.7	85.3
지 역	수 도 권		1,032	15.1	84.9
	비 수 도 권		1,009	14.6	85.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7.7	92.3
	대 졸 이 상		1,044	21.8	78.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95. 공무원, 공단(공사), 교원 임용,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44	31.8	68.2
성 별	남	자	14	42.9	57.1
	여	자	30	26.7	73.3
연 령	만 1 9 ~ 2 4 세		13	38.5	61.5
	만 2 5 ~ 2 9 세		17	23.5	76.5
	만 3 0 ~ 3 4 세		14	35.7	64.3
지 역	수 도 권		38	34.2	65.8
	비 수 도 권		6	16.7	83.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8	33.3	66.7
	대 졸 이 상		19	42.1	57.9
출 신 지 역	북 한		41	29.3	70.7
	중 국		3	66.7	33.3

일반청년들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공무원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한 경향이 있는 이들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일반청년의 14.9%가 관련 자격시험을 준비한 경험이라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31.8%가 이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북한배경청년의 1/3은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향후 직업 훈련 계획

표 V-96.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이미 받고 있다
전	체	2,041	13.6	85.0	1.4
성 별	남 자	1,074	13.4	85.3	1.3
	여 자	967	13.7	84.7	1.5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18.6	80.3	1.1
	만 2 5 ~ 2 9 세	668	11.9	86.1	2.0
	만 3 0 ~ 3 4 세	600	9.1	89.8	1.1
지 역	수 도 권	1,032	12.9	85.4	1.7
	비 수 도 권	1,009	14.4	84.6	1.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16.9	82.1	1.1
	대 졸 이 상	1,044	10.4	87.9	1.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97. 향후 직업 훈련 계획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이미 받고 있다
전	체	106	64.2	29.2	6.6
성 별	남 자	34	58.8	41.2	0.0
	여 자	72	66.7	23.6	9.7
연 령	만 1 9 ~ 2 4 세	57	66.7	28.1	5.3
	만 2 5 ~ 2 9 세	25	52.0	36.0	12.0
	만 3 0 ~ 3 4 세	23	73.9	21.7	4.3
지 역	수 도 권	96	65.6	28.1	6.3
	비 수 도 권	9	55.6	33.3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61.7	31.7	6.7
	대 졸 이 상	30	63.3	26.7	10.0
출 신 지 역	북 한	88	64.8	27.3	8.0
	중 국	17	64.7	35.3	0.0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배경청년과 일반청년의 응답 경향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청년의 13.6%만이 그럴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64.2%가 이에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어 직업 훈련에 대한 북한배경청년의 요구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최우선 확대해야 하는 교육·훈련 대책

표 V-98.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학 장학금 지원정책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정책	청년 진로관련 정책	청년 직업교육 정책	청년 인재양성 정책	기타
전 체		2,041	13.9	7.9	15.7	25.1	37.4	0.1
성 별	남 자	1,074	13.4	5.8	16.6	24.4	39.6	0.1
	여 자	967	14.4	10.3	14.6	25.8	34.8	0.0
연 령	만18~24세	773	16.3	8.1	15.6	22.5	37.5	0.0
	만25~29세	668	12.7	7.1	17.8	25.6	36.9	0.0
	만30~34세	600	12.1	8.6	13.5	27.9	37.8	0.2
지 역	수 도 권	1,032	11.8	9.0	16.0	24.2	39.0	0.1
	비 수 도 권	1,009	16.2	6.7	15.4	26.1	35.5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13.7	7.3	14.9	25.9	38.2	0.0
	대 졸 이 상	1,044	14.0	8.6	16.5	24.3	36.5	0.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99.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학 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정책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정책	청년 진로관련 정책	청년 직업교육 정책	청년 인재양성 정책	대학특례 입학
전	체	99	41.4	4.0	10.1	23.2	16.2	5.1
성별	남 자	34	50.0	0.0	11.8	23.5	11.8	2.9
	여 자	65	36.9	6.2	9.2	23.1	18.5	6.2
연령	만 19~24세	53	47.2	3.8	13.2	15.1	17.0	3.8
	만 25~29세	24	37.5	4.2	4.2	25.0	20.8	8.3
	만 30~34세	21	28.6	4.8	9.5	42.9	9.5	4.8
지역	수 도 권	90	42.2	3.3	10.0	22.2	16.7	5.6
	비 수 도 권	8	25.0	12.5	12.5	37.5	12.5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3	43.4	5.7	13.2	17.0	15.1	5.7
	대 졸 이 상	31	35.5	3.2	6.5	35.5	12.9	6.5
출신 지역	북 한	83	39.8	2.4	9.6	25.3	16.9	6.0
	중 국	15	46.7	13.3	13.3	13.3	13.3	0.0

교육 대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 북한배경청년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이 대학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정책’(41.4%)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출생청년들도 39.8%가 여기에 응답하고 있다. 이미 북한출생청년들에게는 대학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 필요한 교재비, 생활비 등의 필요에 의해 장학금 요구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이 응답 결과가 시사해 주고 있다.

북한출생 북한배경청년에 비해 대학특례입학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이 그 상대적 불이익을 흔히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특례입학보다 학비 지원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이에 대한 필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우선 확대되어야 할 정책으로 응답한 것은 취업지원센터, 일학습병행제 등의 ‘청년 직업교육 정책’(23.2%)이며 다음이 청년인재 집중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산업맞춤 연수 등의 ‘청년 인재양성 정책’(16.2%)이다.

이 항목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는 성별, 거주지역별, 학력별, 출생지역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면담에서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이 대학입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출생과의 드러나는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설문결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저희 북한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혜택이 생각보다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혜택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무리 한국에 와서 언어부터도 배워야 되고, 사회생활에도 적응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엄마의 부담. 엄마도 북한분이시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있어서 조금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사례 3)

네. 학교에서 그 중국 애들이 이게 학교 사실 대학교 가는 거 저희에게는 쉽지 않잖아요. 저희 같은 신분은 다문화 쪽에도 아니고 북한 쪽에도 아니고 뭔가 사회에 대한 어떤 집단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대학교 가는 거는 일단 저도 그때는 사실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게 대학교 때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원서 접수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할지 모르고 한국어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어떤 과 가겠어.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전형도 없고.... 네. 특별 전형도 없고 그때 엄청 내가 뭐 해야 되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거 한국어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서 진짜 그때는 뭔가 또 다른 옆에 또 북한 친구들 원서 접수하면 그냥 연락 오잖아요. 그때는 아 이런 학교 붙었다. 이런 학교 붙었다. 저희가 완전 상상할 수 없는 대학 이화여대, 한국외대, 동국대, 세종대 이런 거 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희는 그냥 뭔가 잘 알리지 못하는 대학 접수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적도 다른 사람보다 엄청 잘하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런 생각 들어요. 특히 사실 그런 친구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 친구는 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공부 엄청 못해요. 심지어 검정고시도 네 번 치고 겨우 360점 딱 맞춰서 들어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올라온 친구 있거든요. 그 평소에는 공부도 잘 안 하고 대놓고 그냥 자고 그렇게 열심히도 안 하는 친구인데 동국대 붙은 거예요. 아 너무 그때는 저보다 못하는 친구인데 와 이렇게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우리가 왜 이런 것도 없고 아 그때 사실 조금 뭔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우 우리가 뭐지 아 학교에서 장학금이 있으면 그 친구들 장학금도 많이 받고 조금 뭔가 억울하다 억울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조금 그런 공간에서 조금 억울한 거죠(대안)학교에 있을 때는 정부에서 준 지원금 거의 북한 친구들한테 주는 지원이에요. 그냥 무슨 그런 거 있어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북한 출생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 졸업생 카톡방도 있는데 가끔 올라오는 뭐 그런 거 활동 같은 거 아니면 장학금 같은 거 다 거의 뒤에서 북한 출생만 아니면 가끔 있으면 그런 어떤 재단에서 그런 그 뒤에서 중국 출생도 가능 이렇게 되거든요. 학교에서 받은 지원이 거기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냥 제가 받은 장학금도 외부에서 장학재단 받았어요. (사례 8)

4. 경제와 고용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제력과 고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따라서 생활비, 대출, 현재 일자리, 창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 취업 준비, 플랫폼 노동 종사, 월 소득, 부당노동행위 경험, 구직활동 여부 등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태조사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00.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분위기 좋은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유명한 회사	안정 적인 회사	퇴근이 빠른 회사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전 체		2,041	8.6	15.5	1.0	24.6	3.6	11.0	18.0	17.8
성 별	남 자	1,074	8.8	17.0	1.2	22.7	2.4	13.2	18.9	15.6
	여 자	967	8.3	13.7	0.7	26.7	4.9	8.4	16.9	20.3
연 령	만 18~24세	773	9.6	12.7	1.0	24.7	2.9	10.2	20.3	18.7
	만 25~29세	668	7.8	16.7	0.8	23.8	4.0	11.1	19.1	16.6
	만 30~34세	600	8.2	17.5	1.1	25.4	4.1	11.8	13.9	18.0
지 역	수 도 권	1,032	8.0	17.0	1.3	23.2	3.9	12.9	18.8	14.9
	비 수 도 권	1,009	9.2	13.7	0.7	26.2	3.2	8.8	17.0	21.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9.3	16.1	1.2	24.2	3.1	11.6	19.3	15.3
	대 졸 이 상	1,044	7.9	14.9	0.8	25.0	4.1	10.4	16.7	20.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01.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분위기 좋은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유명한 회사	안정적인 회사	퇴근이 빠른 회사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기타
전	체	104	9.6	16.3	0.0	23.1	3.8	8.7	26.0	10.6	1.9
성 별	남 자	33	12.1	15.2	0.0	27.3	6.1	15.2	18.2	3.0	3.0
	여 자	71	8.5	16.9	0.0	21.1	2.8	5.6	29.6	14.1	1.4
연 령	만 19 ~ 24 세	55	10.9	16.4	0.0	23.6	3.6	10.9	21.8	10.9	1.8
	만 25 ~ 29 세	26	0.0	19.2	0.0	30.8	3.8	3.8	30.8	11.5	0.0
	만 30 ~ 34 세	22	18.2	13.6	0.0	13.6	4.5	9.1	27.3	9.1	4.5
지 역	수 도 권	94	8.5	14.9	0.0	23.4	4.3	8.5	26.6	11.7	2.1
	비 수 도 권	9	22.2	33.3	0.0	22.2	0.0	11.1	11.1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8	10.3	19.0	0.0	20.7	3.4	6.9	29.3	8.6	1.7
	대 졸 이 상	31	3.2	16.1	0.0	22.6	0.0	6.5	32.3	19.4	0.0
출 신 지 역	북 한	87	8.0	16.1	0.0	26.4	3.4	8.0	26.4	9.2	2.3
	중 국	16	18.8	18.8	0.0	6.3	6.3	12.5	18.8	18.8	0.0

북한배경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유형에 대해 26.0%가 직무 적성에 맞는 회사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회사’(23.1%), ‘급여가 높은 회사’(16.3%), ‘복지수준이 높은 회사’(10.6%), ‘분위기 좋은 회사’(9.6%),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8.7%), ‘퇴근이 빠른 회사’(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빠른 경제적인 안정과 자립을 희망하지만, 급여보다 직무 적성이나 안정성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청년들은 ‘안정적인 회사’(24.6%)를 가장 높은 순위를 선택했고, 다음으로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18.0%),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17.8%), ‘급여가 높은 회사’(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들은 공통적으로 직업 안정성과 직무 적성을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으로 선택했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불안감이나 조직보다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을 강조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북한배경청년들에게는 성별에 따른 일자리 유형의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 남성의 경우 직업 안정성(27.3%)을 가장 중시했

지만, 여성의 경우 직무 적성(29.6%)을 가장 높은 순위로 선택했다. 여성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남한 사회에서 빠른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희망하지만 동시에 북한에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의 내용 자체에도 기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자: 왜 그쪽을 하려고 하셨어요?

피면접자: 계기는 아버랑도 관련이 있긴 한데 병원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병원에도 사회복지사가 있거든요. 병원에도 수술이나 이런 분들이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병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인데 병원에서 그래서 그런 걸 그러면 저도 병원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거기서 일하려고 지원을 해봤죠. (사례 15)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 그쯤에 3학년 2학기 때쯤 통일부 기자단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약간 글쓰기에... 기자라는 거에 좀 더 관심 있었고. 또 북한도 워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였고 해서 이쪽으로 한 번... 실제 제가 이런 취미가 아니고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통일부 기자단을 1년 마치고 졸업하고, 마치고 한 3개월을 취준 준비하고 있었는데, 언론 이거 찾아보고 있다가 좀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데 있어 가지고 지원을 했고. 뭐 시험 보잖아요. 논술 보고 면접 보고 해서 된 거예요. 거기서 한 6개월인가 그 정도 하다가 너무 일이 박세가지고 그만두고 한 2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지금 이직해가지고. 같은 언론사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취업하는 데는 그게 대기업이나 이런 기준을 세웠으면 힘들었을 텐데, 저는 내가 기자로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데면 괜찮다 그래서 되게 갈 때부터 좀 인터넷 기사 언론사 쪽으로 갔었고. 지금은 종합일간지이긴 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취업에 어려움은 그렇게 없었던 거 같아요. 일을 하고 있는 데도 그렇게 어려움은... (사례 6)

반면에 북한배경청년 남성의 경우 자신의 자아실현이나 직무 적성에 관심은 있지만, 안정적인 회사에 취업해서 가정을 꾸리고 부양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공부하면서 좀 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사업 같은 거를 많이 구상했던 거 같아요. 좀 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제 아이디어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고안한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했었어요. 여러 방면으로. 그랬는데 물론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러다가 아직은 뛰어드는 것보다는 요정도 경험해 봤으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고. 현실적인 거를 좀 더 직시하고 나중에 해도 늦진 않겠다. (사례 5)

피면접자: 지금 보면 제 친척들 다 중국에 있거든요. 한국은 그냥 부모님하고 저만 있어요. 진짜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하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한국은 부자들한테 살기 좋은 도시예요. 이제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여기 초대해서 만약 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와서 같이 살고 안 되면 그냥 제가 한국에 나올 수도 있고 중국에 다시 갈 수 있어요. 중국에 가면 또 제 어머니가 여기 혼자거든요. 중국에 친척들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는 저밖에 없어요. 제가 중국에 가도 어머니는 가족을 다 이렇게 옮길 거예요. (사례 14)

표 V-102.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수	한 달 생활비 평균(원)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평균(%)
전	체	2,041	849,222	27.4
성별	남	자 1,074	855,278	30.7
	여	자 967	842,399	23.6
연령	만 18 ~ 24 세	773	646,116	53.0
	만 25 ~ 29 세	668	935,640	16.8
	만 30 ~ 34 세	600	1,010,464	6.6
지역	수도권	1,032	912,739	25.0
	비수도권	1,009	775,960	30.2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749,718	42.2
	대졸 이상	1,044	944,427	13.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학생은 한 달에 지출하는 용돈으로 응답

표 V-103. 한 달 생활비 정도 및 부모님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원, %)

구분		사례수	한 달 생활비 평균(원)	한 달 생활비 지원 비율 평균(%)
전	체	102	860,000	22.4
성별	남	자 33	797,000	16.0
	여	자 69	889,900	25.5
연령	만 19 ~ 24 세	55	752,700*	31.1
	만 25 ~ 29 세	25	782,000*	20.0
	만 30 ~ 34 세	22	1,215,900*	3.5
지역	수도권	93	865,600	23.2
	비수도권	9	800,000	14.6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7	754,400	24.0
	대졸 이상	55	950,000	21.0
출신 지역	북한	87	900,000	19.4
	중국	15	626,700	40.1

북한배경청년의 한 달 생활비는 평균 86만 원이며, 응답자의 22.4%가 부모나 친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다고 응답했다. 한 달 생활비 평균은 일반청년들의 약 85만 원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부모나 친지로부터의 재정 지원 비율은 일반청년들의 27.4%가 재정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다.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은 주로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했지만, 가족 이외에 장학재단이나 종교단체와 같은 민간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대학교 다닐 때 OOOO에서 장학재단을 소개를 해줬어요. 해서 거기서 소개받아서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생활비 그 장학재단이 생활비 지원해주는 장학재단이었거든요. 거기서 졸업할 때까지 매달 얼마씩 받아 썼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저는 했어요. (사례 15)

또한 부모나 친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한에 있는 부모나 친지, 혹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노력 안 해도 잘 살 것 같았어요. 누나가 이쪽에 먼저 와서도 가끔씩 통화는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하고, 돈도 가끔씩 보내주고 했었어요.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그냥 버는 줄 알았어요.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누나가 힘들었는데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못 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모르고, 내가 직접 또 살아 보니까 나도 와서 어머니를 당장 데려온 게 아니고 돈 마련을 해야 하니까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한 내가 와서 1년 정도, 그동안에 당장은 못 데려오니까 돈도 보내주고 하는데 가끔씩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들이 북한에 있으면 모르는 게 당연하구나, 저쪽에 매체량 보면 잘 사는 모습만 보고하니까 그렇게 또 힘들게 생각을 사람들 자체가 안 해요. 가면 다 잘 사는 줄 알고 그런 게 있죠. (사례 9)

제가 지금 그 저희 아빠가 아직은 북한에서 살고 계시니까 아빠한테 저희가 코로나 있기까지는 1년에 한 번씩 돈을 보내줬었거든요. 돈을 보내주려면 또 제가 돈이 있어야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을 해야겠다. 내가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크게 부담감이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딱히 혼자 모든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다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례 15)

표 V-104. 갚아야 할 채무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2,041	18.8	81.2
성별	남자	1,074	19.7	80.3
	여자	967	17.9	82.1
연령	만18~24세	773	9.2	90.8
	만25~29세	668	20.2	79.8
	만30~34세	600	29.6	70.4
지역	수도권	1,032	21.9	78.1
	비수도권	1,009	15.3	84.7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11.8	88.2
	대졸 이상	1,044	25.6	74.4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학자금 대출 포함

표 V-105. 갚아야 할 채무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06	13.2	86.8
성 별	남 자	33	18.2	81.8
	여 자	73	11.0	89.0
연 령	만 1 9 ~ 2 4 세	57	1.8	98.2
	만 2 5 ~ 2 9 세	26	23.1	76.9
	만 3 0 ~ 3 4 세	22	31.8	68.2
지 역	수 도 권	97	13.4	86.6
	비 수 도 권	8	12.5	87.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6.8	93.2
	대 졸 이 상	31	25.8	74.2
출 신 지 역	북 한	88	15.9	84.1
	중 국	17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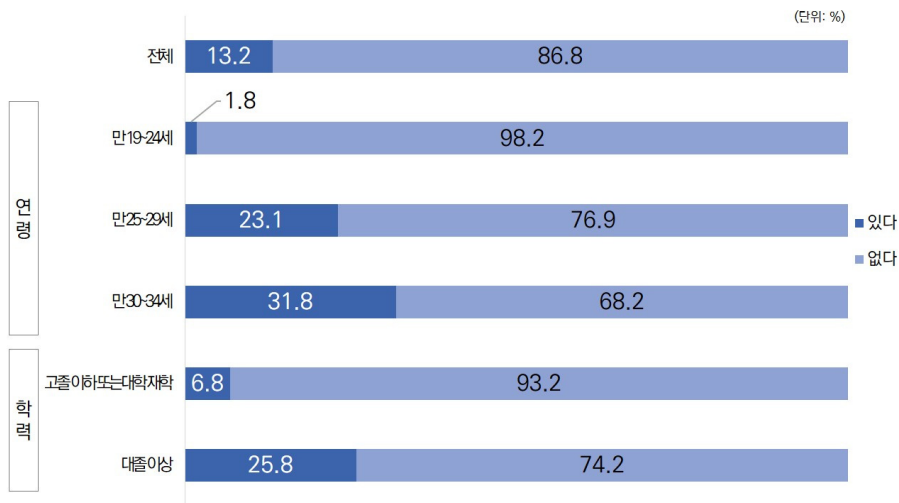


그림 V-23. 갚아야 할 채무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북한배경청년 중에서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3.2%로 일반청년의 18.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청년들은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학자금 마련을 위해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북한배경청년의 경우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장학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무 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채무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높아졌고, 만 25세 이상 연령 집단의 경우에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청년에 비해서도 채무가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력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는데, 대졸 이상의 북한배경청년들이 고졸이하 또는 대학 재학자에 비해 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 재학을 위한 학자금은 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이외에 필요한 주거비나 생활비 등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06. 채무 발생 이유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자금 마련	주거비 마련	생활비 마련	창업 자금 마련	기타
전	체	375	34.0	45.8	8.8	8.1	3.3
성 별	남 자	209	31.2	42.1	10.6	11.3	4.7
	여 자	166	37.4	50.4	6.5	4.1	1.5
연 령	만 18~24세	68	68.8	15.0	10.0	0.5	5.7
	만 25~29세	131	44.9	31.3	10.6	8.4	4.8
	만 30~34세	176	12.1	68.9	7.0	10.8	1.2
지 역	수 도 권	223	37.5	48.5	6.4	5.2	2.4
	비 수 도 권	152	28.2	41.4	12.7	12.8	4.9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118	32.7	35.9	13.7	11.8	5.9
	대 졸 이 상	257	34.6	50.2	6.6	6.5	2.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표 V-107. 채무 발생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자금 마련	주거비 마련 (전월세 자금 등)	생활비 마련 (식비, 의료비 등)	창업자금 마련	기타
전	체	15	6.7	33.3	40.0	6.7	13.3
성 별	남 자	6	16.7	33.3	50.0	0.0	0.0
	여 자	9	0.0	33.3	33.3	11.1	22.2
연 령	만 19~24세	2	0.0	100.0	0.0	0.0	0.0
	만 25~29세	6	0.0	33.3	33.3	0.0	33.3
	만 30~34세	7	14.3	14.3	57.1	14.3	0.0
지 역	수 도 권	14	7.1	35.7	35.7	7.1	14.3
	비 수 도 권	1	0.0	0.0	100.0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	0.0	40.0	40.0	20.0	0.0
	대 졸 이 상	8	12.5	37.5	37.5	0.0	12.5
출 신 지 역	북 한	15	6.7	33.3	40.0	6.7	13.3
	중 국	0	0.0	0.0	0.0	0.0	0.0

* 주: 1) 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북한배경청년들의 채무 발생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 40.0%로 가장 비중이 크고, 다음으로 ‘주거비 마련’(33.3%), ‘학자금 마련’(6.7%), ‘창업자금 마련’(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따르면, 청년들은 생활비와 주거비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다. 특히 가족이 먼저 입국해서 주택을 받은 경우 임대주택 수혜에서 배제됨에 따라 많은 부담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나와 가지고 우리 신랑하고 나는 진짜 빈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도움 된 거는 별로 크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집을 받았으면 한 명이라도 집 받았으면 괜찮았는데 둘 다 집 못 받은 상태에서 진짜 빈손으로 시작한 거라서. (사례 10)

“저는… 보통 하나원에서 성인이면 집을 주잖아요. 저도 딱 21살 때 와가지고 집을 받아서 왔는데, 경기… 지방에 받았어요. 그러가지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싶고 그래서 국가에 반납을 하고 바로. 그리고 집을 알아봤는데 월셋집을 찾아서 살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을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하루에 한 5시간씩 알바를 하면서 알바비로 월세를 내다가 한 8개월 혼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학업이랑 병행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재단… 열매나눔재단이라고 했나. 그쪽에 연결을 받아서 센터 그룹홈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근처에 대출 받아가지고 학교 근처에 집을 잡아서 지금까지 쪽 살고.” (사례 6)

또한 대학 재학 중에도 여러 가지 장학금 혜택이 있지만, 이러한 혜택이 4년제 대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 재학 청년들은 생활비와 학자금을 모두 마련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를 나왔잖아요. 정작 국가에서라던가 단체에서라던가 하면은 학생들 장학금도 내주는데 그게 다 4년제에 맞춰서 그 기준을 맞추더라고요. 4년제끼리 순위를 매겨서 그 학생들한테 주는데, 전문대는 거의 진짜 10개 중에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적더라고요. 그게 지원해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진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제 주위에도 몇몇 분이 다니는데 계속 사비로 다 다녀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 이런 것도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모아 놓은 돈이 있어서 그걸로 좀 근근이 연명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진짜 그 정도의 금액도 안 모였으면은 그냥 1년 다니고 휴학하고 돈 좀 벌어서 다시 또 1년 다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좀 이제는 2년제 전문대라도 그런 거를 늘려 주면은. 정책적으로 그런 거를 좀 늘려 주면은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사례 4)

표 V-108. 채무 발생 기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은행	제2금융권	대부업체	기타
전	체	375	86.4	7.5	1.2	8.1
성 별	남 자	209	85.2	7.8	0.7	8.1
	여 자	166	87.9	7.1	1.7	8.0
연 령	만 1 8 ~ 2 4 세	68	65.3	9.3	2.3	24.1
	만 2 5 ~ 2 9 세	131	87.6	4.9	1.5	9.3
	만 3 0 ~ 3 4 세	176	93.7	8.8	0.5	0.8
지 역	수 도 권	223	86.8	7.8	0.9	7.3
	비 수 도 권	152	85.7	6.9	1.7	9.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18	77.4	12.8	2.1	13.2
	대 졸 이 상	257	90.4	5.2	0.8	5.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

표 V-109. 채무 발생 기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은행	제2금융권	대부업체	기타
전	체	15	46.7	33.3	0.0	20.0
성 별	남 자	6	66.7	16.7	0.0	16.7
	여 자	9	33.3	44.4	0.0	22.2
연 령	만 1 9 ~ 2 4 세	2	50.0	50.0	0.0	0.0
	만 2 5 ~ 2 9 세	5	80.0	0.0	0.0	20.0
	만 3 0 ~ 3 4 세	8	25.0	50.0	0.0	25.0
지 역	수 도 권	14	50.0	28.6	0.0	21.4
	비 수 도 권	1	0.0	100.0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7	42.9	57.1	0.0	0.0
	대 졸 이 상	6	50.0	16.7	0.0	33.3
출 신 지역	북 한	15	46.7	33.3	0.0	20.0
	중 국	0	0.0	0.0	0.0	0.0

* 주: 1) 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북한배경청년들의 채무 발생 기관은 ‘은행’이 4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제2금융권’도 33.3%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청년들은 ‘은행’ 대출이 86.4%, ‘제2금융권’은 7.5%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는 청년대출이나 신혼부부대출 등 은행권의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대출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뚜렷한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인에게 빌리거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 그렇게 돈이 필요할 때 예를 들면 물론 집을 사거나 이런 일이 있던 거는 아니지만 은행권에서 보통 대출받기도 하고.
 피면접자: 대출이 안 돼요. 20살 때 돈 없을 때 좀 신용이 안 좋아져가지고. 대출은... 그리고 군 미필이라서 아예 아예 대출이 안 돼요.
 연구자: 아예. 담보도 없고 이러니까.
 피면접자: 네, 4대 보험 든 것도 없어가지고 그게 아예 안 돼요. (사례 19)

표 V-11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전	체	2,041	1.4	93.1	5.5
성 별	남 자	1,074	1.2	93.1	5.7
	여 자	967	1.7	93.0	5.3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1.0	89.3	9.7
	만 2 5 ~ 2 9 세	668	2.2	93.5	4.3
	만 3 0 ~ 3 4 세	600	1.1	97.3	1.6
지 역	수 도 권	1,032	1.4	93.0	5.6
	비 수 도 권	1,009	1.4	93.1	5.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1.6	90.6	7.9
	대 졸 이 상	1,044	1.3	95.5	3.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1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전	체		98	13.3	66.3	20.4
성 별	남	자	34	14.7	67.6	17.7
	여	자	64	12.5	65.6	21.9
연 령	만 19 ~ 24 세		54	7.4	63.0	29.6
	만 25 ~ 29 세		22	27.3	59.1	13.6
	만 30 ~ 34 세		21	14.3	81.0	4.8
지 역	수 도 권		88	12.5	68.2	19.3
	비 수 도 권		9	22.2	44.4	33.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7	10.5	66.7	22.8
	대 졸 이 상		27	22.2	63.0	14.
출 신 지역	북	한	81	13.6	69.1	17.3
	중	국	16	12.5	50.0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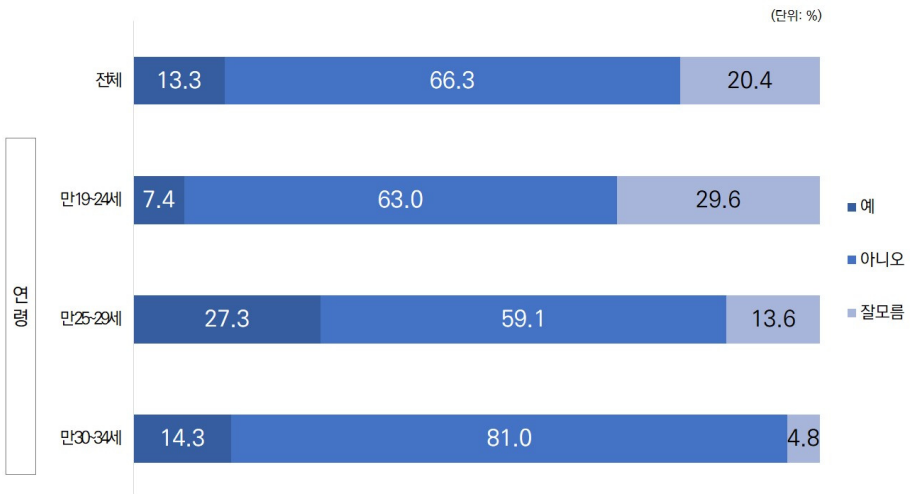


그림 V-2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북한배경청년들의 13.3%는 주거와 관련한 물질적 박탈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청년의 1.4%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이며,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북한배경청년들의 연령대별로 주거 관련 비용과 관련한 물질적 박탈감 경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만 25~29세 청년층에서 이러한 경험 비율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의 많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 또는 취업 등 사회에 막 진출하고 주거지도 독립을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 충분히 자립하지 못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고, 생활비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주거 관련 비용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1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전	체		2,041	0.7	94.9
성 별	남	자	1,074	0.6	95.2
	여	자	967	0.8	94.6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0.7	91.9
	만 2 5 ~ 2 9 세		668	0.7	95.5
	만 3 0 ~ 3 4 세		600	0.5	97.9
지 역	수 도 권		1,032	0.4	94.8
	비 수 도 권		1,009	1.0	95.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0.7	92.9
	대 출 이 상		1,044	0.6	96.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13.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잘 모름
전			98	16.3	67.3	16.3
성 별	남	자	34	14.7	67.6	17.7
	여	자	64	17.2	67.2	15.7
연 령	만 19 ~ 24 세		54	18.5	59.3	22.2
	만 25 ~ 29 세		22	4.5	81.8	13.6
	만 30 ~ 34 세		21	23.8	71.4	4.8
지 역	수도권		88	15.9	69.3	14.8
	비수도권		9	22.2	44.4	33.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7	19.3	63.2	17.5
	대졸 이상		27	7.4	77.8	14.8
출 신 지역	북	한	81	16.0	69.1	14.8
	중	국	16	18.8	56.3	25.0

북한배경청년들의 16.3%는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일반청년의 경우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지만, 북한배경청년들은 가장 기본적인 주거 환경조차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배경청년들의 일부는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임대주택을 받거나 저금리의 대출을 통해 주거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주거지가 마련되더라도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마련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오히려 독립된 거주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냉난방비와 같은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냉난방비와 같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북한배경청년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1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41	4.0	96.0
성별	남	자	1,074	3.8	96.2
	여	자	967	4.2	95.8
연령	만 18 ~ 24 세		773	4.1	95.9
	만 25 ~ 29 세		668	5.2	94.8
	만 30 ~ 34 세		600	2.5	97.5
지역	수도권		1,032	4.3	95.7
	비수도권		1,009	3.6	96.4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4.1	95.9
	대졸 이상		1,044	3.9	96.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1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95	29.5	70.5
성 별	남	자	32	25.0	75.0
	여	자	63	31.7	68.3
연 령	만 19 ~ 24 세		52	28.8	71.2
	만 25 ~ 29 세		22	31.8	68.2
	만 30 ~ 34 세		20	30.0	70.0
지 역	수도권		86	29.1	70.9
	비수도권		8	37.5	62.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5	32.7	67.3
	대 졸 이 상		27	33.3	66.7
출 신 지 역	북	한	78	29.5	70.5
	중	국	16	31.3	68.8

북한배경청년들의 29.5%는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면담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은 자신의 생활비뿐 아니라, 한국이나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비상금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누나가 이쪽에 먼저 와서도 가끔씩 통화는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하고, 돈도 가끔씩 보내주고 했었어요.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그냥 버는 줄 알았어요.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누나가 힘들었는데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못 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모르고, 내가 직접 또 살아 보니까 나도 와서 어머니를 당장 데려온 게 아니고 돈 마련을 해야 하니까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한 내가 와서 1년 정도, 그동안에 당장은 못 데려오니까 돈도 보내주고 하는데 가끔씩 어머니하고 통화하면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들이 북한에 있으면 모르는 게 당연하구나, 저쪽에 매체랑 보면 잘 사는 모습만 보고하니까 그렇게 또 힘들게 생각을 사람들 자체가 안 해요. 가면 다 잘 사는 줄 알고 그런 게 있죠. (사례 9)

표 V-116.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41	1.2	98.8
성 별	남	자	1,074	1.2	98.8
	여	자	967	1.3	98.7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1.2	98.8
	만 2 5 ~ 2 9 세		668	1.8	98.2
	만 3 0 ~ 3 4 세		600	0.6	99.4
지 역	수 도 권		1,032	1.4	98.6
	비 수 도 권		1,009	1.1	98.9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1.6	98.4
	대 졸 이 상		1,044	0.9	99.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1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94	21.3	78.7
성 별	남	자	32	15.6	84.4
	여	자	62	24.2	75.8
연 령	만 19 ~ 24 세		51	25.5	74.5
	만 25 ~ 29 세		22	13.6	86.4
	만 30 ~ 34 세		20	20.0	80.0
지 역	수도권		85	21.2	78.8
	비수도권		8	25.0	75.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4	27.8	72.2
	대졸 이상		27	14.8	85.2
출 신 지 역	북	한	77	22.1	77.9
	중	국	16	18.8	81.3

북한배경청년들의 21.3%는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일반청년들의 경우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청년은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이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면담에 참여한 한 북한배경청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교를 다니며 물로 점심을 대신한 적도 있었다고 말한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주거비나 학비와 같은 액수가 큰 비용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되게 많았어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냥 물 먹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버스 타야 되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고 그랬던 적도…. (사례 4)

표 V-118.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41	7.6	92.4
성 별	남 자	1,074	7.0	93.0
	여 자	967	8.2	91.8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9.1	90.9
	만 2 5 ~ 2 9 세	668	7.6	92.4
	만 3 0 ~ 3 4 세	600	5.5	94.5
지 역	수 도 권	1,032	7.9	92.1
	비 수 도 권	1,009	7.2	92.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7.3	92.7
	대 졸 이 상	1,044	7.8	92.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19.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97	54.6	45.4
성 별	남 자	32	40.6	59.4
	여 자	65	61.5	38.5
연 령	만 1 9 ~ 2 4 세	51	51.0	49.0
	만 2 5 ~ 2 9 세	24	54.2	45.8
	만 3 0 ~ 3 4 세	21	66.7	33.3
지 역	수 도 권	88	24.4	75.6
	비 수 도 권	8	12.5	87.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5	56.4	43.6
	대 졸 이 상	29	51.7	48.3
출 신 지역	북 한	80	56.3	43.8
	중 국	16	50.0	50.0

북한배경청년들의 54.6%는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일반청년들의 경우 동일한 질문에 대해 7.6%가 '예'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차이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처럼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배경청년들이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기기 어렵고, 필수품 이외의 물건을 구입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그럼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여쭙봐도 실례가 안될라나.

피면접자2: 한 달 수입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70만 원. 네, 그 동포사랑은 격월 호거거든요. 그건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한 달 평균 65만 원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연구자: 그걸로 생활할 만해요?

피면접자2: 네, 제가 돈을 잘 안 써서. 밥 먹는 거 빼고는 돈 쓰는 일이 거의 없어서. 가끔 담배 사 피우고 하는 거밖에는.

연구자: 교통비, 밥 먹는 것만 해도 부족할 거 같은데.

피면접자2: 딱 그냥 맞아떨어지는 거 같아요. 남는 게 없어요.

연구자: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피면접자2: 그런데 이게 좀 저도 딜레마인 거 같아요. 아르바이트 좀 더 하면 뭔가 좀 돈도 넉넉히 쓰고 그럴 거 같은 한데 그 시간이 좀 아깝거든요.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그냥 돈은 없는 대로... 제가 가난하게 살고. (사례 2)

피면접자: 없었어요. 제가 있을 때... 찾아보면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가오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네, 찾으면 있겠쎬. 재단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이랬다면 뭔가를 찾아보고 했을 텐데, 하교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뛰어가고. 주말에는 사실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카페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러면 거의 뭔가를 찾아가고 뭔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 같아요. 대학교 때는 경제적인 지원이 아예 안 나와요. 따로 학교 장학금 학비만 나오지만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매달 50만 원씩 받기도 너무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버시는지 아는데. 그러면서 내가 버는 게 낫지. 내가 버는 게 덜 그러니까. 그러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거 같아요. 찾아갔으면 나왔을라나. (사례 21)

표 V-120.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41	2.3	97.7
성 별	남 자	1,074	2.6	97.4
	여 자	967	2.0	98.0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2.3	97.7
	만 2 5 ~ 2 9 세	668	2.7	97.3
	만 3 0 ~ 3 4 세	600	1.8	98.2
지 역	수 도 권	1,032	2.8	97.2
	비 수 도 권	1,009	1.7	98.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2.2	97.8
	대 졸 이 상	1,044	2.4	97.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21.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6) TV가 없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95	23.2	76.8
성 별	남 자	31	19.4	80.6
	여 자	64	25.0	75.0
연 령	만 1 9 ~ 2 4 세	51	21.6	78.4
	만 2 5 ~ 2 9 세	23	26.1	73.9
	만 3 0 ~ 3 4 세	20	25.0	75.0
지 역	수 도 권	86	24.4	75.6
	비 수 도 권	8	12.5	87.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6	25.0	75.0
	대 졸 이 상	27	18.5	81.5
출 신	북 한	78	25.6	74.4
지 역	중 국	16	12.5	87.5

북한배경청년들의 23.2%는 TV가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일반청년들 중에서 TV가 없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2.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점은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최근 많은 청년들이 TV보다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박탈감 외에 청년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V-122.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41	0.7	99.3
성 별	남	자	1,074	0.8	99.2
	여	자	967	0.5	99.5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1.0	99.0
	만 2 5 ~ 2 9 세		668	0.5	99.5
	만 3 0 ~ 3 4 세		600	0.5	99.5
지 역	수 도 권		1,032	0.5	99.5
	비 수 도 권		1,009	0.9	99.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0.9	99.1
	대 졸 이 상		1,044	0.4	99.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23.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7) 냉장고가 없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94	3.2	96.8
성 별	남	자	32	0.0	100.0
	여	자	62	4.8	95.2
연 령	만 1 9 ~ 2 4 세		51	3.9	96.1
	만 2 5 ~ 2 9 세		22	0.0	100.0
	만 3 0 ~ 3 4 세		20	5.0	95.0
지 역	수 도 권		85	3.5	96.5
	비 수 도 권		8	0.0	10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4	1.9	98.1
	대 졸 이 상		27	0.0	100.0
출 신 지역	북	한	77	2.6	97.4
	중	국	16	6.3	93.8

북한배경청년들의 3.2%는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일반청년들은 0.7%가 냉장고가 없다고 응답했다. 냉장고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배경청년들도 집에 냉장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V-124.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41	28.0	72.0
성 별	남 자	1,074	24.7	75.3
	여 자	967	31.7	68.3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35.4	64.6
	만 2 5 ~ 2 9 세	668	29.2	70.8
	만 3 0 ~ 3 4 세	600	17.1	82.9
지 역	수 도 권	1,032	26.6	73.4
	비 수 도 권	1,009	29.6	70.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31.4	68.6
	대 졸 이 상	1,044	24.6	75.4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25.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8) 자동차가 없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95	60.0	40.0
성 별	남	32	56.3	43.8
	여	63	61.9	38.1
연 령	만 1 9 ~ 2 4 세	50	62.0	38.0
	만 2 5 ~ 2 9 세	24	58.3	41.7
	만 3 0 ~ 3 4 세	20	60.0	40.0
지 역	수 도 권	86	60.5	39.5
	비 수 도 권	8	62.5	37.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5	65.5	34.5
	대 졸 이 상	28	46.4	53.6
출 신	북 한	79	63.3	36.7
지 역	중 국	15	46.7	53.3

북한배경청년들의 60.0%는 자동차가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반청년들의 경우 동일 한 질문에 대해 28.0%가 자동차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질적 박탈감을 경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V-126.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을 가지고 있지 않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41	0.3	99.7
성별	남	자	1,074	0.2	99.8
	여	자	967	0.4	99.6
연령	만 18 ~ 24 세		773	0.4	99.6
	만 25 ~ 29 세		668	0.4	99.6
	만 30 ~ 34 세		600	0.0	100.0
지역	수도권		1,032	0.5	99.5
	비수도권		1,009	0.1	99.9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0.3	99.7
	대졸 이상		1,044	0.2	99.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27. 물질적 박탈감 경험 여부_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이 없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93	3.2	96.8
성별	남	자	32	3.1	96.9
	여	자	61	3.3	96.7
연령	만 19 ~ 24 세		50	2.0	98.0
	만 25 ~ 29 세		22	4.5	95.5
	만 30 ~ 34 세		20	5.0	95.0
지역	수도권		84	3.6	96.4
	비수도권		8	0.0	10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3	1.9	98.1
	대졸 이상		27	3.7	96.3
출신지역	북한	한	77	2.6	97.4
	중국	국	15	6.7	93.3

북한배경청년들의 3.2%는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일반청년들은 0.3%만이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국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배경청년들도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V-128.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_1) 학교 졸업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졸업과 상관없이	졸업 후
전		체	2,041	40.8	59.2
성 별	남	자	1,074	40.9	59.1
	여	자	967	40.6	59.4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42.8	57.2
	만 2 5 ~ 2 9 세		668	38.8	61.2
	만 3 0 ~ 3 4 세		600	40.4	59.6
지 역	수 도 권		1,032	37.3	62.7
	비 수 도 권		1,009	44.8	55.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41.4	58.6
	대 졸 이 상		1,044	40.3	59.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29.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_1) 학교 졸업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졸업과 상관없이	졸업 후
전		체	90	42.2	57.8
성 별	남	자	32	46.9	53.1
	여	자	58	39.7	60.3
연 령	만 1 9 ~ 2 4 세		50	36.0	64.0
	만 2 5 ~ 2 9 세		21	38.1	61.9
	만 3 0 ~ 3 4 세		18	61.1	38.9
지 역	수 도 권		82	42.7	57.3
	비 수 도 권		7	28.6	71.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2	38.5	61.5
	대 졸 이 상		25	44.0	56.0
출 신 지 역	북 한		72	44.4	55.6
	중 국		17	29.4	70.6

북한배경청년들의 57.8%는 학교 졸업 후에 시작한 일을 첫 일자리라고 응답했다. 일반 청년들의 경우에도 59.2%가 졸업 후 시작한 일을 첫 일자리라고 응답했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북한배경청년들 중에서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첫 일자리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높아졌다. 일반청년들이 연령이나 학력에 따른 인식 차이가 없다는 점과 비교할 때 다소 다른 결과이다. 특히 30~34세 청년 집단은 61.1%가 졸업과 상관 없이 처음으로 일한 자리를 첫 일자리라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 취업 시기가 남한에 입국한 시기와 관련이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자립에 보다 관심을 갖고 때문에, 학력 취득 여부보다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를 일자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30.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_2) 근로 기간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최소 1일 이상	최소 일주일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최소 6개월 이상	최소 12개월 이상	최소 24개월 이상
전	체	2,041	1.4	4.2	25.6	30.9	27.8	10.0
성 별	남 자	1,074	1.1	3.7	26.0	31.2	27.9	10.1
	여 자	967	1.8	4.9	25.1	30.5	27.7	9.9
연 령	만18~24세	773	1.4	4.4	22.5	32.9	28.6	10.1
	만25~29세	668	1.7	3.6	26.6	29.4	28.5	10.3
	만30~34세	600	1.1	4.8	28.4	29.9	26.0	9.7
지 역	수 도 권	1,032	1.5	4.8	25.4	29.3	26.4	12.7
	비 수 도 권	1,009	1.3	3.7	25.8	32.7	29.5	7.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1.4	5.2	25.3	29.9	28.1	10.0
	대 졸 이 상	1,044	1.5	3.3	25.8	31.8	27.5	10.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31.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_2) 근로 기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최소 1일 이상	최소 일주일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최소 6개월 이상	최소 12개월 이상	최소 24개월 이상
전	체	95	3.2	9.5	13.7	37.9	21.1	14.7
성 별	남 자	31	0.0	9.7	9.7	38.7	19.4	22.6
	여 자	64	4.7	9.4	15.6	37.5	21.9	10.9
연 령	만19~24세	53	3.8	9.4	15.1	32.1	24.5	15.1
	만25~29세	22	4.5	4.5	4.5	50.0	22.7	13.6
	만30~34세	20	0.0	15.0	20.0	40.0	10.0	15.0
지 역	수 도 권	87	3.4	10.3	11.5	40.2	19.5	14.9
	비 수 도 권	8	0.0	0.0	37.5	12.5	37.5	12.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3	0.0	11.3	17.0	35.8	17.0	18.9
	대 졸 이 상	28	10.7	3.6	10.7	42.9	25.0	7.1
출 신 지 역	북 한	78	3.8	10.3	15.4	35.9	17.9	16.7
	중 국	17	0.0	5.9	5.9	47.1	35.3	5.9

북한배경청년들은 최소 6개월 이상(37.9%) 근무해야 첫 일자리라고 생각했으며, 최소 12개월 이상 21.1%, 최소 24개월 이상 14.7%로 나타났다. 일반청년들의 경우 6개월 이상이 30.9%, 12개월 이상 27.8%, 1개월 이상 25.6%로 나타났다. 최소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을 첫 일자리로 간주한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그러나 일반청년이 1개월 이상을 첫 일자리로 간주하는 데 비해 북한 청년들은 보다 긴 근로시간을 첫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132.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_3) 주당 근로 시간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최소 주당 1시간 이상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
전		체	2,041	11.3	88.7
성 별	남	자	1,074	11.3	88.7
	여	자	967	11.3	88.7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13.0	87.0
	만 2 5 ~ 2 9	세	668	10.0	90.0
	만 3 0 ~ 3 4	세	600	10.5	89.5
지 역	수 도	권	1,032	12.9	87.1
	비 수 도	권	1,009	9.4	90.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13.6	86.4
	대 졸 이 상		1,044	9.1	90.9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33.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_3) 주당 근로 시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최소 주당 1시간 이상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
전		체	89	20.2	79.8
성 별	남	자	31	25.8	74.2
	여	자	58	17.2	82.8
연 령	만 1 9 ~ 2 4	세	50	24.0	76.0
	만 2 5 ~ 2 9	세	20	5.0	95.0
	만 3 0 ~ 3 4	세	18	27.8	72.2
지 역	수 도	권	82	20.7	79.3
	비 수 도	권	6	16.7	83.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2	21.2	78.8
	대 졸 이 상		26	19.2	80.8
출 신	북	한	71	19.7	80.3
지 역	중	국	17	23.5	76.5

북한배경청년들은 주당 최소 35시간 이상 근무해야 첫 일자리라고 인식한 응답자가 79.8%이고, 최소 주당 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20.2%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청년들의 경우 최소 3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첫 일자리로 인식한 응답자가 88.7%, 최소 한 시간 이상은 11.3%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시간도 자신의 첫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V-134.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창업을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창업을 생각해 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 본 적은 없다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전	체	2,041	7.0	21.9	71.0
성 별	남 자	1,074	7.7	23.2	69.1
	여 자	967	6.2	20.5	73.2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1.7	21.5	76.8
	만 2 5 ~ 2 9 세	668	7.0	21.5	71.5
	만 3 0 ~ 3 4 세	600	13.8	23.0	63.2
지 역	수 도 권	1,032	6.6	25.1	68.3
	비 수 도 권	1,009	7.5	18.4	74.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5.7	20.9	73.4
	대 졸 이 상	1,044	8.3	22.9	68.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35.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창업을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창업을 생각해 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 본 적은 없다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전	체	107	8.4	47.7	43.9
성 별	남 자	34	8.8	50.0	41.2
	여 자	73	8.2	46.6	45.2
연 령	만 1 9 ~ 2 4 세	58	0.0	58.6	41.4
	만 2 5 ~ 2 9 세	26	15.4	30.8	53.8
	만 3 0 ~ 3 4 세	22	22.7	36.4	40.9
지 역	수 도 권	97	8.2	48.5	43.3
	비 수 도 권	9	11.1	33.3	55.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3.3	51.7	45.0
	대 졸 이 상	31	19.4	38.7	41.9
출 신 지역	북 한	89	10.1	41.6	48.3
	중 국	17	0.0	76.5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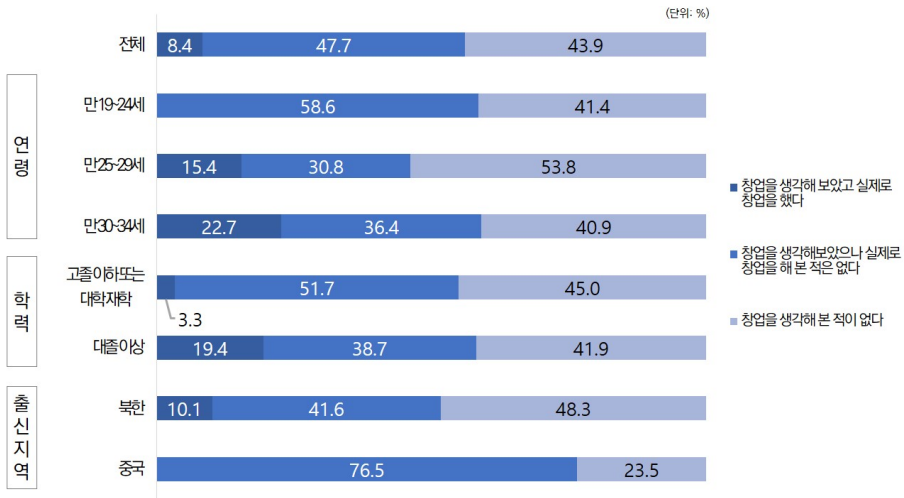


그림 V-25. 창업 고려 또는 경험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북한배경청년의 56.1%가 창업을 생각해 보았거나(47.7%) 실제 창업(8.4%)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 43.9%는 창업을 고려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청년들의 경우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71%, ‘창업을 생각해 보았으나 창업하지 않은’ 경우 21.9%, ‘창업을 생각하고 실제 창업한’ 경우 7.0%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층 고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창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실제 창업을 고려하거나 이행하는 청년의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들에 비해 창업에 대해 보다 많이 생각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 이상 학력자의 19.4%가 실제 창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면담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은 대학 재학 중에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하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기 사업을 고려하는 사례도 있었다. 창업에는 북한 출신이라는 배경을 갖고 취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가치관도 반영되어 있었다.

시간 좀 지나 가보면 한국은 되게 제 느낌은 부자들 좀 돈 많은 사람 살기 좋은 곳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진짜 제처럼 공부 많이 공부 잘 못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사업 빼고는 큰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아니면 그래서 한국에서 2년 정도 더 있고 그동안 더 여기서 뭐가 더 맞는지, 그런데 여기서 있는 것만 한국에서 있는데 중국에서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거 좀 미래가 커 보이는 거 이제 중국에 가져가는 거죠. 아직은 발견 못 했어요. (사례 14)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창업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지만, 이들을 위한 창업 지원 제도나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북한배경청년들은 창업 준비 과정에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투자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로 창업 경험이 있는 북한배경청년은 직접적인 창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거와 같은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는 좀 일단은 정부에서... 지금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있고 좀 청년을 위해서 더 한다면 사실 뭐 이렇게 고기를...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월급을 줄 수는 없는데, 좀 출발선을 만들어주려면 주거라던가 그다음에 취업, 창업 같은 데서 좀 혜택을 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거가 안정이 돼야 모든 게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심리적인 면에서나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사례 12)

표 V-136.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년)

구분		사례수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	평균(년)	
전	체	2,041	1.4	6.3	2018	92.2
성 별	남 자	1,074	1.3	5.1	2018	93.7
	여 자	967	1.6	7.7	2017	90.6
연 령	만 18~24세	773	1.7	3.8	2019	94.5
	만 25~29세	668	1.7	9.5	2018	88.8
	만 30~34세	600	0.9	6.0	2015	93.1
지 역	수 도 권	1,032	1.2	7.3	2018	91.4
	비 수 도 권	1,009	1.7	5.1	2017	93.2
학 령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0.8	4.1	2017	95.1
	대 졸 이 상	1,044	2.0	8.5	2018	89.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37.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한 적이 없다	
전		체	103	3.9	8.7	87.4
성 별	남	자	31	6.5	3.2	90.3
	여	자	72	2.8	11.1	86.1
연 령	만 1 9 ~ 2 4 세		53	3.8	3.8	92.5
	만 2 5 ~ 2 9 세		26	3.8	7.7	88.5
	만 3 0 ~ 3 4 세		23	4.3	21.7	73.9
지 역	수 도 권		94	4.3	6.5	87.2
	비 수 도 권		8	0.0	12.5	87.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6	1.8	7.1	91.1
	대 졸 이 상		31	6.5	12.9	80.6
출 신 지 역	북 한		87	3.4	10.3	86.2
	중 국		15	6.7	0.0	93.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경험과 관련해서 조사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의 12.6%가 참여 경험이 있고, 87.4%가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92.2%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대졸 이상 학력자일수록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보다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학교 진학이나 사회생활을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38.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에 대한 도움 정도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	체	148	4.6	11.0	16.3	43.6	24.6
성 별	남 자	64	6.2	7.6	17.6	40.4	28.2
	여 자	84	3.3	13.6	15.3	46.1	21.8
연 령	만 18~24세	36	0.0	10.3	15.3	45.0	29.4
	만 25~29세	71	5.3	9.0	16.5	42.7	26.5
	만 30~34세	41	7.8	15.3	16.7	43.9	16.2
지 역	수 도 권	86	1.1	12.4	15.0	41.4	30.1
	비 수 도 권	62	9.5	8.9	18.1	46.9	16.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43	1.5	11.1	29.7	35.9	21.8
	대 졸 이 상	105	5.9	10.9	10.3	47.1	25.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V-139.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에 대한 도움 정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조금 도움이 되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	체	16	12.5	12.5	25.0	31.3	18.8
성 별	남 자	6	0.0	16.7	50.0	33.3	0.0
	여 자	10	20.0	10.0	10.0	30.0	30.0
연 령	만 19~24세	5	20.0	0.0	20.0	40.0	20.0
	만 25~29세	4	25.0	25.0	25.0	0.0	25.0
	만 30~34세	7	0.0	14.3	28.6	42.9	14.3
지 역	수 도 권	15	13.3	13.3	26.7	26.7	20.0
	비 수 도 권	1	0.0	0.0	0.0	10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	16.7	0.0	33.3	33.3	16.7
	대 졸 이 상	7	14.3	14.3	14.3	42.9	14.3
출 신 지 역	북 한	14	14.3	14.3	21.4	28.6	21.4
	중 국	2	0.0	0.0	50.0	50.0	0.0

* 주: 1)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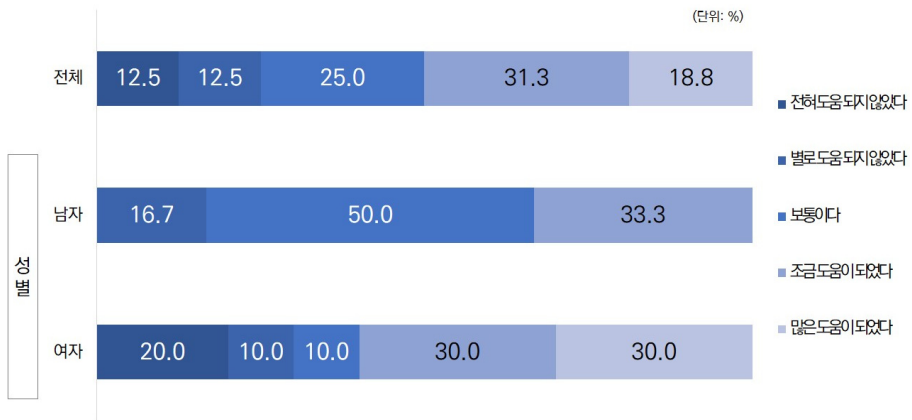


그림 V-26.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에 대한 도움 정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의 50.1%는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했지만, 일반청년(68.2%)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배경청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감의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이다(한국고용정보원, 2022). 따라서 남한 사회에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한배경청년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도 받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쉽다. 그러나 취업지원제도가 직업 소개와 같은 직접적인 취업 지원이 아니라, 취업활동 지원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가 반드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40.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원이 체감되지 않아서	지원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	지원받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어서
전	체	21	22.3	52.1	25.6	3.2
성 별	남 자	8	19.5	60.8	19.7	8.3
	여 자	13	24.0	46.7	29.3	0.0
연 령	만 1 8 ~ 2 4 세	3	0.0	53.8	46.2	0.0
	만 2 5 ~ 2 9 세	8	37.6	28.9	33.5	0.0
	만 3 0 ~ 3 4 세	10	15.3	77.1	7.7	8.2
지 역	수 도 권	11	14.5	69.9	15.6	6.2
	비 수 도 권	10	30.7	33.1	36.3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	11.1	46.8	42.2	0.0
	대 졸 이 상	15	26.1	53.9	20.1	4.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1)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주의

표 V-141.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원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아서	지원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	지원받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어서	기타
전	체	6	33.3	16.7	0.0	0.0	16.7	33.3
성 별	남 자	3	33.3	0.0	0.0	0.0	33.3	33.3
	여 자	3	33.3	33.3	0.0	0.0	0.0	33.3
연 령	만 1 9 ~ 2 4 세	2	0.0	0.0	0.0	0.0	0.0	100.0
	만 2 5 ~ 2 9 세	2	50.0	50.0	0.0	0.0	0.0	0.0
	만 3 0 ~ 3 4 세	2	50.0	0.0	0.0	0.0	50.0	0.0
지 역	수 도 권	6	33.3	16.7	0.0	0.0	16.7	33.3
	비 수 도 권	0	0.0	0.0	0.0	0.0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2	0.0	0.0	0.0	0.0	0.0	100.0
	대 졸 이 상	2	50.0	50.0	0.0	0.0	0.0	0.0
출 신 지역	북 한	5	40.0	20.0	0.0	0.0	20.0	20.0
	중 국	1	0.0	0.0	0.0	0.0	0.0	100.0

* 주: 1)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한 사람 중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주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배경청년들의 33.3%는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33.3%는 기타로 응답했다. 반면에 일반청년들은 52.1%가 지원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라고 응답했고, 25.6%는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일반청년들이 국민취업제도의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지적한 것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배경청년들과 일반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바라보는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 기반이 부족한 북한배경청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준비가 아니라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의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지원제도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42.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지 여부 및 참여 의향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모른다
전	체	1,893	11.0	44.3	44.7
성 별	남 자	1,010	12.0	43.5	44.4
	여 자	883	9.8	45.2	45.0
연 령	만 1 8 ~ 2 4 세	737	14.6	29.7	55.8
	만 2 5 ~ 2 9 세	597	9.5	52.3	38.2
	만 3 0 ~ 3 4 세	559	7.9	54.7	37.4
지 역	수 도 권	946	11.6	45.2	43.3
	비 수 도 권	947	10.3	43.4	46.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54	12.8	33.7	53.6
	대 졸 이 상	939	9.2	55.2	35.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

표 V-143.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지 여부 및 참여 의향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모른다
전	체	89	34.8	14.6	50.6
성 별	남 자	26	42.3	23.1	34.6
	여 자	63	31.7	11.1	57.1
연 령	만 1 9 ~ 2 4 세	48	29.2	8.3	62.5
	만 2 5 ~ 2 9 세	22	31.8	22.7	45.5
	만 3 0 ~ 3 4 세	18	55.6	22.2	22.2
지 역	수 도 권	80	37.5	15.0	47.5
	비 수 도 권	8	12.5	12.5	75.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3	34.0	11.3	54.7
	대 졸 이 상	23	43.5	17.4	39.1
출 신 지역	북 한	75	37.3	17.3	45.3
지 역	중 국	13	23.1	0.0	76.9

* 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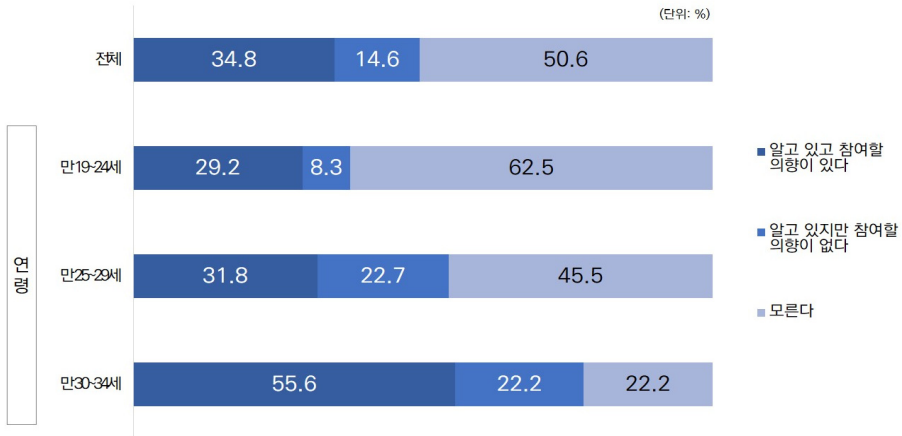


그림 V-27.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지 여부 및 참여 의향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북한배경청년의 34.8%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11.0%가 ‘제도에 대해 알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44.3%는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북한배경청년들과 일반청년들 사이에는 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와 실제 참여 의지에 차이가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들은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제도에 대해 아는 경우에는 일반청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하고자 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배경청년들이 남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제도에 대한 인지도나 참여 의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배경청년들이 관련 제도를 인지하는 것이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이나 학교에서의 취업 지원과 같이 제도화된 교육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업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야 내야하는 정보라는 점을 시사한다.

표 V-144.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1) 하나원 직업훈련교육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87	40.2	14.3	14.3	40.5	26.2	4.8	59.8
성 별	남	자	26	42.3	12.5	25.0	50.0	12.5	0.0	57.7	
	여	자	61	39.3	15.4	7.7	34.6	34.6	7.7	60.7	
연 령	만 1 9 ~ 2 4 세	45	22.2	7.7	23.1	46.2	15.4	7.7	77.8		
	만 2 5 ~ 2 9 세	21	47.6	28.6	7.1	35.7	28.6	0.0	52.4		
	만 3 0 ~ 3 4 세	20	75.0	6.7	13.3	40.0	33.3	6.7	25.0		
지 역	수 도 권	80	38.8	13.5	13.5	43.2	27.0	2.7	61.3		
	비 수 도 권	6	66.7	20.0	20.0	20.0	20.0	20.0	33.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7	38.3	13.6	18.2	40.9	18.2	9.1	61.7		
	대 졸 이 상	28	39.3	15.4	15.4	30.8	38.5	0.0	60.7		
출 신	북	한	72	45.8	15.0	12.5	40.0	27.5	5.0	54.2	
지 역	중	국	14	14.3	0.0	50.0	50.0	0.0	0.0	85.7	

북한배경청년의 40.2%는 하나원의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31.0%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하나원의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증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배경청년들이 하나원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45.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2)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하나원 수료 이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87	26.4	17.9	14.3	39.3	21.4	7.1	73.6
성 별	남	자	26	34.6	8.3	16.7	58.3	8.3	8.3	65.4
	여	자	61	23.0	25.0	12.5	25.0	31.3	6.3	77.0
연 령	만 1 9 ~ 2 4 세		47	12.8	25.0	37.5	25.0	12.5	0.0	87.2
	만 2 5 ~ 2 9 세		21	28.6	22.2	11.1	44.4	22.2	0.0	71.4
	만 3 0 ~ 3 4 세		18	61.1	9.1	0.0	45.5	27.3	18.2	38.9
지 역	수 도 권		80	25.0	16.7	8.3	45.8	20.8	8.3	75.0
	비 수 도 권		6	50.0	25.0	50.0	0.0	25.0	0.0	5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6	21.7	28.6	14.3	35.7	21.4	0.0	78.3
	대 졸 이 상		29	37.9	8.3	16.7	33.3	25.0	16.7	62.1
출 신 지 역	북 한		72	27.8	0.0	12.0	40.0	20.0	8.0	72.2
	중 국		14	21.4	0.0	33.3	33.3	33.3	0.0	78.6

북한배경청년의 26.4%는 하나원 수료 이후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28.5%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앞에서 살펴본 하나원의 직업교육훈련에 비해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경험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정보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정보이다. 이로 인해 남한 사회 제도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한배경청년들은 자신들에게 특화된 직업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알게 된 계기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취업을 하려고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깐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디서 그걸 받을 수 있는지, 모집하는 그런 정보는, 그런 거를 찾아보다가 그러다가 사이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알게 된 것도 있고 인터넷에 쳐봐서, 그리고 취업하기 전에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취업 지원제도? 취업 지원제도도 아니고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제도가 있길래 고용노동부에 가서 그거 신청하면서 알게 된 것도 있고. (사례 15)

다만, 만족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북한배경청년들의 실제 취업 성공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146.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3) 하나센터 취업전문상담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86	29.1	6.5	19.4	41.9	22.6	9.7	70.9
성 별	남	자	25	28.0	10.0	30.0	50.0	0.0	10.0	72.0
	여	자	61	29.5	4.8	14.3	38.1	33.3	9.5	70.5
연 령	만 1 9 ~ 2 4 세		47	19.1	0.0	36.4	36.4	27.3	0.0	80.9
	만 2 5 ~ 2 9 세		20	40.0	18.2	9.1	45.5	9.1	18.2	60.0
	만 3 0 ~ 3 4 세		18	44.4	0.0	11.1	44.4	33.3	11.1	55.6
지 역	수 도 권		79	27.8	3.7	14.8	48.1	25.9	7.4	72.2
	비 수 도 권		6	50.0	25.0	50.0	0.0	0.0	25.0	5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5	26.7	12.5	18.8	43.8	18.8	6.3	73.3
	대 졸 이 상		29	34.5	0.0	27.3	36.4	18.2	18.2	65.5
출 신 지역	북 한		71	32.4	6.9	17.2	41.4	24.1	10.3	67.6
	중 국		14	14.3	0.0	50.0	50.0	0.0	0.0	85.7

북한배경청년의 29.1%는 하나센터의 취업전문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32.3%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다른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하나센터의 취업전문상담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지 않았다. 인터뷰에 따르면 하나센터 상담 경험이 있는 북한배경청년은 이러한 상담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반반 정도라고 말한다.

피면접자: 상담을 두 분이 와서 하셨었는데 한 분은 여자분이 남자 분은 뭐 제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오셨을 때는 뭔가 정보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이걸 물어봐도 모를 것 같은데 해서 그냥 제가 자체로 패스해 버리고 그런 부분이 그래도 뭐 해주시려고 뭐 하고 그런 건 있는데 조금 그분한테는 정보가 조금 부족하고 그러지 않았나.

연구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부족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정보가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피면접자: 예를 들면 제가 뭐 심리 상담 그냥 지금 이러저러한 고민이 많잖아요. 직업에 대해서 빨리 나도 애가 조금 크면 내가 본업이 있어야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뭐 지금 심리 상담에 대해서 혹시 여기 전주에 지원해 주고 있는 학원 있나 뭐 그런 거랑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냥 사이버 대학 같은 거 뭐 그런 걸 얘기하고 뭐 누구 어디 다니고 막 그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서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맞긴 맞지만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그냥 부족한 것 같다고 예를 들면 그렇죠. (사례 11)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상담의 내용에 공감하더라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스펙도 좀 쌓고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따고 싶은데, 그 자격증을 따려면 공부 해야 되잖아요. 그걸 공부를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좀만 더 금전적으로 여유만 있었어도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으면은 더 좋았을 거 같다. (사례 4)

이처럼 북한배경청년들은 빠른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업 상담을 받지만, 상담의 내용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로 인해 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직접적으로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표 V-147.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4) 산업단지 온라인 구인·구직 포털(KICOXJOB)을 통한 구인·구직 매칭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85	21.2	20.8	29.2	33.3	8.3	8.3	78.8
성 별	남	자	26	26.9	10.0	40.0	50.0	0.0	0.0	73.1
	여	자	59	18.6	28.6	21.4	21.4	14.3	14.3	81.4
연 령	만 1 9 ~ 2 4 세	47	12.8	12.5	62.5	12.5	12.5	0.0	0.0	87.2
	만 2 5 ~ 2 9 세	20	30.0	33.3	11.1	44.4	0.0	11.1	11.1	70.0
	만 3 0 ~ 3 4 세	17	35.3	14.3	14.3	42.9	14.3	14.3	14.3	64.7
지 역	수 도 권	78	17.9	21.1	26.3	42.1	5.3	5.3	5.3	82.1
	비 수 도 권	6	66.7	20.0	40.0	0.0	20.0	20.0	20.0	33.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5	20.0	30.8	30.8	15.4	15.4	7.7	7.7	80.0
	대 졸 이 상	28	28.6	11.1	33.3	44.4	0.0	11.1	11.1	71.4
출 신 지역	북 한	70	22.9	22.7	27.3	31.8	9.1	9.1	9.1	77.1
	중 국	14	14.3	0.0	50.0	50.0	0.0	0.0	0.0	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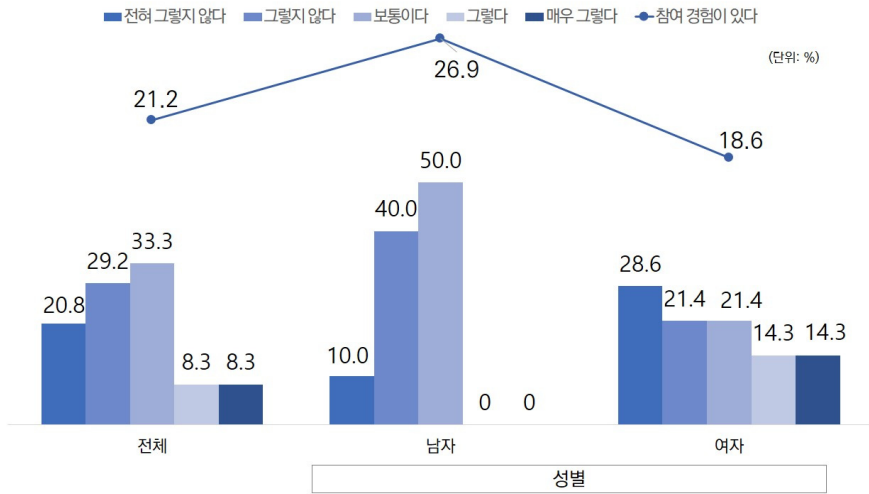


그림 V-28.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4) 산업단지 온라인 구인·구직 포털(KICOXJOB)을 통한 구인·구직 매칭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북한배경청년들 중에서 산업단지 온라인 구인구직 포털을 통한 구인구직 매칭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전체의 21.2%이며, 이 중에서 16.6%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해당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활용했지만,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취업 준비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구인구직 매칭의 경우에도 북한배경청년들이 원하는 실제 취업이 아니라 정보 제공 수준에 머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48.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5) 각종 채용박람회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85	20.0	18.2	27.3	36.4	18.2	0.0	80.0
성 별	남	자	26	30.8	18.2	27.3	45.5	9.1	0.0	69.2
	여	자	59	15.3	18.2	27.3	27.3	27.3	0.0	84.7
연 령	만 1 9 ~ 2 4 세		47	12.8	0.0	37.5	50.0	12.5	0.0	87.2
	만 2 5 ~ 2 9 세		20	25.0	42.9	28.6	14.3	14.3	0.0	75.0
	만 3 0 ~ 3 4 세		17	35.3	14.3	14.3	42.9	28.6	0.0	64.7
지 역	수 도 권		78	19.2	15.8	26.3	36.8	21.1	0.0	80.8
	비 수 도 권		6	33.3	33.3	33.3	33.3	0.0	0.0	6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5	15.6	18.2	36.4	27.3	18.2	0.0	84.4
	대 졸 이 상		28	32.1	22.2	22.2	33.3	22.2	0.0	67.9
출 신 지 역	북 한		70	21.4	20.0	25.0	35.0	20.0	0.0	78.6
	중 국		14	14.3	0.0	50.0	50.0	0.0	0.0	85.7

북한배경청년의 20.0%는 각종 채용박람회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18.2%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채용박람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정보 제공 활동이지만, 구직자들은 박람회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구직활동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용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49.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6) 지자체 제공 취업교육 및 지원(취업교육 및 언어·직응력교육 등)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85	18.8	18.2	31.8	31.8	13.6	4.5	81.2
성 별	남	자	26	26.9	10.0	50.0	40.0	0.0	73.1
	여	자	59	15.3	25.0	16.7	25.0	8.3	84.7
연 령	만 19 ~ 24 세	47	10.6	0.0	57.1	28.6	14.3	0.0	89.4
	만 25 ~ 29 세	20	30.0	33.3	22.2	22.2	11.1	11.1	70.0
	만 30 ~ 34 세	17	29.4	16.7	16.7	50.0	16.7	0.0	70.6
지 역	수 도 권	78	16.7	16.7	33.3	27.8	16.7	5.6	83.3
	비 수 도 권	6	50.0	25.0	25.0	50.0	0.0	0.0	5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5	15.6	27.3	36.4	18.2	18.2	0.0	84.4
	대 졸 이 상	28	28.6	11.1	33.3	44.4	0.0	11.1	71.4
출 신 지역	북 한	70	20.0	20.0	30.0	30.0	15.0	5.0	80.0
	중 국	14	14.3	0.0	50.0	50.0	0.0	0.0	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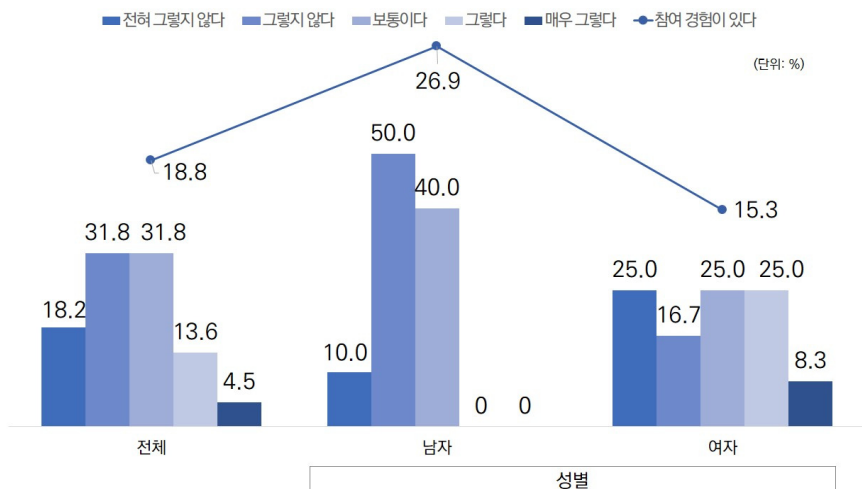


그림 V-29. 취업 준비 프로그램 참여 여부_6) 지자체 제공 취업교육 및 지원(취업교육 및 언어·직응력교육 등)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북한배경청년의 18.8%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취업교육 및 지원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18.1%는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녀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참여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북한배경청년들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도는 높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준비 프로그램들이 주로 자격증 취득이나 기초직무기술 습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빠른 취업과 정착을 원하는 북한배경청년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V-150. 플랫폼 노동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041	3.7	96.3
성 별	남 자	1,074	6.0	94.0
	여 자	967	1.1	98.9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3.8	96.2
	만 2 5 ~ 2 9 세	668	4.5	95.5
	만 3 0 ~ 3 4 세	600	2.6	97.4
지 역	수 도 권	1,032	4.9	95.1
	비 수 도 권	1,009	2.3	97.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4.9	95.1
	대 졸 이 상	1,044	2.6	97.4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51. 플랫폼 노동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03	11.7	88.3
성 별	남	자	34	17.6	82.4
	여	자	69	8.7	91.3
연 령	만 19 ~ 24 세		55	7.3	92.7
	만 25 ~ 29 세		24	16.7	83.3
	만 30 ~ 34 세		23	17.4	82.6
지 역	수 도 권		93	12.9	87.1
	비 수 도 권		9	0.0	10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7	5.3	94.7
	대 졸 이 상		30	26.7	73.3
출 신 지 역	북 한		85	12.9	87.1
	중 국		17	5.9	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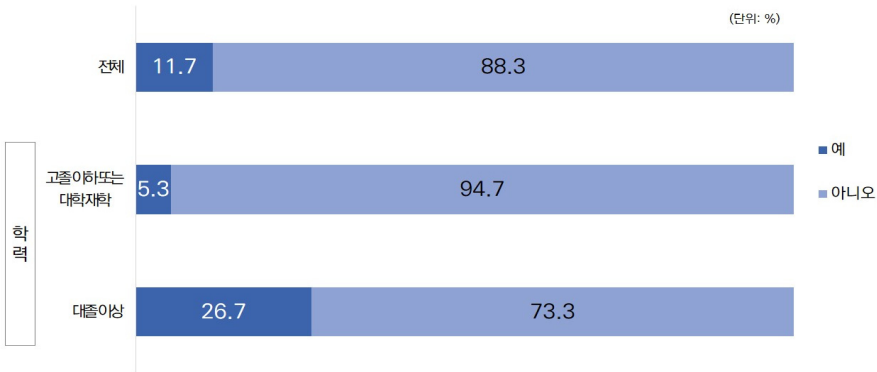


그림 V-30. 플랫폼 노동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북한배경청년의 11.7%는 플랫폼 노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청년의 3.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플랫폼 노동은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적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여건에 따라 참여와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의 특징으로 인해 전통적인 노동시장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플랫폼 노동에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의 안전이나 노동인권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배경청년들이 취약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배경청년 중에서 대졸이상 학력자의 플랫폼 노동 참여 경험은 26.7%로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의 5.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 졸업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충분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대졸자들이 플랫폼 노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52. 지난 4주간 플랫폼 노동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73	45.0	55.0
성 별	남	자	61	47.1	52.9
	여	자	12	32.4	67.6
연 령	만 1 8 ~ 2 4 세		31	45.6	54.4
	만 2 5 ~ 2 9 세		25	55.1	44.9
	만 3 0 ~ 3 4 세		17	25.0	75.0
지 역	수 도 권		49	44.0	56.0
	비 수 도 권		24	47.6	52.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3	48.5	51.5
	대 졸 이 상		30	38.8	61.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플랫폼 노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

표 V-153. 지난 4주간 플랫폼 노동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8	22.2	77.8
성 별	남	자	8	12.5	87.5
	여	자	10	30.0	70.0
연 령	만 1 9 ~ 2 4 세		7	28.6	71.4
	만 2 5 ~ 2 9 세		4	25.0	75.0
	만 3 0 ~ 3 4 세		7	14.3	85.7
지 역	수 도 권		18	22.2	77.8
	비 수 도 권		0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	0.0	100
	대 졸 이 상		8	37.5	62.5
출 신 지 역	북 한		16	18.8	81.3
	중 국		2	50.0	50.0

* 주: 1) 플랫폼 노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플랫폼 노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서 지난 4주간 플랫폼 노동을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청년들의 경우 45.0%가 지난 4주 동안 플랫폼 노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례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북한배경청년 중에서도 중국 출신의 플랫폼 참여 비율이 50%로 북한 출신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성이 30.0%로 남성의 12.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배경청년들 내에서도 집단에 따라 플랫폼 노동 참여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V-154.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휴직	일을 하지 않았음
전	체	2,041	65.3	0.5	34.2
성 별	남 자	1,074	66.3	0.3	33.4
	여 자	967	64.2	0.8	35.0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43.5	0.1	56.4
	만 2 5 ~ 2 9 세	668	75.2	0.7	24.1
	만 3 0 ~ 3 4 세	600	82.0	0.9	17.1
지 역	수 도 권	1,032	66.5	0.7	32.8
	비 수 도 권	1,009	63.9	0.3	35.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51.2	0.1	48.6
	대 졸 이 상	1,044	78.8	0.9	20.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155. 지난 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	일을 하지 않았음
전	체	105	40.0	1.0	59.0
성 별	남 자	34	32.4	0.0	67.6
	여 자	71	43.7	1.4	54.9
연 령	만 1 9 ~ 2 4 세	56	32.1	1.8	66.1
	만 2 5 ~ 2 9 세	26	57.7	0.0	42.3
	만 3 0 ~ 3 4 세	22	40.9	0.0	59.1
지 역	수 도 권	95	40.0	1.1	58.9
	비 수 도 권	9	44.4	0.0	55.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8	34.5	1.7	63.8
	대 졸 이 상	31	58.1	0.0	41.9
출 신 지 역	북 한	87	42.5	1.1	56.3
	중 국	17	29.4	0.0	70.6

조사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의 41.0%는 지난주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에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반청년들은 65.8%가 일을 했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 상태에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북한배경청년들은 일반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6.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개	2개	3개	4개 이상
전		체	1,331	98.9	1.0	0.1	0.0
성 별	남	자	701	99.6	0.3	0.1	0.0
	여	자	630	98.0	1.9	0.0	0.1
연 령	만 1 8 ~ 2 4 세		332	97.7	2.0	0.3	0.0
	만 2 5 ~ 2 9 세		501	99.2	0.7	0.0	0.1
	만 3 0 ~ 3 4 세		498	99.3	0.7	0.0	0.0
지 역	수 도 권		692	98.3	1.5	0.1	0.1
	비 수 도 권		639	99.6	0.4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03	98.9	0.9	0.2	0.0
	대 졸 이 상		828	98.8	1.1	0.0	0.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에만 응답

표 V-157.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개	2개	3개	4개 이상
전		체	43	83.7	9.3	2.3	4.7
성 별	남	자	12	91.7	8.3	0.0	0.0
	여	자	31	80.6	9.7	3.2	6.5
연 령	만 1 9 ~ 2 4 세		18	72.2	16.7	5.6	5.6
	만 2 5 ~ 2 9 세		15	100.0	0.0	0.0	0.0
	만 3 0 ~ 3 4 세		10	80.0	10.0	0.0	10.0
지 역	수 도 권		39	82.1	10.3	2.6	5.1
	비 수 도 권		4	100.0	0.0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20	75.0	15.0	5.0	5.0
	대 졸 이 상		18	94.4	5.6	0.0	0.0
출 신 지 역	북	한	37	86.5	8.1	0.0	5.4
	중	국	6	66.7	16.7	16.7	0.0

* 주: 1) 지난주에 일을 했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이라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지난주에 일을 했거나 휴가 및 임시 휴직이라고 응답한 북한배경청년의 83.7%는 ‘1개’의 일을 했고,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도 16.3%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98.9%가 ‘1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했고, ‘2개’ 1.0%, ‘3개’ 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들에 비해 다수의 일자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배경청년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위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한다. 특히 남한 사회에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일자리를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많이 했죠. 물품 상·하차, 행사장 세팅하고 그다음에 이런... 정기적으로 하는 알바는 못하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알바. 아까 선거 출구조사 이런 것도 하고. 저는 아까 워라벨 중요시했던 것처럼 좀 이게 그 단 10만 원 때문에 나간다고보다는 그걸 통해서 제가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이런 거를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사례 12)

표 V-158.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1) 일을 시작한 시기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2010년 이전	2010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21년
전	체	1,331	1.1	6.6	14.2	78.1
성 별	남 자	701	1.0	6.5	14.3	78.2
	여 자	630	1.2	6.7	14.1	78.0
연 령	만 1 8 ~ 2 4 세	332	0.0	0.0	2.6	97.4
	만 2 5 ~ 2 9 세	501	0.0	3.0	14.1	82.8
	만 3 0 ~ 3 4 세	498	2.9	14.5	22.1	60.5
지 역	수 도 권	692	1.2	6.3	12.5	80.0
	비 수 도 권	639	1.0	6.9	16.3	75.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03	1.8	5.7	13.4	79.0
	대 졸 이 상	828	0.7	7.1	14.8	77.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에만 응답

표 V-159.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1) 일을 시작한 시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2010년 이전	2010년~2013년	2014년~2016년	2017년~2022년	
전		체	43	0.0	9.3	0.0	90.7
성 별	남	자	14	0.0	21.4	0.0	78.6
	여	자	29	0.0	3.4	0.0	96.6
연 령	만 1 9 ~ 2 4 세		19	0.0	0.0	0.0	100
	만 2 5 ~ 2 9 세		13	0.0	7.7	0.0	92.3
	만 3 0 ~ 3 4 세		11	0.0	27.3	0.0	72.7
지 역	수 도 권		38	0.0	7.9	0.0	92.1
	비 수 도 권		5	0.0	20.0	0.0	8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20	0.0	5.0	0.0	95.0
	대 졸 이 상		18	0.0	11.1	0.0	88.9
출 신 지역	북 한		38	0.0	10.5	0.0	89.5
	중 국		5	0.0	0.0	0.0	100

* 주: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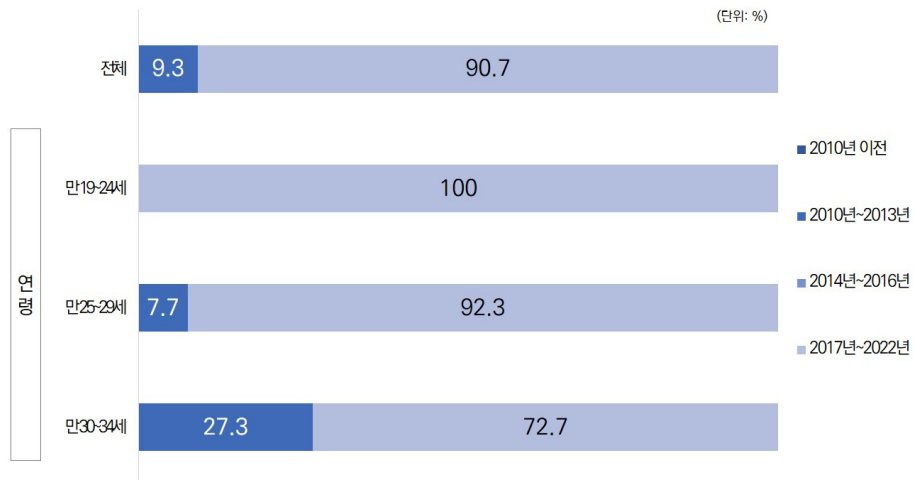


그림 V-31.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1) 일을 시작한 시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지난주에 일을 하거나 휴가 또는 일시 휴직 상태였던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북한배경 청년들의 90.7%는 ‘2017년 이후’에 일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3%는 2010~2013년에 일을 시작했다.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2017년 이후’에 일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78.1%, ‘2014~2016년’ 14.2%, ‘2010~2013년’ 6.6%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일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례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일을 시작한 시기는 남한에 입국한 시기와의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청년과의 차이나 북한배경청년의 특성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V-160.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2) 근속년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근속년수 (개월)
전	체	1,331	59.2	19.6	10.7	7.2	3.3	35.7
성 별	남 자	701	58.9	20.2	10.8	7.3	2.8	35.1
	여 자	630	59.5	18.8	10.6	7.1	3.9	36.5
연 령	만 1 8 ~ 2 4 세	332	89.9	7.5	2.5	0.0	0.0	14.4
	만 2 5 ~ 2 9 세	501	63.1	20.6	11.1	4.9	0.3	31.7
	만 3 0 ~ 3 4 세	498	34.9	26.5	15.8	14.3	8.6	53.9
지 역	수 도 권	692	58.1	22.8	9.1	6.4	3.6	35.7
	비 수 도 권	639	60.6	15.6	12.6	8.1	3.0	35.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03	66.2	13.4	9.6	7.0	3.8	32.4
	대 졸 이 상	828	54.9	23.4	11.4	7.3	3.0	37.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에만 응답

표 V-161.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2) 근속년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근속년수 (개월)
전	성 별	체	41	85.4	9.8	2.4	0.0	2.4	16.5
		남 자	14	71.4	14.3	7.1	0.0	7.1	28
		여 자	27	92.6	7.4	0.0	0.0	0.0	10.7
연 령		만 1 9 ~ 2 4 세	18	100	0.0	0.0	0.0	0.0	7.1
		만 2 5 ~ 2 9 세	12	83.3	8.3	8.3	0.0	0.0	17.0
		만 3 0 ~ 3 4 세	11	63.6	27.3	0.0	0.0	9.1	31.3
지 역		수 도 권	36	86.1	8.3	2.8	0.0	2.8	17.0
		비 수 도 권	5	80.0	20.0	0.0	0.0	0.0	12.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9	89.5	10.5	0.0	0.0	0.0	11.5
		대 졸 이 상	17	82.4	5.9	5.9	0.0	5.9	21.2
출 신 지역		북 한	36	83.3	11.1	2.8	0.0	2.8	17.9
		중 국	5	100	0.0	0.0	0.0	0.0	6.0

* 주: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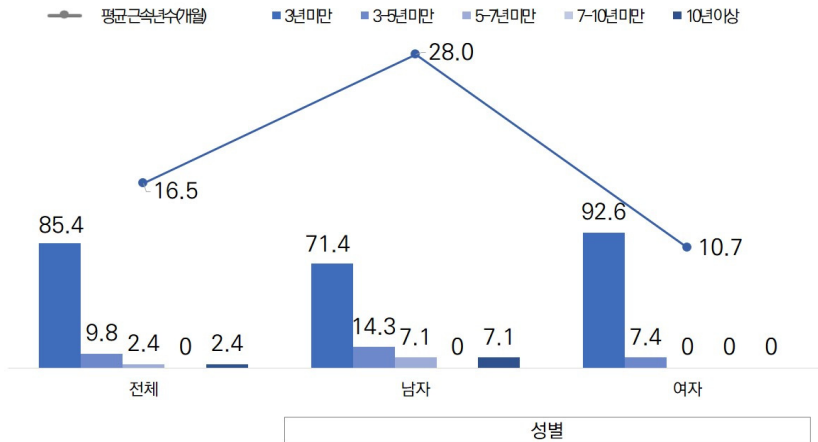


그림 V-32.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2) 근속년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지난주에 일을 하거나 휴가 또는 일시 휴직 상태였던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북한배경 청년들의 근속년수는 평균 16.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년들의 평균 근속년수인 35.7개월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청년들의 근속년수에 있어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근속년수는 평균 10.7개월로 남성의 28개월에 비해서도 매우 짧았다. 근속년수는 해당 일자리의 안정성이나 만족도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여성청년들의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들이 일을 시작한 시기가 남한 입국 시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청년과의 차이나 성별 차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면담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도 공무원이나 전문자격취득과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희망하지만, 이러한 직종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단기라도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저도 남북하나재단에서 한 번 상담을 받았었는데 제가 전기과를 나와서 그 산업기사 자격증만 획득하면은 한전에서 취업을 해준다고... 자격증을 따면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업기사를 딸려고 했었는데 그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할 여건이 거의 좀 안 돼서. 벌어야 되는데 돈 벌고 공부까지 같이 하려고 하니깐 너무 힘들더라고요. 몇 번 시험을 봤는데 지금 떨어지게 되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그 자격증 없으면 취업이 안 된다고. 자격증 있는 사람만 많이 요구하는 거 같더라고요. (사례 4)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에요 그걸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면접은 보고 있었죠. 이력서도 넣고 그러다가 거기서 부르길래 제과센터에서 한 번 면접 와보라 해서 그렇게 면접을 보고 일해야겠다.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례 15)

표 V-162.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3) 종사상 지위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전		체	1,331	89.1	10.9
성 별	남	자	701	87.4	12.6
	여	자	630	91.2	8.8
연 령	만 1 8 ~ 2 4 세		332	94.6	5.4
	만 2 5 ~ 2 9 세		501	89.9	10.1
	만 3 0 ~ 3 4 세		498	84.7	15.3
지 역	수 도 권		692	90.8	9.2
	비 수 도 권		639	87.2	12.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03	87.8	12.2
	대 졸 이 상		828	90.0	10.0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에만 응답

표 V-163.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3) 종사상 지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		체	32	87.5	12.5
성 별	남	자	10	100.0	0.0
	여	자	22	81.8	18.2
연 령	만 1 9 ~ 2 4 세		17	76.5	23.5
	만 2 5 ~ 2 9 세		9	100.0	0.0
	만 3 0 ~ 3 4 세		6	100.0	0.0
지 역	수 도 권		29	86.2	13.8
	비 수 도 권		3	10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5	73.3	26.7
	대 졸 이 상		13	100.0	0.0
출 신 지역	북	한	27	88.9	11.1
	중	국	5	80.0	20.0

* 주: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그림 V-33.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3) 종사상 지위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북한배경청년들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87.5%로 나타났고, 이는 일반청년들의 89.1%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 대졸 이상은 100% 임금근로자인데 반해,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학력자는 73.3%가 임금근로자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일을 직접 돕거나 이들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고졸자는 대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북한배경청년들 중에서도 고졸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비임금근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영업. 개인화물 용달. 그거를 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빠한테 “형, 형”하며 따르는 동생이 에요. 그 사람이 제가 지금 같이 일하는 사장님 형이 서울에 외제차 카센터 썬팅 해주고 그런 걸로 돈을 좀 벌어요. 사업하세요. 거기서 저희 아빠랑 일하는 동생이 같이 일을 했나 봐요. 자동차 정비 같은 거. 그분 아는 형이 멍게 양성하는데 정치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랬나 봐요. 바다 경험 있는 사람으로.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례 13)

표 V-164.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4) 고용형태-임금근로자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 형태		근로시간 유형	
				정규직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제
전		체	1,186	74.7	25.3	83.9	16.1
성 별	남	자	610	75.2	24.8	85.6	14.4
	여	자	576	74.3	25.7	82.1	17.9
연 령	만 1 8 ~ 2 4 세		316	43.4	56.6	56.0	44.0
	만 2 5 ~ 2 9 세		450	83.7	16.3	93.3	6.7
	만 3 0 ~ 3 4 세		420	88.3	11.7	94.6	5.4
지 역	수 도 권		625	76.5	23.5	85.0	15.0
	비 수 도 권		561	72.5	27.5	82.6	17.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38	59.2	40.8	69.7	30.3
	대 졸 이 상		748	84.1	15.9	92.5	7.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만 응답

표 V-165.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4) 고용형태-임금근로자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39	48.7	51.3
성 별	남	자	14	64.3	35.7
	여	자	25	40.0	60.0
연 령	만 1 9 ~ 2 4 세		17	41.2	58.8
	만 2 5 ~ 2 9 세		12	50.0	50.0
	만 3 0 ~ 3 4 세		10	60.0	40.0
지 역	수 도 권		34	50.0	50.0
	비 수 도 권		5	40.0	6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8	38.9	61.1
	대 졸 이 상		16	50.0	50.0
출 신 지역	북	한	34	50.0	50.0
	중	국	5	40.0	60.0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북한배경청년 중에서 정규직은 48.7%, 비정규직은 51.3%로 나타났다. 일반청년의 경우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74.7%가 정규직이었고 25.3%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분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학력이나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이하의 학력자들과 비수도권 거주자들에게서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배경청년들 내에서도 학력이 낮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V-166.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4) 고용형태-비임금근로자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	체		145	21.5	61.8	16.6
성 별	남	자	91	26.5	55.4	18.0
	여	자	54	13.2	72.5	14.4
연 령	만 1 8 ~ 2 4 세		16	23.5	57.7	18.9
	만 2 5 ~ 2 9 세		51	22.4	60.5	17.1
	만 3 0 ~ 3 4 세		78	20.5	63.7	15.8
지 역	수 도 권		67	18.3	72.9	8.8
	비 수 도 권		78	24.3	52.2	23.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5	12.8	71.2	16.0
	대 졸 이 상		80	28.1	54.8	17.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고용형태가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만 응답

표 V-167.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4) 고용형태-비임금근로자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	체		15	66.7	26.7	6.7
성 별	남	자	3	66.7	0.0	33.3
	여	자	12	66.7	33.3	0.0
연 령	만 19 ~ 24 세		5	60.0	40.0	0.0
	만 25 ~ 29 세		5	80.0	0.0	20.0
	만 30 ~ 34 세		5	60.0	40.0	0.0
지 역	수 도 권		13	69.2	30.8	0.0
	비 수 도 권		2	50.0	0.0	5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	66.7	22.2	11.1
	대 출 이 상		6	66.7	33.3	0.0
출 신 지 역	북 한		14	64.3	28.6	7.1
	중 국		1	100.0	0.0	0.0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그림 V-34.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4) 고용형태-비임금근로자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고용형태가 비임금근로자인 북한배경청년들 중 66.7%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고, 26.7%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나타났다. 이는 비임금근로자인 일반청년들의 61.8%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는 점과 다른 결과이다. 또한 북한배경청년 중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50%가 ‘무급가족종사자’라고 응답했다. 응답 사례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만 면담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에 참여하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일자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업체를 갖는 것을 ‘성공’으로 인식하고, 현재 일자리는 향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준비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자: 아까 사장님도 북에서 오셔서 성공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장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성공해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피면접자: 네, 제가 30살에는 사업 물려받으려고요.
 연구자: 그 사장님이 하던 거?
 피면접자: 네, 30살 이후에 물려받아야죠. 사장님도 나중에 자기는 다른 거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횡집 같은 거 차려서. (사례 13)

저는 취직보다는 사업하고 싶어요. 사업은 또 사업하면 돈도 필요하죠. 자세히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지도 지금 되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회사 나오면 또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어요. 음식점인지, 원지 다 해보고 이거는 자기랑 맞는다고 하면 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배우면서 돈 좀 모으다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생각이 많더라고요. (사례 14)

표 V-168.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5) 근로시간 유형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일제	시간제
전	성 별	체	37	43.2	56.8
		남 자	11	63.6	36.4
		여 자	26	34.6	65.4
연 령		만 1 9 ~ 2 4 세	17	23.5	76.5
		만 2 5 ~ 2 9 세	11	45.5	54.5
		만 3 0 ~ 3 4 세	9	77.8	22.2
지 역		수 도 권	32	43.8	56.3
		비 수 도 권	5	40.0	6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8	22.2	77.8
		대 졸 이 상	15	60.0	40.0
출 신 지 역		북 한	32	46.9	53.1
		중 국	5	20.0	80.0

* 주: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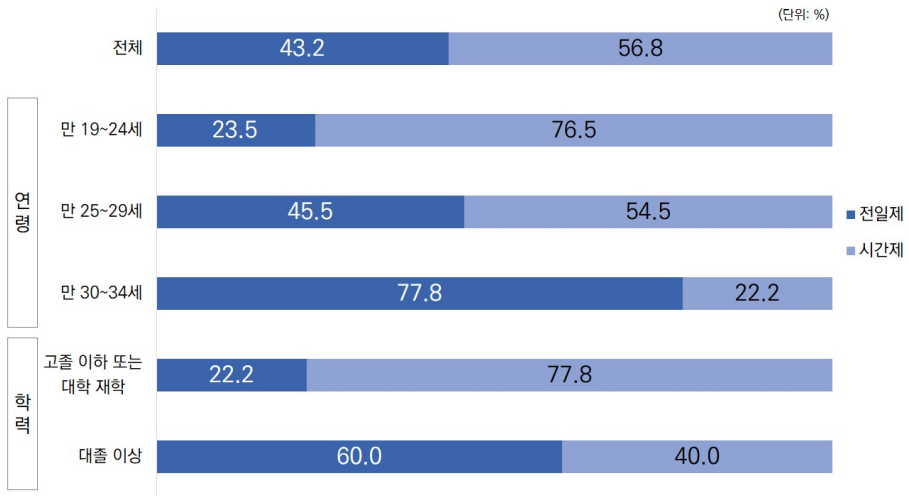


그림 V-35.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5) 근로시간 유형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서 43.2%는 전일제 근로자였고, 56.8%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전일제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고, 대졸 이상 학력자가 고졸 이하 및 대학 재학자에 비해 전일제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전일제 임금근로자 여부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북한배경청년들 내에서도 학력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169.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 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6) 직업_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차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직업군인
전	체	1,331	1.7	11.5	33.0	24.3	18.0	1.0	5.5	2.8	2.0	0.1
성별	남 자	701	2.7	12.0	25.6	21.0	19.3	1.9	8.9	5.1	3.3	0.2
	여 자	630	0.4	11.0	41.4	28.1	16.6	0.0	1.7	0.2	0.5	0.0
연령	만18~24세	332	0.1	5.7	17.9	36.3	27.5	0.6	4.3	4.3	3.3	0.0
	만25~29세	501	1.6	11.4	38.7	21.9	15.3	0.7	6.1	2.3	2.0	0.0
	만30~34세	498	2.7	15.6	37.2	18.7	14.4	1.7	5.8	2.3	1.1	0.3
지역	수 도 권	692	1.8	13.5	37.2	24.3	16.4	0.0	2.7	2.0	2.0	0.0
	비 수 도 권	639	1.5	9.2	27.9	24.2	19.9	2.3	9.0	3.8	2.0	0.3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03	0.4	3.5	12.3	34.6	30.3	1.1	8.6	5.7	3.1	0.3
	대졸 이상	828	2.4	16.5	45.7	17.9	10.4	1.0	3.6	1.1	1.3	0.0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에만 응답

표 V-170.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6) 직업_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종 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차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직업군인	기타	
전		체	41	0.0	7.3	17.1	41.5	2.4	2.4	0.0	7.3	4.9	2.4	14.6
성별	남	자	13	0.0	7.7	23.1	15.4	0.0	7.7	0.0	15.4	15.4	7.7	7.7
	여	자	28	0.0	7.1	14.3	53.6	3.6	0.0	3.6	0.0	0.0	17.9	
연령	만19~24세		19	0.0	5.3	10.5	42.1	5.3	5.3	0.0	5.3	0.0	0.0	26.3
	만25~29세		13	0.0	15.4	23.1	38.5	0.0	0.0	0.0	7.7	7.7	7.7	0.0
	만30~34세		9	0.0	0.0	22.2	44.4	0.0	0.0	0.0	11.1	11.1	0.0	11.1
지역	수 도 권		37	0.0	8.1	18.9	40.5	2.7	0.0	0.0	8.1	5.4	0.027	13.5
	비 수 도 권		4	0.0	0.0	0.0	50.0	0.0	25.0	0.0	0.0	0.0	0.0	25.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9	0.0	0.0	5.3	52.6	0.0	5.3	0.0	5.3	0.0	0.0	31.6
	대졸 이상		18	0.0	16.7	27.8	33.3	5.6	0.0	0.0	5.6	5.6	5.6	0.0
출신 지역	북 한		36	0.0	8.3	16.7	44.4	2.8	2.8	0.0	8.3	5.6	2.8	8.3
	중 국		5	0.0	0.0	20.0	20.0	0.0	0.0	0.0	0.0	0.0	0.0	60.0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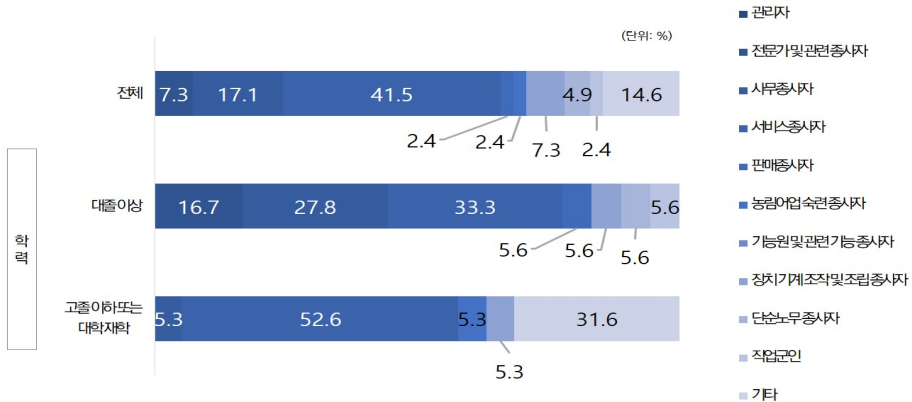


그림 V-36.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6) 직업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북한배경청년들의 직업 유형은 ‘서비스업’이 4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사무종사자’(17.1%)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이하 및 대학 재학 학력자의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5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반청년의 경우 사무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판매종사자의 비율도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면담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은 근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외래어나 단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북한식 말투 때문에 일자리에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스스로 직접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도 부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판매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피면접자: 네. 그런 부분이 제가 네일 아트 또 자격증 취득하고 취직해서 일하려 있었는데 그게 사장님이 제가 아무래도 말투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라고 그랬거든요. 강원도 사람 말투가 조금 저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라고 했더니 그나마. 근데 느낌이 한 한 주 이상 일 해보니까 북한 사람인 걸 알겠는 거죠. 그분도 뭐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시키는 일 하고 그러니까 또 손님들도 조금 손님 몇 분 다렸었는데 그분들도 뭐라고 했었죠. 손님이라기보다 그냥 그 샵에 사장하고 잘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미용업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관리 한번 받아보라고 우리 새 직원 어떤가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또 뭐라고 하고 그랬었죠. (사례 11)

피면접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할 때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사회복지사였는데 사회복지사 선생이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때도 있는데 그냥 그런기보다 그 제 말투가 좀 그분들한테는 나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센터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있으면 설명을 할 때 상대방에게 설명할 때 기분 나쁜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상대방이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이 사회복지사랑은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억양의 차이나 아니면 말투 그게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 15)

표 V-171.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8) 종사자 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	체	1,331	31.6	13.6	18.9	16.4	8.3	3.2	7.9
성 별	남	자	701	31.8	12.3	16.8	17.1	8.6	4.2
	여	자	630	31.4	15.1	21.3	15.6	8.1	2.1
연 령	만 1 8 ~ 2 4 세	332	46.5	15.4	16.6	11.8	3.9	1.4	4.4
	만 2 5 ~ 2 9 세	501	24.9	14.1	21.4	17.1	9.7	2.9	9.9
	만 3 0 ~ 3 4 세	498	28.6	11.8	17.9	18.8	9.9	4.7	8.4
지 역	수 도 권	692	29.0	15.3	18.7	17.2	7.6	3.9	8.2
	비 수 도 권	639	34.8	11.5	19.1	15.4	9.3	2.4	7.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03	50.8	16.0	13.8	9.6	3.9	1.5	4.4
	대 졸 이 상	828	19.8	12.1	22.0	20.6	11.1	4.2	10.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에만 응답

표 V-172.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7) 종사자 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	체	43	32.6	18.6	20.9	9.3	2.3	4.7	11.6
성 별	남	자	14	21.4	0.0	21.4	21.4	0.0	14.3
	여	자	29	37.9	27.6	20.7	3.4	3.4	0.0
연 령	만 1 9 ~ 2 4 세	19	42.1	26.3	15.8	5.3	0.0	0.0	10.5
	만 2 5 ~ 2 9 세	13	23.1	15.4	23.1	15.4	7.7	7.7	7.7
	만 3 0 ~ 3 4 세	11	27.3	9.1	27.3	9.1	0.0	9.1	18.2
지 역	수 도 권	38	28.9	18.4	23.7	10.5	2.6	5.3	10.5
	비 수 도 권	5	60.0	20.0	0.0	0.0	0.0	0.0	2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20	50.0	20.0	15.0	0.0	0.0	0.0	15.0
	대 졸 이 상	18	11.1	22.2	27.8	16.7	5.6	5.6	11.1
출 신 지역	북 한	38	34.2	18.4	18.4	10.5	2.6	5.3	10.5
	중 국	5	20.0	20.0	40.0	0.0	0.0	0.0	20.0

* 주: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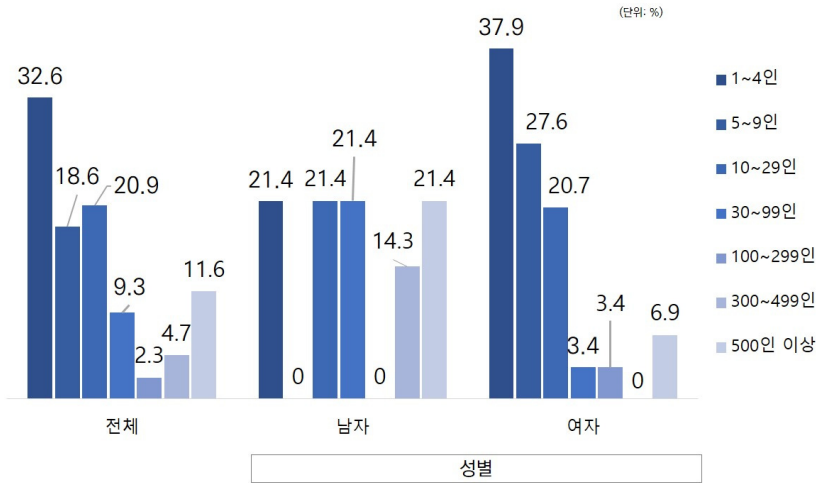


그림 V-37.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7) 종사자 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북한배경청년들이 일하는 일자리의 규모는 종사자 수가 ‘1~4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자가 32.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10~29인’이 20.9%, ‘5~9인’ 1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도 ‘1~4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자가 3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10~29인’이 18.9%, ‘30~99인’이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자리의 규모는 일반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평균적으로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소규모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북한배경 여성의 경우 ‘1~4인’ 사업체 근무자가 37.9%로 높았고, ‘5~9인’이라는 응답도 27.6%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1~4인’이라는 응답이 21.4%이고 ‘5~9인’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종사자 수는 기업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한국 사회에서는 안정성과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북한배경청년들 내에서도 여성이 상대적으로 소규모 직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V-173.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9-1) 교육수준 대비 업무 직무 수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교육수준 보다 낮다	나의 교육수준과 유사하다	나의 교육수준 보다 높다
전		체	1,331	23.9	72.8	3.3
성 별	남	자	701	25.3	71.3	3.4
	여	자	630	22.3	74.5	3.2
연 령	만 1 8 ~ 2 4 세		332	38.5	59.3	2.2
	만 2 5 ~ 2 9 세		501	18.7	78.5	2.8
	만 3 0 ~ 3 4 세		498	19.4	75.9	4.6
지 역	수 도 권		692	20.4	76.1	3.5
	비 수 도 권		639	28.1	68.7	3.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03	32.0	65.5	2.4
	대 졸 이 상		828	18.9	77.2	3.9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에만 응답

표 V-174.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8-1) 교육수준 대비 업무 직무 수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교육수준 보다 낮다	나의 교육수준과 유사하다	나의 교육수준 보다 높다
전		체	42	31.0	54.8	14.3
성 별	남	자	13	30.8	61.5	7.7
	여	자	29	31.0	51.7	17.2
연 령	만 1 9 ~ 2 4 세		19	42.1	52.6	5.3
	만 2 5 ~ 2 9 세		13	23.1	46.2	30.8
	만 3 0 ~ 3 4 세		10	20.0	70.0	10.0
지 역	수 도 권		37	35.1	48.6	16.2
	비 수 도 권		5	0.0	10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20	35.0	60.0	5.0
	대 졸 이 상		18	27.8	44.4	27.8
출 신 지 역	북 한		37	27.0	56.8	16.2
	중 국		5	60.0	40.0	0.0

* 주: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북한배경청년들의 54.8%는 일자리의 업무 수준이 대체로 자신의 교육수준과 유사하다고 응답했고, 14.3%는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높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31.0%는 자신의 교육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했다.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72.8%가 자신의 교육수준과 유사하다고 응답했고, 23.9%가 자신의 교육 수준보다 낮다고 인식했으며, 교육 수준보다 높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이처럼 북한배경청년 집단에서 일반청년에 비해 교육 불일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업무가 교육 수준보다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한 사회 경험이 부족한 북한배경청년들에게 교육기관에서 배운 내용이나 자신이 취득한 학력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업무에 익숙하지 않거나 모르는 내용이 나올 경우, 자신이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청년들은 학교 진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자신의 교육수준이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불일치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나 직무만족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배경청년들이 현재 직장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V-175.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 9-2) 기술수준 대비 업무 직무 수준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기술수준 보다 낮다	나의 기술수준과 유사하다	나의 기술수준 보다 높다
전			1,331	23.5	72.2	4.3
성 별	남	자	701	24.2	71.1	4.7
	여	자	630	22.5	73.6	3.9
연 령	만 1 8 ~ 2 4 세		332	38.8	57.6	3.6
	만 2 5 ~ 2 9 세		501	18.9	76.4	4.7
	만 3 0 ~ 3 4 세		498	17.9	77.7	4.4
지 역	수 도 권		692	21.3	73.7	5.0
	비 수 도 권		639	26.1	70.4	3.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03	31.2	66.8	2.0
	대 졸 이 상		828	18.7	75.6	5.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에만 응답

표 V-176.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8-2) 기술수준 대비 업무 직무 수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기술수준 보다 낮다	나의 기술수준과 유사하다	나의 기술수준 보다 높다
전	체	42	19.0	66.7	14.3
성 별	남 자	13	23.1	69.2	7.7
	여 자	29	17.2	65.5	17.2
연 령	만 1 9 ~ 2 4 세	19	31.6	57.9	10.5
	만 2 5 ~ 2 9 세	13	15.4	61.5	23.1
	만 3 0 ~ 3 4 세	10	0.0	90.0	10.0
지 역	수 도 권	37	21.6	62.2	16.2
	비 수 도 권	5	0.0	10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20	25.0	65.0	10.0
	대 졸 이 상	18	11.1	66.7	22.2
출 신 지 역	북 한	37	16.2	67.6	16.2
	중 국	5	40.0	60.0	0.0

* 주: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북한배경청년들의 66.7%는 일자리의 업무 수준이 자신의 기술 수준과 ‘유사’하다고 응답했고, 14.3%는 자신의 기술 수준보다 ‘높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19.0%는 자신의 기술수준보다 ‘낮다’고 응답했다.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72.2%가 자신의 기술수준과 ‘유사’하다고 응답했고, 나의 기술수준보다 ‘낮다’는 응답은 23.5%, 나의 기술 수준보다 ‘높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교육불일치와 마찬가지로 직무와 자신의 기술 수준의 차이를 바라보는데 있어 북한배경청년과 일반청년 간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일반청년들은 학교 이외에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직무를 더 낮게 평가하지만, 한국 사회 경험이 없는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에는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자신의 기술 부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77.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9-3)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전공분야와 일치한다	나의 전공분야와 불일치한다
전		체	1,018	43.0	57.0
성 별	남	자	516	41.8	58.2
	여	자	502	44.2	55.8
연 령	만 1 8 ~ 2 4 세		221	36.4	63.6
	만 2 5 ~ 2 9 세		394	44.9	55.1
	만 3 0 ~ 3 4 세		403	44.7	55.3
지 역	수 도 권		539	48.3	51.7
	비 수 도 권		479	36.3	63.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90	10.7	89.3
	대 졸 이 상		828	50.8	49.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대학진학 경험자 중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V-178.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8-3)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전공분야와 일치한다	나의 전공분야와 불일치한다
전		체	41	26.8	73.2
성 별	남	자	12	16.7	83.3
	여	자	29	31.0	69.0
연 령	만 1 9 ~ 2 4 세		18	27.8	72.2
	만 2 5 ~ 2 9 세		13	38.5	61.5
	만 3 0 ~ 3 4 세		10	10.0	90.0
지 역	수 도 권		36	27.8	72.2
	비 수 도 권		5	20.0	8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20	25.0	75.0
	대 졸 이 상		18	33.3	66.7
출 신 지 역	북	한	36	27.8	72.2
	중	국	5	20.0	80.0

* 주: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북한배경청년들의 73.2%는 일자리의 업무가 자신의 전공분야와 불일치 한다고 응답했고, 26.8%는 전공분야와 일치한다고 응답했다. 일반청년의 경우에는 43.0%가 전공분야와 일치한다고 응답했고, 불일치한다는 응답은 57.0%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대졸자의 전공불일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한요셉, 2020), 노동시장 이행 정책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전공 불일치 현상이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은 대학 진학 단계에서 전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모호한 정보나 막연한 환상을 갖고 전공을 선택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전공 분야보다는 빠른 취업과 경제적 자립을 원하기 때문에,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을 서두르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이러한 북한배경청년들의 진학과 취업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처음에는 돈 많이 버는 곳에 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좋은 데를 가고 싶었죠. 그랬지만 이제 지금 학과가 마음이 안 들다 보니까 둘 다 해낼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좀 더 욕심을 내려놓고 타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기업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치만 어느 정도 이제 월급도 되는 곳을 생각 중이긴 하지만 또 나중에 또 타협을 할지 모르죠.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그렇군요. 혹시 복수 전공으로 뭐 선택하셨어요?

피면접자: 선택을 했다가 이과를 선택을 했다가 지금 학과가 너무 폭망이 되어서 이제 좀 그 부분을 내려놓고 이제 만약에 이 학과를 졸업하고 내가 만약에 공기업에 준비해서 준비하다가 노력하면 공기업 갈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싶더라고 하면 좀 돈 벌고 나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직을 하든 뭐 좀 그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례 16)

표 V-179. 지난 주 일을 하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10) 현재 일자리에 대한 생각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싫어 한다	싫어 한다	약간 싫어 한다	보통 이다	약간 좋아 한다	좋아 한다	매우 좋아한다	
전		체	1,331	0.7	1.7	4.1	35.2	30.9	24.2	3.2
성 별	남	자	701	0.8	1.6	3.4	36.4	32.4	22.0	3.4
	여	자	630	0.6	1.7	4.9	33.8	29.1	26.9	2.9
연 령	만 1 8 ~ 2 4 세	332	0.7	2.7	6.1	42.4	24.4	20.2	3.4	
	만 2 5 ~ 2 9 세	501	1.0	1.7	4.3	33.8	32.1	24.5	2.7	
	만 3 0 ~ 3 4 세	498	0.5	1.0	2.5	31.8	34.0	26.7	3.6	
지 역	수 도 권	692	1.0	1.0	4.5	34.3	32.4	23.5	3.3	
	비 수 도 권	639	0.4	2.4	3.6	36.3	29.1	25.2	3.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03	0.2	1.6	3.7	46.6	27.0	18.6	2.3	
	대 졸 이 상	828	1.0	1.7	4.3	28.2	33.3	27.7	3.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에만 응답

표 V-180.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9) 현재 일자리에 대한 생각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싫어 한다	싫어 한다	약간 싫어 한다	보통 이다	약간 좋아 한다	좋아 한다	매우 좋아한다	
전		체	42	2.4	4.8	4.8	38.1	19.0	19.0	11.9
성 별	남	자	13	7.7	0.0	7.7	46.2	7.7	23.1	7.7
	여	자	29	0.0	6.9	3.4	34.5	24.1	17.2	13.8
연 령	만 1 9 ~ 2 4 세	19	0.0	10.5	5.3	42.1	10.5	15.8	15.8	
	만 2 5 ~ 2 9 세	14	7.1	0.0	0.0	28.6	35.7	21.4	7.1	
	만 3 0 ~ 3 4 세	9	0.0	0.0	11.1	44.4	11.1	22.2	11.1	
지 역	수 도 권	38	0.0	5.3	5.3	39.5	21.1	18.4	10.5	
	비 수 도 권	4	25.0	0.0	0.0	25.0	0.0	25.0	25.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9	5.3	10.5	5.3	36.8	15.8	10.5	15.8	
	대 졸 이 상	19	0.0	0.0	5.3	31.6	26.3	26.3	10.5	
출 신 지 역	북 한	37	2.7	5.4	5.4	37.8	18.9	18.9	10.8	
	중 국	5	0.0	0.0	0.0	40.0	20.0	20.0	20.0	

* 주: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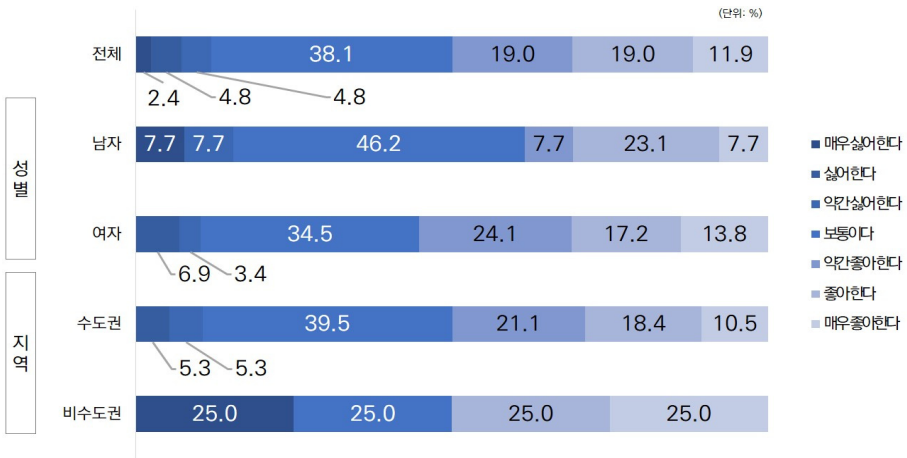


그림 V-38. 일을 하거나 휴가, 일시휴직 상태였던 일자리_9) 현재 일자리에 대한 생각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북한배경청년들 중에서 현재 일자리를 좋아한다는 응답자(약간 좋아한다, 좋아한다, 매우 좋아한다)는 49.9%이고, 싫어한다는 응답자(매우 싫어한다, 싫어한다, 약간 싫어한다)는 12%, 보통이다는 38.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년들의 58.3%가 일자리를 좋아하고, 6.5%가 일자리를 싫어한다는 응답과 비교할 때, 북한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남성, 그리고 비수도권 거주 청년의 일자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면담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의 현재 일자리 만족도에는 임금, 안정성, 자아실현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표 V-181.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및 희망 월 평균 소득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만 원)

구분			사례수	현재 월 평균 소득(만 원)	희망 월 평균 소득(만 원)
전		체	1,331	234.6	316.0
성 별	남	자	701	254.1	346.4
	여	자	630	211.9	281.1
연 령	만 1 8 ~ 2 4 세		332	162.6	219.8
	만 2 5 ~ 2 9 세		501	240.9	321.0
	만 3 0 ~ 3 4 세		498	275.8	375.0
지 역	수 도 권		692	240.1	320.8
	비 수 도 권		639	227.8	310.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03	201.0	274.7
	대 졸 이 상		828	255.2	341.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해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에만 응답

표 V-182.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한 월 평균 소득 및 희망 월 평균 소득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월 평균 소득(만 원)	희망 월 평균 소득(만 원)
전		체	44	1,632,000	3,009,100
성 별	남	자	14	1,852,100	3,321,400
	여	자	30	1,529,300	2,858,300
연 령	만 1 9 ~ 2 4 세		19	1,130,500	2,099,500
	만 2 5 ~ 2 9 세		13	1,823,100	3,000,000
	만 3 0 ~ 3 4 세		12	2,219,200	4,458,300
지 역	수 도 권		39	1,641,300	3,049,700
	비 수 도 권		5	1,560,000	2,700,0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21	1,519,000	3,085,200
	대 졸 이 상		20	1,715,500	2,978,900
출 신 지역	북	한	39	1,713,100	3,178,700
	중	국	5	1,000,000	1,720,000

* 주: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북한배경청년들의 현재 월평균 소득은 약 163만 원이지만,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은 약 300만 원으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게 나타났다.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현재 월 평균 소득 234.6만 원, 희망 소득 316만 원으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일반청년과 희망하는 소득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현재 월 평균 소득은 70만 원 정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소득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임금 수준의 차이는 직업의 종류나 업무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임금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남한에 나올 때 주변에서 그 이제 하나원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 남한에 나오면 다들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말을 안 하고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아니 우리가 무슨 북한에서 죄 짓고 온 것도 아니고 굳이 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밝히던 것 같아요. 다 밝히면서 이제 북한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 알바 구할 때도 다 그렇게 한 거죠. 다 떨어졌어요. 그 유일하게 옷 가게가 됐었는데 거기 사장님은 그 당시에 최저시급이 4200 얼마였는데 저는 3600원을 받았어요. (사례 20)

저는 그때 좀 순진했어요. 그래서 딱히 힘든 것 없고, 그리고 그때 약간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일 찾을 때는 또 한국어 잘 못 하니까 해서 또 겁이 나더라고요. 찾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하는 편의점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마트였는데 면접하니까 잘리더라고요. 좀 겁이 생기더라고요. 해서 제가 편의점 점주 보니까 인상이 되게 좋았어요. 첫인상은, 그리고 이 사람은 저를 채용한다고 해가지고 또 제가 있을 동안은 저한테 뭐라 안 했어요. 되게 좋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7500원을 받더라도 그냥 했어요. 원가 명칭했죠. (사례 14)

표 V-183.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시간)

구분		사례수	현재 주당 노동시간(시간)	희망 주당 노동시간(시간)
전체		1,331	41.3	39.1
성별	남자	701	42.6	40.1
	여자	630	39.8	37.8
연령	만18~24세	332	35.8	36.3
	만25~29세	501	42.5	39.5
	만30~34세	498	43.7	40.4
지역	수도권	692	40.7	38.9
	비수도권	639	42.0	39.3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03	39.8	37.9
	대졸 이상	828	42.2	39.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해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에만 응답

표 V-184.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및 희망 주당 노동시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주당 노동시간(시간)	희망 주당 노동시간(시간)
전			44	29.6	34.6
성 별	남	자	15	30.2	34.0
	여	자	29	29.3	34.9
연 령	만 1 9 ~ 2 4 세		19	30.0	34.8
	만 2 5 ~ 2 9 세		13	29.7	34.4
	만 3 0 ~ 3 4 세		11	28.9	34.5
지 역	수 도 권		39	29.1	35.5
	비 수 도 권		5	34.5	27.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20	26.6	34.7
	대 졸 이 상		19	32.7	34.6
출 신 지 역	북	한	39	28.6	33.0
	중	국	5	37.6	47.2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북한배경청년들의 현재 주당 노동시간은 29.6시간이고, 희망하는 주당 노동시간은 34.6시간으로 나타나, 약 5시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청년들의 현재 주당 노동시간은 41.3시간이고 희망 주당 노동시간은 39.1시간으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은 노동시간은 현재의 일자리가 비정규적이거나 불안정한 지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표 V-185. 추가 노동 가능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었음	없었음
전	체	177	36.1	63.9
성 별	남 자	77	40.4	59.6
	여 자	100	32.4	67.6
연 령	만 1 8 ~ 2 4 세	114	34.0	66.0
	만 2 5 ~ 2 9 세	37	41.0	59.0
	만 3 0 ~ 3 4 세	26	38.8	61.2
지 역	수 도 권	86	37.3	62.7
	비 수 도 권	91	34.8	65.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14	30.1	69.9
	대 졸 이 상	63	47.6	52.4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주 35시간 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V-186. 추가 노동 가능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었음	없었음
전	체	33	51.5	48.5
성 별	남 자	12	50.0	50.0
	여 자	21	52.4	47.6
연 령	만 1 9 ~ 2 4 세	13	61.5	3.5
	만 2 5 ~ 2 9 세	9	44.4	55.6
	만 3 0 ~ 3 4 세	11	45.4	54.5
지 역	수 도 권	29	58.6	41.4
	비 수 도 권	4	0.0	1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5	40.0	60.0
	대 졸 이 상	13	61.5	38.5
출 신 지 역	북 한	29	48.3	51.7
	중 국	4	75.0	25.0

* 주: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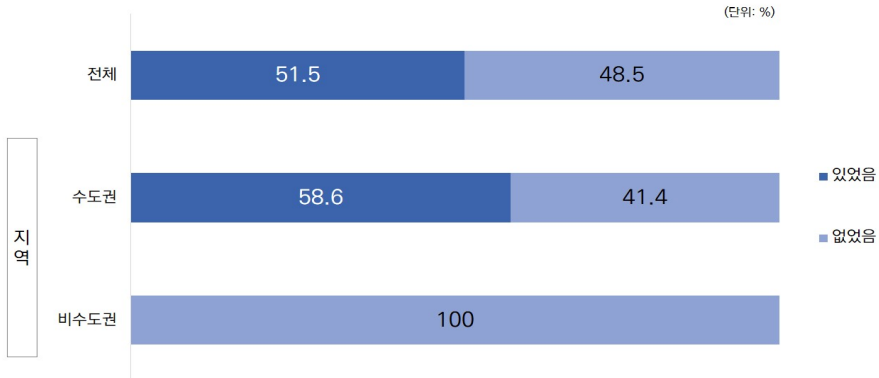


그림 V-39. 추가 노동 가능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현재 일자리가 있는 북한배경청년의 51.5%가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추가 노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일반청년의 36.1%가 추가 노동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차이가 나며, 북한배경청년들은 더 많은 노동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비수도권 거주자들은 추가 노동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 V-187. 추가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었음	없었음
전	체		177	12.3	87.7
	자				
성 별	남	자	77	12.4	87.6
	여	자	100	12.1	87.9
연 령	만 1 8 ~ 2 4 세		114	11.4	88.6
	만 2 5 ~ 2 9 세		37	17.0	83.0
	만 3 0 ~ 3 4 세		26	9.4	90.6
지 역	수 도 권		86	11.8	88.2
	비 수 도 권		91	12.8	87.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14	9.6	90.4
	대 졸 이 상		63	17.4	82.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주 35시간 미만 일자리가 있는 경우만 응답

표 V-188. 추가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었음	없었음
전	체		30	26.7	73.3
성 별	남	자	11	18.2	81.8
	여	자	19	31.6	68.4
연 령	만 1 9 ~ 2 4 세		12	25.0	75.0
	만 2 5 ~ 2 9 세		8	25.0	75.0
	만 3 0 ~ 3 4 세		10	30.0	70.0
지 역	수 도 권		26	30.8	69.2
	비 수 도 권		4	0.0	10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5	26.7	73.3
	대 졸 이 상		11	27.3	72.7
출 신 지 역	북	한	27	25.9	74.1
	중	국	3	33.3	66.7

* 주: 1)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현재 일자리가 있는 북한배경청년의 26.7%는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일자리를 찾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일반청년들은 동일한 질문에 대해 12.3%가 추가 노동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앞의 질문과 연결해서 해석해 본다면 북한배경청년들은 추가 노동을 희망하지만 실제로 추가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돈을 벌기 위해 추가노동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추가 노동에 나설 만큼의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V-189.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충분히 받고 있다
전	체	1,331	0.7	10.8	44.6	41.1	2.9
성 별	남 자	701	0.8	10.7	44.2	41.8	2.4
	여 자	630	0.7	10.8	45.0	40.2	3.4
연 령	만 18~24세	332	0.0	11.8	43.1	41.3	3.8
	만 25~29세	501	1.0	11.1	45.4	39.4	3.1
	만 30~34세	498	1.0	9.7	44.7	42.6	2.0
지 역	수 도 권	692	0.9	10.1	42.8	43.5	2.7
	비 수 도 권	639	0.6	11.6	46.8	38.1	3.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03	0.2	9.5	47.1	40.3	2.9
	대 졸 이 상	828	1.1	11.6	43.0	41.6	2.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에만 응답

표 V-190. 직장에서 조건에 맞는 대우 정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받고 있는 편이다	충분히 받고 있다
전	체	45	4.4	8.9	24.4	42.2	20.0
성 별	남 자	14	7.1	7.1	28.6	28.6	28.6
	여 자	31	3.2	9.7	22.6	48.4	16.1
연 령	만 19~24세	18	0.0	11.2	27.8	38.9	22.2
	만 25~29세	15	0.0	13.3	26.7	26.7	33.3
	만 30~34세	12	16.7	0.0	16.7	66.7	0.0
지 역	수 도 권	40	2.5	10.0	22.5	45.0	20.0
	비 수 도 권	5	20.0	0.0	40.0	20.0	2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21	4.8	4.8	33.3	38.1	19.0
	대 졸 이 상	20	5.0	10.0	15.0	45.0	25.0
출 신 지 역	북 한	40	5.0	10.0	22.5	42.5	20.0
	중 국	5	0.0	0.0	40.0	40.0	20.0

* 주: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북한배경청년들은 “직장(일자리)에서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62.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13.3%는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면담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수당 등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있었다. 남한사회에서는 일부 사업주들이 청년들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공론화되기도 했다(경향신문, 2021). 그러나 북한배경청년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자신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받는 차별이나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식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기도 했다.

피면접자: 원래 다니던 회사들도 잔업 했는데 잔업 비용을 잔업 한 돈을 계산도 안 하고 줬거든요. 거기에서 근데 내가 사장님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다 제대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한국 사람이 진짜 그랬다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만 원도 다 일단은 내가 일해서 힘들게 진짜 땀 흘리며 번 돈인데 지금 안 주는 거예요. 한 몇 만 원 돈을 그다음에 막 너무 열받아가시고 사장한테 큰소리 빵 진짜 내가 치 그런 토라이는 없죠 진짜. 사장님 지금 저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왔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왜 돈을 안 주시는데요. (사례 10)

피면접자: 많이 물어봤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기하고 어머니 되게 화나시더라고요. 이게 왜 안 주냐고 화내더라고요. 막 신고하겠다고 전 그때 그냥 너무 순진해서 점주님 저한테 잘해줬는데 그냥 참자고 얘기했어요. 또 원래는 저희 근무시간은 하루에 5시간 안 하거든요. 더 어느 날 갑자기 점주님이 저보고 더 길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래서 하겠다고 그런데 한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갑자기 시급 7500원밖에 안 줘가지고 하루에 거의 10시간 12시간 일하는데 받을 수 있는 시간이 1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9만 원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고민 많이 했죠. 또 거기 점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시급 조금 올릴 수 있냐고, 그런데 거기 하는 일하는 알바생들 보면 저도 그냥 물어봤거든요. 시급이 얼마 받냐고 똑같이 7500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꺼내는 순간 뭔가 점주님 표정 보니까 뭐지? 다른 사람한테 7500원 주는데 너한테만 주면 좀 문제가 생긴다고 그 얘기 들어보자마자 뭔가 실망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제가 입대하는 날도 다가오니까 그냥 그만두고 쉬다가. (사례 14)

피면접자: 그렇죠. 낮춰서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들은 거는 있잖아요. 그래서 4200원 최저시급이라는 건 최저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러면 최저시급을 줄 거면 내가 남한사람 채용하지 너를 왜 채용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사례 20)

표 V-191. 이직 의향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1,331	22.3	77.7
성 별	남 자	701	21.1	78.9
	여 자	630	23.7	76.3
연 령	만 1 8 ~ 2 4 세	332	30.1	69.9
	만 2 5 ~ 2 9 세	501	22.0	78.0
	만 3 0 ~ 3 4 세	498	17.4	82.6
지 역	수 도 권	692	23.9	76.1
	비 수 도 권	639	20.4	79.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03	20.4	79.6
	대 졸 이 상	828	23.5	76.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주 일을 하였거나, 휴가 및 일시 휴직인 경우에만 응답

표 V-192. 이직 의향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48	33.3	66.7
성 별	남 자	13	30.8	69.2
	여 자	35	34.3	65.7
연 령	만 1 9 ~ 2 4 세	20	35.0	65.0
	만 2 5 ~ 2 9 세	15	26.7	73.3
	만 3 0 ~ 3 4 세	13	38.5	61.5
지 역	수 도 권	43	32.6	67.4
	비 수 도 권	5	40.0	6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23	39.1	60.9
	대 졸 이 상	20	30.0	70.0
출 신 지 역	북 한	42	33.3	66.7
	중 국	6	33.3	66.7

* 주: 현재 일자리가 있는 사람만 응답

현재 일자리가 있는 북한배경청년들은 “현 직장(일자리)을 그만두고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33.3%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일반청년들의 22.3%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북한배경청년들의 현재 일자리에 대한 불만족은 임금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 등 다양하다. 특히 일자리 진입 단계에서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지인의 소개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서둘러 취업하거나 현재 직장의 고용안정성이 낮은 경우 이직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193. 이직 희망 사유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개인 발전/승진	더 나은 근무 환경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개인 사업을 위해서	건강 상의 이유로	집안 사정 때문에	기타
전	체	302	43.8	11.1	19.7	4.0	13.4	0.9	5.4	0.4	0.4	0.9
성별	남 자	147	35.2	12.3	24.9	5.6	11.6	1.7	7.8	0.0	0.4	0.5
	여 자	155	52.8	9.9	14.3	2.3	15.2	0.1	2.8	0.9	0.4	1.3
연령	만18-24세	103	36.8	8.6	22.6	9.0	14.0	1.0	4.0	0.0	1.3	2.7
	만25-29세	108	44.2	15.6	20.1	1.8	11.8	1.6	4.4	0.6	0.0	0.0
	만30-34세	91	51.5	8.1	15.7	1.1	14.6	0.0	8.3	0.7	0.0	0.0
지역	수 도 권	163	40.8	12.9	17.6	4.8	14.7	1.5	6.1	0.4	0.4	0.8
	비수도권	139	48.1	8.5	22.6	2.8	11.4	0.1	4.4	0.5	0.5	1.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10	35.9	8.0	21.8	9.4	11.6	1.7	7.7	0.0	1.2	2.6
	대졸 이상	192	48.1	12.7	18.5	1.1	14.3	0.5	4.1	0.7	0.0	0.0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이직 의향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V-194. 이직 희망 사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개인발전/승진	더 나은 근무환경 (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개인 사업을 위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집안사정 때문에 (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기타
전	체	21	28.6	38.1	14.3	0.0	0.0	4.8	0.0	0.0	9.5	4.8
성 별	남 자	5	20.0	40.0	20.0	0.0	0.0	20.0	0.0	0.0	0.0	0.0
	여 자	16	31.3	37.5	12.5	0.0	0.0	0.0	0.0	0.0	12.5	6.3
연 령	만 19~24세	10	30.0	40.0	20.0	0.0	0.0	0.0	0.0	0.0	0.0	10.0
	만 25~29세	5	40.0	40.0	0.0	0.0	0.0	20.0	0.0	0.0	0.0	0.0
	만 30~34세	6	16.7	33.3	16.7	0.0	0.0	0.0	0.0	0.0	33.3	0.0
지 역	수 도 권	18	33.3	38.9	16.7	0.0	0.0	0.0	0.0	0.0	5.6	5.6
	비 수 도 권	3	0.0	33.3	0.0	0.0	0.0	33.3	0.0	0.0	33.3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0	20.0	30.0	10.0	0.0	0.0	10.0	0.0	0.0	20.0	10.0
	대졸 이상	8	50.0	37.5	12.5	0.0	0.0	0.0	0.0	0.0	0.0	0.0
출 신 지역	북 한	18	27.8	38.9	16.7	0.0	0.0	5.6	0.0	0.0	11.1	0.0
	중 국	3	33.3	33.3	0.0	0.0	0.0	0.0	0.0	0.0	0.0	33.3

* 주: 1) 이직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이직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청년들은 이직 희망 사유에 대해 33.1%가 ‘개인발전과 승진’을 선택했고, 다음으로 ‘더 나은 보수’(28.6%), ‘더 나은 근무환경’(14.3%),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서는 응답이 4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더 나은 근무환경 19.7%, 더 나은 안정성 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북한배경청년들은 개인의 발전을, 일반청년들은 보수와 복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들은 현재 일자리에서 돈은 벌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거나 그러한 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정직원 아니고요. 파견직이거든요. 그만두고 싶으면 바로 지금 얘기하고 바로 그만둘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도 2년 채우면 퇴직금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년 정도 다니고 퇴직금 받고 만약에 일을 괜찮다고 하면 좀 더 다니고 돈 좀 모아서 하고, 그런데 너무 안 맞으면 또 나와서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어요. (사례 14)

(사회복지사) 그걸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면접은 보고 있었죠. 이력서도 넣고 그러다가 거기서 부르길래 제가센터에서 한 번 면접 와보라 해서 그렇게 면접을 보고 일해야겠다.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례 15)

**표 V-195. 직장 내 괴롭힘_1)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1,186	8.2	90.8	0.9
성 별	남	자	610	8.0	91.1	0.9
	여	자	576	8.6	90.5	0.9
연 령	만 1 8 ~ 2 4 세		316	3.4	94.9	1.7
	만 2 5 ~ 2 9 세		450	10.0	89.7	0.3
	만 3 0 ~ 3 4 세		420	10.0	89.1	1.0
지 역	수 도 권		625	8.7	90.3	1.1
	비 수 도 권		561	7.7	91.5	0.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38	4.1	94.4	1.5
	대 졸 이 상		748	10.7	88.7	0.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만 응답

**표 V-196. 직장 내 괴롭힘_1)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37	10.8	83.8	5.4
성 별	남	자	12	16.7	83.3	0.0
	여	자	25	8.0	84.0	8.0
연 령	만 1 9 ~ 2 4 세		15	6.7	80.0	13.3
	만 2 5 ~ 2 9 세		12	16.7	83.3	0.0
	만 3 0 ~ 3 4 세		10	10.0	90.0	0.0
지 역	수 도 권		33	12.1	81.8	6.1
	비 수 도 권		4	0.0	10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7	5.9	82.4	11.8
	대 졸 이 상		16	18.8	81.3	0.0
출 신 지 역	북 한		31	12.9	83.9	3.2
	중 국		6	0.0	83.3	16.7

* 주: 현재 임금근로자만 응답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배경청년들의 10.8%가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긴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청년들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과도한 업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로 나타났고 없다는 응답이 90.8%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과 일반청년들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집단별로 살펴보면,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 대졸 이상 학력에게서 과도한 업무를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이 18.8%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학력자의 경우 자신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업무를 부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V-197. 직장 내 괴롭힘_2)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1,186	4.4	95.2	0.4
성 별	남	자	610	4.4	95.5	0.1
	여	자	576	4.5	94.9	0.7
연 령	만 1 8 ~ 2 4 세		316	3.0	96.3	0.7
	만 2 5 ~ 2 9 세		450	5.3	94.3	0.3
	만 3 0 ~ 3 4 세		420	4.5	95.3	0.2
지 역	수 도 권		625	4.4	95.3	0.3
	비 수 도 권		561	4.5	95.0	0.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38	2.8	97.2	0.0
	대 졸 이 상		748	5.4	94.0	0.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만 응답

표 V-198. 직장 내 괴롭힘_2)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37	0.0	97.3	2.7
	성 별	남 자	12	0.0	100.0	0.0
		여 자	25	0.0	96.0	4.0
연 령	만 1 9 ~ 2 4 세		15	0.0	93.3	6.7
	만 2 5 ~ 2 9 세		12	0.0	100.0	0.0
	만 3 0 ~ 3 4 세		10	0.0	100.0	0.0
지 역	수 도 권		33	0.0	97.0	3.0
	비 수 도 권		4	0.0	10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7	0.0	94.1	5.9
	대 졸 이 상		16	0.0	100.0	0.0
출 신 지역	북 한		31	0.0	100.0	0.0
	중 국		6	0.0	83.3	16.7

* 주: 현재 임금근로자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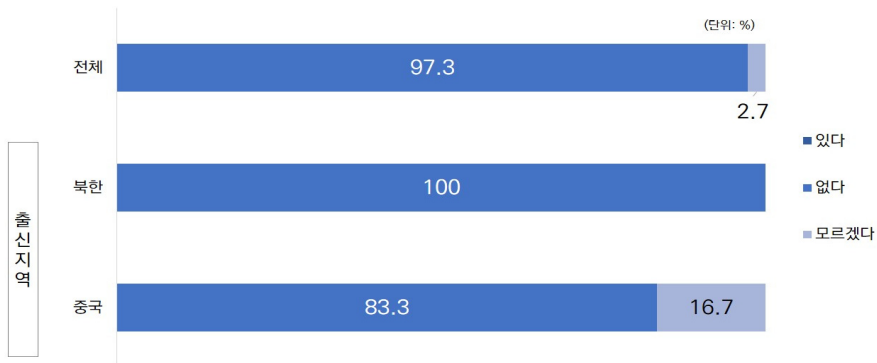


그림 V-40. 직장 내 괴롭힘_2)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서 설문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없었다.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4.4%가 고용주나 직장상사 혹은 동료로부터 욕설이나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들은 북한 생활에서 혹은 탈북과 남한 입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욕설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를 수도 있다.

표 V-199. 직장 내 괴롭힘_3)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암묵적, 직접적으로 강요하였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1,186	1.7	97.7	0.7	
성 별	남	자 610	1.5	97.8	0.7	
	여	자 576	1.8	97.5	0.7	
연 령	만 1 8 ~ 2 4 세		316	0.7	98.1	1.2
	만 2 5 ~ 2 9 세		450	1.3	98.1	0.6
	만 3 0 ~ 3 4 세		420	2.8	96.9	0.4
지 역	수 도 권		625	0.9	98.7	0.4
	비 수 도 권		561	2.6	96.3	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38	1.2	98.2	0.5
	대 졸 이 상		748	1.9	97.3	0.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만 응답

표 V-200. 직장 내 괴롭힘_3)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간접적·직접적으로 강요하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37	5.4	91.9	2.7
성 별	남	자	12	16.7	83.3	0.0
	여	자	25	0.0	96.0	4.0
연 령	만 1 9 ~ 2 4 세		15	0.0	93.3	6.7
	만 2 5 ~ 2 9 세		12	8.3	91.7	0.0
	만 3 0 ~ 3 4 세		10	10.0	90.0	0.0
지 역	수 도 권		33	6.1	90.9	3.0
	비 수 도 권		4	0.0	10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7	0.0	94.1	5.9
	대 졸 이 상		16	12.5	87.5	0.0
출 신 지 역	북 한		31	6.5	93.5	0.0
	중 국		6	0.0	83.3	16.7

* 주: 현재 임금근로자만 응답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간접적·직접적으로 강요하였다”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배경청년의 5.4%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1.7%가 부서 이동이나 퇴사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북한배경청년 집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01. 직장 내 괴롭힘_4)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1,186	5.5	94.0	0.5
성 별	남	자	610	6.0	93.4	0.7
	여	자	576	5.0	94.7	0.3
연 령	만 1 8 ~ 2 4 세		316	2.1	97.7	0.3
	만 2 5 ~ 2 9 세		450	6.1	93.5	0.4
	만 3 0 ~ 3 4 세		420	7.4	91.8	0.8
지 역	수 도 권		625	6.3	93.2	0.5
	비 수 도 권		561	4.5	95.0	0.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38	2.5	97.3	0.2
	대 졸 이 상		748	7.3	92.1	0.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만 응답

표 V-202. 직장 내 괴롭힘_4)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37	0.0	94.6	5.4
성 별	남	자	12	0.0	91.7	8.3
	여	자	25	0.0	96.0	4.0
연 령	만 1 9 ~ 2 4 세		15	0.0	93.3	6.7
	만 2 5 ~ 2 9 세		12	0.0	91.7	8.3
	만 3 0 ~ 3 4 세		10	0.0	100.0	0.0
지 역	수 도 권		33	0.0	93.9	6.1
	비 수 도 권		4	0.0	10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7	0.0	94.1	5.9
	대 졸 이 상		16	0.0	93.8	6.3
출 신 지역	북 한		31	0.0	96.8	3.2
	중 국		6	0.0	83.3	16.7

* 주: 현재 임금근로자만 응답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서 설문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로부터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은 없었다. 반면에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5.5%가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고 응답했다. 일반청년들에게는 회식 참여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이지만, 북한배경청년들에게는 오히려 회식 참여를 제안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따돌림일 수도 있다. 실제로 회식 자리에서 회사 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하고 가까워졌다는 사례(사례 9)도 존재한다.

표 V-203. 직장 내 괴롭힘_5)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1,186	2.0	97.0	1.0
성 별	남	자	610	1.2	97.4	1.4
	여	자	576	2.8	96.6	0.6
연 령	만 1 8 ~ 2 4 세		316	1.2	98.2	0.5
	만 2 5 ~ 2 9 세		450	2.0	97.6	0.3
	만 3 0 ~ 3 4 세		420	2.4	95.5	2.1
지 역	수 도 권		625	2.0	96.9	1.2
	비 수 도 권		561	1.9	97.2	0.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38	0.5	99.1	0.4
	대 졸 이 상		748	2.8	95.8	1.4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만 응답

표 V-204. 직장 내 괴롭힘_5)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37	0.0	97.3	2.7
성 별	남	자	12	0.0	100.0	0.0
	여	자	25	0.0	96.0	4.0
연 령	만 1 9 ~ 2 4 세		15	0.0	93.3	6.7
	만 2 5 ~ 2 9 세		12	0.0	100.0	0.0
	만 3 0 ~ 3 4 세		10	0.0	100.0	0.0
지 역	수 도 권		33	0.0	97.0	3.0
	비 수 도 권		4	0.0	10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7	0.0	94.1	5.9
	대 졸 이 상		16	0.0	100.0	0.0
출 신 지 역	북 한		31	0.0	100.0	0.0
	중 국		6	0.0	83.3	16.7

* 주: 현재 임금근로자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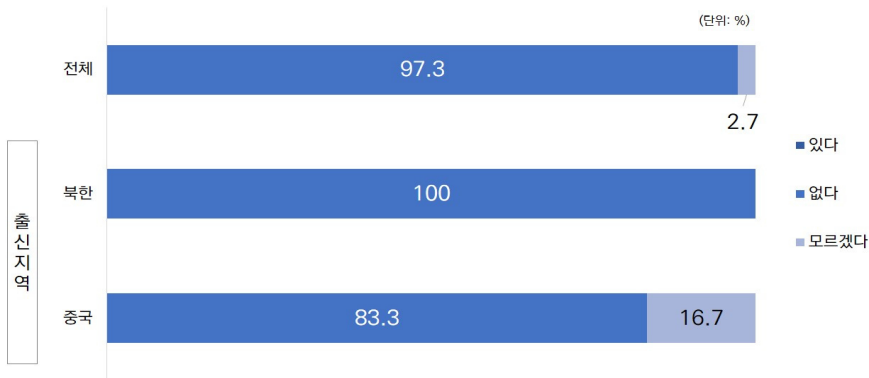


그림 V-41. 직장 내 괴롭힘_5)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서 설문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했다고 응답한 청년은 없었다. 일반청년의 경우에는 2.0%가 교육훈련이나 승진 보상 등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북한배경청년 집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05. 직장 내 괴롭힘_6)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암묵적,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내 요구를 무시하였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1,186	4.8	94.8	0.4
	자		610	4.1	95.5	0.4
성 별	남	자	576	5.6	94.0	0.4
	여	자	316	2.4	97.4	0.2
연 령	만 1 8 ~ 2 4 세		450	5.2	94.2	0.6
	만 2 5 ~ 2 9 세		420	6.1	93.5	0.4
	만 3 0 ~ 3 4 세		625	5.8	93.8	0.4
지 역	수 도 권		561	3.5	96.0	0.4
	비 수 도 권		438	2.7	97.1	0.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748	6.0	93.4	0.6
	대 졸 이 상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만 응답

표 V-206. 직장 내 괴롭힘_6)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암묵적·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내 요구를 무시하였다(병가, 휴가, 휴직, 교육훈련 등)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37	5.4	91.9	2.7
성 별	남	자	12	8.3	91.7	0.0
	여	자	25	4.0	92.0	4.0
연 령	만 1 9 ~ 2 4 세		15	6.7	86.7	6.7
	만 2 5 ~ 2 9 세		12	8.3	91.7	0.0
	만 3 0 ~ 3 4 세		10	0.0	100.0	0.0
지 역	수 도 권		33	6.1	90.9	3.0
	비 수 도 권		4	0.0	10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7	5.9	88.2	5.9
	대 졸 이 상		16	6.3	93.8	0.0
출 신 지 역	북	한	31	6.5	93.5	0.0
	중	국	6	0.0	83.3	16.7

* 주: 현재 임금근로자만 응답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서 설문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암묵적·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요구를 무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5.4%로 나타났다.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4.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07. 직장 내 괴롭힘_7)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1,186	1.5	98.2	0.4
성 별	남	자	610	1.0	98.5	0.5
	여	자	576	2.0	97.8	0.2
연 령	만 1 8 ~ 2 4 세		316	1.0	98.4	0.6
	만 2 5 ~ 2 9 세		450	1.8	98.0	0.2
	만 3 0 ~ 3 4 세		420	1.5	98.2	0.3
지 역	수 도 권		625	1.4	98.5	0.1
	비 수 도 권		561	1.6	97.7	0.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38	0.3	99.2	0.4
	대 졸 이 상		748	2.2	97.5	0.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만 응답

표 V-208. 직장 내 괴롭힘_7)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
(이메일, 메시지, 전화 포함/성적 농담, 성추행 등 포함)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37	0.0	97.3	2.7
성 별	남	자	12	0.0	91.7	8.3
	여	자	25	0.0	100.0	0.0
연 령	만 1 9 ~ 2 4 세		15	0.0	100.0	0.0
	만 2 5 ~ 2 9 세		12	0.0	91.7	8.3
	만 3 0 ~ 3 4 세		10	0.0	100.0	0.0
지 역	수 도 권		33	0.0	97.0	3.0
	비 수 도 권		4	0.0	10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7	0.0	100.0	0.0
	대 졸 이 상		16	0.0	93.8	6.3
출 신 지 역	북 한		31	0.0	96.8	3.2
	중 국		6	0.0	100.0	0.0

* 주: 현재 임금근로자만 응답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서 설문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년은 없었다. 일반청년의 경우 1.5%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표 V-209. 직장 내 괴롭힘_8)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1,186	0.7	98.6	0.7
성 별	남	자	610	0.8	98.7	0.5
	여	자	576	0.6	98.5	0.9
연 령	만 1 8 ~ 2 4 세		316	0.6	98.0	1.4
	만 2 5 ~ 2 9 세		450	0.3	99.3	0.4
	만 3 0 ~ 3 4 세		420	1.1	98.3	0.5
지 역	수 도 권		625	0.8	98.7	0.5
	비 수 도 권		561	0.6	98.5	0.9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38	0.4	98.6	1.0
	대 졸 이 상		748	0.9	98.6	0.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만 응답

표 V-210. 직장 내 괴롭힘_8)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37	0.0	97.3	2.7
성 별	남	자	12	0.0	91.7	8.3
	여	자	25	0.0	100.0	0.0
연 령	만 1 9 ~ 2 4 세		15	0.0	100.0	0.0
	만 2 5 ~ 2 9 세		12	0.0	91.7	8.3
	만 3 0 ~ 3 4 세		10	0.0	100.0	0.0
지 역	수 도 권		33	0.0	97.0	3.0
	비 수 도 권		4	0.0	10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7	0.0	100.0	0.0
	대 졸 이 상		16	0.0	93.8	6.3
출 신 지 역	북 한		31	0.0	96.8	3.2
	중 국		6	0.0	100.0	0.0

* 주: 현재 임금근로자만 응답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서 설문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 당했다고 응답한 청년은 없었다. 일반청년의 경우에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0.7%가 제외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V-211. 산업 안전_9)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1,186	14.4	84.8	0.8
성 별	남	자	610	13.6	85.9	0.5
	여	자	576	15.3	83.6	1.2
연 령	만 1 8 ~ 2 4 세		316	13.6	85.0	1.4
	만 2 5 ~ 2 9 세		450	16.2	82.9	0.9
	만 3 0 ~ 3 4 세		420	13.0	86.6	0.4
지 역	수 도 권		625	11.2	87.6	1.2
	비 수 도 권		561	18.3	81.3	0.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38	10.6	88.4	1.0
	대 졸 이 상		748	16.6	82.6	0.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만 응답

표 V-212. 산업 안전_9)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36	19.4	72.2	8.3
성 별	남	자	12	33.3	50.0	16.7
	여	자	24	12.5	83.3	4.2
연 령	만 1 9 ~ 2 4 세		14	21.4	71.4	7.1
	만 2 5 ~ 2 9 세		12	25.0	58.3	16.7
	만 3 0 ~ 3 4 세		10	10.0	90.0	0.0
지 역	수 도 권		32	18.8	71.9	9.4
	비 수 도 권		4	25.0	75.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6	18.8	75.0	6.3
	대 졸 이 상		16	25.0	62.5	12.5
출 신 지 역	북 한		30	20.0	70.0	10.0
	중 국		6	16.7	83.3	0.0

* 주: 현재 임금근로자만 응답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설문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의 19.4%가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북한배경청년 중에서도 남성(33.3%)이 여성에 비해 이러한 경험이 많았다. 반면에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14.4%가 관련 정보나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산업 안전에 관한 정보나 교육은 모든 근로자에게 필요한 내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한 직종일수록 관련 정보나 교육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배경청년들 중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213. 산업 안전_10)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1,186	4.2	95.0	0.8
성 별	남	자	610	3.9	95.3	0.7
	여	자	576	4.4	94.6	0.9
연 령	만 1 8 ~ 2 4 세		316	4.9	93.8	1.3
	만 2 5 ~ 2 9 세		450	4.6	94.5	0.9
	만 3 0 ~ 3 4 세		420	3.2	96.3	0.5
지 역	수 도 권		625	2.9	96.6	0.5
	비 수 도 권		561	5.8	93.0	1.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38	3.7	95.3	1.0
	대 졸 이 상		748	4.4	94.8	0.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만 응답

표 V-214. 산업 안전_10)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37	0.0	89.2	10.8
성 별	남	자	12	0.0	83.3	16.7
	여	자	25	0.0	92.0	8.0
연 령	만 1 9 ~ 2 4 세		15	0.0	93.3	6.7
	만 2 5 ~ 2 9 세		12	0.0	83.3	16.7
	만 3 0 ~ 3 4 세		10	0.0	90.0	10.0
지 역	수 도 권		33	0.0	87.9	12.1
	비 수 도 권		4	0.0	10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7	0.0	88.2	11.8
	대 졸 이 상		16	0.0	87.5	12.5
출 신 지 역	북	한	31	0.0	90.3	9.7
	중	국	6	0.0	83.3	16.7

* 주: 현재 임금근로자만 응답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설문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 중에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응답한 청년은 없었다. 반면에, 일반청년들은 4.2%가 일상적으로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는 앞의 조사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며, 근로환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수준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표 V-215. 산업 안전_11)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1,186	3.0	96.9	0.2
성 별	남	자	610	2.3	97.6	0.2
	여	자	576	3.7	96.1	0.2
연 령	만 1 8 ~ 2 4 세		316	1.8	97.8	0.3
	만 2 5 ~ 2 9 세		450	3.0	96.8	0.2
	만 3 0 ~ 3 4 세		420	3.8	96.2	0.0
지 역	수 도 권		625	2.9	97.0	0.2
	비 수 도 권		561	3.1	96.8	0.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38	2.1	97.9	0.0
	대 졸 이 상		748	3.4	96.3	0.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만 응답

표 V-216. 산업 안전_11)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37	5.4	89.2	5.4
성 별	남	자	12	8.3	83.3	8.3
	여	자	25	4.0	92.0	4.0
연 령	만 1 9 ~ 2 4 세		15	0.0	93.3	6.7
	만 2 5 ~ 2 9 세		12	16.7	75.0	8.3
	만 3 0 ~ 3 4 세		10	0.0	100.0	0.0
지 역	수 도 권		33	6.1	87.9	6.1
	비 수 도 권		4	0.0	10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7	0.0	94.1	5.9
	대 졸 이 상		16	12.5	81.3	6.3
출 신 지 역	북	한	31	6.5	90.3	3.2
	중	국	6	0.0	83.3	16.7

* 주: 현재 임금근로자만 응답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설문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의 5.4%가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청년들의 경우, 3.0%가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큰 차이는 없지만 다소 높은 수준에 있다.

표 V-217. 산업 안전_12)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37	16.5	69.1	14.4
	자					
성 별	남	자	14	14.4	60.8	24.8
	여	자	23	17.8	74.7	7.5
연 령	만 1 8 ~ 2 4 세		8	33.0	39.6	27.4
	만 2 5 ~ 2 9 세		13	18.8	71.7	9.4
	만 3 0 ~ 3 4 세		16	8.5	77.5	13.9
지 역	수 도 권		20	18.6	66.4	15.0
	비 수 도 권		17	13.9	72.4	13.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0	26.0	66.1	7.9
	대 졸 이 상		27	12.9	70.3	16.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취업상태인 임금근로자 중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다친 적이 있는 경우 응답

표 V-218. 산업 안전_12)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원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를 받은 적이 있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전	체		21	4.8	85.7	9.5
	자					
성 별	남	자	7	0.0	85.7	14.3
	여	자	14	7.1	85.7	7.1
연 령	만 1 9 ~ 2 4 세		10	0.0	80.0	20.0
	만 2 5 ~ 2 9 세		4	25.0	75.0	0.0
	만 3 0 ~ 3 4 세		7	0.0	100.0	0.0
지 역	수 도 권		18	5.6	83.3	11.1
	비 수 도 권		3	0.0	10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3	0.0	92.3	7.7
	대 졸 이 상		7	14.3	71.4	14.3
출 신 지 역	북	한	18	5.6	88.9	5.6
	중	국	3	0.0	66.7	33.3

* 주: 1) 현재 임금근로자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설문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의 4.8%가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원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16.5%가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더라도 급여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험 급여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제도에 대해 알더라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라도 이러한 결과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V-219. 교육, 취업을 하지 않는 상태 지속 기간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개월)

구분		사례수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2년 미만	2년 이상	평균 지속 기간 (개월)
전	체	249	3.7	27.5	22.6	46.1	28.9
성별	남 자	93	9.8	42.6	22.0	25.6	16.3
	여 자	156	0.4	19.3	22.9	57.4	35.8
연령	만 18 ~ 24 세	87	8.0	44.1	30.8	17.1	12.8
	만 25 ~ 29 세	77	3.2	27.7	21.2	47.9	26.0
	만 30 ~ 34 세	85	0.0	11.2	15.7	73.2	47.2
지역	수도권	110	4.5	26.7	21.3	47.4	29.7
	비 수도권	139	3.0	28.3	23.8	44.9	28.1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19	6.7	28.3	20.2	44.8	28.3
	대졸 이상	130	1.1	26.9	24.6	47.3	29.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해 정규교육기관 통학 외의 사유로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경우만 응답

표 V-220. 교육,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연도별 추이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2년 미만	2년 이상	평균 지속 기간(개월)	
전	체	24	41.7	25.0	16.7	16.7	9.71	
성별	남	자	5	60.0	40.0	0.0	0.0	2.2
	여	자	19	36.8	21.1	21.1	21.1	12.1
연령	만 1 9 ~ 2 4 세	8	50.0	37.5	12.5	0.0	4.5	
	만 2 5 ~ 2 9 세	6	33.3	33.3	33.3	0.0	7.5	
	만 3 0 ~ 3 4 세	10	40.0	10.0	10.0	40.0	15.9	
지역	수 도 권	2	47.6	23.8	19.0	9.5	8.2	
	비 수 도 권	3	0.0	33.3	0.0	66.7	24.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3	46.2	23.1	7.7	23.1	10.5	
	대 졸 이 상	8	25.0	37.5	37.5	0.0	8.5	
출신 지역	북 한	22	40.9	22.7	18.2	18.2	10	
	중 국	2	50.0	50.0	0.0	0.0	4	

* 주: 1)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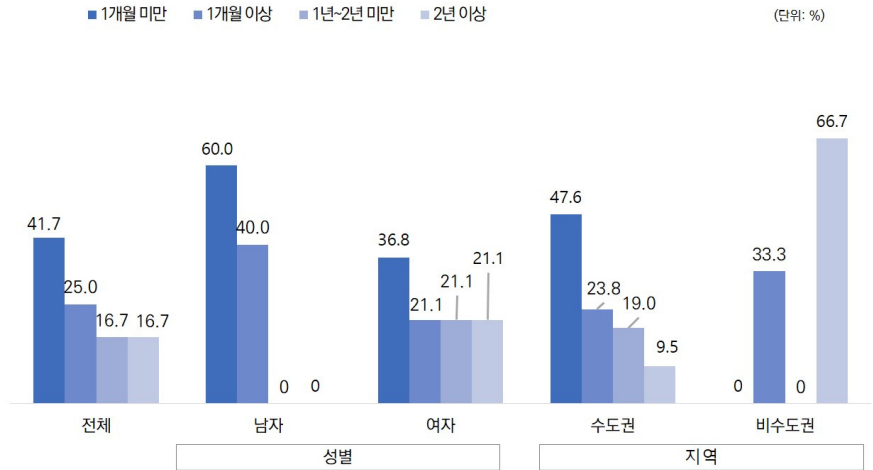


그림 V-42. 교육,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연도별 추이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북한배경청년들이 교육 및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상태가 지속된 기간은 평균 9.7개월이며, 16.7%는 이러한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비수도권 거주 청년의 66.7%는 교육 및 취업을 참여하지 않은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비수도권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반청년들의 경우, 교육 및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기간은 28.9개월로 북한배경청년에 비해 3배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직장이 없는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쉬지 않고 교육이나 취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V-221. 구직활동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72	22.2	77.8
성 별	남	자	23	21.7	78.3
	여	자	49	22.4	77.6
연 령	만 1 9 ~ 2 4 세		37	21.6	78.4
	만 2 5 ~ 2 9 세		18	22.2	77.8
	만 3 0 ~ 3 4 세		17	23.5	76.5
지 역	수 도 권		64	25.0	75.0
	비 수 도 권		8	0.0	10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38	23.7	76.3
	대 졸 이 상		23	26.1	73.9
출 신 지 역	북	한	64	23.4	76.6
	중	국	8	12.5	87.5

* 주: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만 응답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북한배경청년의 22.2%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77.8%는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북한배경청년들은 전혀 구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취업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자유롭게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다만 사례 수가 적기 때문에 과도한 해석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V-222. 지난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상위5위)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전	체	575	51.2	15.6	9.7	5.0	3.7
성 별	남 자	297	64.2	0.0	8.5	5.6	2.9
	여 자	278	37.7	31.6	11.0	4.3	4.4
연 령	만 18~24세	381	70.8	0.4	7.4	1.8	5.2
	만 25~29세	107	25.1	20.5	21.0	17.3	1.5
	만 30~34세	87	1.9	71.5	6.2	3.3	0.0
지 역	수 도 권	266	52.7	16.3	10.4	4.1	3.6
	비 수 도 권	309	49.7	14.8	9.1	5.7	3.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429	66.0	7.2	7.5	1.8	3.7
	대 졸 이 상	146	10.0	38.9	16.0	13.6	3.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지난주 직장을 구해보지 않은 경우만 응답

표 V-223. 지난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상위5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전	체	45	37.8	8.9	8.9	6.7	6.7
성 별	남 자	13	38.5	7.7	15.4	7.7	7.7
	여 자	32	37.5	9.4	6.3	6.3	6.3
연 령	만 19~24세	23	47.8	0.0	13.0	8.7	4.3
	만 25~29세	13	23.1	0.0	7.7	7.7	7.7
	만 30~34세	9	33.3	44.4	0.0	0.0	11.1
지 역	수 도 권	39	43.6	5.1	7.7	5.1	7.7
	비 수 도 권	6	0.0	33.3	16.7	16.7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25	36.0	12.0	12.0	4.0	4.0
	대 졸 이 상	13	23.1	0.0	0.0	15.4	15.4
출 신 지역	북 한	41	36.6	9.8	9.8	7.3	7.3
	중 국	4	50.0	0.0	0.0	0.0	0.0

* 주: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만 응답



그림 V-43. 지난주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상위5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북한배경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재학 (37.8%)이며, 육아, 직업훈련, 여행, 시간 여유가 상위를 차지했다. 일반청년과 마찬가지로 육아나 직업훈련 참여와 같은 이유도 있었지만, 여행이나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라는 응답자도 13.4%를 차지했다. 특히 30~34세의 청년층은 육아나 가사 활동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지만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 중에서도 주로 여성들이 육아나 가사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한에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일을 지속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얻어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비용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맞벌이를 하지만,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취업뿐 아니라 구직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일도 쉽지 않았다.

표 V-224.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전			2,041	35.3	3.0	2.1	59.5
성 별	남	자	1,074	32.5	2.8	2.1	62.6
	여	자	967	38.5	3.2	2.2	56.1
연 령	만 18 ~ 24 세		773	22.5	1.6	1.3	74.6
	만 25 ~ 29 세		668	36.8	3.2	2.3	57.7
	만 30 ~ 34 세		600	49.9	4.6	3.0	42.5
지 역	수도권		1,032	36.7	3.5	2.8	57.0
	비수도권		1,009	33.8	2.4	1.4	62.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31.6	1.6	2.3	64.6
	대졸 이상		1,044	38.9	4.4	2.0	54.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25.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전	체		84	28.6	3.6	4.8	63.1
성 별	남	자	26	26.9	3.8	0.0	69.2
	여	자	58	29.3	3.4	6.9	60.3
연 령	만 19 ~ 24 세		45	22.2	2.2	2.2	73.3
	만 25 ~ 29 세		21	33.3	9.5	0.0	57.1
	만 30 ~ 34 세		18	38.9	0.0	16.7	44.4
지 역	수 도 권		77	31.2	3.9	2.6	62.3
	비 수 도 권		7	0.0	0.0	28.6	71.4
학 력	고 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48	25.0	2.1	6.3	66.7
	대 졸 이 상		25	36.0	4.0	0.0	60.0
출 신 지 역	북 한		75	28.0	4.0	5.3	62.7
	중 국		9	33.3	0.0	0.0	66.7



그림 V-44. 취업 후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취업 후의 퇴사 및 해고 경험 여부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28.6%가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3.6%는 해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퇴사와 해고를 모두 경험한 응답자도 4.8%로 나타났다. 일반청년들의 경우에는 35.3%가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해고 경험은 3.0%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았다. 면담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다.

와이프랑 애한테는 미안하긴 한데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깐 제가 어떻게 방도가 없어요. 일반회사, 저도 원래 4년을 일반회사 다니다가 뭐 회사 관계 이런 거는 나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조금 그때 애도 낳고, 와이프도 일 그만뒀고, 그 수입가지고는 일반회사 수입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걸 아니다 싶다. 때마침 매형도 방금 남 밑에서 일하다가 독립했고, 또 매형도 매형 나름만의 이쪽에서 살아온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반회사도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조금 위험작업이기도 하고 사람들 인식에 그걸 너무 위험한 그런 타이들이 박혀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뭐 상황도 겹치고, 매형도 나도 도와주는 심정이고, 매형도 나를 도와주는 심정으로 같이해보자 해서 같이 했습니다. (사례 9)

그러나 퇴사로 응답했다고 하더라도 퇴사에 이르는 과정이 비자발적인 사례도 있었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스스로 일자리를 그만두기도 했지만, 일부 여성은 원치는 않았지만 고용주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자: 지금 애기 때문에 그 애기 낳으시면서 이제 직장 그만두신 거예요?
 피면접자: 네. 애기 임신해서 일 그만 둔 거예요.
 연구자: 애기 가지셔가지고.
 피면접자: 네. 일 그만두고 식당 일을 한 7개월 동안 7개월까지 일하고 그때.
 연구자: 애기를 갖고.
 피면접자: 네.
 연구자: 애기 가진 상태에서 식당 일 하려면 쉽진 않으셨겠다.
 피면접자: 네. 했어요. 7개월 동안 했어요. 어떻게든 뭐 결혼 자금도 모아야 되니까 그때 결혼하려고 하니까 애가 임신 6개월 거의 7개월쯤에 저희 결혼식 했거든요.
 연구자: 그러셨구나. 결혼할 때까지 하여튼 그 일을 하셨구나.
 피면접자: 지금도 일 하다 못하고 알바 하다가 못하고 알바 하다가 못하고 애가 짹 하면 아프고.
 연구자: 아기 한 만 세 둘 네 둘 그때까지는 쉽지 않아요.
 피면접자: 너무 자주 앓아가지고 좀 가게일 했었는데 사장님도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뜬금하면 애 아프다고 못 나오고 근데 제가 나오고 싶어도 나오고 싶은데 애가 막 열나고 하면 어떻게 나가요. 제가. 그러가지고 병원도 막 입원도 하고 뭐 한데 그러가지고 일단은 그만뒀거든요. (사례 10)

표 V-226. 실업급여 인지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788	82.4	17.6
성 별	남 자	385	81.9	18.1
	여 자	403	83.0	17.0
연 령	만 1 8 ~ 2 4 세	176	72.1	27.9
	만 2 5 ~ 2 9 세	263	82.3	17.7
	만 3 0 ~ 3 4 세	349	88.3	11.7
지 역	수 도 권	419	84.2	15.8
	비 수 도 권	369	80.2	19.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342	74.4	25.6
	대 졸 이 상	446	88.5	11.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

표 V-227. 실업급여 인지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67	44.8	55.2
성 별	남 자	17	58.8	41.2
	여 자	50	40.0	60.0
연 령	만 1 9 ~ 2 4 세	33	30.3	69.7
	만 2 5 ~ 2 9 세	15	53.3	46.7
	만 3 0 ~ 3 4 세	19	63.2	36.8
지 역	수 도 권	60	45.0	55.0
	비 수 도 권	7	42.9	57.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1	39.0	61.0
	대 졸 이 상	18	66.7	33.3
출 신 지 역	북 한	60	28.0	4.0
	중 국	7	33.3	0.0



그림 V-45. 실업급여 인지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북한배경청년들 중에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들은 44.8%로, 일반청년들의 82.4%가 실업급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북한배경청년 중에서도 고졸 및 대학 재학 이하 학력자들의 실업급여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면담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은 실업급여와 같은 복지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취업한 이후에 직장 동료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한다.

연구자: 그럼 그 쉬는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서 수당을 받는대거나 이런 거는 다 하셨어요?
 피면접자: 아니요.
 피면접자: 실업급여. 네, 지금은 아는데 그때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연구자: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와서 그럼 주위 사람한테 듣게 된 거예요? 나중에 직장 다니면서.
 피면접자: 네, 회사 동료들한테서. (사례 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배경청년들은 다른 고용 및 취업 지원 제도를 포함해서 제도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한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배경청년들에게 고용노동 정책이나 지원 정책 등은 당연히 주어지는 정보가 아니라, 학력이나 연령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얻거나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정보이다. 초기 정착 단계에 관련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었다.

표 V-228. 실업급여 수급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652	33.5	66.5
성 별	남	자	315	30.8	69.2
	여	자	337	36.0	64.0
연 령	만 1 8 ~ 2 4 세		127	19.6	80.4
	만 2 5 ~ 2 9 세		220	33.4	66.6
	만 3 0 ~ 3 4 세		305	39.9	60.1
지 역	수 도 권		352	33.4	66.6
	비 수 도 권		300	33.6	66.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257	30.8	69.2
	대 졸 이 상		395	35.2	64.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인지자만 응답

표 V-229. 실업급여 수급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72	6.9	93.1
성 별	남	자	19	15.8	84.2
	여	자	53	3.8	96.2
연 령	만 1 9 ~ 2 4 세		37	2.7	97.3
	만 2 5 ~ 2 9 세		16	6.3	93.8
	만 3 0 ~ 3 4 세		19	15.8	84.2
지 역	수 도 권		66	6.1	93.9
	비 수 도 권		6	16.7	83.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42	7.1	92.9
	대 졸 이 상		20	10.0	90.0
출 신 지 역	북 한		64	7.8	92.2
	중 국		8	0.0	100

설문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 중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6.9%로 나타났다. 일반청년의 경우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는 청년 중에서 33.5%가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이다. 사례 수가 적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V-230.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 사항이 많아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기타
전	체	435	1.2	85.0	3.3	2.1	8.4	0.0
성별	남 자	215	1.4	87.4	3.2	2.0	6.0	0.0
	여 자	220	1.1	82.4	3.3	2.2	10.9	0.1
연령	만18~24세	105	1.8	91.1	1.3	3.6	2.1	0.0
	만25~29세	146	1.2	85.6	1.9	3.0	8.3	0.0
	만30~34세	184	0.8	80.6	5.6	0.4	12.4	0.1
지역	수 도 권	234	1.8	84.4	2.6	1.4	9.8	0.0
	비 수 도 권	201	0.4	85.7	4.2	3.1	6.5	0.1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181	1.7	88.7	1.5	3.3	4.8	0.0
	대 졸 이 상	254	0.9	82.4	4.5	1.3	10.8	0.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퇴사 및 해고 경험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만 응답

표 V-231.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 사항이 많아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기타
전	체	52	21.2	59.6	3.8	3.8	1.9	9.6
성별	남 자	12	8.3	75.0	0.0	8.3	8.3	0.0
	여 자	40	25.0	55.0	5.0	2.5	0.0	12.5
연령	만 19~24세	30	16.7	60.0	3.3	6.7	0.0	13.3
	만 25~29세	11	27.3	63.6	0.0	0.0	0.0	9.1
	만 30~34세	11	27.3	54.5	9.1	0.0	9.1	0.0
지역	수 도 권	49	22.4	59.2	4.1	2.0	2.0	10.2
	비 수 도 권	3	0.0	66.7	0.0	33.3	0.0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32	15.6	59.4	3.1	6.3	0.0	15.6
	대 졸 이 상	12	16.7	75.0	8.3	0.0	0.0	0.0
출신 지역	북 한	45	22.2	60.0	4.4	4.4	2.2	6.7
	중 국	7	14.3	57.1	0.0	0.0	0.0	28.6

* 주: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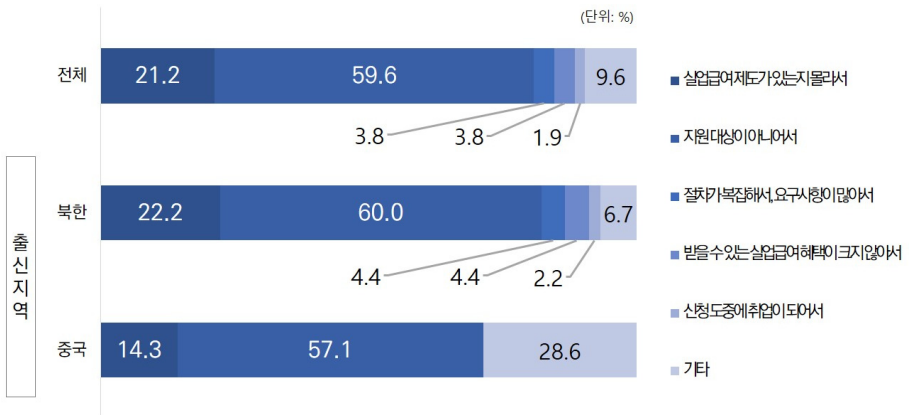


그림 V-46.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북한배경청년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59.6%는 ‘지원대상이 아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자 비율도 21.2%로 나타났다. 일반청년들 중에서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라고 응답한 청년들이 1.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제도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북한배경청년들의 비중은 매우 높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배경청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인지하는 시점은 취업한 이후이며, 주로 동료들 통해 전해 들었다. 이는 실업급여와 같은 복지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주로 직장 내의 인간관계와 같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5. 주거

북한배경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본인 명의의 집 마련 기대 기간, 집에 대한 평상시 생각, 부모 동거 여부. 현재 주거 형태, 주거 비용 마련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232.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미 소유하고 있다	향후 1년 이내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향후 20년 이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전		체 2,041	7.3	0.1	1.5	2.4	6.5	10.7	32.2	21.2	18.1	
성별	남	자 1,074	7.1	0.2	1.1	3.1	6.3	11.2	33.0	22.2	15.9	
	여	자 967	7.5	0.0	1.9	1.7	6.9	10.1	31.3	20.2	20.5	
연령	만 18 ~ 24 세	773	1.0	0.0	0.2	0.5	3.8	9.5	35.1	29.3	20.5	
	만 25 ~ 29 세	668	4.4	0.2	1.8	3.1	7.7	9.7	32.7	20.0	20.4	
	만 30 ~ 34 세	600	18.6	0.1	2.7	4.0	8.7	13.2	27.9	12.4	12.3	
지역	수 도 권	1,032	5.2	0.0	0.9	1.8	4.9	9.9	31.8	23.5	21.9	
	비 수 도 권	1,009	9.8	0.2	2.1	3.1	8.4	11.5	32.6	18.7	13.6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4.0	0.1	0.4	1.4	5.0	10.1	32.7	26.6	19.6	
	대 졸 이 상	1,044	10.5	0.1	2.5	3.4	8.0	11.2	31.8	16.1	16.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33.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이미 소유하고 있다	향후 1년 이내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향후 20년 이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전	체 102	10.8	2.0	2.9	8.8	12.7	15.7	25.5	10.8	10.8
성별	남 자	34	14.7	0.0	0.0	2.9	17.6	14.7	20.6	14.7
	여 자	68	8.8	2.9	4.4	11.8	10.3	16.2	27.9	8.8
연령	만 19~24세	55	9.1	3.6	0.0	5.5	10.9	20.0	23.6	12.7
	만 25~29세	24	8.3	0.0	12.5	16.7	12.5	12.5	25.0	8.3
	만 30~34세	23	17.4	0.0	0.0	8.7	17.4	8.7	30.4	8.7
지역	수 도 권	93	10.8	1.1	3.2	8.6	12.9	17.2	26.9	8.6
	비 수 도 권	9	11.1	11.1	0.0	11.1	11.1	0.0	11.1	33.3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6	10.7	1.8	1.8	8.9	10.7	17.9	21.4	14.3
	대 졸 이 상	30	10.0	0.0	6.7	10.0	13.3	13.3	33.3	6.7
출신 지역	북 한	85	12.9	0.0	3.5	9.4	15.3	14.1	24.7	8.2
	중 국	17	0.0	11.8	0.0	5.9	0.0	23.5	29.4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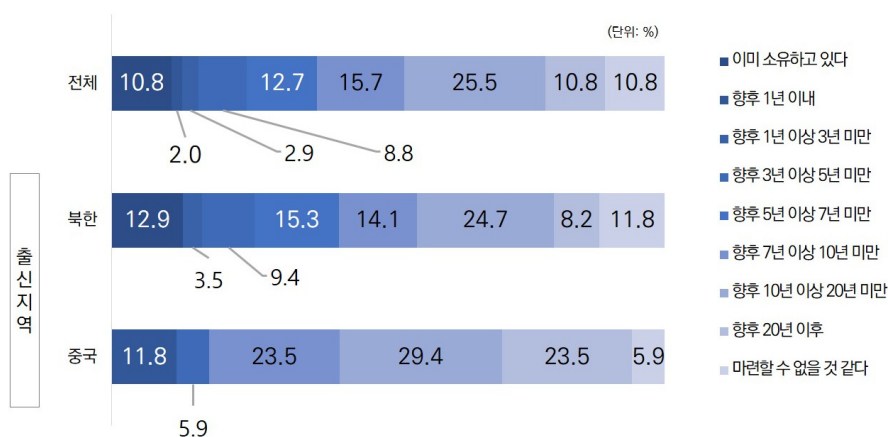


그림 V-47.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일반청년은 본인 명의의 집 마련 예상 시기를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32.2%, ‘향후 20년 이후’ 21.2%,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10.7%,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6.5%,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2.4%,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1.5%, ‘향후 1년 이내’는 0.1%였다. 본인 명의의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답한 경우는 7.3%였다. 연령대별로 만 30~34세(18.6%)가 만 18~24세(1.0%)와 만 25~29세(4.4%)에 비해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한 비율이 높았다. 비수도권(9.8%)이 수도권(5.2%)보다 대졸 이상(10.5%)이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4.0%)보다 주택 보유율이 높았다.

반면 북한배경청년은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25.5%,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15.7%,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12.7%, ‘향후 20년 이후’ 10.8%,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8.8%,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2.9%, ‘향후 1년 이내’는 2.0%로 집계되었다. 본인 명의의 집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10.8%였다. 출신 지역에 따른 주택 소유의 경우 중국 출신 청년이 0.0%라면 북한 출신 청년은 12.9%에 달했다. 그러나 1년 이내 소유 가능성에서 북한 출신이 0.0%라면 중국 출신은 11.8%였다. 또한, 자기 소유의 집을 마련할 수 없으리라는 비관적 인식은 중국(5.9%)보다 북한(11.8%)이 배로 높았다.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율은 북한배경청년(10.8%)이 일반청년(7.3%)보다 3.5%p 높았다. 본인 명의의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기를 10년 미만으로 예상한 경우는 북한배경청년(42.1%)이 일반청년(21.2%)보다 20.9%p 높았다. 반면에 10년 이상을 예상한 경우는 일반청년(53.4%)이 북한배경청년(36.3%)보다 17.1%p 높았다.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 또한 일반청년(18.1%)이 북한배경청년(10.8%)보다 7.3%p 높았다. 전체적으로 일반청년이 북한배경청년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자기 명의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에 훨씬 비관적이었다.

북한배경청년 심층면담에 의하면 결혼하면서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반납하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사는 경우와 주택청약이 당첨되어서 수년 내에 입주가 예정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 소유하게 될지 예상하는 것이 불투명했다. 지원받은 임대아파트가 주요 활동 공간인 학교와 도시가 달라 반납했다가 거주지 불안정을 겪었던 경우 임대아파트 재신청과 주택청약에 번번이 실패했다. 주택청약은 북한배경청년들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청약 관련한 정보가 부재하고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고액의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커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네, 지금 부동산도... 집 분양받으려고 부동산 좀 알아보고 있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사례 4)

부동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고르는지. 집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또...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고, 수수료 없이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집을 했는데 보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까지 보증이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없으니까.(사례 5)

그래서 그때 조금 아쉬웠어요. 그 이후부터 집을 신청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흔히 청약도 되게 많아져 되고 기회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신청을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사례 6)

또 얼마 전에 요렇게 해봐라 해서 했는데 지금도 주택청약도 당첨이 되어서 다행히 지금. (사례 9)

경제적인 그런 것도 일단 지금 제가 일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게 준비는 다 안 되어있고 지금 당장은 아닌데 계속 그 고민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돈을 얼마를 모아야 이사를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지금은 해서 그런 거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사례 15)

표 V-234.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41	1.6	10.6	19.1	52.3	16.5
성 별	남 자	1,074	1.7	10.1	21.5	49.3	17.4
	여 자	967	1.5	11.2	16.3	55.6	15.4
연 령	만 18~24세	773	1.9	12.2	23.4	48.2	14.3
	만 25~29세	668	2.0	10.8	19.0	51.6	16.6
	만 30~34세	600	0.7	8.4	13.6	58.2	19.1
지 역	수 도 권	1,032	1.4	10.9	19.2	54.6	13.8
	비 수 도 권	1,009	1.8	10.2	18.9	49.6	19.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2.1	11.3	22.1	48.5	16.0
	대 졸 이 상	1,044	1.1	9.9	16.2	55.9	16.9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35.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4	3.8	9.6	24.0	30.8	31.7
성 별	남 자		34	11.8	5.9	29.4	26.5	26.5
	여 자		70	0.0	11.4	21.4	32.9	34.3
연 령	만 19~24세		56	5.4	7.1	28.6	30.4	28.6
	만 25~29세		26	3.8	11.5	15.4	19.2	50.0
	만 30~34세		22	0.0	13.6	22.7	45.5	18.2
지 역	수 도 권		96	4.2	9.4	24.0	31.3	31.3
	비 수 도 권		8	0.0	12.5	25.0	25.0	37.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6	3.6	8.9	21.4	33.9	32.1
	대 졸 이 상		31	3.2	9.7	25.8	25.8	35.5
출 신 지 역	북 한		87	4.6	9.2	21.8	31.0	33.3
	중 국		17	0.0	11.8	35.3	29.4	23.5



그림 V-48.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에 대한 생각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질문에 일반청년은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8.8%(‘그렇다’ 52.3%+‘매우 그렇다’ 16.5%)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12.2%(‘그렇지 않다’ 10.6%+‘전혀 그렇지 않다’ 1.6%)에 비해 높았다.

북한배경청년 또한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2.5%(‘그렇다’ 30.8%+‘매우 그렇다’ 31.7%)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 13.4%(‘그렇지 않다’ 9.6%+‘전혀 그렇지 않다’ 3.8%)에 비해 높았다.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여자(67.2%)가 남자(53%)보다 본인 명의의 집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 비율이 높았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양비적 입장은 남자(29.4%)가 여자(21.4%)보다 높았다.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북한배경청년(13.4%)과 일반청년(12.2%)이 대동소이했으나,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일반청년(68.8%)이 북한배경청년(62.5%)보다 6.3%p 높았다.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남한과 북한배경청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보통이다’라고 답한 경우는 북한배경청년(24.0%)이 일반청년(19.1%)보다 4.9%p 높았다.

북한배경청년 심층면담에 의하면 현재 주어진 주거에 만족하기도 하지만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확장하며 주거 개선에 적극적인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거주지 환경과 학군 등을 고려하여 자가 마련의 기준을 정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집값이 걸림돌로 작용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안산에 쪽 살아가지고 일단 제가 산 것이 그쪽이 모든 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뭐 우물 안의 개구리 느낌이라 할까? 서울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 시세나 물가를 봤을 때도 안산 쪽이 그렇게 경기도에서 후지지도 않고 조금 서울보다 물가가 안정이 됐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내가 살기에는 충분하다 싶어서, 안산이 서울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가점, 경쟁률도 굉장히 많고 가점도 많이 없더라고요. 일단 되든, 안 되든 내가 사는 쪽으로 해야 많이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으로 했어요. (사례 9)

살아오니까 그다음부터 열심히 돈 벌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점점 돈 좀 벌면 열심히 살면서 또 큰 집으로 또 가고 또 큰 집에서 또 또 욕심이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전세로 또 넘어가고. (사례 10)

탑 브랜드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알아보고 계속 청약도 넣고 있고, 특별공급 넣고 있는데. 물론 비싼 걸 딱 주고 사면, 이미 나와 있는 걸 사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례 12)

표 V-236.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높은 집값 때문에	자가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를 자주 해야 할 상황이라서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타
전	체	253	55.1	21.6	4.7	3.7	14.4	0.5
성 별	남 자	129	56.3	20.2	5.7	6.1	11.7	0.0
	여 자	124	53.8	22.9	3.8	1.2	17.3	1.0
연 령	만 18 ~ 24 세	110	58.3	17.6	4.3	1.9	17.9	0.0
	만 25 ~ 29 세	86	48.1	26.0	6.4	6.8	11.6	1.1
	만 30 ~ 34 세	57	59.7	22.4	3.0	2.4	12.1	0.4
지 역	수 도 권	132	58.7	22.7	3.8	3.4	10.7	0.7
	비 수 도 권	121	50.7	20.2	5.9	4.0	18.9	0.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138	56.1	21.6	4.5	3.2	14.7	0.0
	대 졸 이 상	115	53.9	21.5	5.1	4.3	14.2	1.0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본인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응답

표 V-237.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높은 집값 때문에	자가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를 자주 해야 할 상황이라서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타
전	체	20	30.0	25.0	5.0	0.0	35.0	5.0
성 별	남 자	8	25.0	25.0	0.0	0.0	37.5	12.5
	여 자	12	33.3	25.0	8.3	0.0	33.3	0.0
연 령	만 19 ~ 24 세	7	14.3	28.6	0.0	0.0	42.9	14.3
	만 25 ~ 29 세	5	40.0	20.0	0.0	0.0	40.0	0.0
	만 30 ~ 34 세	8	37.5	25.0	12.5	0.0	25.0	0.0
지 역	수 도 권	18	27.8	27.8	5.6	0.0	33.3	5.6
	비 수 도 권	2	50.0	0.0	0.0	0.0	5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11	27.3	9.1	9.1	0.0	45.5	9.1
	대 졸 이 상	4	50.0	25.0	0.0	0.0	25.0	0.0
출 신 지 역	북 한	17	35.3	17.6	5.9	0.0	41.2	0.0
	중 국	3	0.0	66.7	0.0	0.0	0.0	33.3

* 주: 내 명의의 집이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그림 V-49.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일반청년이 본인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구체적인 이유는 ‘높은 집값 때문에’ 55.1%, ‘자가 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21.6%,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지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4.4%,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4.7%, ‘이사를 자주 해야 할 상황이라서’ 3.7%로 집계되었다. 높은 집값을 마련하느라 현재의 삶을 희생한다는 의견이 76.7%나 해당했다.

북한배경청년이 본인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구체적인 이유는 ‘높은 집값 때문에’ 30.0%,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지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5.0%, ‘자가 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25.0%,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5.0%였다. 높은 집값을 이유로 든 응답은 여자(33.3%)가 남자(25.0%)보다, 비수도권(50.0%)이 수도권(27.8%)보다, 대졸 이상(50.0%)이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27.3%)보다 높았다. 거주지의 질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자(37.5%)가 여자(33.3%)보다, 비수도권(50.0%)이 수도권(33.3%)보다 높았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북한 출신은 높은 집값에 대한 부담과 거주지의 질을 우선하는 등 여러 항목을 선택했으나 중국 출신은 집 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 선택이 66.7%에 달했다.

본인 명의의 집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집값에 대한 부담감에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일반청년(55.1%)이 북한배경청년(30.0%)보다 배 가까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가 보유보다 거주 의 질이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북한배경청년(35.0%)이 일반청년(14.4%)보다 배 이상 높았다. 또한 일반청년은 이사를 자주 하는 상황을 이유로 든 것이 3.7%였지만, 북한배경청년은 0.0%였다. 기타 의견 또한 북한배경청년(5.0%)이 일반청년(0.5%)보다 4.5%p 높았다. 자가 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과 자가 보유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은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에게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에 높은 집값은 일반청년이 북한배경청년보다 더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거주 의 질은 북한배경청년이 일반청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 심층면담에 의하면, 자가 소유를 은행의 빚이라 생각하여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경제적 여건상 자가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학교와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임대아파트를 반납했다는 사례들은 활동공간이 주거지 선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저도 딱 21살 때 와가지고 집을 받아서 왔는데, 경기... 지방에 받았어요. 그러가지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싶고 그래서 국가에 반납을 하고 바로. (사례 6)

저는 동생이 먼저 와가지고 못 받았어요. 좀 시골 쪽을 받았나 봐요. 여기 충청 쪽인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더 불편하니까 그 집을 빼고 그 보증금으로 월세를 월세로 살고 있더라고요. (사례 10)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 대부분의 사람이 한평생을 바쳐서 집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집을 얻는다고 해도... 물론 어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거나 그래서 그거로 목돈을 마련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내 집을 갖고 싶다라는 순수한 꿈을 위해서는 어쨌든 은행에... 계속 은행에 빚을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거 같아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사례 18)

표 V-238. 내 명의의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자가가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기타
전	체	61	19.7	26.2	21.3	8.2	19.7	4.9
성 별	남 자	17	17.6	35.3	23.5	11.8	11.8	0.0
	여 자	44	20.5	22.7	20.5	6.8	22.7	6.8
연 령	만 19 ~ 24 세	33	6.1	30.3	27.3	9.1	21.2	6.1
	만 25 ~ 29 세	14	35.7	21.4	7.1	7.1	21.4	7.1
	만 30 ~ 34 세	14	35.7	21.4	21.4	7.1	14.3	0.0
지 역	수 도 권	56	17.9	28.6	21.4	8.9	19.6	3.6
	비 수 도 권	5	40.0	0.0	20.0	0.0	20.0	2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35	20.0	22.9	17.1	5.7	28.6	5.7
	대졸 이상	18	22.2	27.8	27.8	11.1	5.6	5.6
출 신 지역	북 한	52	23.1	26.9	19.2	7.7	17.3	5.8
	중 국	9	0.0	22.2	33.3	11.1	33.3	0.0

* 주: 내 명의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2022년 북한배경청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이유는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26.2%,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21.3%,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와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각 19.7%, ‘자가가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8.2%가 나왔다.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다고 답한 경우는 남자(35.3%)가 여자(22.7%)보다, 수도권(28.6%)이 비수도권(0.0%)보다 비율이 높았다. 자가 보유를 자산 증식으로 보는 의견은 대졸 이상(27.8%)이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17.1%)보다 높게, 중국 출신(33.3%)이 북한 출신(19.2%)보다 높았다. 본인 명의의 집이 생기면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다고 응답한 경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 심층면담에 의하면, 현재 일하고 있는 지역이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 집을

사고 싶다는 경우처럼 일터와 거주지가 일치하면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자 했다. 또한 “그냥 보통 사람이 사는 일반 아파트에 살고 싶고 자가로 된 내 집 하나 사고 싶은 게 큰 목표인 거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목표인 거죠”라며 ‘내 집’은 안정된 삶을 상징했다.

표 V-239. 집의 의미-1순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휴식의 공간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나만의 사적인 공간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 주는 공간	기타
전	체	104	28.8	14.4	31.7	21.2	0.0	1.0	1.9	1.0
성 별	남 자	33	39.4	15.2	24.2	12.1	0.0	3.0	3.0	3.0
	여 자	71	23.9	14.1	5.2	25.4	0.0	0.0	1.4	0.0
연 령	만 19 ~ 24 세	56	23.2	14.3	32.1	26.8	0.0	0.0	1.8	1.8
	만 25 ~ 29 세	25	44.0	8.0	32.0	16.0	0.0	0.0	0.0	0.0
	만 30 ~ 34 세	23	26.1	21.7	30.4	13.0	0.0	4.3	4.3	0.0
지 역	수 도 권	96	28.1	14.6	31.3	21.9	0.0	1.0	2.1	1.0
	비 수 도 권	8	37.5	12.5	37.5	0.0	0.0	0.0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7	22.8	12.3	36.7	26.3	0.0	0.0	0.0	1.8
	대 졸 이 상	31	38.7	16.1	25.8	16.1	0.0	3.2	0.0	0.0
출 신 지 역	북 한	89	31.5	14.6	31.5	19.1	0.0	1.1	2.2	0.0
	중 국	15	13.3	13.3	33.3	33.3	0.0	0.0	0.0	6.7

북한배경청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31.7%,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28.8%, ‘나만의 사적인 공간’ 21.2%, ‘휴식의 공간’ 14.4%로 나타났다. 집을 자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공간으로 보는 비율은 매우 낮았으며,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용도로 집을 보는 비율은 0.0%였다.

집의 의미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집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39.4%),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24.2%), 휴식공간(15.2%) 순서로 가치화한다면, 여자는 나만의 사적인 공간(25.4%),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23.9%), 휴식공간(14.1%)을 중시했다. 여자는 사적인 공간의 의미에 가치를 두었고,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V-240. 집의 의미-1+2+3순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휴식의 공간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나만의 사적인 공간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 는 공간	기타
전	체	104	64.8	62.9	72.4	53.3	6.7	15.2	8.6	1.0
성 별	남 자	33	57.6	66.7	72.7	39.4	3.0	15.2	18.2	3.0
	여 자	71	68.1	61.1	72.2	59.7	8.3	15.3	4.2	0.0
연 령	만 19 ~ 24 세	56	61.4	68.4	66.7	57.9	7.0	14.0	8.8	1.0
	만 25 ~ 29 세	25	76.0	52.0	96.0	48.0	4.0	16.0	8.0	0.0
	만 30 ~ 34 세	23	60.9	60.9	60.9	47.8	8.7	17.4	8.7	0.0
지 역	수 도 권	96	64.6	61.5	72.9	53.1	6.3	15.6	9.4	1.0
	비 수 도 권	8	66.7	77.8	66.7	55.6	11.1	11.1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7	62.1	70.7	63.8	62.1	5.2	15.5	6.9	1.7
	대 졸 이 상	31	74.2	61.3	87.1	41.9	6.5	16.1	6.5	0.0
출 신 지 역	북 한	89	64.0	65.2	75.3	52.8	5.6	16.9	9.0	0.0
	중 국	15	68.8	50.0	56.3	56.3	12.5	6.3	6.3	6.3

북한배경청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집의 의미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합산한 응답은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72.4%,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64.8%, ‘휴식의 공간’ 62.9%, ‘나만의 사적인 공간’ 53.3%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 15.2%,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공간’ 8.6%,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 6.7% 등으로 집계되었다.

집의 의미 1순위와 마찬가지로 3순위 합산에서도 여자(59.7%)는 남자(39.4%)보다 ‘나만의 사적 공간’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자(18.2%)는 여자(4.2%)보다 집과 사회적 지위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높았다. 집은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공통적이었지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집은 나만의 사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북한 출신 청년에게 집은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75.3%)이라면, 중국 출신 청년에게 집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68.8%)의 의미가 있다. 또한, 중국 출신 청년(12.5%)은 북한 출신(5.6%)보다 집이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북한배경청년 심층면담에 의하면, 집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집값 상승은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주거비용 때문에 방 하나, 거실 하나가 있는 공간에서 3명이 함께 살게 된 북한배경청년에게 집은 휴식이나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공간이었다. 주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북한배경청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다. 그러나 주거복지가 필요한 청년들을 선정해 기존의 주택과 저렴하게 전세로 계약할 수 있게 지원하는 LH 청년 주택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에서 정착 초기 적응기를 보낼 때 주거 공간을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임대아파트 거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모여 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차별을 만든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는 단독 입국하여 그룹홈이나 대안학교에서 공동생활하다 성인이 되어 지원받은 북한배경청년에게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만족감을 주었다.

(성인남성 3명 공동생활)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니까 눈치도 좀 많이 봐야 되고. 1명이 잘리고 누르면 눈치 보여서 같이 또 자야 되고. 가끔 싸우진 않고 분담을 계속하는데, 제가 청소를 하다가 TV 보고 있으면 많이 짜증 나요.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TV 보고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또 하는데 그 하는 게 너무 건성건성 하게 하니까. 이게 좀 많아... 불화를 일으키기는 싫어서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거죠. (사례 4)

(청년주택) 안 괜찮아요. 그게 제가 한 4년 전에 했었는데 사실은 정말로 시중에서 그 시세보다는 좀 낮은 금액을 정해서 주는 거니까, 집을 찾기가... 거의 보통 반지하 가격. 서울에서 찾는 가격에 그때 제가 8천. 8천만이었거든요. 서울은. 지금은 올라서 1억2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례 6))

누나가 결혼을 안 했고,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쪽에 합가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솔직히, 도망도 많이 했고, 이거 공부를 해야 하나, 어째야 하나, 어머니도 데려와야 하는데 집도 이게 사람이 처음 낯선 땅에 와서 정착부터 자기 집이라는 게 안정이 되어야 될 해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가지고. (사례 9)

휴거. 엘사라고도 부르고. 초등학교생이 그렇게 부르고. LH 산다고. LH 사는 애라고. 네, 그래서 브랜드 단지에서 사냐. 임대아파트 단지에 사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런 문제들이... 물론 극복하고 살 수도 있고. 무조건 브랜드단지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도 이게 너무 한심한 임대 동네에서 살면 초등학교 학군이 섞여 있을 경우 이게 그런 애들은 굉장히 차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 12)

주공아파트라는 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라 하지 집에서 제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거기 이제 국가에서 해준 아파트라고 해요. 동네 보면 저희 어머니와 비슷한 똑같이 북한에서 탈북자 온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집을 보면 조금 막 그렇게 큰 편은 아닌 데 작지도 않은 아파트라고 해요. (사례 14)

이제 또 여러 명이 사는 공동체에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고 점차 지내면서 이제 서로 엄청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장점은 일단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살면 만약에 힘든 상황이라면 이야기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가 이제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또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공동생활이니까 아무래도 맞춰가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단점인 것 같아요. 뭐 그게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취약한 부분들은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무섭고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뭐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았어요. (사례 16)

좀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임대주택에 이렇게 계약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그 북한 출신 분들이 모여 사는 게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들은 그거 게토화 된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 거 같은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휴거증.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거 들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해서 자식이 있다 그러면 탈출하고 싶을지 거 같아요. (사례 18)

다행히 이제 제가 스무 살 넘으니까 집 신청을 그것도 하려고 하니까 또 제가 신청을 할 때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만 20세면 집을 다 줬는데 이제 만 20세가 돼도 집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세인가 24세인가 돼야지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스무 살만 딱 된 애들 되자마자 집 다 주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비도 밀리고 막 이래서 엉망이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나는 난 너무 억울하다 갈 데 없다. 그랬더니 대학교를 갔냐 이러는 거예요. 나 지금 대학교 이제 붙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가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집을 그때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다행히도 그때부터는 이제 저만의 공간을 가지고 생활을 했죠. (사례 20)

표 V-241. 향후 주거 마련 시 중요사항-1순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거 비용	주택 유형	주택 상태	주택 위치	주거 환경	향후 주택 가격 변화	기타	
전		체	105	54.3	12.4	3.8	13.3	10.5	4.8	1.0
성 별	남	자	33	57.6	15.2	3.0	9.1	6.1	6.1	3.0
	여	자	72	52.8	11.1	4.2	15.3	12.5	4.2	0.0
연 령	만 1 9 ~ 2 4 세		57	52.6	8.8	7.0	10.5	14.0	5.3	1.8
	만 2 5 ~ 2 9 세		25	52.0	16.0	0	24.0	8.0	0.0	0.0
	만 3 0 ~ 3 4 세		23	60.9	17.4	0.0	8.7	4.3	8.7	0.0
지 역	수 도 권		96	53.1	12.5	4.2	12.5	11.5	5.2	1.0
	비 수 도 권		9	66.7	11.1	0.0	22.2	0.0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8	51.7	10.3	5.2	15.5	12.1	3.4	1.7
	대 졸 이 상		31	67.7	16.1	3.2	9.7	0.0	3.2	0.0
출 신 지 역	북	한	89	57.3	13.5	3.4	13.5	6.7	5.6	0.0
	중	국	16	37.5	6.3	6.3	12.5	31.3	0.0	6.3

북한배경청년이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주거비용’ 54.3%, ‘주택위치’ 13.3%, ‘주택유형’ 12.4%, ‘주거환경’ 10.5%로 집계되었다. 주거 마련에 있어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을 포함한 주거비용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과 학교 거리, 부모님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주택위치는 여자(15.3%)가 남자(9.1%)보다 더 많이 고려했다. 연령대별로는 만 25~29세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비수도권(22.2)이 수도권(12.5%)보다 높았다. 아파트, 다세대 또는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 주택유형은 북한 출신(13.5%)이 중국 출신(6.3%)보다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2. 향후 주거 마련 시 중요사항-1+2+3순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거 비용	주택 유형	주택 상태	주택 위치	주거 환경	향후 주택 가격 변화	기타
전	체	105	78.1	39.0	26.7	57.1	61.9	24.8	1.0
성 별	남 자	33	72.7	45.5	21.2	54.6	57.6	27.3	3.0
	여 자	72	80.6	36.1	29.2	58.3	63.9	23.6	0.0
연 령	만 19 ~ 24 세	57	77.2	42.1	31.6	56.1	70.2	17.5	1.8
	만 25 ~ 29 세	25	80.0	28.0	24.0	64.0	56.0	32.0	0.0
	만 30 ~ 34 세	23	78.3	43.5	17.4	52.2	47.8	34.8	0.0
지 역	수 도 권	96	77.1	36.5	28.1	56.3	63.5	25.0	1.0
	비 수 도 권	9	88.9	66.7	11.1	66.7	44.4	22.2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8	75.9	41.4	32.8	56.9	67.2	17.2	1.7
	대 졸 이 상	31	93.5	38.7	19.4	54.8	58.1	29.0	0.0
출 신 지 역	북 한	89	78.7	36.0	25.8	58.4	60.7	29.2	0.0
	중 국	16	56.3	31.3	50.0	68.8	0.0	0.0	0.0

북한배경청년이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1, 2, 3순위 합산은 ‘주거비용’ 78.1%, ‘주거환경’ 61.9%, ‘주택위치’ 57.1%, ‘주택유형’ 39.0%, ‘주택상태’ 26.7%, ‘향후 주택가격 변화’ 24.8%로 집계되었다. 1~3순위 합산에서도 주거비용은 1순위 고려사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주거환경’은 1순위 비율에서 네 번째 (10.5%) 고려사항이었지만, 1~3순위 합산에서 두 번째(61.9%)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주거 마련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주거비용을 1순위로 꼽았으나, 주변의 문화적 인프라와 같은 주거환경을 비롯해 활동 거점과 관련된 주택 위치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북한배경청년 심층면담에 의하면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 주거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주거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로 얻을 수 있는 집은 지은 지 오래되어 “폐가 수준”으로 낡았고, “지붕에서 비가 새”고 “집 자체가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처음에 딱 이사를 했을 때 있었던 것”처럼 열악한 수준이었다. “운 좋아서 얻으면 아마 반지하”인 것은 주거비용이 거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비용 때문에 평수가 좁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내에서 좀 더 넓은 곳을 선호했다. 주거비용 다음으로 주거에 고려하는 요소는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얼마나 좋느냐와 같은 주거환경, 학교나 직장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주택위치 등이었다.

그 집이 완전 폐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계약했는데 완전... 집에서 맨날 쥐가 나오고. 그런데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일제시대에 지은 집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마침 대림동 고시촌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LH예요. 그런데 LH에서 지원한 그 금액에 그 정도 평수의 집은 다 그런 집이라 하더라고요. (...) 이번에 2학기부터는 저도 LH 그거 지원해서 학교 근처에서 살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학교 근처에 운 좋으면 얻을 수 있는데. 네, 운 좋아서 얻으면 아마 반지하나. (사례 2)

환경적인 부분에서 일단 집이 좀만 더 컸으면 좋겠고. 지금 계약조건에는 5평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4평? 4평도 안 되는 거 같으니까. 네, 집이 너무 작으니까. 7평 정도면 만족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집이 크면은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가니까, 오히려 그거는 더 부담될 거 같아요. 혼자 사는 거는 굳이 그렇게 큰집이 아니라도 필요 없으니까. (사례 3)

저희가 조금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사골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한 한두 시간쯤 사료 막 역한 냄새는 아닌데 살짝 그 공이란 뭐 섞은 그런 고소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냄새가 한 두세 시간씩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싫고 그리고 시내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막 마음대로 마트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 드나들 수가 없어요. 그냥 신랑이 다 차 운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싫고 그런 부분이 싫은 것 같아요. (사례 11)

신혼부부 그런 것도 예비신혼부부 이런 것도 넣어봤었는데. 정말 극과 극이에요. 인기 있는 데는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말 이상한데 산속 가운데다 지어놓고 너무 출퇴근 거리 멀고 이런 거 있고 해가지고 협지가 많은 거 같아요. (사례 12)

저는 자취를 하고 싶는데 보니까 월세 돈이 안타깝더라고요. 낼 수는 있는데 그지 뭐라 하지 옆에 서로 들은 거 보면 월세방은, 월세방보다는 전세방이 좋다. (사례 14)

지붕에서 비가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최근은 그랬었고, 그전에는 그 집 자체가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처음에 딱 이사를 했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걸리고 신경 쓰이고 그런 것 같아요. (...) 지금 제가 5평인데 10평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작아서 크기가 조금 큰 집으로 가고 싶고 지금처럼 지붕에 비가 샌다거나 이런 걸 빨리 해결하고 싶고 다른 집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 15)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나서 신청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때 신청을 했는데 9월에 나왔고. 근데 이제 집에 그 집의 단점이 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학교랑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널널하게 다니려면 이제 편도만 2시간을 거의 잡아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지하철만 타는 게 이제 1시간이구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집에서 나오고 학교 도착하기까지 이제 1시간 반인데 좀 더 널널하게 나오려면 한 2시간 가까이 나와야 돼요. (사례 16)

표 V-243. 부모 동거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같이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
전		체	2,041	62.2	4.0	33.8
성 별	남	자	1,074	64.2	4.2	31.5
	여	자	967	59.9	3.8	36.3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84.2	6.0	9.7
	만 2 5 ~ 2 9 세		668	64.1	3.7	32.3
	만 3 0 ~ 3 4 세		600	32.3	1.9	65.8
지 역	수 도 권		1,032	64.1	2.8	33.1
	비 수 도 권		1,009	60.0	5.5	34.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71.4	4.8	23.8
	대 졸 이 상		1,044	53.4	3.2	43.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44. 부모 동거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현재 같이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
전		체	101	39.6	22.8	37.6
성 별	남	자	34	41.2	23.5	35.3
	여	자	67	38.8	22.4	38.8
연 령	만 1 9 ~ 2 4 세		55	49.1	27.3	23.6
	만 2 5 ~ 2 9 세		23	34.8	26.1	39.1
	만 3 0 ~ 3 4 세		22	18.2	9.1	72.7
지 역	수 도 권		92	40.2	20.7	39.1
	비 수 도 권		8	25.0	50.0	25.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6	41.1	25.0	33.9
	대 졸 이 상		30	36.7	16.7	46.7
출 신 지역	북	한	85	31.8	25.9	42.4
	중	국	15	80.0	6.7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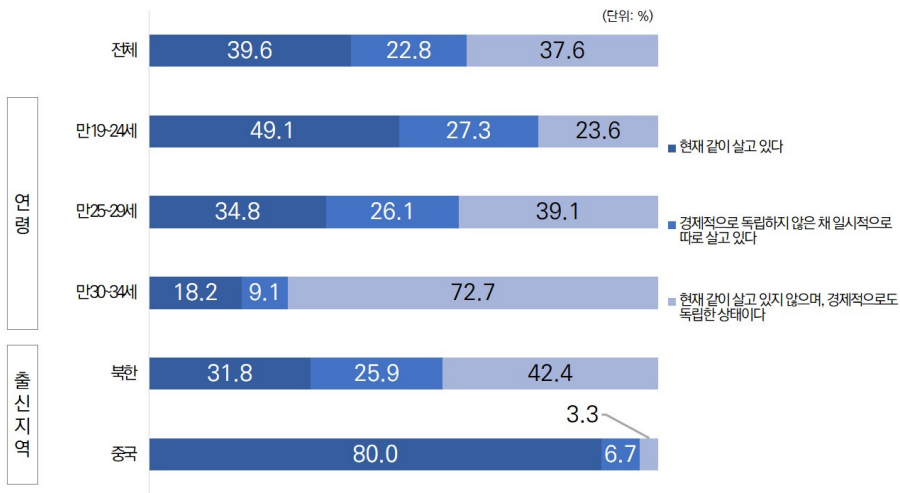


그림 V-50. 부모 동거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일반청년은 부모 동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 같이 살고 있다’ 62.2%,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다’ 33.8%,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4.0%로 나타났다.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만 18~24세 9.7%, 만 25~29세 32.3%, 만 30~34세 65.8%), 대졸 이상(43.3%)이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23.8%)보다 높았다. 만 18~24세는 84.2%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만 30~34세는 65.8%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가족과 공동 생활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교를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한 나이가 될수록 분가와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다.

반면 북한배경청년은 부모 동거 여부에 대해 ‘현재 같이 살고 있다’ 39.6%,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다’ 37.6%,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22.8%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만 18~24세 49.1%, 만 25~29세 34.8%, 만 30~34세 18.2%)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만 18~24세 23.6%, 만 25~29세 39.1%, 만 30~34세 72.7%) 분가와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중국 출신(80.0%)이 북한 출신(31.8%)보다 높은 비율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일반청년(62.2%)이 북한배경청년(39.6%)보다 22.6%p 높았고, 경제적 독립 없이 일시적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는 비율은 북한배경청년(22.8%)이 일반청년(4.0%)보다 높았다. 북한배경청년이 일반청년보다 분가와 경제적 독립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의 심층면담에 의하면,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단순히 함께 사느냐 살지 않느냐로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단독 입국한 경우는 경제적 자립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부모와 비동거 상태에 놓인다. 부모 없이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에도 부모와 비동거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입국한 형제자매가 미혼일 때에는 주거 지원 없이 단일 가구로 구성되면서 동거가족이 있는 유형이 된다. 전체적으로 입국 당시부터 가족과 다 함께 온 경우보다 부모가 먼저 온 후 차후에 합류하거나, 어머니하고만 들어왔거나, 어머니가 먼저 들어와 순차 입국하는 등 한부모 가족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입국 유형이 존재한다. 특히 중국 출신 청년은 어머니가 중국인 아버지를 초대하여 가구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가정폭력을 이유로 어머니만 입국하여 가족이 분리되기도 했다. 단독 입국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부모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서 일시적으로 분가할 때는 학교나 직장이 먼 것이 이유로 작용했다. 경제적 자립이 주거독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탈북과 중국 체류, 입국 과정에서 가족과의 분리 기간이 길어서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해 오히려 따로 나와 살거나, 가족 모두가 각자 단독 거주하기도 했다.

집에서 다녔어요. 엄마랑 같이. 원래는 직장... 이게 서울에 있으니까 아침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따로 나왔어요. (사례 1)

저도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어머니는 지방에 계시거든요. (사례 2)

저는 딱 하나원에서 나올 때 미성년자여가지고요. 엄마 따라 같이 살다가 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회사 근처에 숙소를 잡았거든요. (사례 2)

18평. 저는 작은 방 쓰고 어머니, 아버지 큰 방 쓰시고. 지금은 천안이라서 천안에서 자취하고 있거든요. (사례 5)

저는 여명학교에 있을 때는 엄마랑 거의 안 살았어요. 그냥 주말에 내려가도 그 여차피 일요일에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엄마랑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이에요. 2년 동안 엄마랑 붙어서. (...) 친구도 서울에 너 자취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그래서 나도 같이 방세 월세 같이 내면서 거기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냥 지금 좀 많이 편해졌어요. (사례 8)

그런데 평생동안 같이 살 수는 없어가지고, (...) 원룸이면 지금도 나갈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월세 나가는 돈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돈 좀 모아서 전세방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이예요. (사례 14)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데 LH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 청년 전세 그게 있어서 그걸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사례 15)

집이 좀 좁긴 하지만, 저희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어서. 공항에 다닐 때는 자취를 하다가 무역회사를 들어가면서. 회사가 하남시예요. 집이 송파구여서 가까워서 본가로 들어간 거예요. 회사가 공항이면 너무 머니까 집에서. 그 앞에서 자취를 했어요. (사례 21)

표 V-245. 미혼 독립 거주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61	72.1	27.9
성 별	남 자	18	77.8	22.2
	여 자	43	69.8	30.2
연 령	만 1 9 ~ 2 4 세	26	84.6	15.4
	만 2 5 ~ 2 9 세	16	68.8	31.3
	만 3 0 ~ 3 4 세	18	61.1	38.9
지 역	수 도 권	54	72.2	27.8
	비 수 도 권	6	83.3	1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36	75.0	25.0
	대 졸 이 상	18	66.7	33.3
출 신 지 역	북 한	56	75.0	25.0
	중 국	4	50.0	50.0

* 주: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북한배경청년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냐는 질문에 ‘예’ 72.1%, ‘아니오’ 27.9%가 나왔다. 연령대가 낮을수록(만 19~24세 84.6%, 만 25~29세 68.8%, 만 30~34세 61.1%) 미혼 독립 거주자가 많았다. 가족과 함께 입국한 북한배경청년은 경제적 자립과 별도로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기도 하지만, 단독 입국한 무연고 미성년이 성년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과 관련되어 있다.

표 V-246. 주거 형태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원룸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단독주택	기타
전	체	835	13.4	46.7	25.3	4.4	0.2	0.1	9.0	0.8
성 별	남 자	417	15.9	46.2	24.6	3.9	0.4	0.2	8.0	0.8
	여 자	418	10.9	47.3	25.9	4.9	0.1	0.0	10.0	0.8
연 령	만 18 ~ 24 세	146	32.7	38.1	15.1	8.8	1.5	0.0	3.7	0.0
	만 25 ~ 29 세	274	17.7	37.7	30.9	4.0	0.0	0.3	9.1	0.3
	만 30 ~ 34 세	415	5.2	54.5	25.0	3.4	0.0	0.0	10.5	1.3
지 역	수 도 권	407	4.9	46.0	35.3	7.6	0.1	0.0	5.0	1.2
	비 수 도 권	428	22.3	47.5	14.9	1.1	0.4	0.2	13.2	0.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314	20.1	43.1	21.9	4.3	0.7	0.0	9.1	0.8
	대 졸 이 상	521	9.5	48.9	27.3	4.5	0.0	0.1	9.0	0.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비동거, 독립 상태인 경우에만 응답

표 V-247. 주거 형태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원룸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 스텔	하숙	기숙사	고시원	단독 주택	기타
전	체	105	15.2	61.9	10.5	2.9	1.0	4.8	1.9	1.0	1.0
성 별	남 자	35	17.1	57.1	8.6	5.7	2.9	2.9	2.9	2.9	0.0
	여 자	70	14.3	64.3	11.4	1.4	0.0	5.7	1.4	0.0	1.4
연 령	만 19 ~ 24 세	56	23.2	57.1	5.4	3.6	1.8	5.4	1.8	1.8	0.0
	만 25 ~ 29 세	26	3.8	65.4	19.2	3.8	0.0	3.8	0.0	0.0	3.8
	만 30 ~ 34 세	22	9.1	68.2	13.6	0.0	0.0	4.5	4.5	0.0	0.0
지 역	수 도 권	95	14.7	63.2	10.5	2.1	1.1	4.2	2.1	1.1	1.1
	비 수 도 권	9	22.2	44.4	11.1	11.1	0.0	11.1	0.0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9	18.6	64.4	5.1	1.7	1.7	6.8	0.0	0.0	1.7
	대 졸 이 상	31	9.7	64.5	22.6	0.0	0.0	0.0	3.2	0.0	0.0
출 신 지 역	북 한	88	15.9	63.6	12.5	2.3	0.0	3.4	1.1	0.0	1.1
	중 국	16	12.5	50.0	0.0	6.3	6.3	12.5	6.3	6.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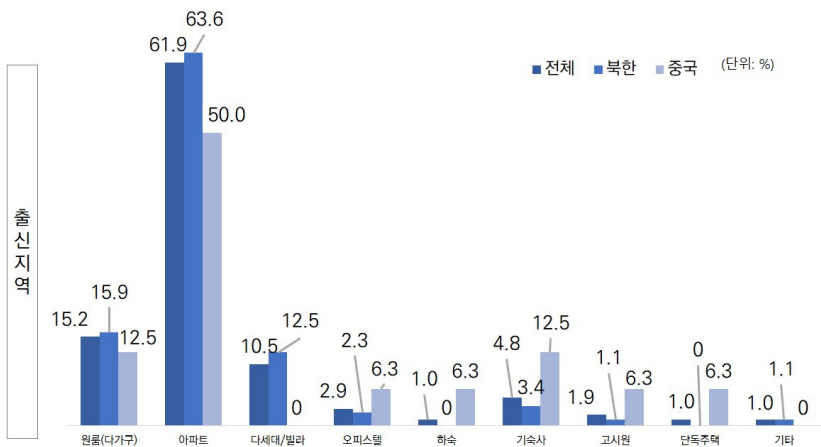


그림 V-51. 주거 형태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일반청년의 비동거, 독립 상태의 주거형태는 ‘아파트’ 46.7%, ‘다세대/빌라’ 25.3%, ‘원룸(다가구)’ 13.4%, ‘단독주택’ 9.0%, ‘오피스텔’ 4.4% 순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기숙사’(0.2%)와 ‘고시원’(0.1%)은 매우 적은 비율이었다. ‘아파트’는 미혼 가구의 주된 주거형태이며, ‘다세대/빌라와 원룸(다가구)’가 뒤를 잇고 있다. ‘기숙사’는 만 18~24세(1.5%),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0.7%)에서 산출되었다. ‘단독주택’은 비수도권(13.2%)이 수도권(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다세대/빌라’(35.3%)가 ‘원룸(다가구)’(4.9%)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면, 비수도권은 ‘원룸(다가구)’(22.3%)가 ‘다세대/빌라’(14.9%)보다 높았다.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현재의 주거형태는 ‘아파트’ 61.9%, ‘원룸(다가구)’ 15.2%, ‘다세대/빌라’ 10.5%, ‘기숙사’ 4.8%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 외 주거형태는 ‘오피스텔’ 2.9%, ‘고시원’ 1.9%, ‘하숙’ 1.0%, ‘단독주택’ 1.0% 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 가장 많으며 ‘원룸(다가구)’과 ‘다세대/빌라’가 그 뒤를 이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만 19~24세는 ‘원룸’이, 만 25~29세와 만 30~34세는 ‘다세대/빌라’ 주거형태 비율이 더 높았으나, ‘기숙사’는 전 연령대에 골고루 나타났으며,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은 ‘기숙사’(6.8%)가 ‘다세대/빌라’(5.1%)보다 높았다. 또한, 북한 출신은 ‘아파트’(63.6%) 다음으로 ‘원룸’(15.9%)과 ‘다세대/빌라’(12.5%)가 뒤를 이었으나, 중국 출신은 ‘아파트’(50.0%) 다음으로 ‘원룸’

(12.5%)과 ‘기숙사’(12.5%)가 높았다. 중국 출신은 북한 출신보다 ‘기숙사’, ‘고시원’, ‘하숙’, ‘단독주택’ 등에서 지내는 비율이 높았다.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아파트’ 주거형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일반청년이 ‘다세대/빌라’가 ‘원룸’보다 비율이 높았다면, 북한배경청년은 ‘원룸’이 ‘다세대/빌라’보다 높았다. ‘단독주택’은 일반청년(9.0%)이 북한배경청년(1.0%)보다 높았고, ‘오피스텔’도 일반청년(4.4%)이 북한배경청년(2.9%)보다 높았다. ‘기숙사’는 북한배경청년(4.8%)이 일반청년(0.2%)보다 높았다.

북한배경청년 심층면담에 의하면, 주거형태는 ‘아파트’ 외에 ‘원룸’, ‘빌라’, ‘주택’, ‘기숙사’ 등으로 다양했다. 정착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는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이었지만, 북한배경청년들은 개인의 생활 여건과 행동반경에 따라 주거를 이동했다. 주거비용을 줄이느라 작은 평수의 집을 빌려 여럿이 함께 살고, 셰어하우스나 그룹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LH의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독립했다. 때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오피스텔에서 사는 경우도 있었다.

제 집이 아니고 저랑 같이 온 형 집이거든요. 그 형이 지금 1년 동안 지방에 내려가 계셔서 제가 그냥 살고 있어요. 관리비 형이 다 내고 있어요. (사례 2)

3분의 1씩 분담해서. 거실 하나, 방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사례 4)

거주는 제가 다양하게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할머니랑 같이 와서 할머니... 평택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같이 지냈다가 그 이후에 저도 자취를 해야 돼가지고 그런 거를 대학생 LH 전세 임대 그거를 돼가지고 그거로 살다가, 또 월세도 살다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경험했는데 일단은 주거가 제일... 남한 삶이나 북한 삶이나 출신 떠나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주거인 거 같아요. (사례 5)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싶고 그래서 국가에 반납을 하고 바로. 그리고 집을 알아봤는데 월셋집을 찾아서 살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을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하루에 한 5시간씩 알바를 하면서 알바비로 월세를 내다가 한 8개월 혼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학업이랑 병행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재단... 열매나눔재단이라고 했나. 그쪽에 연결을 받아서 센터 그룹홈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근처에 대출 받아가지고 학교 근처에 집을 잡아서 지금까지 쪽 살고. (사례 6)

미국 교포들이 많았어요. 셰어하우스가 교회 자체가 교포분이 운영하시는 교회이시다 보니까. (...) 졸업하면서 LH 전세 신청도 해보고 그게 돼서 그냥 나왔어요. (사례 15)

그룹홈이라고도 부르고 쉼터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사례 16)

저는 크게 주거 때문에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저는 여건이 뭐 괜찮았죠. 주변 보면은 친구들 보면은 옥탑방 같은데 살고. 그런 거 보면은 임대아파트도 좋구나. 혼자 살긴 괜찮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 같아요. (사례 18)

숙소예요. 회사 숙소.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돼요. 가스비 그런 거 상관없이. 에어컨 땡땡하게 틀고. 오피스텔 같은데요. 되게 편해요. (사례 19)

다행히 이제 제가 스무 살 넘으니까 집 신청을 그것도 하려고 하니까 또 제가 신청을 할 때 갑자기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만 20세면 집을 다 줬는데 이제 만 20세가 돼도 집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세인가 24세인가 돼야지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스무 살만 딱 된 애들 되자마자 집 다 주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비도 밀리고 막 이래서 엉망이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나는 난 너무 억울하다 갈 데 없다. 그랬더니 대학교를 갔냐 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대학교 이제 붙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교를 가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집을 그때 받았어요. (사례 20)

표 V-248. 현재 거주지 주택의 점유형태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	무상
전	체	835	20.0	38.2	35.7	1.0	0.9	4.3
성 별	남 자	417	19.0	34.9	39.1	1.2	0.9	5.0
	여 자	418	21.0	41.5	32.3	0.8	0.9	3.5
연 령	만18~24세	146	9.1	17.0	61.7	3.2	0.7	8.3
	만25~29세	274	10.6	34.7	46.6	0.6	2.0	5.6
	만30~34세	415	28.7	46.5	21.7	0.6	0.3	2.3
지 역	수 도 권	407	15.6	47.3	34.9	0.4	0.0	1.7
	비 수 도 권	428	24.5	28.8	36.5	1.7	1.8	6.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314	16.3	32.5	43.3	1.6	0.7	5.7
	대 졸 이 상	521	22.1	41.5	31.2	0.7	1.0	3.4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비동거, 독립 상태인 경우에만 응답

표 V-249. 현재 거주지 주택의 점유형태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임대주택 포함)	보증금이 없는 월세	사글세, 연세, 일세 등	무상
전 체		104	3.8	19.2	71.2	2.9	0.0	2.9
성 별	남 자	33	0.0	33.3	60.6	3.0	0.0	3.0
	여 자	71	5.6	12.7	76.1	2.8	0.0	2.8
연 령	만19~24세	55	5.5	18.2	67.3	3.6	0.0	5.5
	만25~29세	25	4.0	16.0	76.0	4.0	0.0	0.0
	만30~34세	23	0.0	21.7	78.3	0.0	0.0	0.0
지 역	수 도 권	95	4.2	17.9	71.6	3.2	0.0	3.2
	비 수 도 권	8	0.0	25.0	75.0	0.0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8	6.9	19.0	69.0	1.7	0.0	3.4
	대졸 이상	31	0.0	25.8	71.0	3.2	0.0	0.0
출 신 지역	북 한	87	1.1	19.5	74.7	2.3	0.0	2.3
	중 국	16	18.8	12.5	56.3	6.3	0.0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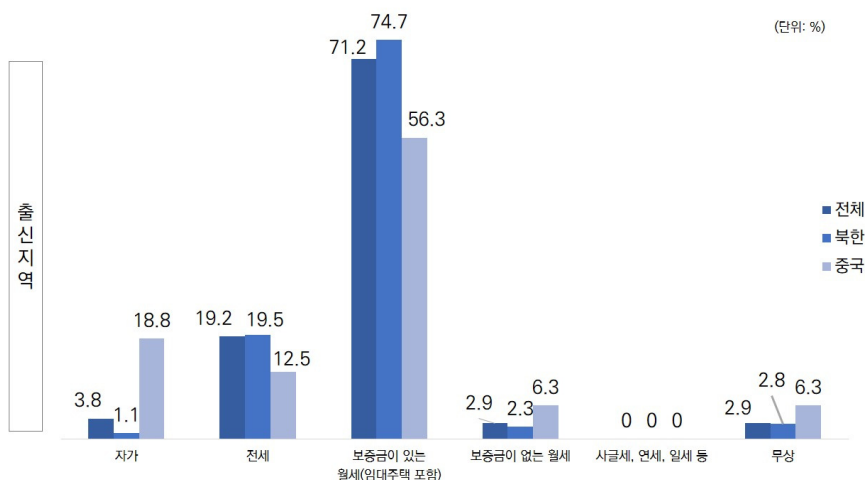


그림 V-52. 현재 거주지 주택의 점유형태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일반청년의 경우 부모와 비동거, 독립 상태에서 사는 거주지의 점유형태는 ‘전세’ 38.2%, ‘보증금 있는 월세’ 35.7%, ‘자가’ 20.0% 순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만 18~24세 61.7%, 만 25~29세 46.6%, 만 30~34세 21.7%)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세’(만 18~24세 17.0%, 만 25~29세 34.7%, 만 30~34세 46.5%)와 ‘자가’(만 18~24세 9.1%, 만 25~29세 10.6%, 만 30~34세 28.7%) 비율이 높았다. ‘무상’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만 18~24세 8.3%, 만 25~29세 5.6%, 만 30~34세 2.3%), 비수도권(6.8%)이 수도권(1.7%)보다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은 ‘보증금 있는 월세(43.4%)’가 ‘전세(32.5%)’보다 높았다면, 대졸 이상은 ‘전세(41.5%)’가 ‘보증금 있는 월세(31.2%)’보다 높았다.

북한배경청년의 거주지 점유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 71.2%, ‘전세’ 19.2%, ‘자가’ 3.8%, ‘보증금 없는 월세’와 ‘무상’이 각각 2.9% 순으로 집계되었다. 임대주택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증금 있는 월세 점유형태가 가장 높았다.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북한 출신(74.7%)이 중국 출신(56.3%)보다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높았으나, 자가 비율은 중국 출신(18.8%)이 북한 출신(1.1%)보다 높았다. 보증금 없는 월세와 무상 점유형태는 각각 중국 출신(6.3%)이 북한 출신(2.3%)보다 높았다.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일반청년은 전세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북한배경청년은 임대주택을 포함한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가는 일반청년(20.0%)이 북한배경청년(3.8%)보다 높았다.

북한배경청년 심층면담에 의하면, 자가는 거의 없었는데 있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였거나 대부분이 월세로 살고 있었다. 또한 LH 전세 지원을 받더라도 다음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면 반납하는 구조여서 전세 비용을 온전히 보유한 경우는 적었다. 취업한 북한배경청년 몇몇은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거나, 회사가 제공해준 오피스텔에 최소한의 비용을 내며 지냈다.

저는 그냥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고요. 일반 월세 원룸에서 살고 있고. 올해는 친구랑 같이 7월까지도 같이 살기로 해가지고 돈 조금 적게 나가고.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월급이랑 엄마는 무조건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괜찮게 같아요. 점심은 학교에서 다 먹고 있으니까. (사례 1)

제 집이 아니고 저랑 같이 온 형 집이거든요. 그 형이 지금 1년 동안 지방에 내려가 계셔서 제가 그냥 살고 있어요. 관리비 형이 다 내고 있어요. (사례 2)

혼자 잡으려고 하니깐 그 세금아... 월세가 너무 크더라고요. 지금 관리비까지 합치면 거의 60 조금 넘을까... 그래서 혼자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쪽에 있는 아시는 분들 세 명에서 같이 월세를 같이 내면서 살고 있어요. (사례 4)

대학생 LH 전세 임대 그거를 돼가지고 그거로 살다가, 또 월세도 살다가. (사례 5)

한국에 나와서도 저도 누나가 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집을 못 받았어요. 동생이 먼저 여자 동생이 나와 있었는데 동생이 먼저 집을 받고 그 여동생도 독신이고 하니깐 그쪽에 합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같은 케이스도 진짜 드물어요. 집 둘 다 없이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일반 월세 들어가 살고 이런 케이스가 드물어요. (...) 부동산 한 번 가봤는데 다행히 지금 살고있는 집이 제가 4년째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집주인도 괜찮고 주변 시세보다 괜찮고 해서 쪽 놀러앉아서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례 9)

나오자마자 현재까지 돈은 없으니까 돈 좀 벌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리고 한 달 동안 동생 집에 한 달 동안밖에 안 살았어요. (...) 지금은 전세 살고 있어요. 18평짜리. (사례 10)

신랑의 자가 소유 집. 32평. (사례 11)

여기 3개월만 지내는 집을 새로 아파트를 하나 해줬어요. (사례 13)

제가 원룸 아니고 적어도 두 명 정도 살 수 있는 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원룸이면 지금도 나갈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월세 나가는 돈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돈 좀 모아서 전세방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이예요. (사례 14)

숙소예요. 회사 숙소.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돼요. 가스비 그런 거 상관없이. 에어컨 땡땡하게 틀고. 오피스텔 같은데요. 되게 편해요. (사례 19)

표 V-250. 주거 비용 마련 방법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부 본인 스스로	본인 대부분 마련,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 본인 일부 도움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전	체	835	43.1	24.1	15.7	17.1
성 별	남	417	48.0	23.6	13.2	15.2
	여	418	38.2	24.5	18.2	19.0
연 령	만 18 ~ 24 세	146	38.1	12.8	10.9	38.2
	만 25 ~ 29 세	274	44.9	20.2	14.5	20.3
	만 30 ~ 34 세	415	43.5	29.6	17.8	9.0
지 역	수도권	407	37.1	33.7	15.6	13.5
	비수도권	428	49.3	14.1	15.8	20.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314	47.9	15.7	11.1	25.3
	대졸 이상	521	40.3	29.0	18.4	12.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현재 비동거, 독립 상태인 경우에만 응답

표 V-251. 주거 비용 마련 방법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부 본인 스스로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 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기타
전	체	97	33.0	3.1	10.3	32.0	21.6
성 별	남 자	31	35.5	3.2	16.1	25.8	19.4
	여 자	66	31.8	3.0	7.6	34.8	22.7
연 령	만 19~24세	52	21.2	1.9	13.5	44.2	19.2
	만 25~29세	22	36.4	0.0	9.1	27.3	27.3
	만 30~34세	23	56.5	8.7	4.3	8.7	21.7
지 역	수 도 권	88	34.1	3.4	11.4	33.0	18.2
	비 수 도 권	9	22.2	0.0	0.0	22.2	55.6
학 령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5	32.7	1.8	9.1	34.5	21.8
	대 졸 이 상	29	34.5	6.9	6.9	31.0	20.7
출 신 지역	북 한	81	38.3	3.7	9.9	23.5	24.7
	중 국	16	6.3	0.0	12.5	75.0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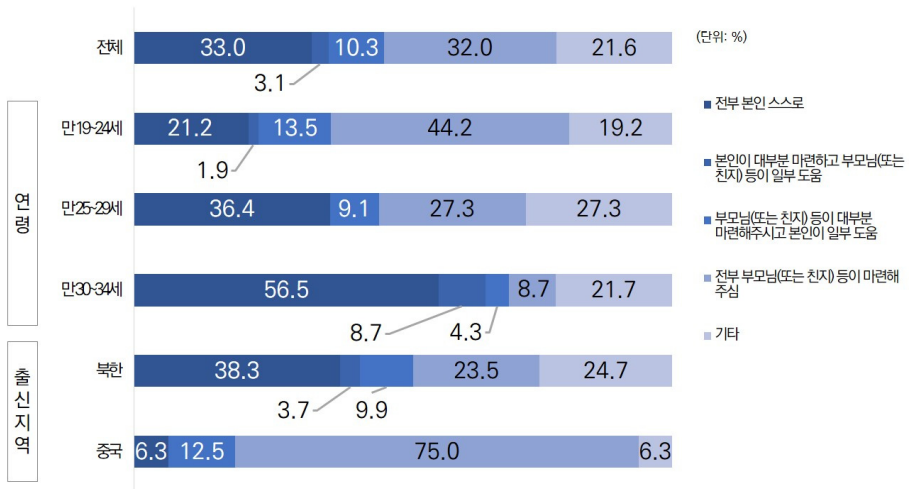


그림 V-53. 주거 비용 마련 방법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일반청년의 주거비용 마련 방법으로 ‘전부 본인 스스로’ 43.1%, ‘본인 대부분 마련,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24.1%,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 17.1%,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 본인 일부 도움’ 15.7% 순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만 18~24세 38.2%, 만 25~29세 20.3%, 만 30~34세 9.0%) 주거비용을 부모 또는 친지가 마련해주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북한배경청년의 주거비용 마련 방법으로 ‘전부 본인 스스로’ 33.0%,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 32.0%,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 본인 일부 도움’ 10.3% 순으로 집계되었다. ‘기타’도 21.6%나 되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만 18~24세 21.2%, 만 25~29세 36.4%, 만 30~34세 56.5%) 전부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만 18~24세 44.2%, 만 25~29세 27.3%, 만 30~34세 8.7%) 부모 또는 친지에게 주거비용을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전부 본인 스스로 주거비용을 마련하는 비율은 북한 출신(38.3%)이 중국 출신(6.3%)보다 높았으며, 전부 부모 또는 친지가 주거비용을 마련해주는 비율은 중국 출신(75.0%)이 북한 출신(23.5%)보다 높았다.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 모두에게서 전부 스스로 주거비용을 마련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인이 스스로 전부를 마련하거나 일부 도움을 받긴 해도 대부분 본인이 마련했다는 비율은 일반청년 65.2%, 북한배경청년 36.1%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의 기타 비율이 높은 것은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배경청년 심층면담에 의하면, 먼저 입국하여 정착한 가족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LH에서 전세 자금을 빌렸다. 무연고로 단독 입국한 청년의 경우 정착 지원으로 받은 임대아파트를 유지하는 데 부모 또는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임대아파트를 반납하고 그룹홈에 들어가기도 한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나 셰어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적은 비용이라도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경우에 속한다. 학업중일 경우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과외 등을 해서 월세와 관리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 그리고 제가 그 빌린 돈의 이자라고 해야 되나. 네, 이자가 또 나가는 게... 그거는 13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것까지 합쳐서는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과외를 하고.
(사례 3)

월셋집을 찾아서 살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일을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하루에 한 5시간씩 알바를 하면서 알바비로 월세를 내다가 한 8개월 혼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학업이랑 병행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재단... 열매나눔재단이라고 했나. 그쪽에 연결을 받아서 센터 그룹홈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사례 6)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냥 많이 뭐 반반씩 이렇게 하니깐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물론 뭐 남은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은 거 그래서 조금 있어요. (사례 8)

나는 또 서울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안산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동생하고 이제 그만 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안산에 우리 둘이 살 만한 원룸 그것도 8평짜리를 보증금도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보증금 동생한테 좀 백만 꾸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어요. (사례 10)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데 LH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 청년 전세 그게 있어서 그걸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사례 15)

반납을 하진 않고 비워두고. 근데 이제 관리비로 나가는 게 최소한이지만 제가 들어가서 거주함으로 이제 두세 배가 되고 제가 먹고 먹는 데만 일단은 조금 비용이 들지 아무리 혼자 산다고 해도 기본적인 게 필요하다 보니 좀 많이 드는 것 같았고 그 외에 여가적인 부분도 많이 나가는데 좀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례 16)

그래서 아파트를 빌려서... 이렇게 일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방이 대부분 3개인데 거실 있고. 거실 있고 3개니까 3명 정도씩 각자 방을 갖고. 비용은 한 2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데. (사례 18)

(회사 숙소가)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돼요. 가스비 그런 거 상관없이. 에어컨 땡땡하게 틀고 오피스텔 같은데요. 되게 편해요. (사례 19)

표 V-252. 주거비용 마련을 위한 금융대출 여부 및 비율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대출을 받았음	대출을 받았음							대출을 받지 않았음
				10 미만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모름	
전	체	102	12.7	10.5	5.3	5.3	10.5	0.0	31.6	36.8	87.3
성별	남 자	32	15.6	0.0	0.0	11.1	11.1	0.0	33.3	44.4	84.4
	여 자	70	11.4	20.0	10.0	0.0	10.0	0.0	30.0	30.0	88.6
연령	만 19 ~ 24 세	54	7.4	14.3	0.0	0.0	0.0	0.0	14.3	71.4	92.6
	만 25 ~ 29 세	25	20.0	0.0	0.0	0.0	33.3	0.0	50.0	16.7	80.0
	만 30 ~ 34 세	23	17.4	20.0	20.0	20.0	0.0	0.0	40.0	0.0	82.6
지역	수 도 권	93	12.9	11.8	5.9	5.9	11.8	0.0	29.4	35.3	87.1
	비 수 도 권	9	11.1	0.0	0.0	0.0	0.0	0.0	100.0	0.0	88.9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6	12.5	18.2	9.1	0.0	0.0	0.0	27.3	45.5	87.5
	대 졸 이 상	31	16.1	0.0	0.0	0.0	40.0	0.0	60.0	0.0	83.9
출신 지역	북 한	87	13.8	12.5	6.3	6.3	12.5	0.0	37.5	25.0	86.2
	중 국	15	6.7	0.0	0.0	0.0	0.0	0.0	0.0	100.0	93.3

북한배경청년에게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대출을 받았는지 유무를 묻는 조사에 ‘받았음’ 12.7%, ‘받지 않았음’ 87.3%로 나타났다. 주거비용의 50% 미만을 대출받은 경우는 21.1%이며, 필요한 주거비용의 50% 이상을 대출받았다는 응답도 42.1%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출을 받긴 했으나 주거비용 전체 비용 중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는 응답도 36.8%에 달했다.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중국 출신(93.3%)이 북한 출신(86.2%)보다 많았다.

북한배경청년 심층면담에 의하면,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용한 대출은 LH 청년전세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었다. 가족과 함께 살다가 주거를 독립할 때, 국가로부터 받은 임대아파트가 학교와 거리가 멀어 반납했다가 이후 학교 근처에서 살기 위해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했다. 가진 돈이 적어도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이 적극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LH청년전세대출이었다. 한편, 신혼부부디딤돌대출은 결혼한 부부가 거주지를 마련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가는데 활용되었다.

저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이번에 지원하거든요. 원래 그거 돼서 1학년 때는 거기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휴학하면서 계속 안 사는데 그 집에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계약 해지했거든요. 이번에 2학기부터는 저도 LH 그거 지원해서 학교 근처에서 살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례 2)

저는 LH에서 청년임대로 해가지고 전세금 빌려주는 게 있어서. 네, 그거 그래서 원룸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사례 3)

대학을 들어가서 제가 근처에 대출 받아가지고 학교 근처에 집을 잡아서 지금까지 쪽 살고. 보통 LH인가요. 거기서 청년대출 해주잖아요. 그 정책으로 받아가지고. 그게 최대 6년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사례 6)

처음에는 그때 저희가 결혼은 안 했는데 혼인 신고는 이미 했었어요. 전세하려니까 이게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라고 그거 받으면 훨씬 금리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할 건데 순번이 바뀌면 어쩌냐, 결혼하기 전에 일단 신고부터 하자. 신고는 미리 했고 혼인 신고하고 대출받아서 살고, 지금은 대출이 만기 되고 LH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신혼부부 케이스로 지금 도움을 받아서 대출받아 살고 있습니다. (사례 9)

애도 있는데 또 그 집에서 또 살기도 좀 그래 가지고 (...) 대출은 지금 사는 집 신혼부부 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간 거고. (사례 10)

6. 건강

북한배경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 건강검진 여부, 정신 건강 실태, 삶의 만족도 등을 묻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253. 주관적인 신체건강 인식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8	3.7	11.1	31.5	39.8	13.9
성 별	남 자	35	5.7	11.4	28.6	31.4	22.9
	여 자	73	2.7	11.0	32.9	43.8	9.6
연 령	만 19~24세	58	6.9	10.3	25.9	43.1	13.8
	만 25~29세	26	0.0	7.7	26.9	38.5	26.9
	만 30~34세	23	0.0	13.0	52.2	34.8	0.0
지 역	수 도 권	98	4.1	8.2	30.6	42.9	14.3
	비 수 도 권	9	0.0	33.3	44.4	11.1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5.0	15.0	28.3	38.3	13.3
	대 졸 이 상	31	3.2	3.2	29.0	41.9	22.6
출 신 지 역	북 한	90	2.2	11.1	35.6	35.6	15.6
	중 국	17	11.8	5.9	11.8	64.7	5.9

설문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3.7%가 그렇다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반면에 스스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년은 14.8%로 나타났다.

표 V-254. 건강검진 수검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108	41.7	58.3
성 별	남 자	35	34.3	65.7
	여 자	73	45.2	54.8
연 령	만 1 9 ~ 2 4 세	58	32.8	67.2
	만 2 5 ~ 2 9 세	26	53.8	46.2
	만 3 0 ~ 3 4 세	23	47.8	52.2
지 역	수 도 권	98	42.9	57.1
	비 수 도 권	9	22.2	77.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40.0	60.0
	대 졸 이 상	31	48.4	51.6
출 신 지역	북 한	90	44.4	55.6
	중 국	17	23.5	76.5

설문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41.7%로 나타났으며, 58.3%가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가족 중에 건강과 관련해 잘 알고 있거나 건강 문제를 경험한 청년의 경우, 건강에 보다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표 V-255.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병원 진찰 후 치료받음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전		체	2,041	79.6	14.3	6.1
성 별	남	자	1,074	77.4	14.5	8.0
	여	자	967	82.0	14.0	4.0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75.7	16.8	7.4
	만 2 5 ~ 2 9 세		668	80.2	14.0	5.7
	만 3 0 ~ 3 4 세		600	83.8	11.4	4.8
지 역	수 도 권		1,032	80.6	15.6	3.8
	비 수 도 권		1,009	78.4	12.8	8.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75.5	17.4	7.1
	대 졸 이 상		1,044	83.5	11.3	5.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56.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 하거나 바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기타
전		체	104	79.8	14.4	3.8	1.9
성 별	남	자	34	70.6	14.7	8.8	5.9
	여	자	70	84.3	14.3	1.4	0.0
연 령	만 1 9 ~ 2 4 세		55	76.4	16.4	5.5	1.8
	만 2 5 ~ 2 9 세		26	80.8	11.5	3.8	3.8
	만 3 0 ~ 3 4 세		22	90.9	9.1	0.0	0.0
지 역	수 도 권		94	81.9	12.8	4.3	1.1
	비 수 도 권		9	66.7	22.2	0.0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7	80.7	15.8	1.8	1.8
	대 졸 이 상		31	80.6	12.9	6.5	0.0
출 신 지 역	북	한	86	84.9	10.5	2.3	2.3
	중	국	17	58.8	29.4	11.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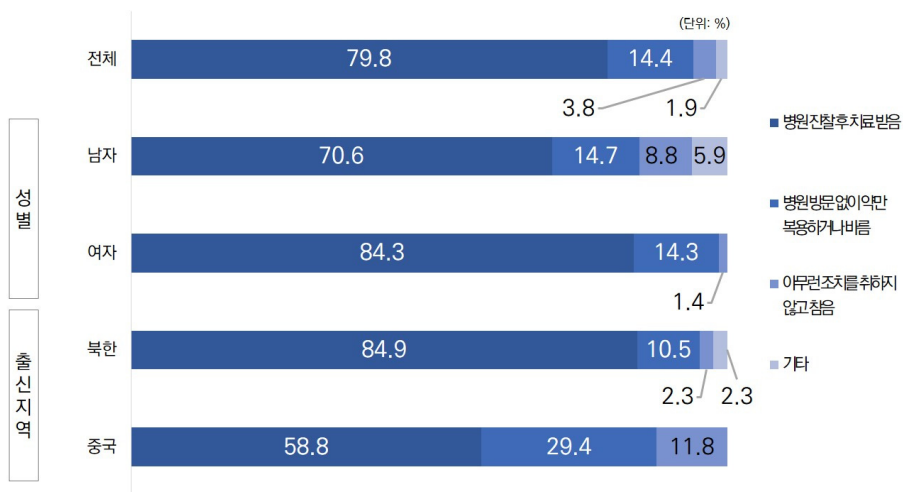


그림 V-54.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북한배경청년들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79.8%가 ‘병원 진찰 후 치료를 받는다’고 응답했고, 14.4%는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른다’, 3.8%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일반청년의 경우에도 질환 발생시 병원 진찰 후 치료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9.6%이고,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른다는 응답은 14.3%로 나타났다. 질환 발생 시 대처 방안은 두 집단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배경청년 중에서도 출신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중국 출신 청년들은 병원 방문 없이 약만 복용하거나 바른다는 비율이 29.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병원 이용은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은 병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257.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전	체	406	2.5	11.2	1.6	84.7
성 별	남	자 240	1.2	12.4	1.0	85.4
	여	자 166	4.2	9.6	2.5	83.7
연 령	만 1 8 ~ 2 4 세	177	2.7	10.2	1.4	85.6
	만 2 5 ~ 2 9 세	128	3.9	10.4	1.3	84.3
	만 3 0 ~ 3 4 세	101	0.0	14.2	2.4	83.4
지 역	수 도 권	201	3.2	13.2	2.7	80.9
	비 수 도 권	205	1.8	9.2	0.4	88.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237	2.1	10.1	1.0	86.8
	대 졸 이 상	169	3.0	12.8	2.5	81.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질환 발생시 병원을 가지 않는 경우에만 응답

표 V-258.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전	체	19	15.8	15.8	0.0	68.4
성 별	남	자 11	18.2	18.2	0.0	63.6
	여	자 8	12.5	12.5	0.0	75.0
연 령	만 1 9 ~ 2 4 세	13	15.4	23.1	0.0	61.5
	만 2 5 ~ 2 9 세	4	25.0	0.0	0.0	75.0
	만 3 0 ~ 3 4 세	1	0.0	0.0	0.0	100.0
지 역	수 도 권	16	6.3	18.8	0.0	75.0
	비 수 도 권	2	100.0	0.0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1	18.2	18.2	0.0	63.6
	대 졸 이 상	5	20.0	0.0	0.0	80.0
출 신 지 역	북 한	11	9.1	9.1	0.0	81.8
	중 국	7	28.6	28.6	0.0	42.9

* 주: 1)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그림 V-55. 질환 발생 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북한배경청년은 건강에 이상이 발생해도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8.4%가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했고, 15.8%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5.8%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일반청년들이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가 주로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84.7%)'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1.2%)'인데 반해, 북한배경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이유도 크게 나타났다. 면담에 참여한 한 북한배경청년은 스트레스나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아파도 그냥 참고 지낸다고 말한다.

연구자: 지금은 해야 할 공부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아르바이트하면서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피면접자: 네. 계속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몸으로 반응해요. 몸 계속 아파요.
 연구자: 몸이 아파 어디가 아파요?
 피면접자: 저는 위 아프면 또 한동안 좀 그렇고 아니면 가끔 또 장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몸으로 반응하니까 아니면 이게 제가 계속 아프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발 다치고 아프고 아니면 또 위가 아프고.
 연구자: 아프면 어떻게 해요?
 피면접자: 참거나 아니면 약 먹고.
 연구자: 병원에 안 가고.
 피면접자: 병원 발 때문에 갔었죠. 발 그래도 다쳤으니까.
 연구자: 발을 다쳤었구나.
 피면접자: 네. 가고 위는 계속 아픈 거니까 전로부터 이미 지금 만성 위염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만큼 참고 약 먹고 그렇게. (사례 8)

표 V-259.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0.7	8.5	8.5	17.0	54.2	11.0
성 별	남 자	1,074	0.6	7.9	9.1	17.0	53.7	11.7
	여 자	967	0.8	9.2	7.8	17.1	54.8	10.3
연 령	만 18 ~ 24 세	773	0.6	9.6	8.0	15.8	54.5	11.5
	만 25 ~ 29 세	668	0.7	7.1	9.4	17.2	55.9	9.7
	만 30 ~ 34 세	600	0.7	8.7	8.2	18.4	52.0	12.0
지 역	수 도 권	1,032	0.5	7.5	7.6	16.7	55.2	12.4
	비 수 도 권	1,009	0.9	9.7	9.5	17.3	53.1	9.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0.7	7.7	9.1	15.4	53.9	13.2
	대 졸 이 상	1,044	0.6	9.3	7.9	18.5	54.6	9.0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6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8	4.6	29.6	7.4	18.5	36.1	3.7
성 별	남 자	35	2.9	28.6	0.0	31.4	34.3	2.9
	여 자	73	5.5	30.1	11.0	12.3	37.0	4.1
연 령	만 19 ~ 24 세	58	5.2	31.0	8.6	12.1	39.7	3.4
	만 25 ~ 29 세	26	3.8	26.9	0.0	34.6	26.9	7.7
	만 30 ~ 34 세	23	4.3	26.1	13.0	17.4	39.1	0.0
지 역	수 도 권	98	5.1	28.6	6.1	18.4	37.8	4.1
	비 수 도 권	9	0.0	33.3	22.2	22.2	22.2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5.0	33.3	10.0	11.7	35.0	5.0
	대 졸 이 상	31	3.2	22.6	3.2	25.8	41.9	3.2
출 신 지역	북 한	90	4.4	27.8	6.7	21.1	36.7	3.3
	중 국	17	5.9	35.3	11.8	5.9	35.3	5.9



그림 V-56.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배경청년들의 3.7%가 '항상 그렇다', 36.1%가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년의 11%가 '항상 그렇다', 54.2%가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6%로 나타났다.

표 V-261.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0.9	7.4	10.4	20.7	46.5	14.1
성 별	남 자	1,074	0.7	7.5	11.0	20.2	46.2	14.4
	여 자	967	1.2	7.3	9.7	21.3	46.8	13.7
연 령	만 18 ~ 24 세	773	1.1	6.9	11.4	19.4	46.7	14.5
	만 25 ~ 29 세	668	0.9	6.5	11.5	19.8	48.5	12.8
	만 30 ~ 34 세	600	0.7	9.0	8.0	23.4	43.9	15.1
지 역	수 도 권	1,032	1.3	6.3	9.6	21.6	45.5	15.6
	비 수 도 권	1,009	0.4	8.7	11.3	19.7	47.6	12.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1.1	7.1	10.6	20.3	45.8	15.1
	대졸 이상	1,044	0.8	7.7	10.2	21.1	47.1	13.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62.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	체	108	4.6	19.4	17.6	16.7	38.9	2.8
성별	남 자	35	2.9	20.0	20.0	14.3	40.0	2.9
	여 자	73	5.5	19.2	16.4	17.8	38.4	2.7
연령	만 19~24세	58	6.9	20.7	20.7	12.1	36.2	3.4
	만 25~29세	26	3.8	15.4	11.5	26.9	38.5	3.8
	만 30~34세	23	0.0	21.7	13.0	17.4	47.8	0.0
지역	수 도 권	98	5.1	20.4	13.3	17.3	40.8	3.1
	비 수 도 권	9	0.0	11.1	55.6	11.1	22.2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6.7	20.0	18.3	13.3	36.7	5.0
	대 졸 이 상	31	3.2	9.7	12.9	25.8	48.4	0.0
출신 지역	북 한	90	4.4	18.9	14.4	18.9	41.1	2.2
	중 국	17	5.9	23.5	29.4	5.9	29.4	5.9



그림 V-57.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배경청년들의 2.8%가 ‘항상 그렇다’, 38.9%가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년의 14.1%가 ‘항상 그렇다’, 46.5%가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4.6%로 나타났다.

표 V-263.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8	4.6	25.9	13.9	17.6	31.5	6.5
성별	남 자	35	5.7	22.9	8.6	22.9	34.3	5.7
	여 자	73	4.1	27.4	16.4	15.1	30.1	6.8
연령	만 19~24세	58	6.9	24.1	17.2	15.5	27.6	8.6
	만 25~29세	26	0.0	23.1	11.5	26.9	30.8	7.7
	만 30~34세	23	4.3	30.4	8.7	13.0	43.5	0.0
지역	수 도 권	98	5.1	25.5	13.3	17.3	31.6	7.1
	비 수 도 권	9	0.0	22.2	22.2	22.2	33.3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5.0	25.0	16.7	10.0	33.3	10.0
	대 졸 이 상	31	6.5	19.4	12.9	29.0	29.0	3.2
출신 지역	북 한	90	4.4	22.2	14.4	18.9	32.2	7.8
	중 국	17	5.9	41.2	11.8	11.8	29.4	0.0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배경청년들의 6.5%가 ‘항상 그렇다’, 31.5%가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체 38.0%가 활동적이고 활기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0.5%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표 V-264.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5.4	12.8	14.9	24.5	35.7	6.8
성 별	남 자	1,074	3.6	12.3	15.8	24.0	36.7	7.6
	여 자	967	7.4	13.4	13.8	25.0	34.6	5.8
연 령	만 18 ~ 24 세	773	5.6	12.4	13.0	24.6	36.2	8.3
	만 25 ~ 29 세	668	5.4	12.6	16.3	25.1	33.9	6.8
	만 30 ~ 34 세	600	5.2	13.5	15.8	23.7	37.1	4.7
지 역	수 도 권	1,032	5.1	14.3	17.1	24.0	33.3	6.1
	비 수 도 권	1,009	5.7	11.0	12.4	25.0	38.4	7.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5.6	12.5	13.2	23.7	36.7	8.5
	대 졸 이 상	1,044	5.2	13.1	16.5	25.3	34.8	5.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65.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8	22.2	24.1	9.3	21.3	21.3	1.9
성 별	남 자	35	20.0	25.7	11.4	14.3	25.7	2.9
	여 자	73	23.3	23.3	8.2	24.7	19.2	1.4
연 령	만 19 ~ 24 세	58	22.4	25.9	8.6	24.1	17.2	1.7
	만 25 ~ 29 세	26	23.1	23.1	11.5	19.2	19.2	3.8
	만 30 ~ 34 세	23	21.7	17.4	8.7	17.4	34.8	0.0
지 역	수 도 권	98	23.5	22.4	7.1	22.4	22.4	2.0
	비 수 도 권	9	11.1	33.3	33.3	11.1	11.1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21.7	25.0	8.3	20.0	21.7	3.3
	대 졸 이 상	31	19.4	19.4	12.9	25.8	22.6	0.0
출 신 지역	북 한	90	23.3	21.1	8.9	22.2	22.2	2.2
	중 국	17	17.6	35.3	11.8	17.6	17.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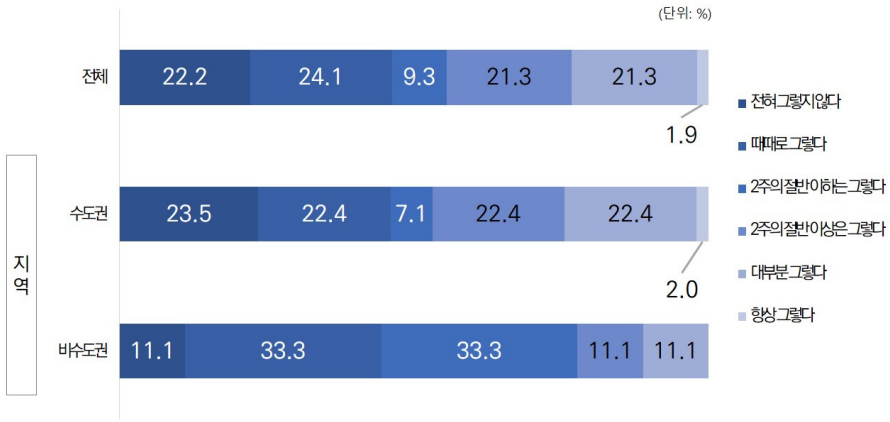


그림 V-58.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배경청년들의 1.9%가 ‘항상 그렇다’, 21.3%가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년의 6.8%가 ‘항상 그렇다’, 35.7%가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V-266.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6.0	20.6	18.1	23.0	26.6	5.6
성 별	남 자	1,074	5.4	19.3	17.9	24.3	27.8	5.4
	여 자	967	6.7	22.1	18.4	21.7	25.3	5.8
연 령	만 18 ~ 24 세	773	5.9	20.6	17.9	21.5	28.6	5.6
	만 25 ~ 29 세	668	5.4	21.6	18.7	24.6	25.0	4.7
	만 30 ~ 34 세	600	6.9	19.5	17.9	23.3	25.9	6.6
지 역	수 도 권	1,032	5.6	22.5	18.0	24.0	23.5	6.4
	비 수 도 권	1,009	6.5	18.3	18.3	21.9	30.2	4.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6.2	20.7	16.1	22.7	28.1	6.3
	대 졸 이 상	1,044	5.9	20.5	20.1	23.4	25.2	4.9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67.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8	8.3	36.1	8.3	18.5	24.1	4.6
성 별	남 자	35	8.6	31.4	5.7	22.9	28.6	2.9
	여 자	73	8.2	38.4	9.6	16.4	21.9	5.5
연 령	만 19 ~ 24 세	58	6.9	41.4	10.3	13.8	22.4	5.2
	만 25 ~ 29 세	26	7.7	34.6	7.7	23.1	19.2	7.7
	만 30 ~ 34 세	23	13.0	26.1	4.3	21.7	34.8	0.0
지 역	수 도 권	98	9.2	35.7	8.2	15.3	26.5	5.1
	비 수 도 권	9	0.0	44.4	11.1	44.4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8.3	36.7	8.3	16.7	23.3	6.7
	대 졸 이 상	31	6.5	35.5	6.5	29.0	19.4	3.2
출 신 지역	북 한	90	8.9	35.6	7.8	18.9	24.4	4.4
	중 국	17	5.9	41.2	11.8	11.8	23.5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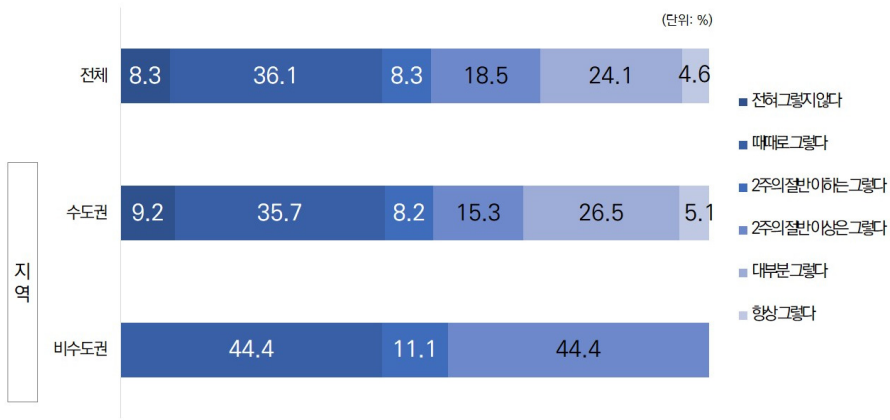


그림 V-59.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_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주관적인 정신건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배경청년들의 4.6%가 ‘항상 그렇다’, 24.1%가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문항들과 달리 일반청년과 비슷한 결과이다. 북한배경청년들은 남한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여러 경험을 하고 그러한 경험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에는 일상에 대한 흥미에 있어 거주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거주자들이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268.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전		체	108	50.9	38.0	9.3	1.9
성 별	남	자	35	51.4	37.1	5.7	5.7
	여	자	73	50.7	38.4	11.0	0.0
연 령	만 1 9 ~ 2 4 세		58	53.4	31.0	13.8	1.7
	만 2 5 ~ 2 9 세		26	50.0	42.3	3.8	3.8
	만 3 0 ~ 3 4 세		23	47.8	47.8	4.3	0.0
지 역	수 도 권		98	53.1	36.7	9.2	1.0
	비 수 도 권		9	33.3	44.4	11.1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50.0	35.0	11.7	3.3
	대 졸 이 상		31	48.4	48.4	3.2	0.0
출 신 지 역	북 한		90	52.2	36.7	8.9	2.2
	중 국		17	47.1	41.2	11.8	0.0

북한배경청년은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라는 질문에 대해 50.9%는 ‘극히 드물다’고 응답했고, 38.0%는 ‘가끔 있었다’, 9.3%는 ‘종종 있었다’, 1.9%는 ‘대부분 그랬다’라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의 절반 정도가 지난 일주일 동안 먹고 싶지 않거나 식욕이 없는 경험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V-269.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2) 비교적 잘 지냈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전	체	107	4.7	17.8	40.2	37.4
성 별	남 자	35	2.9	20.0	42.9	34.3
	여 자	72	5.6	16.7	38.9	38.9
연 령	만 1 9 ~ 2 4 세	57	3.5	21.1	45.6	29.8
	만 2 5 ~ 2 9 세	26	3.8	11.5	38.5	46.2
	만 3 0 ~ 3 4 세	23	8.7	17.4	30.4	43.5
지 역	수 도 권	97	4.1	15.5	40.2	40.2
	비 수 도 권	9	11.1	44.4	44.4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6.7	13.3	42.3	36.7
	대 졸 이 상	31	0.0	25.8	29.0	45.2
출 신 지 역	북 한	90	4.4	13.3	41.1	41.1
	중 국	16	6.3	43.8	37.5	12.5

북한배경청년은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비교적 잘 지냈다’라는 질문에 대해 37.4%가 ‘대부분 그랬다’고 응답했고, 40.2%는 ‘종종 있었다’, 17.8%는 ‘가끔 있었다’, 4.7%는 ‘극히 드물다’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의 대부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스스로 비교적 잘 지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70.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3) 상당히 우울했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전	체	108	56.5	28.7	12.0	2.8
성 별	남 자	35	57.1	22.9	14.3	5.7
	여 자	73	56.2	31.5	11.0	1.4
연 령	만 1 9 ~ 2 4 세	58	60.3	22.4	13.8	3.4
	만 2 5 ~ 2 9 세	26	53.8	34.6	11.5	0.0
	만 3 0 ~ 3 4 세	23	52.2	39.1	8.7	0.0
지 역	수 도 권	98	60.2	27.6	10.2	2.0
	비 수 도 권	9	22.2	44.4	33.3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61.7	21.7	11.7	5.0
	대 졸 이 상	31	48.4	38.7	12.9	0.0
출 신 지 역	북 한	90	58.9	27.8	11.1	2.2
	중 국	17	47.1	35.3	17.6	0.0

북한배경청년은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상당히 우울했다’라는 질문에 대해, 56.5%는 ‘극히 드물다’고 응답했고, 28.7%는 ‘가끔 있었다’, 12.0%는 ‘종종 있었다’, 2.8%는 ‘대부분 그랬다’라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의 약 43.5%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했던 기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71.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전	체	2,041	63.2	28.1	7.2	1.5
성 별	남 자	1,074	67.2	25.6	5.9	1.2
	여 자	967	58.6	31.0	8.7	1.8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67.0	24.2	7.2	1.6
	만 2 5 ~ 2 9 세	668	61.5	31.0	6.1	1.4
	만 3 0 ~ 3 4 세	600	60.2	29.8	8.5	1.4
지 역	수 도 권	1,032	60.7	29.6	8.3	1.4
	비 수 도 권	1,009	66.0	26.4	6.0	1.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66.2	24.9	6.8	2.1
	대 졸 이 상	1,044	60.3	31.2	7.6	0.9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72.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일주일 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에 5일 이상)
전	체	108	32.4	45.4	15.7	6.5
성 별	남 자	35	37.1	42.9	11.4	8.6
	여 자	73	30.1	46.6	17.8	5.5
연 령	만 1 9 ~ 2 4 세	58	34.5	43.1	12.1	10.3
	만 2 5 ~ 2 9 세	26	34.6	50.0	15.4	0.0
	만 3 0 ~ 3 4 세	23	26.1	47.8	26.1	0.0
지 역	수 도 권	98	34.7	42.9	16.3	6.1
	비 수 도 권	9	11.1	77.8	11.1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35.0	41.7	15.0	8.3
	대 졸 이 상	31	32.3	51.6	16.1	0.0
출 신 지 역	북 한	90	32.2	47.8	16.7	3.3
	중 국	17	35.3	35.3	11.8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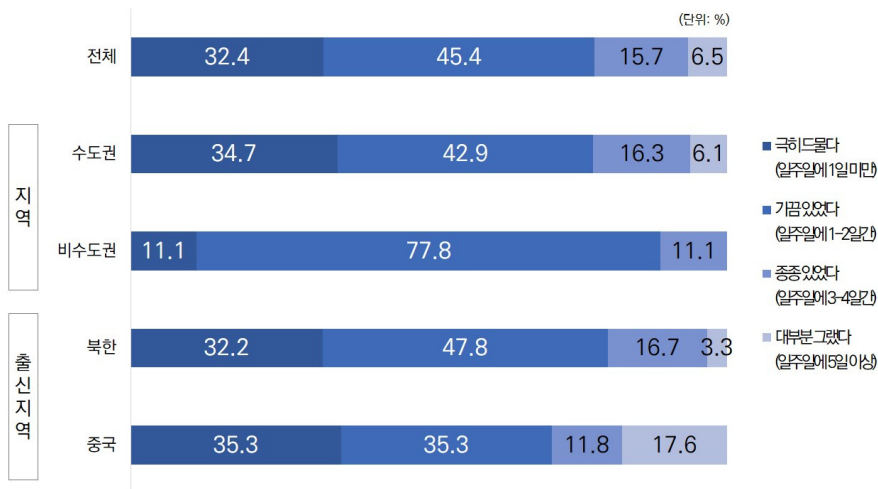


그림 V-60.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북한배경청년은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라는 라는 질문에 대해 32.4%는 ‘극히 드물다’고 응답했고, 45.4%는 ‘가끔 있었다’, 15.7%는 ‘종종 있었다’, 6.5%는 ‘대부분 그랬다’라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의 약 67.6%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힘들었던 감정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년의 63.2%가 ‘극히 드물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북한배경청년들의 삶은 계속해서 남한 사회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주거, 진로, 가족, 등 현재와 미래가 모두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연구자: 그렇군요. 이제 이게 건강 상태에서 행복감이나 우울감에 대한 부분이 저희 질문에 있거든요. 종종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감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행복하다 가정이 아니라 최근에 이 정도면 난 행복해라고 생각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피면접자: 뭐가 있지. 최근에는 진로 고민이 많이 하다 보니까 행복감이랑기보다는 불안함이 좀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그 불안함이라는 게 이제 취업을 걱정해야 되는 3학년 학생으로서의 불안감인지 주거가 당장 옮겨야 될 것 같아서 생기는 그 불안함인지.
피면접자: 여러 가지가 다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와 있고 그리고 이제 혼자 와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고 물론 다른 사람도 많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취업에 대한 고민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잘 이제 계획을 실행을 하여야 잘 살아갈 수 있을지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불안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례 16)

표 V-273.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전		체	108	34.3	40.7	17.6	7.4
성 별	남	자	35	22.9	45.7	28.6	2.9
	여	자	73	39.7	38.4	12.3	9.6
연 령	만 1 9 ~ 2 4 세		58	29.3	43.1	19.0	8.6
	만 2 5 ~ 2 9 세		26	53.8	34.6	7.7	3.8
	만 3 0 ~ 3 4 세		23	26.1	39.1	26.1	8.7
지 역	수 도 권		98	37.8	38.8	17.3	6.1
	비 수 도 권		9	0.0	55.6	22.2	22.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35.0	38.3	18.3	8.3
	대 졸 이 상		31	41.9	41.9	12.9	3.2
출 신 지 역	북 한		90	36.7	36.7	18.9	7.8
	중국		17	23.5	58.8	11.8	5.9

북한배경청년은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라는 질문에 대해 34.3%는 ‘극히 드물다’고 응답했고, 40.7%는 ‘가끔 있었다’, 17.6%는 ‘종종 있었다’, 7.4%는 ‘대부분 그랬다’라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의 약 65.7%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잠을 설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74.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전	체	106	54.7	21.7	17.0	6.6
성 별	남	34	64.7	17.6	14.7	2.9
	여	72	50.0	23.6	18.1	8.3
연 령	만 19 ~ 24 세	56	53.6	21.4	19.6	5.4
	만 25 ~ 29 세	26	61.5	15.4	11.5	11.5
	만 30 ~ 34 세	23	52.2	30.4	13.0	4.3
지 역	수 도 권	96	56.3	22.9	14.6	6.3
	비 수 도 권	9	44.4	11.1	33.3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51.7	16.7	25.0	6.7
	대 졸 이 상	30	70.0	16.7	6.7	6.7
출 신	북 한	88	58.0	18.2	17.0	6.8
지 역	중 국	17	41.2	41.2	11.8	5.9

북한배경청년은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질문에 대해 54.7%는 ‘극히 드물다’고 응답했고, 21.7%는 ‘가끔 있었다’, 17.0%는 ‘종종 있었다’, 6.6%는 ‘대부분 그랬다’라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의 약 45.3%가 지난 일주일 동안 외롭다는 감정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혼자 생활하거나, 남한에 가족이 있지만 일부 가족을 북한에 두고 온 경우들도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피면접자: 그런 때는 많죠. 외롭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북한보다는 가족이 다 떨어져 있고 친구들도 거기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 비즈니스적으로 만나고 주변에 친한 북한이탈주민 친구나 한국 친구도 다 멀리 있거나 바쁘고 하니까. 한국은 뭐나 다 생산적으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멀리 있고 하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가끔은 어렵고,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고 그렇죠. (사례 12)

처음에 힘들었던 거는 부모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게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장 이게 혼자 살면 외로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볼 꺼진 집에 들어가야 되고 누구한테 어떤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막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어려움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약간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북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과 내가 그냥 온전히 남한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동화된 그 삶 이걸 어떤 거를 어떻게 적당히 이거를 해야 될지 그런 게 이제 가장 좀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례 20)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면대면 교류가 적어짐에 따라 북한배경청년들이 겪는 외로움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자 친구를 사귀고 어울릴 기회가 부족했다. 이는 북한배경청년들만의 특수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피면접자: 네.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다 하면 다 되는 거였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되면서 또 코로나 블루도 살짝 섞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오면서 저는 조금 이게 어쨌든 활동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오면서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고 근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너무 힘들고 이러면서 정말 한꺼번에 확 온 것 같아요. 정말 병원을 엄청 다니고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요즘 많이 이제 내려놓고 있어요. (사례 20)

표 V-275.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전	체	107	10.3	23.4	32.7	33.6
성 별	남	35	14.3	17.1	25.7	42.9
	여	72	8.3	26.4	36.1	29.2
연 령	만 19 ~ 24 세	57	12.3	24.6	29.8	33.3
	만 25 ~ 29 세	26	7.7	34.6	34.6	23.1
	만 30 ~ 34 세	23	8.7	837	34.8	47.8
지 역	수 도 권	97	10.3	20.6	32.0	37.1
	비 수 도 권	9	11.1	55.6	33.3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8.5	27.1	33.9	30.5
	대 출 이 상	31	12.9	22.6	35.5	29.0
출 신 지 역	북 한	89	10.1	21.3	32.6	36.0
	중 국	17	11.8	35.6	29.4	23.5

북한배경청년은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라는 질문에 대해 10.3%는 ‘극히 드물다’고 응답했고, 23.4%는 ‘가끔 있었다’, 32.7%는 ‘종종 있었다’, 33.6%는 ‘대부분 그랬다’라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의 약 89.7%가 지난 일주일 동안 큰 불만 없이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표 V-276.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전		체	107	68.2	20.6	9.3	1.9
성 별	남	자	35	68.6	22.9	8.6	0.0
	여	자	72	68.1	19.4	9.7	2.8
연 령	만 1 9 ~ 2 4 세		57	68.4	22.8	7.0	1.8
	만 2 5 ~ 2 9 세		26	69.2	19.2	7.7	3.8
	만 3 0 ~ 3 4 세		23	69.6	17.4	13.0	0.0
지 역	수 도 권		98	70.4	20.4	7.1	2.0
	비 수 도 권		8	50.0	25.0	25.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66.1	18.6	13.6	1.7
	대 졸 이 상		31	71.0	25.8	0.0	3.2
출 신 지 역	북 한		89	68.5	21.3	7.9	2.2
	중 국		17	70.6	17.6	11.8	0.0

북한배경청년은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라는 질문에 대해 68.2%는 ‘극히 드물다’고 응답했고, 20.6%는 ‘가끔 있었다’, 9.3%는 ‘종종 있었다’, 1.9%는 ‘대부분 그랬다’라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의 약 31.8%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자신을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V-277.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9) 마음이 슬펐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전	체	107	59.8	25.2	13.1	1.9
성 별	남 자	34	64.7	17.6	14.7	2.9
	여 자	73	57.5	28.8	12.3	1.4
연 령	만 1 9 ~ 2 4 세	58	60.3	24.1	12.1	3.4
	만 2 5 ~ 2 9 세	25	56.0	28.0	16.0	0.0
	만 3 0 ~ 3 4 세	23	65.2	26.1	8.7	0.0
지 역	수 도 권	97	60.8	25.8	12.4	1.0
	비 수 도 권	9	55.6	22.2	11.1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61.7	20.0	15.0	3.3
	대 졸 이 상	30	60.0	33.3	6.7	0.0
출 신 지 역	북 한	89	60.7	27.0	11.2	1.1
	중 국	17	58.8	17.6	17.6	5.9

북한배경청년은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마음이 슬펐다’라는 질문에 대해 59.8%는 ‘극히 드물다’고 응답했고, 25.2%는 ‘가끔 있었다’, 13.1%는 ‘종종 있었다’, 1.9%는 ‘대부분 그랬다’라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의 약 40.2%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이 슬펐다고 응답했다.

표 V-278.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전		체	108	79.6	15.7	4.6	0.0
성 별	남	자	35	71.4	25.7	2.9	0.0
	여	자	73	83.6	11.0	5.5	0.0
연 령	만 1 9 ~ 2 4 세		58	81.0	15.5	3.3	0.0
	만 2 5 ~ 2 9 세		26	73.1	23.1	3.8	0.0
	만 3 0 ~ 3 4 세		23	87.0	4.3	8.7	0.0
지 역	수 도 권		98	80.6	14.3	5.1	0.0
	비 수 도 권		9	77.8	22.2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78.3	15.0	6.7	0.0
	대 졸 이 상		31	83.9	16.1	0.0	0.0
출 신 지 역	북	한	90	83.3	11.1	5.6	0.0
	중	국	17	64.7	35.3	0.0	0.0

북한배경청년은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라는 질문에 대해 79.6%는 ‘극히 드물다’고 응답했고, 15.7%는 ‘가끔 있었다’, 4.6%는 ‘종종 있었다’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의 약 20.4%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표 V-279.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_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전 체		108	60.2	28.7	9.3	1.9
성 별	남 자	35	62.9	28.6	5.7	2.9
	여 자	73	58.9	28.8	11.0	1.4
연 령	만 1 9 ~ 2 4 세	58	58.6	29.3	8.6	3.4
	만 2 5 ~ 2 9 세	26	5.4	26.9	7.7	0.0
	만 3 0 ~ 3 4 세	23	60.9	26.1	13.0	0.0
지 역	수 도 권	98	61.2	29.6	7.1	2.0
	비 수 도 권	9	55.6	11.1	33.3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60.0	23.3	13.3	3.3
	대 졸 이 상	31	67.7	29.0	3.2	0.0
출 신 지 역	북 한	90	61.1	27.8	8.9	2.2
	중 국	17	58.8	29.4	11.8	0.0

북한배경청년은 주관적인 일상생활 내 감정 수준과 관련한 문항 중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라는 질문에 대해 60.2%는 ‘극히 드물다’고 응답했고, 28.7%는 ‘가끔 있었다’, 9.3%는 ‘종종 있었다’, 1.9%는 ‘대부분 그랬다’라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의 약 39.8%가 지난 일주일 동안 도무지 뭘 해 나갈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불안함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표 V-280. 삶의 만족도 - (1) 생활수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06	3.8	5.7	11.3	12.3	8.5	16.0	10.4	14.2	10.4	5.7	1.9
성 별	남 자	35	8.6	5.7	8.6	8.6	2.9	17.1	14.3	14.3	11.4	5.7	2.9
	여 자	71	1.4	5.6	12.7	14.1	11.3	15.5	8.5	14.1	9.9	5.6	1.4
연 령	만 19~24세	57	7.0	3.5	7.0	15.8	14.0	12.3	10.5	10.5	12.3	5.3	1.8
	만 25~29세	25	0.0	16.0	8.0	16.0	0.0	20.0	4.0	16.0	8.0	12.0	0.0
	만 30~34세	23	0.0	0.0	26.1	0.0	4.3	17.4	17.4	21.7	8.7	0.0	4.3
지 역	수 도 권	97	4.1	5.2	10.3	12.4	8.2	15.5	11.3	15.5	11.3	5.2	1.0
	비 수 도 권	8	0.0	12.5	25.0	12.5	12.5	12.5	0.0	0.0	0.0	12.5	12.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9	5.1	5.1	11.9	11.9	8.5	20.3	10.2	11.9	8.5	5.1	1.7
	대 졸 이 상	30	3.3	3.3	10.0	13.3	6.7	10.0	10.0	23.3	10.0	10.0	0.0
출 신 지 역	북 한	88	2.3	6.8	12.5	11.4	9.1	17.0	9.1	13.6	9.1	6.8	2.3
	중 국	17	11.8	0.0	5.9	17.6	5.9	5.9	17.6	17.6	17.6	0.0	0.0

삶의 만족도 중 생활 수준과 관련해서 북한배경청년들의 42.6%는 자신의 생활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41.6%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1. 삶의 만족도 - (2) 건강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08	2.8	0.0	2.8	5.6	13.9	19.4	13.0	16.7	14.8	8.3	2.8
성 별	남 자	35	5.7	0.0	2.9	2.9	11.4	20.0	11.4	14.3	20.0	5.7	5.7
	여 자	73	1.4	0.0	2.7	6.8	15.1	19.2	13.7	17.8	12.3	9.6	1.4
연 령	만 19~24세	58	5.2	0.0	1.7	5.2	15.5	19.0	13.8	19.0	10.3	8.6	1.7
	만 25~29세	26	0.0	0.0	3.8	7.7	7.7	11.5	15.4	19.2	23.1	7.7	3.8
	만 30~34세	23	0.0	0.0	4.3	4.3	17.4	26.1	8.7	8.7	17.4	8.7	4.3
지 역	수 도 권	98	3.1	0.0	2.0	4.1	13.3	19.4	14.3	17.3	14.3	9.2	3.1
	비 수 도 권	9	0.0	0.0	11.1	22.2	22.2	11.1	0.0	11.1	22.2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3.3	0.0	5.0	8.3	15.0	21.7	13.3	15.0	10.0	6.7	1.7
	대 졸 이 상	31	3.2	0.0	0.0	0.0	9.7	19.4	6.5	22.6	22.6	12.9	3.2
출 신 지 역	북 한	90	1.1	0.0	3.3	5.6	14.4	21.1	11.1	17.8	14.4	7.8	3.3
	중 국	17	11.8	0.0	0.0	5.9	11.8	5.9	23.5	11.8	17.6	11.8	0.0

삶의 만족도 중 건강 수준과 관련해서 북한배경청년들의 55.6%는 자신의 건강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25.1%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2. 삶의 만족도 - (3) 삶에서 성취한 것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08	1.9	6.5	4.6	13.9	6.5	22.2	8.3	13.9	7.4	9.3	5.6	
성 별	남 자	35	5.7	5.7	5.7	5.7	5.7	20.0	17.1	11.4	8.6	8.6	5.7	
	여 자	73	0.0	6.8	4.1	17.8	6.8	23.3	4.1	15.1	6.8	9.6	5.5	
연 령	만19~24세	58	3.4	10.3	8.6	13.8	6.9	13.8	5.2	20.7	8.6	5.2	3.4	
	만25~29세	26	0.0	3.8	0.0	15.4	7.7	26.9	11.5	3.8	3.8	19.2	7.7	
	만30~34세	23	0.0	0.0	0.0	13.0	4.3	34.8	13.0	8.7	8.7	8.7	8.7	
지 역	수 도 권	98	2.0	7.1	4.1	13.3	6.1	22.4	9.2	13.3	7.1	9.2	6.1	
	비 수 도 권	9	0.0	0.0	11.1	22.2	11.1	11.1	0.0	22.2	11.1	11.1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3.3	5.0	5.0	20.0	6.7	20.0	5.0	18.3	8.3	5.0	3.3	
	대 졸 이 상	31	0.0	6.5	0.0	3.2	6.5	25.8	16.1	6.5	6.5	22.6	6.5	
출 신 지 역	북 한	90	1.1	4.4	3.3	14.4	6.7	23.3	10.0	14.4	5.6	10.0	6.7	
	중 국	17	5.9	17.6	11.8	11.8	5.9	11.8	0.0	11.8	17.6	5.9	0.0	

삶의 만족도 중 삶에서 성취와 관련해서 북한배경청년들의 44.5%는 자신이 삶에서 성취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33.4%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3. 삶의 만족도 - (4) 가족 관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07	5.6	7.5	4.7	6.5	4.7	11.2	4.7	12.1	12.1	15.9	15.0
성별	남 자	34	2.9	5.9	5.9	8.8	5.9	8.8	2.9	14.7	11.8	14.7	17.6
	여 자	73	6.8	8.2	4.1	5.5	4.1	12.3	5.5	11.0	12.3	16.4	13.7
연령	만19~24세	57	7.0	5.3	3.5	5.3	3.5	8.8	7.0	10.5	19.3	15.8	14.0
	만25~29세	26	7.7	7.7	11.5	3.8	3.8	3.8	0.0	15.4	3.8	23.1	19.2
	만30~34세	23	0.0	13.0	0.0	13.0	4.3	26.1	4.3	13.0	4.3	8.7	13.0
지역	수 도 권	97	6.2	6.2	5.2	5.2	3.1	10.3	5.2	13.4	13.4	16.5	15.5
	비 수 도 권	9	0.0	22.2	0.0	22.2	11.1	22.2	0.0	0.0	0.0	11.1	11.1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8.3	8.3	5.0	6.7	5.0	10.0	5.0	13.3	13.3	13.3	11.7
	대 졸 이 상	31	3.2	6.5	3.2	6.5	3.2	9.7	0.0	12.9	12.9	19.4	22.6
출신 지역	북 한	89	5.6	7.9	4.5	5.6	3.4	13.5	3.4	13.5	11.2	15.7	15.7
	중 국	17	5.9	5.9	5.9	11.8	5.9	0.0	11.8	5.9	17.6	17.6	11.8

삶의 만족도 중 가족 관계와 관련해서 북한배경청년들의 59.8%는 가족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29.0%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들에게 가족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나 가족을 이루는 방식이 '북한에서 함께 온 경우, 먼저 남한에 와서 북한 가족과 재회한 경우, 먼저 남한에 있는 가족에게 합류한 경우, 남한에 있던 부모가 재혼한 경우, 결혼한 경우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 갖는 감정도 매우 복잡적이다.

네. 그때 이후에는 뭔가 철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때는 엄마 너무 원망했어요. 이해하지도 못했고 엄마가 뭐 자기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의식 없었어요. 그냥 엄마 맨 처음에 그냥 한국에 와서 아빠랑 동생 이렇게 같이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엄마 왜 이렇게 또 다른 남자 찾아가지고 같이 살고 왜 저한테도 왜 이렇게 대해주시지 막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엄청 원망하고 엄마 너무 싫다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뭔가 깨닫는 거예요. 엄마도 자기 엄마도 사람 필요 하는데 엄마가 사실 저 때문에 엄마가 그 집안에 그냥 남기게 됐거든요. 제가 그때 세 살 때 엄마가 원래 그냥 다른 그냥 삼촌들이랑 다른 데 그냥 가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제가 있으니까 그냥 그 집에 그냥 남겨졌어요. (사례 8)

저는 거의 언니랑 엄마랑 떨어져 산 지 10년이 아니고 14년이예요. 14년, 해서 저는 완전 애기 때부터 완전 애기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없었어가지고 같이 만나서도 이렇게 생겼구나. 생긴 것도 저는 처음 알아봤어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사례 15)

표 V-284. 삶의 만족도 - (5) 친구 관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08	0.9	0.9	2.8	5.6	3.7	16.7	8.3	13.0	24.1	13.0	11.1
성별	남 자	35	2.9	2.9	2.9	5.7	2.9	22.9	5.7	14.3	17.1	14.3	8.6	
	여 자	73	0.0	0.0	2.7	5.5	4.1	13.7	9.6	12.3	27.4	12.3	12.3	
연령	만19~24세	58	1.7	1.7	1.7	1.7	3.4	12.1	8.6	15.5	24.1	19.0	10.3	
	만25~29세	26	0.0	0.0	0.0	11.5	3.8	19.2	3.8	11.5	26.9	7.7	15.4	
	만30~34세	23	0.0	0.0	8.7	8.7	4.3	21.7	13.0	8.7	21.7	4.3	8.7	
지역	수 도 권	98	1.0	1.0	2.0	5.1	3.1	16.3	6.1	14.3	24.5	14.3	12.2	
	비 수 도 권	9	0.0	0.0	11.1	11.1	11.1	11.1	33.3	0.0	22.2	0.0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0.0	1.7	1.7	8.3	6.7	15.0	6.7	16.7	18.3	16.7	8.3	
	대 졸 이 상	31	3.2	0.0	3.2	3.2	0.0	19.4	6.5	9.7	29.0	9.7	16.1	
출신 지역	북 한	90	0.0	0.0	2.2	6.7	4.4	17.8	8.9	13.3	23.3	11.1	12.2	
	중 국	17	5.9	5.9	5.9	0.0	0.0	5.9	5.9	11.8	29.4	23.5	5.9	

삶의 만족도 중 친구 관계와 관련해서 북한배경청년들의 69.5%는 친구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13.9%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5. 삶의 만족도 - (6) 일반적 대인 관계(학교, 직장, 동네에서의 인간 관계)

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08	3.7	0.9	0.9	4.6	3.7	15.7	13.9	20.4	18.5	9.3	8.3
성 별	남 자	35	8.6	2.9	2.9	0.0	5.7	8.6	8.6	25.7	20.0	8.6	8.6	
	여 자	73	1.4	0.0	0.0	6.8	2.7	19.2	16.4	17.8	17.8	9.6	8.2	
연 령	만19~24세	58	3.4	1.7	0.0	3.4	5.2	17.2	15.5	19.0	17.2	10.3	6.9	
	만25~29세	26	3.8	0.0	0.0	3.8	3.8	11.5	11.5	23.1	26.9	7.7	7.7	
	만30~34세	23	4.3	0.0	4.3	8.7	0.0	17.4	8.7	21.7	13.0	8.7	13.0	
지 역	수 도 권	98	4.1	1.0	0.0	3.1	4.1	16.3	12.2	22.4	18.4	9.2	9.2	
	비 수 도 권	9	0.0	0.0	11.1	22.2	0.0	11.1	22.2	0.0	22.2	11.1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1.7	1.7	1.7	5.0	5.0	16.7	15.0	21.7	18.3	10.0	3.3	
	대 졸 이 상	31	9.7	0.0	0.0	3.2	3.2	6.5	9.7	29.0	16.1	9.7	12.9	
출 신 지 역	북 한	90	2.2	1.1	1.1	4.4	4.4	14.4	13.3	22.2	20.0	7.8	8.9	
	중 국	17	11.8	0.0	0.0	5.9	0.0	23.5	11.8	11.8	11.8	17.6	5.9	

삶의 만족도 중 일반적인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북한배경청년들의 70.4%는 일반적인 대인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13.8%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들은 가족이나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는 북한배경 친구들과 편하게 지내지만, 다른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이 맞추거나 적응해야 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말투, 태도, 생활습관 등과 같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습관 차이로 인해 인간관계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제가 인간관계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 회사에 있을 때는 재가센터의 특성이 높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센터예요. 연령대 자체가 그 어르신들 대할 때 조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지? 의사소통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관계가 안 좋았던 그분 한두 명이랑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것도 있어요. 회사생활 할 때는 그런데 그게 그랬다가 다시 제 잘못도 있고 그분 잘못도 있고 이래서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퇴사에도 아무 문제 없이 계약 기간을 만료했었고 중간중간 문제는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생활도 그렇고 그룹홈에 있을 때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이랑 생활습관이 서로 다르니까 같이 사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막 화가 나서 크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도 저한테 그런 트러블이 생길 때 있어가지고 같이 살 때는 공동체 생활할 때는 생활습관 때문에 문제가 있었었고, 회사생활 할 때는 의사소통 연령대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게 있고 (사례 15)

표 V-286. 삶의 만족도 - (7) 안전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2,041	0.4	0.2	0.5	0.9	4.0	13.5	16.6	29.2	24.4	8.6	1.7
성 별	남 자	1,074	0.6	0.2	0.2	0.4	4.2	13.8	15.9	29.5	24.5	9.3	1.5	
	여 자	967	0.2	0.2	0.8	1.5	3.8	13.3	17.4	28.8	24.3	7.7	1.9	
연 령	만18~24세	773	0.3	0.2	0.2	0.9	3.0	14.6	17.3	25.6	24.9	10.8	2.2	
	만25~29세	668	0.6	0.4	0.9	0.5	4.0	14.7	16.0	30.2	23.6	7.4	1.7	
	만30~34세	600	0.3	0.0	0.4	1.4	5.2	10.9	16.4	32.7	24.7	7.0	1.0	
지 역	수 도 권	1,032	0.6	0.2	0.5	0.9	4.5	14.4	18.1	30.6	22.7	6.3	1.3	
	비 수 도 권	1,009	0.1	0.2	0.4	1.0	3.5	12.6	14.9	27.6	26.4	11.2	2.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0.4	0.4	0.2	0.5	3.4	13.4	19.2	29.6	21.8	9.2	1.8	
	대 출 이 상	1,044	0.4	0.0	0.7	1.3	4.6	13.7	14.1	28.8	26.9	8.0	1.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87. 삶의 만족도 - (7) 삶 전반에서의 안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07	1.9	0.0	0.9	6.5	6.5	19.6	14.0	13.1	14.0	12.1	11.2
성별	남	자	34	5.9	0.0	0.0	2.9	5.9	17.6	11.8	17.6	11.8	14.7	11.8
	여	자	73	0.0	0.0	1.4	8.2	6.8	20.5	15.1	11.0	15.1	11.0	11.0
연령	만19~24세		58	3.4	0.0	1.7	3.4	6.9	15.5	13.8	13.8	17.2	15.5	8.6
	만25~29세		26	0.0	0.0	0.0	11.5	11.5	19.2	7.7	11.5	11.5	11.5	15.4
	만30~34세		22	0.0	0.0	0.0	9.1	0.0	31.8	18.2	13.6	9.1	4.5	13.6
지역	수 도 권		97	2.1	0.0	1.0	4.1	7.2	19.6	13.4	13.4	13.4	13.4	12.4
	비 수 도 권		9	0.0	0.0	0.0	33.3	0.0	22.2	11.1	11.1	22.2	0.0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1.7	0.0	0.0	8.3	10.0	16.7	16.7	10.0	18.3	13.3	5.0
	대 졸 이 상		31	3.2	0.0	3.2	6.5	0.0	22.6	6.5	16.1	9.7	9.7	22.6
출신 지역	북 한		89	0.0	0.0	0.0	6.7	7.9	21.3	14.6	13.5	13.5	11.2	11.2
	중 국		17	11.8	0.0	5.9	5.9	0.0	11.8	5.9	11.8	17.6	17.6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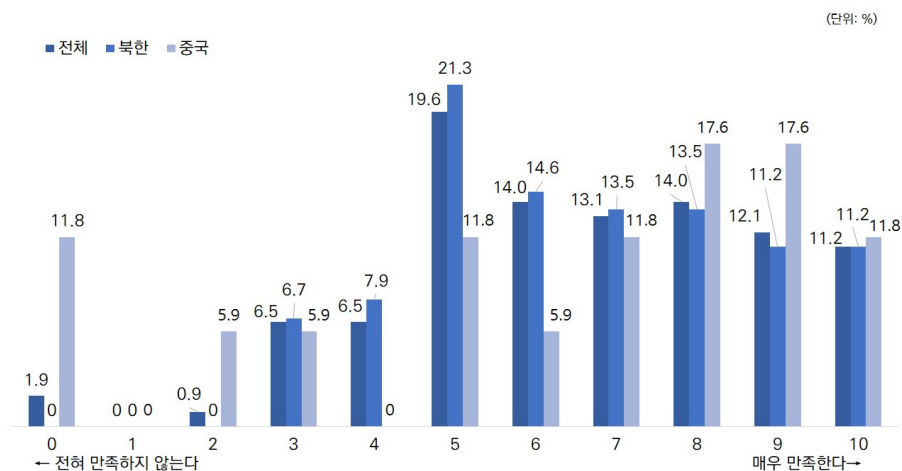


그림 V-61. 삶의 만족도 - (7) 삶 전반에서의 안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 중 삶 전반에서의 안전과 관련해서 북한배경청년들의 64.4%는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15.8%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청년들의 80.5%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삶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경제, 주거, 건강, 치안 등 매우 복잡적이다.

표 V-288. 삶의 만족도 - (8) 미래 안정성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2,041	1.0	0.8	1.9	4.9	7.2	16.4	20.0	23.7	16.9	6.2	1.0
성 별	남 자	1,074	0.6	0.4	1.9	4.9	7.8	18.0	19.1	22.6	16.8	6.8	1.2
	여 자	967	1.3	1.2	1.9	4.8	6.7	14.7	20.9	25.0	17.2	5.4	0.9
연 령	만18~24세	773	1.0	0.6	1.9	5.3	7.1	17.7	21.9	21.5	14.8	7.2	1.0
	만25~29세	668	1.1	1.2	1.6	4.5	8.7	15.6	17.7	25.5	16.6	6.3	1.2
	만30~34세	600	0.7	0.6	2.2	4.6	5.8	15.8	20.0	24.6	20.1	4.6	0.9
지 역	수 도 권	1,032	1.2	0.6	1.5	5.2	7.3	18.1	21.1	24.3	15.3	4.5	0.9
	비 수 도 권	1,009	0.7	1.0	2.3	4.4	7.2	14.6	18.7	23.1	18.8	8.1	1.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0.8	0.9	2.0	4.8	7.4	17.7	21.4	22.3	14.5	7.0	1.2
	대 졸 이 상	1,044	1.1	0.6	1.8	4.9	7.1	15.2	18.6	25.1	19.3	5.4	0.9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89. 삶의 만족도 - (8) 미래 안정성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08	2.8	5.6	6.5	11.1	10.2	17.6	13.9	11.1	9.3	5.6	6.5
성 별	남 자	35	5.7	5.7	2.9	14.3	5.7	14.3	17.1	11.4	5.7	11.4	5.7	
	여 자	73	1.4	5.5	8.2	9.6	12.3	19.2	12.3	11.0	11.0	2.7	6.8	
연 령	만19~24세	58	3.4	10.3	8.6	12.1	6.9	10.3	15.5	12.1	12.1	3.4	5.2	
	만25~29세	26	3.8	0.0	3.8	7.7	15.4	15.4	19.2	3.8	11.5	11.5	7.7	
	만30~34세	23	0.0	0.0	4.3	8.7	13.0	39.1	4.3	17.4	0.0	4.3	8.7	
지 역	수 도 권	98	3.1	5.1	6.1	10.2	10.2	16.3	15.3	11.2	10.2	5.1	7.1	
	비 수 도 권	9	0.0	11.1	11.1	11.1	11.1	33.3	0.0	11.1	0.0	11.1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1.7	6.7	6.7	13.3	15.0	16.7	10.0	13.3	10.0	5.0	1.7	
	대 졸 이 상	31	6.5	3.2	3.2	3.2	6.5	22.6	19.4	9.7	9.7	9.7	6.5	
출 신 지 역	북 한	90	1.1	2.2	6.7	11.1	12.2	20.0	15.6	8.9	7.8	6.7	7.8	
	중 국	17	11.8	23.5	5.9	5.9	0.0	5.9	5.9	23.5	17.6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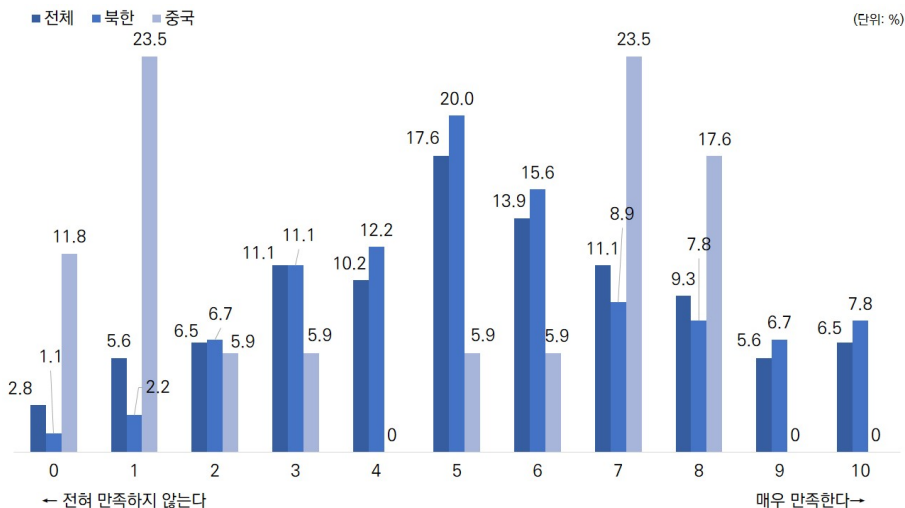


그림 V-62. 삶의 만족도 - (8) 미래 안정성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 중 삶 미래안정성과 관련해서 북한배경청년들의 46.4%는 미래안정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36.2%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청년의 67.8%가 미래안정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면담에 따르면, 북한배경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거 문제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거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야기한다.

지금 부동산 보려는 시장이 금액이 너무 크게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맞게 대출도 좀 해주고 세금이라던가 이런 걸 좀 낮춰서 해주면은 그래도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안정된 생활을 찾지 않을까. 대출받기가 제일 지금 많이 어렵고, 집값도 너무 크게 오르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게 대출을 또 잘 안 해주시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정책적으로 하면은 좋을 거 같아요. (사례 5)

저는 좀 일단은 정부에서... 지금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있고 좀 청년을 위해서 더 한다면 사실 뭐 이렇게 고기를...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월급을 줄 수는 없는데, 좀 출발선을 만들어주려면 주거라던가 그다음에 취업, 창업 같은 데서 좀 혜택을 주면 좋을 거 같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거가 안정이 돼야 모든 게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심리적인 면에서나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사례 12)

그냥 보통 사람이 사는 일반 아파트에 살고 싶고 자가로 된 내 집 하나 사고 싶은 게 큰 목표인 거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목표인 거죠. (사례 16)

표 V-290. 삶의 만족도 - (9) 시간적 여유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07	3.7	8.4	5.6	9.3	12.1	25.2	11.2	9.3	4.7	3.7	6.5
성별	남 자	35	2.9	8.6	5.7	8.6	8.6	28.6	14.3	5.7	2.9	5.7	8.6
	여 자	72	4.2	8.3	5.6	9.7	13.9	23.6	9.7	11.1	5.6	2.8	5.6
연령	만19~24세	58	3.4	12.1	6.9	10.3	12.1	15.5	13.8	10.3	6.9	5.2	3.4
	만25~29세	26	7.7	0.0	3.8	11.5	7.7	30.8	11.5	11.5	3.8	3.8	7.7
	만30~34세	22	0.0	9.1	4.5	4.5	18.2	40.9	4.5	4.5	0.0	0.0	13.6
지역	수 도 권	97	4.1	7.2	5.2	8.2	13.4	25.8	10.3	10.3	5.2	3.1	7.2
	비 수 도 권	9	0.0	22.2	11.1	22.2	0.0	11.1	22.2	0.0	0.0	11.1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9	5.1	10.2	8.5	8.5	13.6	25.4	8.5	5.1	8.5	5.1	1.7
	대 출 이 상	31	3.2	6.5	0.0	9.7	6.5	22.6	19.4	16.1	0.0	3.2	12.9
출신 지역	북 한	89	3.4	6.7	6.7	7.9	12.4	25.8	13.5	6.7	5.6	3.4	7.9
	중 국	17	5.9	17.6	0.0	17.6	11.8	17.6	0.0	23.5	0.0	5.9	0.0

삶의 만족도 중 시간적 여유와 관련해서 북한배경청년들의 35.4%는 시간적 여유 측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39.1%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에서도 북한배경청년들은 생계유지, 취업, 학업, 사회 적응 등에 있어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게 많았고 새로운 거를 계속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마다 그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렵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면접 보러 가면은 “한국어는 다 알아들으시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사례 4)

표 V-291. 삶의 만족도 - (10) 내가 살고 있는 동네 환경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07	1.9	3.7	7.5	4.7	5.6	27.1	14.0	9.3	11.2	7.5	7.5	
성 별	남 자	35	5.7	2.9	8.6	8.6	5.7	20.0	20.0	8.6	5.7	8.6	5.7	
	여 자	72	0.0	4.2	6.9	2.8	5.6	30.6	11.1	9.7	13.9	6.9	8.3	
연 령	만19~24세	57	3.5	5.3	5.3	3.5	3.5	21.1	15.8	10.5	19.3	5.3	7.0	
	만25~29세	26	0.0	3.8	7.7	7.7	3.8	26.9	11.5	11.5	3.8	15.4	7.7	
	만30~34세	23	0.0	0.0	13.0	4.3	13.0	39.1	13.0	4.3	0.0	4.3	8.7	
지 역	수 도 권	97	2.1	3.1	7.2	5.2	5.2	26.8	12.4	10.3	12.4	8.2	7.2	
	비 수 도 권	9	0.0	11.1	11.1	0.0	11.1	22.2	33.3	0.0	0.0	0.0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1.7	6.7	6.7	1.7	5.0	35.0	10.0	10.0	13.3	5.0	5.0	
	대 출 이 상	30	3.3	0.0	10.0	3.3	3.3	16.7	26.7	10.0	0.0	16.7	10.0	
출 신 지 역	북 한	89	0.0	3.4	9.0	5.6	5.6	29.2	14.6	10.1	6.7	6.7	9.0	
	중 국	17	11.8	5.9	0.0	0.0	5.9	11.8	11.8	5.9	35.3	11.8	0.0	

삶의 만족도 중 살고 있는 동네 환경과 관련해서 북한배경청년들의 49.5%는 동네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23.4%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환경에 대한 불만족은 자신의 현재보다는 미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편견에 대한 문제도 반영되어 있다. 북한배경청년들은 현재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거주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싶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게 저 혼자 살 때는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서 살아도 문제가 없잖아요. 저는 뭐 딱히 좁다고 해서... 그냥 살면 되지. 결혼하면 이게 결혼을 한다는 거 자체는 크기도 크기지만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거 용도보다는 브랜드냐 이런 것도 보고. 만약에 자식이 생겼을 경우 학군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아이들끼리도... (사례 12)

좀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임대주택에 이렇게 계약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그 북한 출신 분들이 모여 사는 게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들은 그거 계도화 된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 거 같은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휴거충.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그런 거 들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해서 자식이 있다 그러면 탈출하고 싶어질 거 같아요. (사례 18)

표 V-292. 삶의 만족도 - (11) 전반적인 나의 인생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2,041	0.6	0.2	1.0	2.0	4.4	15.4	21.1	29.1	20.8	4.5	1.0	
성 별	남	자	1,074	0.5	0.0	0.7	1.6	4.2	17.4	21.1	27.9	20.8	4.6	1.2
	여	자	967	0.6	0.4	1.4	2.4	4.6	13.3	21.0	30.4	20.7	4.4	0.7
연 령	만18~24세	773	0.7	0.2	1.3	1.9	3.4	16.9	20.9	27.2	21.5	4.3	1.6	
	만25~29세	668	0.8	0.4	0.4	1.8	5.2	15.5	21.2	28.6	20.6	4.8	0.7	
	만30~34세	600	0.2	0.0	1.3	2.2	4.6	13.5	21.0	32.1	20.0	4.4	0.5	
지 역	수 도 권	1,032	0.8	0.2	0.7	2.2	4.4	16.9	23.4	31.0	16.4	2.9	1.1	
	비 수 도 권	1,009	0.3	0.2	1.4	1.7	4.4	13.7	18.4	27.0	25.8	6.3	0.9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0.8	0.1	1.0	1.4	3.8	17.6	22.2	27.7	19.3	4.8	1.3	
	대 출 이 상	1,044	0.4	0.3	1.0	2.5	4.9	13.4	20.0	30.4	22.2	4.2	0.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93. 삶의 만족도 - (11) 전반적인 나의 인생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08	3.7	1.9	3.7	3.7	4.6	23.1	9.3	13.0	15.7	10.2	11.1
성별	남자	35	11.4	2.9	2.9	0.0	2.9	17.1	5.7	20.0	11.4	8.6	17.1
	여자	73	0.0	1.4	4.1	5.5	5.5	26.0	11.0	9.6	17.8	11.0	8.2
연령	만19~24세	58	6.9	3.4	5.2	6.9	3.4	17.2	10.3	13.8	15.5	6.9	10.3
	만25~29세	26	0.0	0.0	0.0	0.0	3.8	30.8	3.8	15.4	15.4	19.2	11.5
	만30~34세	23	0.0	0.0	4.3	0.0	8.7	26.1	13.0	8.7	17.4	8.7	13.0
지역	수도권	98	4.1	1.0	4.1	4.1	3.1	23.5	6.1	14.3	17.3	11.2	11.2
	비수도권	9	0.0	11.1	0.0	0.0	22.2	11.1	44.4	0.0	0.0	0.0	11.1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5.0	1.7	5.0	3.3	8.3	21.7	11.7	13.3	13.3	8.3	8.3
	대졸 이상	31	3.2	0.0	3.2	3.2	0.0	19.4	9.7	16.1	16.1	16.1	12.9
출신 지역	북한	90	2.2	0.0	3.3	2.2	4.4	25.6	11.1	14.4	14.4	10.0	12.2
	중국	17	11.8	11.8	5.9	11.8	5.9	5.9	0.0	5.9	23.5	11.8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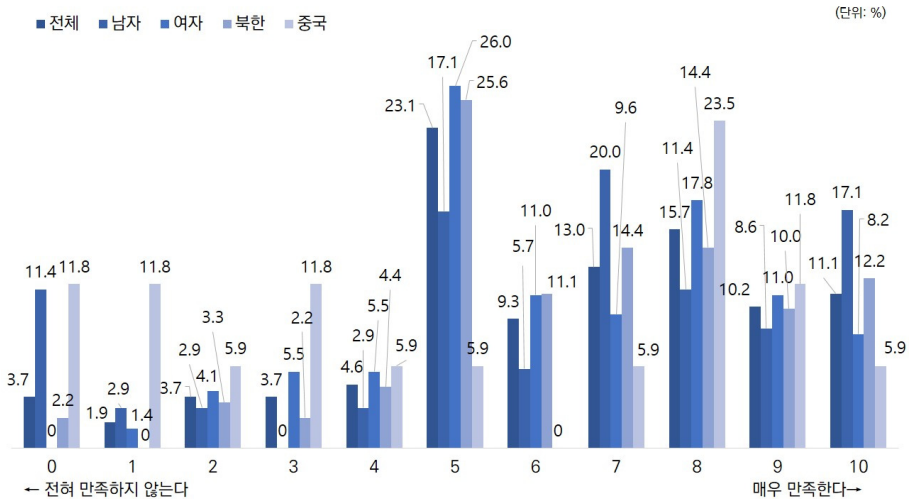


그림 V-63. 삶의 만족도 - (11) 전반적인 나의 인생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 중 전반적인 자신의 인생에 대해 북한배경청년들의 59.3%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17.6%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년의 76.5%가 전반적인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만족하고, 8.2%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배경청년 중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응답도 많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는 북한배경의 남성 청년들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여성에 비해 양극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7. 가치관

북한배경청년들의 가치관이 갖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선호하는 가치, 행복한 삶의 조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일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과 면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호하는 가치

선호하는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일과 여가, 현실과 이상, 결과와 과정, 개인과 집단, 타인의 이목, 자신의 주관 중 어떤 가치를 선호하는지를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294.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일				여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2,041	1.8	9.5	13.2	24.4	24.5	22.8	3.8
성 별	남	자	1,074	1.9	11.4	15.9	24.2	22.4	21.2
	여	자	967	1.7	7.5	10.2	24.7	26.8	24.6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2.2	9.0	12.9	22.6	25.6	24.3	3.5
	만 2 5 ~ 2 9 세	668	1.2	9.9	12.7	26.4	24.7	20.5	4.7
	만 3 0 ~ 3 4 세	600	2.0	9.9	14.2	24.5	22.8	23.3	3.3
지 역	수 도 권	1,032	1.1	9.2	11.7	26.4	27.0	22.2	2.3
	비 수 도 권	1,009	2.7	9.9	14.9	22.1	21.5	23.4	5.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2.3	9.9	13.7	23.7	22.4	23.9	4.1
	대 졸 이 상	1,044	1.3	9.2	12.7	25.1	26.4	21.7	3.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95. 선호하는 가치_1) 일 중시 VS 여가 중시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일					여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106	6.6	15.1	12.3	26.4	21.7	11.3	6.6
성 별	남	자	34	5.9	17.6	14.7	23.5	17.6	11.8	8.8
	여	자	72	6.9	13.9	11.1	27.8	23.6	11.1	5.6
연 령	만 19 ~ 24 세		57	8.8	15.8	10.5	22.8	22.8	8.8	10.5
	만 25 ~ 29 세		26	3.8	11.5	15.4	38.5	15.4	15.4	0.0
	만 30 ~ 34 세		22	4.5	18.2	13.6	22.7	27.3	9.1	4.5
지 역	수 도 권		96	6.3	15.6	10.4	28.1	22.9	10.4	6.3
	비 수 도 권		9	11.1	11.1	33.3	11.1	11.1	11.1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9	20.3	13.6	15.3	22.0	8.5	16.9	3.4
	대 졸 이 상		31	9.7	32.3	22.6	12.9	19.4	3.2	0.0
출 신 지 역	북	한	88	8.0	15.9	13.6	26.1	17.0	11.4	8.0
	중	국	17	0.0	11.8	5.9	29.4	47.1	5.9	0.0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은 일 중심 사고를 하는 경향과 여가 중심 사고 경향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일반청년들은 두드러지게 여가 중심 사고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이 중요하다고 반응한 이들(①, ②, ③에 응답)은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34.0%인데 비해 일반청년들의 24.5%만이 여기에 응답했다. 여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⑤, ⑥, ⑦에 응답)은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39.6%인데 비해 일반청년의 51.1%가 이에 응답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 경향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거주지역별, 출생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북한배경청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해서 얻는 풍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 일과 여가가 구분되지 않는 일 자체가 즐거움인 삶을 추구하여 삶 자체를 일 중심으로 설계하는 이들도 있다.

피면접자: ...이렇게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거기서는 그 결핍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그 풍요롭게 살려고 자기 바빠하고 스트레스받고 하는 게 저는 좀 처음에 많이 이해도 안 되고, 지금도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많이 놀랐던 거 같아요.

연구자: 풍요로운데 사람들이 시간이 빈곤하다. 뭐 이런 건가요?

피면접자: 시간이 빈곤하다기보다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풍요로운 거다”하고 말하면 할 말이 없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사례 2)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니 꿈이 뭐니? 잘살고 싶니?”를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 잘살고 싶다는 게 과연 뭘까?”라는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잘살게 되는 걸까? 대학을 좋은 데에 간다고 잘살까?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고 잘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답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의사를 해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자기 생활이 없는 거잖아요.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수술하고 또 들어가고. 그런 생활을 듣고 보다 보니까, 나는 저런 삶이 살고 싶지 않고. 그러면 과연 나한테 행복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거예요. 당구를 좋아하는데 내가 자다가도 새벽에 당구 치고 싶으면 당구 치러 나가는 거. (사례 1)

피면접자: ...저는 사실 그렇게 큰... 모든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큰돈을 많이 버는 거나. 연구자: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피면접자: 네, 본질적으로 봤을 때 큰 뭐... 의미가 있긴 한데 그렇게 목숨을 걸 만큼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모든 걸 쏟아 바칠 만큼은 모든 게 중요하지 않고, 세상을 관망해서 구경하고 쓸쓸하게 재미 찾고. 그리고 좀 지루하지 않게 사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그게 중요한 가치인 거 같아요.

연구자: 선생님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비즈니스를 크게 한번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피면접자: 저는 비즈니스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몇 달 동안 진짜 올인해서 하다가 힘들면 그런 때는 좀 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 자체에 목적이 아니고, 비즈니스가 제가 하고 싶은 거고. 설렘이나 재미나 거기서 나오는 돈도... 그런 걸 바라는 거지. 그 자체가 뭐 목적이 아니라서. 제가 아니라도 그거는 뭐 어디가 일어나고 세상이 망하는 건 아니라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

피면접자: 네, 그 삶 자체에 이왕 사는 거 그냥 삶 자체가 원하는 것만 쫓 하면서 워크라고 하는 게 라이프 자체가 일이고 일이 라이프가 되고 이게 서로 똑같은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창업을 하는 게 그게 커요. 제가 창업을 하면 딱히 억지로 힘들어서 출근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들거든요. 저는. (사례 12)

표 V-296.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현실				이상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2,041	8.9	29.3	27.1	19.4	10.3	4.3	0.6
성 별	남	자	1,074	9.0	29.2	27.2	18.8	11.1	4.3	0.5
	여	자	967	8.8	29.5	27.1	20.0	9.4	4.4	0.8
연 령	만 18 ~ 24 세		773	8.4	29.4	25.2	18.7	12.8	4.8	0.7
	만 25 ~ 29 세		668	9.6	28.5	28.1	19.5	9.3	4.5	0.5
	만 30 ~ 34 세		600	8.8	30.2	28.6	20.0	8.2	3.5	0.7
지 역	수 도 권		1,032	5.3	28.8	26.9	20.8	12.8	4.6	0.8
	비 수 도 권		1,009	13.1	29.9	27.5	17.6	7.3	4.1	0.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10.3	30.2	23.2	18.7	12.5	4.8	0.4
	대 졸 이 상		1,044	7.6	28.5	31.0	20.0	8.1	3.9	0.9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97.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현실				이상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106	17.0	20.8	17.0	18.9	12.3	12.3	1.9
성 별	남	자	34	8.8	20.6	29.4	20.6	8.8	8.8	2.9
	여	자	72	20.8	20.8	11.1	18.1	13.9	13.9	1.4
연 령	만 19 ~ 24 세		57	24.6	14.0	17.5	17.5	5.3	17.5	3.5
	만 25 ~ 29 세		26	11.5	34.6	15.4	19.2	15.4	3.8	0.0
	만 30 ~ 34 세		22	4.5	22.7	13.6	22.7	27.3	9.1	0.0
지 역	수 도 권		96	17.7	21.9	15.6	19.8	12.5	11.5	1.0
	비 수 도 권		9	11.1	11.1	22.2	11.1	11.1	22.2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9	20.3	13.6	15.3	22.0	8.5	16.9	3.4
	대 졸 이 상		31	9.7	32.3	22.6	12.9	19.4	3.2	0.0
출 신 지 역	북 한		88	18.2	20.5	17.0	19.3	12.5	10.2	2.3
	중 국		17	11.8	23.5	11.8	17.6	11.8	23.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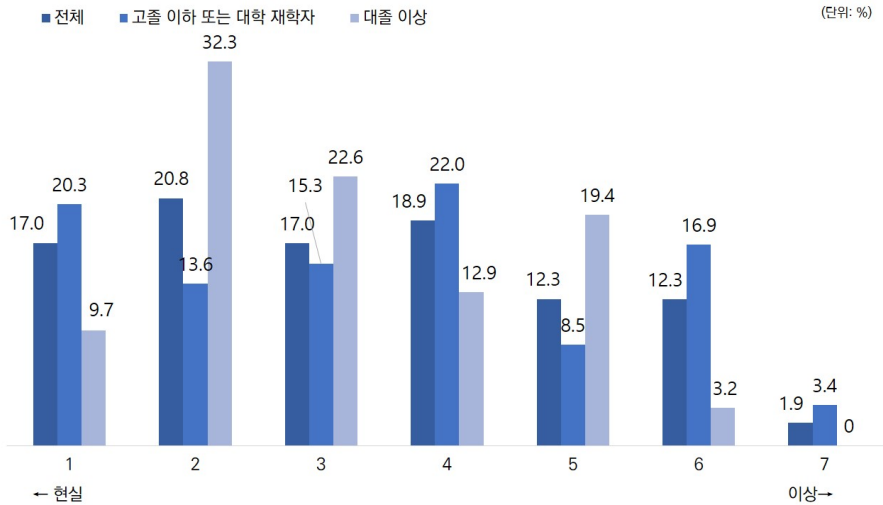


그림 V-64. 선호하는 가치_2) 현실 중시 VS 이상 중시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북한배경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현실주의적이다. 일반청년들의 65.3%가 현실 중시(①, ②, ③에 응답)에 반응한 반면, 북한배경청년들은 54.8%가 현실 중시에 반응했다. 이 문항에서는 대졸 이상 북한배경청년들이 고졸 이하 또는 대졸 재학자에 비해 더 현실지향적으로 나타난다. 대졸 이상 북한배경청년들의 64.6%가 현실 중시에 반응한 반면,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자는 49.2%만 여기에 응답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은 한국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찾아가기보다 지나치게 획일적인 인생 경로를 밟고 있다고 보고 그 점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저도 약간... 되게 정해진 길을 간다고 얘길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을 보면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지휘하는 그 아래에서 뭔가를 따라오다 보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게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난데, 저 사람들은 미래에 그 정해진 직업을 위해서 보고만 가는 게 너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사례 1)

피면접자: 영화동아리랑 음악동아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좀 호기심 많은 친구들이 오는 데, 같은 과 친구들이나 다른 교양수업 들을 때 만나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저랑은 좀 다른 거 같아요. 많이.

연구자: 사진작가도 되고 싶고. 그런데 인류학 공부를 하고 싶고 영화동아리, 음악동아리하고. 또 무슨 동아리 해요?

피면접자: 사진동아리요.

연구자: 사진동아리도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정해진 트랙으로 열심히 가고 있더라.

피면접자: 그런데 정해진 트랙이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 거 같아요. 안정적인 수입이. 안정적이면서 굉장히 높은 수입. 네, 이게 공통점인 거 같아요. 제가 친구들과하고 얘기해보면.

연구자: 어떤 걸까요? 그게. 안정적인.

피면접자: 다 법대 가려고 하거든요. 다라고 하면 좀 극단적인데, 제가 만난 그 과 친구 중에... 제가 체교과인데도 한 80%는 법대 가려고 해요. 다. 졸업하고. 타과생들은 더 심하고. 그래서 좀 많이 놀랍고. 지금도 놀라워요. 사실.

연구자: 이해가 안 되는.

피면접자: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이해가 잘 돼요. 잘 되는데 뭔가 저게 맞는 건가 싶어요. 다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그 똑똑한 친구들이 그렇게 한 길로만 가는 게 맞나 싶어요. (사례 2)

그거는 시간 좀 지나 가보면 한국은 되게 제 느낌은 부자들 좀 돈 많은 사람 살기 좋은 곳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진짜 제처럼 공부를 많이 공부 잘 못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사업 빼고는 큰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사례 14)

표 V-298.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결과					과정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2,041	6.5	22.3	24.3	24.4	13.7	7.8	0.9
성 별	남 자	1,074	6.4	23.6	25.0	24.3	11.5	8.1	1.2	
	여 자	967	6.7	20.9	23.6	24.7	16.1	7.5	0.6	
연 령	만 18 ~ 24 세	773	6.4	22.3	25.8	21.9	14.8	7.7	1.1	
	만 25 ~ 29 세	668	7.4	22.1	24.8	24.9	13.2	7.0	0.7	
	만 30 ~ 34 세	600	5.6	22.7	22.0	27.2	12.7	8.9	0.8	
지 역	수 도 권	1,032	5.1	19.1	24.1	24.7	16.6	9.4	1.0	
	비 수 도 권	1,009	8.2	26.1	24.6	24.1	10.3	6.0	0.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7.0	22.6	25.5	22.8	12.6	8.5	0.9	
	대 졸 이 상	1,044	6.0	22.0	23.2	26.0	14.6	7.2	0.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299. 선호하는 가치_3)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결과				과정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106	7.5	18.9	17.9	24.5	7.5	17.0	6.6	
성 별	남 자	34	8.8	17.6	29.4	26.5	5.9	8.8	2.9	
	여 자	72	6.9	19.4	12.5	23.6	8.3	20.8	8.3	
연 령	만 1 9 ~ 2 4 세	57	12.3	19.3	15.8	26.3	7.0	10.5	8.8	
	만 2 5 ~ 2 9 세	26	3.8	23.1	23.1	26.9	7.7	11.5	3.8	
	만 3 0 ~ 3 4 세	22	0.0	13.6	13.6	18.2	9.1	40.9	4.5	
지 역	수 도 권	96	8.3	19.8	17.7	26.0	6.3	15.6	6.3	
	비 수 도 권	9	0.0	11.1	11.1	11.1	22.2	33.3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9	6.8	18.6	11.9	27.1	8.5	18.6	8.5	
	대 졸 이 상	31	9.7	16.1	25.8	22.6	6.5	16.1	3.2	
출 신 지 역	북 한	88	5.7	19.3	17.0	23.9	8.0	18.2	8.0	
	중 국	17	17.6	17.6	17.6	29.4	5.9	11.8	0.0	

‘결과 중시’ vs ‘과정 중시’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일반청년들의 53.1%가 결과 중시(①, ②, ③에 응답)에 응답했던 것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은 이에 44.3%가 반응했다.

표 V-300.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개인				집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2,041	3.4	14.3	26.4	31.5	15.4	7.7	1.3
성 별	남 자	1,074	3.4	14.2	25.3	30.3	15.8	9.4	1.6
	여 자	967	3.3	14.5	27.7	32.8	14.9	5.8	0.9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4.3	14.0	25.6	30.9	14.6	8.7	1.9
	만 2 5 ~ 2 9 세	668	3.1	13.8	27.6	30.0	16.5	8.0	1.0
	만 3 0 ~ 3 4 세	600	2.5	15.2	26.3	33.9	15.1	6.4	0.7
지 역	수 도 권	1,032	3.5	15.1	26.1	28.6	17.5	8.5	0.8
	비 수 도 권	1,009	3.2	13.4	26.9	34.8	13.0	6.8	1.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3.9	14.9	26.0	29.6	14.3	9.6	1.8
	대 졸 이 상	1,044	2.9	13.8	26.9	33.3	16.4	6.0	0.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01. 선호하는 가치_4) 개인 중시 VS 집단 중시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개인				집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106	7.5	17.0	9.4	31.1	12.3	17.9	4.7
성 별	남 자	34	8.8	14.7	11.8	23.5	8.8	23.5	8.8
	여 자	72	6.9	18.1	8.3	34.7	13.9	15.3	2.8
연 령	만 1 9 ~ 2 4 세	57	10.5	14.0	7.0	33.3	14.0	15.8	5.3
	만 2 5 ~ 2 9 세	26	3.8	15.4	11.5	34.6	11.5	19.2	3.8
	만 3 0 ~ 3 4 세	22	4.5	27.3	13.6	22.7	9.1	18.2	4.5
지 역	수 도 권	96	7.3	16.7	8.3	34.4	12.5	16.7	4.2
	비 수 도 권	9	11.1	22.2	22.2	0.0	11.1	22.2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9	5.1	15.3	10.2	33.9	15.3	15.3	5.1
	대 졸 이 상	31	9.7	22.6	9.7	22.6	9.7	22.6	3.2
출 신 지 역	북 한	88	8.0	15.9	10.2	30.7	12.5	17.0	5.7
	중 국	17	5.9	23.5	5.9	35.3	11.8	17.6	0.0

개인을 중시하느냐 집단을 중시하느냐 있어서 일반청년들은 44.1%가 개인 중시(①, ②, ③에 응답) 경향을 보였고,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도 개인 중시 경향을 보이는 이들이 33.9%에 달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일반청년들이나 북한배경청년들이나 개인, 집단 어느 쪽도 아닌 중간(④)에 응답한 경우가 1/3이다.

표 V-302. 선호하는 가치_5) 타인의 이목 중시 VS 자신의 주관 중시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타인의 이목				자신의 주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2,041	0.9	3.9	12.2	28.8	30.0	19.9	4.3
성 별	남 자	1,074	0.8	2.7	12.3	29.0	29.6	21.3	4.4
	여 자	967	1.0	5.3	12.1	28.6	30.5	18.3	4.3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1.7	4.0	14.3	27.0	28.3	20.3	4.5
	만 2 5 ~ 2 9 세	668	0.0	4.5	10.2	30.0	32.3	18.9	3.9
	만 3 0 ~ 3 4 세	600	0.9	3.1	11.7	29.7	29.7	20.4	4.5
지 역	수 도 권	1,032	0.6	3.7	13.3	26.2	31.5	21.3	3.2
	비 수 도 권	1,009	1.2	4.1	10.8	31.7	28.4	18.2	5.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1.1	3.3	13.5	27.5	29.0	21.2	4.4
	대 졸 이 상	1,044	0.7	4.5	10.9	30.0	31.0	18.6	4.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03. 선호하는 가치_5) 타인의 이목 중시 VS 자신의 주관 중시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 타인의 이목				자신의 주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106	3.8	6.6	10.4	32.1	14.2	17.9	15.1
성 별	남	자	34	5.9	14.7	11.8	35.3	17.6	8.8	5.9	
	여	자	72	2.8	2.8	9.7	30.6	12.5	22.2	19.4	
연 령	만 19 ~ 24 세		57	3.5	7.0	14.0	28.1	12.3	17.5	17.5	
	만 25 ~ 29 세		26	3.8	0.0	7.7	34.6	15.4	19.2	19.2	
	만 30 ~ 34 세		22	4.5	9.1	4.5	40.9	18.2	18.2	4.5	
지 역	수 도 권		96	3.1	5.2	10.4	34.4	12.5	18.8	15.6	
	비 수 도 권		9	11.1	11.1	11.1	11.1	33.3	11.1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1.7	6.8	11.9	28.8	18.6	15.3	16.9	
	대 졸 이 상		30	3.2	3.2	9.7	35.5	12.9	22.6	12.9	
출 신 지 역	북	한	88	2.3	5.7	9.1	31.8	15.9	18.2	17.0	
	중	국	17	11.8	5.9	17.6	35.3	5.9	17.6	5.9	

타인의 이목 중시, 자신의 주관 중시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일반청년들의 응답과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 타인의 이목(일반청년 17.0%, 북한배경청년 20.8%)보다는 자신의 주관(일반청년 54.2%, 북한배경청년 47.2%)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배경청년의 경우가 조금 더 타인의 이목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은 딱히, 그런데 할머니가 걸리셔 가지고 아버지,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반대를 안 하셨어요. 하고 싶은 거 해라. 범죄만 안 저지르면 법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할머니가 어릴 때 공부를 엄청 잘했었는데 대학교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50년도 생인데 그 문화대혁명 일어나 가지고 그때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셔 가지고 그게 한이 있어서 가지고 어릴 때부터 저를 공부를 엄청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한 건 아닌데 할머니가 시키니까 억지로 그냥 공부 막 열심히 하고 제 꿈은 아니잖아요. 할머니 꿈이지. 어릴 때는 그냥 할머니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출세해야지 이랬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럴게는 못 살겠다. 왜 굳이 내가 싫어하는 걸 하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아직 걱정이긴 한데 나중에 할머니랑 어떻게 하지, 할머니는 대학교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걱정이긴 한데 잘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죠. (사례 7)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을 보면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지휘하는 그 아래에서 뭔가를 따라오다 보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게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난데, 저 사람들은 미래에 그 정해진 직업을 위해서 보고만 가는 게 너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사례 1)

연구자: 내가 재밌는 일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 중에 고르라고 하면?

피면접자: 저는 후자를 택할 거 같긴 해요.

연구자: 인정받는 일.

피면접자: 네.

연구자: 왜요?

피면접자: 재밌는 건 친구들이랑 취미로 따로 하면 될 거 같고. 재밌는데 같이 좋다면 너무 좋겠지만 회사생활을 조금 해봤는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뜻대로 안 되니까. (사례 21)

2)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건에 대해서는 총 10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가치를 물었다. 아울러 현재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현재 행복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30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재산·경제력	취미·가정	자아 성취	건강	감사·긍정적 태도	종교 생활	직업·직장	연인 이성 관계 등	친구·대인 관계	꿈·목표 의식
전	체	2,041	23.5	20.2	9.2	17.6	6.9	0.7	6.7	1.1	5.1	8.9
	자	1,074	26.0	16.9	8.7	16.2	6.0	0.5	8.5	1.3	5.9	10.0
성별	여	967	20.7	24.0	9.8	19.2	7.9	0.8	4.8	0.9	4.2	7.6
	자	773	24.2	16.7	9.6	16.2	4.9	1.0	6.0	1.7	7.5	12.1
연령	만 18~24세	668	22.9	17.6	10.7	17.3	9.1	0.7	8.2	0.6	4.7	8.2
	만 25~29세	600	23.4	27.5	7.2	19.8	6.9	0.1	6.1	1.0	2.5	5.6
	만 30~34세	1,032	22.3	18.6	11.7	17.1	5.3	1.0	6.6	1.0	5.3	11.2
지역	수 도 권	1,009	24.9	22.1	6.4	18.3	8.8	0.2	7.0	1.3	4.9	6.2
	비 수 도 권	997	25.4	19.0	8.6	16.8	5.3	0.7	6.2	1.7	6.6	9.7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1,044	21.7	21.3	9.8	18.4	8.4	0.6	7.2	0.6	3.7	8.1
	대 졸 이 상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0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재산·경제력	화목한 가정	자아 성취	건강	감사·공정적 태도	종교 생활	직업·직장	연인 (이성) 관계	친구·대인 관계	꿈·목표 의식	기타
전	체	106	34.9	23.6	2.8	16.0	11.3	1.0	1.9	0.0	1.9	5.7	0.9
성별	남 자	35	51.4	11.4	2.9	17.1	8.6	0.0	2.9	0.0	0.0	2.9	2.9
	여 자	71	26.8	29.6	2.8	15.5	12.7	1.4	1.4	0.0	2.8	7.0	0.0
연령	만19~24세	58	36.2	20.7	3.4	17.2	10.3	1.7	0.0	0.0	3.4	5.2	1.7
	만25~29세	25	36.0	28.0	0.0	8.0	16.0	0.0	4.0	0.0	0.0	8.0	0.0
	만30~34세	22	31.8	22.7	4.5	22.7	9.1	0.0	4.5	0.0	0.0	4.5	0.0
지역	수 도 권	96	35.4	21.9	3.1	16.7	11.5	1.0	1.0	0.0	2.1	6.3	1.0
	비 수 도 권	9	33.3	33.3	0.0	11.1	11.1	0.0	11.1	0.0	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28.3	26.7	5.0	20.0	8.3	1.7	1.7	0.0	3.3	3.3	1.7
	대졸 이상	30	36.7	26.7	0.0	10.0	13.3	0.0	3.3	0.0	0.0	10.0	0.0
출신 지역	북 한	88	35.2	23.9	3.4	15.9	11.4	0.0	2.3	0.0	2.3	5.7	0.0
	중 국	17	35.3	17.6	0.0	17.6	11.8	5.9	0.0	0.0	0.0	5.9	5.9

일반청년들에게서나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나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 ‘재산·경제력’을 지목한 이들이 가장 많다는 점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재산·경제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특히 더 많이 나타난다. 일반청년들의 23.5%가 이를 지목한 반면,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 34.9%가 ‘재산·경제력’이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북한배경 남자들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반청년에게서나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나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재산·경제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드러나는 가운데에 특히 북한배경 남자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51.4%) 뚜렷이 나타난다.

‘재산·경제력’ 외에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 많은 이들이 응답한 것은 ‘화목한 가정’(23.6%), ‘건강’(16.0%) 등이다.

제가 몇 살까지는... 제가 30살까지 무조건 몇 억 목표고, 언제 차 사고 차 보는 것도 지금 한 3개월 동안 차만 보고 있어요. 미쳐 가지고, 연비 좋은 차를 사서, 돈 모아가지고... (사례 13)

시간 좀 지나 가보면 한국은 되게 제 느낌은 부자들 좀 돈 많은 사람 살기 좋은 곳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진짜 제처럼 공부를 많이 공부 잘 못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사업 빼고는 큰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사례 14)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당장 그 맛집을 찾아갈 수 있는 거요. 네, 누구한테 얹매이지 않는 게 저는 잘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례 1)

저는 가치관. 제가 종교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신앙이 조금... 개인적인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 3)

가족이 그냥 저는 다른 건 그렇고 그냥 우리 가족 밖에 중요한 건 없어요. 뭐 동생이고 뭐 시어머니고 다 있어도 다 남이고 그냥 신랑하고 그냥 딸내미. (사례 10).

연구자: 나중에 선생님은 여기서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뭐가 내 인생에서 앞으로 제일 중요하다. 피면접자: 난 가정인 것 같아요.

연구자: 가족이요?

피면접자: 네. 일단 다양하게는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큼 몇 안 되는 친구들이랑, 내 가족들이랑 그냥 지금처럼만 살아도 그냥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례 9)

연구자: ...아까 이제 북한을 나오실 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지요?

피면접자: 변함이 없어요. 신랑하고 저희 나름 되게 저축해서 저축도 좀 많이 하고 나름 아껴서 쓰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은 우리 꼭 건물주 되자.

연구자: 건물주.

피면접자: 네.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그냥 일단 먼저 머리로 생각하고 내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주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냥 지금 되뇌이고 있어요.

연구자: 선생님 생각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피면접자: 저는 그냥 너무 많은 부자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가 자식한테 충분히 집도 사줄 수 있고 뭐 내가 노년에 충분히 그냥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정도만큼.

연구자: 그럴겠네요. 이제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뭐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 있는데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부분이 있잖아요. 돈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을 최고로 첫 번째로 치나요. 그러면?

피면접자: 아니요.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고 그 돈을 누릴 수도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죠.

연구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피면접자: 두 번째가 돈인 거 같아요. (사례 11)

표 V-306.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41	5.0	18.1	27.7	44.2	5.0
성 별	남 자	1,074	5.4	19.7	28.8	41.5	4.6
	여 자	967	4.5	16.3	26.6	47.1	5.5
연 령	만 18~24세	773	7.3	20.0	29.4	39.0	4.3
	만 25~29세	668	4.6	18.1	27.6	44.4	5.4
	만 30~34세	600	2.5	15.7	25.7	50.5	5.5
지 역	수 도 권	1,032	5.6	18.3	27.2	44.1	4.7
	비 수 도 권	1,009	4.2	17.8	28.4	44.3	5.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6.8	19.2	27.7	41.6	4.7
	대 졸 이 상	1,044	3.3	17.1	27.8	46.6	5.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07.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춘 정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7	15.9	20.6	32.7	18.7	12.1
성 별	남 자	34	26.5	26.5	23.5	14.7	8.8
	여 자	73	11.0	17.8	37.0	20.5	13.7
연 령	만 19~24세	58	17.2	22.4	31.0	15.5	13.8
	만 25~29세	26	19.2	19.2	30.8	15.4	15.4
	만 30~34세	22	9.1	13.6	40.9	31.8	4.5
지 역	수 도 권	97	16.5	17.5	34.0	19.6	12.4
	비 수 도 권	9	11.1	44.4	22.2	11.1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15.0	23.3	33.3	15.0	13.3
	대 졸 이 상	31	16.1	19.4	22.6	25.8	16.1
출 신 지 역	북 한	89	13.5	20.2	34.8	19.1	12.4
	중 국	17	29.4	17.6	23.5	17.6	11.8

행복한 삶의 요건을 갖춘 정도와 관련해서는 일반청년들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일반청년들 중에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23.1%인데 비해 북한배경청년의 36.5%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 중 30.8%가 행복한 삶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응답했음에 비해 일반청년의 49.2%가 행복한 삶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북한배경 남성들에게서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는 주관적 인식 수준에서 북한배경청년들 중 남성들이 한국에서의 삶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총 12개의 가치 중에서 순위와 상관없이 총 3개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308.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부	공정	노력	다양성	신뢰	자립	자유	재미	정의	존중	지속가능성	평등
전	체	2,041	49.0	29.9	15.6	17.4	41.8	11.6	34.8	14.5	14.9	31.1	15.9	23.4
	남 자	1,074	51.1	30.9	16.8	15.8	41.2	12.3	34.6	12.2	16.0	28.8	17.3	22.9
	여 자	967	46.7	28.7	14.2	19.1	42.6	10.9	35.0	17.2	13.8	33.7	14.3	24.0
연령	만18~24세	773	48.0	28.4	15.3	17.3	42.6	12.3	37.0	16.4	13.6	29.4	16.1	23.7
	만25~29세	668	49.4	31.2	14.7	15.6	42.2	12.2	35.3	13.2	17.0	31.8	14.6	22.9
	만30~34세	600	50.0	30.3	16.9	19.4	40.4	10.1	31.5	13.7	14.4	32.4	17.1	23.6
지역	수 도 권	1,032	44.2	32.2	13.3	17.2	40.5	13.1	35.6	14.8	16.2	31.8	16.2	24.9
	비 수 도 권	1,009	54.7	27.2	18.2	17.6	43.4	9.9	33.8	14.3	13.5	30.2	15.5	21.8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50.1	27.3	16.5	16.5	40.6	11.3	35.8	16.8	15.2	29.5	16.2	24.4
	대 졸 이 상	1,044	48.1	32.3	14.7	18.2	43.1	11.9	33.9	12.4	14.7	32.6	15.6	22.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09.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부	공정	노력	다양성	신뢰	자립	자유	재미	정의	존중	지속가능성	평등	
전		체	104	43.3	33.7	21.2	33.7	25.0	7.7	26.9	4.8	16.3	46.2	10.6	28.8
성별	남	자	33	54.5	30.3	15.2	27.3	18.2	9.1	33.3	12.1	18.2	45.5	6.1	24.2
	여	자	71	38.0	35.2	23.9	36.6	28.2	7.0	23.9	1.4	15.5	46.5	12.7	31.0
연령	만19~24세		56	39.3	35.7	19.6	33.9	23.2	3.6	35.7	3.6	12.5	48.2	8.9	32.1
	만25~29세		26	46.2	26.9	15.4	34.6	26.9	7.7	23.1	11.5	15.4	50.0	15.4	26.9
	만30~34세		22	50.0	36.4	31.8	31.8	27.3	18.2	9.1	0.0	27.3	36.4	9.1	22.7
지역	수 도 권		95	43.2	31.6	22.1	34.7	26.3	6.3	27.4	5.3	17.9	45.3	10.5	27.4
	비 수 도 권		9	44.4	55.6	11.1	22.2	11.1	22.2	22.2	0.0	0.0	55.6	11.1	44.4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8	43.1	37.9	19.0	32.8	31.0	6.9	29.3	3.4	8.6	43.1	13.8	27.6
	대 졸 이 상		30	43.3	26.7	20.0	50.0	13.3	10.0	23.3	10.0	20.0	53.3	3.3	26.7
출신 지역	북	한	87	43.7	31.0	21.8	36.8	28.7	9.2	26.4	4.6	17.2	43.7	11.5	25.3
	중	국	17	41.2	47.1	17.6	17.6	5.9	0.0	29.4	5.9	11.8	58.8	5.9	47.1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를 순서와 상관없이 세 가지를 택하라는 질문에서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에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청년들 중에는 ‘경제적 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로 꼽는 이들(49.0%)이 가장 많았는데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에는 ‘존중’(46.2%)에 가장 많은 이가 응답하였다. 북한배경청년들도 ‘경제적 부’가 중요한 가치라 응답한 경우(43.3%)가 많았지만 이보다 ‘존중’에 응답한 이가 더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배경’을 드러낼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은 북한배경과 상관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모두 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러한 응답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존중’, ‘경제적 부’ 외에도 ‘공정’, ‘다양성’, ‘자유’, ‘신뢰’ 등의 순서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를 꼽고 있다.

그래도 고향 사람은 턱 만나서는 오래 막 얘기도 하고 뭐가 맞잡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하고 좀 가까우려고 제가 먼저 막 이렇게 막 말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친해 보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친해지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례 10)

네. 교회를 제가 막 그렇게 신실하게 다니지는 않는데요. 제가 가끔 다니는데 그러니까 좋은 분들은 정말 좋으시거든요. 정말 좋으신데 간혹 이제 조금 뭔가 무턱대고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되게 부족하신 분이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학업적인 부분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막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안쓰러우면서도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례 20)

이렇게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거기서는 그 결핍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그 풍요롭게 살려고 자기 바빠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게 저는 좀 처음에 많이 이해도 안 되고. 지금도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많이 놀랐던 거 같아요. (사례 2)

4) 일에 대한 인식

일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서 총 5개의 질문을 활용했다. 소득 정도, 정규직 여부, 노동 강도, 업무 적합성, 일 가정 양립 등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310. 일에 대한 생각 - (1) 소득이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41	3.1	26.5	60.8	9.6
성 별	남	1,074	3.6	28.1	58.9	9.3
	여	967	2.5	24.8	62.8	9.8
연 령	만 18 ~ 24 세	773	2.3	25.1	60.2	12.5
	만 25 ~ 29 세	668	3.2	26.1	62.2	8.6
	만 30 ~ 34 세	600	4.1	29.0	60.0	7.0
지 역	수 도 권	1,032	3.5	27.7	58.8	10.0
	비 수 도 권	1,009	2.6	25.2	63.1	9.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2.7	24.8	62.0	10.5
	대 졸 이 상	1,044	3.5	28.2	59.6	8.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11. 일에 대한 생각 - (1) 소득이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7	7.5	23.4	51.4	17.8
성 별	남	자	35	11.4	17.1	51.4	20.0
	여	자	72	5.6	26.4	51.4	16.7
연 령	만 19 ~ 24 세		57	7.0	28.1	49.1	15.8
	만 25 ~ 29 세		26	7.7	26.9	46.2	19.2
	만 30 ~ 34 세		23	8.7	8.7	60.9	21.7
지 역	수도권		97	8.2	23.7	50.5	17.5
	비수도권		9	0.0	22.2	55.6	22.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5.0	28.3	45.0	21.7
	대졸 이상		30	6.7	16.7	63.3	13.3
출 신 지역	북	한	89	9.0	20.2	49.4	21.3
	중	국	17	0.0	41.2	58.8	0.0

일반청년들이나 북한배경청년들이나 ‘소득이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라는 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의 응답 결과는 유사하다. 일반청년이나 북한배경청년이나 보다 많은 이들(일반청년 70.4%, 북한배경청년 69.2%)이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다녀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점수에만 매달리고 공부에만 하니까 뭐 성적 좋아서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걸 취직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냥 직장에서도 계속 일만 해야 하니까. 그럼 개인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돈만 버는 거지 그런 건 행복하지 않잖아요. 전 행복하면서 돈도 벌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사례 7)

표 V-312. 일에 대한 생각 - (2)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비정규직 일도
선택할 수 있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41	6.7	36.0	45.1	12.2
성 별	남 자	1,074	8.2	36.7	41.3	13.8
	여 자	967	4.9	35.2	49.3	10.5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5.4	39.3	44.6	10.7
	만 2 5 ~ 2 9 세	668	6.7	35.3	45.1	12.9
	만 3 0 ~ 3 4 세	600	8.2	32.7	45.7	13.4
지 역	수 도 권	1,032	6.3	37.2	43.6	12.8
	비 수 도 권	1,009	7.1	34.6	46.7	11.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5.6	36.6	46.0	11.9
	대 졸 이 상	1,044	7.8	35.4	44.2	12.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13. 일에 대한 생각 - (2)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비정규직 일도
선택할 수 있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6	11.3	22.6	42.5	23.6
성 별	남 자	35	14.3	17.1	40.0	28.6
	여 자	71	9.9	25.4	43.7	21.1
연 령	만 1 9 ~ 2 4 세	57	7.0	22.8	49.1	21.1
	만 2 5 ~ 2 9 세	26	19.2	23.1	26.9	30.8
	만 3 0 ~ 3 4 세	22	13.6	18.2	45.5	22.7
지 역	수 도 권	96	12.5	20.8	42.7	24.0
	비 수 도 권	9	0.0	33.3	44.4	22.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8.3	20.0	45.0	26.7
	대 졸 이 상	30	16.7	26.7	33.3	23.3
출 신 지 역	북 한	88	13.6	17.0	42.0	27.3
	중 국	17	0.0	47.1	47.1	5.9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비정규직 일도 선택할 수 있다’는 문장에 대해 일반청년이나 북한배경청년이나 모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시간제, 비정규직 일도 할 수 있다는 데에 보다 많은 이들이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년의 응답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일반청년 57.3%, 북한배경청년 66.1%).

표 V-314. 일에 대한 생각 - (3) 일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내야 한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41	2.9	18.7	62.1	16.3
성 별	남 자	1,074	2.9	16.6	61.8	18.7
	여 자	967	2.8	21.1	62.5	13.5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2.8	18.3	62.0	16.8
	만 2 5 ~ 2 9 세	668	2.7	20.8	58.9	17.6
	만 3 0 ~ 3 4 세	600	3.1	16.9	65.8	14.1
지 역	수 도 권	1,032	4.2	18.9	61.4	15.5
	비 수 도 권	1,009	1.4	18.5	63.0	17.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3.1	18.5	61.3	17.1
	대 출 이 상	1,044	2.7	18.9	62.9	15.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15. 일에 대한 생각 - (3) 일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6	6.6	26.4	52.8	14.2
성 별	남 자	35	2.9	34.3	48.6	14.3
	여 자	71	8.5	22.5	54.9	14.1
연 령	만 1 9 ~ 2 4 세	57	7.0	24.6	52.6	15.8
	만 2 5 ~ 2 9 세	26	7.7	23.1	46.2	23
	만 3 0 ~ 3 4 세	22	4.5	36.4	59.1	0.0
지 역	수 도 권	96	6.3	27.1	54.2	12.5
	비 수 도 권	9	11.1	22.2	33.3	33.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6.7	26.7	48.3	18.4
	대 출 이 상	30	6.7	30.0	53.3	10.0
출 신 지 역	북 한	88	8.0	29.5	45.5	17.0
	중 국	17	0.0	11.8	88.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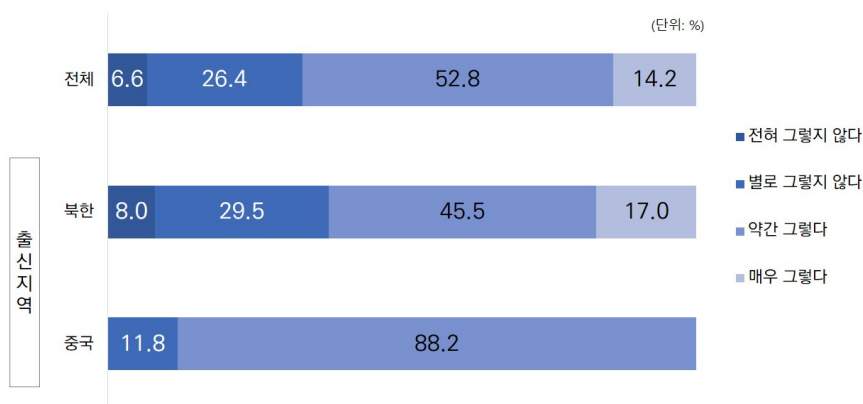


그림 V-65. 일에 대한 생각 - (3) 일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일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문장에 대한 반응에서 일반청년이나 북한배경 청년이나 참고 견뎌야 한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다만 일반청년들에게서 이러한 반응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일반청년 78.4%, 북한배경청년 67%).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북한 배경청년들 중 북한출생과 중국출생 사이의 반응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출생들에게서 일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반응(88.2%)이 북한출생(62.5%)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표 V-316. 일에 대한 생각 - (4) 직장의 업무 내용이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41	5.1	29.5	56.5	8.9
	자		1,074	4.8	27.2	58.3	9.7
성 별	남	자	967	5.5	32.0	54.6	7.9
	여	자	773	4.7	30.2	55.0	10.2
연 령	만 1 8 ~ 2 4 세		668	5.9	28.2	57.0	9.0
	만 2 5 ~ 2 9 세		600	4.9	30.1	57.9	7.1
	만 3 0 ~ 3 4 세		1,032	4.7	31.4	55.2	8.7
지 역	수 도 권		1,009	5.6	27.3	58.1	9.0
	비 수 도 권		997	4.7	28.2	57.9	9.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044	5.5	30.7	55.2	8.6
	대 졸 이 상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17. 일에 대한 생각 - (4) 직장의 업무 내용이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4	4.8	41.3	42.3	11.5
성 별	남	자	35	5.7	31.4	54.3	8.6
	여	자	69	4.3	46.4	36.2	13.0
연 령	만 1 9 ~ 2 4 세		55	5.5	38.2	45.5	10.9
	만 2 5 ~ 2 9 세		26	7.7	38.5	38.5	15.3
	만 3 0 ~ 3 4 세		22	0.0	54.5	36.4	9.1
지 역	수 도 권		94	5.3	42.6	40.4	11.7
	비 수 도 권		9	0.0	33.3	55.6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5.1	40.7	42.4	11.7
	대 졸	이 상	30	6.7	43.3	40.0	10.0
출 신 지 역	북	한	87	5.7	42.5	39.1	12.6
	중	국	16	0.0	37.5	56.3	6.3

‘직장의 업무 내용이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는 문장에 대한 반응에서는 일반청년들보다 북한배경청년들이 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일반청년의 65.4%가 직장의 업무 내용을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반응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53.8%만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북한배경청년들이 직장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가 자신을 잘 드러내는 일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표 V-318. 일에 대한 생각 - (5) 나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 또는
출산도 포기할 수 있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41	8.9	44.0	40.6	6.5
성 별	남	자	1,074	9.9	47.5	36.7	5.9
	여	자	967	7.8	40.0	45.0	7.2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5.1	41.0	45.3	8.5
	만 2 5 ~ 2 9 세		668	11.3	42.2	39.7	6.7
	만 3 0 ~ 3 4 세		600	11.0	49.6	35.6	3.8
지 역	수 도 권		1,032	8.4	47.1	39.0	5.5
	비 수 도 권		1,009	9.5	40.3	42.4	7.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6.7	43.4	43.1	6.8
	대 졸 이 상		1,044	11.0	44.5	38.2	6.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19. 일에 대한 생각 - (5) 나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 또는
출산도 포기할 수 있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6	17.9	38.7	31.1	12.3
성 별	남	자	35	25.7	42.9	22.9	8.6
	여	자	71	14.1	36.6	35.2	14.1
연 령	만 1 9 ~ 2 4 세		57	12.3	35.1	36.8	15.8
	만 2 5 ~ 2 9 세		26	23.1	38.5	26.9	11.5
	만 3 0 ~ 3 4 세		22	27.3	45.5	22.7	4.5
지 역	수 도 권		96	19.8	37.5	31.3	11.5
	비 수 도 권		9	0.0	44.4	33.3	22.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15.0	35.0	33.3	16.7
	대 졸 이 상		30	26.7	43.3	23.3	6.7
출 신 지 역	북	한	88	20.5	37.5	28.4	13.6
	중	국	17	5.9	41.2	47.1	5.9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이나 출산도 포기할 수 있다’는 문장에 대한 반응에서는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더욱 많다. 또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청년들이나 북한배경청년들이나 응답 경향이 거의 비슷하다. 일반청년의 52.9%, 북한배경청년의 56.6%가 이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일에서의 성공보다는 결혼이나 출산 등 가정을 꾸리는 것이 청년들에게 아직까지는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긍정적인 응답도 못지않게 많다는 점에서 일과 결혼·출산에 관련한 가치관은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기보다 서로 다른 관점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8. 관계 및 참여

북한배경청년들이 한국사회에서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종류와 수준, 사회·정치적 참여 방식과 수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관계

관계 측면에서는 각종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보유 정도, 주변인들과과의 대면 혹은 비대면 교류 정도, 주변인들과 관계에서 소통·고립 정도, 소속감, 아동·청소년기의 관계 차원 경험, 성인기의 관계 차원 경험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보유 정도

표 V-320.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11.6	88.4
성 별	남	자	1,074	10.9	89.1
	여	자	967	12.3	87.7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11.8	88.2
	만 2 5 ~ 2 9 세		668	10.6	89.4
	만 3 0 ~ 3 4 세		600	12.4	87.6
지 역	수 도 권		1,032	11.0	89.0
	비 수 도 권		1,009	12.3	87.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13.1	86.9
	대 졸 이 상		1,044	10.1	89.9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2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8	19.4	80.6
성 별	남	자	35	14.3	85.7
	여	자	73	21.9	78.1
연 령	만 1 9 ~ 2 4 세		58	24.1	75.9
	만 2 5 ~ 2 9 세		26	19.2	80.8
	만 3 0 ~ 3 4 세		23	8.7	91.3
지 역	수 도 권		98	18.4	81.6
	비 수 도 권		9	33.3	6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20.0	80.0
	대 졸 이 상		31	22.6	77.4
출 신	북	한	90	17.8	82.2
지 역	중	국	17	29.4	70.6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북한배경청년들이 있다(80.6%)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청년의 88.4%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다.

표 V-32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32.6	67.4
성 별	남	자	1,074	31.6	68.4
	여	자	967	33.7	66.3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36.9	63.1
	만 2 5 ~ 2 9 세		668	31.6	68.4
	만 3 0 ~ 3 4 세		600	28.2	71.8
지 역	수 도 권		1,032	30.6	69.4
	비 수 도 권		1,009	34.9	65.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36.6	63.4
	대 졸 이 상		1,044	28.8	71.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2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8	36.1	63.9
성 별	남	자	35	31.4	68.6
	여	자	73	38.4	61.6
연 령	만 1 9 ~ 2 4 세		58	41.4	58.6
	만 2 5 ~ 2 9 세		26	30.8	69.2
	만 3 0 ~ 3 4 세		23	26.1	73.9
지 역	수 도 권		98	33.7	66.3
	비 수 도 권		9	55.6	44.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41.7	58.3
	대 졸 이 상		31	25.8	74.2
출 신	북	한	90	32.2	67.8
지 역	중	국	17	52.9	47.1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경향은 북한배경청년들이나 일반청년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배경청년들의 63.9%가 일반청년의 67.4%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피면접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언급해 주셨지만 부동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고르는지, 집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또...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가 끼어 있고 수수료 없이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집을 했는데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까지 보장이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웠었는데 주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때는 같이 좀 다녔던 거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혼자 다녔다가.

연구자: 친구? 아니면 뭐.

피면접자: 지인분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연구자: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피면접자: 여기서.

연구자: 여기서 만난 분들 중에.

피면접자: 네, 주변 분들께서 직접. 제가 혼자 가면은 학생 신분이기도 하고 아직 보장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속이면 속이는 대로 속된 말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연배 있으신 어른분들 동행해서 좀 그 경험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월세 300이다. 보증금 얼마다면 이게 집이 어느 크기에 열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연구자: 어느 정도 되면 합당한 가격인지 이런 거.

피면접자: 요정도 딱 사이즈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해주셨던 거죠.

연구자: 처음에 그게 감이 없으니까.

피면접자: 감이 전혀 없으니까요.

연구자: 그래도 주위에 그런 걸 부탁드릴 어른 분들이 계셨나 봐요.
 피면접자: 네, 그래서 그 어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례 6)

표 V-32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9.9	90.1
성 별	남	자	1,074	11.6	88.4
	여	자	967	7.9	92.1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9.7	90.3
	만 2 5 ~ 2 9 세		668	10.6	89.4
	만 3 0 ~ 3 4 세		600	9.2	90.8
지 역	수 도 권		1,032	9.0	91.0
	비 수 도 권		1,009	10.8	89.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11.2	88.8
	대 졸 이 상		1,044	8.6	91.4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25.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8	24.1	75.9
성 별	남	자	35	34.3	65.7
	여	자	73	19.2	80.8
연 령	만 1 9 ~ 2 4 세		58	20.7	79.3
	만 2 5 ~ 2 9 세		26	30.8	69.2
	만 3 0 ~ 3 4 세		23	26.1	73.9
지 역	수 도 권		98	24.5	75.5
	비 수 도 권		9	22.2	77.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21.7	78.3
	대 졸 이 상		31	22.6	77.4
출 신 지역	북	한	90	25.6	74.4
	중	국	17	17.6	82.4



그림 V-6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일반청년들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긍정적인 응답이 적다. 일반청년의 90.1%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에는 75.9%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북한배경청년에게 함께 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항목에 대한 응답에서는 북한배경청년의 연령별 차이가 나타난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만 19~24세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혼자 대응하는 경향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 급하게 막 일이 생겼을 때 애기에 일이 생겼거나 애기가 아픈데 내가 댄 뭘 해야 된다가나 이럴 때 도움을 청하실 분들은 별로 많지는.
 피면접자: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동생밖에 없어요. 그냥 찍 하면 동생 야 좀 봐줘 하게 되면 개가 와서 그냥 이렇게 받은 적이 있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개네들도 또 자기들만의 이렇게 일도 있고 회사 다 출근하는 사람들이라서 저처럼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 (사례 10)

표 V-32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7.8	92.2
성 별	남	자	1,074	9.2	90.8
	여	자	967	6.2	93.8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7.7	92.3
	만 2 5 ~ 2 9 세		668	7.6	92.4
	만 3 0 ~ 3 4 세		600	8.1	91.9
지 역	수 도 권		1,032	6.6	93.4
	비 수 도 권		1,009	9.1	90.9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8.9	91.1
	대 졸 이 상		1,044	6.7	93.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27.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7	18.7	81.3
성 별	남	자	35	28.6	71.4
	여	자	72	13.9	86.1
연 령	만 1 9 ~ 2 4 세		58	20.7	79.3
	만 2 5 ~ 2 9 세		25	16.0	84.0
	만 3 0 ~ 3 4 세		23	17.4	82.6
지 역	수 도 권		97	19.6	80.4
	비 수 도 권		9	11.1	88.9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16.7	83.3
	대 졸 이 상		31	16.1	83.9
출 신	북	한	89	19.1	80.9
지 역	중	국	17	17.6	82.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청년의 92.2%, 북한배경청년의 81.3%가 있다고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은 일반청년에 비해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을 반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V-328.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34.8	65.2
성 별	남	자	1,074	37.0	63.0
	여	자	967	32.3	67.7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36.4	63.6
	만 2 5 ~ 2 9 세		668	36.0	64.0
	만 3 0 ~ 3 4 세		600	31.5	68.5
지 역	수 도 권		1,032	31.8	68.2
	비 수 도 권		1,009	38.2	61.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39.5	60.5
	대 졸 이 상		1,044	30.3	69.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29.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6	47.2	52.8
성 별	남	자	34	44.1	55.9
	여	자	72	48.6	51.4
연 령	만 1 9 ~ 2 4 세		58	44.8	55.2
	만 2 5 ~ 2 9 세		25	48.0	52.0
	만 3 0 ~ 3 4 세		22	54.5	45.5
지 역	수 도 권		96	47.9	52.1
	비 수 도 권		9	44.4	55.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41.7	58.3
	대 졸 이 상		31	54.8	45.2
출 신	북	한	88	47.7	52.3
지 역	중	국	17	47.1	52.9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일반청년의 65.2%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52.8%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북한배경청년의 한국사회 내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V-330.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7.5	92.5
성 별	남	자	1,074	8.0	92.0
	여	자	967	7.0	93.0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8.3	91.7
	만 2 5 ~ 2 9 세		668	6.5	93.5
	만 3 0 ~ 3 4 세		600	7.6	92.4
지 역	수 도 권		1,032	6.4	93.6
	비 수 도 권		1,009	8.9	9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8.7	91.3
	대 졸 이 상		1,044	6.4	93.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3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8	13.9	86.1
성 별	남	자	35	25.7	74.3
	여	자	73	8.2	91.8
연 령	만 1 9 ~ 2 4 세		58	15.5	84.5
	만 2 5 ~ 2 9 세		26	11.5	88.5
	만 3 0 ~ 3 4 세		23	13.0	87.0
지 역	수 도 권		98	13.3	86.7
	비 수 도 권		9	22.2	77.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13.3	86.7
	대 졸 이 상		31	9.7	90.3
출 신	북	한	90	13.3	86.7
지 역	중	국	17	17.6	82.4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청년들 중 92.5%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북한배경청년은 86.1%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배경 청년 대부분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지만 일반청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표 V-33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5.7	94.3
성 별	남	자	1,074	6.5	93.5
	여	자	967	4.9	95.1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6.9	93.1
	만 2 5 ~ 2 9 세		668	4.7	95.3
	만 3 0 ~ 3 4 세		600	5.4	94.6
지 역	수 도 권		1,032	5.5	94.5
	비 수 도 권		1,009	6.0	94.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7.3	92.7
	대 졸 이 상		1,044	4.3	95.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33.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7	7.5	92.5
성 별	남	자	35	14.3	85.7
	여	자	72	4.2	95.8
연 령	만 1 9 ~ 2 4 세		58	8.6	91.4
	만 2 5 ~ 2 9 세		26	3.8	96.2
	만 3 0 ~ 3 4 세		22	9.1	90.9
지 역	수 도 권		97	7.2	92.8
	비 수 도 권		9	11.1	88.9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8.5	91.5
	대 졸 이 상		31	3.2	96.8
출 신 지 역	북	한	89	5.6	94.4
	중	국	17	17.6	82.4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청년의 94.3%, 북한배경청년의 92.5%가 있다고 반응했다. 이는 북한배경 청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완전히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청년에 비해 더 많은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가 옆에 있는지와 관련한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북한배경청년들은 한국사회에서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지만 몸이 아플 때 집안 일을 부탁할 만큼, 큰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면담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자신보다 앞서 한국에 정착한 가족을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 얻어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이 부딪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지낸다는 사례들도 만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도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결론을 내는 등 생활에서 부딪치는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 나가는 경우도 많다. 의논 상대가 없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주리라는 확신을 주는 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고민을 누군가와 공유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북사선(북한사랑선교회)이라고 줄여서 말하긴 하는데 ##교회에 있는 많은 부서 중에서 저는 이제 그 부서에서 일하고 또 오전에는 북사선을 다니고 오후에는 저희가 대학생이니까 대학부를 다니거든요. 대학 8부를 다니는데 1부부터 8부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대학부는 대학생도 있고 그냥 나이 많으신 분들 직장 다닐 때 거기서는 그냥 대학과 관련된 그런 것만 알 수 있지 약간 여러 가지 일이나 그런 거 있을 때는 여기 북사선에서 거기 나이 때가 많고 그러니까 고민 있고 어려움 있으면 약간 좀 관계되는 직업이나 그런 거 소개해주면서 한 번 얘기해봐 이러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그분들이 전문가인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 해주시고 제가 군대에 가야 해요. 국적을 바꿔서. 그 (입대) 연거나 그런 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도 저희 집사님들 중에 간부, 장교 출신 집사님이 계셔서 그분께 상담도 하고 따로 만나서 해서 잘 해결됐고, 대학교 진학할 때도 00대 떨어졌지만, 그전에는 00대 나온 분들 아니면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만나서 이렇게 해봐라, 공부는 이런 쪽으로 해봐라, 많은 도움을 받았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뭐 진짜 특별한 일 아니면 거기서 조언이나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못하면 또... 많으니까 다른 부서 연락해서 전문가 있나 이러면 또 이렇게 매칭이 돼서 말하고... (사례 7)

피면접자: 저는 성격상 일단은 다양한 거 같아요. 다양하고, 연락을 좀 자주하는 편이어서. 자주 연락하는 것만큼 또 자주 만나요. 그래서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러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진짜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그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있으면 주변에서 같이 해가지고 바로 으쌔으쌔 해가지고 좀 잘 해결됐던 거 같아요. 제 가진 능력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살면서 제일 감사했던 거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늘 느끼는 거는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겠다.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늘 이런 부분을 같이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물론 자기가 해야될

거는 해야되지만. 혼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양하게 만나는 거 같아요.

연구자: 그분들은 주로 어디서 어떤 관계로 알게 된 분들이예요?

피면접자: 학교를 통해서. 학교의 선후배.

연구자: 대학?

피면접자: 네, 선후배에서 이렇게 연결 연결해가지고. 예전에 또 사회에서 그냥 대학교 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통해서 알음알음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연결고리라는 게 있잖아요. 확장된 거 같아요.

연구자: 그럼 어려운 일 생기면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많으시겠네요.

피면접자: 많다가보다는 그래도 네, 있습니다. (사례 6)

연구자: 그러면 집 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돈도 돈이고 여러 가지, 어떻게 구하셨어요? 어떻게 알아보고.

피면접자: 그 집도 처음에는 일반 월세 살다가 월세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 저희 누나가 그런데 물계가 밝고 하니까, 또 회계 쪽에 일을 하고, 저희 집 주변에 안산에 사는 데 하루 와서 집 돌아보자, 부동산 한 번 가봤는데 다행히 지금 살고있는 집이 제가 4년째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집주인도 괜찮고 주변 시세보다 괜찮고 해서 쪽 눌러앉아서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구자: 처음 그 집 구하는 거는 누님이랑 같이 가서.

피면접자: 네. 누나랑 같이 부동산 다니다가 결국에는 누나가 제 모든 일상생활에는, 제 생활에 누나가 다 참여를 해줘요. (사례 9)

연구자: 어려운 점이 있거나 갑자기 도움을 구할 일이 있거나 이러면 주로 어떤 분들과고 얘길 해요? 아니면 얘기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피면접자: 저는 딱히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연구자: 혼자 그냥 해결하는 편이에요?

피면접자: 네. (사례 4)

연구자: 두 분이 같이 나오셨구나. 그럼 워킹홀리데이 이런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어서 그렇게 나가시고?

피면접자2: 인터넷에서.

연구자: 인터넷에서.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피면접자2: 네,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연구자: 여행 갈 때도 혼자 다니고?

피면접자2: 네, 몽골은 형이랑 같이 갔었어요.

연구자: 그렇구나. 내가 원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의논하는 사람 없어요?

피면접자2: 잘 없어요.

연구자: 본인이 그냥 결정해요?

피면접자2: 혼자 그냥 고민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사례 1)

사실 저는 좀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딱히 말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거는 혼자서 다 삭히는 거 같아서. 이게 사실 우리 친구나 다른 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든 걸 보여주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잘나가는 걸 보여주면 또 시기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저의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자 친구도 당연히 힘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계속 그걸 얘기하면 매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본능이라서 제가 계속 이런 게 힘들다. 이런 게 안 된다. 이렇게 잘 안 한 거 같고, 혼자서 삭인 거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외로움도 느끼는 거 같고. (사례 12)

혼자 일단을 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 의논을 할 상대가 없어서 그거는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언니한테도 저는 별로 제가 지금 일을 구해야 하는데 일을 못 하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일단 취업을 했으면 취업을 했다. 이게 끝이에요. (사례 15)

(2) 대면, 비대면 사회적 교류 정도

표 V-334. 대면교류 - (1) 가족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2,041	0.2	0.9	3.9	10.7	11.0	73.2
성별	남 자	1,074	0.3	1.0	4.5	10.3	11.3	72.6
	여 자	967	0.1	0.8	3.2	11.3	10.6	74.0
연령	만 18~24세	773	0.1	0.8	3.0	4.7	8.0	83.4
	만 25~29세	668	0.1	0.7	4.1	12.3	13.2	69.7
	만 30~34세	600	0.4	1.5	4.8	16.6	12.3	64.3
지역	수 도 권	1,032	0.3	1.0	4.1	10.1	9.7	74.8
	비 수 도 권	1,009	0.0	0.9	3.7	11.5	12.5	71.4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0.1	1.5	4.2	8.1	10.8	75.3
	대 졸 이 상	1,044	0.3	0.4	3.6	13.2	11.2	71.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35. 대면교류 - (1) 가족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108	17.6	9.3	6.5	12.0	18.5	36.1
성별	남 자	35	11.4	17.1	5.7	5.7	20.0	40.0
	여 자	73	20.5	5.5	6.8	15.1	17.8	34.2
연령	만 19~24세	58	10.3	10.3	5.2	17.2	17.2	39.7
	만 25~29세	26	23.1	7.7	7.7	3.8	19.2	38.5
	만 30~34세	23	30.4	8.7	4.3	8.7	21.7	26.1
지역	수 도 권	98	18.4	7.1	6.1	11.2	20.4	36.7
	비 수 도 권	9	11.1	33.3	0.0	22.2	0.0	33.3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18.3	8.3	3.3	16.7	18.3	35.0
	대 졸 이 상	31	12.9	9.7	9.7	6.5	22.6	38.7
출신 지역	북 한	90	20.0	8.9	5.6	13.3	16.7	35.6
	중 국	17	5.9	11.8	5.9	5.9	29.4	41.2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를 평소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과 일반청년들의 응답 경향에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가족과의 대면 교류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7.6%이고 ‘거의 매일 교류한다’는 응답이 36.1%인 반면, 일반청년들은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가 0.2%에 불과하고 ‘거의 매일 교류한다’는 응답이 73.2%에 달했다. 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는 한국에 가족이 없는 경우일 수 있다.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교류한다’는 응답도 9.3%에 달한다. 이는 일반청년의 0.3%와 크게 비교되는 수치이다. 이로써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한국에 가족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교류의 빈도가 일반청년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 지금은 집에서 다녀요?

피면접자: 지금은 (다니는 학교가) 천안이라서 천안에서 자취하고 있거든요.

연구자: 혼자서.

피면접자: 네. 자취하면서 집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은 00 학교 보러 가고. (사례 7)

피면접자: ...뭔가 원래는 집에서 있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리고 또 엄마랑 같이 이렇게 갑자기 살게 됐는데.

연구자: 언제부터 엄마랑 또 같이 살게 됐어요?

피면접자: 저는 학교에 00학교에 있을 때는 엄마랑 거의 안 살았어요. 그냥 주말에 내려가도 그 어차피 일요일에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엄마랑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이에요. 2년 동안 엄마랑 붙어서.

연구자: 어머니가 여기 오신 거예요?

피면접자: 네. 인천에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느낌상으로는 그래도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그렇게 같이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코로나로) 맨날 컴퓨터 보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멘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때 2학년 뭔가 거의 말쯤에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아 너무 하기 싫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년엔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망하겠다. 망하면 안 되는데 차라리 휴학하고 다시 준비하면서 학교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래도 내년쯤에 그냥 그래도 휴학하고 그다음 해에 좀 코로나 괜찮지 않을까 해서 휴학한 거예요. 휴학하고 또 마침 그때쯤 00학교에서 이런 방역 알바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청하고 또 친구도 서울에 너 자취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 그래서 나도 같이 방세 월세 같이 내면서 거기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냥 지금 좀 많이 편해졌어요. (사례 8)

표 V-336. 대면교류 - (2) 친인척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2,041	7.8	43.8	23.7	13.9	7.7	3.2
성별	남 자	1,074	8.4	44.4	24.8	13.0	6.3	3.0
	여 자	967	7.0	43.1	22.3	14.8	9.3	3.3
연령	만 18~24세	773	7.7	45.4	25.6	10.5	6.7	4.0
	만 25~29세	668	8.0	42.0	21.9	15.1	9.4	3.7
	만 30~34세	600	7.6	43.7	23.2	16.7	7.3	1.6
지역	수 도 권	1,032	8.5	43.0	22.9	14.5	8.2	2.9
	비 수 도 권	1,009	6.9	44.8	24.6	13.1	7.1	3.5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9.3	45.0	23.0	11.2	7.8	3.7
	대 졸 이 상	1,044	6.3	42.6	24.4	16.4	7.7	2.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37. 대면교류 - (2) 친인척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107	33.6	23.4	14.0	15.0	8.4	5.6
성별	남 자	34	32.4	20.6	14.7	17.6	5.9	8.8
	여 자	73	34.2	24.7	13.7	13.7	9.6	4.1
연령	만 19~24세	58	34.5	22.4	15.5	15.5	8.6	3.4
	만 25~29세	25	24.0	28.0	12.0	20.0	12.0	4.0
	만 30~34세	23	43.5	21.7	8.7	8.7	4.3	13.0
지역	수 도 권	97	34.0	21.6	13.4	15.5	9.3	6.2
	비 수 도 권	9	33.3	44.4	11.1	11.1	0.0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36.7	23.3	11.7	15.0	8.3	5.0
	대 졸 이 상	30	23.3	30.0	20.0	16.7	10.0	0.0
출신 지역	북 한	89	34.8	20.2	15.7	14.6	7.9	6.7
	중 국	17	29.4	41.2	0.0	17.6	11.8	0.0

‘친인척과의 대면 교류를 평소에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경향에 두드러진 차이가 보였다. 일반청년 중 7.8%만이 친인척과의 교류가 ‘전혀 없다’고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은 33.6%가 친인척과의 교류가 없었다. 이는 북한배경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친인척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에서 예상되는 응답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친인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친인척과의 교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1년에 한두 번’ 대면교류를 한다는 데에 일반청년의 43.8%, 북한배경청년들 중 23.4%만이 여기에 응답하였고 ‘3개월에 한두 번’ 만난다는 데는 일반청년의 23.7%, 북한배경청년의 14.0%가 응답하였다.

연구자: (고모님) 만나요?
 피면접자: 네. 뭐 가끔 이제.
 연구자: 이렇게 친하게 저기하지는 않고.

피면접자: 남이 더 나은 것 같네요. 남이 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다 이제 좋다고 하지만 이제 어려움이 정작 있어서 어떤 부탁을 하면 또 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충분히 어떤 그걸 그냥 해줄 수 있는 한계선에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뭐 남들은 흔쾌히 다 하는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들한테 부탁을 한다고 하면 또 왜 그 남들한테 부탁을 하나 우리가 있는데 아니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또.

연구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가요?

피면접자: 조금 애매한데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례 20)

연구자: 그러면은 그때 90년대 말부터 계속 한국에 일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아버지 친척, 어머니 친척은 없죠?

피면접자: 어머니는 있다고는, 있다는 거는 아는데 만난 적은 없고,

연구자: 만난 적은 없고.

피면접자: 네.

연구자: 그렇구나, 그럼 중국에 왔다 갔다 해요?

피면접자: 네. 저쪽(중국)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고.

연구자: 본인도?

피면접자: 저는 코로나 전에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고. (사례 7)

표 V-338. 대면교류 -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체		2,041	0.5	1.9	7.9	23.0	50.4	16.3
성별	남 자	1,074	0.4	1.7	6.1	20.9	54.7	16.2
	여 자	967	0.6	2.1	9.9	25.5	45.6	16.3
연령	만 18~24세	773	0.3	1.2	4.4	15.6	53.1	25.4
	만 25~29세	668	0.5	2.0	7.6	22.6	54.9	12.5
	만 30~34세	600	0.6	2.6	12.6	32.9	42.3	8.9
지역	수도권	1,032	0.4	1.8	7.9	24.6	52.1	13.1
	비수도권	1,009	0.5	1.9	7.8	21.2	48.6	19.9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0.8	1.5	5.9	18.6	51.3	21.8
	대 졸 이 상	1,044	0.2	2.2	9.7	27.3	49.6	11.0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39. 대면교류 -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100	1.0	7.0	13.0	29.0	32.0	18.0
성 별	남 자	33	3.0	9.1	9.1	21.2	27.3	30.3
	여 자	67	0.0	6.0	14.9	32.8	34.3	11.9
연 령	만 19 ~ 24 세	55	1.8	3.6	9.1	18.2	43.6	23.6
	만 25 ~ 29 세	24	0.0	0.0	16.7	45.8	25.0	12.5
	만 30 ~ 34 세	20	0.0	25.0	15.0	40.0	10.0	10.0
지 역	수 도 권	91	1.1	6.6	11.0	28.6	33.0	19.8
	비 수 도 권	8	0.0	12.5	25.0	37.5	25.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6	0.0	7.1	12.5	26.8	37.5	16.1
	대 졸 이 상	28	3.6	7.1	14.3	39.3	28.6	7.1
출 신 지 역	북 한	83	0.0	7.2	12.0	33.7	31.3	15.7
	중 국	16	6.3	6.3	12.5	6.3	37.5	31.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 평소에 얼마나 자주 대면으로 만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반 청년의 응답 경향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경향에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북한배경청년들 중 18.0%는 ‘거의 매일’ 친한 친구를 만난다고 하였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난다는 응답은 32.0%였다.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주로 같은 배경을 지닌 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같은 배경 친구들과 교류하면 편하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비슷해서 의도적으로 관계를 끊고 한국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려 애쓰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연구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은 만나고 연락 주고받고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가족들하고.

피면접자: 가족들이고 그리고 같이 올 때 가수.

연구자: 그분들 탄 데 사세요. 어떠세요.

피면접자: 다 탄 데 살아요. 다 화성에 살고 화성에 사는 사람 있고 뭐 서울에도 있고 다 갈라져서 한 명은 또 부산에 있고.

연구자: 그럼 막 이렇게 진짜 얼굴 딱 보고 만나기는 쉽지는 않겠단.

피면접자: 아니에요. 그래도 다 저랑 좀 너무 절친들이라서 그래도 제 생일 때도 그 먼 데서 부산에서도 막 오고 그러는 친구들이라서.

연구자: 그럼 1년에 몇 번씩은 보시겠네요. 얼굴 몇 달에 한 번씩은.

피면접자: 이번에도 친구가 부산에서 올라왔었고 저희도 지금 오늘 저녁에 또 부산에 가거든요. 저녁에 바로 가려고.

.....

연구자: 그러면 이제 주로 만나시는 분들이 그 같은 가수.

피면접자: 같은 가수 아니면 전 가수.

연구자: 전 가수 그 친구들. 여기 한국에 와서 무슨 직장 같이 다니셨다든가 이런 관계들 만나지는.

피면접자: 그런 건 없어요.

연구자: 만나지는 않으시고.

피면접자: 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연구자: 한 명도 없고. 그럼 주로 이제 저기 하나원 동기들이시네 동기거나 그 전후 가수거나.

피면접자: 네. 거기서 저랑 좀 친한 사람들이 나와서도 또 연락하고 하고.

연구자: 동네에서도 이렇게 동네 분들이랑 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신 거고 그렇죠.

피면접자: 여기 북한 갈지 않아요. 북한들은 옆집 앞집 다 알고 방구 소리까지 다 듣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저 옆집에 누구 사는지도 모르고. (사례 10)

저는 한국 친구보다 중국 친구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보면 저희 동네 친구 중에 저랑 중국에서 아는 사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친한 친구였어요. 저의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 때 제가 또 송도에서 다녔던 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또 도둑질당하고 막 스트레스받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돈도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여명학교 와서 또 친한 친구 몇 명 만났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한 명은 지금 개인 사정 때문에 못 만났는데 보면 살펴보면 한국에 있는 친구 중에 거의 다 중국 사람이 친한 친구입니다...

....

저는 그런 친구들은 안 만난 거 아니고 개네들은 개네 집 사정이고 저랑 딱히 상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랑 어울리면 이렇게 집안일은 딱히 관심 없고 개랑만 놀고, 그런데 저랑 동네 친구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친하잖아요. 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저랑 진짜 친한 친구들을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이상한 사람 없고. (사례14, 중국출생, 남, 2022년 7월 2일)

피면접자: 네, 그 (게임) 유튜버 형들이랑도 많이 친했어요. 대한민국 게임 유튜버 230만 명이 있어요. 아테나형이라고. 아테나게임일기라고. 그분이 그거 해요. 외국인들이랑 같이. 시청자가 몇천이 돼요.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랑 소통을 해요. 시청자가 몇천씩 들어오고. 뭐 많아요. 미다스 그런 것도 있고.

연구자: 지금은 게임 끊었어요? 끊진 않았을 거 아냐. 쉽게 끊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재미로 해요?

피면접자: 네, 가끔씩 해요. 여기 보시면 230만 명. 한국인이예요. 아테나게임일기라고.

연구자: 엄청나다.

피면접자: 네, 엄청 친해요. 형들이랑.

연구자: 그럼 지금도 가끔 연락 주고받아요?

피면접자: 네, 백만 유튜버도 있고. 몇 십만 유튜버 형들도 있고. 이분들은 게임으로 성공해가지고 집도 사고 막 그래요.

...

연구자: 지금도 만나기도 해?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피면접자: 아니, 실제로 만나서 같이 놀아요. 같이 술도 먹고.

연구자: 그 사람들은 주로 서울에 있을 거 아냐.
 피면접자: 네, 전주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평택 뭐 이런 데에 있어요.
 연구자: 고등학교 동창 그룹이 있고. 그런 유튜버 게임그룹이 있고. 여기 일하는 형, 삼촌 그룹이 있고. 주로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세 그룹 정도 돼요?
 피면접자: 네, 그리고 옛날에 연세대 캠퍼스 미국 원어민들이랑 하는 거, 돈 300만 원씩 내고 가는 거 있어요. 2주 동안.
 연구자: 연세대 신촌에 있는 거.
 피면접자: 네, 거기 갔을 때 만난 친구들이랑도 놀고 그래요.
 연구자: 어느 그룹이 제일 좀 마음이 편해요?
 피면접자: 딱히 편하다기보다...
 연구자: 재미로?
 피면접자: 네, 재미. 게임할 때가 재밌긴 해요.

 연구자: 북에서 온 친구들과하고 만나는 그룹은 없어요?
 피면접자: 네, 제가 다 끊었어요.
 연구자: 왜?
 피면접자: 그냥...
 연구자: 끊은 계기가 있어요?
 피면접자: 그거보다는 같이 온 친구들끼리 놀면은 뭔가 편하긴 하겠지만 보는 게 비슷해져서. (사례 13)

표 V-340. 대면교류 -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전	체	2,041	7.6	6.2	11.4	24.2	32.3	18.3
성 별	남 자	1,074	7.3	5.1	10.6	25.4	33.1	18.4
	여 자	967	7.9	7.6	12.2	22.7	31.4	18.2
연 령	만 18 ~ 24 세	773	10.8	5.9	10.0	22.7	33.1	17.5
	만 25 ~ 29 세	668	6.4	6.3	12.0	23.3	32.6	19.5
	만 30 ~ 34 세	600	5.0	6.7	12.3	27.0	31.0	18.1
지 역	수 도 권	1,032	5.2	6.4	11.8	26.5	33.0	17.1
	비 수 도 권	1,009	10.4	6.0	10.9	21.5	31.5	19.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9.0	6.0	10.2	22.5	34.5	17.7
	대 졸 이 상	1,044	6.3	6.5	12.5	25.7	30.2	18.9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41. 대면교류 -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106	7.5	11.3	17.9	21.7	20.8	20.8
성 별	남	자	35	8.6	11.4	20.0	17.1	17.1
	여	자	71	7.0	11.3	16.9	23.9	22.5
연 령	만 19 ~ 24 세		56	8.9	10.7	8.9	26.8	25.0
	만 25 ~ 29 세		26	3.8	3.8	30.8	19.2	15.4
	만 30 ~ 34 세		23	8.7	21.7	21.7	13.0	17.4
지 역	수 도 권		96	8.3	10.4	15.6	22.9	21.9
	비 수 도 권		9	0.0	22.2	33.3	11.1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8	8.6	13.8	15.5	22.4	20.7
	대 졸 이 상		31	3.2	9.7	29.0	22.6	22.6
출 신 지 역	북 한		89	7.9	11.2	18.0	20.2	20.2
	중 국		16	6.3	12.5	12.5	31.3	25.0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평소 얼마나 자주 대면으로 만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일반청년의 응답 경향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경향에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북한배경청년들 중 20.8%는 ‘거의 매일’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였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난다는 응답도 20.8%였다.

코로나19 상황은 북한배경청년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들 중 이 시기에 대학에 진학한 이들의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업이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교수와 학생, 학생들 간 대면 교류 없이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이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북한배경청년들의 삶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 진학했던 이들 중에는 제한된 삶의 반경이 주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도 흔히 발견된다.

온라인수업만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저 너무 힘들었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휴학을 하게 되었고. 원래는 조금 다른 공부나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원래 다녔던 대안학교에서 “인턴교사를 해보는 건 어떠냐?”고 하셔서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사례 3)

피면접자: 제가 코로나 학번이라서요. 학교 학우들이랑 그런 교류가 거의 없어서 좀 학교생활이 제일 많이 아쉬워요. 학교 가면 애들... 학생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싶고, 친구도 많이 만들고 싶고 그랬었는데.

피면접자: 네, 20학번이라서. 거의 교류가 딱 한 번 학과 저희 동기들끼리 같이 만나서 술 한 번 먹고 그 이후로 온라인으로만 만났지, 진짜로 만나는 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사례 4)

피면접자: 거의 온라인으로 했죠. 학교를 세 번, 네번 가봤나.

연구자: 학교를 다닌다는 느낌이 거의 없었겠네.

피면접자: 그렇죠. 다 컴퓨터로 수업 듣고 하니까 그냥 인강 듣는다는 그런 느낌.

연구자: 친구는 새로 대학에서 친구를 사귀는 거는 있어요?

피면접자: 대학에서 친구, 학교를 안 나가니까 약간 수업 때, 수업 같이 듣는 친구들은 없고, 약간 이름만 아는 정도는 있고, 조별과제같이 하거나, 토론 같이하면 그건 얼굴이나 이름은 아는데 딱히 크게 따로 만나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사례 7)

피면접자: 네. 집에서만 컴퓨터만 보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피면접자: 너무 제가 휴학한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피면접자: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친구는 못 사귀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대학교 갔는데 그래도 대학교 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진짜 제가 뭐 온라인 강의 신청하듯이 그렇게 교수님이랑 소통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동영상만 보고 나서는 과제만 그 올려주세요. (사례 8)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MT도 학기 끝나면 바로 가고, 제가 조직해서 가고 막 이렇게. 시험 비벌 때 제외하고는 모여서 불링하고 탁구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했었는데, 요즘엔 진짜 친한 친구. 일요일에 친구. 진짜 친한 친구 편하게 그냥 1~2명 이렇게 만나지. 귀찮아서 이제 좀... 한 번 조직하려면 뭔가 공정하게 조직을 해야지. 장소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거리를 생각해서 가운데쯤 해줘야지. 또 이렇게 다 취향에 맞게 음식 식당도 예약을 해야지. (사례 12)

표 V-342. 대면교류 -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2,041	49.7	11.4	8.8	9.4	11.2	9.6
성 별							
남 자	1,074	48.5	12.3	9.9	8.6	11.0	9.8
여 자	967	51.0	10.5	7.5	10.2	11.4	9.3
연 령							
만 18 ~ 24 세	773	49.2	10.9	9.0	6.8	11.6	12.4
만 25 ~ 29 세	668	49.8	11.5	7.4	11.3	10.8	9.2
만 30 ~ 34 세	600	50.1	12.0	10.0	10.4	11.1	6.4
지 역							
수 도 권	1,032	45.0	13.6	11.2	10.2	11.6	8.4
비 수 도 권	1,009	55.1	8.9	6.0	8.4	10.8	10.9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47.5	12.0	9.7	8.9	11.3	10.6
대 졸 이 상	1,044	51.7	11.0	7.9	9.8	11.1	8.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43. 대면교류 -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105	41.9	22.9	10.5	10.5	9.5	4.8
성별	남 자	34	32.4	17.6	20.6	8.8	14.7	5.9
	여 자	71	46.5	25.4	5.6	11.3	7.0	4.2
연령	만 19~24세	58	39.7	24.1	8.6	13.8	10.3	3.4
	만 25~29세	25	56.0	24.0	12.0	4.0	0.0	4.0
	만 30~34세	21	33.3	19.0	9.5	9.5	19.0	9.5
지역	수 도 권	95	42.1	24.2	9.5	10.5	9.5	4.2
	비 수 도 권	9	44.4	11.1	11.1	11.1	11.1	11.1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60	41.7	25.0	10.0	6.7	13.3	3.3
	대 졸 이 상	30	46.7	23.3	16.7	6.7	3.3	3.3
출신 지역	북 한	87	40.2	25.3	10.3	8.0	11.5	4.6
	중 국	17	52.9	11.8	5.9	23.5	0.0	5.9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 평소에 얼마나 대면으로 교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일반청년의 응답 경향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경향에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북한배경청년들 중 41.9%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로 알게 된 사람과 대면 교류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4.8%는 ‘거의 매일’ 만난다고 하였다. 9.5%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만난다고 하였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북한배경청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공간적 거리와 상관없이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고 같은 활동을 하는 이들이 주기적으로 대면 교류를 하면서 친구의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된다.

연구자: 전주 가면. 여지껏 여기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이 서울 기반 아니에요?
 피면접자: 네, 그렇죠.
 연구자: 그럼 어떡해요.
 피면접자: 거기도 친구가 있어요. 동네친구들이 몇 명 취업해서 내려간 것도 있고. 그리고 배드민턴...
 연구자: 동네친구들이 전주에 가 있어요?
 피면접자: 네, 북한에서 온 친구가 거기 내려가 있는 친구도 있고. 배드민턴을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오래 봐서 그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연구자: 서울과 전주 사이에 친구를 동시에 갖기가 쉽지 않은데 참 희한하네.
 피면접자: 그쵸. 이게 운동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동갑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전국모임이에요.
 연구자: 그래요?
 피면접자: 네, 동호회 생활을 조금 열심히 했어요.
 연구자: 어떤 계기로?
 피면접자: 남자친구가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같이 해볼래?” 이렇게 해서 했다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대회도 나가고. 아마추어대회도 열거든요. 그러면서 다니면 대회를 가끔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거기서 동호회 클럽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끔 놀러갔다가 같이 술 먹고 놀면서 친구가 되고, 동갑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사례 21)

표 V-344. 비대면교류 - (1) 가족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2,041	4.0	0.8	2.1	6.2	32.6	54.3
성별	남 자	1,074	4.3	1.0	2.2	7.1	36.6	48.8
	여 자	967	3.6	0.6	2.0	5.1	28.2	60.5
연령	만 18~24세	773	5.6	0.8	1.6	4.7	31.9	55.4
	만 25~29세	668	3.0	1.2	1.5	6.5	33.7	54.1
	만 30~34세	600	2.9	0.4	3.3	7.8	32.4	53.2
지역	수 도 권	1,032	2.9	0.5	2.0	5.6	33.2	55.7
	비 수 도 권	1,009	5.1	1.2	2.2	6.8	32.0	52.7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5.3	0.7	2.4	6.8	33.2	51.6
	대 졸 이 상	1,044	2.7	0.9	1.8	5.6	32.1	57.0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45. 비대면교류 - (1) 가족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106	17.0	10.4	5.7	13.2	26.4	27.4
성별	남 자	34	11.8	11.8	5.9	11.8	32.4	26.5
	여 자	72	19.4	9.7	5.6	13.9	23.6	27.8
연령	만 19~24세	58	12.1	8.6	5.2	13.8	29.3	31.0
	만 25~29세	26	23.1	15.4	3.8	11.5	23.1	23.1
	만 30~34세	21	23.8	9.5	4.8	14.3	23.8	23.8
지역	수 도 권	97	17.5	11.3	2.1	11.3	28.9	28.9
	비 수 도 권	8	12.5	0.0	37.5	37.5	0.0	12.5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9	18.6	5.1	5.1	13.6	32.2	25.4
	대 졸 이 상	31	9.7	16.1	6.5	9.7	25.8	32.3
출신 지역	북 한	88	19.3	8.0	4.5	13.6	26.1	28.4
	중 국	17	5.9	23.5	5.9	11.8	29.4	23.5

‘가족과 인터넷, 전화 등의 비대면 교류를 평소에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면교류와 마찬가지로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과 일반청년들의 응답 경향에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가족과의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7.0%이고 ‘거의 매일’ 비대면으로 교류한다는 응답이 27.4%인 반면, 일반청년들은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가 4.0%에 불과하고 ‘거의 매일’ 비대면으로 교류한다는 응답이 54.3%에 달했다. 또한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1년에 한두 번’ 가족과 전화 등 비대면으로 교류한다는 응답도 10.4%이며 ‘3개월에 한두 번’은 5.7%, ‘한 달에 한두 번’은 13.2%로, 가족이 있어도 비대면교류마저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약 30%에 달한다. 이는 일반청년들의 경우 54.3%가 거의 매일 가족과 비대면으로 교류하며 일주일에 한두 번 교류하는 경우도 32.6%여서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족과 자주 비대면으로 교류한다는 점과 비교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V-346. 비대면교류 - (2) 친인척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2,041	17.0	30.2	18.7	17.9	11.3	4.8
성별	남 자	1,074	17.9	32.1	19.3	16.3	10.4	4.0
	여 자	967	16.0	28.0	18.1	19.8	12.2	5.8
연령	만 18~24세	773	20.2	28.5	21.2	15.8	11.2	3.0
	만 25~29세	668	14.9	33.1	16.1	18.4	11.3	6.1
	만 30~34세	600	15.3	29.1	18.5	20.1	11.3	5.8
지역	수 도 권	1,032	15.9	27.5	19.6	19.0	12.4	5.7
	비 수 도 권	1,009	18.3	33.2	17.8	16.8	10.0	3.9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19.5	29.7	19.6	15.5	11.7	3.9
	대 졸 이 상	1,044	14.6	30.6	17.9	20.3	10.8	5.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47. 비대면교류 - (2) 친인척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105	29.5	16.2	15.2	21.9	10.5	6.7
성별	남 자	34	23.5	20.6	20.6	14.7	14.7	5.9
	여 자	71	32.4	14.1	12.7	25.4	8.5	7.0
연령	만 19~24세	58	29.3	19.0	12.1	22.4	8.6	8.6
	만 25~29세	25	20.0	16.0	24.0	24.0	16.0	0.0
	만 30~34세	21	42.9	9.5	9.5	19.0	9.5	9.5
지역	수 도 권	96	29.2	15.6	13.5	22.9	11.5	7.3
	비 수 도 권	8	37.5	25.0	25.0	12.5	0.0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8	36.2	15.5	8.6	24.1	10.3	5.2
	대 졸 이 상	31	9.7	22.6	29.0	22.6	16.1	0.0
출신 지역	북 한	87	31.0	14.9	14.9	23.0	11.5	4.6
	중 국	17	23.5	23.5	11.8	17.6	5.9	17.6



그림 V-67. 비대면교류 - (2) 친인척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친인척과 비대면으로 평소에 얼마나 자주 교류하느냐’는 질문에 대면교류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청년보다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전혀 교류가 없다는 응답이 많다. 일반청년 중 17%가, 북한배경청년의 29.5%가 친인척과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거의 매일’ 비대면으로 교류한다는 응답은 일반청년 4.8%보다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6.7%로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는 친인척과의 교류와 관련하여 북한배경청년 집단 내에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질문 항목과 관련해서는 북한배경청년 학력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대졸 이상보다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생에게서 친인척과의 교류가 전혀 없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표 V-348. 비대면교류 -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2,041	1.7	1.5	4.2	10.9	35.2	46.5
성별	남 자	1,074	2.2	1.5	4.2	9.9	38.4	43.8
	여 자	967	1.1	1.5	4.1	12.0	31.6	49.7
연령	만 18~24세	773	1.7	1.5	2.3	8.8	30.4	55.3
	만 25~29세	668	1.3	1.4	4.9	11.2	34.8	46.4
	만 30~34세	600	2.0	1.6	5.7	13.3	41.8	35.6
지역	수 도 권	1,032	1.2	1.5	4.6	11.7	35.0	45.9
	비 수 도 권	1,009	2.2	1.4	3.6	10.0	35.5	47.2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2.6	1.1	3.7	9.8	33.6	49.2
	대 졸 이 상	1,044	0.8	1.8	4.6	12.0	36.8	44.0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49. 비대면교류 -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106	3.8	6.6	10.4	20.8	27.4	31.1
성별	남 자	34	5.9	8.8	11.8	5.9	35.3	32.4
	여 자	72	2.8	5.6	9.7	27.8	23.6	30.6
연령	만 19~24세	58	5.2	3.4	3.4	15.5	31.0	41.4
	만 25~29세	26	0.0	11.5	19.2	23.1	23.1	23.1
	만 30~34세	21	4.8	9.5	14.3	33.3	23.8	14.3
지역	수 도 권	97	4.1	6.2	8.2	20.6	27.8	33.0
	비 수 도 권	8	0.0	12.5	25.0	25.0	25.0	12.5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9	5.1	6.8	6.8	18.6	28.8	33.9
	대 졸 이 상	31	3.2	6.5	16.1	25.8	25.8	22.6
출신 지역	북 한	88	3.4	6.8	10.2	21.6	29.5	28.4
	중 국	17	5.9	5.9	5.9	17.6	17.6	47.1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들과 평소에 비대면으로 얼마나 자주 교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 사이에 큰 차이가 확인된다. 일반청년의 81.7%가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들과 전화 등 비대면으로 교류한다고 한 반면,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 58.5%만이 그렇게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 3.8%는 전혀 그러한 교류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일반청년의 경우 친한 친구 등과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는 1.7%이다. 이는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친한 이들과의 비대면 교류가 현저히 적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저는 손가락에 꼽을 만큼. 주변에 그렇게 없어 가지고. 그전에 한국에 와서 멘토 언니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영어 선생님이로 만났는데 지금은 거의 자매처럼 다니고 있어 가지고. 거의 친자매로 지금 가까워졌어요. (사례 6)

공부는 사실 지금 저에게는 공부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뭔가 경쟁하는 친구가 사라졌어요. 00학교에 있을 때는 친구들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랑 엄청 친한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저랑 비슷해요. 그 친구도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비슷한 실력으로 그렇게 나아가면서 좋은 친구이지만 그래도 라이벌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친구도 없고 사실 뭐 반에서 어떤 친구 있는지도 몰라요. (사례 7)

표 V-350. 비대면교류 -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2,041	10.3	4.9	8.7	21.2	35.9	19.1
	자	1,074	10.5	4.9	7.7	22.5	35.7	18.6
성별	여	967	10.0	5.0	9.7	19.7	36.0	19.6
	자	773	14.5	5.6	7.9	18.5	33.2	20.2
연령	만 18~24세	773	14.5	5.6	7.9	18.5	33.2	20.2
	만 25~29세	668	8.9	3.9	8.3	23.2	37.8	17.9
	만 30~34세	600	6.4	5.2	10.0	22.4	37.2	18.8
지역	수도권	1,032	6.0	4.8	9.7	22.4	38.0	19.1
	비수도권	1,009	15.2	5.1	7.4	19.9	33.4	19.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13.2	4.9	8.2	20.2	34.0	19.4
	대 졸 이 상	1,044	7.5	4.9	9.1	22.2	37.6	18.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51. 비대면교류 -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106	15.1	9.4	14.2	22.6	22.6	16.0
성별	남 자	34	14.7	14.7	17.6	14.7	17.6	20.6
	여 자	72	15.3	6.9	12.5	26.4	25.0	13.9
연령	만 19~24세	58	15.5	5.2	6.9	29.3	24.1	19.0
	만 25~29세	26	15.4	15.4	23.1	15.4	23.1	7.7
	만 30~34세	21	14.3	14.3	19.0	14.3	19.0	19.0
지역	수 도 권	98	15.5	9.3	13.4	22.7	24.7	14.4
	비 수 도 권	8	12.5	12.5	12.5	25.0	0.0	37.5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9	15.3	6.8	11.9	22.0	23.7	20.3
	대 졸 이 상	31	12.9	16.1	19.4	25.8	19.4	6.5
출신 지역	북 한	88	14.8	10.2	14.8	19.3	25.0	15.9
	중 국	17	17.6	5.9	5.9	41.2	11.8	17.6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평소에 비대면으로 얼마나 자주 교류하는 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 사이에 차이는 있으나 친구와의 비대면 교류 정도에 비해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일반청년의 50.0%가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전화 등 비대면으로 교류한다고 한 반면,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 38.6%가 그렇게 응답했다. 북한배경청년 15.1%는 전혀 그러한 교류가 없다고 답한 반면, 일반청년의 경우 직장 등 알고 지내는 사람과 비대면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는 10.3%다.

표 V-352. 비대면교류 -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2,041	37.0	7.1	9.2	13.6	20.1	13.0
성 별	남 자	1,074	36.4	6.9	9.9	13.2	20.3	13.2
	여 자	967	37.6	7.3	8.5	14.0	19.8	12.8
연 령	만 18 ~ 24 세	773	38.5	6.4	9.0	13.2	18.0	14.9
	만 25 ~ 29 세	668	36.2	6.4	10.0	13.1	23.7	10.6
	만 30 ~ 34 세	600	35.9	8.7	8.7	14.7	18.7	13.3
지 역	수 도 권	1,032	31.5	8.7	10.2	14.5	22.5	12.6
	비 수 도 권	1,009	43.2	5.2	8.1	12.6	17.3	13.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997	36.9	6.3	10.6	13.2	19.0	14.0
	대 졸 이 상	1,044	37.0	7.8	8.0	14.0	21.1	12.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53. 비대면교류 -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전	체	105	28.6	19.0	4.8	22.9	11.4	13.3
성 별	남 자	34	20.6	14.7	11.8	23.5	11.8	17.6
	여 자	71	32.4	21.1	1.4	22.5	11.3	11.3
연 령	만 19 ~ 24 세	58	27.6	13.8	1.7	29.3	12.1	15.5
	만 25 ~ 29 세	26	42.3	30.8	0.0	11.5	7.7	7.7
	만 30 ~ 34 세	20	15.0	20.0	15.0	20.0	15.0	15.0
지 역	수 도 권	96	28.1	19.8	3.1	24.0	11.5	13.5
	비 수 도 권	8	37.5	12.5	12.5	12.5	12.5	12.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59	28.8	16.9	6.8	23.7	11.9	11.9
	대 졸 이 상	31	29.0	22.6	3.2	25.8	9.7	9.7
출 신 지 역	북 한	87	31.0	23.0	4.6	18.4	12.6	10.3
	중 국	17	17.6	0.0	0.0	47.1	5.9	29.4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 평소에 얼마나 비대면으로 교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 사이에 별다른 특징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일반청년의 13%, 북한배경청년 13.3%가 ‘거의 매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비대면 교류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는 이는 일반청년의 20.1%, 북한배경청년의 11.4%다.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일반청년의 37.0%,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28.6%이다.

(3) 소통·고립 정도에 대한 인식

표 V-354. 평소 감정 - (1)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0.9	9.5	65.6	24.0
성 별	남 자	1,074	0.9	10.3	64.1	24.7
	여 자	967	0.9	8.6	67.3	23.1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0.9	9.1	64.9	25.1
	만 2 5 ~ 2 9 세	668	1.0	10.9	63.7	24.4
	만 3 0 ~ 3 4 세	600	0.8	8.6	68.5	22.1
지 역	수 도 권	1,032	0.8	7.7	69.0	22.5
	비 수 도 권	1,009	1.0	11.7	61.6	25.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1.0	10.3	65.4	23.3
	대 졸 이 상	1,044	0.8	8.9	65.8	24.6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55. 평소 감정 -(1)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8	2.8	12.0	61.1	24.1
성 별	남	자	35	2.9	14.3	68.6	14.3
	여	자	73	2.7	11.0	57.5	28.8
연 령	만 1 9 ~ 2 4 세		58	5.2	13.8	58.6	22.4
	만 2 5 ~ 2 9 세		26	0.0	7.7	57.7	34.6
	만 3 0 ~ 3 4 세		23	0.0	13.0	69.6	17.4
지 역	수 도 권		98	3.1	11.2	59.2	26.5
	비 수 도 권		9	0.0	22.2	77.8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1.7	11.7	61.7	25.0
	대 졸 이 상		31	3.2	12.9	58.1	25.8
출 신 지역	북 한		90	1.1	10.0	63.3	25.6
	중 국		17	11.8	23.5	47.1	17.6



그림 V-68. 평소 감정 -(1)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일반청년의 응답 경향과 북한배경청년의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일반청년 89.6%, 북한배경청년 85.2%가 ‘가끔’, ‘항상’ 그렇게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북한배경청년 중 북한출생과 중국출생 간 응답 경향에 차이가 나타난다. 북한출생의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응답 경향이 거의 비슷한 반면, 중국출생은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다. 북한출생 북한배경청년의 88.9%가 ‘가끔’ 혹은 ‘항상’ 주변사람과 내가 잘 통한다고 느낀다고 반응한 반면, 중국출생은 64.7%만이 그렇게 응답하고 있다. 이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경우가 많은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이 언어 소통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남북한 차이에 비해 한중 간 차이가 더 크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문화에 좀 많이 몸 담갔다 온 친구들은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중국은 약간, 한국은 사워하는 문화, 나눠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그게 별로 없는 개인주의라서, 특히 저 같은 외동은 평생 누구랑 나눈 적도 없고 항상 부모님들이... 다 그냥 먹으라 하니까 없는데 저 처음 놀랐던 게 전 그냥 제거 먹고 있었거든요. 제 친한 친구, 그 친구는 서로 먹어볼래? 하지 않는 이상은 막 나 이거 먹어볼래. 아니거든요. 북한에서 오신 형, 누나들은 자연스럽게 이거 뭐야? 하면서 먹고, 저는 그게 좀 싫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좀 중국에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가지고 이거 내건 데 왜 먹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사례 7)

표 V-356. 평소 감정 - (2)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45.0	35.8	15.3	3.8
성 별	남	1,074	45.4	36.3	14.4	3.9
	여	967	44.6	35.3	16.4	3.6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46.5	35.9	14.0	3.6
	만 2 5 ~ 2 9 세	668	44.3	36.8	15.6	3.3
	만 3 0 ~ 3 4 세	600	44.0	34.8	16.8	4.4
지 역	수 도 권	1,032	42.6	36.8	15.6	5.0
	비 수 도 권	1,009	47.8	34.8	15.0	2.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43.8	36.2	15.5	4.5
	대 졸 이 상	1,044	46.3	35.5	15.2	3.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57. 평소 감정 - (2)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8	25.0	46.3	24.1	4.6
성 별	남	자 35	22.9	40.0	34.3	2.9
	여	자 73	26.0	49.3	19.2	5.5
연 령	만 1 9 ~ 2 4 세	58	22.4	51.7	20.7	5.2
	만 2 5 ~ 2 9 세	26	38.5	30.8	30.8	0.0
	만 3 0 ~ 3 4 세	23	17.4	52.2	21.7	8.7
지 역	수 도 권	98	26.5	45.9	23.5	4.1
	비 수 도 권	9	11.1	55.6	22.2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23.3	51.7	20.0	5.0
	대 졸 이 상	31	32.3	45.2	19.4	3.2
출 신 지 역	북 한	90	25.6	47.8	22.2	4.4
	중 국	17	23.5	41.2	29.4	5.9

‘친구관계가 부족하다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청년들의 19.1%가 ‘항상’(3.8%), ‘가끔’(15.3%) 그렇게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북한배경청년들 중 28.7%가 ‘항상’(4.6%), ‘가끔’(24.1%) 그렇게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들에 비해 친구관계가 부족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저는 한국 친구보다 중국 친구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보면 저희 동네 친구 중에 저랑 중국에서 아는 사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친한 친구였어요. 저의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 때 제가 또 송도에서 다녔던 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또 도둑질당하고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돈도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여명학교 와서 또 친한 친구 몇 명 만났어요. 아직도 연락하고 한 명은 지금 개인 사정 때문에 못 만났는데 보면 살펴보면 한국에 있는 친구 중에 거의 다 중국 사람이 친한 친구입니다. (사례 14)

표 V-358. 평소 감정 - (3)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51.7	33.3	13.3	1.7
성 별	남	자	1,074	50.6	34.5	13.3	1.6
	여	자	967	52.9	31.9	13.4	1.7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53.1	32.0	12.9	2.0
	만 2 5 ~ 2 9 세		668	51.1	33.7	13.9	1.3
	만 3 0 ~ 3 4 세		600	50.5	34.5	13.4	1.6
지 역	수 도 권		1,032	50.8	33.9	13.0	2.3
	비 수 도 권		1,009	52.7	32.6	13.8	0.9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49.0	35.0	13.9	2.2
	대 졸 이 상		1,044	54.3	31.7	12.8	1.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59. 평소 감정 - (3)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8	42.6	33.3	18.5	5.6
성 별	남	자	35	40.0	34.3	20.0	5.7
	여	자	73	43.8	32.9	17.8	5.5
연 령	만 1 9 ~ 2 4 세		58	39.7	32.8	20.7	6.9
	만 2 5 ~ 2 9 세		26	57.7	30.8	11.5	0.0
	만 3 0 ~ 3 4 세		23	34.8	39.1	21.7	4.3
지 역	수 도 권		98	45.9	30.6	18.4	5.1
	비 수 도 권		9	11.1	66.7	22.2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33.3	41.7	18.3	6.7
	대 졸 이 상		31	61.3	25.8	12.9	0.0
출 신 지 역	북 한		90	41.1	36.7	17.8	4.4
	중 국		17	52.9	17.6	23.5	5.9



그림 V-69. 평소 감정 - (3)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평소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다’는 데에 일반청년의 응답이 1.7%였던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5.6%가 ‘항상 그렇다’고 응답하여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북한배경청년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항목에서는 북한배경청년의 거주지역별 응답 경향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45.9%)가 비수도권 거주자들보다(11.1%) 훨씬 많다. 항상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수도권 거주자들이 (5.1%) 비수도권 거주자들(0.0%)보다 많아 수도권 거주 북한배경청년들의 상황은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360. 평소 감정 - (4)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62.0	24.5	11.7	1.8	
성 별	남	자	1,074	62.3	24.3	11.7	1.8
	여	자	967	61.8	24.7	11.6	1.9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62.2	25.5	10.5	1.8	
	만 2 5 ~ 2 9 세	668	60.7	24.5	13.4	1.4	
	만 3 0 ~ 3 4 세	600	63.2	23.4	11.3	2.2	
지 역	수 도 권	1,032	59.2	25.7	12.6	2.4	
	비 수 도 권	1,009	65.3	23.1	10.5	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59.9	25.2	12.8	2.1	
	대 졸 이 상	1,044	64.0	23.9	10.6	1.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61. 평소 감정 - (4)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8	39.8	25.0	26.9	8.3
성 별	남	자	35	42.9	17.1	25.7	14.3
	여	자	73	38.4	28.8	27.4	5.5
연 령	만 1 9 ~ 2 4 세		58	34.5	27.6	29.3	8.6
	만 2 5 ~ 2 9 세		26	42.3	26.9	23.1	7.7
	만 3 0 ~ 3 4 세		23	52.2	17.4	26.1	4.3
지 역	수 도 권		98	41.8	25.5	25.5	7.1
	비 수 도 권		9	22.2	22.2	44.4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35.0	25.0	31.7	8.3
	대 졸 이 상		31	58.1	19.4	19.4	3.2
출 신 지 역	북	한	90	42.2	22.2	28.9	6.7
	중	국	17	29.4	41.2	17.6	11.8



그림 V-70. 평소 감정 - (4)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나는 혼자라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청년의 반응과 북한배경청년과 차이가 드러난다. 일반청년의 경우 13.5%가 ‘가끔’(11.7%) 혹은 ‘항상 그렇다’(1.8%)고 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은 35.2%가 ‘가끔’(26.9%), ‘항상 그렇다’(8.3%)라고 응답하고 있다. 북한배경청년 중 남자가 여자보다 혼자라고 느끼는 경우가 더욱 흔하다. 남자는 40.0%가 ‘가끔’(25.7%) 혹은 ‘항상’(14.3%) 혼자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32.9%가 ‘가끔’(27.4%), ‘항상’(5.5%) 그렇게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다.

연구자: 그럼 그런 걸 생각할 때 아,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피면접자: 하쥬.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 있어요.
 나는 누군가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된다.
 연구자: 누구한테 의지할 수가 없다.
 피면접자: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연구자: 의지하는 아빠를 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면접자: 아니요. 그냥 제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상상을.
 연구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사례 8)

표 V-362. 평소 감정 - (5) 나는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5.5	14.1	55.4	25.0
성 별	남	자 1,074	6.8	12.9	55.1	25.2
	여	자 967	4.1	15.5	55.6	24.8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5.1	12.1	53.7	29.0
	만 2 5 ~ 2 9 세	668	4.6	14.6	56.6	24.2
	만 3 0 ~ 3 4 세	600	7.0	16.1	56.1	20.9
지 역	수 도 권	1,032	5.2	14.4	58.2	22.2
	비 수 도 권	1,009	5.8	13.8	52.1	28.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6.5	14.1	54.0	25.4
	대 졸 이 상	1,044	4.6	14.1	56.6	24.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63. 평소 감정 - (5) 나는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8	8.3	23.1	40.7	27.8
성 별	남	자 35	8.6	34.3	34.3	22.9
	여	자 73	8.2	17.8	43.8	30.1
연 령	만 1 9 ~ 2 4 세	58	6.9	19.0	43.1	31.0
	만 2 5 ~ 2 9 세	26	11.5	23.1	34.6	30.8
	만 3 0 ~ 3 4 세	23	8.7	30.4	43.5	17.4
지 역	수 도 권	98	8.2	21.4	40.8	29.6
	비 수 도 권	9	11.1	33.3	44.4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6.7	28.3	38.3	26.7
	대 졸 이 상	31	12.9	19.4	35.5	32.3
출 신	북	한 90	7.8	24.4	40.0	27.8
지 역	중	국 17	11.8	11.8	47.1	29.4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들보다 이런 감정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청년들 80.4%가 ‘가끔’(55.4%), ‘항상’(25.0%)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에는 68.5%만이 ‘가끔’(40.7%), ‘항상’(27.8%)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표 V-364. 평소 감정 - (6) 나는 주위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5.2	21.0	63.2	10.6
성 별	남	자	1,074	5.1	22.9	61.1	10.8
	여	자	967	5.2	18.9	65.6	10.3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5.2	21.3	62.7	10.8
	만 2 5 ~ 2 9 세		668	4.5	20.6	63.3	11.6
	만 3 0 ~ 3 4 세		600	5.8	21.2	63.8	9.2
지 역	수 도 권		1,032	5.7	19.5	65.5	9.2
	비 수 도 권		1,009	4.5	22.8	60.5	12.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4.9	22.5	61.5	11.1
	대 졸 이 상		1,044	5.4	19.6	64.8	10.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65. 평소 감정 - (6) 나는 주위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8	10.2	31.5	49.1	9.3
성 별	남	자	35	8.6	40.0	45.7	5.7
	여	자	73	11.0	27.4	50.7	11.0
연 령	만 1 9 ~ 2 4 세		58	12.1	32.8	44.8	10.3
	만 2 5 ~ 2 9 세		26	11.5	26.9	50.0	11.5
	만 3 0 ~ 3 4 세		23	4.3	30.4	60.9	4.3
지 역	수 도 권		98	9.2	30.6	50.0	10.2
	비 수 도 권		9	22.2	33.3	44.4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10.0	33.3	45.0	11.7
	대 졸 이 상		31	6.5	25.8	61.3	6.5
출 신	북	한	90	7.8	33.3	50.0	8.9
지 역	중	국	17	23.5	17.6	47.1	11.8

‘나는 주위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일반청년들보다 북한배경청년들이 그러한 감정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청년들 73.8%가 ‘가끔’(63.2%), ‘항상’(10.6%)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에는 58.4%만이 ‘가끔’(49.1%), ‘항상’(9.3%)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표 V-366. 평소 감정 - (7) 나는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57.6	26.7	14.4	1.3
성 별	남	자	1,074	57.3	26.3	15.2	1.2
	여	자	967	58.0	27.0	13.6	1.4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57.2	25.8	15.6	1.4
	만 2 5 ~ 2 9 세		668	59.2	27.6	11.9	1.3
	만 3 0 ~ 3 4 세		600	56.5	26.7	15.8	1.0
지 역	수 도 권		1,032	57.0	26.8	14.8	1.4
	비 수 도 권		1,009	58.4	26.5	14.0	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55.4	26.5	16.4	1.6
	대 졸 이 상		1,044	59.8	26.8	12.5	0.9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67. 평소 감정 - (7) 나는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7	54.2	22.4	23.4	0.0
성 별	남	자	94	52.9	23.5	23.5	0.0
	여	자	73	54.8	21.9	23.3	0.0
연 령	만 1 9 ~ 2 4 세		58	51.7	20.7	27.6	0.0
	만 2 5 ~ 2 9 세		26	65.4	23.1	11.5	0.0
	만 3 0 ~ 3 4 세		22	50.0	27.3	22.7	0.0
지 역	수 도 권		97	55.7	24.7	19.6	0.0
	비 수 도 권		9	44.4	0.0	55.6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56.7	20.0	23.3	0.0
	대 졸 이 상		31	58.1	29.0	12.9	0.0
출 신 지 역	북 한		89	56.2	22.5	21.3	0.0
	중 국		17	47.1	23.5	29.4	0.0



그림 V-71. 평소 감정 - (7) 나는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나는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일반청년들 15.7%만이 ‘가끔’(14.4%), ‘항상’(1.3%)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에는 23.4%가 ‘가끔’(23.4%), ‘항상’(0.0%)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어 북한배경청년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거주지역별 응답에 차이가 나타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북한배경청년들보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에게서 자신이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는 느낌을 자주 갖는 이들이 많이 나타난다. 수도권 거주자는 19.6%만이 ‘가끔’ 그러한 감정을 갖는다고 한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는 55.6%가 그런 감정을 ‘가끔’ 갖는다고 응답했다.

표 V-368. 평소 감정 - (8) 나는 스스로 적극적이고 호의적이라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6.8	21.3	57.9	14.0
성 별	남	자	1,074	6.7	19.6	57.9	15.8
	여	자	967	6.8	23.2	58.0	12.0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5.6	21.1	57.6	15.8
	만 2 5 ~ 2 9 세		668	6.9	21.8	57.6	13.6
	만 3 0 ~ 3 4 세		600	8.1	21.0	58.7	12.2
지 역	수 도	권	1,032	8.0	21.8	56.9	13.3
	비 수 도	권	1,009	5.4	20.7	59.2	14.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6.5	20.8	57.9	14.8
	대 졸 이 상		1,044	7.1	21.7	58.0	13.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69. 평소 감정 - (8) 나는 스스로 적극적이고 호의적이라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7	6.5	18.7	49.5	25.2
성 별	남	자	35	5.7	17.1	57.1	20.0
	여	자	72	6.9	19.4	45.8	27.8
연 령	만 1 9 ~ 2 4 세		57	7.0	21.1	47.4	24.6
	만 2 5 ~ 2 9 세		26	3.8	7.7	65.4	23.1
	만 3 0 ~ 3 4 세		23	8.7	26.1	34.8	30.4
지 역	수 도	권	98	6.1	18.4	48.0	27.6
	비 수 도	권	8	12.5	25.0	62.5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6.8	22.0	47.5	23.7
	대 졸 이 상		31	6.5	12.9	61.3	19.4
출 신 지 역	북 한		89	5.6	16.9	50.6	27.0
	중 국		17	11.8	29.4	41.2	17.6

‘나는 스스로 적극적이고 호의적이라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청년들과 북한배경청년들의 반응 경향에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이러한 감정을 ‘가끔’ 혹은 ‘항상’ 느끼는 이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청년 71.9%, 북한배경청년 74.7%). 이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삶의 적극성은 결코 다른 이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370. 평소 감정 - (9) 나는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3.1	14.5	64.5	17.9
성 별	남 자	1,074	3.1	14.0	62.3	20.7
	여 자	967	3.2	15.1	66.9	14.7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2.8	14.2	64.2	18.8
	만 2 5 ~ 2 9 세	668	2.4	13.9	65.2	18.5
	만 3 0 ~ 3 4 세	600	4.5	15.6	64.0	15.9
지 역	수 도 권	1,032	3.2	14.2	65.5	17.1
	비 수 도 권	1,009	3.0	14.9	63.3	18.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2.8	15.9	63.1	18.2
	대 졸 이 상	1,044	3.5	13.2	65.8	17.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71. 평소 감정 - (9) 나는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7	2.8	19.6	58.9	18.7
성 별	남	자	35	5.7	20.0	54.3	20.0
	여	자	72	1.4	19.4	61.1	18.1
연 령	만 1 9 ~ 2 4 세		57	5.3	15.8	59.6	19.3
	만 2 5 ~ 2 9 세		26	0.0	26.9	53.8	19.2
	만 3 0 ~ 3 4 세		23	0.0	21.7	60.9	17.4
지 역	수 도 권		97	3.1	19.6	57.7	19.6
	비 수 도 권		9	0.0	22.2	66.7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0.0	20.3	62.7	16.9
	대 졸 이 상		31	3.2	22.6	54.8	19.4
출 신	북 한		90	1.1	20.0	57.8	21.1
지 역	중 국		16	12.5	18.8	62.5	6.3

‘나는 사람들과 가깝다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일반청년들 82.4%가 ‘가끔’(64.5%), ‘항상’(17.9%)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북한배경청년들의 77.6%가 ‘가끔’(58.9%), ‘항상’(18.7%)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어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다.

표 V-372. 평소 감정 - (10)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66.8	22.6	9.6	1.0
성 별	남 자	1,074	66.7	23.1	9.2	0.9
	여 자	967	66.8	22.1	10.1	1.0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67.4	22.3	8.8	1.4
	만 2 5 ~ 2 9 세	668	66.5	22.3	10.8	0.4
	만 3 0 ~ 3 4 세	600	66.3	23.4	9.3	1.0
지 역	수 도 권	1,032	66.1	22.7	10.1	1.1
	비 수 도 권	1,009	67.6	22.5	9.1	0.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65.6	22.8	10.2	1.5
	대 졸 이 상	1,044	67.9	22.5	9.1	0.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73. 평소 감정 - (10)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8	35.2	45.4	18.5	0.9
성 별	남 자	35	40.0	37.1	20.0	2.9
	여 자	73	32.9	49.3	17.8	0.0
연 령	만 1 9 ~ 2 4 세	58	37.9	41.4	19.0	1.7
	만 2 5 ~ 2 9 세	26	46.2	46.1	7.7	0.0
	만 3 0 ~ 3 4 세	23	17.4	52.2	30.4	0.0
지 역	수 도 권	98	35.7	45.9	17.3	1.0
	비 수 도 권	9	33.3	33.3	33.3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33.3	45.0	21.7	0.0
	대 졸 이 상	31	35.5	51.6	9.7	3.2
출 신 지 역	북 한	90	33.3	47.8	18.9	0.0
	중 국	17	47.1	29.4	17.6	5.9

‘평소 나는 소외감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청년들 10.6%가 ‘가끔’(9.6%), ‘항상’(1.0%)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북한배경청년들의 19.4%가 ‘가끔’(18.5%), ‘항상’(0.9%)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어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전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일반청년들 중 66.8%인 반면, 북한배경청년은 35.2%만이 소외감을 느끼는 때가 없다고 응답했다.

표 V-374. 평소 감정 -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54.3	32.0	12.7	0.9
성 별	남	자	1,074	55.5	31.3	12.5	0.7
	여	자	967	52.9	32.9	13.0	1.2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54.1	30.5	13.9	1.6
	만 2 5 ~ 2 9 세		668	54.2	33.7	11.4	0.7
	만 3 0 ~ 3 4 세		600	54.8	32.2	12.7	0.3
지 역	수 도 권		1,032	53.9	33.4	11.8	1.0
	비 수 도 권		1,009	54.8	30.5	13.8	0.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52.9	32.2	13.9	1.0
	대 졸 이 상		1,044	55.7	31.9	11.7	0.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75. 평소 감정 -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7	44.9	27.1	22.4	5.6
성 별	남	자	35	42.9	25.7	25.7	5.7
	여	자	72	45.8	27.8	20.8	5.6
연 령	만 1 9 ~ 2 4 세		57	42.1	26.3	24.6	7.0
	만 2 5 ~ 2 9 세		26	50.0	30.8	15.4	3.8
	만 3 0 ~ 3 4 세		23	47.8	26.1	21.7	4.3
지 역	수 도 권		97	46.4	26.8	21.6	5.2
	비 수 도 권		9	33.3	33.3	22.2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44.1	28.8	20.3	6.8
	대 졸 이 상		31	41.9	32.3	19.4	6.5
출 신 지역	북 한		90	43.3	30.0	21.1	5.6
	중 국		16	56.3	12.5	25.0	6.3

‘평소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청년들 13.6%가 ‘가끔’(12.7%), ‘항상’(0.9%)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북한배경청년들의 28.0%가 ‘가끔’(22.4%), ‘항상’(5.6%)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어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는 감정을 느끼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전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일반청년들 중 54.3%인 반면, 북한배경청년은 44.9%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때가 없다고 응답했다.

표 V-376. 평소 감정 - (12) 나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54.1	31.0	13.5	1.4
성 별	남	자	1,074	54.2	30.9	13.9	1.0
	여	자	967	54.0	31.1	13.1	1.8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53.3	31.7	14.0	1.1
	만 2 5 ~ 2 9 세		668	53.6	31.4	13.4	1.6
	만 3 0 ~ 3 4 세		600	55.6	29.8	13.0	1.6
지 역	수 도 권		1,032	51.8	31.7	15.1	1.4
	비 수 도 권		1,009	56.7	30.3	11.7	1.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52.1	31.8	14.8	1.3
	대 졸 이 상		1,044	56.0	30.3	12.3	1.4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77. 평소 감정 - (12) 나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7	37.4	33.6	23.4	5.6
성 별	남 자	34	29.4	32.4	29.4	8.8
	여 자	73	41.1	34.2	20.5	4.1
연 령	만 1 9 ~ 2 4 세	58	32.8	31.0	27.6	8.6
	만 2 5 ~ 2 9 세	26	53.8	23.1	23.1	0.0
	만 3 0 ~ 3 4 세	22	31.8	54.5	9.1	4.5
지 역	수 도 권	97	39.2	35.1	20.6	5.2
	비 수 도 권	9	22.2	22.2	44.4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36.7	31.7	26.7	5.0
	대 졸 이 상	31	41.9	41.9	12.9	3.2
출 신 지역	북 한	89	39.3	36.0	20.2	4.5
	중 국	17	29.4	23.5	35.3	11.8

‘평소 나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일반청년들 14.9%가 ‘가끔’(13.5%), ‘항상’(1.4%)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북한배경청년들의 29.0%가 ‘가끔’(23.4%), ‘항상’(5.6%)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어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평소에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감정을 느끼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전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경우는 일반청년들 중 54.1%인 반면, 북한배경청년은 37.4%만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때가 없다고 응답했다.

표 V-378. 평소 감정 - (13) 나는 내가 원할 때에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10.7	17.4	55.1	16.7
성 별	남	자	1,074	10.4	17.5	56.1	15.9
	여	자	967	11.1	17.3	54.0	17.6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10.5	17.4	54.5	17.6
	만 2 5 ~ 2 9 세		668	9.0	17.7	56.8	16.5
	만 3 0 ~ 3 4 세		600	12.9	17.2	54.0	15.9
지 역	수 도 권		1,032	11.3	16.5	57.5	14.7
	비 수 도 권		1,009	10.1	18.4	52.4	19.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9.7	18.3	55.8	16.2
	대 졸 이 상		1,044	11.7	16.6	54.5	17.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79. 평소 감정 - (13) 나는 내가 원할 때에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6	5.7	18.9	45.3	30.2
성 별	남	자	34	5.9	26.5	44.1	23.5
	여	자	72	5.6	15.3	45.8	33.3
연 령	만 1 9 ~ 2 4 세		58	3.6	17.9	50.0	28.6
	만 2 5 ~ 2 9 세		26	11.5	11.5	42.3	34.6
	만 3 0 ~ 3 4 세		23	4.3	26.1	39.1	30.4
지 역	수 도 권		96	5.2	17.7	45.8	31.3
	비 수 도 권		9	11.1	22.2	44.4	22.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6.8	20.3	45.8	27.1
	대 졸 이 상		31	6.5	12.9	45.2	35.5
출 신 지 역	북 한		88	6.8	19.3	44.3	29.5
	중 국		17	0.0	11.8	52.9	35.3

‘나는 내가 원할 때에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는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난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반응한 일반청년들의 비율이(10.7%) 북한배경청년들(5.7%)보다 더 많다. 일반청년들 71.8%가 ‘가끔’(55.1%), ‘항상’(16.7%)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북한배경청년들의 75.5%가 ‘가끔’(45.3%), ‘항상’(30.2%)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어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자신이 원할 때 함께 있어 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V-380. 평소 감정 - (14) 나는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4.0	17.1	61.4	17.6
성 별	남	자 1,074	3.9	17.8	62.2	16.1
	여	자 967	4.1	16.2	60.4	19.3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3.1	16.6	60.8	19.4
	만 2 5 ~ 2 9 세	668	3.7	16.5	63.8	15.9
	만 3 0 ~ 3 4 세	600	5.3	18.3	59.3	17.1
지 역	수 도 권	1,032	4.5	16.9	61.7	16.9
	비 수 도 권	1,009	3.4	17.3	61.0	18.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3.6	19.3	59.9	17.3
	대 출 이 상	1,044	4.4	15.0	62.8	17.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81. 평소 감정 - (14) 나는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8	8.3	20.4	44.4	26.9
성 별	남 자	35	8.6	25.7	40.0	25.7
	여 자	73	8.2	17.8	46.6	27.4
연 령	만 1 9 ~ 2 4 세	58	10.3	22.4	41.4	25.9
	만 2 5 ~ 2 9 세	26	11.5	7.7	38.5	42.3
	만 3 0 ~ 3 4 세	23	0.0	26.1	60.9	13.0
지 역	수 도 권	98	7.1	19.4	45.9	27.6
	비 수 도 권	9	22.2	22.2	33.3	22.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11.7	20.0	45.0	23.3
	대 졸 이 상	31	6.5	16.1	41.9	35.5
출 신 지역	북 한	90	8.9	20.0	43.3	27.8
	중 국	17	5.9	17.6	52.9	23.5

‘평소에 나는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일반청년의 79.0%가 ‘가끔’(61.4%), ‘항상’(17.6%) 그렇다고 하였고, 북한배경청년들 중 71.3%가 ‘가끔’(44.4%), ‘항상’(26.9%) 그렇다고 대답하여 북한배경청년이 일반청년들의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북한배경청년 비율은(8.3%) 일반청년(4.0%)보다 훨씬 많다.

표 V-382. 평소 감정 - (15) 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32.3	33.0	30.9	3.9
성 별	남	자	1,074	32.8	32.7	31.1	3.5
	여	자	967	31.8	33.3	30.7	4.3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32.3	32.5	31.5	3.7
	만 2 5 ~ 2 9 세		668	34.2	33.5	29.4	2.9
	만 3 0 ~ 3 4 세		600	30.2	32.9	31.8	5.1
지 역	수 도 권		1,032	33.6	34.0	29.0	3.5
	비 수 도 권		1,009	30.8	31.7	33.1	4.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30.6	33.9	31.0	4.4
	대 졸 이 상		1,044	33.9	32.0	30.8	3.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83. 평소 감정 - (15) 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5	30.5	34.3	25.7	9.5
성 별	남	자	35	25.7	31.4	34.3	8.6
	여	자	70	32.9	35.7	21.4	10.0
연 령	만 1 9 ~ 2 4 세		55	27.3	30.9	30.9	10.9
	만 2 5 ~ 2 9 세		26	46.2	30.8	11.5	11.5
	만 3 0 ~ 3 4 세		23	17.4	47.8	30.4	4.3
지 역	수 도 권		96	30.2	34.4	26.0	9.4
	비 수 도 권		8	25.0	37.5	25.0	12.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7	28.1	40.4	21.1	10.5
	대 졸 이 상		31	41.9	38.7	16.1	3.2
출 신 지 역	북	한	88	28.4	37.5	25.0	9.1
	중	국	16	37.5	18.8	31.3	12.5

‘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이라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 경향이 유사하다. 일반청년들 중 34.8%가 ‘가끔’(30.9%), ‘항상’(3.9%)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북한배경청년의 35.4%가 ‘가끔’(25.7%), ‘항상’(9.5%) 그렇다고 반응하였다.

표 V-384. 평소 감정 - (16)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2.8	13.2	58.8	25.2
성 별	남	자	1,074	2.9	14.3	59.0	23.8
	여	자	967	2.7	12.0	58.5	26.9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2.0	11.1	58.8	28.1
	만 2 5 ~ 2 9 세		668	2.3	14.9	57.7	25.2
	만 3 0 ~ 3 4 세		600	4.3	14.0	59.9	21.7
지 역	수 도 권		1,032	3.9	12.0	60.8	23.4
	비 수 도 권		1,009	1.4	14.7	56.5	27.4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2.7	14.0	58.4	24.8
	대 졸 이 상		1,044	2.8	12.4	59.1	25.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85. 평소 감정 - (16)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6	0.9	15.1	49.1	34.9
성 별	남	자	34	2.9	8.8	50.0	38.2
	여	자	72	0.0	18.1	48.6	33.3
연 령	만 1 9 ~ 2 4 세		57	0.0	14.0	40.9	35.1
	만 2 5 ~ 2 9 세		26	3.8	7.7	42.3	46.2
	만 3 0 ~ 3 4 세		22	0.0	27.3	50.0	22.7
지 역	수 도 권		97	0.0	15.5	47.4	37.1
	비 수 도 권		8	12.5	12.5	62.5	12.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1.7	16.9	54.2	27.1
	대 졸 이 상		31	0.0	9.7	48.4	41.9
출 신 지 역	북	한	88	1.1	14.8	50.0	34.1
	중	국	17	0.0	17.6	41.2	41.2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 경향이 유사하다. 일반청년들 중 84.0%가 ‘가끔’(58.8%), ‘항상’(25.2%)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북한배경청년의 경우도 84.0%가 ‘가끔’(49.1%), ‘항상’(34.9%) 그렇다고 반응하였다.

표 V-386. 평소 감정 - (17)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2.2	13.3	59.6	25.0
성 별	남	자	1,074	2.3	13.9	59.8	23.9
	여	자	967	2.0	12.5	59.3	26.1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2.3	11.3	59.5	26.9
	만 2 5 ~ 2 9 세		668	2.3	13.7	59.4	24.6
	만 3 0 ~ 3 4 세		600	1.9	15.2	60.0	22.9
지 역	수 도 권		1,032	2.6	12.5	59.8	25.0
	비 수 도 권		1,009	1.6	14.1	59.4	24.9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2.8	14.2	59.2	23.8
	대 졸 이 상		1,044	1.5	12.4	60.0	26.0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87. 평소 감정 - (17)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6	5.7	16.0	45.3	33.0
성 별	남	자	34	2.9	20.6	52.9	23.5
	여	자	72	6.9	13.9	41.7	37.5
연 령	만 1 9 ~ 2 4 세		56	7.1	10.7	46.4	35.7
	만 2 5 ~ 2 9 세		26	3.8	11.5	42.3	42.3
	만 3 0 ~ 3 4 세		23	4.3	30.4	47.8	17.4
지 역	수 도 권		96	6.3	13.5	44.8	35.4
	비 수 도 권		9	0.0	33.3	55.6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8	5.2	13.8	53.4	27.6
	대 졸 이 상		31	3.2	16.1	45.2	35.5
출 신 지 역	북 한		89	3.4	18.0	46.0	32.6
	중 국		16	18.8	0.0	43.8	37.5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 경향이 조금 더 부정적이다. 일반청년들 중 84.6%가 ‘가끔’(59.6%), ‘항상’(25.0%)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북한배경청년의 경우는 78.3%가 ‘가끔’(45.3%), ‘항상’(33.0%) 그렇다고 반응하였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데에는 일반청년 2.2%가 북한배경청년 5.7%가 응답했다.

표 V-388. 평소 감정 - (18)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2,041	86.6	7.8	5.2	0.4
성 별	남	자	1,074	86.9	7.4	5.4	0.3
	여	자	967	86.2	8.3	4.9	0.6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87.6	7.4	4.3	0.8
	만 2 5 ~ 2 9 세		668	85.1	8.3	6.5	0.2
	만 3 0 ~ 3 4 세		600	87.1	7.8	5.0	0.1
지 역	수 도 권		1,032	86.6	7.5	5.4	0.5
	비 수 도 권		1,009	86.6	8.2	5.0	0.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86.0	7.7	5.7	0.6
	대 졸 이 상		1,044	87.2	7.9	4.7	0.2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89. 평소 감정 - (18)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		체	108	77.8	12.0	8.3	1.9
성 별	남	자	35	62.9	20.0	14.3	2.9
	여	자	73	84.9	8.2	5.5	1.4
연 령	만 1 9 ~ 2 4 세		58	79.3	12.1	6.9	1.7
	만 2 5 ~ 2 9 세		26	84.6	11.5	3.8	0.0
	만 3 0 ~ 3 4 세		23	69.6	13.0	13.0	4.3
지 역	수 도 권		98	81.6	10.2	6.1	2.0
	비 수 도 권		9	44.4	33.3	22.2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75.0	13.3	11.7	0.0
	대 졸 이 상		31	87.1	9.7	3.2	0.0
출 신 지 역	북 한		90	75.6	14.4	7.8	2.2
	중 국		17	94.1	0.0	5.9	0.0



그림 V-72. 평소 감정 - (18)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일반청년보다 상대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일반청년들 중 5.6%가 ‘가끔’(5.2%), ‘항상’(0.4%)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북한배경청년의 10.2%가 ‘가끔’(8.3%), ‘항상’(1.9%) 그렇다고 반응하였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북한배경청년 중 남자가 여자보다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17.2%가 ‘가끔’(14.3%), ‘항상’(2.9%) 고립감을 느끼며, 여자는 경우는 6.9%만이 ‘가끔’(5.5%), ‘항상’(1.4%) 그러한 것으로 응답했다. 학력별 차이도 나타나, 대졸 이상인 북한배경청년보다 고졸 이하 또는 대학재학생에게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90.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기간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내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전	체	297	49.9	23.6	13.1	4.6	8.8
성별	남 자	149	48.6	25.5	11.5	5.3	9.0
	여 자	148	51.2	21.6	14.8	3.8	8.5
연령	만 1 8 ~ 2 4 세	106	51.8	26.2	11.6	4.1	6.3
	만 2 5 ~ 2 9 세	103	50.1	22.9	13.5	4.8	8.7
	만 3 0 ~ 3 4 세	88	47.3	21.3	14.6	5.0	11.9
지역	수 도 권	140	55.2	25.1	9.5	4.3	5.9
	비 수 도 권	157	43.8	21.8	17.3	5.0	12.1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52	50.6	20.5	14.2	5.3	9.4
	대 졸 이 상	145	49.2	26.8	12.0	3.9	8.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만 응답

표 V-391.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기간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6개월 미만	6개월 이내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전	체	22	45.5	27.3	9.1	4.5	13.6
성별	남 자	10	50.0	20.0	0.0	10.0	20.0
	여 자	12	41.7	33.3	16.7	0.0	8.3
연령	만 1 9 ~ 2 4 세	10	50.0	10.0	10.0	10.0	20.0
	만 2 5 ~ 2 9 세	6	33.3	66.7	0.0	0.0	0.0
	만 3 0 ~ 3 4 세	6	50.0	16.7	16.7	0.0	16.7
지역	수 도 권	17	47.1	23.5	5.9	5.9	17.6
	비 수 도 권	5	40.0	40.0	2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4	50.0	28.6	7.1	7.1	7.1
	대 졸 이 상	4	50.0	25.0	0.0	0.0	25.0
출신 지역	북 한	20	45.0	30.0	10.0	0.0	15.0
	중 국	2	50.0	0.0	0.0	50.0	0.0

* 주: 1) 사람들에게 고립되어 있다고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만 응답

2) 사례수 30 미만으로 해석 시 유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우’ 그런 감정을 느낀 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사례수가 적어 적극적인 해석을 하기 어렵다. 다만, 경향적으로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그런 감정을 가진 이들이 많이 나타난다. ‘6개월 미만’이라 응답한 이들은 일반청년의 49.9%, 북한배경청년의 45.5%인 반면, 일반청년의 8.8%, 북한배경청년의 13.6%가 ‘3년 이상’이라 응답하였다.

표 V-392. 어려운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	평균(명)
전	체		2,041	2.4	97.6	4.9
성 별	남	자	1,074	2.4	97.6	5.1
	여	자	967	2.4	97.6	4.7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3.0	97.0	5.0
	만 2 5 ~ 2 9 세		668	1.6	98.4	4.9
	만 3 0 ~ 3 4 세		600	2.5	97.5	4.7
지 역	수 도 권		1,032	2.7	97.3	4.8
	비 수 도 권		1,009	2.1	97.9	5.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2.7	97.3	4.8
	대 졸 이 상		1,044	2.1	97.9	5.0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93.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	평균(명)
전	체		104	8.7	91.3	5.6
성 별	남	자	33	18.2	81.8	6.5
	여	자	71	4.2	95.8	5.2
연 령	만 19 ~ 24 세		56	3.6	96.4	5.7
	만 25 ~ 29 세		26	15.4	84.6	5.6
	만 30 ~ 34 세		22	13.6	86.4	5.0
지 역	수 도 권		95	7.4	92.6	5.7
	비 수 도 권		9	22.2	77.8	3.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6	7.1	92.9	5.7
	대 졸 이 상		31	12.9	87.1	6.2
출 신 지역	북 한		88	8.0	92.0	5.2
	중 국		16	12.5	87.5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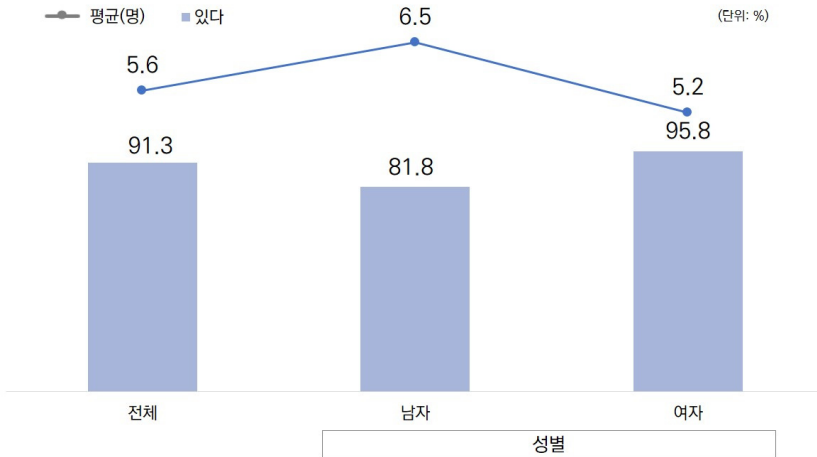


그림 V-73. 어려운 상황에서 기대 수 있는 친구 존재 여부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자신이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일반청년보다 북한배경청년들이 그러한 친구가 있는 비율은 적지만 친구 수는 더 많다. 일반청년들의 97.6%, 북한배경청년의 91.3%가 그런 친구가 있다고 응답했다. 친구 수의 경우 일반청년은 평균 4.9명인데 비해 북한배경청년은 평균 5.6명이다. 이는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친구를 가진 이들의 친구 범위는 일반청년 못지않게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배경청년 중 남자가 어려운 상황에 기댈 친구를 가진 경우가 여자보다 적다(남자 81.8%, 여자 95.8%). 그런데 그런 친구를 가진 경우 평균 친구 수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남자 6.5명, 여자 5.2명)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북한배경청년 중 남자가 어려운 상황에 기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그런 친구를 가진 경우에는 친구의 범위가 여자보다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 차이 외 북한배경청년 연령별, 거주지역별, 학력별, 출생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통·고립 측면에서 볼 때 북한배경청년들은 일반청년들에 비해 감정적 고립감이나 소외감 등을 느끼는 이들이 더 많다. 어려운 상황에 기댈 수 있는 친구를 가진 경우도 더 적다. 특히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는 북한배경청년 중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까운 이가 있는 경우에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들보다 관계의 폭은 더 넓을 수 있다. 이는 북한배경청년들의 상황이 양극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며, 북한배경청년 일반에 대한 접근보다는 개별 청년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대처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일반적으로 북한배경청년들로 하여금 고립감, 소외감을 갖게 하는 것은 남북한 서로 다른 문화 때문이기도 하나, 주변인들의 ‘북한’에 대한 편견 때문인 경우가 많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자신의 북한배경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어투나 약한 정보력 등이 드러날 것을 기피하여 대화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고 그것이 다시 관계의 취약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사람들 대하는 직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중 다수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1)²⁷⁾ 점은 북한배경청년의 가족·친지, 가까운 친구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27) 남북하나재단에 의하면 2021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이 64.8%가 수도권에, 35.2%만이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수도권 거주자보다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이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점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하고 북한사람의 가치관이 다르다거나.

피면접자: 네, 완전 달라요.

연구자: 어떤 게 다른 거 같아요?

피면접자: 자본주의니까 완전 다르죠. 그게 약간 노련하다고 해야 되나.

연구자: 노련? 노련하다고.

피면접자: 네, 노련하다. 약간... 사람 못 믿겠어요.

연구자: 그런 면에서.

피면접자: 친구도 친구가 아닌 거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요. 뭔가 그게 태생이 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끼는데 그런 것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같이 위에서 온 사람들 딱 진짜 친구 먹으면은 뭔가 편한 마음 느낌 있는데, 여기 친구들이랑은 편하지가 않아요. (사례 13)

예를 들어 축구팀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서 자기소개하고 같이할 때,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대하거든요. 그런데 좀 친해져서 그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본가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저는 거짓말하기 귀찮아서 “난 태어난 건 북한에서 태어났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5살이니까 “군대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마다 꼭 말하게 되거든요. “나는 면제다” “왜 면제냐?” 하면 “북한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다르게 대해요. 아무튼. 불쾌하게 대하는 건 아닌데, 조심스럽게 대하더라고요. 저를 되게.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 축구팀처럼 오래 하는 모임이 아니면 말 잘 안 해요. (사례 2)

근데 거의 내가 좀 사투리를 너무 써가지고 다 이렇게 외국 사람인 줄... 뭐 중국 사람인 줄 알고 거기 중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저 중국사람 아닌데요. 바로 말했지요 북한 사람이라고... 좀 반응이 처음에는 뭐 아니 저 화식 때랑 보게 되면 무슨 북한에는 티비 있나 무슨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북한에 무슨 있을 건 다 있죠. 그냥 그 뭐지 이만갑 그 나오는 애들이 그거 어디 말을 잘못 말을 다 하면 거지처럼 말해가지고 무슨 북한이 뭐 다 거지처럼 사는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 거지들도 있고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거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진짜 배 땅땅 거리며 한국 사람 잘 사는 거 못지않게 진짜 돈 깔고 방석에 깔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 우리 신랑도 그때 회사에서도 계란은 있냐고... 달걀 먹어본 적 있냐고. 거기서 우리 신랑이 얼 받은 거예요. 아무리 북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해도... 달걀 먹어봤다고 그제 우리 신랑이 좀 저치 먹을 건 다 먹어봤다고. (사례 10)

저 피부 미용사 자격증 취득하고 했는데 그게 사람 만지는 일이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두 사람만 전신으로 다 마사지하고 나면 내가 힘들어서 밤에는 막 쓰러져 있어요. 밥 먹을 기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이 나한테 안 맞나 보다 싶어갖고 또 네일아트 학원 다녀서 자격증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 저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북한 사람이니까 북한 사투리를 아무리 내 댔에는 티 안 낸다고 말하지만 그게 티 나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고객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면 주식이면 주식 뭐 그 뭐지 어느 동네에서 예를 들면 강남에서 무슨 빌딩이 무슨 어떻게 하고 그런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 같이 얘기도 하면서 그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면서 막 일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니까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히 내가 그런 걸 모르고 하니까 막 위축되고 또 날 어떻게 보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까지 흘러왔는데 그냥 이만큼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거 그리고 학원 다니면서 보니까 나이 있으신 분들은 관찮은데 어린 2~30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10대 친구들 이랑 학원에서 같이 마주쳤는데 이게 너무 세대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같은 30대인데도 제가

되게 막 40대 같고 그런 정보 그런 망 같은 데서랑 제가 많이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하고 꼭 필요한 얘기만 하고 안 하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왜 말 좀 하라고 그래서 그냥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요. 그냥 그렇게 찝찝한 얘기만 하면 그냥 내 단점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아무래도 사장 입장에서 제가 본다면 사장들은 손님들하고 막 대화도 원활히 하면서 손님들을 재밌게 해서 돈 그 돈 벌 수 있는 그런 직원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같은 월급 주면서 그런 사람 쓰기보다는 뭐 말도 예쁘게 잘하고 그런 사람 쓰고 싶겠조 사장 입장에서는. (사례 11)

저는 뭐 소프트웨어 쪽이라서 그런 거는 딱히 아직은 없었던 거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고객 상대로 비투스 팔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소프트웨어 만들고 그 다음에 전문가 투자자들 이렇게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보지 그런 배경, 편견으로 보진 않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도...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게 사실 모든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라고. 저도 편견 있고 모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딱 봤을 때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다 분석하려면 너무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압축해서 간단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런데 또 (북한배경이) 단점이 되는 게 실제로 제가 어디 나가서 예시를 든다면 강의를 해야 되는 창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핸디캡이 되는 거로 알고, 그 사람들도 당연히 핸디캡이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런 게 아니면 뭐 관계가 없는 거라...실제로 차별을 (당한) 예시를 들면 이런 프레젠테이션에서 국제행사장 같은 데서 입구에서 ... 동시통역기를 나눠줬거든요 ...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 그 행사장 입구에서 신분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 놓고 동시통역기라 하나 나눠주고 나올 때 그거를 신분증을 받아야 되는데, 신분증을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한 개당 20만 원인가 해가지고 분실하면 제가 변상해야 되는데 10만 원 정도.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명함 안 가져왔다고... 차에 두고 왔는데 명함을 주겠다 이렇게 주면서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누군데 그러면서. "안 됩니다. 규정입니다" 하면 말투가 이상하니까 "너 어디서 왔나?" "북한이탈주민 이다" 하면 "어디 탈북자인 주제에" 그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죠. 그러면 뭐 그런 때는 아무리 인간인... 저는 사실 그런 거는 뭐 개는 짖어라 이렇게... 스타일이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인간인자라 감정적으로 기본 나쁠 수밖에 없는 일이고. ...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객 전화응대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나하고 안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건을 판다거나 영업을 한다거나. (사례 12)

피면접자: 그게 딱하... 경험이라기보다 그냥 대부분 거의 대하는 태도나 그런 게 달라요. 원가 달라요.
 연구자: 얘기하는 순간.
 피면접자: 네, 그래 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하고 그때부터 얘기 안 했어요.
 연구자: 그랬구나. 그런 거 티 내기 싫어서 하나센터도 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구나.
 피면접자: 네, 청소년 무슨 남북 뭐지 무지개센터였나.
 연구자: 무지개청소년센터.

피면접자: 네, 그런 것도 옛날에 엄청 많이 갔어요. 여름에는 해수욕장도 놀러 가고 그런 거 많잖아요. 활동.
 연구자: 갔었어요? 처음에는.
 피면접자: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연락처 교환... 제가 전화번호 다 바꾸고 연락을 아예 안 해요.
 연구자: 처음에 갔을 때는 어땠어요?
 피면접자: 처음에는 재밌게 놀았죠. 놀았는데 온갖 단체로 우루루 얘기하면서 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달라요. 원가 이런 게 아니구나하고 그때부터는. (사례 13)

제가 00에 처음에 와 있었었는데 지금 신랑 따라 지방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니까 거기는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그니까 아예 밖에 안 나가요. 그니까 더 지금 그 단출해 들어 그 사람들하고의 연계라든가 그런 게 아예 없거든요 그니까 더 지금. (사례 11)

(4) 소속감

표 V-394.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의 소속감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아니다	그렇다
전		체	2,041	19.2	80.8
성 별	남	자	1,074	20.1	79.9
	여	자	967	18.2	81.8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18.7	81.3
	만 2 5 ~ 2 9 세		668	19.5	80.5
	만 3 0 ~ 3 4 세		600	19.5	80.5
지 역	수 도 권		1,032	21.4	78.6
	비 수 도 권		1,009	16.7	83.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20.9	79.1
	대 졸 이 상		1,044	17.6	82.4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95.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의 소속감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아니다	그렇다
전		체	104	20.2	79.8
성 별	남	자	34	20.6	79.4
	여	자	70	20.0	80.0
연 령	만 1 9 ~ 2 4 세		57	19.3	80.7
	만 2 5 ~ 2 9 세		26	19.2	80.8
	만 3 0 ~ 3 4 세		20	25.0	75.0
지 역	수 도 권		95	21.1	78.9
	비 수 도 권		8	12.5	87.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6	19.6	80.4
	대 졸 이 상		31	16.1	83.9
출 신 지 역	북	한	86	19.8	80.2
	중	국	17	23.5	76.5

‘현재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냐’는 질문에는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에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청년의 80.8%, 북한배경청년도 79.8%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V-396.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가족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여가활동 및 사회 활동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전	체	1,658	85.7	56.3	14.8	18.4	38.6	26.8
성별	남 자	864	82.9	57.2	16.1	20.9	38.1	27.6
	여 자	794	88.9	55.4	13.5	15.6	39.2	26.0
연령	만 18~24세	626	88.2	63.6	13.2	16.3	20.9	27.2
	만 25~29세	542	85.7	55.9	15.9	19.3	47.5	27.0
	만 30~34세	490	82.6	47.4	15.7	20.1	51.4	26.1
지역	수 도 권	815	85.0	59.2	12.8	21.3	42.4	31.9
	비 수 도 권	843	86.5	53.2	17.1	15.3	34.5	21.3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791	85.2	55.2	14.4	17.5	26.5	27.2
	대 졸 이 상	867	86.2	57.3	15.2	19.2	49.8	26.4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

표 V-397.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의 가족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기타
전	체	75	68.0	50.7	12.0	22.7	14.7	4.0	5.3
성별	남 자	24	66.7	45.8	20.8	25.0	20.8	8.3	4.2
	여 자	51	68.6	52.9	7.8	21.6	11.8	2.0	5.9
연령	만 19~24세	38	76.3	47.4	7.9	21.1	7.9	7.9	5.3
	만 25~29세	21	57.1	66.7	9.5	23.8	28.6	0.0	4.8
	만 30~34세	15	60.0	40.0	26.7	26.7	13.3	0.0	6.7
지역	수 도 권	67	65.7	56.7	13.4	25.4	16.4	4.5	4.5
	비 수 도 권	7	85.7	0.0	0.0	0.0	0.0	0.0	14.3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 학 재 학	41	73.2	48.8	9.8	17.1	4.9	7.3	7.3
	대 졸 이 상	24	66.7	58.3	16.7	33.3	29.2	0.0	0.0
출신 지역	북 한	64	65.6	51.6	14.1	21.9	15.6	4.7	4.7
	중 국	10	80.0	50.0	0.0	30.0	10.0	0.0	10.0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모두 고르라는 요구에 일반청년이나 북한배경청년 모두 자신의 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일반청년 85.7%, 북한배경청년 68.0%). 그러나 북한배경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이나 직업 모임에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일반청년은 38.6%였으나 북한배경청년은 14.7%만이 이를 선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도 일반청년의 26.8%가 소속감을 느낀다고 했으나 북한배경청년의 경우에는 4.0%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5) 아동·청소년기 경험

표 V-398. 아동청소년기 경험 - (1)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2,041	82.4	17.6
성 별	남	자	1,074	80.6	19.4
	여	자	967	84.5	15.5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83.6	16.4
	만 2 5 ~ 2 9 세		668	82.2	17.8
	만 3 0 ~ 3 4 세		600	81.1	18.9
지 역	수 도 권		1,032	81.5	18.5
	비 수 도 권		1,009	83.5	16.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80.9	19.1
	대 졸 이 상		1,044	83.9	16.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399. 아동청소년기 경험 - (1)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8	26.9	73.1
성 별	남	자	35	31.4	68.6
	여	자	73	24.7	75.3
연 령	만 1 9 ~ 2 4 세		58	31.0	69.0
	만 2 5 ~ 2 9 세		26	26.9	73.1
	만 3 0 ~ 3 4 세		23	13.0	87.0
지 역	수 도 권		98	27.6	72.4
	비 수 도 권		9	11.1	88.9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20.0	80.0
	대 졸 이 상		31	32.3	67.7
출 신 지 역	북 한		90	23.3	76.7
	중 국		17	41.2	58.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인이 되기 전에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경향에 확실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청년의 17.6%만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73.1%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성장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못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배경청년들이 아동청소년기에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을 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이 추방을 당해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고, 그때 집이랑 갖고 있었는데 그걸 국가에 다 화수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원래 외할머니집에 있었는데 그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랑 다 돌아가시고 엄마랑 저랑 둘이서 살았거든요. 국가에서 이거는 외할머니한테 국가가 준 집이지 엄마한테 준 집이 아니라고 이걸 내놔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붕이 뚫린 데에 비가 오면 빗방울이 들어오는데 그런 데서 살고 그랬어요. (사례 4)

피면접자: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거 아시죠. 중국에서는 엄마랑 아빠 그리고 동생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같이 농촌에서 살았어요... 근데 농촌에서도 어려움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같이 온 가족 그냥 이사를 갔어요. 그냥 도시로.

연구자: 도시로.
 피면접자: 갓는데도 아빠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집안에서 제일 막내라서 조금 성격이 조금 많이 안 좋으세요.
 연구자: 어떻게 안 좋으셨는데.
 피면접자: 엄마랑 막 싸우고 진짜 피나게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연구자: 엄마를 때리셨어요?
 피면접자: 네. 근데 엄마는 또 성격이 장난 아니셔 가지고 같이 막 싸워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조금 그런 집안에서 살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연구자: 형제가 몇이나 됐었는데.
 피면접자: 동생 한 명 남동생 한 명. 그래서 하는데 근데 아빠는 이게 일할 때도 계속 동료도 같이 싸워가지고 그렇게 계속 일 그만두고 또 옮기고 그렇게 했어가지고.
 연구자: 직장에서도 어려우셨구나.
 피면접자: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돈도 모을 수 없잖아요. 사실 한 직장에서 계속 오래 가야 돈도 모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너무 갑자기 어느 날에 너무 집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연구자: 경제 상황이.
 피면접자: 네. 그래서 그때는 제 삼촌 큰 삼촌이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엄마 보고 차라리 한국 외라 그럼 신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사례 8)

저는 어머니가 좀 사업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시다시피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은 막 크게 잘 성장했다가 또 좀 가라앉고 그런 게 많잖아요. 변동이 심해서 저도 또 그 부분에 한 사람으로 살아갔고 어머니가 되게 잘 될 때는 집안이 부유하게 살았고 또 안 되면 집안 좀 힘들게 살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살 때는 집 팔아서 그 뭐지 빚 갚고 그렇게 해서 할머니 집에 들어가 살고 그때는 진짜 막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사례 11)

표 V-400. 아동청소년기 경험 - (2)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전			2,041	92.2
성 별	남	체	1,074	91.8
	여	자	967	92.7
연 령	만 1 8 ~ 2 4 세	체	773	91.9
	만 2 5 ~ 2 9 세	체	668	91.8
	만 3 0 ~ 3 4 세	체	600	93.2
지 역	수 도 권	체	1,032	92.0
	비 수 도 권	체	1,009	92.5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체	997	92.7
	대 졸 이 상	체	1,044	91.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01. 아동청소년기 경험 - (2)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7	67.3	32.7
성 별	남	자	35	65.7	34.3
	여	자	72	68.1	31.9
연 령	만 1 9 ~ 2 4 세		57	71.9	28.1
	만 2 5 ~ 2 9 세		26	69.2	30.8
	만 3 0 ~ 3 4 세		23	52.2	47.8
지 역	수 도 권		97	70.1	29.9
	비 수 도 권		9	33.3	6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69.5	30.5
	대 졸 이 상		31	54.8	45.2
출 신 지역	북 한		90	66.7	33.3
	중 국		16	68.8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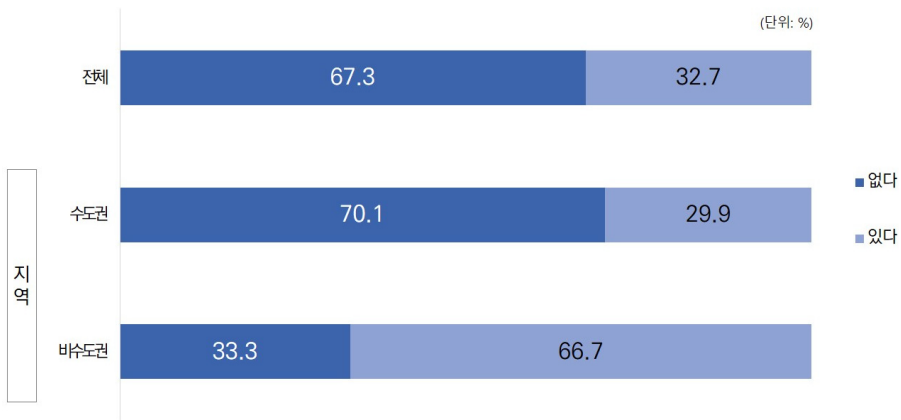


그림 V-74. 아동청소년기 경험 - (2)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성인이 되기 전 시기에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경향에 큰 차이가 보인다. 일반청년의 7.8%만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32.7%가 체벌이나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항목에서는 북한배경청년의 거주지역별 응답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수도권 거주자보다 비수도권 거주자에게서 어린 시절 과도한 체벌이나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다.

북한배경청년들이 아동·청소년기에 겪는 체벌 혹은 정서적 공격 경험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도 흔히 있는 일이다.

피면접자: 네. 원래는 그때는 나이로는 중3 가야 돼요. 근데 한국어 때문에 한국어 너무 못해가지고 그냥 거기 선생님들 그냥 저를 중학교 1학년 보냈어요 동생들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말 그때는 조금 알아듣는데 근데 그렇게 유치하게 못했어요. 문제집 같은 거 엄청 쉬운데 딱 봐도 너무 익숙한 문제인데 근데 못 푸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친구들도 처음에는 챙겨주다가 나중에는 다 각자 놀잖아요. 그때는 너무 외롭고 뭔가 세상에서 누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엄마는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저를 키워야 되잖아요. 뭔가 좀 힘드시고 그래서 어떤 아저씨 한 명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사실 자기의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그냥 뭔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랑 같이 만나는데 그분도 북한 분이예요. 근데 그분은 저에게는 엄청 조금 트라우마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한국어 잘 못해서 딱히 말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는 뭔가 저를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집 안에서조차 최대한 자기의 존재를 낮추려고 했었어요 그냥.

연구자: ... 스스로 나는 없는 것처럼.

피면접자: 네. 그냥 방에만 계속 있고 그리고 밥 먹을 시간 빼고는 거의 그냥 방 밖으로 안 나갔어요. ...

피면접자: 살면서 그 학교 일반 학교도 다니면서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집안에서도 뭔가.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렇게 저의 존재를 낮춰도 그 아저씨가 저보고 저한테 그 3개월 비자를 해가지고 중국 가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여행처럼 그냥 다시 아무래도 동생부터 봐야 되니까 그냥 들어갔는데 진짜 3개월 딱 채워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요. ... 동생도 보고 그렇게 다시 왔는데 아 충격적인 거. 저보고 또 가라는 거예요.

연구자: 또 가라고.

피면접자: 아니 학생인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보내려는 거예요. ... 근데 엄마랑 친한 이모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니 학생인데 학교 공부 안 보내고 왜 계속 중국 보내는 거야. 그 이모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울산으로...

연구자: 그 이모라고 하면 진짜 이모는 아니고.

피면접자: 진짜 이모는 아니고요. 그냥 엄마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엄마도 뭔가 그 제가 내려가는 동안에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그냥 내려갔어요.

연구자: 그 이모 집에 살았어요?

피면접자: 네.

연구자: 울산에서?

피면접자: 네. 한 두세 달, 두 달 세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

피면접자: ...어느 날에 제가 혼자 집에 있는 날이에요. 그 아저씨가 찾아온 거예요. ... 엄마 찾으려고 왔는데 처음에 사실 저도 그때 안 좋은 인식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문 열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 잠그고 그냥 아 엄마는 집에 없다. 저는 혼자 집에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세요. 그래서 계속 그 아저씨가 문 두드리고 너 빨리 문 열어라 빨리 엄마 찾아 계속 그런 큰 소리 치고 그러는 거야. 저 그때 너무 너무 놀라서 진짜 거기 그냥 문 앞에서 한참동안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 그냥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가 못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도 소리도 못 들어서 그냥 갔어요. 그럼 거기 한참 서 있는데 너무 멘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하면서 제발 이거 헤어지면 깔끔하게 조금 이렇게 해결하세요. 저도 그 아저씨 너무 싫고 너무 무서워요. 그런 일 한 두 번 있었어요. (사례 8)

표 V-402. 아동청소년기 경험 - (3)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92.8	7.2
성 별	남	자	1,074	93.3	6.7
	여	자	967	92.3	7.7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93.2	6.8
	만 2 5 ~ 2 9 세		668	91.4	8.6
	만 3 0 ~ 3 4 세		600	93.9	6.1
지 역	수 도 권		1,032	92.3	7.7
	비 수 도 권		1,009	93.4	6.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93.3	6.7
	대 졸 이 상		1,044	92.3	7.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03. 아동청소년기 경험 - (3)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7	62.6	37.4
성 별	남	자	35	68.6	31.4
	여	자	72	59.7	40.3
연 령	만 1 9 ~ 2 4 세		57	70.2	29.8
	만 2 5 ~ 2 9 세		26	57.7	42.3
	만 3 0 ~ 3 4 세		23	47.8	52.2
지 역	수 도 권		97	66.0	34.0
	비 수 도 권		9	22.2	77.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61.0	39.0
	대 졸 이 상		31	64.5	35.5
출 신 지 역	북 한		90	61.1	38.9
	중 국		16	68.8	31.3

‘아동·청소년기에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에 큰 차이가 보인다. 일반청년의 7.2%만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37.4%가 그런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면담 사례에 의하면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다는 점이 가족 전체를 어렵게 하고 그것이 한국으로 오게 된 주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피면접자: ... 아버지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집안에서 제일 막내라서 조금 성격이 조금 많이 안 좋으세요.

연구자: 어떻게 안 좋으셨는데.

피면접자: 엄마랑 막 싸우고 진짜 피나게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연구자: 엄마를 때리셨어요?

피면접자: 네. 근데 엄마는 또 성격이 장난 아니셔서가지고 같이 막 싸워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조금 그런 집안에서 살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연구자: 형제가 몇이나 됐었는데.

피면접자: 동생 한 명 남동생 한 명. 그래서 하는데 근데 아빠는 이게 일할 때도 계속 동료도 같이 싸워가지고 그렇게 계속 일 그만두고 또 옮기고 그렇게 했어가지고.

연구자: 직장에서도 어려우셨구나.

피면접자: 그래서 어쩌다가 그렇게 돈도 모을 수 없잖아요. 사실 한 직장에서 계속 오래 가야 돈도 모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너무 갑자기 어느 날에 너무 집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연구자: 경제 상황이.
 피면접자: 네. 그래서 그때는 제 삼촌 큰 삼촌이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엄마 보고 차라리 한국 와라 그럼 신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사례 8)

표 V-404. 아동청소년기 경험 -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84.7	15.3
성 별	남	자	1,074	84.5	15.5
	여	자	967	84.9	15.1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86.5	13.5
	만 2 5 ~ 2 9 세		668	84.7	15.3
	만 3 0 ~ 3 4 세		600	82.4	17.6
지 역	수 도 권		1,032	84.2	15.8
	비 수 도 권		1,009	85.3	14.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85.2	14.8
	대 졸 이 상		1,044	84.2	15.8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05. 아동청소년기 경험 -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7	47.7	52.3
성 별	남	자	35	48.6	51.4
	여	자	72	47.2	52.8
연 령	만 1 9 ~ 2 4 세		58	55.2	44.8
	만 2 5 ~ 2 9 세		25	52.0	48.0
	만 3 0 ~ 3 4 세		23	21.7	78.3
지 역	수 도 권		97	48.5	51.5
	비 수 도 권		9	33.3	6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45.0	55.0
	대 졸 이 상		30	53.3	46.7
출 신	북	한	89	44.9	55.1
지 역	중	국	17	58.8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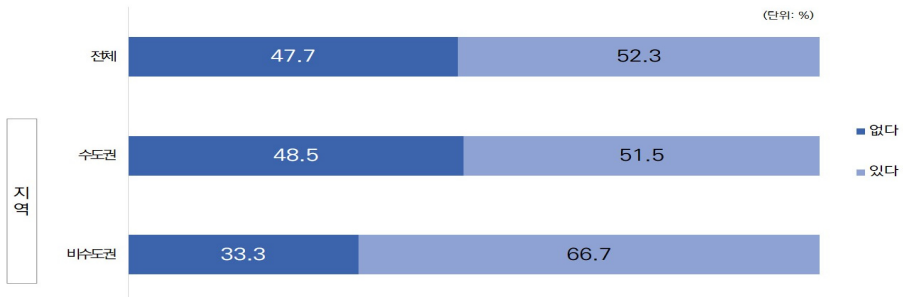


그림 V-75. 아동청소년기 경험 -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기에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에 큰 차이가 보인다. 일반청년의 15.3%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반 이상(52.3%)이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북한배경청년의 거주지역별로 응답 경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보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아동청소년기에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이 보다 많이 나타났다.

피면접자: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연구자: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피면접자: 제가 10살 때.

연구자: 10살 때. 어머니하고만 살아도 큰 어려움은 없이 사셨어요?

피면접자: 어머니하고 산 게 아니고,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할머니랑 삼촌이랑. 삼촌 집에 얹혀살았어요.
(사례 2)

표 V-406. 아동청소년기 경험 -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87.9	12.1
	자		1,074	87.2	12.8
성 별	남	자	967	88.8	11.2
	여	자	773	89.0	11.0
연 령	만 1 8 ~ 2 4 세		668	88.1	11.9
	만 2 5 ~ 2 9 세		600	86.5	13.5
	만 3 0 ~ 3 4 세		1,032	85.8	14.2
지 역	수 도 권		1,009	90.4	9.6
	비 수 도 권		997	87.9	12.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1,044	88.0	12.0
	대 졸 이 상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07. 아동청소년기 경험 -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7	61.7	38.3
성 별	남	자	35	68.6	31.4
	여	자	72	58.3	41.7
연 령	만 1 9 ~ 2 4 세		58	72.4	27.6
	만 2 5 ~ 2 9 세		25	48.0	52.0
	만 3 0 ~ 3 4 세		23	47.8	52.2
지 역	수 도 권		97	63.9	36.1
	비 수 도 권		9	33.3	6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60.0	40.0
	대 졸 이 상		30	60.0	40.0
출 신 지역	북	한	89	59.6	40.4
	중	국	17	70.6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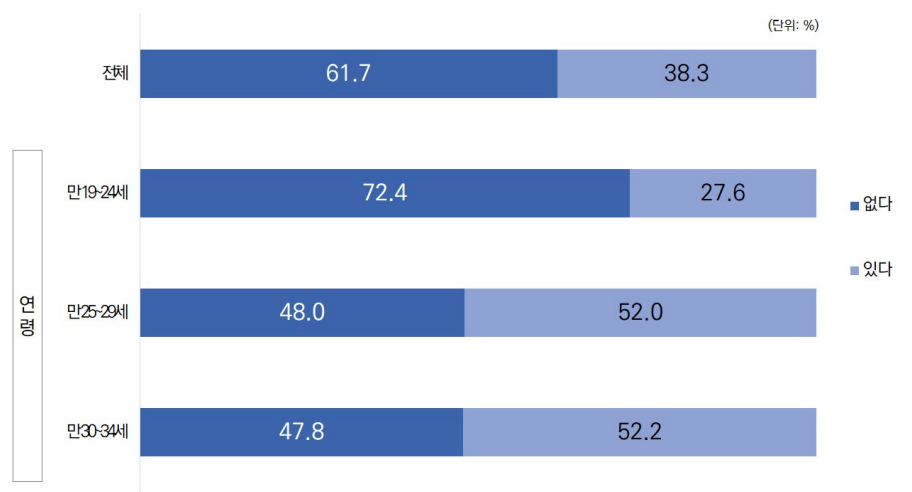


그림 V-76. 아동청소년기 경험 -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관련 다른 문항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기에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경향에 차이가 보인다. 일반청년의 12.1%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38.3%가 어릴 때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북한배경청년의 연령별로 응답 경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만 19~24세 청년들에 비해 만 25~34세 청년들에게서 아동청소년기에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을 한 경우가 보다 많았다.

표 V-408. 아동청소년기 경험 -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93.6	6.4
	성			
	별			
	남	1,074	94.6	5.4
	여	967	92.5	7.5
연령	만 18 ~ 24세	773	93.1	6.9
	만 25 ~ 29세	668	93.8	6.2
	만 30 ~ 34세	600	94.1	5.9
지역	수도권	1,032	93.4	6.6
	비수도권	1,009	93.9	6.1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94.2	5.8
	대졸 이상	1,044	93.1	6.9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09. 아동·청소년기 경험 -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8	75.9	24.1
성 별	남 자	35	77.1	22.9
	여 자	73	75.3	24.7
연 령	만 1 9 ~ 2 4 세	58	77.6	22.4
	만 2 5 ~ 2 9 세	25	84.6	15.4
	만 3 0 ~ 3 4 세	23	60.9	39.1
지 역	수 도 권	98	79.6	20.4
	비 수 도 권	9	33.3	66.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76.7	23.3
	대 졸 이 상	31	74.2	25.8
출 신 지 역	북 한	90	74.4	25.6
	중 국	17	82.4	17.6

이 역시 아동·청소년기 경험 관련 다른 문항에 비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기에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경향에 차이가 보인다. 일반청년의 6.4%만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24.1%가 어릴 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표 V-410. 성인기 경험 -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94.9	5.1
성 별	남	자	1,074	94.6	5.4
	여	자	967	95.4	4.6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96.5	3.5
	만 2 5 ~ 2 9 세		668	93.9	6.1
	만 3 0 ~ 3 4 세		600	94.0	6.0
지 역	수 도 권		1,032	94.1	5.9
	비 수 도 권		1,009	95.8	4.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93.9	6.1
	대 졸 이 상		1,044	96.0	4.0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11. 성인기 경험 -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8	74.1	25.9
성 별	남	자	35	80.0	20.0
	여	자	73	71.2	28.8
연 령	만 1 9 ~ 2 4 세		58	84.5	15.5
	만 2 5 ~ 2 9 세		25	65.4	34.6
	만 3 0 ~ 3 4 세		23	56.5	43.5
지 역	수 도 권		98	74.5	25.5
	비 수 도 권		9	66.7	33.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75.0	25.0
	대 졸 이 상		31	67.7	32.3
출 신 지 역	북	한	90	71.1	28.9
	중	국	17	88.2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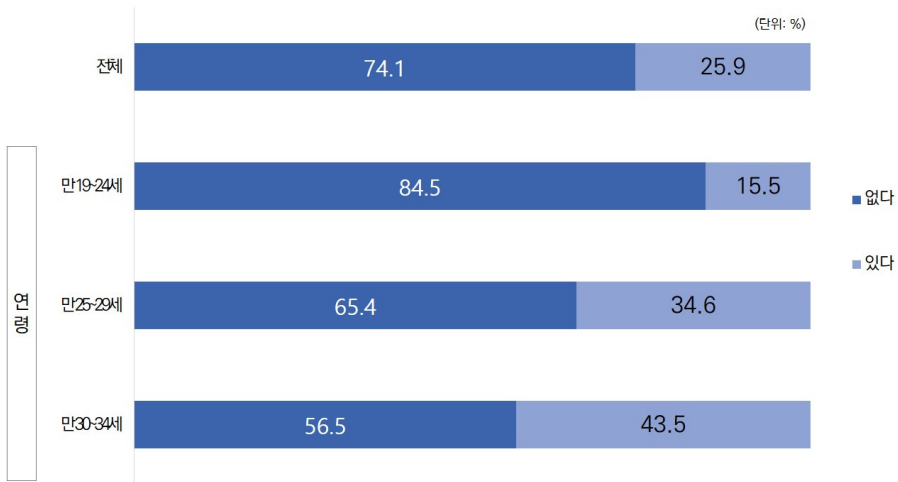


그림 V-77. 성인기 경험 -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성인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경향에 차이가 보인다. 일반청년의 5.1%만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25.9%가 성인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북한배경청년의 연령별로 응답 경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청년들일수록 그러한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만 19~24세 청년들 중 15.5%, 만 25~29세 청년들 중 34.6%, 만 30세~34세 청년들 중 43.5%가 경제적 문제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 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표 V-412. 성인기 경험 - (2)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93.8	6.2
성 별	남 자	1,074	94.6	5.4
	여 자	967	93.0	7.0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94.7	5.3
	만 2 5 ~ 2 9 세	668	93.2	6.8
	만 3 0 ~ 3 4 세	600	93.4	6.6
지 역	수 도 권	1,032	93.7	6.3
	비 수 도 권	1,009	93.9	6.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94.7	5.3
	대 졸 이 상	1,044	93.0	7.0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13. 성인기 경험 - (2)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8	85.2	14.8
성 별	남 자	35	82.9	17.1
	여 자	73	86.3	13.7
연 령	만 1 9 ~ 2 4 세	58	79.3	20.7
	만 2 5 ~ 2 9 세	25	92.3	7.7
	만 3 0 ~ 3 4 세	23	91.3	8.7
지 역	수 도 권	98	84.7	15.3
	비 수 도 권	9	88.9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83.3	16.7
	대 졸 이 상	31	87.1	12.9
출 신 지 역	북 한 국	90	85.6	14.4
	중 국	17	82.4	17.6

‘성인기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경향에 차이가 보인다. 일반청년의 6.2%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 14.8%가 성인기에 취업 압박 혹은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표 V-414. 성인기 경험 - (3)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91.0	9.0
성 별	남	자	1,074	91.4	8.6
	여	자	967	90.5	9.5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93.1	6.9
	만 2 5 ~ 2 9 세		668	89.2	10.8
	만 3 0 ~ 3 4 세		600	90.2	9.8
지 역	수 도 권		1,032	90.3	9.7
	비 수 도 권		1,009	91.7	8.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88.3	11.7
	대 졸 이 상		1,044	93.5	6.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15. 성인기 경험 - (3)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7	73.8	26.2
성 별	남	자	35	74.3	25.7
	여	자	72	73.6	26.4
연 령	만 1 9 ~ 2 4 세		57	78.9	21.1
	만 2 5 ~ 2 9 세		25	65.4	34.6
	만 3 0 ~ 3 4 세		23	69.6	30.4
지 역	수 도 권		97	73.2	26.8
	비 수 도 권		9	77.8	22.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75.0	25.0
	대 졸 이 상		31	74.2	25.8
출 신 지 역	북	한	90	74.4	25.6
	중	국	16	68.8	31.3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경향에 차이가 보인다. 일반청년의 9.0%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 26.2%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V-416. 성인기 경험 - (4) 내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82.5	17.5
성 별	남 자	1,074	82.7	17.3
	여 자	967	82.4	17.6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90.3	9.7
	만 2 5 ~ 2 9 세	668	78.1	21.9
	만 3 0 ~ 3 4 세	600	77.6	22.4
지 역	수 도 권	1,032	81.3	18.7
	비 수 도 권	1,009	84.0	16.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87.8	12.2
	대 졸 이 상	1,044	77.5	22.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17. 성인기 경험 - (4) 내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7	79.4	20.6
성 별	남 자	35	85.7	14.3
	여 자	72	76.4	23.6
연 령	만 1 9 ~ 2 4 세	57	87.7	12.3
	만 2 5 ~ 2 9 세	25	73.1	26.9
	만 3 0 ~ 3 4 세	23	65.2	34.8
지 역	수 도 권	97	78.4	21.6
	비 수 도 권	9	88.9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83.3	16.7
	대 졸 이 상	31	74.2	25.8
출 신 지 역	북 한 국	90	78.9	21.1
	중 국	16	81.3	18.8

성인기 경험 관련 다른 질문과 달리 ‘내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역시 북한배경청년에게서 많이 나타나지만 다른 질문에 비해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경향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일반청년의 17.5%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 20.6%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V-418. 성인기 경험 - (5)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2,041	92.7	7.3
성 별	남	자	1,074	92.6	7.4
	여	자	967	92.7	7.3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95.6	4.4
	만 2 5 ~ 2 9 세		668	90.8	9.2
	만 3 0 ~ 3 4 세		600	91.1	8.9
지 역	수 도 권		1,032	91.6	8.4
	비 수 도 권		1,009	93.9	6.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93.9	6.1
	대 졸 이 상		1,044	91.6	8.4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19. 성인기 경험 - (5)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
전		체	108	65.7	34.3
성 별	남	자	35	68.6	31.4
	여	자	73	64.4	35.6
연 령	만 1 9 ~ 2 4 세		58	75.9	24.1
	만 2 5 ~ 2 9 세		25	65.4	34.6
	만 3 0 ~ 3 4 세		23	39.1	60.9
지 역	수 도 권		98	65.3	34.7
	비 수 도 권		9	66.7	33.3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60	61.7	38.3
	대 졸 이 상		31	74.2	25.8
출 신 지역	북	한	90	63.3	36.7
	중	국	17	76.5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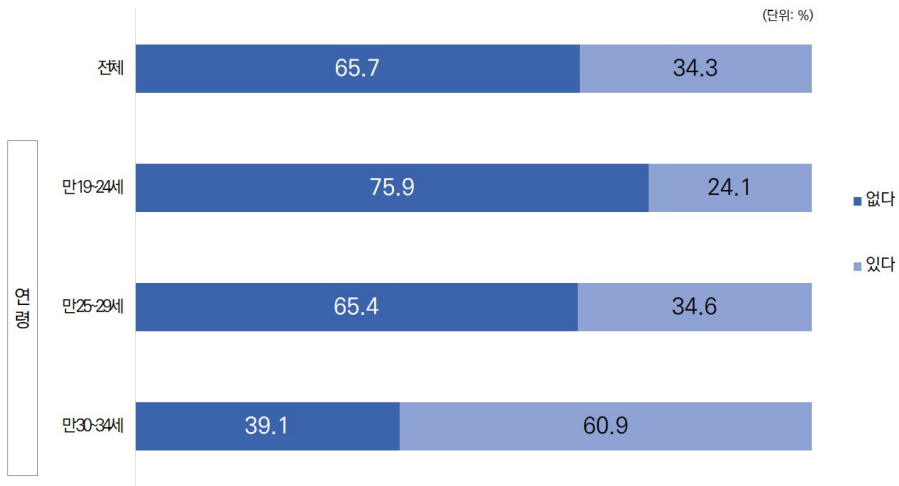


그림 V-78. 성인기 경험 - (5)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성인기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경향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청년의 7.3%만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34.3%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이나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북한배경청년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배신이나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더욱 많이 나타났는데 만 19~24세는 24.1%, 만 25~29세는 34.6%, 만 30~34세는 60.9%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 참여

참여 측면에서는 현재 소속된 집단 여부,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의견 제시 여부, 정치적 효능감,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

표 V-420.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041	65.6	12.9	10.9	8.8	1.9	
성별	남	자	1,074	67.6	12.0	10.9	7.6	1.9
	여	자	967	63.3	13.9	10.8	10.1	2.0
연령	만 1 8 ~ 2 4 세	773	65.4	12.3	10.7	9.2	2.4	
	만 2 5 ~ 2 9 세	668	65.1	13.7	11.2	7.7	2.2	
	만 3 0 ~ 3 4 세	600	66.2	12.7	10.7	9.4	1.0	
지역	수 도 권	1,032	62.0	12.8	11.6	11.4	2.1	
	비 수 도 권	1,009	69.6	12.9	10.1	5.7	1.7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68.1	12.4	9.3	7.8	2.4	
	대 졸 이 상	1,044	63.1	13.3	12.4	9.7	1.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21.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105	68.6	17.1	7.6	3.8	2.9
성별	남	자	34	61.8	23.5	5.9	5.9	2.9
	여	자	71	71.8	14.1	8.5	2.8	2.8
연령	만 1 9 ~ 2 4 세		57	70.2	12.3	5.3	7.0	5.3
	만 2 5 ~ 2 9 세		26	61.5	26.9	11.5	0.0	0.0
	만 3 0 ~ 3 4 세		21	71.4	19.0	9.5	0.0	0.0
지역	수 도 권		95	67.4	16.8	8.4	4.2	3.2
	비 수 도 권		9	77.8	22.2	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67.8	13.6	8.5	5.1	5.1
	대 졸 이 상		29	62.1	27.6	10.3	0.0	0.0
출신 지역	북	한	87	71.3	14.9	9.2	2.3	2.3
	중	국	17	52.9	29.4	0.0	11.8	5.9



그림 V-79.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사회·정치 문제에 대하여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에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에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청년 65.6%, 북한배경청년 68.6%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일반청년 10.9%, 북한배경청년 7.6%가 한 달에 1~2회는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거의 매일 참여한다는 경우는 일반청년 중 1.9%, 북한배경청년의 2.9%였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북한배경청년의 거주지역별, 학력별 응답 경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지역이 수도권일수록 온라인상에서 사회·정치 문제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며, 대졸 학력에 비해 고졸 이하나 대학재학자 층에서 관련 참여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

표 V-422.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041	84.1	11.0	3.5	1.1	0.3	
성별	남	자	1,074	86.8	8.7	3.3	1.1	0.2
	여	자	967	81.1	13.7	3.8	1.1	0.4
연령	만 1 8 ~ 2 4 세	773	82.4	12.0	3.7	1.6	0.3	
	만 2 5 ~ 2 9 세	668	84.4	11.2	3.5	0.8	0.1	
	만 3 0 ~ 3 4 세	600	85.9	9.7	3.2	0.7	0.4	
지역	수 도 권	1,032	81.8	12.1	4.1	1.6	0.4	
	비 수 도 권	1,009	86.7	9.8	2.8	0.5	0.1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84.6	10.9	3.0	1.2	0.3	
	대 졸 이 상	1,044	83.6	11.2	3.9	1.0	0.3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23.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104	81.7	12.5	3.8	1.0
성별	남	자	34	79.4	14.7	2.9	2.9	0.0
	여	자	70	82.9	11.4	4.3	0.0	1.4
연령	만 1 9 ~ 2 4 세		57	80.7	10.5	5.3	1.8	1.8
	만 2 5 ~ 2 9 세		26	76.9	19.2	3.8	0.0	0.0
	만 3 0 ~ 3 4 세		20	90.0	10.0	0.0	0.0	0.0
지역	수 도 권		94	80.9	12.8	4.3	1.1	1.1
	비 수 도 권		9	88.9	11.1	0.0	0.0	0.0
학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81.4	10.2	5.1	1.7	1.7
	대 졸 이 상		29	72.4	24.1	3.4	0.0	0.0
출신	북	한	86	83.7	11.6	3.5	0.0	1.2
지역	중	국	17	70.6	17.6	5.9	5.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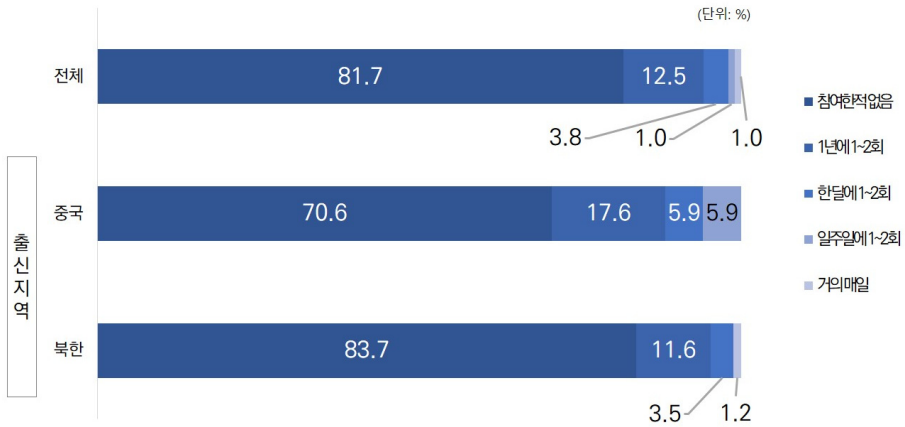


그림 V-80.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사회·정치 문제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에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청년 84.1%, 북한배경청년 81.7%가 이러한 ‘참여를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청년 3.5%, 북한배경청년 3.8%가 ‘한 달에 1~2회’는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청년 중 0.3%, 북한배경청년의 1.0%는 ‘거의 매일’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북한배경청년의 출생지역별 응답 경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북한 출생 북한배경청년에 비해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뱃지, 팔찌, 리본 등을 착용하는 등으로 사회·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보다 많이 나타난다.

표 V-424.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3)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041	72.5	21.5	4.7	1.2	0.0
성 별	남	자	1,074	76.9	18.7	3.1	1.2	0.1
	여	자	967	67.6	24.6	6.5	1.2	0.0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73.7	19.4	5.4	1.4	0.1
	만 2 5 ~ 2 9 세		668	70.6	24.7	4.1	0.6	0.0
	만 3 0 ~ 3 4 세		600	73.3	20.5	4.6	1.6	0.0
지 역	수 도 권		1,032	67.2	25.4	5.4	2.0	0.0
	비 수 도 권		1,009	78.7	16.9	4.0	0.3	0.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76.2	18.5	3.9	1.4	0.1
	대 졸 이 상		1,044	69.1	24.3	5.6	1.0	0.0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25.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103	64.1	30.1	4.9	1.0	0.0
성 별	남	자	34	61.8	26.5	11.8	0.0	0.0
	여	자	69	65.2	31.9	1.4	1.4	0.0
연 령	만 1 9 ~ 2 4 세		56	67.9	23.2	7.1	1.8	0.0
	만 2 5 ~ 2 9 세		26	61.5	38.5	0.0	0.0	0.0
	만 3 0 ~ 3 4 세		20	55.0	40.0	5.0	0.0	0.0
지 역	수 도 권		93	61.3	32.3	5.4	1.1	0.0
	비 수 도 권		9	88.9	11.1	0.0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8	70.7	20.7	6.9	1.7	0.0
	대 졸 이 상		29	44.8	51.7	3.4	0.0	0.0
출 신	북	한	85	65.9	29.4	3.5	1.2	0.0
지 역	중	국	17	52.9	35.3	11.8	0.0	0.0

‘지난 1년 동안 사회·정치 문제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청년보다 북한배경청년들에게서 ‘1년에 1~2회 이상’ 참여한 이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일반청년 72.5%, 북한배경청년의 64.1%가 지난 1년 동안 서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청년 21.5%, 북한배경청년의 30.1%가 1년에 1~2회 사회·정치 문제 관련 서명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V-426.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전	체	2,041	95.3	3.5	0.9	0.2
성 별	남 자	1,074	95.1	3.6	1.1	0.2
	여 자	967	95.5	3.4	0.7	0.3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94.5	4.2	1.3	0.0
	만 2 5 ~ 2 9 세	668	94.8	4.3	0.4	0.5
	만 3 0 ~ 3 4 세	600	96.9	1.8	1.0	0.3
지 역	수 도 권	1,032	93.7	4.6	1.4	0.3
	비 수 도 권	1,009	97.2	2.2	0.4	0.2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95.3	3.8	0.9	0.0
	대 졸 이 상	1,044	95.4	3.2	0.9	0.5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27.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104	94.2	4.8	0.0	1.0	0.0
성 별	남	자	34	97.1	2.9	0.0	0.0	0.0
	여	자	70	92.9	5.7	0.0	1.4	0.0
연 령	만 1 9 ~ 2 4 세		57	94.7	3.5	0.0	1.8	0.0
	만 2 5 ~ 2 9 세		26	92.3	7.7	0.0	0.0	0.0
	만 3 0 ~ 3 4 세		20	95.0	5.0	0.0	0.0	0.0
지 역	수 도 권		94	93.6	5.3	0.0	1.1	0.0
	비 수 도 권		9	100.0	0.0	0.0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96.6	1.7	0.0	1.7	0.0
	대 졸 이 상		29	86.2	13.8	0.0	0.0	0.0
출 신	북 한		86	95.3	3.5	0.0	1.2	0.0
지 역	중 국		17	88.2	11.8	0.0	0.0	0.0

‘지난 1년 간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청년과 북한배경 청년들의 응답 경향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청년 95.3%, 북한배경청년 94.2%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V-428. 사회·정치 관련 참여 경험_5) 항의 전화하기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 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2,041	91.5	7.2	1.0	0.3	0.1
성 별	남	자	1,074	91.5	7.0	1.0	0.4	0.1
	여	자	967	91.6	7.4	1.0	0.1	0.0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92.3	6.0	1.3	0.4	0.0
	만 2 5 ~ 2 9 세		668	90.5	8.4	0.7	0.2	0.2
	만 3 0 ~ 3 4 세		600	91.6	7.3	1.0	0.1	0.0
지 역	수 도 권		1,032	87.9	10.3	1.2	0.4	0.1
	비 수 도 권		1,009	95.7	3.5	0.8	0.1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92.4	6.7	0.6	0.3	0.0
	대 졸 이 상		1,044	90.7	7.6	1.4	0.2	0.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29.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5) 항의 전화하기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 에 1~2회	거의 매일
전		체	104	93.3	5.8	1.0	0.0	0.0
성 별	남	자	34	91.2	8.8	0.0	0.0	0.0
	여	자	70	94.3	4.3	1.4	0.0	0.0
연 령	만 1 9 ~ 2 4 세		57	96.5	3.5	0.0	0.0	0.0
	만 2 5 ~ 2 9 세		26	88.5	7.7	3.8	0.0	0.0
	만 3 0 ~ 3 4 세		20	90.0	10.0	0.0	0.0	0.0
지 역	수 도 권		94	93.6	5.3	1.1	0.0	0.0
	비 수 도 권		9	88.9	11.1	0.0	0.0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93.2	6.8	0.0	0.0	0.0
	대 졸 이 상		29	89.7	6.9	3.4	0.0	0.0
출 신 지 역	북	한	86	91.9	7.0	1.2	0.0	0.0
	중	국	17	10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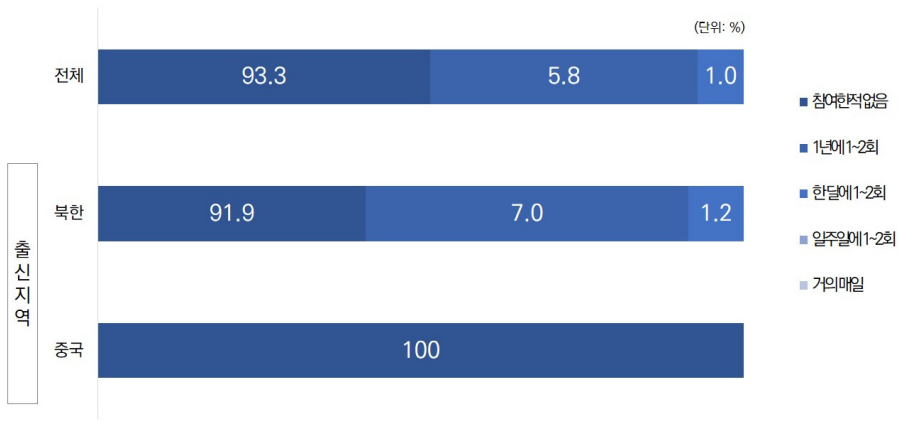


그림 V-81. 사회, 정치 관련 참여 경험_5) 항의 전화하기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간 항의 전화하기로 사회·정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 경향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청년 91.5%, 북한배경청년 93.3%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는 북한배경청년의 출생지역별로 응답 경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북한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이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보다 항의 전화로 사회, 정치 문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치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와 관련해서는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들 사이에 뚜렷한 경향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북한배경청년들의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참여 수준은 일반청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에 참여하기’에는 북한배경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사회·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페미니즘 혹은 동성애 인권 활동, 투표 출구조사 등에 참여하는가 하면, 사회·정치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인터넷 내용에 댓글을 달기도 한다. 사회·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많아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하는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해석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서명이나 블로그 활동 등은 꺼리기도 한다. 정치적인 이슈에 관여하기보다는 농촌봉사활동, 연탄봉사활동, 노인봉사, 의료자원봉사, 노숙자 지원 봉사, 명동밥집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자원해서 하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려는 북한배경청년들도 많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꾸리기에 도 바빠 사회·정치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는 이들도 있다.

페미니즘이나 뭐 동성에 인권 이런 거를 친구들이랑 몇 번 해봤고.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뭐 찾아서 해본 적은 없고, 학교 교내에서 하는 농활이 있거든요. 대학생 농촌 자원활동. 그거 기회 될 때마다 가고 그리고 겨울마다 한두 번씩 그... 제가 하는 축구팀이 저 빼고 다 교인들이거든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연탄봉사 할 때 한두 번 해본 경험 있고. 그 정도인 거 같아요. 그 사회에 대한 관심은. 그 정도인 거 같아요. (사례 2)

피면접자: 투표는 뭐 제가 웬만하면 다 하는 거 같아요.

연구자: 그래요? 투표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피면접자: 일단 경험... 일단 궁금하긴 하잖아요. 투표를 어떻게. 예전에 한 번 못했는데 왜 그랬냐면 선거 출구조사 알바를 했었어요. 제가.

연구자: 왜 하셨어요?

피면접자: 그게 사람들이랑 분위기를 알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왜 투표를 하는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연구자: 진짜로요?

피면접자: 네, 그 알바비도 쓸쓸하고 해가지고. 그게 출구조사를 하면 투표하고 나오는 5명에 한 명씩 카운터해가지고 검 하나씩 주면서 “어디다 투표했는지 써주십시오” 하는.

연구자: 출구조사 해야 되니까.

피면접자: 네, 실시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던 거 같고. 북한에서 투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정말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하고. 네, 그런 거 하는 게... 그리고 또 뭐 투표를 제가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참여하는 게 사회구성원으로서. 투표는 웬만하면 다 하고요. (사례 12)

병원에서 의료자원봉사활동을 6개월 동안 했었고 베이비박스 거기서도 1년인가 그렇게 했었고, 일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 했었고 그리고 서울역 노숙인들 그것도 6개월 정도, 그냥 저는 다 그렇게 자원봉사...

고등학교 다닐 때, 00학교 다닐 때 사회복지사 하려면 자원봉사는 필수로 한 게 있어야 한다. 이런 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자원봉사 모집 있으니까 관심도 있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봉사했던 것 같아요.

사람 만나고 싶기도 했었고, 자원 봉사하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으니까. 또 한국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 또 경험을 했었고, 쪽방촌이라는 곳도 저는 들어도 못 봤었는데 그런 자원봉사가 있길래 거기 또 가봤었거든요. 그때도 한국에 너무 쪽방촌이 또 신기하게 완전 높은 빌딩이 있는데 완전 상반되게 그 바로 밑에 쪽방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의 문화인가? 약간 그런 것들 보고 이런 게 좋았는데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사례 15)

피면접자: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나환우 분들이 계시는 그런 곳에 가서 방학 동안에 몇 박 며칠 나가서 봉사를 했고. 최근에는 명동 밥집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봉사를 했어요.

연구자: 최근에요.

피면접자: 네.

연구자: 매년.

피면접자: 매년은 아니고 이제 그 나환우 분들한테 봉사를 했던 거는 고등학교 당시에 했었고 최근에는 고등학교를 고3 때는 아무래도 수험 기간이어서 못 갔고 이제 그 다음에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여서

못 갔고 지금도 이제 못 가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명동 최근에 올해 들어서 명동 밥집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일이 없으면 참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연구자: 가서 어떤 일을 하세요?

피면접자: 가서 이제 배식을 한다던가 뭐 설거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가 있지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식판을 닦는다든가 식탁을 닦는다든가.

피면접자: 뭐 어쨌든 종교 관련된 단체에서 하는 거긴 한데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같은 동아리 하는 데 있는데 거기 동아리가 봉사 동아리가 있어서 가입하게 됐어요.

연구자: 봉사 동아리를 가입했다고 그랬잖아요.

피면접자: 네.

연구자: 그 왜 가입하셨어요?

피면접자: 저도 좀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 드리고자라는 마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 누군가를 왜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면접자: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고 이제 세금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나도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봉사라는 거를 선택했어요. (사례 16)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어르신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 하면서 그 동력은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르신들랑 하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되게 재밌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뉴스 많이 챙겨보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는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살짝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정치적인 거를. ...약간 이거를 내가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약간 이런 것들 물론 저의 그거는 일도 어디가에 영향을 못 미치겠죠. 무슨 정말 뭐 계란으로 바위 깨기도 안 되는 상황이나까 근데도 그런 것들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언론매체에서 뭘 조금만 하면 뭐 예를 들면 그냥 김모씨가 무슨 어떤 걸 했어요. 뭐 이게 아니라 꼭 나올 때 뭐 북한이탈주민 김모씨가 이런 걸 했어요. 북한이탈주민 김모씨가 북한이탈주민 땡땡. (사례 20)

옛날에는 그 선거에도 관심이 꽤 많았는데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어차피 저거는 공약이 선거에 한정된 거니까 굳이 저게 좋다고 내가 투표를 했잖아... 예전에는 저거는 저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 그 공약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런데...그때 19년인가 20년도에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는 되게 공약도 많이 보고.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 찾아봤는데, 저분이 되면 이런 게 이뤄지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순둥순둥한 생각이었죠. 되고 나니까 무슨... 되기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사례 1)

피면접자: 별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투표하든 말든 한 사람이 뭐 못 한다고 해가지고 굳이 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는 거 같아요.

.....

피면접자: 그냥 우연히 보다가 그냥 대통령 그런 거 올라오면 댓글도 톡 보게 되면 댓글도 안 좋더라고 요. 다 좋은 글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야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너무 심한 말 하는 거 아닌가. 댓글 나도 막 올리거든요.

연구자: 선생님도 막 올리세요?

피면접자: 네. 심한 거 아닌가. 아무래도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왜 이렇게 댓글들이 좀 너무 뽕뽕어갔다고 했더니 또 나한테 댓글 달더라. 무슨 너 개 쫓개냐 막 이러는지 뭐 별게 다 있더라고. 니 개 쫓개냐. 아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 바로 삭제해버렸지. 나한테 괜히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한테 좀 이쁜 말 하자 이렇게 올리면 완전 나한테 댓글 와다다다다 그래 가지고 겁이 나더라고. 야 이게 뭐지 그래서 다 삭제해 버리고.

연구자: 한두 번 이렇게 하고 이제는 안 다세요 댓글?

피면접자: 저도 가끔씩 다른 동영상들(에) 달아요. (사례 10)

피면접자: 그냥 알아서 될 놈은 돼라.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제가 알 바 아니다.

연구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피면접자: 네.

연구자: 내가 누굴 뽕든 그게 아무 영향력이 없다 생각하고.

피면접자: 네, 나만 돈 잘 벌고 잘 살면 된다. 그것도 돈이 많고 좀 여유가 생겨야 정치적인 관심이 생기지. 언제 자기 살기도 힘든데 정치까지 신경...

...

피면접자: 네, 뭐 딱하... 누가 되든 상관없다. 진짜 잘될 거 같은 사람이 있으면 뽕았죠.

연구자: 맘에 드는 사람이 딱 있으면 뽕았을 건데.

피면접자: 네, 이번에 진짜 뽕을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이 당선된 거잖아요. 종가보다 나오니까.

연구자: 만약에 누군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투표하겠네.

피면접자: 네, 그죠. (사례 13)

대통령 투표 했어요.... 사전에 그냥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그런 것까지 다 알죠. 그 다음 친구랑도 나누고... 또 부모님이랑 얘기 나누고 그리고 티비 저는 사실 이게 이상한 게 있잖아요. 제가 정치에 관심이 그렇게 없는데 근데 집에 가면 티비에 보면 전 뉴스만 봐요. 다른 예능 같은 건 그렇게 관심 없는데 그냥 뉴스는 봐요 아 요즘 무슨 일 있나....티비 좀 보면서 (한국사회에) 아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친구도 보면서 그때 그 친구는 신문 자주 봐요 그래서 나누면서 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거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저는 크게는 관심이 없어요. 뭔가 저는 사회까지 그렇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사례 8)

(2) 정치적 효능감

표 V-430.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41	5.3	17.3	35.2	38.1	4.0
성 별	남 자	1,074	4.6	15.9	35.5	39.4	4.7
	여 자	967	6.1	18.9	34.9	36.8	3.2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6.4	23.3	35.3	32.1	2.9
	만 2 5 ~ 2 9 세	668	4.8	14.3	37.0	39.9	4.0
	만 3 0 ~ 3 4 세	600	4.6	13.1	33.0	43.9	5.4
지 역	수 도 권	1,032	4.0	15.9	34.4	41.6	4.2
	비 수 도 권	1,009	6.9	18.9	36.2	34.2	3.8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6.5	21.7	35.9	32.5	3.3
	대 졸 이 상	1,044	4.2	13.1	34.5	43.5	4.7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31. 정치적 효능감_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7	11.2	15.0	41.1	24.3	8.4
성 별	남	자 35	11.4	5.7	42.9	22.9	17.1
	여	자 72	11.1	19.4	40.3	25.0	4.2
연 령	만 1 9 ~ 2 4 세	57	12.3	19.3	42.1	19.3	7.0
	만 2 5 ~ 2 9 세	26	7.7	7.7	42.3	38.5	3.8
	만 3 0 ~ 3 4 세	23	13.0	8.7	39.1	21.7	17.4
지 역	수 도 권	97	11.3	13.4	42.3	23.7	9.3
	비 수 도 권	9	11.1	22.2	33.3	33.3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13.6	18.6	35.6	22.0	10.2
	대 졸 이 상	31	3.2	9.7	48.4	29.0	9.7
출 신 지 역	북 한	89	11.2	9.0	43.8	25.8	10.1
	중 국	17	11.8	41.2	29.4	17.6	0.0

‘자신이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년은 보다 더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일반청년의 42.1%가 ‘그렇다’(38.1%), ‘매우 그렇다’(4.0%)라고 응답하였고,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32.7%가 ‘그렇다’(24.3%), ‘매우 그렇다’(8.4%)라고 답하였다.

표 V-432.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41	4.5	10.6	38.6	40.3	6.0
성 별	남 자	1,074	3.9	10.5	36.6	43.0	5.9
	여 자	967	5.2	10.7	40.8	37.2	6.1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6.5	11.9	42.1	33.6	5.9
	만 2 5 ~ 2 9 세	668	3.8	10.8	33.1	46.4	5.9
	만 3 0 ~ 3 4 세	600	2.8	8.8	40.0	42.0	6.3
지 역	수 도 권	1,032	4.2	10.5	36.9	41.2	7.3
	비 수 도 권	1,009	4.9	10.8	40.5	39.2	4.6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6.3	11.7	42.1	34.2	5.6
	대 졸 이 상	1,044	2.8	9.6	35.2	46.1	6.4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33. 정치적 효능감_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7	2.8	3.7	38.3	47.7	7.5
성 별	남 자	35	2.9	2.9	37.1	42.9	14.3
	여 자	72	2.8	4.2	38.9	50.0	4.2
연 령	만 1 9 ~ 2 4 세	57	3.5	7.0	36.8	43.9	8.8
	만 2 5 ~ 2 9 세	26	0.0	0.0	34.6	57.7	7.7
	만 3 0 ~ 3 4 세	23	4.3	0.0	43.5	47.8	4.3
지 역	수 도 권	97	2.1	4.1	37.1	48.5	8.2
	비 수 도 권	9	11.1	0.0	44.4	44.4	0.0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3.4	5.1	44.1	40.7	6.8
	대 졸 이 상	31	0.0	0.0	32.3	58.1	9.7
출 신 지 역	북 한	89	3.4	2.2	37.1	49.4	7.9
	중 국	17	0.0	11.8	41.2	41.2	5.9

‘자신이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응답 경향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청년의 46.3%가 ‘그렇다’(40.3%), ‘매우 그렇다’(6.0%)고 응답하였고,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55.2%가 ‘그렇다’(47.7%), ‘매우 그렇다’(7.5%)로 응답해 북한배경청년이 일반청년에 비해 타인에 대한 수용성이 높음을 나타냈다.

표 V-434.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_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2,041	8.6	22.1	39.2	26.1	4.0
성 별	남	자 1,074	8.0	21.4	38.5	27.7	4.4
	여	자 967	9.3	22.9	39.9	24.4	3.6
연 령	만 1 8 ~ 2 4 세	773	11.0	24.3	38.6	23.6	2.5
	만 2 5 ~ 2 9 세	668	8.4	19.5	40.1	27.1	4.9
	만 3 0 ~ 3 4 세	600	5.8	22.2	38.8	28.3	4.9
지 역	수 도 권	1,032	7.7	22.1	38.2	27.7	4.2
	비 수 도 권	1,009	9.6	22.1	40.3	24.3	3.7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997	10.3	25.0	38.1	22.7	3.9
	대 졸 이 상	1,044	7.0	19.3	40.2	29.4	4.1

* 출처: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V-435. 정치적 효능감_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_2022 북한배경청년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	체	107	15.9	15.0	39.3	25.2	4.7
성 별	남 자	35	14.3	11.4	40.0	25.7	8.6
	여 자	72	16.7	16.7	38.9	25.0	2.8
연 령	만 1 9 ~ 2 4 세	57	19.3	14.0	40.4	22.8	3.5
	만 2 5 ~ 2 9 세	26	11.5	7.7	50.0	26.9	3.8
	만 3 0 ~ 3 4 세	23	13.0	21.7	26.1	30.4	8.7
지 역	수 도 권	97	15.5	14.4	41.2	24.7	4.1
	비 수 도 권	9	22.2	11.1	22.2	33.3	11.1
학 력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재학	59	20.3	18.6	39.0	18.6	3.4
	대 졸 이 상	31	6.5	16.1	38.7	29.0	9.7
출 신 지 역	북 한	89	15.7	12.4	40.4	27.0	4.5
	중 국	17	17.6	23.5	35.3	17.6	5.9

‘자신이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들의 응답에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청년의 30.1%가 ‘그렇다’(26.1%), ‘매우 그렇다’(4.0%)고 응답하였으며, 북한배경청년들도 29.9%가 ‘그렇다’(25.2%), ‘매우 그렇다’(4.7%)고 대답했다.

지금까지 북한배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와 가족, 교육 및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가치관, 관계 및 참여 영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영역별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와 가족 영역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은 북한배경청년과 일반청년 모두의 자발적인 선택이다. 그렇지만 북한배경청년들은 한국사회의 일반청년보다 결혼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의식,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 및 임대아파트 거주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 경제적 부담 등이 결혼에 소극적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북한배경청년과 일반청년 모두 결혼 준비 경험 이 대부분 없었지만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이 결혼에 소극적인 이유가 되고 있었다. 북한배경청년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와 출산 휴가 장려 및 출산 휴가 급여 보장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특히 북한배경청년들의 해외 이주 고려 비율이 높다는 점은 북한배경청년들이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북한배경청년들이 결혼을 고려할 수 있는 연령대인 만큼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결혼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의료지원이 확대되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 및 훈련 영역에서는 북한배경청년 대부분은 대학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다만 대학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은 부모를 통해서나 민간장학금, 학자금 대출, 아르바이트 등 학비 마련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대학교육에 대해 일반청년 보다 북한배경청년들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았지만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은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제3국출생 청년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언어와 전공 선택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 비율이 일반청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배경청년들은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실제 취업에는 도움이 적었다고 평가 하였다. 취업을 위해 학교나 공공기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배경청년들은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으

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배경청년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와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경제와 고용 영역 조사결과, 북한배경청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빠른 경제적인 안정과 자립을 희망하지만, 급여보다 직무 적성이나 안정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배경청년들은 국민취업제도에 참여 비율이 높지 않았지만 참여한 경우에도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대부분의 취업 상담은 정보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배경청년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북한배경청년들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처해 있는 점, 그리고 대학진학을 하지 않은 북한배경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주거 영역에서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에 대한 기대는 일반청년 및 북한배경청년들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주거와 관련된 물질적 박탈감을 경험한 응답 비율은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이 높았다. 경제적 자립이 충분하지 못한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일자리, 학교 등 여러 이유로 임대아파트를 떠나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거나 주거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건강 영역 조사결과 북한배경청년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점이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북한배경청년 절반 이상(55.6%)은 자신에 건강 수준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제3국출생청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병원 서비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자신들이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청년에 비해 높았다. 또한 지난 일주일간 조사대상의 3명 중 1명 이상이 우울하거나(43.5%) 외롭다고 느끼고 있었고(45.3%), 3명 중 2명 이상이 힘들었던 감정(67.6%)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주거, 진로, 가족 등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불안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북한배경청년들의 심리·정서적 건강 상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가치관 영역에서 북한배경청년과 일반청년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 재산과 경제력을 지목한 경우가 많았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를 선택하는 질문에 일반청년 중에는 ‘경제적 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로 꼽는 이들(49.0%)이 가장 많았던 반면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에는 ‘존중’(46.2%)에 가장 많은

이가 응답하였다.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우 사회로부터의 포용과 존중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일곱째, 관계 및 참여 영역에서는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해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청년에 비해 ‘있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큰 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사람의 보유에 대해서도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약 절반만(52.8%)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혼자라고 느끼는 감정 인식이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배경청년들의 입국 유형이나 일반청년과의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관계망 측면에서 북한배경청년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교류나 소통의 빈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일부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나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 제6장 북한배경청년 정착자립 및 역량강화 방향

- 1.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방향
- 2.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법제 개선 방안
- 3. 북한배경청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 4. 북한배경청년 실태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1.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방향

북한배경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한반도의 분단과 이로 인해 70년 넘게 지속된 분단의 고착화 과정에서 북한주민이 생존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국 사회로 이주하면서 발생한다. 한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지위를 받는 북한 주민이 여타 이주민들과 구별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역사적 발생 원인과 관계 된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초창기 북한이탈주민의 이주 동기는 정치·이념적 동기로 인한 망명과 탈출, 그리고 생활고와 굶주림으로 인한 생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탈북이었지만 이제는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찾기 위한 비정치적 목적의 자발적 이주로 변모해 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7월 증가하는 탈북민의 보호와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이 마련되어 법제도적인 정착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 1997년 하나원, 2009년 지역적응센터, 2010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년 제2하나원, 2020년 남북통합문화센터가 건립되어 정착지원 시설 및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졌다(관계부처 합동, 2021). 2000년대 중반 연간 3,000여 명의 대량 입국 추세가 지속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 내용도 세분화, 구체화되었고 의료, 취업, 교육 등 서비스 분야도 점차 확대되었다.

28) 6장은 통일연구원 이우태 인도협력연구실장, 조정아 선임연구위원, 이규창 선임연구위원, 이지순 연구위원, 최규빈 부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 석좌연구위원, 남북하나재단 장인숙 선임연구위원, 충남대학교 박환보 교수가 집필하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노력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 정착과 적응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2020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은 일반국민 수준에 미달하고 있고 사회참여와 관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은 부적응, 생활고, 심리적 측면에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비록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는 촘촘해 지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처한 상황과 개인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사회통합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지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나와 동등한 시민이자 이웃으로 나아가 친구, 동료, 배우자로 인식하고 포용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2010년대 초부터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감소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차단 및 봉쇄조치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한국 사회에 가져온 여파를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이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이 다른 사회적 집단과 마찬가지로 위축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환경의 변화는 북한이탈주민 집단에 대한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착지원 법제도로 규정하지 못하는 영역이나 정착지원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진단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을 결정하는 법제 현황과 각종 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검토하여 필요한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정책 지원 방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주지하듯이 이 연구의 주된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 그룹이다. 청년기본법의 연령에 맞추어 19세 이상 3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021년 남북하나재단 정착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만 15세 이상인 29,880명 중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10,986명)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3분의 1 이상이다. 2022년 3월 말 기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누적 인원수 33,826명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57.1%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층 비중이 높다(남북하나재단, 2022). 모든 연령이 중요하지만 청년 시기는 고등교육을 거쳐 구직, 취·창업, 결혼,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생애 전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이다. 한국사회에서 청년 시기에 통과하고 감내해야 할 일련의 과정은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한 것이지만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 청년이 단독으로 입국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해야 하는 만큼 가정환경과

경제적 수준 등 출발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 청년 중 일부는 정체성 갈등, 교육공백, 사회적응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청년 세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탈주민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실태 파악을 토대로 이들의 자립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찰이 필요하다.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이 연구가 ‘북한배경청년’이라는 개념을 차용하는 것이다. 앞서 자세히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제3국에서 출생하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청(소)년이 증가하는 점이다. 이러한 제3국 출생자들은 현재의 정착지원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부모로부터 태어난 남한출생청년들도 있으나 이들은 일반청년들과 상당 부분 동일한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의 정책 제안은 북한배경청년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법적 지위를 가진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북한출생청년과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지만 중국 등 제3국출생청년에게 집중한다.

제3국출생청년을 포함한 북한배경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선은 우리 사회의 여타 정책소외계층청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누락된 집단을 발굴하여 필요하고 적법한 지원제도를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러한 접근이 지원제도 ‘확대’만을 염두 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지원’의 증가가 ‘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기 때문이다(김화순, 2022). 일반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두고 볼 때 북한출생청년들을 위한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는 적어도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못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기존의 정착지원제도가 청년 계층에게 충분히 접근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중복이나 경쟁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지원체계는 제3국출생청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정착자립 및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과 북한배경청년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먼저 논의하고, 다음으로 북한배경청년 실태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안한다.

2.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법제 개선 방안

1)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현황 통계 세분화

청년기본법의 대상인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그런데 같은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연령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의 연령대를 19~24세, 25~29세, 30~34세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19~24세의 청년에게는 교육, 25~29세의 청년에게는 취업, 30~34세의 청년에게는 결혼·독립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표 III-3 참조)

표 VI-1. 북한이탈주민 연령

(2021년 6월 말 기준)

구분	남(명)	여(명)	합계(명)	비율(%)
0~9세	608	601	1,209	2.6
10~19세	1,630	1,961	3,591	10.6
20~29세	2,654	6,780	9,434	27.9
30~39세	2,218	7,605	9,733	28.8
40~49세	1,460	4,788	6,248	18.5
50~59세	600	1,547	2,147	6.4
60세 이상	264	1,304	1,398	4.1
계	9,444	24,316	33,760	100

* 출처: 통일부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 주: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일부 인원 제외

이에 비해 북한이탈주민 통계는 표 V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단위로 되어 있다. 위 통계에 따르면 10~19세 가운데 북한출생청년이 몇 명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다. 30~39세의 경우에도 북한출생청년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과 그렇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섞여 있다. 남북하나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정착실태조사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청년 정책 기본계획은 25~29세의 청년의 경우 취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남북하나재단의 발간물은 10년 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25~29세 북한출생청년의 고용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표 VI-2).

표 VI-2. 북한이탈주민 성별고용률 (2021년)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2021년	70.7	52.3
2022년	70.6	49.3
15~19세	10.8	6.5
20대	59.3	44.7
30대	88.6	49.2
40대	87.9	60.4
50대	78.7	65.6
60대 이상	33.9	24.0

* 출처: 남북하나재단 (2022).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그나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통계라도 있지만 제3국출생청년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전체 입국자가 몇 명인지, 또한 19~24세, 25~29세, 30~34세에 해당하는 제3국출생청년은 몇 명인지 정확한 통계가 잡혀 있지 않다. 연도별 입학 추이만 파악이 되고 있을 뿐이다(그림 III-1).

북한배경청년에 대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서는 청년정책 기본 계획처럼 북한배경청년의 연령대를 출신지 별로 세분화해서 연령대별 교육, 취업, 결혼·독립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제3국출생청년 정착지원 개선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회 차원의 입법활동과 학술적 차원에서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제3국과의 외교문제,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쟁점에 대해 살펴본 후 법제 개선 방식을 모색한다.

(1) 이중국적 문제 및 제3국과의 외교 문제

북한이탈주민법은 “~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이중국적 내지 복수국적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국적 관련 사항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중국적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할 경우 제3국, 특히 중국과의 외교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0).

한국의 국적법은 국적 문제에 있어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다가 1997년 12월 13일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이중국적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1997년 12월 13일 개정 국적법(법률 제5431호) 제12조 제1항), 이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규정(1997년 12월 13일 개정 국적법(법률 제5431호) 제12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이중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선택절차도 마련하였다(1997년 12월 13일 개정 국적법(법률 제5431호) 제13조). 이 같은 이중국적 제도는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중국적자인 제3국출생청년이라고 하더라도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국 국적을 갖게 된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제3국출생청년에게 정착지원을 하는 것은 외교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제3국출생청년에게 정착지원을 하는 것이 외교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제3국출생청년은 북한출생청년과 처한 상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청소년복지법은 북한이탈청소년과 제3국출생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이란 같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제18조). 그런데 제3국출생청년은 제3국에서 출생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출생청년이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청년 등 다른 정책소외청년계층에 비해서도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제3국출생청년들은 북한출생청년에 비해 언어문제, 정체성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출생청년보다 법적 인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다만, 제3국출생청년을 북한이탈주민

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같은 북한배경청년으로 범주화되고는 있지만 제3국출생청년은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하였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0). 표 V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일반학교 재학시 통일전담교육사를 통한 학업 및 생활지도, 대안교육시설 및 방과 후 공부방시설 무료 이용, 방문학습지, 화상영어교육 무료 지원 등의 교육 지원을 받고 있다. 만일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비해 과도한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표 VI-3. 출생지별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내역 비교

구분	북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내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정착금 및 주거 지원금	· 자녀 동반 가족 대상 정착 기본금 및 주거 지원금 지급 · 부모 없이 단독 입국시에도 정착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만 20세 이후 신청에 의해 임대주택 알선 및 주거지원금 등 지원	없음	
가산금 (1개 사유만 인정)	한부모아동양육 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세대당 360만 원 지급	제3국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 만 16세 미만 아동 1인당 400만 원 지급 (2인까지 지급)	없음
특례 입학	· 정원외 선발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 제1항 제5호)		없음
대학학비 지원	· 국공립대 면제 · 사립대 학비 50% 지원	· 대학 첫 학기 입학금·등록금 지원 - 남북하나재단 등과 연계하여 민간 기부금 활용	없음

구분	북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내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 하나원 입소 후 예비학교에서 학습 및 생활 지도, 탈북 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입학시 학비 무료 · 일반학교 재학시 통일전담교육사를 통한 학업 및 생활지도, 방과 후 공부방 시설 무료 이용 · 방문학습지, 화상영어교육 무료, 대안교육시설에 중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 강사 배치 및 맞춤형 한국어 교재 보급 등		· 일반학교 재학시 통일전담교육사를 통한 학업 및 생활지도, 대안교육 시설 및 방과 후 공부방시설 무료 이용 · 방문학습지, 화상영어교육 무료 지원
병역	· 본인 선택에 따라 병역 의무 면제(병역법 64조 제1항 제2호)	·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병역 의무 대상(국적법 제12조 제2항)	· 일반 국민과 동일한 병역 의무 대상(병역법 제8조)

* 출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전문위원 최용훈) (2020). 태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37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서울: 국회외교통일위원회, p. 5 일부 수정.

그러나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한국에서 출생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부모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과 다르게 교육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청년 등 다른 국민들도 그들의 특수한 지위에 따라 차등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출생청년과 처한 상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청소년복지법은 북한이탈청소년과 제3국출생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이란 같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제18조). 그런데 제3국출생청년은 제3국에서 출생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출생청년이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청년 등 다른 정책소외청년계층에 비해서도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제3국출생청년들은 북한출생청년에 비해 언어문제, 정체성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겪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출생청년보다 법적인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3)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지금까지 살펴본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국적을 선택한 제3국출생청년들에 대한 정착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방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제3국출생청년의 법적인

지위 자체를 북한출생청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인 지위는 변경하지 않고 정착지원의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제3국출생 청년은 북한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자의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3국출생청년의 정착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데 두 가지의 입법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하나는 현행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을 가칭 「북한이탈주민 및 제3국출생 자녀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가칭 「제3국출생 자녀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법과 국적법상의 이중국적제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여 국적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정착지원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북한출생청년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받는 정착지원을 모두 제3국출생청년에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사항을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북한배경청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1) 지원체계 거버넌스 구축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수혜 대상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이 과정에서의 중복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반적인 지원체계와 중복성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전달체계가 10여년 넘게 경과하면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영역의 전달체계가 체계화되고 협업체계도 활성화되는 등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장에서는 각 부처 간의 업무 분담이 불명확하며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기관들이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협업이 아닌 경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반면에 필요한 지원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와 지방부처, 하나센터 등 각각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전달체계의 각 수준별 업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속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이 같은 대상자들에게 유사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하는 상황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모두 같은 대상에 대해 유사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서비스 중복과 ‘지원 쇼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높은 단계의 기술 습득이나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 성과 도출이 쉬운 분야의 지원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교육훈련 중 가장 많이 개설되는 대표적인 자격취득과정이다. 하나원에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남북하나재단,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을 탈북민 대표 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 개설한다. 이렇듯 다수의 교육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교육생들을 유치하다보니 교육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대가 높지 않은 40대 미만 여성들의 경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은 여성들의 경우 체력의 한계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착지원 현장의 이야기다. 대부분 정착 초기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했다가 그만두고 음식점이나 단순노무직 등으로 이직하게 된다고 한다. 물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잘 일자리에 잘 적응하여 요양보호센터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우수한 사례가 있지만 위 사례를 볼 때 교육 참여 이전에 진로탐색 및 단계별 직업역량 강화 교육, 경력 관리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학력도 경력도 미비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단기간 자격 취득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는 어렵다. 정착 초기 필요한 직업역량 강화 교육, 학력과 경력을 쌓고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직업역량 강화 교육, 장기근속 등에 필요한 교육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영역의 역할 재정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관련 총괄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총괄기능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직접지원사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증대, 일자리 창출, 각 부처 간 협업 기능을 강화할 정책적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정착지원 현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부처,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해당 업체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조성에 힘 쓸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센터의 취업전문 상담사는 직업역량 강화를 연계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북하나재단이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적응과 관련하여 정착초기부터 거주지 전입까지, 생활안정부터 교육 및 자립자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담당하며,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센터 평가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역의 지원 기관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있다. 이렇듯 남북하나재단은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영역을 포괄하여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지식과 정보가 집중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영역의 거버넌스 기능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책 관련 협의체인 정착지원협의회에 남북하나재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서비스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거주가 많은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 간의 지원 체계와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각 지역의 하나센터가 인력 및 기관의 역량,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정도, 민간단체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착지원 서비스의 가장 일선에 있는 하나센터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허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지역보고서 발간을 위해 정착지원현장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거버넌스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하나센터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유관기관 및 담당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하나센터, 민간 영역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달체계의 안정성이 충남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남북하나재단, 2022).²⁹⁾

4. 북한배경청년 실태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1) 인구와 가족

(1) 임신 및 출산 제도에 대한 정보 강화

북한배경청년들의 자녀 수가 일반청년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거주지 문제와 경제력 미흡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폭넓게 시행 중인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 관련한 지원 체계들도 완비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과 시행령,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족을 형성한 북한배경청년은 임신과 출산에서 한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 임신 당사자가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센터와의 상시 면담을 통해 정보 알리를 꾸준히 하면 된다. 북한배경청년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임신·출산 지원과 저소득층이 받는 육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개인 역량 강화

북한배경청년은 개인 지향의 삶과 가족 중심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균형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이 가족을 형성하는 필수 관문은 아니지만,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겪는 어려움은 일반청년이나 북한배경청년이나 동일할 것이다.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대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주양육자가 주로 여성이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일반청년이나 북한배경청년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기존에 갖추고 있는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은 출산 전후 휴가 지원정책, 모성보호 육아지원정책, 직장 어린이집 지원정책 등이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 취업의 여건이 미흡한 경우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 또는 미혼모 가정을 포함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일과

29) 충남지역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분석결과 다른 지역보다 높은 취업률, 낮은 실업률, 높은 생활만족도 등이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주요지표 대부분이 일반국민보다도 우수하게 나타났다.

가정의 양립이 잘 수행되려면 우선 북한배경청년의 다양한 가족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한배경청년 자신이 갖출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앞선 심리지원과 임신출산 지원과 연동하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 체계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는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육 및 훈련

(1) 대학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첫째, 대학교육을 위한 교재비 및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배경청년들은 대학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정책을 교육 분야 지원 1순위로 우선시 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등록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출생청년들에게 대학장학금이나 교육비 지원은 중요한 문제이고, 교육 분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들도 대학특례입학보다는 교육비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대학등록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출생청년들도 대학장학금이나 교육비 지원은 중요하다.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북한배경청년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학교육을 위한 각종 교재비나 생활비 지원 차원의 북한배경청년들을 위한 대학장학금 혹은 교육비 지원 제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연구자: 지금도 알바를 하고 계세요?

피면접자: 알바는 거기 스케줄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동안 좀 조금씩 모아뒀던 돈을 까먹고 있고.

연구자: 생활비로 모아놓았던 돈을.

피면접자: 네, 그래서 조만간 다 떨어질 거 같고. 지금 좀 대출이라도 해야 되나 싶은 상황입니다.

연구자: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알바를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운.

피면접자: 그거 안 돼요.

연구자: 시간적으로 안 되는 거죠.

피면접자: 네, 시간적으로 안 되는 거고. 일단 배우러 갔으니까 올인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또 위안이 되는 거는 대부분의 남한 학생들이 등록금 대출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 시점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체 위안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제가 안고 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 같아요. (사례 18)

피면접자: 제일 큰 게 금전적인 문제예요. 스펙도 좀 쌓고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따고 싶은데, 그 자격증을 따려면 공부 해야 되잖아요. 그걸 공부를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좀만 더 금전적으로 여유만 있었어도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으면은 더 좋았을 거 같다.

연구자: 자격증 취득에 대한 지원. 자격증 취득할 동안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원?

피면접자: 네, 진짜 최소한의 그런 것만 지원을 해줘도 좀 괜찮아질 텐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연구자: 학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피면접자: 학교 다닐 때는요. 거의 일당을 많이 뛰었던 거 같아요.

연구자: 생활비 벌려고. (사례 4)

중국출생 북한배경청년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더욱 시급하다. 이들을 위한 민간장학금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이들이 많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혜택이 생각보다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혜택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무리 한국에 와서 언어부터도 배워야 되고, 사회생활에도 적응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엄마의 부담. 엄마도 북한분이시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있어서 조금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사례 3)

둘째, 대학등록금 지원 기한 제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북한출생청년에게는 대학등록금 지원이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또는 의학계통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즉 졸업 전에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8학기 내에 졸업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 제도다. 그러나 북한배경청년의 1/3 정도가 휴학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휴학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이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휴학을 할 경우 대학등록금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전체 비율 중 여성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대학 재학 중 출산과 육아를 담당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8학기 까지 등록금 지원'을 하는 현 규정보다는 휴학기간을 4학기가 아닌 6학기 또는 8학기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7년 또는 8년 범위 내에서 8학기까지 등록금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저는 휴학을 많이 해서 8학기 안에 졸업 안 하면 나머지 학기 제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 학비를. 그게 지금 벌써부터 고민되고 그래서 좀... 휴학도 저는 대학생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사례 2)

셋째, 2년제 대학 진학자를 위한 대학 장학금 지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학등록금 지원 외에도 남북하나재단 등 공공기관에서, 혹은 민간 장학재단에서 북한배경청년을 위한 대학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지원이 대부분 4년제 대학 진학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어 2년제 대학에 진학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관련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에 대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2년제 대학으로 확대하여 북한배경청년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고등교육을 보다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를 나왔잖아요. 정작 국가에서라던가 단체에서라던가 하면은 학생들 장학금도 내주는데 그게 다 4년제에 맞춰서 그 기준을 맞추더라고요. 4년제끼리 순위를 매겨서 그 학생들한테 주는데, 전문대는 거의 진짜 10개 중에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적더라고요. 그게 지원해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진짜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제 주위에도 몇몇 분이 다니는데 계속 사비로 다 다녀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 이런 것도 안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모아 놓은 돈이 있어서 그걸로 좀 근근이 연명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진짜 그 정도의 금액도 안 모였었으면은 그냥 1년 다니고 휴학하고 돈 좀 벌어서 다시 또 1년 다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좀 이제는 2년제 전문대라도 그런 거를 늘려 주면은. 정책적으로 그런 거를 좀 늘려 주면은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사례 4)

(2) 예비 대학 운영의 내실화

북한배경청년 중 예비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는 디딤돌대학 운영을 보다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미 탈북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력 및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디딤돌(예비)대학 과정을 2018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운영해 왔다.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재학 중인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소수 기관에 한정해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국 단위에서 볼 때 본인이 재학 예정이거나 희망하는 대학에 디딤돌대학이 없을 수 있으므로 디딤돌대학 과정에 대한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부는 2021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에서 “탈북대학생 교육지원 사업 개선”의 일환으로 대학 교육비 지원 등의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교육·멘토링 등을 연계 지원할 방침을 세웠고,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재학 중인 대학에 예비과정(디딤돌대학 과정) 운영하기로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1).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서는 디딤돌대학 운영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학 중심에서 비영리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할 것을 명시했다.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 의하면 디딤돌대학은 2020년 8개 대학에서 212명이 참여하였

고, 2021년에는 6개 대학에서 240명이 참여하였다. 2022년도 탈북대학생 디딤돌대학 운영사업 예산은 9천만 원으로 교육지원금 예산 45억 1천 6백만 원에 비하면 2%에 지나지 않는다(관계부처 합동, 2022).

기존의 디딤돌대학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위탁 운영되었기에 현 정부정책 방향과 같이 비영리단체 활용, 지역단위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또한 다수의 예비탈북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는 ‘함께하는재단’을 중심으로 탈북청소년예비대학이 진행 중에 있으나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개선된 형태의 디딤돌대학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디딤돌대학 과정을 함께 운영하여 핵심 과정이나 공개강좌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우선 인문계, 이공계, 기타 특수 분야 전공(간호 계열)으로 구분하여 주요 교육 프로그램 및 과목 등을 북한배경청년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디딤돌대학의 역할 확대는 대학 진학을 앞둔 청년과 비진학 청년 모두에게 유용한 교육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학 진학을 하는 경우도 진로나 전공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나 여러 가지 제약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제는 중도 탈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고등교육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던 경우에도 전혀 다른 영역에서 취업을 하는 등 제대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질적으로 취업과 적응에 필요한 교육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허수경, 2022). 다만 기존의 디딤돌대학에서 진행한 상담 기능은 각 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일임하고 디딤돌대학은 대학 생활에 필요한 핵심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러한 핵심 교육 과정을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한다면 시간대나 거주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보다 많은 북한배경 예비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이라 하면 20~30대 인데 고난의 행군 때 학교를 다닌 청년들의 학습수준으로 바로 생산직으로 간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만큼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직으로 가는 청년들도 어느 정도 공부(기초 영어, 독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성찰 등) 하고 본인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K○○, 2022)

“탈북청년들이 특별전형으로 배움과 능력에 비해 수준이 높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여 힘겨워도 따라가며 해내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 좌절을 하거나 혹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청년들이 입학 전에 현 사회의 실태 및 자신의 능력, 자질, 가능성, 잠재력 등을 발견하여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N○○, 2022)

(3) 현장성 있는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메타버스 등 활용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준비를 위한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은 북한배경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많으나 받은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일반청년들도 그렇지만 특히 북한배경청년들이 얻을 수 있는 진로 선택이나 취업 관련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성인에게 진로지도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제한되어 있다.

이에 최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 등을 활용하여 현장성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 상에 공개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언제 어디서나 현실감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공개하여 개인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형식보다는 학교, 공공기관, 학원 등 기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이 취업 훈련을 받을 계획을 가진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취업 지원에 대한 요구는 많아도 변화하는 환경에서 스스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구자: 그 전공 선택하실 때 어디 다른데 도움을 받거나 하진 않았어요?
피면접자: 없었어요. 저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다 대학을 찾아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수님들 이런 거 어떻게 수업 되는지 이런 거 다 알아보고 해서... 저 몰랐던 거예요. 잘. 거기 소개대로 “아, 그래? 여기 나오면 여기에 취업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연구자: 진로지도 면에서는 도움받을 분이 없었구나.

피면접자: 네, 대학에만 들어가서 일단 다니면 된다고 혼자 또 생각도 했고. (사례 5)

(4) 경제 지식 교육의 강화

북한배경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이들의 경제 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북한배경청년에게 경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의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경제 태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지고 있는 자원(능력, 시간, 재정 상황 등) 하에서 자신의 효용(만족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미경, 2004; Hilgert, Hogarth & Beverly, 2003; Collins, Gorey, Schmeise, Baker & Ziegler, 2009; Gale & Levine, 2011).³⁰⁾

정부와 일부 민간 차원에서 북한배경청년을 위한 경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북한배경청년의 구직활동과 이직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산업재해보험 등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경제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배경청년의 경제 지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교육은 민관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지식 교육 역시 정부 기관 차원에서 체계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민간, 중앙-지역 간의 협력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배경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 지식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획재정부가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전국 15개 지역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교육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경제교육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북한배경청년 대상 경제 지식 교육 프로그램을 시민강좌 형태로 정기 개설함으로써 북한배경청년의 경제 지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3) 경제와 고용

(1) 청년 자립 지원 정책 마련

경제와 고용 측면에서 북한배경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제 및 고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북한배경청년들은 다른 일반청년과 같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적 자립은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 외에도 남한사회에서 살아온 기간이나 인적 네트워크, 가정의 경제

30)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을 비롯하여 소요 비용 및 편익의 비교 등 합리적 경제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상황 등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게 진행된다. 또한 임대주택을 받지 못하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일부 청년들의 경우에는 주거비나 가족생활비도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이나 취업준비에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쓸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배경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지원이나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청년 자립 지원비 지원’과 ‘청년 대출 확대’를 제안할 수 있다.

북한배경청년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구직활동과 취업준비 등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배경청년들은 구직 활동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고 있었고, 이로 인해 취업 준비 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들에 대한 취업이나 구직활동 지원은 주로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교육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청년 자립수당과 같이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이나 청년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생활비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 대출 한도가 크지 않고 취업이나 재학 여부에 따른 제약도 존재한다. 또한 임대주택을 받지 못하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전세자금이나 월세 등의 주거비가 필요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금액을 대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설문에 참여한 33.3%의 청년들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배경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출 금액이나 이자율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재단을 통한 대출 확대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북한배경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정책 마련

다음으로 청년 자립 지원 정책과 함께 북한배경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취업지원제도나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련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북한배경청년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 경험과 네트워크

크가 부족한 북한배경청년들은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배경청년을 위한 고용노동교육 확대’와 ‘북한배경청년 맞춤형 고용노동 정보 축적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배경청년에게 남한의 고용 및 노동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 등 기본적인 고용노동교육이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있고, 직장에서의 불합리한 대우를 자신이 참고 견뎌야 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실업급여와 같은 기본적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고용노동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 진출 직전 또는 취업준비 과정에서 고용노동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

북한배경청년들은 고용 및 노동현장에서 유사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해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고용이나 직장에서 경험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하거나, 개인적 차원에서 참고 견뎌내야 하는 일로 여기기도 한다. 또한 출신 배경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취업 이후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이러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나 상시 문의 창구 개설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직업훈련교육 지원 확대

취업과 관련해서는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교육지원 혜택이 제3국출생청년까지 확대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북한배경청년의 자립에 있어 직업교육과 취업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 직업교육,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취업 수요가 있는 북한배경청년들이 직업교육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취업상담, 직업훈련교육, 구인구직연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 등 제3국출생청년은 직업훈련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장 미래행복통장이나 취업수당 등 상당한 재원 투입이 요구되는 정책은 시행하기

어렵더라도 자립·자활과 직결된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지원은 제3국출생청년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신효숙, 2022).

(4) 창업지원아카데미 신설

북한배경청년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창업 과정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창업지원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북한배경청년 가운데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제 창업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으나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서 창업 지원은 취업 지원에 비해 세밀하게 이루어 지지 못한 상황이다. 통일부는 2021년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에서 “기술 및 벤처 중심의 신규 창업지원 확대” 방침을 세우고(관계부처 합동, 2021),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생계형 창업에서 기술 기반 창업까지 다변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창업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

다만, 기존의 정책은 기존 창업자 경영개선 지원(2021년 285명, 2020년 257명) 및 신규창업자 지원(2021년 16명, 2020년 19명)으로 지원 분야가 다소 한정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 기존의 창업 지원 정책 방향인 “탈북민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창업을 내실 있게 운영”이 중시 되고(관계부처 합동, 2019) 창업 지원 방향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 통일부는 아산나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창업에 최대 1,500만원 창업지원금을,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에 최대 2,000만원(3년분할지급)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통일부(하나재단)의 창업지원 예산은 2019년 11억 2천 9백만 원, 2020년 11억 2천 9백만 원, 2021년 8억 6천 7백만 원, 2022년 8억 6천 7백만 원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존의 창업 지원 정책이 나름 유의미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배경청년의 도전적인 창업 유도과 다양한 창업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우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탈북대학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를 모티브로 하여 북한배경청년 창업아카데미를 신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청년취업아카데미의 경우 탈북대학생 대상으로 북한출생청년은 지원 가능하나 제3국출생청년은 지원할 수가 없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북한이탈주민 기업가육성 센터」의 경우 ‘북한이탈주

민 기업이 역량과 자격(법인 허가증 및 정관)이 있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북한배경청년들에게는 다소 진입장벽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제3국출생청년은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북한배경청년 창업아카데미는 출신지역(북한 혹은 제3국)에 제한 없이 만 35세 미만의 국내 청년이면 대학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배경청년 창업아카데미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초창기 창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을 우선 주 타겟으로 한다. 여기서는 시장조사, 벨류 포지셔닝, 기초 회계, 창업 공간 활용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고 국내외 각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대학 창업 동아리 네트워킹, 기 창업자와의 창업과제 수행 등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 받아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북한배경청년 중 일부는 창업 과정에서 정보 자체의 제약과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정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정보가 있다고 해도 이 서류 작업하는 데서도 힘들고 이게 사실 면접 대면까지 선정되는 것까지 5단계인가 4단계가 걸쳐요. 근데 그거 매번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걸 컨설팅 해주는 데도 많지는 않고. 컨설팅이 중요한 하죠. 중요한 한테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야 왜냐하면 이런 말해도 되나 약 장수 같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컨설턴트 분들 중에...” (사례 17)

이런 측면에서 북한배경청년 창업아카데미는 창업을 계획하거나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성 있는 기 창업가들과의 경험공유 및 네트워킹 구축 면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예비창업패키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되어 한국의 예비창업자를 위해 운영 중인 ‘K-스타트업’ 사업에 북한배경청년 및 다문화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창업패키지)을 개발하여 공모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타겟형 패키지가 과연 기타 사회계층 집단과의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점이다. 어떤 형식으로도 북한배경청년에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한국의 일반청년들과의 공정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정책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외국인(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예비창업자

를 별도로 한정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가 운영된 바 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도 창업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취약 계층을 위한 적극적 조치 차원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K-스타트업의 예비창업패키지는 실제 창업 경로에 있는 북한배경청년들에게도 중요한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IT 분야로 창업을 한 북한배경청년은 대학교 창업동아리 활동 → 학내 창업경진대회 우승 → 창업지원금으로 초기자본 형성 → 중소벤처기업부의 K-스타트업 프로그램에서 예비창업패키지 선정(5천~1억) 단계를 거치면서 창업의 기본적인 토대를 강화해 나갔다고 밝힌 바 있다(사례 12). 이처럼 창업을 꿈꾸는 북한배경청년들이 K-스타트업의 다양한 창업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배경이 창업 과정에서 실질적인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창업의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북한배경이라는 점이 창업과 이후 사업체 발전 과정에 크게 제약받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사회적 편견이) 장애가 될 수는 있겠쥬. 아무래도 뭐 저는 플러스... 어떤 분은 또 “오히려 북한 출신이라서 더 잘할 거다”라고 말해주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해온 경험이면 사업도 능히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창업 관련해서 창업이란 게 제가 해보면 제 배경도 신경 쓰고 커리어, 학력, 인맥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신경 썼는데 돈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해보니까 고객이 중요하고, 고유가치, 밸류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줄 수 있는 밸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 12)

북한배경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자칫 사회적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청소년 시기 지원을 많이 받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추후 청년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들에 대해서도 당연시하는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허수경, 2022). 이점에 착안하여 북한배경청년 및 다문화청년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예비창업패키지에 별도의 쿼터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한국 청년의 창업 생태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 취약 계층의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취약 계층 청년들에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주거

북한배경청년이 겪는 주거 문제는 청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면서 경험하는 특성과 북한배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복합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은 학교

졸업과 취업, 거주독립, 결혼, 자녀 출산 등을 생애시간을 경과하며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부모의 보호와 자원에서 심리적,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성인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배경청년들은 입국 유형에 따라 성인의 역할을 일찍부터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마련이다. 무연고 단독 입국자는 부모의 보호와 자원에서 이탈하여 강제로 성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제3국 출생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에서 배제됨에 따라 정착과 적응에 지연이 발생하게 된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임대아파트를 지원받기도 하지만, 한국에 와서 합가한 가족에게서 주거 분리를 선택하며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이기도 한다. 또한, 무연고 단독 입국한 경우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유지하지 못한 채 그룹홈에서 공동체 생활을 선택하기도 했다. 북한배경청년들의 다양한 주거형태는 곧 주거 불안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2020)의 주거 부문 제안은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배경청년들에게도 유효하다(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이를 보완하여 북한배경청년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청년 1인가구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처럼, 단독 입국자가 아닌 북한배경청년 또한 1인가구로 형성되는 수가 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년 1인가구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행복주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 공공지원주택과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청년 1인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청년 1인가구에게 불리한 현행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청약제도를 현실화하도록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김형주 외, 2020). 북한배경청년은 임대아파트를 지원받아 주거독립을 이룰 수도 있지만, 학교 및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지원받은 임대아파트를 반납하여 주요 생활반경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주거불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부모의 자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배경청년들은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독립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부모 또는 가족과 자녀 관계가 균질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활동 상태도 불안정한 북한배경청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면 제도적으로 1인가구 주택공급 정책의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세어하우스 공급 개선

세어하우스 공급 확대를 통해 북한배경청년들의 주거 유형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북한배경청년 가운데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좁은 평수의 집에서 공동거주하거나, 그룹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여럿이었다. 공동거주의 경우 사적인 공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고, 그룹홈의 경우 무연고 단독 입국자가 심리와 정서 지원을 받는 이점이 있지만, 사적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이용자들의 자율성이 일부 통제되기 마련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활성화,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 여러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세어하우스 공급 정책)을 추진해왔다. 세어하우스는 임대료 부담과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해결함으로써 1인 가구의 정서적,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시켜주는 장점이 있다. 한집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한다는 점에서 세어하우스와 공동거주의 형태가 유사하지만, 세어하우스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주거 환경이 공동거주 형태보다 훨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청년 세어하우스의 공급 확대를 통해 북한배경청년이 공동거주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3) 청년 주거상담센터의 확대 운영

북한배경청년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취득이나 주택 임대와 관련한 제도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편이다. 사회 초년생들은 부동산에서 무엇을 어떻게 문의하고 어떻게 계약해야 하는지, 집을 알아볼 때 어떤 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북한배경청년은 지원받았던 임대아파트를 반납하여 그룹홈에서 생활하다 뒤늦게 주거독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청년들에게 주거상담센터를 확대하여 시행할 때 북한배경청년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년주거상담센터는 집을 구하는 것이 막막한 청년들이 동행서비스를 요청하면 집 구할 때의 주의사항, 집을 구할 때 고려해야 할 점검 사항과 주거환경, 재정적 요건 등을 상담해주고 있다. 주거매매와 임대차 계약 방법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제도는 '서울시 내에 집을 구하는 무주택 청년'을 비롯해 주거기초교육 수료자, 계약만기일이 2개월 이내에 있거나 지역연고가 없는 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매매나 분양의 경우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서울특별시, 2022). 이러한 주거상담센터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기존의 중앙주거복지센터 또는 지역주거복지센터 내에 청년 주거상담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5) 관계 및 참여

(1)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다변화

북한배경청년들은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과정까지 다양한 형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생존을 위한 탈북과정을 본인이 직접 겪은 경우 정서적 불안이 존재할 수 있고, 성장기에 오랜 시간 부모와 분리를 겪었던 북한배경청년이 입국하여 합가하게 된 부모와의 서먹한 심리는 가족의 해체와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에 아버지를 두고 입국한 경우엔 심리적 외상(trauma)이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배경청년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충격이 내재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 또는 제3국에 거주하다가 남한에 정착한 북한배경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고 삶을 온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북한배경청년의 심리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셈이다.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무연고 단독 입국한 경우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정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고독과 외로움이 일탈로 연결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배경청년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 단기적, 병리적 관점에서 장기적, 성장지향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북한배경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외상 경험과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부적응의 관점 아래에서 단기적,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성장지향적 관점 하에서 이들의 심리적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하여 자립 역량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임선영, 2020).

또한 심리케어 지원 부분은 특정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심리적 외상을 사회적으로 치유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단순히 지원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북한배경청년 집단이 갖는 사회적 외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할 것이며, 심리케어 지원이 단순히 개인 심리 치유 차원이 아닌

우리 사회가 북한배경청년을 이해하고, 동시에 북한배경청년이 우리 사회를 더 이해하게 되는 상호소통의 기회로 작용되어야 한다. 심리적 외상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상담기관 앞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집단 상담, 집단 관찰, 동료(또래) 멘토링(peer mentoring), 상담캠프 등을 통해 ‘집합적 심리 치료(collective psychological treatment)’의 차원에서 심리적 외상을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국내 입국 후 입소하는 하나원 ‘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고, 사회 진출 후에는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있는 심리·취업·복지 분야 전문자격을 소지한 전문상담사로부터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한 남북통합문화센터 산하의 심리상담센터인 ‘마음숲’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부부·가족·개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원의 심리 상담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 진출 이전의 심리적 문제만 케어하게 되어 있고, 하나센터의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인해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접근하기에는 지리적 제약이 존재한다.

결국 북한배경청년들이 심리적 불안정 또는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전문상담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없는 온라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단위로 북한배경청년들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북한배경청년들 중 정서적, 심리적 고통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고 심리적 고립 문제도 보다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비수도권의 지리적 문제, 상담자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하나센터가 지역 민간 심리상담소나 신경정신과와 연계하여 전문 상담 인력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배경을 이해하는 상담 인력 양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전문 심리 상담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도 필요하다. 아울러 북한배경청년 개인이 갖는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배경청년이 속한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심리케어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역량 강화지원사업’ 대상자를 북한배경청년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각종 지원 관련 정보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공유

현재 북한배경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러한 정보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신변보호관이 제도적 지원 관련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본적인 정보마저 신변보호관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직접적인 지원 정책의 추가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 개발된 지원 정책에 북한배경청년들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보다 공개적이고 일상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일반청년 지원 제도, 북한배경청년들을 위한 지원 제도 등, 관련 정보를 브로슈어로 만들어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온라인 상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등, 누구나 일상적으로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배경임을 밝히지 않는 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만들어진 지원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알았던 거거든요. 취업 성공패키지나 그런 거.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취업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이 늦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교 때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한데 잘 생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사례 15)

이미 많은 지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이제 그러는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물론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모르는 부족함도 있겠지만 좀 더 이제 오픈된 소스를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서로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워낙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소스를 많이 얻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이 소심한 사람은 이제 조용하다 보니까 어디서 얻어야 될지도 모르다 보니까 좀 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제 사람의 이제 성격 차이로 인해서 좀 그 소스를 다 못 얻어가니까 좀 더 이제 공개된 데 알려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 16)

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몇 년이 지나서 연락을 주셨어요. 몇 년이 지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어때. 맞아요,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어려운 점 없어. 어려운 점 없어요. 그래요. 네.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라고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군데 알고 봤더니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대학원 와가지고 그 신변보호관님이랑 조금 다툼 적이 있었어요. 대학원 와서 대학원 장학금이 이제 그 신변보호관님들이 뭐 추천한 게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군데 그거는 저는 이제 그분이 말을 안 해주니까 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군데 다른 이제 그 대학원 다니는 사람이 어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 받는데 너 받느냐고 이라는 거예요. 나 그거 몰랐는데. 지금 신청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담당 보호관이 말해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대학원 되는 줄 몰라가지고 그걸 안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대학원생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실 수 있냐고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10년 넘게 사는데 1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저한테 이런 거 추천을 그럼 대학생 때도 분명히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 들으니까 한 번도 해 주신 적 없지 않느냐고 마지막 기회인데 이것마저 저한테 안 해주시면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랬더니. 아 다음에 있으면 해드릴게요 이라는 거예요. 다음이 어디 있죠. 결국은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다 알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좀 알려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제....그런 거를 저에게 해주신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나 이런 것도 대학교 들어가면 지금 요즘 애들은 다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다 이제 똑똑하고 막 인터넷이 발달되고 하니까 근데 저 때 그 진짜 몰랐거든요. 논술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대학교를 뭐 공부를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혹시 도움 받을 수 있는 데는 뭐 이런 데가 있다. 이런 것도 좀 이제 진로 안내서 같은 거를 좀 해주면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고 들어가서도 적응에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좀 들어요. (사례 20)

피면접자: 저는 사실 그... 저는 항상 북한에서 왔다는 걸 숨길 수 없는 편이거든요. 말투도 많이 티가 나고. 그런데 교대 때 얘기를 해 드리면 저는 북한 출신 분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나면 교내에서 탈북 학생들 위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진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기초교육, 영어교육 그런 것들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굉장히 알차게... 제 기준으로는. 저한테 많이 도움 되는 강의였는데 우리 학생들 하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연구자: 우리 학생들이라면?

피면접자: 그러니까 탈북출신 학생들이. 그러가지고 “이 좋은 걸 왜 안 듣지”하고 물어봤더니 안 밝히고 있다. “북한에서 온 걸 안 밝히고 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말투도 별로 티가 안 나고. 그리고 또 어릴 적에 왔을 적에는 중고등학교 다 여기서 다니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굳이 말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쪽 생활해 왔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탈북 학생을 위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데에 오면 이게 들키니까 그래서 못 듣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사례 18)

(3) 북한배경청년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일반청년과 비교할 때 북한배경청년들이 지니는 일반적인 경향성이 있지만 그 경향성이 개별 북한배경청년의 특성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년들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북한배경청년들 중에서도 사회적 입지를 매우 단단하게 구축한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배경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모든 북한배경청년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본 실태조사에서도 심리·마음 건강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북한배경청년은 40%에 미치지 않는다. 이에 개별 청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례관리시스템은 신변보호관, 하나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연계하되 북한배경청년이 거주하는 지역 근거리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례관리시스템은, 개별 북한배경청년의 교육, 주거, 건강, 취업 등 삶 전반에서 요구되는 문제를 포착해 낼 수 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자원들이 체계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4) 북한배경청년과 일반청년 통합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는 같은 배경을 가진 이들과 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식적으로 같은 배경을 가진 이들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성취 욕구가 강한 이들일 수록 같은 북한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 중에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통해 같은 북한배경청년들 중에도 자신 못지않게 열심히 사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깨닫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북한배경청년들과 일반청년들이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호 인식개선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³¹⁾ 이러한 프로그램은 북한배경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과 북한배경청년의 상호 인식개선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북한배경청년들 상호 간에도 서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키워나가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면접자: 예전에는 뭐 수료식에 그 12월 말 그때 수료식 같은 거 그런 거 그때랑 오라고 하거든요. 문자 이렇게 주거든요 참여할 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또 다 취소되고.
 연구자: 요새는 아예 그 모임 자체가 없군요.
 피면접자: 네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연구자: 뭔가 이제 새로 약간 코로나19 가라앉고 뭔가 그런 거 새로 하게 되면 좀 가실 생각은 좀 있으세요. 없으세요?
 피면접자: 아니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서로 이렇게 북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걸 싫어해요.
 연구자: 아 아는 사람 빼고는.
 피면접자: 음. 아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보는 게 너무 싫어요.
 연구자: 왜?
 피면접자: 그냥 싫어요. (사례 10, 북한출생, 여, 2022년 6월 25일)

31)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나 ㈜한화에서 시행했던 '한화 자전거 평화여행, 다름의 동행, 함께 멀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이었다. 미지넷 모바일웹 http://m.mizy.net/program.html?html=program/program2_view.html&uid=507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이 연구의 면담에 참여했던 사례7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을 매우 긍정적으로 회상하고 관련 프로그램이 지속될 필요를 강조했다.

네. 서로 섞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차이를 인정하고 그런 거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자전거 여행 하나밖에 몰라가지고 그것(서로 섞이는 경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탈북민한테, 3국 출생 관련된 거는. (사례 7)

(5) 북한배경, 특히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관련 드라마 제작 보급 등

초중등학교나 대학에서 느끼는 북한배경에 대한 편견과 학교 밖에서의 그것은 수준과 종류가 다르다고 북한배경청년들은 말한다. 학교에서는 실제로 북한 혹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학교 밖 일상에서는 북한배경청년들이 매우 노골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편견에 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중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북한배경청년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만들어 보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배경청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 일반적으로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재고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러한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느끼는 거랑 다른 분들이 느끼는 거랑은 굉장한 또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어떤 걸 또 느꼈냐면은 사실 저는 그 탈북을 해서 항상 학교에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학교라는 집단은 어쨌든 다 인텔리 집단이고 뭔가 민주주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제 덜 드러나고, 차별이 있다고 해도 오히려 은밀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가다판 같은 경우에는 완전 노골적이거든요.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래서 또 그 경험이 다를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례 18)

저는 제3국 출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제가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 어머니께서 북한 분이시고 중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3국 출생 친구가 무슨 뜻이냐?”고 그 신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사례 3)

○———— 제7장 결 론

2022년 3월 말 기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총 33,826명으로 이 중 20~30대는 57.1%(19,294명)에 이를 정도로 청년층 비중이 높다. 또한 최근 5년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20대와 30대를 합한 비율이 56~57%대를 유지하는 등 전체 입국자에서 청년 계층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2). 즉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젊은 계층이 많다는 점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의 제도적,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 짐을 의미한다.

또한 탈북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와 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청년 등을 포함한 북한배경청년들이 기존의 정부 북한이탈주민법에 편입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즉 북한배경청년 중에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법상 수혜 자격 대상이 되는 청년 집단과 그렇지 못한 청년 집단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는 북한이탈주민 지위 획득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별 지원 서비스 유무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는 크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으로 나눌 수 있고, 북한배경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에 대한 정부 및 민간 지원체계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된다. 하지만 북한배경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할 때는 생애주기별, 출생별, 거주기간별 서비스 전달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북한배경청년의 경우 각 부처별로 대상기준과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나 배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북 현상의 장기화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와 유형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정부의 북한이탈주민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배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개선과제를

32) 7장은 통일연구원 이우태 인도협력연구실장이 집필하였다.

도출하고자 했다.

우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북한배경청년은 한국 정부의 청년기본법상의 기준이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점을 고려해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북한출생 청년 및 비북한출생 청년을 이른다. 이때 비북한출생 청년은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출생으로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나 남한에 입국한 청년과 남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청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북한출생, 제3국출생, 남한출생 등 세 부류가 큰 틀에서 북한배경을 가진 청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북한배경청년의 분류를 간소화하여 북한출생청년과 중국 등 제3국출생청년 두 하위 집단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지원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규명했다. 둘째, 북한배경청년의 주요 범주별 차이를 규명하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취약한 북한배경청년 집단의 주거, 생활, 취업, 심리·정서 등의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셋째, 북한배경청년의 정착자립과 정책소외 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에서는 북한이탈주민법 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 무연고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 탈북남성과 탈북여성 평등 및 탈북여성 모성 보호 규정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외에 고등교육법, 청소년복지법, 병역법 상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규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북한출생청년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가 한국 내 일반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정책과 비교할 때 적어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못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을 위한 지원제도는 일반청년 지원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은 일반청년에게 시행되고 있는 교육지원, 취업 지원 제도, 주거·자산 지원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관련 법률의 개선의 요체는 제3국출생 청년 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배경청년에 대한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처럼 북한배경청년의 연령대를 출신지 별로 세분화하여 연령대별 교육, 취업, 결혼·독립 현황을 파악할 필요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통계의 세분화를 제시했다. 또한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은 북한출생청년과 처한 상황이 유사하고, 북한출생청년에 비해 언어문제와 정체성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겪고 있다는 점에서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

년도 북한출생청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체계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책관련 협의체인 ‘정착지원 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정착지원을 담당하는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적응교육과 사후지원을 담당하는 ‘하나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주요 서비스로서 취업지원 및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운영에 있어서 각 부처와 기관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내용이 유사한 업무와 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하나센터의 업무구분,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관련 총괄기능의 강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남북하나재단의 기능 강화, 남북하나재단의 지역 허브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배경청년의 자립생활 실태파악을 위해 북한배경청년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는 인구와 가족, 교육 및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건강, 가치관, 그리고 관계 및 참여로 영역을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북한배경청년들은 결혼에 대해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의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및 임대아파트 거주가 자녀에게 미칠 영향,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일반청년보다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북한배경청년 중 중국 출신 청년들의 해외 이주 고려 비율이 높다는 점은 이들이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대학교육에 대해서 북한배경청년들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았지만, 제3국출생 청년들의 경우 언어와 전공 선택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취업 과정에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 비율이 일반청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했다.

북한배경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처해 있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년의 주거 관련 된 물질적 박탈감이 높다는 특징이 있었고, 건강영역에서는 일반청년에 비해 북한배경청

년이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배경청년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인구와 가족 영역에서는 임신 및 출산 제도에 대한 정보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개인 역량 강화 방안을, 교육 및 훈련 영역에서는 대학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 확대, 예비 대학 운영의 내실화, 현장성 있는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경제 지식 교육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제와 고용 영역에서는 청년 자립 지원 정책과 북한배경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정책 마련을 제안했고, 주거영역에서는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와 세어하우스 공급 개선, 청년 주거상담센터의 확대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관계 및 참여 영역에서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다변화, 각종 지원 관련 정보의 일상적 공유, 북한배경청년 사례관리시스템 구축, 북한배경청년과 일반청년 통합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취·창업 관련 영역에서는 직업훈련교육 지원 확대와 창업지원아카데미의 신설, 예비창업패키지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자립과 역량 강화 방향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의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다른 이주배경 집단과의 형평성으로 고려해 큰 틀의 사회복지체계 하에서 적절히 조율되고 배치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또한 어떠한 방향의 정책이든 앞으로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역량과 위치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사회복지체제나 다문화정책 전반은 강화될 필요가 있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도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큰 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김성경, 2022).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 전체 청년층 지원정책과 연계와 통합을 고려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김병로, 2022).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배경청년의 정착실태를 일반청년 조사와 비교하여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파악하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일반청년과 비교하였을 때 북한배경청년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확인하여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법과 제도에 사각지대에 있는 제3국출생청년에 대한 지원 및 역량 강화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사회통합형 정책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북한배경’이라는 낙인

효과를 당사자들에게 주거나 복지의존성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현재의 정착지원 제도, 서비스 전달 체계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 제안들은 한국의 청년 정책이나 사회복지체계 차원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 교육부 (2021). 2021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서울: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김기현, 배정희 (2021). 2021년 청년 사회, 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수정, 이석기 (2021). 북중 무역을 통해 본 북한 산업의 변화와 시사점. 세종: 산업연구원.
- 김정원, 김지수, 강구섭, 김성식 (2014). 유형별 탈북학생교육실태 및 교육지원 요구 분석.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수, 김정원, 김지혜, 권희경, 조정아, 김윤영, 이은혜, 조정래 (2021). 2주기 북한배경 청소년 교육 종단연구(VI).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주민 취업현황분석을 통한 취업교육 과정 개발. 서울: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 (2022). 지역취업지원사업 업무매뉴얼. 서울: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 (2021).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 (2022). 2021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지역보고서(충청남도편). 서울: 남북하나재단.
- 남북하나재단 (2022).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류지성 (2016).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박명규, 김병로, 김수암, 송영훈, 양운철 (2011). 노스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북한주민의 해외탈북이주와 정착실태.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2022). **2022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서울: 서울특별시청.

설동훈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 서대학교 출판부.

성기영, 정일영, 최규빈, 최순미, 윤보영 (2018).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여성가족부 (2019).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세종: 여성가족부.

이금순 (2005).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임강택, 박영자, 홍순직, 최철호 (2017).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정진화, 손상희 (2015).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취업, 소득, 소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정해숙 (201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영주, 김석향, 김경희, 이슬기, 박민주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서울: 여성가족부.

통일부 (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통일부 (2021). **2021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202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 서울: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Collins, J. M., Gorey, R. N., Schmeiser, M. D., Baker, C. A., & Ziegler, D. (2009). *Building Indicators Measures: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Baltimore: Anne E. Casey Foundation.

〈논문〉

강민주 (2020). 사회보장의 ‘젠더주류화’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법·정책 소고. **사회보장법연구**, 9(2), 1-43.

- 김경식 (2021). **남한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별짓기와 사회통합 실태**. 대전대학교 통일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경 (2012). 경험되는 북·중 경계지역과 이동경로 - 북한이탈주민의 경계 넘기와 초국적 민족 공간의 경계 확장. **공간과 사회**, 40, 114-158.
- 김성경 (2013). 북한이탈주민의 월경과 북·중 경계지역: ‘감각’되는 ‘장소’와 북한이탈여성의 ‘젠더’화된 장소 감각. **한국사회학**, 47(1), 221-253.
- 김정림, 차현지 (2013).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비보호 청소년)의 보호 및 지위 개선을 위한 법적방안. **통일과법률**, 11, 127-157.
- 김정원 (2017). 한국 사회 정착 사례 분석을 통한 탈북청소년 ‘적응’의 의미 재검토. **통일교육 연구**, 14(1), 1-17.
- 김화순 (2017).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26(1), 235-264.
-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616-634.
- 박준희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명아 (2021). 북한출신주민의 이주배경과 정체성 연구에 관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47(3), 73-102.
- 손명아, 김석호 (2017).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주에 관한 연구: 연쇄이주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0(1), 57-81.
- 윤석주 (2019). 북한배경학생의 통합교육에서 교사가 겪는 딜레마: 북한정체성 커밍아웃 문제와 차별적 지원 문제. **교육문제연구소** 32(3), 223-242.
- 이기영, 김민경 (2015). 한국거주 탈북배경청소년의 다양성에 따른 지원정책의 분석과 함의. **동북아연구**, 30(2), 93-129.
- 이미경 (2004). 경제교육의 가치. **경제연구**, 22(4), 1-24.
- 이은혜 (2019).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 변화 분석. **다문화와 평화**, 13(3), 24-39.
- 임선영 (2020).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위한 연구 고찰: 외상 후 성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1032-1035.

- 장명선, 김선옥 (2017).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 젠더적 관점. **법학논총**, 29(3), 379-422.
- 장인숙, 최대석 (2014). 김정은 시대 정치사회 변화와 북한주민 의식: 북한이탈주민 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0(1), 5-36.
- 정수열, 정연형 (2021).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모빌리티 역량과 이주 실천. **대한지리학회지**, 56(6), 567-584.
- 주승현 (2020).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과 효과적 지원방안 모색. **다문화와 평화**, 14(3), 1-24.
- 진미정, 김상하 (2018).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이주 특성과 유형. **대한가정학회지**, 56(3), 317-330.
- 허지연 (2003). **탈북자의 탈북요인과 중국·한국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이상적 정착지와 행위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규성 (2016). 북한 청년의 사회적 공간과 주변대중화. **북한연구학회보**, 20(1), 153-180.
- Gale, W. and Levine, R. (2011). Financial Literacy: What Works? How Could it be More Effective?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Boston College Working Paper*.
- Hilgert, M. A., Hogarth, J. M., & Beverly, S. G. (2003).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The Connection between Knowledge and Behavior. *Federal Reserve Bulletin*, 89(7), 309-322.

〈기타 자료〉

보고서

- 경기도 (2022). **2022년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계획**. 경기: 경기도청.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1~2025]**. 서울: 관계부처 합동.
- 관계부처 합동 (2015). **제1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2017)**. 서울: 통일부.
- 관계부처 합동 (2018).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서울: 통일부.
- 관계부처 합동 (2021).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서울: 통일부.

관계부처 합동 (2019).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서울: 통일부.

관계부처 합동 (2022).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서울: 통일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0). 태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2378호)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서울: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이승열 (2021).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서울: 입법조사처.

진미정 (202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년 통일기반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한요셉 (2020). 전공 선택의 관점에서 본 대졸 노동시장 미스매치와 개선방향. **KDI 포커스
 통권 제99호**.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발표자료

김병로 (2022).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관련 정책 제언.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 자료.

김성경 (2022).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관련 정책 제언.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 자료.

김희순 (2022). 북한배경청년 정착 지원 정책 제언 및 역량 강화 방안.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 자료.

신효숙 (2022).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관련 정책 제언.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 자료.

허수경 (2022). 북한배경청년 지원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통일연구원 포커스
 그룹인터뷰 자료.

KOO (2022).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현장실무 종사자 정책자문.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 자료.

NOO (2022).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현장실무 종사자 정책자문.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 자료.

인터넷 자료

경향신문 (2021.6.21.). ‘알바 청년’ 10명 중 3명, 최저시급도 못 받아.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6211716001>에서 2022년 8월 5일 인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2).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2022년 4월 25일 인출.

메디칼 읍저버 (2019.10.21.). 전국 71곳 지자체, 산부인과 없어 아이 못 낳는다.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51>에서 2022년 8월 6일 인출.

미지넷 모바일웹. http://m.mizy.net/program.html?html=program/program2_view.html&uid=507에서 2022년 10월 12일 인출.

서울특별시 (2022). 서울청년포털 청년지원정보. <https://youth.seoul.go.kr/site/main/youth/politics/user/detail/9134>에서 2022년 8월 12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2).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www.mogef.go.kr/sp/yth/sp_yth_f011.do에서 2022년 4월 26일 인출.

오마이뉴스 (2019.7.30.). ‘경제선지능’ 청년도 자립하고 싶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8146에서 2022년 5월 3일 인출.

충청신문 (2021.10.18). [2021 국정감사] 이상민 의원, 북한이탈주민에 제3국 출생 북한 이탈주민 자녀도 포함해야. 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662596에서 2022년 4월 16일 인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2). 탈북학생 현황: 출생지별 탈북학생 수 변화. <https://www.hub4u.or.kr/webmdl/sub4uStudentStatus/menuHtmlDetail.do?cmkey=11147>에서 2022년 4월 29일 인출.

통계청 (2022).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자료 (탈북 동기). KOSIS 웹 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7&tblId=DT_43701N_011&conn_path=I2에서 2022년 4월 30일 인출.

통일부 (2022). 홈페이지 주요사업 통계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22년 5월 1일 인출.

통일부 (2022).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history>에서 2022년 5월 6일 인출.

한국고용정보원 (202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소개. 한국고용정보원 웹 사이트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에서 2022년 8월 5일 인출.

한국일보 (2021.3.4). 이지선의 공존의 지혜: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0409450000366>에서 2022년 5월 3일 인출.

한겨레 (2021.8.3). 20대 180만원, 50대 3150만원…남녀 소득격차 키운 ‘경력단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06226.html>에서 2022년 7월 2일
인출.

시청각 자료

한국방송공사 (2022). 시사직격: 삶의 경계에 내몰리다 경계선 지능. 서울: 한국방송공사.

법 자료

「고등교육법」, 법률 제17951호 (202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0347&ancYd=20210323&ancNo=17951&efYd=2022032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에서 2022년 5월 17일 인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법률 제1370호 (1963).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EB%B0%8F%EC%9B%94%EB%82%A8%EA%B7%80%EC%88%9C%EC%9E%90%ED%8A%B9%EB%B3%84%EC%9B%90%ED%98%B8%EB%B2%95/\(01370,19630726\)](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C%A0%EA%B3%B5%EC%9E%90%EB%B0%8F%EC%9B%94%EB%82%A8%EA%B7%80%EC%88%9C%EC%9E%90%ED%8A%B9%EB%B3%84%EC%9B%90%ED%98%B8%EB%B2%95/(01370,19630726))에서 2022년 5월 17일 인출.

「국적법」, 법률 제16851호 (2020).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3031&ancYd=20191231&ancNo=16851&efYd=2020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에서 2022년 5월 14일 인출.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법률 제4568호 (199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963#0000>에서 2022년 5월 10일 인출.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7281호 (202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에서 2022년 6월 5일 인출.

「병역법」, 법률 제18540호 (202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7319&ancYd=20211207&ancNo=18540&efYd=2022030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에서 2022년 5월 8일 인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202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651&ancYd=20210817&ancNo=183>

95&efYd=2022021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에서 2022년 6월 5일 인출.

「아동복지법」, 법률 제18425호 (202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781&ancYd=20210817&ancNo=18425&efYd=2022021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에서 2022년 5월 4일 인출.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202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6%91%EC%84%B1%ED%8F%89%EB%93%B1%EA%B8%B0%EB%B3%B8%EB%B2%95>에서 2022년 6월 3일 인출.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법률 제3156호 (1979).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46#0000>에서 2022년 5월 3일 인출.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417호 (202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683&ancYd=20210817&ancNo=18417&efYd=2022021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에서 2022년 5월 3일 인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제18793호 (202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D%95%9C%EC%99%B8%EA%B5%AD%EC%9D%B8%EC%B2%98%EC%9A%B0%EA%B8%B0%EB%B3%B8%EB%B2%95>에서 2022년 5월 14일 인출.

「청년기본법」, 법률 제18433호 (202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에서 2022년 5월 14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8101호 (202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에서 2022년 6월 3일 인출.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8461호 (202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5543&ancYd=20210924&ancNo=18461&efYd=2022032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에서 2022년 5월 19일 인출.

「헌법」, 헌법 제10호 (1988).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에서 2022년 6월 8일 인출.

기타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1.07.15.).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720>에서
2022년 5월 10일 인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2-16호).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69989에서 20
22년 5월 17일 인출.



부 록

부록

1. 북한배경청년 실태조사 설문지

2022년 북한배경청년 정책소외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실태 및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와 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정부의 정착지원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배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문항에 정해진 답은 없으며 귀하께서 평소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9조(벌칙)에 의해 응답 내용 및 개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귀하께서는 위 설명문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	아니오 ☐
귀하께서는 본 설문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연구책임 : 통일연구원 이우태 인도협력연구실장 (02-2023-8119)

연구지원 :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 최종학 연구원 (02-2023-8113, jong8906@kinu.or.kr)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1 0 명)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B-1로 이동

② 없다 → 문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C-1로 이동

② 없다 → 문D로 이동

배경질문

배경문항 1) 귀하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 ① 북한 ② 중국 ③ 기타 (적을 것 : _____)

배경문항 2) 귀하는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떠난 것은 언제입니까?

배경문항 3) 귀하는 한국에 들어온 것은 언제입니까?

배경문항 4) 귀하는 현재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 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② 비수도권

배경문항 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배경문항 6) 귀하는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년			월

배경문항 7) 귀하의 경제활동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취업자, 창업자, 실업자(구직자), 비취업자(질병, 육아, 교육, 훈련) 등)

I. 「인구와 가족」

문1)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2)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1가지만 선택 해 주십시오)

- ① 학교를 졸업하는 것
- ②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
- ③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 ④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 ⑤ 결혼하는 것
- ⑥ 자녀를 출산하는 것
- ⑦ 주택을 구입하는 것
- ⑧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 (선거권, 운전면허 등)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4)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가족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공동체
- ② 정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 ③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함께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문5) 귀하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 ① 있음(동거 포함)
- ② 없음

문6) 귀하는 입국 후 결혼을 준비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7로 이동**

문6-1)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혼을 망설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7로 이동**

문6-2) 결혼을 망설인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결혼비용 때문에(주택마련, 혼수비용) ② 출산 혹은 양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③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④ 자유로운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⑤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⑥ 기타()

문7)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를 하고 계십니까?

☞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맞벌이)

② 아니오(외벌이)

문8)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명

② 아니오

문9)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문9-1) 위 문9)에서 ②아니오라고 답하신 경우,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이미 계획한 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② 불임, 난임 등 임신의 어려움 때문에
③ 맞벌이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④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⑥ 자녀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⑦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⑧ 기타()

II. 「교육 및 훈련」

문12) 한국에서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아래 남북한 학제 비교표 참조)

학교 안 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12-1) 귀하의 북한에서 최종 학력은?	문12-2) 귀하의 남한에서 최종 학력은?
※ 북한에서 졸업한 학교 기준으로 응답 ① 소학교 ② 초급중학교 ③ 고급중학교 ④ 고등전문학교 ⑤ 대학교 ⑥ 연구원(준박사) ⑦ 박사원(박사과정) ⑧ 북한에서 학교를 졸업한 적 없음	※ 남한에서 졸업한 학교 기준으로 응답 ※ 중등 김정고시 합격 = ② 중학교 졸업 ※ 현재 대학생 = ③ 고등학교 졸업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4년제 미만) 졸업 ⑤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⑥ 대학원(석사) 졸업 ⑦ 대학원(박사) 졸업 ⑧ 남한에서 학교를 졸업한 적 없음

* 남북한 학제 비교표

남북 통합학력	남한	북한
	구분	구분
초등학교 졸업 이하	초등학교	소학교 *인민학교(2002년 이전)
중고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초급중학교
	고등학교	고급중학교 *중학교(2012년 이전) *고등중학교(2002년 이전)
전문대학 졸업 이하	전문대학	전문학교(2016년 이전)
대학교 재학 이상	대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원(준박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박사원 (박사과정)

출처 : KOSIS)북한통계)교육)교육체계(통계청), 2020 참고하여 최근 학제 변화를 반영하여 재구성함.

※ 다음(문13~문16)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분(고졸 이하 및 재수생 등 비진학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3) 귀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 ④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 ⑤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⑥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14)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15) 귀하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까?(혹은 다니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문16으로 이동**

문15-1) 다니셨던(혹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고
- ② 자율형고
- ③ 대안학교
-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목고)
- ⑤ 과학/영재고(특목고)
- ⑥ 외국어/국제고(특목고)
- ⑦ 예술/체육고(특목고)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15-2)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다음과 같은 진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15-2-1)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15-2)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	문15-2-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 직업, 취업 상담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와 직업 수업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 직업 체험(현장 견학, 현장 직업체험, 직업실무 체험, 캠프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학과, 전공 체험(대학교 방문, 학과 및 전공 체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직업 특강·강의 및 설명회·박람회 참석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취업처 연계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고등학교 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고등학교 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고등학교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고등학교에서의 전공(계열)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대학 등록금”은 전문대(2~3년제) 또는 대학교(4~6년제)를 다니기 위해 지불한 등록금을 의미하며,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

☞ “학자금 대출”은 생활비, 주택 등을 위한 대출은 제외하고 “학자금 대출”이라는 이름이 붙는 금융상품의 이용뿐만 아니라, 학자금의 지불을 위하여 각종 기관 및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를 모두 포함

- ① 이미 모두 끝났다. ② 향후 1년 이내
-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 ⑦ 향후 10년 이상 ⑧ 갇지 못할 것 같다.

문18)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휴학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총 몇 년을 휴학했습니까?

- ① 예 _____ 년 ➔ **문18-1로 이동** ② 아니오

문18-1) 휴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워서 ② 학비 마련이 어려워서
③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④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⑤ 기타 _____

문19)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문20로 이동**

문19-1)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고도 졸업을 늦추거나 졸업을 늦추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이수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②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③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④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⑤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20)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대학에 한정)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학교육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대학교육이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에서의 학과(전공)가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1) 귀하는 한국 사회의 교육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문22~문30)은 모든 대상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2) 귀하는 국내입국 후 취업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 취업 준비 경험 기준, 취업자는
현 직장 취업 준비 경험 기준)

☞ 취업준비란 구직, 이직, 창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탐색 이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준비, 취업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도 취업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26로 이동

문22-1) 귀하는 취업을 얼마동안 준비하셨습니다?

()년 ()개월 (예: 6개월 일 경우 0년 6개월)

문23) 귀하는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 항	취업준비 경험	
(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받는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7) 취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① 예	② 아니오
(8) 현장실습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9)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① 예	② 아니오
(10) 인턴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1) 봉사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3) 희망하는 일자리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4)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① 예	② 아니오

문24)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24-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19) 도움 받은 경험	문19-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2) 공공기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등)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5) 친구, 선후배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문24-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문24에서 '예'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 항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하나센터, 남북하나재단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문25)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 시험 준비는 학교 재학 시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시험 준비를 의미하며, 공단(공사) 내부의 진급 시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있다

② 없다

문26) 귀하는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직업훈련은 취업 및 창업 준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 및 훈련과 인턴 근무 등도 포함합니다. 단순한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수강과 정규학교교육과 관련된 학원수강 및 실습(교생실습, 사회복지사 실습, 병원실습 등)은 제외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이미 받고 있다

문27) 귀하는 다음 교육 대책 중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 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정책(국가장학금, 학비 지원 등)

②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정책

③ 청년 진로관련 정책(진로상담, 진로교육 등)

④ 청년 직업교육 정책(취업지원센터, 일학습병행제 등)

⑤ 청년 인재양성 정책(청년인재 집중양성, 이공계 미취업자 산업맞춤 연수 등)

⑥ 대학특례입학

⑦ 기타(적을 것 : _____)

III. 「경제와 고용」

문28)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② 급여가 높은 회사
③ 유명한 회사 ④ 안정적인 회사
⑤ 퇴근이 빠른 회사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⑧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29)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한 본인 생활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오)

생활비 포함 내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문화생활비(오락, 문화생활, 도서구입 등), 학원수강비, 시험응시료, 취업을 위한 도서 등 자료 구입비, 주거비 등

약

 만 원

문29-1) 생활비 중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약		%

문30) 귀하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문31으로 이동

문30-1)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 가지만 선택)

- ① 학자금 마련 ②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③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④ 창업 자금 마련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30-2) 귀하는 어느 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은행 ② 제2금융권(저축은행) ③ 대부업체 ④ 기타(적을 것 :)

문31) 귀하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현재 부모님 및 친척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주거비용 및 냉/난방비 지출에 대해 본인이 모를 경우만 (1), (2)에 '⑨ 잘 모름'에 체크)

구 분	예	아니오	잘 모름
(1)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⑨
(2)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①	②	⑨
(3) 돈이 없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①	②	
(4) 돈이 없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했다	①	②	
(5) 돈이 없어서 휴일에 놀러가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했다	①	②	
(6) TV가 없다	①	②	
(7) 냉장고가 없다	①	②	
(8) 자동차가 없다	①	②	
(9) 타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집전화, 휴대전화)이 없다	①	②	

문32) 귀하가 생각하는'첫 일자리'란 무엇입니까?

본인이 실제로 한 첫 일자리가 아니라, 평소 본인이 생각하는 첫 일자리의 개념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란
(1) 학교 졸업 후 (2) 최소 6개월 이상 (3)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 처음으로 일한 일자리다.

	(1) 학교 졸업여부	(2) 근로 기간	(3) 주당 근로 시간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란	① 졸업과 상관없이 ② 졸업 후	① 최소 1일 이상 ② 최소 1주일 이상 ③ 최소 1개월 이상 ④ 최소 6개월 이상 ⑤ 최소 12개월 이상 ⑥ 최소 24개월 이상	① 최소 주당 1시간 이상 ②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	처음으로 일한 일자리다

문33) 창업을 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창업을 생각해보았고 실제로 창업을 했다
- ② 창업을 생각해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 본 적은 없다
- ③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문34) 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이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포함)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존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임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합 이전에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경우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

- ① 참여하고 있다 ☐ → **문34-1로 이동**
 ② 참여한 적이 있다 (참여년도 : 년) ☐
 ③ 참여한 적이 없다 ☐ → **문34-3로 이동**

문34-1) (문34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이전 청년취업성공 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함) 참여는 귀하의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 ☐ → **문34-2로 이동**
 ② 별로 도움 되지 않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도움이 되었다 ☐ → **문35로 이동**
 ⑤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문34-2) (문34-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 모두 선택)

- ① 지원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아서
 ② 지원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③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④ 지원기관 또는 담당자의 지원이 적절하지 못해서
 ⑤ 지원받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35로 이동**

문34-3) (문34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이전 청년취업성공 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함)을 알고 계시고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참여할 의향은 있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는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알고 있고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② 알고 있지만 참여할 의향이 없다
 ③ 모른다

문35) 귀하는 취업 준비 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35-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35) 참여한 경험	문35-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하나원 직업훈련교육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2)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하나원 수료 이후)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3) 하나센터 취업전문상담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4) 산업단지 온라인 구인·구직 포털(KICOXJOB)을 통한 구인·구직 매칭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5) 각종 채용박람회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6) 지자체 제공 취업교육 및 지원 (취업교육 및 언어·직응력교육 등)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7)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제공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8)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① 예 →	①	②	③	④	⑤
	② 아니오					

문36) 귀하는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음식배달앱, 대리운전앱, 프리랜서 마켓앱, 재능마켓앱, 유튜브 등)을 통해 일거리를 받고 이들이 중개하는 수당을 받는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대표 - 음식배달앱을 통한 배달업체 라이더
예시 - 대리운전앱을 통한 대리운전
- 재능공유앱 등 플랫폼을 통한 디자인, 콘텐츠 제작 의뢰
- 유튜브 편집자

① 예 → **문36-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37로 이동**

문36-1) 귀하는 지난 4주 동안 이 일을 수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 **문36-2로 이동**

② 아니오 → **문37로 이동**

문36-2) 귀하는 지난 4주 동안 이 일을 주업으로 수행하십니까?

① 예 (주업임)

② 아니오 (부업임)

문37) 귀하는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십니까?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입니다.

① 일을 하였음 ☐ → **문37-1로 이동**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③ 일을 하지 않았음

문37-1) (문37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지난주에 총 몇 개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였거나 휴가·일시휴직 상태였습니까? (투잡, 쓰리잡 등 동시에 갖고 있는 일자리의 개수를 의미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이상

→ **응답 후 문38로 이동**

문39)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실제로 얻는 세금 납부 후 기준 월 평균 소득과 귀하가 원하는 월 평균 소득, 실제로 일하는 노동시간, 귀하가 원하는 주 노동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1) 현재 본인의 월 평균 소득 : 약 만 원

(2) 본인이 원하는 월 평균 소득 : 약 만 원

(3) 현재 본인의 주당 노동시간 : 약 시간

→ 주당 35시간 미만일 경우 문 38-3-1로 이동, 35시간 이상일 경우 (4)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으로 이동

문39-3-1) 귀하는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① 있었음

② 없었음

문39-3-2) 귀하는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었음

② 없었음

(4) 본인이 원하는 주당 노동시간 : 약 시간

문40) 직장(일자리)에서 본인이 조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받고 있지 못하다

② 받고 있지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받고 있는 편이다

⑤ 충분히 받고 있다

문41) 현 직장(일자리)을 그만두고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업 준비, 업종 변경 등도 이직 준비에 포함됩니다.)

① 있다 → 문41-1로 이동

② 없다

문41-1)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② 개인발전/승진

③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④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⑦ 개인 사업을 위해서

⑧ 건강상의 이유로

⑨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문42)은 임금근로자의 현재 일자리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취업 상태인 임금근로자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42) 귀하는 현재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근로자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업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9)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10)의 '위험한 근로환경', 이란, 기계 등의 진동, 심한 소음,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실내/실외에 관계없이 낮은 온도, 연기, 먼지(목분진, 광물 분진 등) 등의 흡입, 신너 등 유기용제 증기 흡입,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 다른 사람이 피는 담배연기, 폐기물, 체액, 실함물질 등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경우를 의미함.

문 항		있다	없다	모르겠다
직 장 내 괴 롭 힘	(1)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떠넘겼다.	①	②	③
	(2)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나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3) 고용주, 직장상사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간접적·직접적으로 강요하였다.	①	②	③
	(4)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화식 참여를 강요하였다.	①	②	③
	(5) 교육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나를 다른 동료들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였다	①	②	③
	(6)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암묵적·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내 요구를 무시하였다(병가, 휴가, 휴직, 교육훈련 등)	①	②	③
	(7)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 (이메일, 메시지, 전화 포함/성적 농담, 성추행 등 포함)	①	②	③
	(8) 고용주, 직장상사 혹은 동료가 업무 외의 대화나 식사, 모임 등에서 나를 조직적으로 제외하였다.	①	②	③
산 업 안 전	(9)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혹은 교육을 받았다.	①	②	③
	(10)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근로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다.	①	②	③
	(11) 업무수행 중 업무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 (11)번에 ①있다 로 응답한 경우 (12)번을 응답, ②없다, ③모르겠다로 응답한 경우 문42로 이동				
(12) 산업재해보험 급여(병원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보상금 등)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 현재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문43)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 2년 미만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문44) 귀하는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44-1로 이동**

문44-1) 다음의 각 항목이 지난주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되는지 응답해 주세요.

구 분	예	아니오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①	②
(2)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①	②
(3)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①	②
(4)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①	②
(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①	②
(6)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①	②
(7)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8)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9)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①	②
(10)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①	②
(11)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①	②
(12)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3)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4)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①	②
(15)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①	②
(16)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①	②
(17)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문44-2) 위의 항목에서 '예'로 응답한 항목 중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하나만 선택)

() 번

※ 다음(문45~문47)은 이전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든 대상자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5)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로 응답 해 주세요.

- ①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 ②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 ③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 ④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 문46으로 이동

문46) 직장을 그만두었을 당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① 예 → 문47로 이동

② 아니오

문47)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47-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 ②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 ③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 ④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 ⑤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IV. 「주거」

문48)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임대주택 포함)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② 향후 1년 이내
③ 향후 1년 이상 3년 미만	④ 향후 3년 이상 5년 미만
⑤ 향후 5년 이상 7년 미만	⑥ 향후 7년 이상 10년 미만
⑦ 향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⑧ 향후 20년 이후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문49~문56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께서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9)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문49-1로 이동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문50로 이동
④ 그렇다	→ 문49-2로 이동
⑤ 매우 그렇다	

문49-1) '내 명의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주시시오)

- ① 높은 집값 때문에
- ② 자가마련을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 ③ 자산 증식 및 보전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 ④ 이사를 자주 해야 할 상황이라서
- ⑤ 자가 보유 여부보다는 거주지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응답 후 문50로 이동

문49-2) '내 명의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주시시오)

- ①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 ② 이사하지 않고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있어서
- ③ 자산 증식 및 보전을 위해서
- ④ 자가가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 ⑤ 집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50) 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
- ② 휴식의 공간
- ③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 ④ 나만의 사적인 공간
- ⑤ 생리위생 및 세탁, 식사를 위한 공간
- ⑥ 자산 증식을 위한 중요한 수단
- ⑦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공간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51) 향후 주거 마련에 있어서 다음 항목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주거비용(매매가격, 전월세가격 등)
- ② 주택유형(아파트, 다세대/빌라, 원룸(다가구), 오피스텔 등)
- ③ 주택상태(주택규모, 노후도, 방의 개수, 인테리어 등)
- ④ 주택위치(직장/학교와의 거리, 부모님과의 거리)
- ⑤ 주거환경(의료/문화/상업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성, 교통, 교육환경 등)
- ⑥ 향후 주택 가격 변화(미래 자산가치 상승 기대)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52)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동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학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 ③ [독립]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상태이다
(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문52-1) (문52에서 ②,③ 응답자만) 귀하는 현재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53)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원룸(다가구) :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 ② 아파트
- ③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 ④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 ⑤ 하숙
- ⑥ 기숙사
- ⑦ 고시원
- ⑧ 단독주택
- ⑨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운영회사 등

문54) 귀하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금이 있는 월세 (임대주택 포함)
- ④ 보증금이 없는 월세
- ⑤ 사글세, 연세, 일세 등
- ⑥ 무상

문55) 주거비용 마련은 누가 하셨습니까?

- ☞ 주거비용은 자가인 경우 구입 비용, 전세인 경우 전세금,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 월세 등을 의미함

☞ 금융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누가 갚느냐를 기준으로 응답함

- ① 전부 본인 스스로
- ②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 ③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 ④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56)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본인 명의로 금융대출을 받으셨습니까?

① 대출을 받았음

② 대출을 받지 않았음

문56-1) (문56에서 ① 응답자만) 주거비용 중 본인 명의로 받은 금융대출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 미만
- ② 10% 이상 30% 미만
- ③ 30% 이상 50% 미만
- ④ 50% 이상 70% 미만
- ⑤ 70% 이상 90% 미만
- ⑥ 90% 이상
- ⑦ 모름

V. 「건강」

문57)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58) 귀하는 지난 1년간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문59) 귀하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 ① 병원 진찰 후 치료 받음 → **문60로 이동**
- ② 병원 방문 없이 약간 복용하거나 바름
- ③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음 → **문59-1로 이동**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문59-1) (문59에서 ②,③,④ 응답자만) 귀하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③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 ④ 증상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60)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VI. 「가치관」

문63)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항목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 선호 정도 →								항 목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5) 타인의 이목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신의 주관 중시

문64)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재산·경제력
- ② 화목한 가정
- ③ 자아성취
- ④ 건강
- ⑤ 감사·긍정적 태도
- ⑥ 종교생활
- ⑦ 직업·직장
- ⑧ 연인(이성관계 등)
- ⑨ 친구·대인관계
- ⑩ 꿈·목표의식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문65)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66) 다음 중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 상관없이 3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중요 가치1		중요 가치2		중요 가치3	

- ① 경제적 부

② 공정
- ③ 노력

④ 다양성
- ⑤ 신뢰

⑥ 자립
- ⑦ 자유

⑧ 재미
- ⑨ 정의

⑩ 존중
- ⑪ 지속가능성

⑫ 평등
- ⑬ 기타(적을 것 : _____)

문67) 귀하는 다음의 문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소득이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비정규직 일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일은 힘들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	①	②	③	④
(4) 직장의 업무 내용이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원하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 또는 출산도 포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Ⅶ. 「관계 및 참여」

문6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이 있으십니까?

문 항	없다	있다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①	②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문68-1) 귀하는 다음의 각 집단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대면 형태로 평소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주일에 매일 같이 사람들과 만난다면 직접 만나는 교류에서 '거의 매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1)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2)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 (업무 상 교류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문68-2) 귀하는 다음의 각 집단의 사람들과 인터넷(SNS), 전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평소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주일에 매일 같이 온라인으로 연락한다면 '거의 매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1)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2)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 (업무 상 교류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문69)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주위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스스로 적극적이고 호의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가 원할 때에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 문69-(18)에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 문70로 이동, 그 외는 문71로 이동

문70) (69-(18)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내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2년 미만
- ④ 2년 이상 3년 미만
- ⑤ 3년 이상

문71)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72) 귀하께서는 성인이 되기 전 시기(아동청소년기)에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없다	있다
(1)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①	②
(2)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①	②
(3)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①	②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①	②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①	②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①	②

문73) 귀하께서는 성인이 되신 이후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없다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①	②
(2)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	①	②
(3)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	①	②
(4) 내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①	②
(5)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	①	②

문74) 귀하는 현재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아니다 ➔ **문75으로 이동**

② 그렇다

문74-1) (문74에서 ② 그렇다 응답자만) 다음 중 귀하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소속감을 느끼시는 집단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나의 가족
- ②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 ③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 ④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 (환경활동, 구호활동, 정치활동 모임 등)
- ⑤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 (직업 기반 협회 또는 조합 등)
- ⑥ 온라인 커뮤니티(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인터넷 사이트 등)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75) 사회·정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거의 매일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으로)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5) 항의 전화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76)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77) 귀하는 청년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인구 및 가족 (출산 휴가, 출산 장려금, 육아 휴직, 아동수당 등)
- ② 교육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
- ③ 진로 및 훈련 (진로상담, 진로교육, 직업훈련 등)
- ④ 고용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확대, 일자리의 질 개선 등)
- ⑤ 경제 (채무부담 경감, 생활비 지원 등)
- ⑥ 주거 (청년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 ⑦ 건강 (청년 건강검진 지원, 심리지원 서비스, 체육시설 확대 등)
- ⑧ 관계 및 정치·사회 참여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 정책참여 보장, 청년 공간 확대 등)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78) 다음의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중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서비스를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문항	필요 하다	필요하지 않다
(1)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인간관계 고민 등)	①	②
(2) 복지·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생계급여, 청년수당 등)	①	②
(3)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①	②
(4) 취업·진로 상담 서비스 (취업준비, 일자리 알선 등)	①	②
(5) 청년 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 (동아리 및 소모임 구성 등)	①	②
(6)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 (기술교육, 직업교육 등)	①	②
(7) 건강검진 서비스 (신체건강검진, 정신건강검진 등)	①	②
(8) 주거지원 서비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제공)	①	②
(9) 문화·취미 지원 서비스 (독서, 영화, 취미 지원)	①	②
(10) 기타(자세히 적을 것 :)	①	②

➔ **문78에서 (1)(2)(3)(4) 항목 중 1가지 상응이라도 ①필요하다 응답 시 문78-1로 이동**

문78-1)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때 상담사를 만나는 방법으로 다음 중 어느 방법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 ① 내가 담당 센터에 찾아가는 방법(센터 방문)
- ②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온라인 화상회의 등)
- ③ 상담사(담당자)가 내 집으로 찾아오는 방법(가정 방문)
- ④ 상담사(담당자)가 내 집 근처의 장소로 찾아오는 방법(카페, 공용 회의실 등)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요인별-연령별 탈북 동기

			2017		2018		2019		2020		2021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정치적 배출요인	북한 체제의 감시·통제가 싫어서(자유를 찾아서)	전체	23.6	42.1	25.3	43	21.5	38.4	20.5	36.2	22.8	41
		15~19세	3.2	19.1	4.7	18	3.7	12.8	3.9	13.5	5.2	11.3
		20대	19.5	34.3	17.1	31.5	18.5	31.3	16	28.8	15	31.2
		30대	26.9	42.5	30.5	47	21.8	39.2	20.6	34.6	25.3	40.2
		40대	24.2	46.3	27.4	45.4	22.9	41.3	19.7	36.2	24.7	46.2
		50대	27.1	45.8	28.5	49.7	23.9	39.8	27.3	44.1	24.8	44.6
		60대 이상	20.7	41.9	17.9	37.9	21.4	43.1	20.6	41.3	20.8	40
		연령별	6.5	18.9	5.8	15.8	6.8	16.4	5.5	14.9	5.7	14.7
		전체	0.5	3.8	2.4	5.3	0.7	4.6	1.1	3.4	2.5	5.5
		15~19세	2.8	9.8	2.7	10.4	3.5	11.5	2	6.8	1.6	6.8
경제적 배출요인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20대	6.4	18	4.9	12.9	6.3	13.8	3.8	13	4.9	12.8
		30대	8	22	7	17.5	7.3	18.2	5.9	17	6.9	17.1
		40대	10	27.4	8.1	22.8	9.3	21.9	7.2	18.8	7.7	19.2
		50대	4.6	19.3	7.3	17.7	8.8	18.2	10.7	20.5	5.9	15.2
		60대 이상	22.9	27.8	22.5	29.5	23.5	31	22.8	31.3	21.6	28.5
		연령별	5.1	8.1	5.7	9.4	1.9	4.2	3.5	8	2.3	5
		전체										
		식량이 부족해서										
		연령별										
		15~19세										

		2017		2018		2019		2020		2021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20대	11.6	16.9	11.7	16.2	9	13.7	7.2	13.5	6.3	11.2
			30대	21.5	27.2	22.8	30.6	23.6	31	24.9	33.5	20.5	27
			40대	28.7	33.4	27	33.8	29	35.6	26.2	36.6	26.5	34.2
			50대	22.1	25.8	24.2	31.2	25.4	36.8	28.6	35	23.4	31.4
			60대 이상	34.9	40.4	28.8	40.5	32.1	41.6	23.8	33.5	28.7	36.1
		전체	소계	10.2	32.4	9.6	30.9	9.9	30.3	9.8	30.2	10.7	31
			15~19세	2.3	7.9	1.6	9.4	0.9	5.6	1.3	9.8	0.7	6.9
			20대	9.5	29.6	8.9	26.9	10.4	24.4	8.5	22.6	6.5	20.1
			30대	13.2	39.2	12.6	37.4	12.5	37.8	9.5	32.1	12.2	35.2
			40대	11.1	34.8	9.9	33.8	10.8	31	14.4	36.9	14	35.5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전체	50대	7.3	31.7	9.6	29.3	9	33.7	8.2	33.7	11.4	34.9
			60대 이상	6.6	17.5	3.1	17.5	3.8	18.3	5.1	16.7	4.2	20.1
			소계	7.3	10.9	7.3	11	7.8	10.5	7.8	11.2	7.8	11.7
			15~19세	46.4	61.7	48.3	56.9	56.2	63.3	57.2	66.4	58.4	67.8
			20대	19.6	25.6	18.4	25.2	23.2	27.9	23.1	30.4	25.6	32.4
		연령별	30대	5.3	8.7	5.7	9.4	4.8	7.1	6.3	10.5	6.6	11.3
			40대	2.3	3.7	2.1	4.3	2.4	5	2	3.4	1.5	3.2
			50대	2	4.4	3	4.4	3.6	4.8	2	3.8	3.2	5.3
			60대 이상	4	9.3	5.4	11.5	1.4	4.4	5.4	8.3	5.3	12.1
			소계	7.3	10.9	7.3	11	7.8	10.5	7.8	11.2	7.8	11.7
사회적 배출요인	북한에 함께 있던 가족을 따라서	전체	15~19세	46.4	61.7	48.3	56.9	56.2	63.3	57.2	66.4	58.4	67.8
			20대	19.6	25.6	18.4	25.2	23.2	27.9	23.1	30.4	25.6	32.4
			30대	5.3	8.7	5.7	9.4	4.8	7.1	6.3	10.5	6.6	11.3
			40대	2.3	3.7	2.1	4.3	2.4	5	2	3.4	1.5	3.2
			50대	2	4.4	3	4.4	3.6	4.8	2	3.8	3.2	5.3
		연령별	60대 이상	4	9.3	5.4	11.5	1.4	4.4	5.4	8.3	5.3	12.1
			소계	7.3	10.9	7.3	11	7.8	10.5	7.8	11.2	7.8	11.7
			15~19세	46.4	61.7	48.3	56.9	56.2	63.3	57.2	66.4	58.4	67.8
			20대	19.6	25.6	18.4	25.2	23.2	27.9	23.1	30.4	25.6	32.4
			30대	5.3	8.7	5.7	9.4	4.8	7.1	6.3	10.5	6.6	11.3
			40대	2.3	3.7	2.1	4.3	2.4	5	2	3.4	1.5	3.2
			50대	2	4.4	3	4.4	3.6	4.8	2	3.8	3.2	5.3
			60대 이상	4	9.3	5.4	11.5	1.4	4.4	5.4	8.3	5.3	12.1

			2017		2018		2019		2020		2021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먼저 탈북한 가족을 찾거나 함께 살기 위해	전체	소계	9.7	13.1	9.4	13	10.1	13.6	10	13.6	10.4	14.1
		15~19세	28.8	37.2	20.2	24.5	23.3	29.3	17.5	21.5	16	23.8
	연령별	20대	17.5	20.9	17.5	22.7	18.7	23.6	18.3	23.3	21.6	27.1
		30대	8.2	11.9	8.1	10.8	9.7	12.6	13.5	16.8	10.4	15.5
		40대	4.9	6.8	5.9	7.8	5	8.3	4.8	6.9	6	8.3
		50대	7.3	9.9	4.3	8.1	7.5	8.9	4.5	6.8	6.5	8.6
		60대 이상	13.9	21.6	18.9	27.5	15.2	21.9	12.9	21.5	15.8	20.3
	전체	소계	3.2	11.3	4.1	11.7	4.2	11	4.9	13	4.8	11.4
	연령별	15~19세	5	18.4	4	14.7	6.2	21.1	6.8	20.7	5.8	17
		20대	5.6	19.6	8	18.5	4.8	16.8	8.6	21.2	11.2	21.1
		30대	2.9	11	3.7	11.6	4.5	11.4	4.9	13.8	4.1	10.2
		40대	1.8	7.4	3.2	9.8	4.2	10.1	3.7	12.1	3.8	9.1
		50대	3.7	9.2	2.6	9.3	2	5.4	2.8	6.7	2.8	7.9
주변 사람(가족 제외)의 권유로	전체	60대 이상	3.3	10.8	4.1	9.2	6.3	11.3	6.3	11.6	5.5	14.6
		소계	2.1	7.3	1.9	7.3	2.8	8.4	2.9	8.6	3.2	8.7
	연령별	15~19세	1.1	4.8	1.2	5.5	1.3	6.7	1.8	8.2	1.2	4.2
		20대	2.2	8.5	3.3	8.9	2.6	9.7	4.9	12.7	2.6	10.8
		30대	2.5	8.1	1.7	8.1	3.4	10.2	2.9	9.2	5	10.5

			2017		2018		2019		2020		2021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1순위	1+2순위	
가족(자녀 등)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주려고		40대	2.3	7.8	2	7.9	3.8	9.9	3.5	9	2.7	11.3	
			1.8	6.3	1.1	4.6	1.2	5.3	2	6.8	2.8	4.3	
			0.5	2.9	1.9	5	1.6	2.9	0.7	4.4	2.3	5.3	
			60대 이상	12.4	20.1	12.5	20.1	11.1	17.2	13.1	19.4	10.7	17.4
		전체	15~19세	6.8	13.5	9.8	16.6	4.5	9.6	6.3	9.2	7.5	11.8
			20대	9.9	16.5	10.7	17.6	6.9	11.8	9.6	14	6.8	8.7
			30대	11	17.3	8.8	15.7	11.2	16	10.7	16	9.1	16.3
			40대	14.2	21.9	14	22.6	12.3	18.2	16.3	22.6	12.5	20.3
		연령별	50대	16.4	26.3	17.5	25.5	15.3	21.7	16.7	26.3	13.4	20.3
			60대 이상	10.4	21.1	11.3	18.8	7.2	19.1	10.5	16.5	9.7	17.7
			소계	2.1	3.9	1.4	2.8	2.3	4.1	2.6	3.8	2.3	4.8
			15~19세	0.9	2.8	2.1	3.3	1.4	2	0.6	2.4	0.3	4.2
	전체	20대	1.7	3.4	1.8	3	2.4	4.8	1.7	3.8	2.9	5.6	
		30대	2.1	4.1	1.2	2.6	2.3	3.4	2.9	3.2	1.9	3.3	
		40대	2.5	3.8	1.5	3.2	2.2	4.2	3.6	4.5	1.4	2.9	
		50대	2.3	3.5	1.2	2.3	2.8	5.2	0.8	2.1	4.1	8.8	
	기타	60대 이상	1.1	4.9	1.3	2.9	2.2	3.3	4.2	7	1.8	4.6	

국문초록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해서 20~30대 청년층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젊은 계층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수요를 파악해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탈북 현상의 장기화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와 유형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정부의 북한이탈주민법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배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북한배경청년’은 한국 정부의 청년기본법상의 기준을 고려하여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출생 청년 및 비(非)북한출생(제3국출생, 남한출생) 청년을 이르는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출생 청년과 중국 등 제3국출생 청년 두 하위 집단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지원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규명했다. 둘째, 북한배경청년의 주요 범주별 차이를 규명하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취약한 북한배경청년 집단의 주거, 생활, 취업, 심리·정서 등의 실태를 북한배경청년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셋째, 북한배경청년의 정착자립과 정책소외 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 개선방안,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실태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In today's era, when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has passed 30,000, more than half of whom are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needs of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as part of promoting policies to meet those needs has been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current state of youth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who are excluded from existing support policies or left in the blind spo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As a result of prolonged defection phenomena that have led to changes in defectors' motives and types of entry into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to further promote their settlement and social integr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tandards specified in South Korea's Framework Act on Youth, the term "youth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refers to individuals between 19 and 34 years old who were born either in North Korea or a third country before entering South Korea, as well as those who were born in South Korea as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is study, the main subjects of analysis were two subgroups consisting of individuals born in North Korea and those born in a third country such as China.

The study first identified the trend of changes in statutes and systems related to settlement support for youth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support policies and services.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urrent housing, living, employment,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onditions of youth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who are vulnerable or marginalized from existing support policies after identifying ke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ubgroups. Third, plans to improve the legal and support service implementation systems and measures for improving the current conditions and capacity building for youths with North Korean backgrounds were presented as a means of supporting their settlement and self-reliance, as well as protecting those excluded from the benefit of existing support policies.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황여정·임희진·오승근
연구보고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연구보고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연구보고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연구보고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연구보고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연구보고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연구보고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연구보고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연구보고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연구보고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연구보고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연구보고22-일반03-01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종단자료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이상정·박광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김지연·백혜정·김미향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장인숙·박환보·최종학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지원정책 평가 / 홍성효·장수명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유진·박찬걸

수 탁 과 제

〈 일 반 〉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욱·오옥찬·조양진
-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현주·김균희
-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연구보고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연구보고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연구보고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연구보고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연구보고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연구보고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연구보고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숙희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위 크 쑈 〉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포 럼 〉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하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70호 디지털 성범죄
- 71호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73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협동연구총서 22-80-03
연구보고22-일반08-02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83-1 94330
979-11-5654-380-0 (세트)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83-1
ISBN 979-11-5654-380-0(세트)